

자연이 살아 숨쉬고
인심 좋은 풍요의 고장

전 동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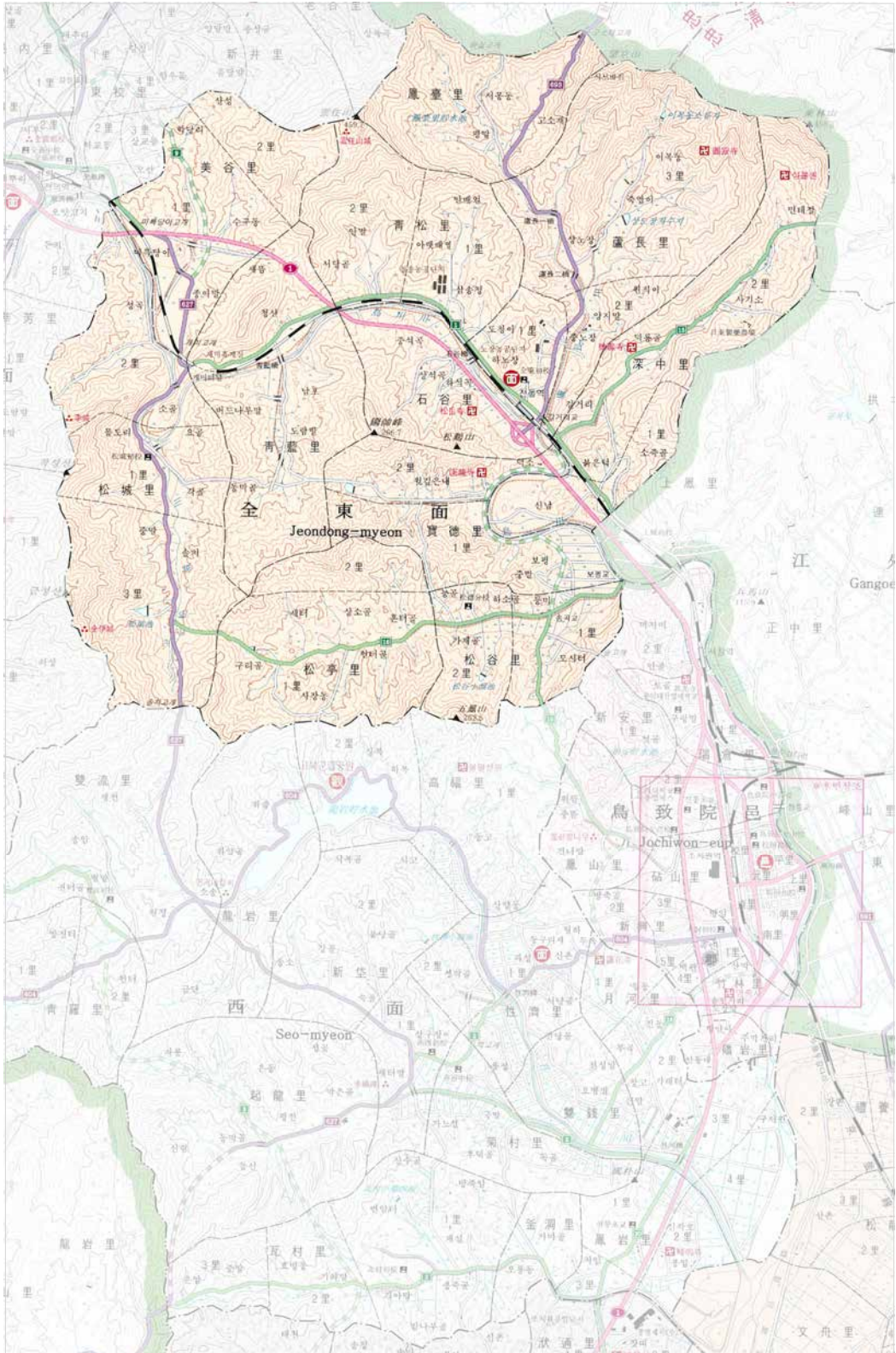
【일러두기】

1. 편찬방침

- 이 책의 편찬목적은 연기군 전동면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관련 자료를 총망라하여 전동면의 과거에서 오늘까지를 정리하기 위한 것임.
- 편찬에 앞서 전동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한 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연구진 및 각 분야 전문가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하였음.
- 이 책은 '총괄편'과 '마을편'으로 나뉘며 총괄편에 지리, 역사, 행정과 정치, 산업과 경제, 민속, 문화유적, 기관 및 단체를 서술하고, 마을편에는 전동면의 23개 행정리에 대한 답사와 설문을 통해 마을의 문화와 전통을 서술함.
- 원고 집필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전문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 감수위원으로부터 내용 감수를 받았음.
- 목차의 구성과 내용의 전개는 전동면의 특성이 최대한 표현되도록 하였음.

2. 서술내용

- 이 책은 선사시대에서 2010년까지 전동면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함.
- 글의 수준은 간결하고 평이하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서술하였음.
- 원고에는 각주가 없으며,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미주 또는 문단 끝에 별도 정리하였음.
-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음.
- '총괄편'의 통계자료는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전동면사무소의 소장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문화유적은 2004년 발간된 『연기군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참고하였으며,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행정리를 가나다 순으로 하였음.
- '마을편'은 연구진이 직접 답사하고 주민들의 면담을 통해 정리된 것이므로 제보자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인접 마을 간에는 중복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음.
- '마을편'의 기본 통계는 각 마을 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및 설문에 의하므로 총괄편의 통계와 다를 수 있으며 단위 중 '평'·'리' 등은 기록 당시의 내용이나 주민들의 면담 내용을 서술하는 경우에 한정하였음.



행정지도



해동지도 전의현



1872년 전의현 지방지도중 전동면 지역



전동면 위성사진



보덕리를 지나는 조천[새내]



개미고개 (청람리)



박안생 묘역 (송정1리)



김남중 묘역 (송곡2리)



안동김씨 묘역 (미곡2리)

(김휴 유허비)



조계원 묘역 (송정1리)

(조계원 신도비)



충익사
(송곡2리)



충정사
(송성3리)



고산사
(미곡2리)



효부 나주나씨 정려(보덕1리)



열녀 기계유씨 정려(석곡리)



마곡1리 미륵



백제의 얼 상징 탑(운주산 정상)



운주산성 (동문지)



보덕2리



노장2리



미곡1리



송정1리



봉대리



송곡2리



석곡리 보호수



심중2리 보호수



송성1리 보호수



송성2리 보호수



베어트리파크 (송성2리)



베어트리파크의 곰 사육장



국제만화로 (전동역 주변)



뒤웅박고을 (청송1리)



옛 면사무소 (1984년 이전)



면사무소 내부



전동초등학교



전동역



전동파출소



연기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심층2리)



연기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수영장



주민자치센터 개청식



전동향토지 발간추진위원회 설명회



전동향토지 감수위원회

발간사



김 옹 기
전동향토지발간추진위원장

우리 전동면은 운주산과 동림산 그리고 금성산이 아우르는 산자수려하고 기름진 땅과 후덕한 마음으로 넉넉한 삶을 누려 온 마음의 고향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의 삶과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분들의 협조와 노력 끝에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역사를 갖게 되어 면민은 물론 먼 타향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민과 함께 그 벅찬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환희와 격동, 굴곡의 역사도 면면히 이어 온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작은 것들을 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들의 재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어렵던 시절 짚신만들기 등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금번 전동면 역사 이래 최초로 발간하는 전동면지는 이러한 작은 것은 물론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대관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발간작업이 늦게 시작된 이유로 우리 고장의 생생한 역사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았기에 보다 풍족한 자료를 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년여동안 전동면지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위원님, 감수위원님,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변평섭원장님과 연구원 여러분, 발간에 협조하여 주신 주류성출판사 최병식 박사님은 물론 면민 여러분과 출향인사, 유한식 연기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발간되는 전동면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의 등대가 되고 후손에게는 고향을 사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하며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은 후세들에게 과제로 남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변영호
전동면장

유구한 역사와 문화전통이 담긴 다양한 사료를 집대성한 전동면지 발간을 전동면민을 대표하여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동면지 발간을 위해 지난 2년여간 심 없이 내달려온 ‘전동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위원님과 그간 자료제공 등 발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동면은 운주산, 금성산 등 지역의 대표 명산이 자리한 산자수명한 지역으로서 고대로부터 선조들이 터 잡아 살아오면서 특색 있는 향토문화를 꽃피워 온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오면서 살아 숨 쉬는 우리고장의 뿌리와 전통의 맥을 찾아 계승하고 보존하는 것은 문화민족으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우리 세대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고장의 내력과 역사, 문화, 행정, 경제 등 선조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집대성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작업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장의 뿌리 깊은 역사를 재조명하고 기록한 전동면지의 발간은 면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통해 화합과 결속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고, 전국 각지에 나가 있는 향우들에게는 애향심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전동면지 발간을 위하여 힘써 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쪼록, 많은 분들의 노고를 통해 발간하는 이 귀중한 자료가 부디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 후손들에게도 면면히 전승발전되어 나감으로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간사



변 평 섭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전동면의 역사와 전통문화, 그리고 향토 자료를 집대성한 『전동면지』가 발간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동면은 오랜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지역입니다. 우뚝 솟은 운주산은 고대의 산성 유적을 품고 있고, 이성(李城)과 금이성(金伊城)도 전동면의 지정학적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서울과 남도를 잇는 호남대로는 통과하고 현대에는 경부 선과 1번국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다른 어느 고장보다도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소통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조선초기의 청백리와 임진왜란의 충신, 그리고 대대로 전동면에 그 흔적을 남긴 수많은 효자와 열녀는 전동면 사람들의 끈은 품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니, 그분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긍심을 발현하는 일일 것입니다.

최근 현대화 과정에서 지역의 어려움이 많지만, 내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고 깊은 관심을 갖는 전동면민의 의지는 이와 같은 전통과 정신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전동면의 역사와 문화가 잊혀지지 않고 후손에게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 역시 향토애를 마음 깊이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전동면의 전통과 향토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켜온 면민 여러분과, 전동향토지발간추진위원장님,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면지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동면지』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1년 12월

■ **총괄편**

제1장 전동면의 지리	제1절 자연 지리	28
	제2절 인문 지리	51
제2장 전동면의 역사	제1절 선사에서 백제로	120
	제2절 통일신라시대	130
	제3절 고려시대	133
	제4절 조선시대	136
	제5절 일제강점기	152
	제6절 현대시기	164
제3장 전동면의 전통문화	제1절 민간신앙	194
	제2절 세시풍속	205
	제3절 구비전승	217
제4장 전동면의 행정과 정치	제1절 일반적 행정현황	224
	제2절 행정조직 및 인력	246
	제3절 지방자치와 선거	250
제5장 전동면의 산업과 경제	제1절 농업	264
	제2절 생산물 및 소득	274
	제3절 축산업	277
	제4절 산업구조	279
	제5절 관광산업	290
제6장 전동면의 문화유적	제1절 지정문화재	296
	제2절 관방유적	303
	제3절 불교유적	305
	제4절 유교유적	308
	제5절 묘·석물·금석문	310
	제6절 요지	316
	제7절 유물산포지	322
	제8절 기타유적	326
제7장 전동면의 기관·단체	제1절 공공기관	332
	제2절 교육기관	342
	제3절 복지시설	348
	제4절 사회단체	364
	제5절 종교단체	380

■ 마을편

노장1리	385
노장2리	394
노장3리	406
노장4리	413
노장5리	419
미곡1리	431
미곡2리	440
보덕1리	459
보덕2리	468
봉대리	479
석곡리	488
송곡1리	498
송곡2리	515
송성1리	526
송성2리	535
송성3리	545
송정1리	558
송정2리	574
심중1리	587
심중2리	597
청람리	607
청송1리	619
청송2리	631

총괄편

全／東／面／誌

제1장

전동면의 지리

제1절 자연 지리

제2절 인문 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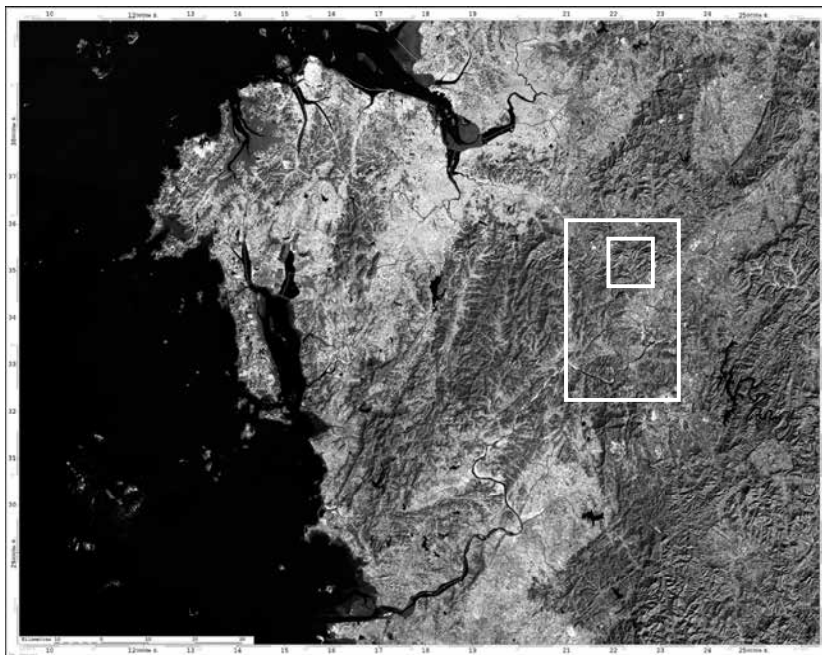
제1절

자연 지리

1. 위치와 영역

1) 위치

연기군은 충청남도의 동부에 입지해 있고, 전동면은 연기군의 북부에 입지해 있다. 전동면은 동쪽으로 충북 청원군 강외면(江外面)·옥산면(玉山面), 서쪽으로 전의면(全義面), 남쪽으로 서면(西



〈사진 1〉 충청남도의 인공위성 영상(Landsat 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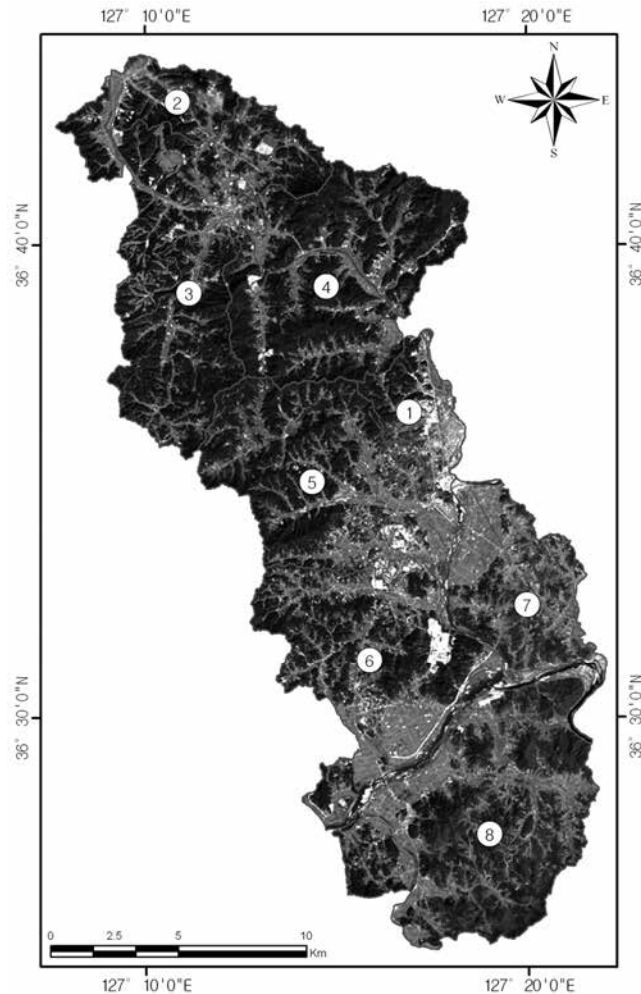
주 : 큰 네모 면은 연기군 부분이며, 작은 네모 면은 전동면 부분임.

출처 :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10~11)

면)·조치원읍(鳥致院邑), 북쪽으로 천안시 수신면(修身面)·성남면(城南面)과 경계를 이룬다. 면의 대부분이 해발 고도 200~400m 안팎의 산지를 이루고 있다.

인접 지역과의 경계부에 비교적 높은 산지가 발달되어 있는데, 동쪽으로는 동림산(東林山, 458.3m), 서쪽으로는 국사봉(國士峰, 402.8m), 남쪽으로는 오봉산(五鳳山, 262.5m), 북쪽으로는 운주산(雲住山, 459.7m), 망경산(望京山) 등이 있다. 면의 중앙부에도 국사봉(國師峰, 266.7m) 등의 산지가 있다.

면의 중앙을 거쳐 조치원 쪽으로 흘러가는 금강(錦江)의 지류 조천(鳥川) 주변과 조천으로 유입하는 소하천 연변에 논이 형성되어 있고, 주위의 구릉지에 밭이 조성되어 있어서 주곡 외에 복숭아, 사과, 배, 감 등이 다양하게 산출되며, 특용 작물로 목화, 참깨, 들깨, 잎담배 이외에 표고 버섯, 시설 채소 등이 생산되고 특히, 한우, 돼지, 닭 등도 활발히 사육된다.



〈사진 2〉 연기군의 항공 사진

주 : ①조치원읍, ②소정면, ③전의면, ④전동면, ⑤서면, ⑥남면, ⑦동면,
⑧금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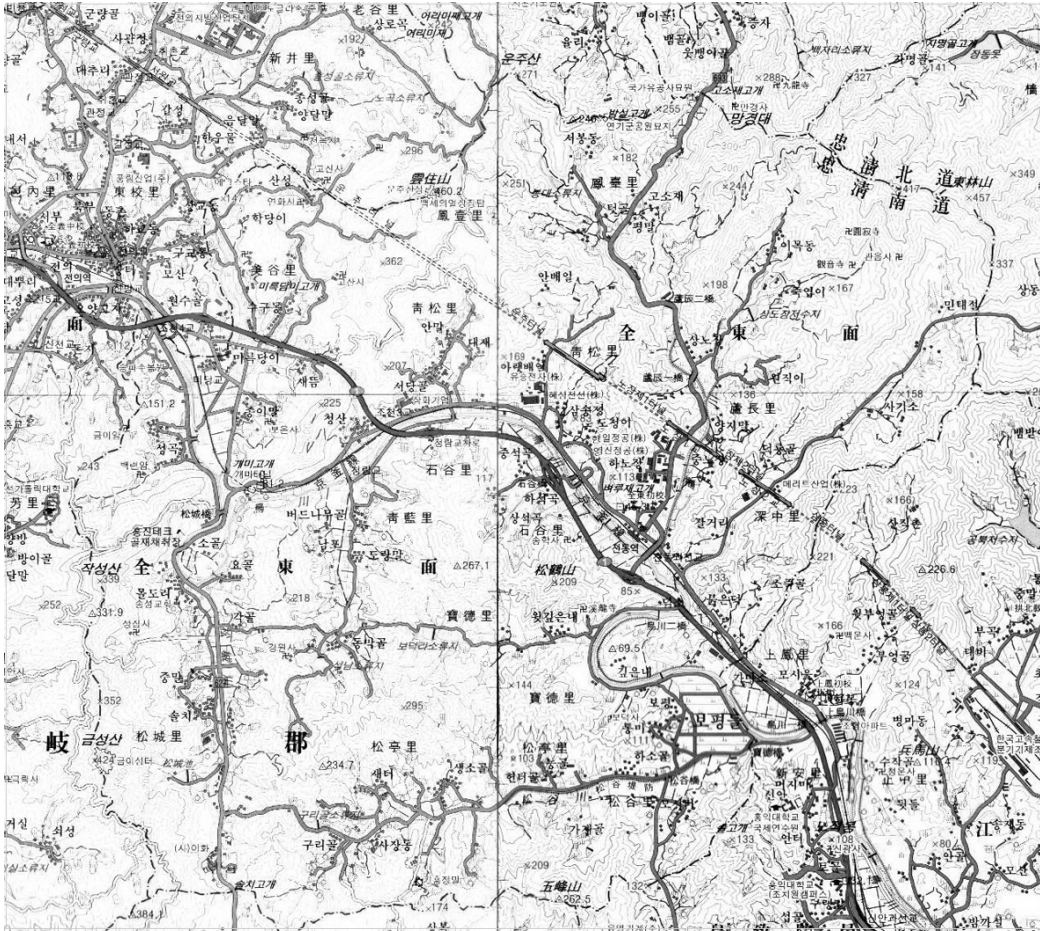
출처 : <http://www.kari.re.kr>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조천과 나란히 경부선 철도와 1번 국도가 통과하고 1번 국도가 동서로 분기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이에 따라, 전동면의 생활권은 연기군내의 조치원읍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천안·청주 등의 인접 지역까지 확대되어 있다. 면사무소 인근에는 1927년에 설치된 전동역이 있다.



〈지도 1〉 행정 구역도

주 : 연기군의 법정면과 법정리가 표시되어 있다.



〈지도 2〉 전동면 일대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

주 : 전동면의 교통망, 취락분포 등의 인문환경과 산지, 평야, 하천 등의 자연환경이 나타나 있다.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2008a)

2)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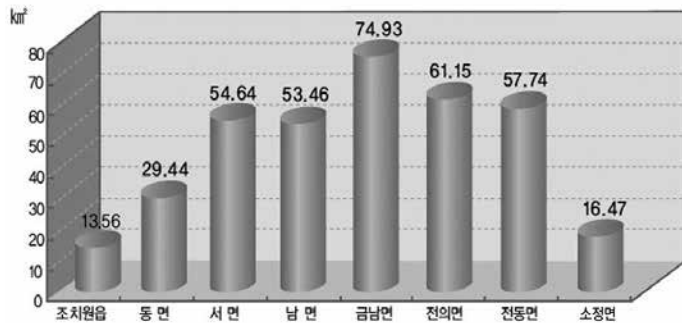
전동면의 면적은 57.74km²로 연기군 전체 면적 361.39km²의 15.98%에 해당하며, 순위로는 1읍 7면 중 3위에 해당된다.

(표 1) 연기군의 읍·면별 면적

읍·면	면적(km ²)	구성비(%)
조치원읍	13.56	3.75
동면	29.44	8.15
서면	54.64	15.12
남면	53.46	14.79
금남면	74.93	20.73

읍·면	면적(km ²)	구성비(%)
전 의 면	61.15	16.92
전 동 면	57.74	15.98
소 정 면	16.47	4.56
연 기 군	361.39	100.00

출처 : <http://www.yeongi.go.kr/statistical/webbook/2009/theme>



〈그림 1〉 연기군의 읍·면별 면적

출처 : <http://www.yeongi.go.kr>

2. 지질

1) 충청남도의 지질

(1) 지질 개요

충청남도 지역의 지질은 크게 보아 지질 계통과 지질 분포를 통해서 파악된다. 충청남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암류는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류 및 편암류이고, 이들 암류가 분포된 곳은 지질 구조로 볼 때, 경기육괴에 해당한다. 경기육괴 내에는 태안반도 및 안면도를 중심으로 소위 서산층군이 분포하며, 그 동쪽으로 경기편마암복합체가 분포한다. 경기육괴 서부에 분포된 서산층군의 층명은 손치무에 의하여 “연천계 분포지역에 발달된 철광상을 포함하는 규암층을 편의상 서산층군이라 한다.”라고 최초로 정의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많은 지질학자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중부 서해안 일대에 분포하는 규암 및 편암류를 통칭 서산층군으로 불러왔다. 여기에서도 태안반도 및 안면도 일대에 분포하는 규암과 석회암을 포함하는 편암류 및 이들을 관입한 화강편마암과 이 두 암체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태안층을 서산층군으로 하였다.

서산층군의 분포범위는 서해안으로부터 동쪽경계로 삼교방조제 동측과 대천을 잇는 선의 내부로 정하였다. 실제로 야외 조사시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서부에는 편마암이 극히 적고 주로 편암류가

분포하지만, 이 경계선의 동쪽에는 편암도 일부 있긴 하지만 주로 편마암이 분포한다. 서산층군의 지질시대에는 이 층군 중에서 편암류를 관입한 화강편마암의 절대연령치가 약 23억 년 전으로 측정되었으므로 편암류의 지질 시대는 이보다 오래된 것으로서 상부 시생대 내지 최하부 원생대로 유추할 수 있다.

이 서산층군은 최소한 3차 이상의 중복 변형 작용을 받았으며, 변성 작용도 녹색편암 상에서 각섬암 상에 이르는 중복 변성 작용을 받았다. 충남 지역에서의 경기편마암복합체는 서산층군의 동쪽부 경계에서 옥천대 서부 경계 사이에 분포하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편마암체는 경기육괴 변성암중 가장 넓은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시생대에서 중기 원생대에 이르는 폭 넓은 형성 시기를 가지며, 서산층군을 제외한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는 바, 이 중에는 화강암질편마암을 기저로 석회암 및 규암을 협제하는 호상편마암을 주로 하는 준편마암류와 화강편마암의 정편마암류가 혼재한다.

부천편마암복합체와 부천층군은 경기편마암복합체의 주구성 암체이다. 이들의 편마암으로의 변성된 시기는 대체로 2회로 알려져 있는 바, 하나는 23억 7천만 년 전~25억 7천 2백만 년전이고, 다른 하나는 13억 5천만 년 전~14억 2천 백만 년 전이다.

전자는 경기육괴에서 가장 오래된 변성작용으로서 이와 관련된 마그마타이트와 호상 편마암 및 편암류들은 육괴 내에 가장 넓게 분포한다. 이 편마암복합체는 쥐라기화강암에 의해서 관입당하고, 충남탄전의 남포층군과 백악기의 공주분지, 부여분지의 기반암을 이루고 있다. 경기편마암복합체는 저압-고온형의 선캄브리아기 변성대로서, 선캄브리아기 변성대는 세계적으로 저압형 변성대가 대부분이며, 이 지역에서도 경기편마암복합체에서 녹색편암 상에서 각섬암 상에 이르는 두 차례의 누진 변성 작용을 보여준다.

이질암에서의 이들의 변성 광물군은 1차에서 흑운모-석류석-근청석-정장석, 흑운모-석류석-규선석-올리고클레이스, 흑운모-석류석-안데신-백운모이며, 2차에서는 흑운모-석류석-각섬석-올리고클레이스, 흑운모-십자석-녹니석-백운모, 흑운모-석류석-규선석-납정석-백운모 등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의 후기 변성 작용 시기인 13억 5천만 년 전에서 14억 2천만 년 전 사이에 광역적인 화강암의 관입과 관련되어 470℃~678℃에서 형성된 중압형 변성대일 가능성도 높다. 여기서 충청남도 지역에 분포된 주요 암석 및 지층을 형성 순서에 따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선캄브리아기 시생대에 형성된 화강암질편마암과 호상편마암이다. 그 다음으로 오래된 것은 선캄브리아기 원생대에 형성된 서산층군과 경기편마암복합체에 속하는 편암류이다. 그 다음의 것은 상기 암층들을 관입한 선캄브리아기 원생대의 서산층군과 경기편마암복합체에 속하는 화강편마암이다. 그 다음으로는 서산·태안 지방에서 서산층군을 부정합으로 덮은 태안층을 들 수 있다.

그 다음의 것은 옥천층군으로서 아직 다른 암층과의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 다음의 것을 순차적으로 들어 보면, 중생대 쥐라기의 남포층군과 대보화강암류, 상기 암층들을 부정합으로 덮은 중생대 백악기의 경상누층군과 화산암류 그리고 신생대 제4기 충적층을 들 수 있다.

(2) 지질 구조

충남지역에는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에서부터 중생대 백악기의 퇴적암류 및 화산암류에 이르기 까지 오랜 지질시대에 걸친 암석들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이들 중 오래된 암층들은 중북 변형 작용을 받아 복잡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질 시대가 젊어질수록 비교적 덜 복잡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서산층군 및 옥천층군에는 3내지 4차례의 습곡 및 트러스트 운동과 몇 차례의 단층작용에 의해서 복잡한 지질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지역 내에 발달된 단층들 중에서 중앙부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단층선을 따라 백악기의 퇴적 분지가 발달하고 있다. 충남 지역에서의 부정합은 크게 4시기의 것이 있다. 그 첫 번째 것은 원생대의 태안층이, 두 번째 것은 쥐라기 남포층군이, 세 번째 것은 백악기의 경상누층군이, 네 번째 것은 제4기의 충적층이 각각 그 이전의 암층들 위에 놓이는 부정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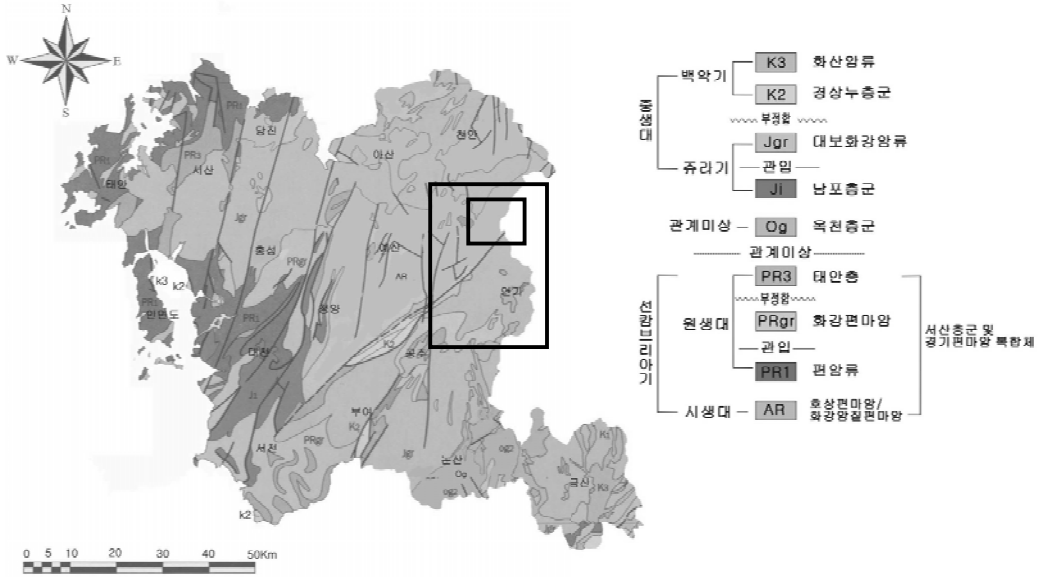


〈그림 2〉 충청남도 지역의 지질 계통

출처 : 충청남도지면찬위원회(2006, 51)

2) 연기군과 전동면의 지질

연기군의 경우 북부의 대부분과 중서부 일부에 시생대의 호상편마암·화강암질편마암, 남부의 상당 부분과 중동부 일부에 중생대 쥐라기 대보화강암류, 남동부 일부에 관계 미상의 옥천군층, 남부 일부에 시생대 호상편마암·화강암질편마암 등이 분포한다. 연기군 지역의 경우 중부에 호상편마암·화강암질편마암과 대보화강암류 사이에 북동-남서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발달해 있고, 서부



〈그림 3〉 충청남도, 연기군 및 전동면 지역의 지질

주 : 큰 네모 면은 연기군 부분이며, 작은 네모 면은 전동면 부분임.
출처 :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52)

에도 남북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발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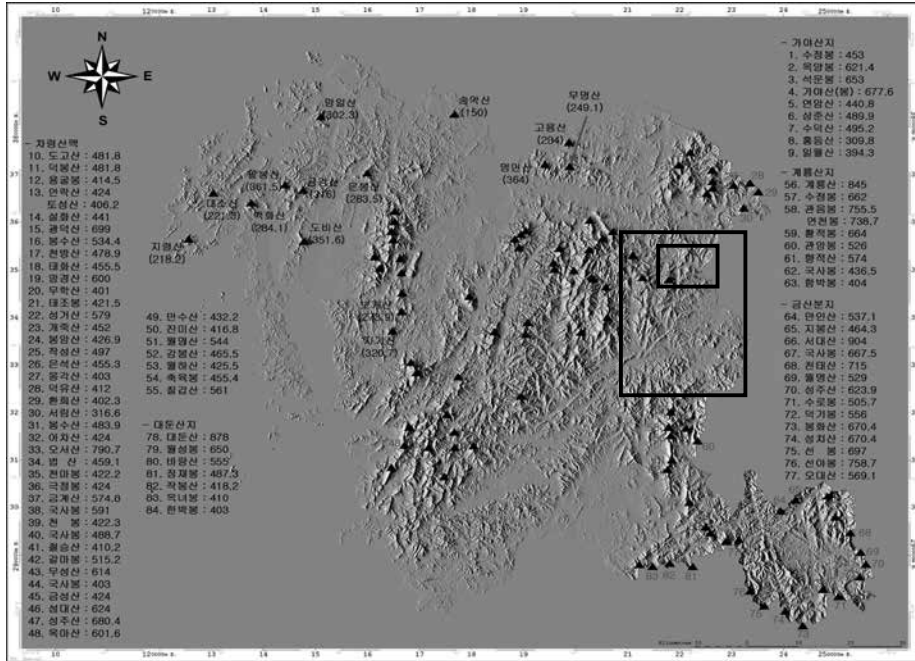
전동면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 시생대의 호상편마암·화강암질편마암이 분포해 있고, 북부 일부에 중생대 주라기의 대보화강암류가 분포해 있다. 전동면 지역에는 지질 구조선은 지나지 않고 있다.

3. 지형

1) 충청남도의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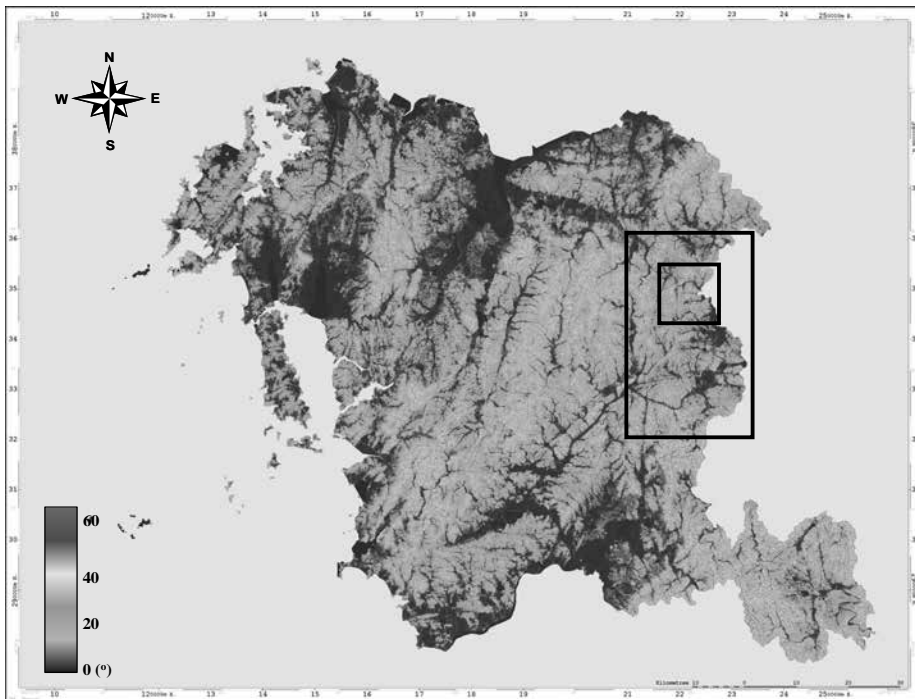
(1) 충청남도 지형의 개관

충청남도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저평하여 해발 고도 1,000m 이상의 산지는 한 곳도 없다.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고, 도 전체의 평균 고도는 100m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즉, 충남 지역은 지형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지형 구릉성 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대체로 산지는 도의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차령산맥, 홍성 이북~당진 이남의 가야산지 일대, 공주 이동~대전 이서의 계룡산지 일대, 그리고 남동부의 금산고원 일대에 분포하며, 평지는 금강의 중류부 및 하류부 일대, 안면도·태안반도~당진 일대의 해안, 그리고 삼교천과 안성천 유역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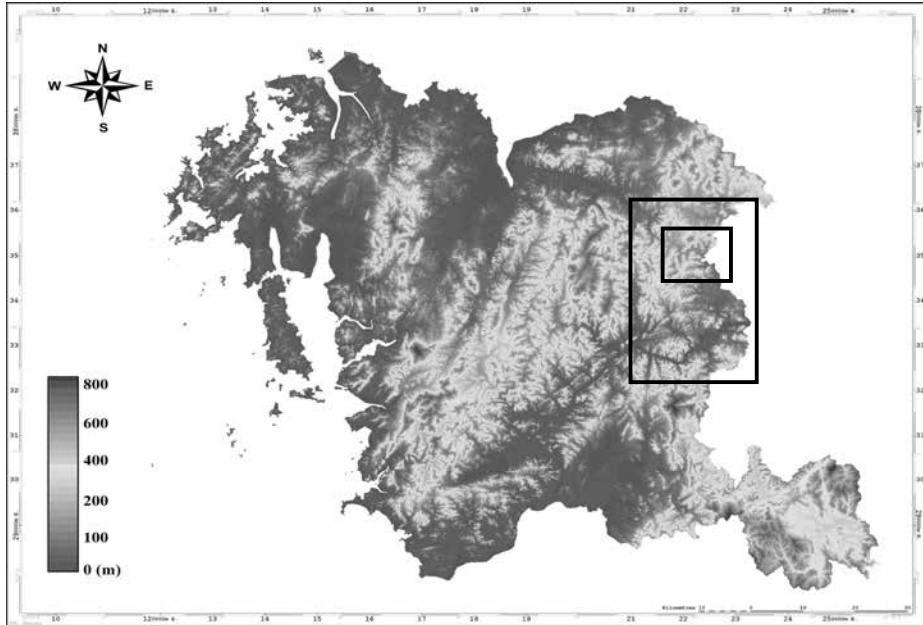
〈그림 4〉 충청남도의 음영 기록 및 주요 산지

주 : 큰 네모 면은 연기군 부분이며, 작은 네모 면은 전통면 부분임.
출처 : 충청남도지면찬위원회(2006, 12)



〈그림 5〉 충청남도의 경사 분포

주 : 큰 네모 면은 연기군 부분이며, 작은 네모 면은 전통면 부분임.
출처 : 충청남도지면찬위원회(2006, 29)



〈그림 6〉 충청남도의 고도 분포

주 : 큰 네모 면은 연기군 부분이며, 작은 네모 면은 전통면 부분임.

출처 : 충청남도지면찬위원회(2006, 28)

충청남도의 지형은 도의 중앙을 북동~동서방향으로 달리는 차령산맥을 경계로 북서 지형구와 남동 지형구로 양분되기도 하나, 해발 고도가 평균 100m 밖에 되지 않는 본 도의 경우 산지와 평지 등의 지형을 구분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충청남도의 표고는 대부분 100m 이하의 구릉성 평탄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농경지인 평야와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도면은 11~50m 사이로 전체 비율에서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1~100m 고도면이 19.5%, 101~200m 사이가 19.3% 등이다. 전체 면적에서 0~200m 사이가 8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300m 사이가 9.5%, 300m 이상의 산지 지역은 6.0%로 국부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지형은 표고 200m 미만의 침식 기원의 구릉지로 노년기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경사 분포도를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사면은 5° 이하로 토지면적이 37.2%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11~20°의 토지면적이 26.6%, 6~10°는 18.2%로 전체 면적에서 20° 이하 면적이 82.0%에 달한다. 경사도가 완만한 평탄 지역은 주요 하천과 연하는 평야 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간척지를 간척한 해성 충적 평야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주요 산지가 나타나는 도의 중앙 및 남동쪽은 경사 40° 이상의 급애면이 나타난다.

(2) 충청남도의 산지 지형

충청남도의 산지의 윤곽은 강원도의 오대산 부근에서 태백산맥으로부터 갈라져서 남남서 방향으로 달리면서 충청북도과 경기도의 경계를 이루다가 본도의 중앙을 달리는 차령산맥, 그 북서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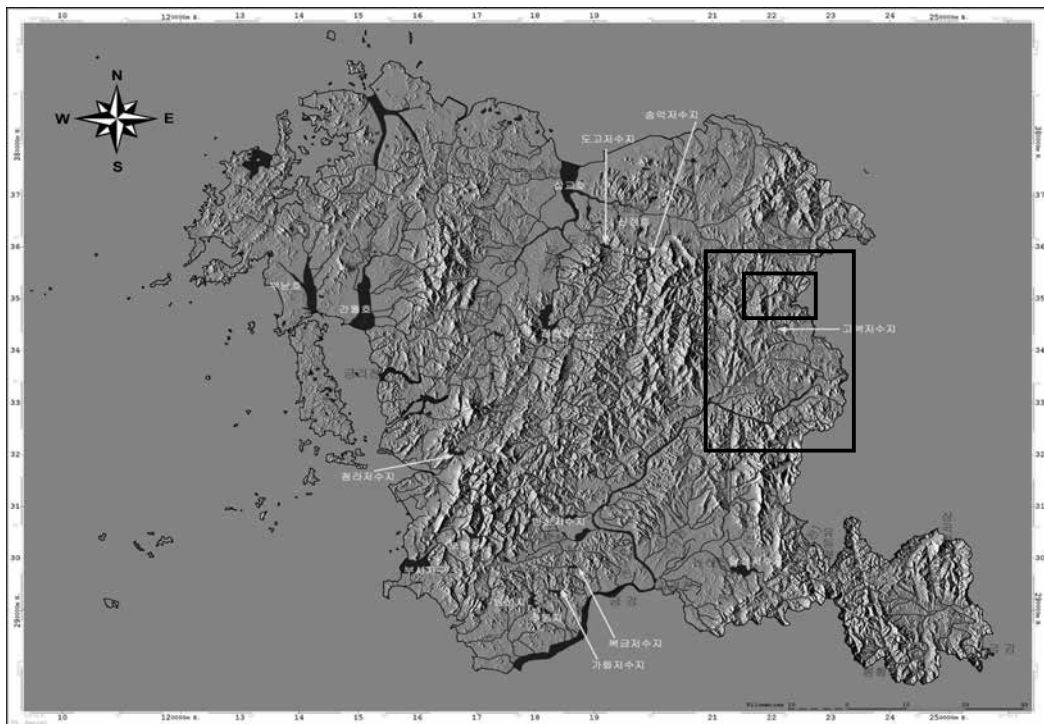
가야산지, 남동쪽의 계룡산지, 그리고 남동쪽의 금산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금산고원 등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중부 지방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경동 지형을 이루고 있고, 삭박면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의 양사면에 계단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층적 선상지와 저위 침식면의 발달 고도는 해안 지방에서 내륙지방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진다. 본 도의 경우에, 이들 층적 선상지는 해발 100m 이하의 고도에 발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내륙의 충북, 강원 지역에 비해 낮은 고도에 발달되어 있다.

특히, 태안반도의 서산 일대와 덕산 일대, 대천 부근의 성주산과 옥마산 일대, 그리고 계룡산 일대에는 표고 100~150m에 넓은 층적 선상지면이 발달되어 있다. 이들 완사면과 배후산지 사이의 경사 변환점은 서산지역의 경우에는 대략 해발 60~80m 고도에서 나타나지만, 내륙에 위치한 계룡산 일대에서는 해발 100m로 높아진다. 이들 완사면의 경사는 1°~7° 정도이며, 배후 산지 사면의 경사는 20°~50°로 양자간에 뚜렷한 경사 변환점이 나타난다.

(3) 충청남도의 평야 지형

평야는 기복이 작고 평탄하며 비교적 해발 고도가 150m 이내의 토지이다. 생성 원인에 따라 하천과 바다의 퇴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퇴적 평야와 암석이 침식을 받아 형성된 평탄한 지형인



〈그림 7〉 충청남도의 주요 수계 및 하계

주 : 큰 네모 면은 연기군 부분이며, 작은 네모 면은 전통면 부분임.

출처 : 충청남도지면천위원회(2006, 13)

침식 평야로 구분된다.

충청남도의 퇴적 평야는 크게 하성 평야와 해성 평야로 구분된다. 하성 평야는 주로 범람원(곡저 평야 포함), 충적 기원의 선상지, 저위 하성 단구로 구성되어 있다. 해성 평야는 대부분 간석지를 간척한 간척 평야가 주를 이루지만, 저위 해성 단구와 제간 습지 등도 지역에 따라서 포함된다. 침식 평야는 소기복 침식면과 잔류 구릉(혹은 도상 구릉)으로 구성된다.

충청남도 평야의 분포를 보면, 가야산지를 제외한 차령산맥 북서부의 천안·아산·당진·서산지역의 거의 대부분과 차령산맥 남동부의 논산·부여·서천 지역의 금강 유역에 대부분이 나타나고, 그 외에 서해안 연안과 도서부에 나타난다. 이 외에도 서해안을 따라서 소규모의 하성 평야와 해성 평야가 안면도에서 서천 일대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 대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차령산맥 이북의 평야는 크게 오랜 기간의 암석의 차별 침식에 의하여 형성된 침식 평야와 화강암 지대를 관류하면서 흐르는 하천에 의하여 만들어진 퇴적 평야로 구분된다. 이 지역의 평야는 천안·아산 일대 평야와 삼교천 이서~태안반도에 이르는 평야로 나눌 수 있다. 차령산맥 이남의 평야는 대부분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이 지역의 평야는 크게 금강 중류부의 연기군 일대 평야와 금강 하류부의 부여~논산~서천에 이르는 논산평야로 구분된다.

충청남도의 수계로는 차령산맥의 남쪽에서는 전북 장수군 수분리에서 발원하는 금강의 본류 및 대소 지류가 중요하며, 산맥 이북의 주요수계로서는 삼교천과 곡교천, 안성천이 있다. 해안선은 출입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특히 태안반도 일대의 해안이 대표적이다.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범람원 지역으로는 아산만으로 유입하는 삼교천 중하류 유역, 안성천 하류 유역, 금강 본류와 만나는 미호천 유역, 부여 군수리 유역, 논산천 및 강경천 유역, 길산천 유역 등이다. 이밖에 충남에서 하성단구면이 관찰되는 곳으로는 공주 석장리 지역, 부여 군수리 지역, 논산 마구평리 지역, 웅천천 유역, 대천천 유역, 미호천 유역, 무한천 및 삼교천 유역 등이다.

2) 연기군과 전동면의 지형

(1) 연기군의 지형

연기군의 지형은 산지, 하천, 평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산지는 북부의 운주산(雲住山, 459.7m)을 중심으로 한 전의면·전동면 일대, 서부의 국사봉(國士峰, 402.7m)을 중심으로 한 전의면 일대, 남부의 전월산(轉月山, 260m)을 중심으로 한 남면 일대, 비학산(飛鶴山)을 중심으로 한 금남면 일대에 발달해 있다.

연기군의 평야는 미호천 서쪽의 조치원읍·서면·남면 일대와 미호천과 금강의 본류가 합류하는 금남면 일대에 발달해 있다. 연기군 기반암은 중생대의 대보화강암이 대부분으로 해발 100m 이하의 소기복 침식면을 이룬다. 미호천과 금강 본류가 합류하는 남면과 금남면 일대에는 넓은 범람원이 발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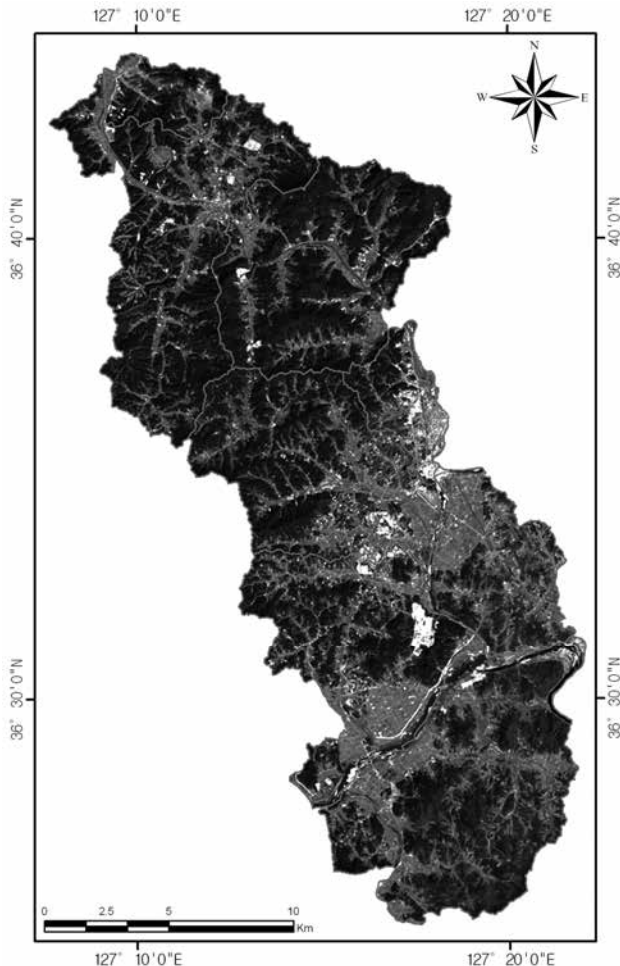
(2) 전동면의 지형

전동면의 지형을 보면, 북부에 운주산, 망경산, 동부에 동림산, 남부에 오봉산, 서부에 작성산, 중부에 국사봉, 송약산 등이 해발고도 500m 이하의 산지를 이루고 있고, 이들 산지 사이에 하천들이 발달해 있고, 하천 연변에 비옥한 범람원 충적 평야들이 발달해 있다.

부연하면, 연기군의 산지는 북부에 대규모로 발달되어 있고, 남부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북부와 남부의 산지 사이의 지역에는 금강과 그의 지류인 미호천이 흐르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범람원 충적지 평야가 발달하고 있다.

전동면에 발달해 있는 산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운주산(雲住山, 459.7m), 오봉산(五峰山, 262.5m), 작성산(鵲城山, 339m), 동림산(東林山, 458.3m), 이성산(李城山, 229m), 망경산(望京山), 국사봉(國師峰, 266.7m), 송학산(松鶴山), 고려산(高麗山) 등이 있다.

이러한 산지들 가운데 운주산은 전동면은 물론 연기군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전동면의 북부의 봉대리·청송리와 전의면 노곡리·신정리의 경계부에 있다. 동림산은 전동면 심중리와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사이에 있으며 전동면 북동부 일대에서 비교적 높은 편에 해당된다. 오봉산은



〈사진 3〉 항공사진에 나타난 연기군의 지형

주 : 연기군의 산지, 평야, 하천 등이 실제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출처 : <http://www.kari.re.kr>



〈그림 8〉 연기군 일대의 지형

주 : 그림에서 점 표시 부분은 해발 고도 100m 이상의 지역이다. 이 그림에서 100m 이상의 산지와 100m 미만의 평야를 식별할 수 있고, 동시에 운주산, 국사봉 등의 주요 산지와 금강, 미호천, 조천 등의 주요 하천과 그 유역의 평야를 볼 수 있다.

출처 : 권혁재(1995, 280)

전동면 송곡리와 서면 고북리 사이에 있으며, 이 산에는 목형봉(木形峯), 화형봉(火形峯), 토형봉(土形峯), 금형봉(金形峯), 수형봉(水形峯) 등의 5개의 봉우리가 있다. 작성산은 성산(城山)으로도 불리우는데, 전의면 신방리·양곡리와 전동면 송성리 사이에 있다. 이외에 북부에 망경산, 중부에 국사봉, 송학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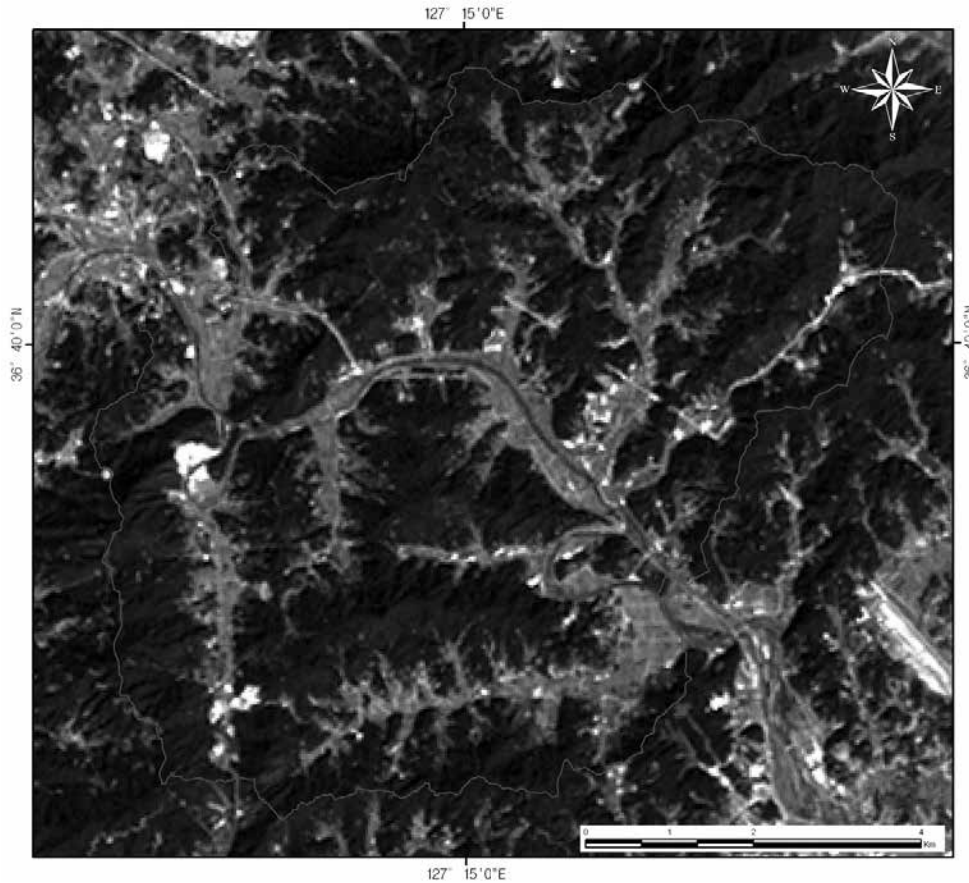
전동면에는 산지 이외에도 비교적 높은 고도의 고개들이 있는데, 전동면 미곡리와 전동면 청람리 사이의 개미고개(개미기고개), 서북부 전동면 미곡리의 미륵당이고개, 전동면 봉대리와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사이의 고소재고개, 전동면 봉대리와 천안시 성남면 봉양리 사이의 밤실고개, 전동면 송성리와 서면 쌍류리 사이의 솔치고개 등이 있다.

전동면의 하천으로는 조천, 노장천, 송성천, 심천(深川) 등이 있는데, 조천이 면의 서부, 중부 및 동부를 북서-남동 방향으로 흐르고, 북동부에서 남북 방향으로 흘러내려오는 노장천과 동부와 남부에서 남북 방향으로 흘러내려오는 송성천이 조천에 합류된다. 보덕리 앞을 지나는 심천은 심중리 앞을 지나는 조천에 합류된다.

조천은 남쪽으로 흘러서 조치원을 변암리 일대에서 미호천에 합류되고, 미호천은 남면 합강리(合江里) 일대에서 금강에 합류된다. 따라서 전동면의 조천, 노장천 및 송성천은 하계망으로 보면, ‘조장천·송성천→조천→미호천→금강’으로 이어지는 하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금강은 연기군의 남동부에서 북서-남동 방향으로 흐르다가 군의 중남부에서 미호천에 합류하여 서해로 유입된다.

전동면의 소하천들의 유로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조천은 조천천(鳥川川, 새내)으로 불리며, 전의면 금사리(金沙里)·영당리(靈堂里)·원성리(元省里) 일대에서 발원하여 전동면 송성리(松城里)·



〈사진 4〉 항공 사진에 나타난 전동면의 지형

주 : 전동면의 산지, 하천, 평야 등의 지형체제가 잘 나타나 있다.

출처 : <http://www.kari.re.kr>

미곡리(美谷里)·청람리(靑藍里)·청송리(靑松里)·석곡리(石谷里)·노장리(蘆長里)·보덕리(寶德里)·심중리(深中里)를 거쳐 조치원읍의 동쪽 경계부를 지나서 조치원읍 번암리 일대에서 미호천에 합류한다. 특히, 조천은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가촌 앞을 지나는 하천으로 비교적 넓은 하천폭을 유지하면서 주변에 범람원을 발달시키고 있다. 따라서 조천은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발생 및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한 요인이 되어 왔다.

노장천은 노장리를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봉대리 북부, 노장3리 북부의 망경산, 고소재 기슭에서 발원하여 노장1리와 석곡리의 경계부에서 북서-남동 방향으로 흐르는 조천에 합류된다. 송성천은 전동면의 동부 송성리와 청람리 일대에서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솔치고개 일대 남서부의 송성3리 남쪽에서 발원하여 송성3리의 솔치, 중말, 송성1리의 각골, 몰도리, 요골을 거쳐 송성2리와 청람리 일대에서 조천에 합류된다.



〈사진 5〉 운주산 전경

주 : 전동면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연기군과 전동면의 상징적인 산이다.
출처 : 충청남도지면찬위원회(2006, 85)



〈사진 6〉 노장리 전동과선교에서 본 조천과 범람원 평야

주 : 조천은 전동면의 한북판을 북서-남동 방향으로 흐르면서 그 유역에 넓은 범람원 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7〉 노장리 전동과선교에서 본 주변 취락

주 : 노장천은 조천의 지류로서 693번 지방도와 인접해 흐른다. 노장천 위의 철도는 경부선이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4. 기후

전동면 지역의 기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동면 지역의 기후 자료를 입수해야 하나, 전동면 지역의 기후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연기군 지역의 기후자료도 기온과 강수량을 중심으로 일부 기간에 한정해서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연기군 지역의 기후는 차선이긴 하지만, 최근에 부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충청남도지』(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282~292)의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이어서 『연기군 통계연보』(<http://www.yeongi.go.kr>)의 1962~2008년간의 기온 및 강수량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충청남도 지역의 기후 특성

현재 기상청에서 시행하는 충청남도의 공식적인 기상관측은 대전, 천안, 금산, 서산, 보령, 부여의 6개 기상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6개 기상대에서 관측한 30년간(1975년~2004년)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충남의 기후를 이해하기 위하여 충북지역(추풍령, 보은, 청주, 충주, 제천)의 기상대 관측값도 이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충남의 기후에 대한 공간 분포를 제시하는데 사용되었다.

여기서 제시한 공간 분포에 대한 그림들은 관측소 자료를 격자 자료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값과의 비교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므로 표에서 제시한 충남지역의 관측값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공간 분포에 대한 그림은 충남의 전반적인 기후 분포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고, 충남의 기후는 표에서 제시한 값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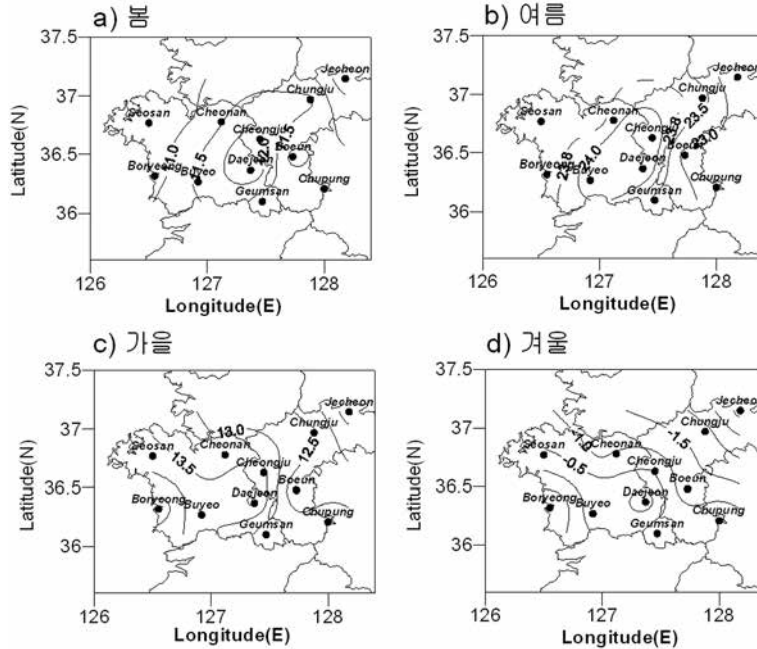
(1) 기온

충남지역의 계절별 평균 기온 분포는 위도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금산과 대도시인 대전과 청주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금산의 상대적 고온은 위도에 기인한 것이고, 대전과 청주지역의 상대적 고온은 왕성한 산업 활동으로 인공열의 근원이 많아 도시화에 의한 열섬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봄철 지역별 기온 분포를 보면,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 서해안 지역보다는 내륙에서 더 큰값을 나타낸다. 봄철 평균 기온은 대전이 약 12.2℃로 지역중 가장 높은 온도를 보이며, 제천은 약 10.3℃로 가장 낮은 온도를 보인다. 그리고 같은 서해안 지역이라도 위도가 높은 서산 지역의 온도가 10.4℃로 위도가 낮은 보령 지역의 온도 11℃ 보다 낮게 나타난다.

여름철 평균 기온 분포는 봄철의 평균 기온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대전과 부여간의 기온 차는 거의 없으며, 여름철 대전의 평균 기온은 약 24℃로 인근 금산의 23.5℃ 보다 0.5℃ 높으며, 제천의 22.8℃ 보다는 1.2℃ 정도 높다. 여름철에는 동서간의 기온차가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가을철 평균 기온은 해안 지역과 내륙 산간 지역간의 기온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서해안 지역인



〈그림 9〉 충청 지역의 계절별 연평균 기온 분포(°C, 1975~2004)

출처 :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287)

서산에서 약 13.8°C, 내륙(보은, 충주)에서 12.5°C로 약 1.8°C 정도의 차이가 난다. 대전의 가을철 평균기온은 약 13.7°C로 충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며, 청주, 서산, 부여와 거의 같은 온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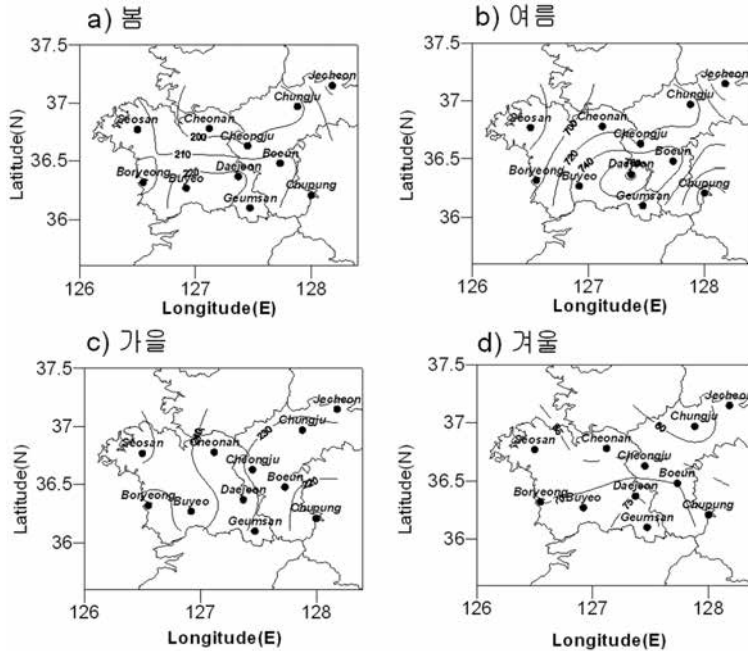
충남지역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가을철과 같이 해안과 산간 지역의 온도차가 심하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약 -3.5~0.5°C 정도이며, 대전의 평균 기온은 약 1.2°C 정도로 주변보다 높은 편이다. 서해 인근의 기온이 높은 이유는 겨울철 서해안의 수온이 0°C 이상으로 높기 때문이다.

반면 봄철과 여름철에는 서해안 부근 보다 산간 지역을 제외한 내륙의 기온이 높다. 이것은 여름철에 육지가 해양보다 일사에 의한 지면 가열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겨울철 기온 역시 가을철 평균 기온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 강수량

충청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여름에 700~800mm로 가장 많고, 겨울에 80~100mm로 가장 적으며, 지리적으로는 부여와 대전을 중심으로 가장 많고, 그 주변 지역에서 적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의 약 60%가 여름철에 내리며, 다음으로 가을철에 20%, 봄철과 겨울철에 15%와 5%가 내린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연평균 강수량의 50~60%가 내리므로 충남지역의 여름철 강수량도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과 거의 같은 특성을 보이지만, 부분적으로는 봄철 강수량보다 가을철 강수량이 약 5%정도 더 많고, 겨울 강수량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적게 내리는



〈그림 10〉 충청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 분포(mm, 1975~2004)

출처 :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6, 292)

특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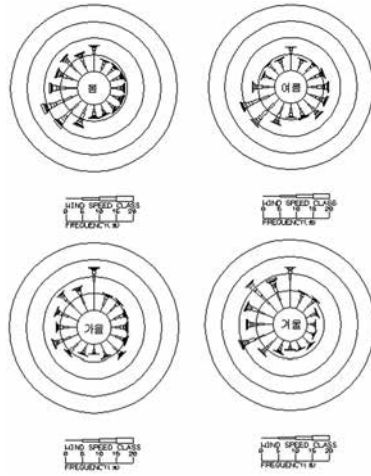
충남의 봄철 강수량은 약 195~230mm의 범위에서 나타난다. 특히, 부여를 중심으로 약 230mm 이상의 최대값이 나타나며, 충청도 북부 내륙지방에서 195mm 이하로 적은 편이다. 여름철 강수량 분포는 충청도 남부 내륙의 대전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며 700~800mm 범위의 강수량을 보여준다. 충남의 가을철 강수량은 230~260mm 범위이며 특히 부여 지역에서 강수량이 많음을 보여준다. 반면 서해안과 인근 내륙간의 강수량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보여준다. 충남의 겨울철 강수량 패턴은 금산,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내륙 지역에 많은 강수량이 있음을 보여준다.

(3)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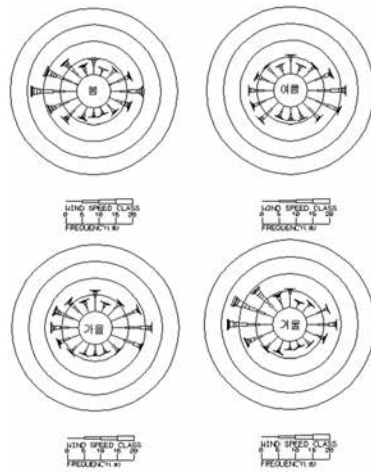
충남지역의 바람의 특성은 계절별 바람장미로 파악된다. 바람장미에서 원은 풍속의 세기(중심 : 0m/s, 세번째 원 : 2.1~3m/s)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풍속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계급 표는 풍향과 발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대전지역의 풍계는 봄철과 여름철에는 남서풍이 우세하며,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북풍이 우세하게 불고 있다. 천안지역은 겨울철과 봄철에는 서풍이,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동풍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부여는 북풍이 4계절에 걸쳐 주풍이고, 봄철과 여름철에는 남서풍이,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다음으로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금산은 계절에 관계없이 서풍과 북풍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보령과 서산의 바람은 우리나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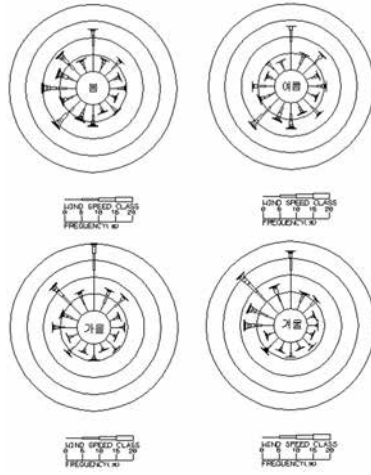
a)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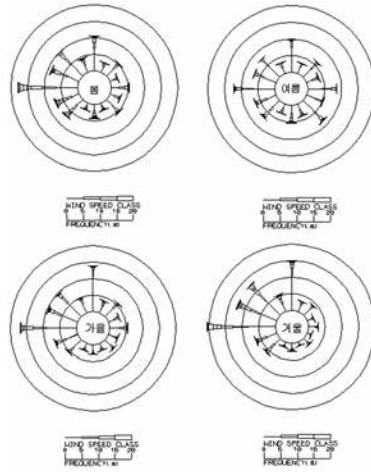
b) 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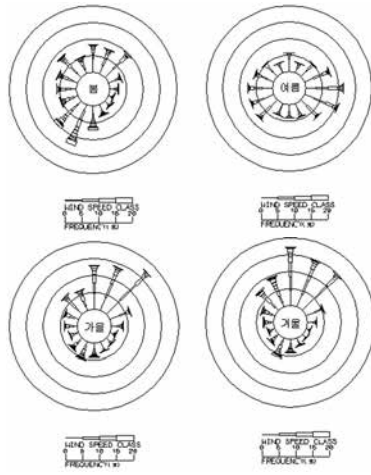
c)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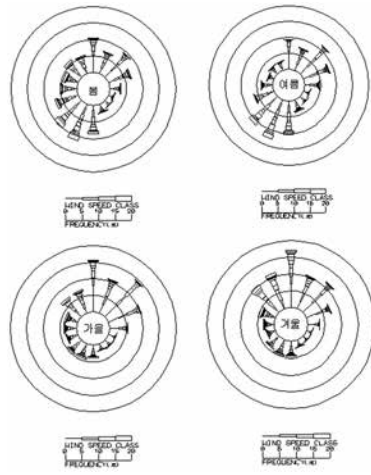
d) 금산



e) 보령



f) 서산



〈그림 11〉 충남지역의 계절별 바람 장미(1975~2004)

출처 : 충청남도지면찬위원회(2006. 297~298)

지배하는 기단의 변화를 비교적 잘 나타내고 있다. 봄철과 여름철에는 남서풍이 우세하고, 겨울철에는 북풍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지역별로 이와 같은 풍계 차이가 나는 것은 지형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 봄철과 여름철에는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남서기류가 우세하고,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북풍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2) 연기군의 기후 특성

(1) 연기군의 계절별 연평균 기온과 연총 강수량의 분포 특성

연기군의 기후 특성은 『충청남도지』(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282~292)의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연평균 기온과 연총 강수량의 경우 충청 지역의 서산, 보령, 부여, 금산, 대전, 천안, 보은 등지의 자료를 근거로 4개 계절별로 등치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자료에서 전동면 지역을 포함한 연기군 지역의 계절별 연평균 기온은 천안과 청주를 통과하는 두 개의 등치선값 또는 두 지역 사이를 통과하는 1개 등치선값을 취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기군 지역의 계절별 연평균 기온을 파악하면, 봄철은 11.5~12.0℃, 여름철은 24.0℃, 가을철은 13.5℃, 겨울철은 -1.0~-1.5℃ 정도로 각각 나타낸다. 또한, 연기군 지역의 계절별 연총 강수량을 파악하면, 봄철은 200mm이하, 여름철은 700~720mm, 가을철은 230~240mm, 겨울철은 60~65mm 정도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지』의 기후 자료도 기온의 경우 1년 단위의 연평균 기온도 아니고 계절 단위의 연평균 기온이고, 강수량의 경우도 1년 단위의 연총 강수량이 아니고 계절 단위의 연총 강수량이므로, 기온과 강수량 측면에서 1년 단위의 충청남도의 기후 특성 파악에 한계가 있다.

(2) 연기군의 기온 및 강수량의 연도별 및 월별 변화

연기군의 기후 자료로 현실적으로 획득이 가능한 것은 1963~1964년간, 1960~2009년간의 연기군 통계연보에 나타나 있는 연기군의 연평균 기온과 연총강수량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자료 가운데 연평균 기온은 1962~1977년도분과 2006~2008년도분이 누락되어 있고, 연총 강수량은 1964년도분이 누락되어 있다. 이 자료는 앞의 『충청남도지』(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282~292)자료와 달리 1년 단위의 연평균 기온과 연총 강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연기군의 기후 자료로는 『연기군 통계연보』에 수록된 월별 기온 분포와 월별 강수량 분포 자료(<http://www.yeongi.go.kr/statistical/webbook>)가 있다.

따라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1962~2008년간의 연기군의 기온 및 강수량의 연도별 변화 자료와 연기군의 월별 기온 및 강수량의 분포 자료를 바탕으로 연기군의 기온 및 강수량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동면의 기후 특성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연기군의 기온과 강수량의 연도별 변화

우선 연기군의 기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기군 통계연보』의 연평균 기온과 연총 강수량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하면, 1978~2005년간의 연평균 기온의 평균치는 12.6℃로 나타나고, 1962~2008년간의 연총 강수량의 평균치는 1280.6mm로 나타나고 있다.

『연기군 통계연보』 자료에서 연평균 기온의 경우 최소치는 1980년의 11.0℃이고, 최대치는 2004년의 13.0℃로서 편차는 2.9℃로 나타나고 있다. 연총 강수량의 경우 최소치는 1963년의 639.5mm이고, 최대치는 2,070.0mm로서 편차는 1430.6mm로 나타나고 있어서 연평균 기온의 편차에 비해 월등히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연기군의 연평균 기온 및 연총 강수량의 연도별 변화(1962~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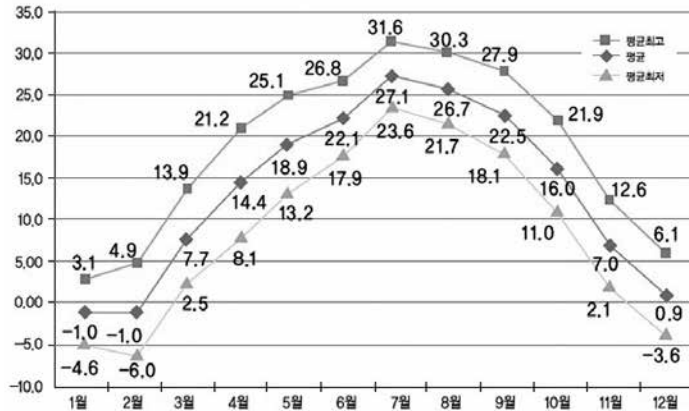
연도	연평균 기온(℃)	연총 강수량(mm)	연도	연평균 기온(℃)	연총 강수량(mm)
1962	·	857.5	1986	11.8	1,224.5
1963	·	639.4	1987	12.5	1,880.7
1964	·	·	1988	12.3	920.9
1965	·	941.5	1989	13.1	1,130.0
1966	·	1,147.1	1990	13.3	1,496.4
1967	·	927.4	1991	12.6	1,182.1
1968	·	980.0	1992	12.8	1,036.9
1969	·	940.8	1993	12.3	1,533.1
1970	·	1,188.9	1994	13.8	857.9
1971	·	1,206.7	1995	12.3	1,136.2
1972	·	1,380.0	1996	12.1	1,279.2
1973	·	841.6	1997	12.8	1,765.9
1974	·	1,042.8	1998	13.6	2,070.0
1975	·	1,211.6	1999	13.0	1,445.2
1976	·	966.2	2000	12.4	1,708.0
1977	·	905.2	2001	13.1	828.7
1978	12.6	1,465.7	2002	13.3	1,378.7
1979	12.4	1,399.1	2003	13.2	1,748.9
1980	11.0	1,598.7	2004	13.9	1,496.5
1981	11.4	1,206.5	2005	12.4	1,656.1
1982	12.5	1,007.6	2006	·	1,117.0
1983	12.5	1,228.3	2007	·	1,750.9
1984	11.9	1,318.3	2008	·	892.3
1985	12.2	1,692.8	평균	12.6	1,280.6

출처 : <http://www.yeongi.go.kr/statistical/webbook>

② 연기군의 월별 기온 및 강수량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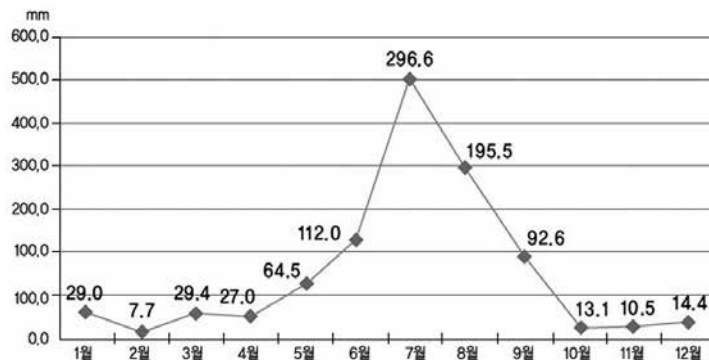
연기군의 월별 기온 및 강수량 분포의 특성을 『연기군 통계연보』의 자료를 통해서 살펴 보면, 월별 기온 중 평균의 경우 7월이 27.1℃로 최고, 1월이 -1.0℃로 최저로, 평균 최고의 경우 7월이

31.6℃로 최고, 1월이 3.1℃로 최저로, 평균 최저의 경우 7월이 23.6℃로 최고, 12월이 -6.0℃로 최저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월별 기온 최대값의 경우 평균, 평균 최고 및 평균 최저 모두가 7월로 나타나고 있다. 월별 강수량의 경우 7월이 296.6mm를 최대로, 2월이 7.7mm로 최소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 연기군의 월별 기온 분포

출처 : <http://www.yeongi.go.kr/statistical/webbook/2009/theme>



〈그림 13〉 연기군의 월별 강수량 분포

출처 : <http://www.yeongi.go.kr/statistical/webbook/2009/theme>

제2절

인문 지리

1. 행정 구역의 변천과 구성

1) 행정 구역의 변천

전동면은 전의(全義)의 동쪽에 있는 면이란 뜻이다. 과거 전동면은 전의지역이었으므로 원삼국시대에는 마한(馬韓)의 54개국 중 하나였고, 백제시대에는 구지현(九知縣)에 속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금지현(金池縣)이라 하여 대록군(大麓郡)의 영현이 되었다가 고려 때 전의현(全義縣)에 속하였다. 조선시대 1414년 연기현과 합하여 전기현(全岐縣)이 되었다가 1416년 다시 전의현이 되었으며, 1895년 전의현이 전의군이 되었을 때 전의군 동쪽 지역에 속해 있다가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연기군 전동면이 되었다(http://hongbo.yeongi.go.kr/sub_history/history_list01.htm).

1987년 1월 1일에 대통령령 제12007호(1986년 12월 23일 공포)에 의거 전동면의 신방리, 영당리, 양곡리, 달전리, 금사리, 다방리가 전의면에 편입되었는데, 이때 2,834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1987년 당시 전동면의 인구는 5,052명 이었고, 1986년의 인구는 7,886명이었으므로 감소인구 2,834명은 무려 35.9%에 해당하는 대규모였다(<http://www.yeongi.go.kr/statistical/webbook/>).

시도간 관할 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에 의거 조례 1345호(1995년 2월 28일)로 동면 갈산(東面 葛山) 1, 2리를 청원군 부용면(淸原郡 芙蓉面)에, 청원군 강외면 심중(淸原郡 江外面 深中) 1, 2리를 전동면(全東面)에 1995년 3월 1일자로 편입하였는데, 이때 전동면의 동쪽 경계가 청원군 강외면 동림산(東林山) 정상을 중심으로 그어졌다(<http://hongbo.yeongi.go.kr/>).



〈지도 3〉 1910년대의 전동면 지역(1:50,000)

주 : 1914년에 설정된 전동면 행정구역이 표시되어 있고, 전동면의 이전 중심지인 전의면 읍내리 일대가 시가지지를 이루고 있다. 경부선 철도와 1번 국도가 설치되어 있다. 당시의 법정리와 자연부락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전동역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하노장 일대에 전동면 중심지 취락도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출처 : 朝鮮總督府(1918)

2) 행정 구역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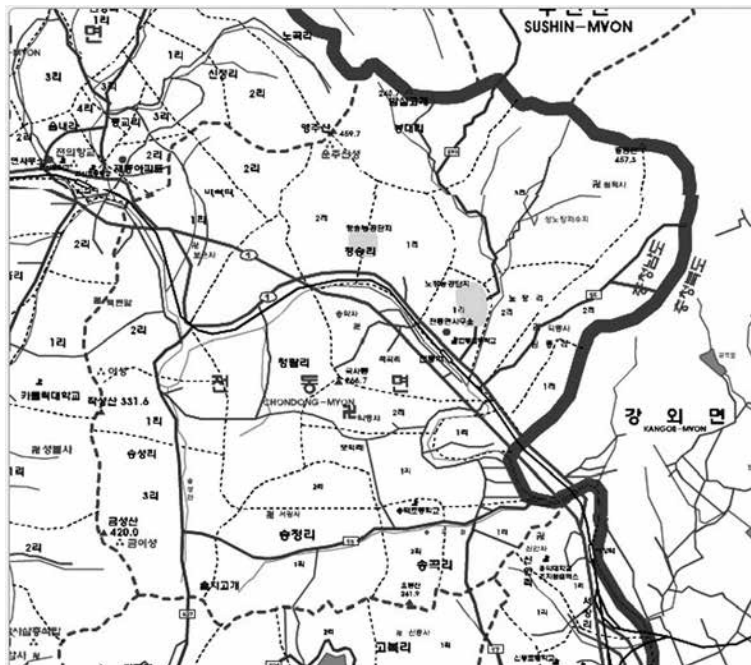
전동면은 연기군의 1읍 7면의 하나로서 면적 규모로는 군내 3위(57.74km² 15.98%), 인구규모로는 군내 6위(4,410명, 5.5%)에 해당된다. 전동면의 행정구역은 노장(蘆長), 봉대(鳳臺), 청송(靑松), 석곡(石谷), 보덕(寶德), 송곡(松谷), 송정(松亭), 청람(靑藍), 미곡(美谷), 송성(松城), 심중(深中)등 11개의 법정리, 23개의 행정리 및 60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동면사무소는 중심지 가촌인 운주산로 386(노장리 583번지)에 위치해 있다(<http://www.yeongi.go.kr/statistical/webbook/>).



<지도 4> 전동면의 행정 지도

주 : 연기군청의 행정용 지도로서 모든 법정리와 행정리의 명칭과 경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고, 전체 자연부락이 제 위치에 명기되어 있다. 각종 도로 명칭도 정확히 표기되어 있다. 하노장 일대에 면사무소, 전동역, 전동초교 등이 표기되어 있다.

출처 : 연기군(2007)



<지도 5> 전동면의 행정 지도

주 : 연기군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연기군 디지털맵(digital map)의 전동면 부분으로, 모든 법정리와 행정리의 명칭과 경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출처 : <http://www.yeongi.go.kr>

2. 인구

전동면의 인구는 인구현황, 인구동태, 법정리·행정리별 인구, 연도별 인구 변화 및 인구 이동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법정리·행정리별 인구만 전동면 차원에서 파악하고 인구 현황 등 나머지 전부는 연기군 전체 및 1읍 7면의 차원에서 파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는 『연기군 통계연보』(2009)의 2008년도 자료(<http://www.yeongi.go.kr/statistical/webbook/2009/theme/>)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1) 전동면의 인구 현황

전동면의 인구 현황을 보면, 인구수는 4,410명으로 1읍 7면 중 6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연기군 전체 인구 80,118명의 5.5%, 조치원읍 인구 37,929명의 11.6%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세대수는 2,051세대로 5위에 해당된다. 세대당 인구는 2.2명으로 연기군 평균 2.5명 보다 적게 나타난다. 성비(여성 인구 100명에 대한 남성 인구의 비율)는 116.0명으로 연기군 평균 105.9명 보다 월등히 커서 남자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녀 인구의 비는 53.7:46.3이다.

[표 3] 연기군의 읍·면별 인구 현황

읍면	세대 (세대)	인 구						인구 밀도 (명/km ²)	성비 (남/여)	세대당 인구 (명)	65세 이상 고령자 (명)
		인구수 (명)	읍·면별 구성비 (%)	남녀 구성							
				남자 (명)	구성비 (%)	여자 (명)	구성비 (%)				
조치원읍	14,458	37,929	47.3	19,272	50.8	18,657	49.2	2,797.12	103.3	2.6	4,074
동 면	1,998	4,447	5.5	2,315	52.1	2,132	47.9	151.05	108.6	2.2	1,037
서 면	3,310	8,353	10.4	4,347	52.0	4,006	48.0	152.87	108.5	2.5	1,660
남 면	1,676	4,243	5.2	2,243	52.9	2,000	47.1	79.37	112.2	2.5	930
금 남 면	4,159	9,877	12.3	5,061	51.2	4,816	48.8	131.82	105.1	2.4	2,004
전 의 면	3,155	7,503	9.3	3,890	51.8	3,613	48.2	122.70	107.7	2.4	1,537
전 동 면	2,051	4,410	5.5	2,368	53.7	2,042	46.3	76.38	116.0	2.2	973
소 정 면	1,321	3,356	4.1	1,718	51.2	1,638	48.8	203.76	104.9	2.5	568
연 기 군	32,128	80,118	100.00	41,214	51.4	38,904	48.6	221.69	105.9	2.5	12,784

출처 : <http://www.yeongi.go.kr/statistical/webbook/2009/theme/>

인구 밀도는 76.38명/km²으로 연기군에서 가장 적게 나타나는데, 연기군의 221.69명/km² 보다 적게 나타나며, 조치원읍의 2,797.12명/km²에 비하면 더 적게 나타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973명으로 연기군 전체 65세 이상 고령자 12,784명의 7.6%에 해당한다.



〈그림 14〉 연기군의 읍·면별 인구

출처 : <http://www.yeongi.go.kr/statistical/webbook/2009/theme/>

2) 전동면의 인구 동태

전동면의 연간 인구 동태를 보면, 출생 27명, 사망 71명으로 사망이 출생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남면, 금남면, 전의면, 전동면 및 소정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연기군내에서 도시적 기능을 갖고 있는 조치원읍과 그에 인접한 동면과 서면의 경우 전동면 등지와 달리 출생이 사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도시적 기능이 강한 조치원읍의 경우 출생(451명)과 사망(206명)의 절대수도 크지만, 출생이 사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기군 전체의 경우도 출생(812명)이 사망(622명)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기타 연기군의 경우, 혼인(520쌍)이 이혼(209쌍)보다 월등히 많지만 이혼의 절대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연기군의 읍·면별 인구 동태

읍·면별	출생(명)	사망(명)	혼인(쌍)	이혼(쌍)
조치원읍	451	206	·	·
동면	41	39	·	·
서면	92	83	·	·
남면	22	36	·	·
금남면	82	91	·	·
전의면	61	68	·	·
전동면	27	71	·	·
소정면	26	28	·	·
연기군	812	622	520	209

출처 : <http://www.yeongi.go.kr/statistical/webbook/2009/theme/>

3) 전동면의 법정리별·행정리별 인구

전동면의 인구 분포를 11개 법정리별로 한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노장리(1위, 915명), 송성리(2위, 808명), 청송리(3위, 415명), 심중리(4위, 413명), 미곡리(5위, 327명), 송곡리(6위, 289명), 보덕리(7위, 279명), 송정리(8위, 256명), 청람리(9위, 239명), 봉대리(10위, 160명), 석곡리(11위, 145명)의 순서로 나타나서, 노장리의 인구가 가장 많고, 석곡리의 인구가 가장 적다. 노장리, 송성리, 청송리, 심중리 등지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 지역들에 농촌 서비스 중심지 역할을 하는 가촌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인근에 농공 단지가 입지해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동면 전체의 외국인인 164명이다.

전동면의 법정리별 세대 분포를 보면, 송성리(1위, 619세대), 노장리(2위, 381세대)로 나타나고, 나머지 3~11위는 인구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노장리는 인구 순위 1위였으나 세대 순위는 2위로 나타나고, 송성리는 인구 순위 2위였으나 세대 순위는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이한 현상으로, 송성3리의 사회복지법인 수용자 1인이 1세대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동면의 인구 분포를 22개 행정리별로 보면, 한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총계의 경우 상위는 송성3리(1위, 558명), 노장1리(2위, 270명), 노장4리(3위, 259명), 청람리(4위, 239명), 청송1리(5위, 229명)의 순서로 나타나고, 하위는 송성2리(22위, 100명), 송정2리(21위, 107명), 송성1리(20위, 120명), 송곡2리(19위, 123명), 보덕2리(18위, 129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동일 법정리라 하더라도 행정리에 따라서 인구수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동면의 세대 분포를 22개 행정리별로 보면, 상위는 송성3리(1위, 519세대), 노장1리(2위, 117세대), 청람리(3위, 109세대)의 순서로 나타나고, 하위는 송성2리·송정2리(22위, 41세대), 송곡2리(20위, 50세대), 보덕1리(19위, 52세대) 등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인구수의 순위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전동면의 법정리별 인구

리별	세대 (세대)	총 계(명)			한국인(명)			외국인(명)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노장리	381	915	477	438	915	477	438	·	·	·
봉대리	69	160	77	83	160	77	83	·	·	·
청송리	175	415	212	203	415	212	203	·	·	·
석곡리	70	145	65	80	145	65	80	·	·	·
보덕리	106	279	138	141	279	137	152	·	·	·
송곡리	114	289	137	152	289	137	152	·	·	·
송정리	104	256	134	122	256	134	122	·	·	·
청람리	109	239	124	115	239	124	115	·	·	·
미곡리	135	327	163	164	327	163	164	·	·	·
송성리	619	808	496	312	728	496	312	·	·	·
심중리	169	413	223	190	413	223	190	·	·	·
전동면	2,051	4,410	2,368	2,042	4,246	2,246	2,000	164	122	42

(표 6) 전동면의 행정리별 인구

리별	세대 (세대)	총 계(명)			한국인(명)			외국인(명)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노장 1	117	270	144	126	270	144	126	·	·	·
노장 2	79	164	92	72	164	92	72	·	·	·
노장 3	89	222	112	110	222	112	110	·	·	·
노장 4	96	259	129	130	259	129	130	·	·	·
봉대리	69	160	77	83	160	77	83	·	·	·
청송 1	94	229	123	106	229	123	106	·	·	·
청송 2	81	186	89	97	186	89	97	·	·	·
석곡리	70	145	65	80	145	65	80	·	·	·
보덕 1	54	150	73	77	150	73	77	·	·	·
보덕 2	52	129	65	64	129	65	64	·	·	·
송곡 1	64	166	78	88	166	78	88	·	·	·
송곡 2	50	123	59	64	123	59	64	·	·	·
송정 1	63	149	74	75	149	74	75	·	·	·
송정 2	41	107	60	47	107	60	47	·	·	·
청람리	109	239	124	115	239	124	115	·	·	·
미곡 1	59	165	73	92	165	73	92	·	·	·
미곡 2	76	162	90	72	162	90	72	·	·	·
송성 1	59	120	67	53	120	67	53	·	·	·
송성 2	41	100	53	47	100	53	47	·	·	·
송성 3	519	588	376	212	588	376	212	·	·	·
심중 1	79	196	109	87	196	109	87	·	·	·
심중 2	90	217	114	103	217	114	103	·	·	·
전동면	2,051	4,410	2,368	2,042	4,246	2,246	2,000	164	122	42

출처 : <http://www.yeongi.go.kr/statistical/webbook/2009/theme/>

* 노장5리가 행정구역으로 재편되기 이전의 인구통계임(2009년 기준)

4) 전동면의 연도별 인구 변화

전동면의 연도별 인구 변화를 인구 증감률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1962~2008년의 47년간의 연평균 인구 증감률은 -1.3%로 나타나고, 최대 증가율은 1994년의 +9.9%로, 최대감소율은 1987년의 -35.9%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7년의 -35.9%의 감소율은 1987년 1월 1일자로 전동면 신방리, 영당리, 양곡리, 달전리, 금사리, 다방리가 전의면에 편입(<http://www.yeongi.go.kr/statistical/webbook/2009/theme/>)된 데에 기인한 것이다.

전동면의 인구는 연평균 -1.3%의 감소율을 나타냈지만, 연기군의 인구는 -0.5%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전동면의 인구 감소가 연기군의 인구 감소보다 2.6배 정도 크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7] 연기군과 전동면의 연도별 인구 변화(1962~2008년)

연도	연기군 인구수 (명)	전동면 인구수 (명)	전동면 인구 비중 (%)	전동면 인구 증감율 (%)	연도	연기군 인구수 (명)	전동면 인구수 (명)	전동면 인구 비중 (%)	전동면 인구 증감율 (%)
1962	105,064	12,172	11.5	·	1986	91,188	7,886	8.6	- 1.8
1963	108,330	12,483	11.5	+ 2.5	1987	90,584	5,052	5.5	-35.9
1964	108,628	·	·	·	1988	88,656	5,103	5.7	+ 1.0
1965	110,172	12,582	11.4	·	1989	88,489	5,200	5.8	+ 1.9
1966	109,014	12,322	11.3	- 2.0	1990	90,386	5,088	5.6	- 2.1
1967	107,746	12,097	11.2	- 1.8	1991	90,406	5,039	5.5	- 0.9
1968	106,754	11,673	10.9	- 3.5	1992	85,756	4,678	5.4	- 7.1
1969	106,469	11,681	10.9	+ 0.1	1993	83,782	4,550	5.4	- 2.7
1970	101,098	10,472	10.3	-10.3	1994	82,455	5,004	6.0	+ 9.9
1971	101,403	10,460	10.3	- 0.1	1995	80,931	5,027	6.2	+ 0.4
1972	102,030	10,377	10.1	- 0.7	1996	81,224	4,813	5.9	- 4.2
1973	105,687	10,292	9.7	- 0.8	1997	80,628	4,769	5.9	- 0.9
1974	106,284	10,272	9.6	- 0.1	1998	80,931	4,701	5.8	- 1.4
1975	105,271	10,205	9.6	- 0.6	1999	81,284	4,421	5.4	- 5.9
1976	103,709	10,147	9.7	- 0.5	2000	80,851	4,477	5.5	+ 1.2
1977	103,945	9,974	9.5	- 1.7	2001	81,821	4,595	6.7	+ 2.6
1978	102,289	·	·	·	2002	83,063	4,720	5.6	+ 2.7
1979	100,100	·	·	·	2003	82,732	4,506	5.4	- 4.5
1980	97,371	8,641	8.8	·	2004	84,455	4,551	5.3	+ 0.9
1981	99,135	8,609	8.6	- 0.3	2005	84,308	4,511	5.3	- 0.8
1982	99,586	8,490	8.5	- 1.3	2006	84,107	4,634	5.5	+ 2.7
1983	97,697	8,464	8.6	- 0.3	2007	81,450	4,551	5.5	- 1.7
1984	97,692	8,501	8.7	+ 0.4	2008	80,118	4,410	5.5	- 3.0
1985	92,736	8,034	8.6	- 5.4				연평균	- 1.3

주 : 전동면 인구 비중은 연기군 전체 인구에 대한 전동면 인구의 비중임.

출처 : <http://www.yeongi.go.kr/statistical/webbook/>

5) 전동면의 인구 이동

전동면의 인구 이동은 총이동, 시·군내 이동 및 시·군간 이동의 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한 자료는 『연기군 통계연보(2009)』에 게재된 2008년 자료이다. 전동면의 총이동은 전입 417명(0.5%), 전출 505명(0.6%)으로 모두 1읍 7면 중 7위에 해당된다.

전동면의 총이동중 시·군내 이동은 전입 102명(0.1%), 전출 164명(0.2%)으로 각각 7위와 6위에 해당된다. 전동면의 총 이동중 시·군간 이동은 전입 80명(0.1%)으로 8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동면은 인구 이동의 총이동, 시·군내이동 및 시·군간이동 모두에서 6~8위의 최하위 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동면의 이러한 인구 이동의 미약 현상은 기본적으로 인구규모가 하위권(1읍 7면중 6위)에 있는

(표 8) 연기군의 읍·면별 인구 이동

읍·면별	총이동				시군내				시군간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입수 (명)	이동율 (%)	전출수 (명)	이동율 (%)	전입수 (명)	이동율 (%)	전출수 (명)	이동율 (%)	전입수 (명)	이동율 (%)
조치원읍	5,567	6.6	4,954	5.9	1,350	1.6	646	0.8	574	0.7
동 면	562	0.7	738	0.9	109	0.1	153	0.2	39	0.0
서 면	1,240	1.5	1,543	1.8	491	0.6	589	0.7	131	0.2
남 면	481	0.6	1,597	1.9	190	0.2	769	0.9	58	0.1
금 남 면	1,280	1.5	1,632	1.9	193	0.2	143	0.2	130	0.2
전 의 면	839	1.0	907	1.1	144	0.2	124	0.1	272	0.3
전 동 면	417	0.5	505	0.6	102	0.1	164	0.2	80	0.1
소 정 면	408	0.5	469	0.6	37	0.0	28	0.0	222	0.3
연 기 군	10,794	12.8	12,345	14.6	2,616	3.1	2,616	3.1	1,506	1.8

출처 : <http://www.yeongi.go.kr/statistical/webbook/2009/theme>

데 기인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생산력의 취약성으로 인한 기반 기능의 미약성에 기인한다.

3. 취락

1) 중심지 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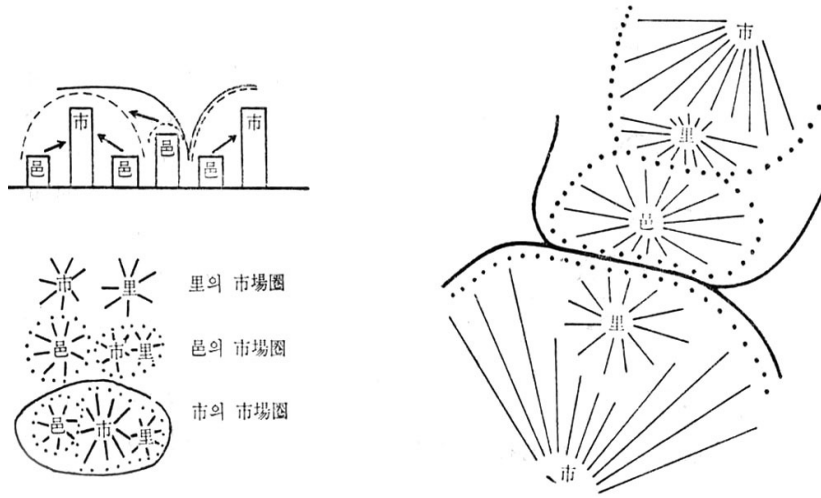
(1) 우리나라 농촌 중심지 취락의 입지, 형태 및 기능의 일반적 특성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입지, 형태 및 기능에 대해 기술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농촌 중심지의 형태와 기능에 대하여 박성호(1980, 73~104)의 공주지역 10개 가촌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전동면 중심지의 입지, 형태 및 기능에 대한 기술은 현지 답사, 문헌 자료 조사, 지도 분석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취락의 규모가 크든 작든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에서는 마을 자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기능의 중심지가 형성된다. 이러한 농촌 서비스 중심지는 가촌(街村)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촌은 엄밀히 말해 취락 전체를 고려할 때, 촌락에 속한다 하겠으나, 도로에 접하고 있는 취락의 중심부는 서비스 업을 비롯한 도시적 기능이 지배하고 있어서 순수한 촌락도 아니고 순수한 도시도 아닌 그 두 가지가 결합된 취락이기도 하다.

① 농촌 중심지 취락의 입지

농업 경제를 위주로 한 우리나라 촌락의 위치는 주위에 농경지가 있어야 하겠고, 생활하기에



〈그림 15〉 중심지 계층별 시장권

출처 : 박성호(1980, 81)

편리한 배산 입수의 산록면에 주로 자리잡고 있음이 그 특색의 하나이다. 인구가 늘고 취락의 규모가 점차 커져감에 따라 이웃 주민과의 접촉이 증대되고, 경제 활동도 농어촌의 생산·소비라는 자급적 단계를 벗어나 잉여 농산물과 자가 생산한 것 이외의 장소를 필요로 하게 됐고, 그런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기 편리한 장소가 생기게 되었다.

영세 농업 사회에서는 상설 시장이 형성되기보다는 정기시장이 형성된다. 며칠(3일, 5일, 7일, 또는 10일)에 한번씩 정기적 시장이 형성되는 바 이는 재화에 대한 요구가 적고 원시적 교통 기술에 의해 시장권이 제한을 받으며, 총수요가 상설시장을 유지하기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기 시장은 원래 도보로 하루 왕복 거리 내의 주위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나의 기초 시장권을 형성하고 수개의 기초 시장이 모여 중급 시장권을 이루며, 또 몇 개의 중급 시장권이 모여 중심 시장의 대시장권을 형성하게 된다. 기초 시장은 최하위의 중심지로 농촌 사회의 저위 중심지 기능을 갖게 된다. 촌락지역의 서비스 중심지 역할을 하는 가촌은 그곳에 중심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요구된다.

경제적 요인이 가촌형성에 크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 외에도 많은 다른 요인들이 가촌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원시적 물물 교환 시장 → 정기 시장 → 정규(상설) 시장'의 순서로 진행된 정기 시장의 발달 과정은 인구, 산업, 도시화, 교통 조건, 정치·경제·사회 제도 등의 제 요인과 함수 관계가 있다 하겠다. 정기 시장은 단순히 물류 유통이라는 경제적 기능 외에 인근 주민의 사교와 오락 및 정보 교환의 복합적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저위 서비스 중심지인 정기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가촌의 형성, 발달도 문화·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가촌에는 대개 정기 시장이 있고 저위 서비스 중심지 기능인 각종 상점들이 있어 재화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능, 관청(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농협 등),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등이 있어 가촌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주민(면내 주민)들

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면사무소가 있고 장터가 있는 가촌을 중심으로 하여 면내 주민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와 정보와 희노 애락을 주고 받으며 차츰 동화되고 하나가 되어 동질적 문화권, 동질의 문화권, 동질의 사회를 이루게 된다. 동질의 경제권, 동질의 문화권, 동질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촌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하는 주민들의 가치 체계, 사회적 행태는 가촌의 형태, 기능, 성장 발전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② 농촌 중심지 취락의 형태

농촌 지역의 경제 활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는 저위 서비스 중심지이다. 따라서 가촌은 가촌 주위의 지형, 경지, 자원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에 의해 그 형태가 특징지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가촌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 요소로는 중심 도로, 기능 지역, 주택 지역, 경지, 장터(없는 경우도 있음)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각 요소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냐에 따라 가촌의 형태적 특색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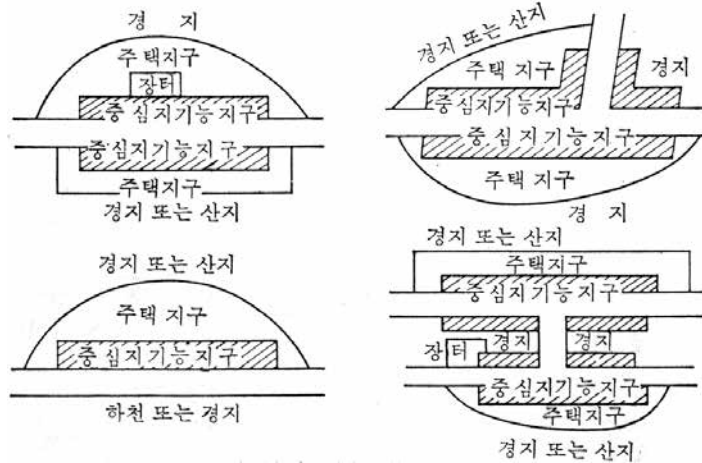
가촌을 분류하는 경우 취락의 형태와 가옥의 밀집 정도에 따라 집촌과 산촌으로 분류할 때 가촌은 집촌에 속한다. 한국의 가촌은 일반적으로 취락내의 도로가 불규칙하고, 가옥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는 괴촌형을 이루고 있으나, 가촌은 비교적 넓고 직선인 중심 도로가 있는 것이 괴촌의 형태와 크게 다른 점이다. 가촌의 규모가 농촌 지역 촌락 규모보다 큰 것은 이들 가촌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 지역의 행정,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촌은 일반 농촌과 같은 괴촌형이 아니고, 중심 도로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촌락이 밀집되어 있음이 특징이다.

원래 인간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면서 집단적으로 거주하여 상호의존의 생활을 하는 것이 본체이다. 그러기에 취락의 기본적 형태로서는 집촌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어서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 하겠다. 특히 가촌은 경작지와 관계보다도 사회 생활과 경제 활동에 중점을 두는 거주 형태인 바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취락 형태를 이루게 된다.

가촌의 기본 형태가 중심 도로를 중앙에 두고 기능 지역이 주심 도로변에 접하여 있고, 그 후면에 주택 지역, 그리고 그 뒤에 경작지가 분포하는 모습은 지대에 의해 설명 되어질 수 있다. 가촌의 중심 도로 변은 접근도가 높아 상업 활동이 지배하게 되며, 그 후면에 주택 지역이, 그리고 중심 도로에서 멀어지면 경지가 분포하게 된다. 지대(地代)는 장소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나,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모든 활동은 교통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성호(1980)의 공주지역 10개 가촌의 연구 사례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촌의 형태를 가촌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인 중심 도로, 기능 지역, 주택 지역, 경지, 장터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4가지의 유형이 식별된다.

국도 또는 지방도로는 가촌의 중심 도로를 이루고 있고 타 지역과의 연락 도로가 된다. 중심 도로는 대체로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중심 도로의 폭이 좁아(8m 미만) 우회 도로가 새로 건설되거나 중심 도로가 구도와 신작로의 이중으로 되어 있음이 특이하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그림 16〉 가촌 형태의 유형

출처 : 박성호(1980, 90)

않은 경우도 있으며, 도로는 대부분 포장되어 있으나 일부는 비포장 도로이다. 가촌의 중심 도로는 가촌 형태에 영향을 주며, 가촌이 농촌 지역의 서비스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교통이 중요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파출소와 소방대 등 몇몇 공공 서비스 기관과 상점들의 기능 지역은 대체로 중심 도로에 접하여 발달하고 있다. 가촌 중 중심 도로 양면에 대부분의 기능 지역이 선상(線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부는 중심 도로의 한쪽 편에만 기능지역이 있는데, 이는 다른 한쪽 편에는 하천이 중심 도로를 따라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넓은 대지를 필요로 하는 학교, 농협 창고, 교회, 면사무소 등의 기관과 장터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식당, 주점, 정육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과 공공서비스 기관 등은 중심 도로에 접하여 분포한다.

주택 지역은 중심 도로에 접하고 있는 기능 지역 후면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가옥과 도로의 배열은 대체로 불규칙하다. 중심 도로 중앙부에서 멀어질수록 가옥의 근집도는 낮아진다. 가촌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형, 경지 분포, 중심 도로의 형태에 따라 취락 전체의 형태가 일정치 않으나 대체로 불규칙한 장방형이거나 또는 타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경지는 주택 지역 외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지형, 관개수로 등에 의해 논 또는 밭으로 이용된다. 장터는 일부 가촌에 분포되어 있으며, 면 소재지이긴 하나 규모가 작은 곳에는 장터가 없다. 장터는 중심 도로에 접하여 있는 기능 지역 후면에 위치하며 형태는 대체로 장방형이다. 항구적인 점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없고, 비를 가릴 수 있는 장옥(場屋)이 2~3열로 배치되어 있다. 장터 변두리에 일부 점포가 있고 이들 점포는 대부분이 음식점, 주점, 정육점 등이고 간혹 잡화점도 있다.

③ 농촌 중심지 취락의 기능

가촌의 기능은 입지, 경제 활동 및 경제 구조, 사회·문화적 생활 등의 차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농업 활동이 중심인 농촌 취락도 있고, 어업이 주가 되는 어촌도 있다. 석탄이나 지하 자원

채굴과 관계가 깊은 광산촌이 있으며, 임업과 약초 재배가 중심인 산지촌도 있다. 가촌은 도로 교통이 편리하여 가촌내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농촌 주민과 직접 연결된 서비스 중심지이다. 공주지역 10개 가촌 지역에 나타나는 중심지 기능의 종류와 점포수를 정리하면,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파출소, 예비군 사무실, 의용 소방대, 우체국, 농협 사무소, 농촌 지도소, 초·중등 학교, 교회, 마을 회관, 농협 창고 등의 공공·행정적 서비스 기능은 총 점포수의 5.3~21.6%를 차지하며 평균 16.6%를 점한다. 평균에 미달하는 가촌은 버스 교통이 편리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거나, 또는 면 소재지가 아니며, 장터가 없는 것이 특색이다.

면사무소, 파출소, 의용 소방대, 우체국, 농협 사무소, 초등학교, 교회, 농협 창고 등의 행정, 교육, 종교적 서비스 기능은 대부분의 가촌에 존재하며, 고등학교, 중학교, 한전 사무소, 영업초 조합, 마을 금고, 농지 개량 조합 등의 서비스 기능은 일부 지역에만 나타나고 있다.

잡화점을 비롯하여 문방구, 담배 가게, 음식점, 정육점, 농협 연쇄점, 양복 수리점, 약방, 철물점, 전파상, 석유 판매상, 다방, 이발소, 미용실, 자전거 수리점, 경운기 수리점, 의원 또는 보건소 등 농촌 지역 주민이 일상 생활을 영위 하는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각종 소매 상점과 개인 서비스 기능은 총 점포수의 69.8~87.7%를 차지하며 평균 76.6%로 가촌의 가장 중요한 상업적 서비스 기능이 된다. 물론 이들 상업적 서비스 기능은 고위 계층의 중심지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면 질적인 면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서나 낮고 작다. 가촌의 규모, 입지, 지역 주민의 생활 상태, 교통 기관, 장터의 유무 등에 따라 각 가촌은 기능의 종류 수를 달리하고 있다.

정미소를 비롯하여 방앗간, 양조장, 목공소 등은 총 점포수의 4.6%~13.9%이고 평균 6.8%로 가장 낮은 점유율이다. 최말단 행정직 서비스 기관인 면 사무소는 8개 중 3만이, 우체국은 9개 중 3만이 중심 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반면, 파출소, 의용 소방대 등은 모두가 중심도로변에 접하여 입지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9개 중 5개가 중심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4개가 중심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그것도 가촌의 주변부에 자리 잡고 있다. 교회와 농협 창고 등은 모두가 중심 도로에서 떨어진 후면에 위치하고 있다.

잡화점을 비롯한 담배 가게, 약방, 전파·시계 수리상, 이발소, 미용실 등 지역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점포는 중심 도로 변에 분산적 분포를 나타내며, 문방구, 서점은 학교에 가까운 중심 도로 변에, 음식점, 정육점은 장터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자전거 수리, 경운기 수리점은 마을 입구 양변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장포, 대서소, 사진관 등은 면사무소에 가까운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다방은 중심 도로의 중앙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정미소, 양조장, 목공소 등의 제조업 기능 지역은 가촌의 주변부에 위치하나, 방앗간은 장터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고, 시멘트 브러크 공장은 마을 입구 넓은 공터에 자리 잡고 있다.

잡화점에는 문방구, 담배 가게를 접하는 것이 많고, 음식점은 대부분이 간이 음식점, 대중 음식점, 간이 주점, 정육점을 겸하고 있다. 전파상은 라디오, 텔레비전, 전기 제품의 판매보다 수리가 위주이고, 시계, 도장포는 독립적이라기보다 겸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에는 꼭 필요한 쌀가게, 연탄 가게 등의 저위 계층의 상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도 특색의 하나이다. 농촌 지역의 저위 서비스 중심지로서의 가촌에는 어떤 종류의 서비스 기능이 얼마나 나타나며, 그리고 어떤 공간 분포를 갖게 되는지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나 크게 인구수, 생활수준 및 생활양식, 면사무소와 장터의 유무, 교통·통신수단 종류, 지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공주지역 10개 가촌의 경우 인구수와 기능별 점포수와의 상관관계를 스피어만(Spearman) 상관계수를 보면, 0.64를 보이고 있고, 인구 1,000명 당 56.3개의 점포수를 나타내며 상업적 서비스 기능체 점포 수는 100명당 43.0개이다.

면사무소, 파출소, 의용 소방대, 우체국, 농협 사무소, 초등학교, 교회, 의원 또는 보건소 등의 공공·행정적 서비스 기능 등은 인구 수와 관계없이 1개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기능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행정적 서비스 기능이다. 잡화점, 음식점, 양복 수리점, 약방, 철물점, 이발소, 미용실, 자전거·경운기 수리점 등은 대체로 인구수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지고 있다.

생활 수준 및 생활 양식과의 관계는 자료가 없어 규명키 어려우나, 기능의 종류에 따라 최소 인구 요구 값이 다르고 최소 인구 요구 값은 소비 수준 및 소비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경제 수준과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도시지역 주택가의 상가 또는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세탁소, 연탄 판매점, 쌀가게, 어물, 야채류 및 기타 부식 등의 식료품점 등이 흔치 않고, 반면 비료 판매, 농약 판매, 사료 판매, 양조장 등의 기능이 나타나고 있음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석유 판매점, 전파 수리점, 페인트 판매점, 자전거·경운기 수리점 등은 생활 양식과 소비 형태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면사무소는 농촌 지역의 최말단 행정 기관으로 지역 주민의 행정적 서비스 기능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장터는 경제·사회적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농촌 지역 주민들이 모이고 대화하는 장소가 된다. 다방, 음식점, 정육점, 대서소, 사진관 등의 상업적 서비스 기능은 특히 면사무소, 장터와 밀접히 연관되어 분포하고 있다.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은 가촌의 기능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버스 교통의 발달은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 공간 범위와 정보에의 접촉 기회를 증대시켜 주었고, 이는 읍 또는 시와 같은 보다 고위 서비스 중심지와의 접촉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 고위 서비스 중심지로의 다목적 여행의 증가는 가촌지역의 상업적 서비스 기능의 정체 내지는 감소 현상을 초래케 되었다. 지대는 상업적 서비스 기능 점포의 위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임대 점포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2)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입지, 형태 및 기능의 특성

①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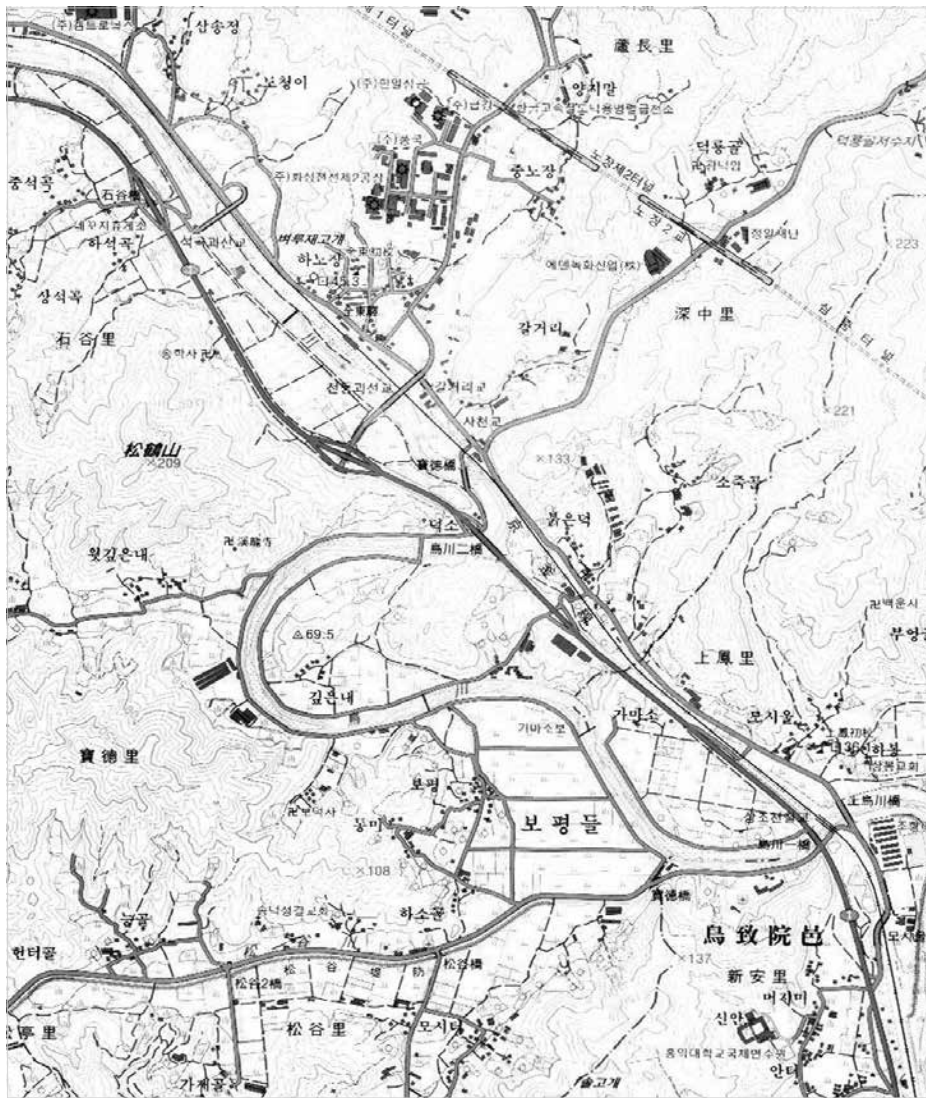
전동면 중심지 취락은 노장리 일대에 입지해 있는데, 노장리에는 전동면 전체 인구 4,410명의 20.7%에 해당되는 915명이 거주하고 있다.

노장리의 면 중심지 취락은 동쪽으로 약간 치우치긴 했으나 대체로 전동면 전체 지역에서의 접근도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입지해 있고, 여기에서 전동면 일대에서 가장 큰 하천인 조천과 그의 지류인 노장천, 그리고 그에 의해 형성된 범람원 축적평야가 대규모로 분포하여 농업 생산력이 크다. 또한, 전동면 중심지의 내외에는 경부선 철도의 전동역이 설치되어 있고, 1번 국도 및 1번 군도가 지나고 있고, 중심지 취락의 배후지에 비교적 규모가 큰 개별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다.

요컨대,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입지는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자연 지리적 및 인문 지리적 특성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통면 중심지 취락의 비교적 높은 균형적 접근도, 조천의 풍부한 하천수량과 조천에 의해 형성된 비옥하고 넓은 범람원 층적 평야의 주곡 작물 생산력, 주변 산지들의 풍부한 임산물 생산, 경부선 철도역의 입지와 주요 국도인 1번 국도와 주요 군도인 1번 군도의 통과, 공업 기능체들의 입지, 군 중심지 조치원읍에의 근접성 등이 전통면 중심지 취락의 중요한 입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면 중심지 배후를 지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은 이 지역에 정차 역이 부설될 경우 기존의 경부선 전통역과 더불어서 이 지역을 단기간에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잠재적 입지 요인이다.



〈지도 6〉 전통면 중심지 취락의 입지

주 : 하노장 일대의 전통면 중심지 취락은 배후에 운주산(雲住山) 등이 입지해 있고, 전면에 조천(鳥川)이 흐르는 전형적 배산임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2008b)



〈사진 8〉 전동면사무소 일대의 중심지 취락의 입지

주 :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전면에 경부선 철도, 1번 국도 및 1번 군도가 지나고 있다. 경부선 철도 상에는 전동역이 설치되어 있다. 배후 산지와 우측에 공장이 입지해 있다. 배후지에 최근 건설된 경부고속철도(사진 우측 상단의 고가도로)가 지나고 있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9〉 전동면 중심지 취락 앞을 흐르는 조천과 범람원 총적평야

주 : 조천의 범람원은 좌측이 1번 국도와 우측의 경부선 철도·1번 군도 사이에 발달되어 있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0〉 전동면 중심지 취락 앞 조천 너머의 주곡 및 전작물 경작지와 1번 국도

주 : 입간판 2개가 서있는 부분이 조천의 인공 제방이고, 인공제방 너머는 조천의 범람원 평야이다. 범람원 평야 너머 산지 아래의 직선 도로가 1번 국도이다. 산지 기슭에 전작지도 개발되어 있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1〉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가촌과 배후 거주지

주 : 가촌 배후 거주지에 연립주택이 입지해 있는데, 이는 주거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서 중심지의 상주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2〉 전동면 중심지 취락 전면의 경부선 철도와 전동역

주 : 사진에 하노장 일대의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거의 대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면 중심지 취락의 전면을 지나는 경부선 철도는 조천의 인공제방 위에 부설되어 있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3〉 전동면 중심지 취락과 배후의 공장 입지

주 : 면 중심지 취락 배후엔 노장산업단지가 있다. 사진의 우측 상단의 건물들은 공장이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4〉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가촌의 1번 군도와 693번 지방도의 교차점 삼거리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5〉 전동면 중심지 취락 우측의 조치원읍 방면 1번 군도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6〉 전동면 중심지 취락 가촌의 주유소와 상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7〉 전동면 중심지 취락 가촌의 음식점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8〉 전동면 중심지 취락 가촌의 도로와 보도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9〉 전동면 중심지 취락 가촌 부근의 693번 지방도와 1번 군도와의 교차점 삼거리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20〉 전동면 중심지 취락 가촌 부근 693번 지방도변의 농협전동지점과 상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③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기능과 경관

전동면 중심지 취락에는 도로변의 가촌과 이면의 골목에 33개 업종에 걸쳐 78개의 기능체들이 입지해 있다. 33개 업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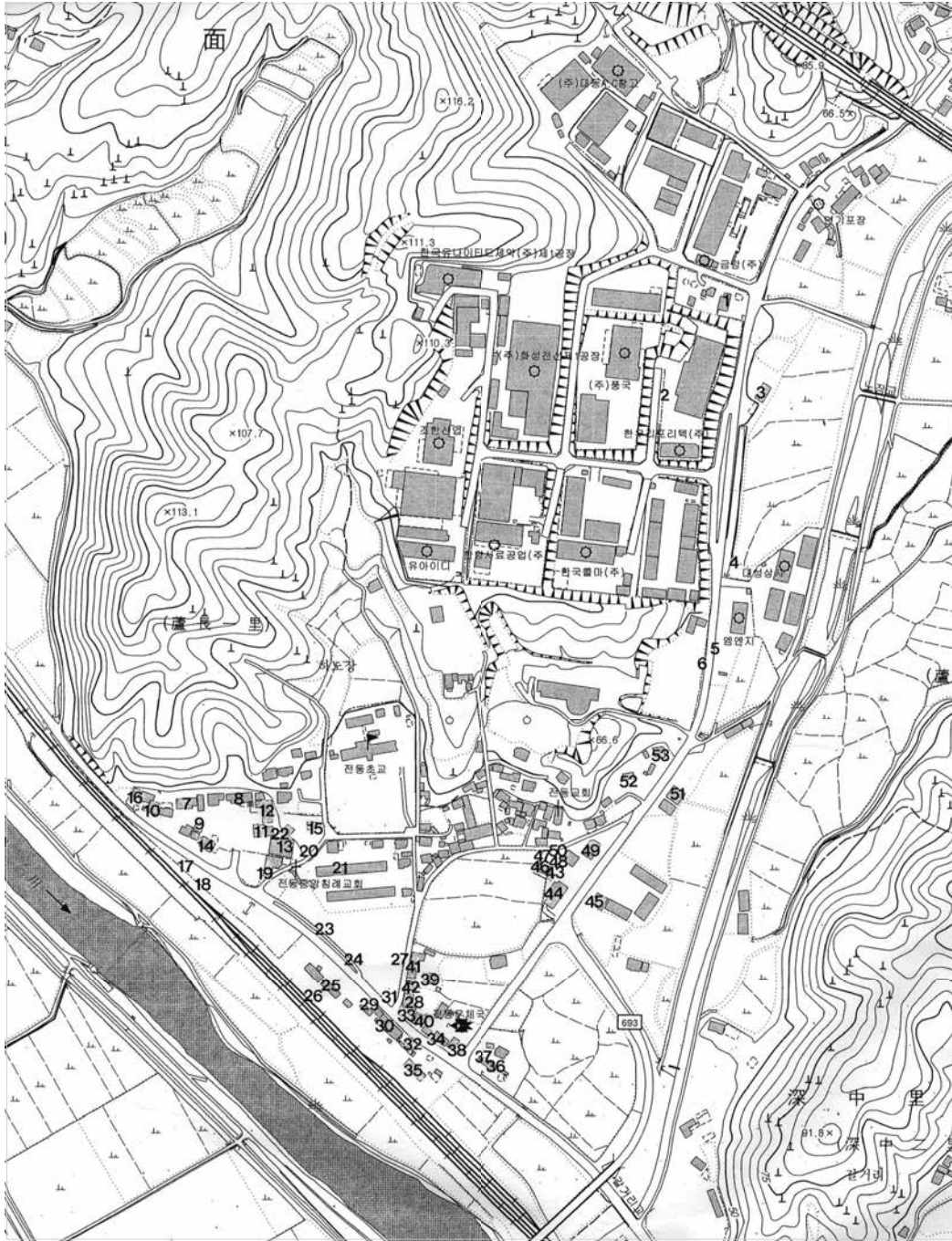
공장, 음식점(한식), 물류 회사 창고, 복지 회관, 영세 소매점, 건설사, 버스 주차장(버스 차고), 청소년 공부방, 공인 중개사, 카 센터, 정육점, 교회, 철도역, 버스 매표소, 초등학교, 면사무소, 파출소, 예비군 면대, 119 지역대(의용 소방서), 보건소, 전천후 게이트볼장, 노인회 지회, 이 용원, 오토바이 판매소, 지게차 대여점, 노래방, 다방, 주점, 주유소, 슈퍼마켓, 음식점(중식), 식품점(닭집), 약방

33개 업종별 기능체수의 구성을 보면, 공장이 26개로 가장 많고, 음식점(한식)이 7개, 물류 회사 창고가 4개, 복지 회관·영세 소매점이 각 3개, 건설사·버스 주차장(버스 차고)·청소년 공부방·공인 중개사·카센터·정육점·교회 등이 각 2개, 철도역·버스 매표소·초등학교·면사무소·파출소·예비군 면대·119 지역대(의용 소방서)·보건소·전천후 게이트볼장·노인회 지회·이용원·오토바이 판매소·지게차 대여점·노래방·다방·주점·주유소·슈퍼마켓·음식점(중식)·식품점(닭집)·약방 등이 각 1개 씩으로 되어 있다.

한편,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가촌과 가촌 이면의 골목에 입지한 각종 기능체들 가운데서 전동면 사무소, 전동역, 전동우체국 등은 20세기 초 근대적 가촌의 발생 및 입지 시부터 지금까지 중심지 취락의 발생과 유지·발전에 중요한 기제(機制) 역할을 했고, 이후 이것들을 중심으로 거주 기능체를 비롯하여 음식점, 주점 등의 관련 서비스업 기능체들이 입지했다.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기능체들이 입지한 건물은 대부분이 1층이고, 2층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은 가촌에서 다소 안으로 들어서 비교적 넓은 부지에 입지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가촌 배후지에는 기존의 단독 주택 이외에 최근 들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집합적 주거들이 입지하고 있다. 전동면사무소 일대에는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보건소, 예비군



〈지도 8〉 전동면 중심지의 기능체 입지

- 주 : 1. 산업단지 복지회관·매점, 2. 연기노장산업단지, 3. 솔가든, 4. 서울집, 5. 가비안건설, 6. 미호산업, 7. 연립주택, 8. 전동면사무소, 9. 전동예비군면대, 10. 전동손짜장, 11. 전동면복지회관, 12. 전동면보건소, 13. 전동면전천후게이트볼장, 14. 119지역대, 15. 전동파출소, 16. 폐정미소, 17. 전동역, 18. 전동국제만화루, 19. 도원슈퍼, 20. 대림모터사이클, 21. 도원아파트, 22. 청소년공부방, 23. 엠에스케이, 24. 케인씨·에덴사업, 25. 윤주네식당, 26. 전동역, 27. 서울닭집·식당, 28. 작은터공부방, 29. 전동다방, 30. 전동식당, 31. 전동약방, 32. 한양화물, 33. 신진이용원, 34. 세종공인중개사, 35. 전동오일뱅크, 36. 삼거리정육점, 37. 삼거리슈퍼, 38. 전동캐너, 39. 전동매포소, 40. 현대정육점, 41. 전동부동산, 42. 청양물류, 43. 대지카센터, 44. 농협하나로마트, 45. 전동지게차대여점, 46. 양촌기사식당, 47. 노래방, 48. 성모건설, 49. 대한노인회전동면지회, 50. 단란주점, 51. 공장, 52. 계룡우등관광, 53. 주차장(버스 차고)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2008c) 및 2010년 9월 필자의 현지 조사 자료

면대, 전천후 게이트볼장, 119 지역대, 파출소 등이 집합적으로 입지해 있거나 서로 근접해서 입지해 있다.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가촌에 주유소와 카센터가 입지해 있는 것은 이 지역에도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중심지 취락의 배후에 입지한 노장산업단지외 그 주변에 산재해 입지한 각종 제조업 기능체들은 다른 지역의 면중심지 취락들과 달리 특이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현재 693번 지방도 변에 기존에 입지해 있는 전동우체국, 전동농협 등과 더불어서 새로운 가촌을 형성시키고 있다.

(표 9) 전동면 중심지 기능체의 업종별 구성

업종	구성수(개)	구성비(%)	업종	구성수(개)	구성비(%)
공장	26	33.3	이용원	1	1.2
건설사	2	2.5	카센터	2	2.5
버스주차장(버스차고)	2	2.5	오토바이판매소	1	1.2
철도역	1	1.2	지게차대여점	1	1.2
버스매표소	1	1.2	노래방	1	1.2
물류회사창고	4	5.1	다방	1	1.2
초등학교	1	1.2	주점	1	1.2
면사무소	1	1.2	주유소	1	1.2
파출소	1	1.2	정육점	2	2.5
예비군면대	1	1.2	슈퍼마켓	1	1.2
119지역대(의용소방대)	1	1.2	영세소매점	3	3.8
보건소	1	1.2	음식점(한식)	7	8.9
복지회관	3	3.8	음식점(중식)	1	1.2
전천후게이트볼장	1	1.2	식품점(닭집)	1	1.2
노인회지회	1	1.2	약방	1	1.2
청소년공부방	2	2.5	교회	2	2.5
공인중개사	2	2.5	계	78	100

출처 : 2010년 9월 필자의 현지 조사 자료

(표 10) 전동면 중심지 기능체의 구성 단위수별 업종 구성

순위	구성 단위 수(개)	업종	업종수 (개)	구성 총 수
1	26	공장	1	26
2	7	음식점(한식)	1	7
3	4	물류회사창고	1	4
4	3	복지회관, 영세소매점	2	6
5	2	건설사, 버스주차장(버스차고), 청소년공부방, 공인중개사, 카센터, 정육점, 교회	7	14
6	1	철도역, 버스매표소, 초등학교, 면사무소, 파출소, 예비군면대, 119지역대(의용소방서), 보건소, 전천후게이트볼장, 노인회지회, 이용원, 오토바이판매소, 지게차대여점, 노래방, 다방, 주점, 주유소, 슈퍼마켓, 음식점(중식), 식품점(닭집), 약방	21	21
		계	33	78

출처 : 2010년 9월 필자의 현지 조사 자료

요컨대, 전동면 중심지 취락에는 가촌을 중심으로 면사무소, 파출소, 철도역 등 공공적 서비스업 기능체, 음식점, 식품점, 카센터 등의 상업적 서비스업 기능체, 공장 등의 제조업 기능체 등이 입지해 있는데, 이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 창출과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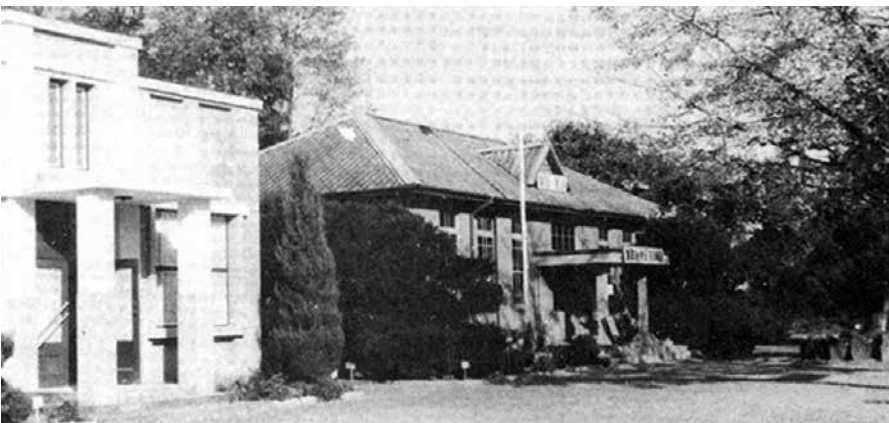
한편,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일부 기능체들은 축조한지 오래되거나 폐쇄되어 건물 외관이 퇴락한 경우가 많다.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가촌에 간혹 입지해 있는 거주 기능체들의 존재는 가촌에서 토지 이용과 관련된 지대의 발생이 상업적 토지이용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가촌에 잔존해 있는 폐정미소는 가촌 취락의 주요기능의 하나로서의 주곡 농산물 가공 기능이 소멸되었고, 이로 인해 가촌의 쇠퇴가 가속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기타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전동역 일대에는 전동역국제만화루가 비교적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어서 특이 경관을 이루고 있다.



〈사진 21〉 20세기 초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거주지

출처 : <http://hongbo.yeongi.go.kr>



〈사진 22〉 1975년의 전동면사무소

출처 : <http://hongbo.yeongi.go.kr>



〈사진 23〉 1927년에 설치된 전동역

출처 : <http://hongbo.yeongi.go.kr>



〈사진 24〉 전동면 중심지 취락 내부의 음식점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25〉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주유소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26〉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영세 소매점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27〉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음식점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28〉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음식점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29〉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상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30〉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상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31〉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상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32〉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약방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33〉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상가와 폐상점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34〉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골목상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35〉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음식점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36〉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개량가옥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37〉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전동역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38〉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파출소, 전동초등학교 및 도원아파트 입구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39〉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영세 소매점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40〉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오토바이 판매소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41〉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교회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42〉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파출소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43〉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전천후 게이트볼 장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44〉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전동초등학교

출처 : <http://www.yeongi.go.kr>



〈사진 45〉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전동면사무소

출처 : <http://www.yeongi.go.kr>



〈사진 46〉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면사무소, 보건소, 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47〉 전통면 중심지 취락의 보건소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48〉 전통면 중심지 취락의 복지회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49〉 전통면 중심지 취락의 예비군면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50〉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119 지역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51〉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좌측 끝 부분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52〉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중국음식점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53〉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폐정미소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54〉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연립 주택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55〉 전동면 중심지 취락 부근 693번 지방도의 전동과선교 진입도로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56〉 전동면 중심지 취락 부근 693번 지방도 변의 카센터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57〉 전동면 중심지 취락 부근 693번 지방도 변의 우체국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58〉 전동면 중심지 취락 부근 (청송리에서 석곡리를 연결하는 석곡과선교)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59〉 전동면 중심지 취락 부근 693번 지방도변의 농협 전동지점, 상가 및 공장

주 : 철도변 도로가 1번 군도이고, 농협 전동지점 앞의 도로는 693번 지방도이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60〉 전동면 중심지 취락 부근 693번 지방도 변의 상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61〉 전동면 중심지 취락 부근 693번 지방도 변의 농협지점

주 : 철도변 도로가 1번 군도이고, 농협지점 앞의 도로는 693번 지방도이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62〉 전동면 중심지 취락 부근 693번 지방도 변의 경부고속철도와 공장

주 : 철도 앞의 도로는 1번 군도이다. 공장 뒤로 경부고속철도가 보인다. 공장 앞의 도로는 693번 지방도로서 전동과선교를 연결부로 하여 1번 군도 및 1번 국도와 연결된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63〉 전동면 중심지 취락 부근 693번 지방도 변의 공장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64〉 전동면 중심지 취락 부근 693번 지방도 변의 공장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65〉 전동면 중심지 취락 부근 693번 지방도 변의 노장산업단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66〉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전동역국제만화로 입간판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67〉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전동역국제만화로의 벽화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68〉 전동면 중심지 취락의 전동역국제만화로의 한 벽화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2) 농촌 취락

(1) 우리나라 농촌 취락의 일반적 특성

① 농촌 취락의 입지

우리나라 일반 촌락으로서의 농촌의 입지는 대체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냇물과 들판을 바라보는, 이른바 배산 임수(背山 臨水)의 입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일반 농촌의 입지는 한 방향이 터져 들로 이어지고, 다른 세 방향은 산지나 구릉으로 둘러싸여, 이른바 ‘골’형을 이루는 곳이 많다. 전동면 지역의 일반 농촌도 거의 이러한 ‘골’형 입지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구릉성 지형이 많기 때문에 ‘골’을 이룬 구릉지와 구릉지 사이에 취락이 입지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골’형 입지는 식량과 식수를 얻기 쉽고, 농경지를 아낄 수 있는 잇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의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겨울은 길고 춥다. 추위에 대비한 난방 시설이 온돌에만 의존했던 과거에는 배후의 산지는 연료 채취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추운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는 방풍 효과도 발휘할 수 있었다. 또 앞의 냇물과 들판은 벼농사 위주의 농업 지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산 공간이 되는 것이며,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곳, 즉 경사 변환점에서는 물(湧泉水, 湧泉水)이 솟아나는 곳이 많으므로 음료수의 구득이 용이하다. 또 뒤의 산에 나무가 많으면, 그것이 곧 앞의 들판에 물을 댈 수 있는 수원(水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 환경 조건 때문에 ‘골’형의 배산임수 입지는 우리나라 일반 농촌 취락의 가장 보편적인 촌락 입지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자연 환경 조건을 고려해서 얻은 취락 입지관(聚落 立地觀)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적 속성으로 정착되어 이른바 풍수 지리설(風水地理說)이나 복거사상(卜居思想)과 결합되기에 이르렀고, 그리하여 풍수상 길지(吉地)로 평가되는 곳은 대체로 이러한 ‘골’형 입지 및 배산임수의 지형과 일치하는 곳이 많게 된 것이라 하겠다.

풍수설은 크게 양택론(陽宅論, 집자리 풍수)과 음택론(陰宅論, 묘자리 풍수)으로 나누는데, 음택론에서는 뒤로 산을 업고(玄武), 좌우로 산이 둘러져 있으며(좌청룡 우백호, 左靑龍 右白虎), 물을 얻을 수 있는 곳(득수, 得水)을 대체로 형국(形局)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양택론에서는 뒤에서 내려 온 산줄기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들을 건너 봉우리로 솟아나고 지맥이 감싸고 돌면서 골판(동부, 洞府)을 만들어 궁내(宮內)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나는 곳이라야 마을의 기본조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한다. 소위 ‘국(局)’이라든가 ‘골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곳은 모두 이러한 ‘골’형을 이룬 지형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골’형은 조선조 이래 뿌리 깊이 내려 온 조상 숭배 사상과 결부되어 동족촌(同族村)의 형성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역사 오랜 전통 마을의 전형은 대체로 배산임수형을 이루고, 마을의 뒷산에 중요한 조상의 묘가 있으며, 동족촌(同族村)을 이루고 있다. 전통면 지역의 일반 농촌도 거의 이러한 동족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농촌 취락의 형태

촌락의 형태는 먼저 가옥의 밀집도에 따라 집촌(集村)과 산촌(散村)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 농촌은 거의 다 집촌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집촌은 다시 가로망의 조직과 마을의 형태에 따라 괴촌(塊村)·열촌(列村)·노촌(路村)·환촌(環村)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면 지역의 일반 농촌 역시 거의 집촌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집촌 중에서도 주로 괴촌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괴촌은 가옥들이 불규칙하게 모여 있는 형태이다. 농촌 취락들이 이러한 불규칙한 괴촌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배경을 들 수 있다.

첫째, 취락의 발생이 거의 다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자연발생적 촌락에서는 취락 발생의 일반적 입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택하여 최초의 취락이 형성된 후, 시간이 경과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옥들이 분화·발전하여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는 계획적인 가옥의 배치보다는 불규칙한 괴촌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둘째, 지형적인 원인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 농촌이 다 그러하듯이, 전통면 지역의 농촌도 대개 구릉지와 구릉지 사이 혹은 곡저 평야지대(谷底 平野地帶)에 입지하고 있다. 구릉지의 경우 주위가 산지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평지에 비하여 가옥을 짓기에 적당한 대지는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조금이라도 평탄한 땅은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해 가옥들이 구릉지 말단에 불규칙하게 집중 배치될 수밖에 없다. 곡저 평야에서도 수해를 피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평야의 안쪽 보다는 평지와 산지가 만나는 계면부(界面部)에 가옥들이 집중한다.

셋째, 농업 형태와의 관계이다.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전통면 지역의 경우도 조선 시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밭농사 위주에서 벼농사 위주로 전환되어 왔는데, 이러한 벼농사 중심의 농업이 촌락의 집촌화를 조장하게 되었다. 벼농사는 수리시설의 축조·관리에 많은 공동의 노동력이 필요하며, 특히 이앙기, 수확기 등에 일시에 많은 노동력이 집중 투입되어야 하므로 노동력의 공동화·조직화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집촌화를 촉진하는데 큰 동인(動因)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동족적 결합의 영향이다. 물론 동족적 결합력이 집촌화의 절대적인 동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동족촌(同族村)은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조상 숭배 전통, 분가 내지 상속에 있어 종가(宗家)를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으로 분화·확대하여 집성촌(集姓村)을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집성촌은 집촌의 형태, 즉 괴촌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통면 지역의

동족촌들도 현재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해체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괴촌의 형태를 띠고 있다.

③ 농촌 취락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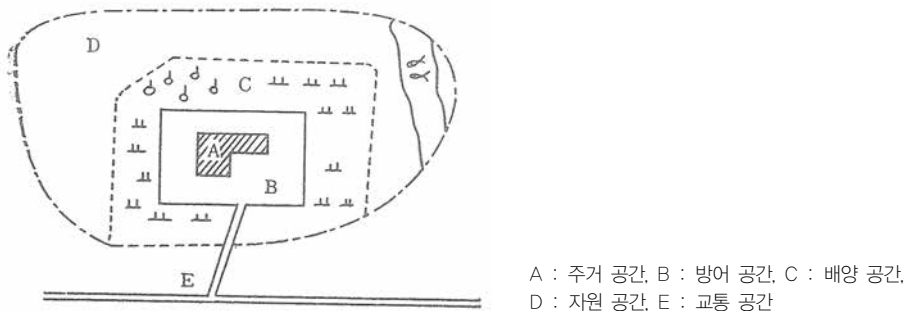
촌락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일반적으로 말하기란 매우 어려우나, 그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적인 요소는 가옥이라고 하는 점, 경지라고 하는 면, 도로라고 하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하나의 농가에서 수 백호로 이루어진 큰 마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농촌 취락의 공간구조 모델'을 정립할 수 있다.

농촌 취락의 공간 구조 모델에서, 이를 하나의 농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A는 건축물로서의 가옥으로 안방·웃방·건너방·대청·부엌에 해당되고, B는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 C는 집 둘레의 농경지, D는 가령 지붕의 재료가 되는 새(모, 茅)나 물고기 등 특수 자원을 얻는 곳, E는 농가와 농가를 잇는 도로에 해당된다.

또 농촌 취락의 공간구조 모델을 마을 전체나 성곽 도시의 레벨에서 보면, A는 농가들이 모여 있는 동네 혹은 성곽 내의 건물, B는 동네의 가옥들이 모여 있는 경계선 혹은 성곽, C는 마을이나 성곽 밖의 농경지, D는 특수자원을 얻는 곳, E는 마을과 마을, 성곽과 성곽을 잇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농가 또는 마을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영농 활동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 된다. 농가 또는 마을로부터 매일 노동력·비료·기타 생산재가 주위의 경지로 반출되고, 경지로 부터는 생산물이 반입된다. 따라서 농촌 공간은 가옥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공간과 경지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 공간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양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촌 공간은 생활 공간과 생산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도시 공간과는 다른 것이다. 농촌 공간에서는 이 양자가 분리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 취락을 합리적으로 개발하려면, 이 양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역사 오랜 전통 마을, 특히 풍수지리관에 입각하여 입지된 촌락들은 '기승전결(起承轉結)적 촌락 구조 모델'에 입각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촌락들은 좋은 산수 배치를 갖고 있다. 즉, 산이 마을 앞을 가리고 있거나 마을 옆으로 길게 뻗어 있고, 물이 S자형으로 흐르며, 큰 길로부터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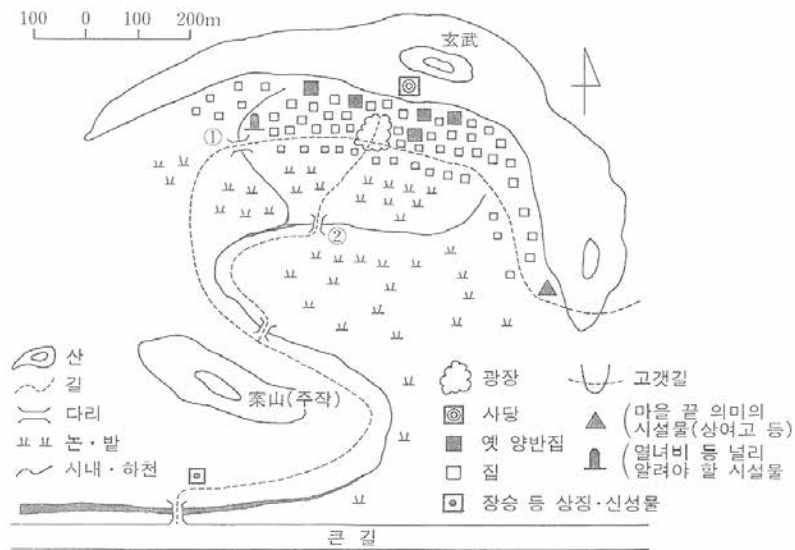
〈그림 17〉 농촌 취락의 공간 구조

출처 : 이문중(1982, 324)

안으로 이어진 길은 자연히 직선이 아니고 곡선 형태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기승전결적 촌락 구조 모델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장승이 세워져 있거나 시냇물 위에 다리가 있고 마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이 세워져 있는데, 이러한 마을의 입구가 기(起)이다. 마을 입구를 지나 마을을 가리는 언덕 모퉁이를 완만한 곡선형 길을 따라 들어가면 마을 중심부가 보인다. 이 길은 마을 초입까지 뻗혀 있는데, 여기의 길가에는 아직 집이 없다. 여기가 승(承)이다. 마을 중심부 초입의 다리를 건너 효자비·열녀비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집들이 모여 집촌 형태를 이루는데, 이러한 마을의 중심부가 전(轉)에 해당한다. 기승전결적 체제의 중핵 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 중심부 중에서도 풍수상 길지(吉地)로 보여 지는 곳에는 종가(宗家)집이나 유력한 후손들의 집이 고풍스럽게 위치한다. 그 아래나 주변에는 영세 가옥들이 밀집하여 분포한다. 또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사당(祠堂)도 있고, 넓은 광장 같은 것도 있고, 고목으로 자란 동수(洞樹)도 있으며, 경치 좋은 곳에는 정자(亭子)도 있다. 이러한 마을의 중심부를 지나 더 나가면 가옥들의 밀집도도 떨어지고 상여집이나 기타 멀리 두어야 할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곳들이 마을을 종결짓는 부분, 즉 결(結)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승전결적 구조는 마을 마다 각기 사정 여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선호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승전결적 구조는 우리나라 역사 오랜 전통 마을이면 부자 마을이나 동성촌이 아니더라도 어느 마을에나 적용할 수 있는 구조 모델이며, 전통면의 전통마을도 이 범주에 넣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18〉 기승전결적 촌락 구조

출처 : 임덕순(1990, 243)

④ 농촌 취락의 최근 변화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 이후 이룩된 경제 건설과 더불어 농촌 지역에도 공업화·도시화의 물결이 파급되고, 특히 1970년부터 시행된 새마을운동, 1977년부터 추진되어 온 취락구조 개선 사업, 더욱 개량 주택의 건설과 아파트의 건설 등으로 우리나라의 농촌은 가옥의 재료와 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구조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이제 전통마을의 원형을 복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대체로 일반 농촌마을에서의 변화는 마을 내부보다는 마을 입구, 즉 동구(洞口) 부분에서 더 큰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마을 진입로의 개설 및 확장 때문이었다. 과거 마을 입구에는 동구나나무나 마을 숲, 장승, 솟대, 돌무지, 당산목, 정자, 비각 등이 있어 마을 입구의 경관을 이루었다. 물론 이들 요소는 마을에 따라 하나만 존재하는 예도 있지만, 대략 둘 이상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마을 입구의 경관이 지금은 많이 변화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신작로(新作路)의 개설, 토속 신앙을 미신으로 간주하는 서양 종교의 침투와 정부의 의식 개혁 운동 등이 중요했으며, 특히 유교 경관의 황폐화는 동족 집단의 와해에서 비롯된 관리 소홀에 그 원인이 컸다.

마을 경관의 변화에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새마을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에 의한 생산 기반 사업으로 먼저 마을 진입로와 농로의 확장과 포장에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당시까지 남아 있던 마을 입구의 전통 경관들이 상당수 파괴되었다. 또한 생산 기반 사업에 이어진 촌락 공간 구조 개선 사업은 공공 시설의 건립에 중점을 두어 마을 입구를 중심으로 마을 회관, 공동 창고, 노인정, 공동 구판장 등의 건축물이 마을마다 들어서게 되었다. 이리하여, 어떤 면에서는 새마을 운동은 농촌 마을의 경관을 획일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을 안의 경관 요소들은 마을 입구의 그것에 비해 변화가 적다고 하겠지만, 역시 큰 변화를 이루고 있다. 과거에는 안길이 지금보다 매우 좁고 구불구불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진입할 정도로 넓혀지고 곧아진 곳이 많다. 마을 안에는 공동의 샘(우물)이 한 두 곳 이상 반드시 존재했는데, 지금은 각 가호마다 자가 수도를 사용한다. 과거의 공동 우물은 마을 사람들의 식수원이었음은 물론이고, 마을 아낙들의 모든 정보 교환 장소였으며, 우물에 제사를 올리는 등 마을 공동체적 행사의 장소였다.

가옥의 밀집도에 있어서는 지금에 비하여 과거의 그것이 일반적으로 훨씬 조밀하였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공터(공지,空地)가 있으면 놀리지 않고 텃밭으로 이용하는 등 마을 내부의 토지이용이 매우 집약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농촌 인구가 대거 도시로 이주해 가고 그들이 거주하던 가옥이 빈집으로 남아 있는, 이른바 공가(空家)를 도처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한편, 과거 농촌 지역에 인구가 포화상태로 존재하고 있던 당시에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지나 산골짜기 비탈진 곳의 땅도 빈틈없이 이용됐으나, 지금은 이런 경작이 불리한 토지는 폐경화(廢耕化) 혹은 휴한지화(休閑地化)되어 있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서 촌락의 가옥의 재료와 형태도 변하고 있다. 서민들의 전통적인 살림 집인 민가는 그들의 일상 생활 공간이며, 오랜 기간 동안 이용되어 온 건축물로, 그 재료나 형태 및 구조에는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온 주민들의 생활 양식이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가옥의 특성을 살피는데 가장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가옥의 재료와 구조이다.

특히 전통 가옥의 건축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자원 즉 흙과 흙벽돌, 목재, 석재 등이고, 지붕의 재료는 볏짚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60년 이후의 경제 건설은 가옥의 재료와 형태를 크게 변화시켜서 초가집이 스테이트 지붕으로 개량되었고, 흙과 목재 등의 건축 재료는 벽돌집이나 콘크리트 가옥으로 변화되었다. 현재 전통면 지역에서 초가는 과거의 유물로서나 존재할 뿐이다.

이외에 농촌 지역에도 아파트의 건설이 급증하고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수요의 급증, 교통의 발달과 생활의 편리함, 도시 지역 보다 저렴한 지가와 부지 확보의 수월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이 점차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도 이제 단순한 식량 생산의 공간이 아니라 정주 공간(주거 공간), 공산품 생산 공간, 레저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은 전통면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2) 전통면 농촌 취락의 특성

① 전통면 지역 일반 농촌 취락의 개관

전통면 지역의 일반 농촌 취락은 입지와 형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일반 농촌 취락들과 거의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전통면 지역의 일반 농촌 취락은 자연 환경과 문화적 요인에 따라 배산임수의 입지에서 집촌(集村)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의 일반 농촌 취락은 예외적으



〈지도 9〉 전통면 지역의 일반 농촌 취락의 입지와 구조

주 : 전통면 지역의 일반 농촌 취락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집촌과 산촌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집촌은 보덕2리 일대에서, 산촌은 심중리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2008d)

로 저산성 산지 일대에서 산촌(散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전동면 지역의 일반농촌취락은 전통취락의 경우 기승전결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동면 지역의 일반 농촌 취락은 축산업의 발달, 공장의 입지, 새로운 경관의 출현 등의 측면에서 크게 변하고 있다.

② 전동면 지역 집촌의 입지와 형태

전동면 지역의 집촌은 다른 일반적인 집촌들과 마찬가지로 배산임수의 입지를 취하고 있어서 취락의 전면과 후면에 각각 전작지와 답작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답작지 일대에 하천이 흐르는 것이 일반적 양상이다. 취락 배후의 전작지 일대에서는 임산물 생산도 이루어지며, 동시에 전작지 일대는 조상의 음택(묘지)으로도 이용된다. 이러한 배산임수의 취락 입지는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겨울철 북서계절풍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면서 전통적인 풍수지리적 길지사상(風水地理的 吉地思想)을 적용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취락의 집촌, 특히 괴촌의 형태는 동쪽촌의 성격과 봄과 가을의 단기간에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는 미작 농업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다. 전동면 지역 일반 농촌 취락의 집촌은 농촌 취락의 공간 구조 모델에도 부합되어 주거 공간, 방어 공간, 배양 공간, 자원 공간, 교통 공간 등의 구성요소도 잘 드러나고 있다.

1:5,000 지형도 청주 041 도폭에서 사례로 제시된 보덕2리 집촌의 경우는 풍수지리적 배산임수 집촌의 전형적 사례로서 주거·방어·배양·자원·교통공간으로 구성된 농촌 취락의 공간 구조



〈지도 10〉 전동면 보덕2리 지역의 집촌의 입지와 구조

주 : 지도 좌측 상부의 보덕2리 마을은 배후의 구릉성 산지를 배산으로 하고 심천천을 임수로 하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취락으로서 풍수지리적 특성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배후 산지에 전작지와 음택이 조성되어 있고, 전면 하천 연변에 답작지가 조성되어 있다.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2008d)

모델 등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전통면 지역의 집촌은 특히 동쪽촌적 성격으로 인해서 괴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기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괴촌은 대부분이 두 구릉의 말단 삼각부 사이의 골(골짜기)에 입지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취락의 입지 형태를 ‘골형 입지’라고 부른다. 이러한 취락의 골형 입지는 대부분이 배산임수의 미작지대에서 나타나는데, 전작을 하는 산촌(散村)의 골에서도 소규모이지만 드물게 나타난다. 배산임수 집촌들 가운데서는 골형 입지의 괴촌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간혹 배후 산지와 전면 답작지 사이의 경사 변환선에 입지한 열촌(列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산지와 평지 사이에 골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지나치게 습지화되어 있어서 취락 입지에 적합하지 않은데 기인한다.

또한 전통면 지역의 일반 농촌에서도 기승전결적 촌락구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집촌에는 미작 농업에 중요한 하천, 농산물의 운반 통로인 도로 등이 중요시되어 잘 관리되고 있으며, 마을 중심부의 풍수상 길지에 종가, 사당, 정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취락의 안전, 번영 등과 관련하여 취락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동수(洞樹), 장승, 솟대 등이 취락의 입구부에서 있으나, 대부분 퇴락해 있거나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



〈사진 69〉 송곡리의 괴촌형 골형 입지 집촌(농농사 지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70〉 청송리의 괴촌형 골형 입지 집촌(농농사 지대)

출처 : <http://hongbo.yeongi.go.kr>



〈사진 71〉 보덕리의 괴촌형 골형 입지 집촌(논농사 지대, 1990년대)

출처 : <http://hongbo.yeongi.go.kr>



〈사진 72〉 노장리의 괴촌형 골형 입지 집촌(논농사 지대, 1970년대)

출처 : <http://hongbo.yeong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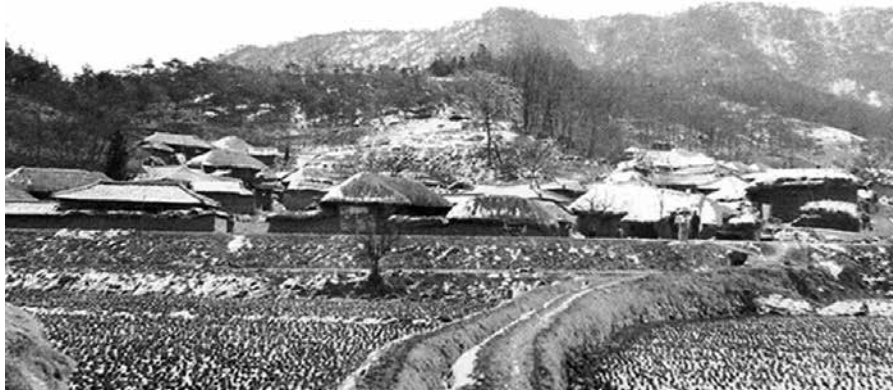
〈사진 73〉 봉대리의 괴촌형 골형 입지 집촌(논농사 지대, 1970년대)

출처 : <http://hongbo.yeongi.go.kr>



〈사진 74〉 봉대리의 괴촌형 골형 입지 집촌(농농사 지대, 1970년대)

출처 : <http://hongbo.yeongi.go.kr>



〈사진 75〉 미곡리의 괴촌형 골형 입지 집촌(농농사 지대, 1970년대)

출처 : <http://hongbo.yeong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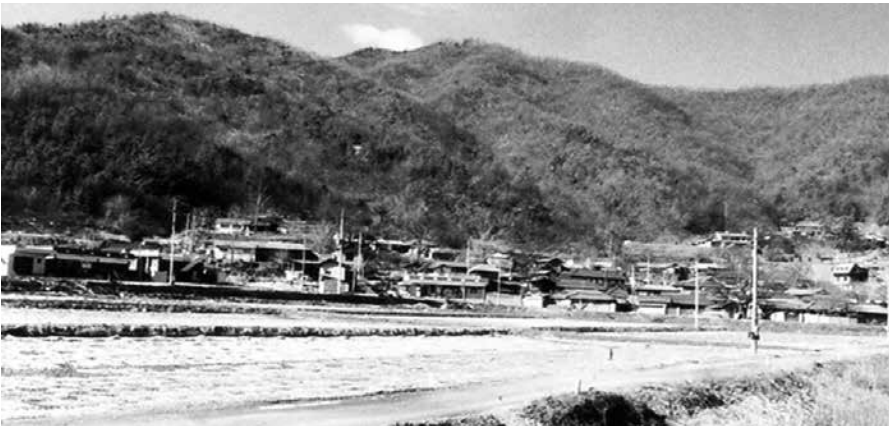
〈사진 76〉 미곡리의 괴촌형 골형 입지 집촌(농농사 지대, 1990년대)

출처 : <http://hongbo.yeongi.go.kr>



〈사진 77〉 송성리의 괴촌형 골형 입지 집촌(논농사 지대, 1970년대)

출처 : <http://hongbo.yeongi.go.kr>



〈사진 78〉 송성리의 괴촌형 골형 입지 집촌(논농사 지대, 1990년대)

출처 : <http://hongbo.yeongi.go.kr>



〈사진 79〉 송곡리의 괴촌형 집촌(밭농사 지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80〉 청송리의 열촌형 집촌

주 : 골(골짜기)에 이미 촌락이 완전히 충전되어 있을 경우 경작지의 확대에 의한 촌락의 확장 과정에서 새로운 촌락은 골과 골 사이에 돌출한 구릉지 기슭의 경사 변환선에 선형으로 입지하게 된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81〉 노장리의 열촌형 집촌(1990년)

출처 : <http://hongbo.yeongi.go.kr>



〈사진 82〉 보덕리 집촌(농사 지대) 앞의 하천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83〉 송성리의 경작지 내 도로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84〉 석곡리의 경작지 내 도로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85〉 석곡리의 마을 앞 동수(洞樹) : 마을 수호신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86〉 보덕리 집촌의 내부구조 : 마을 안길의 포장 정리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87〉 미곡리 집촌의 내부구조 : 마을 안길의 포장 정리, 양옥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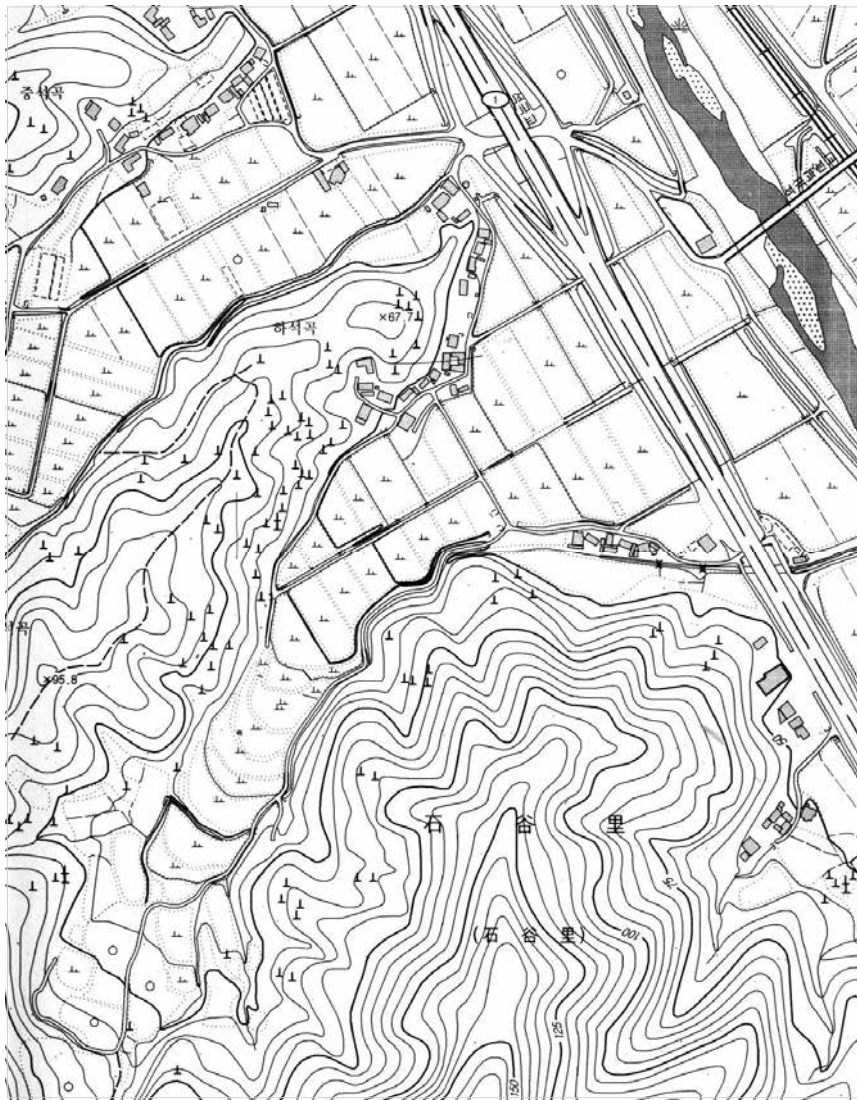
〈사진 88〉 송곡리 집촌의 내부구조 : 마을 안길의 포장 정리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③ 전동면 지역 산촌(散村)의 입지와 형태

전동면 지역에는 하천에 의한 범람원 충적지 뿐만 아니라 구릉성 산지도 곳곳에 보편적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전작을 주로 하는 산촌(散村)이 독립(고립) 가옥이나 소촌(小村)의 형태로 구릉지의 말단 삼각부, 산지와 평지사이의 경사 변환선, 평지 등에 입지해 있다. 소촌은 전작 지대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간혹 미작 지대에서도 나타나고 골형 입지를 취하기도 한다.

전동면 석곡리 일대의 1:5,000 지형도의 좌측 중·상부에서 중석곡과 하석곡의 취락들은 주로 미작 농업을 행하면서 열촌 형태의 집촌(集村)을 형성하고 있으나, 지도 우측 중·하부의 취락들은



〈지도 11〉 전동면 석곡리 지역의 산촌의 입지와 구조

주 : 지도 좌측 중·상부에 열촌형 집촌이, 우측 중·하부에 독립가옥 또는 소촌형 산촌이 각각 입지해 있다.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2008c)

서너 개의 가옥들이 모인 소촌(小村)형태 또는 독립가옥(고립가옥, 독농가)형태의 산촌(散村)을 형성하고 있다. 이 소촌들은 배후 산지에서 전작 농업을 주로 한다. 특히, 이 지역에서 미작 농업을 하는 열촌형 집촌(列村型 集村)들은 남북 방향의 배산임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골의 미작지로의 개척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골 사이의 구릉지들의 취락 규모에 비해 아주 많은 음택(묘지)들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 묘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소촌은 집촌과 산촌(散村)의 중간 형태로 소수의 가옥들이 밀집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산촌의 독립 농가에서 세대(世代)의 분가(分家)가 이루어지면서 발달하며, 주변에서 경작지의 분할 현상이 나타난다. 독립 농가에서 세대의 분가가 이루어지면서 소촌이 발달하는 것은 주변의 야산을 개간하는 과정에서의 노동력의 확보가 주된 원인이다. 소촌은 가옥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근접한 경우도 있다. 특히, 주변에 혈연성이 강한 동족촌이 있거나 주민과 가옥, 경지의 안전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가옥은 보다 근접하게 된다. 또한 소촌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전면(前面)의 원격지에 대한 조망이 약간이라도 확보되는 언덕부에 입지한다.



〈사진 89〉 보덕리의 전작 지역(발농사 지역)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90〉 보덕리 전작 지역(발농사 지역)의 독립 가옥(고립가옥, 독농가)과 경작지(밭)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91〉 보덕리 전작 지역(밭농사 지역)의 독립 가옥(고림가옥, 독농가)과 부속시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92〉 석곡리의 독립 가옥과 경작지(논)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93〉 송곡리의 독립 가옥과 주변의 경작지(논과 밭)와 대규모 묘지(음택)
주 : 산지기 집으로 추정. 음택과 양택 사이의 키가 큰 나무는 사자의 공간과 생자의 공간 사이의 경계수로 추정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94〉 심중리의 독립 가옥과 주변의 경작지(논과 밭)와 공장 입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95〉 심중리의 소촌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96〉 청송리의 골형 입지 소촌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④ 전동면 지역 일반 농촌 취락의 최근의 변화

전동면 지역의 일반 농촌 취락은 최근들어 다른 지역의 농촌 취락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축산업의 발달, 공장의 입지, 새로운 경관의 출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축산업의 발달

농업이 전작과 미작 농업 이외의 분야로 다양화 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인데, 전동면 지역의 경우 채소, 화훼류 등의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 등의 형태는 드물고 축산업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축산시설은 교통이 편리하고 비교적 넓고 평평한 부지가 있는 도로변의 미작 지대나 전작 지대에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진 97〉 석곡리의 축산 시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98〉 석곡리의 축산 시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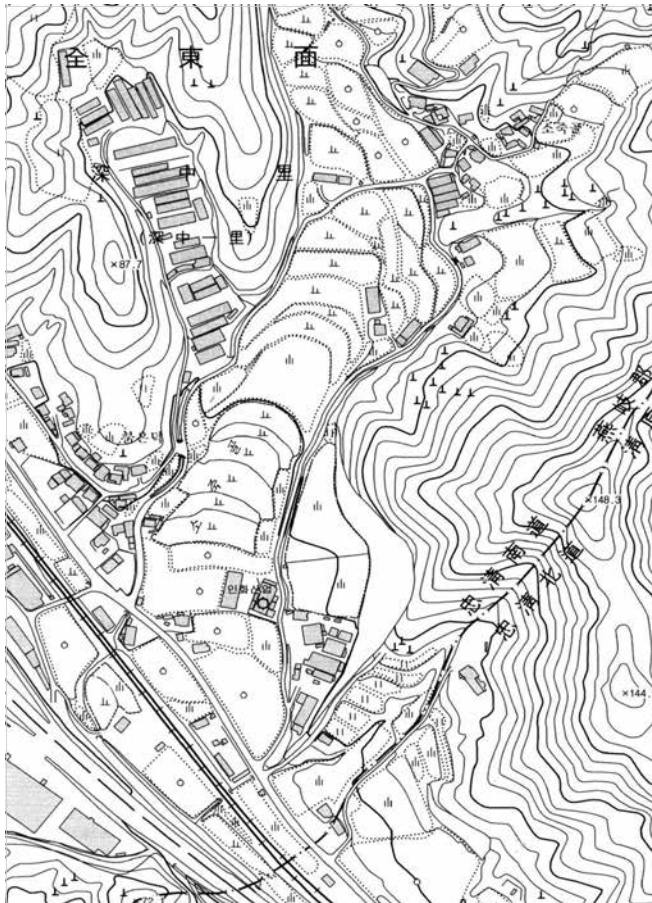


〈사진 99〉 청송리의 축산 시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㉞ 공장의 입지

전동면 지역의 일반 농촌 취락 일대에는 다른 농촌 취락들의 경우보다는 더 많은 공장들이 기존 취락과 근접한 도로변을 중심으로 입지해 있는데, 이러한 공장들은 비교적 대규모의 단지를 이루거나 독립적으로 입지하고 있다. 공장 부지가 대규모로 소요되는 경우는 기존의 미작 농업지를 대부분 공장 부지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



〈지도 12〉 전동면 지역의 공장 입지

주 : 지도 중상부의 심중1리에 입지한
큰 건물들은 대부분이 공장이다.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2008e)



〈사진 100〉 노장리 전동과선교에서 본 경부선 철도와 공장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01〉 노장리 도로변의 공장 입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02〉 노장리의 공장 입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03〉 심중리의 공장 입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04〉 청송리의 공장 입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㉔ 새로운 환경의 출현

전통면의 일반 농촌 취락에는 전술한 축산 시설이나 공장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기능체들이 새로이 입지하면서 새로운 경관을 출현시키고 있는데, 교회의 소구릉지 입지, 가옥형 음택의 도입, 장승의 변형, 무속 업소의 출현, 가옥 재료와 형태의 서구화, 창고의 입지, 마을회관의 다양화, 도로변의 주유소 입지, 도로변의 가든 식당 입지, 공업사의 입지, 신수종 가로 경관, 철도 경관 등이 그것들이다.



〈사진 105〉 송성리의 구릉지 교회 입지

주 : 유럽에서의 입지 관성에 의해 우리 촌락에서도 언덕에 입지가 있다. 이러한 입지는 한편으로는 유교적 동족촌의 내부에 입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06〉 노장리 전동과선교에서 본 가옥형 음택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07〉 청송리 마을 입구의 목장승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08〉 심중리 마을 입구의 표지석

주 : 과거에 숯대나 장승이 서있던 자리에 최근엔 마을 표지석이 들어서고 있다.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09〉 송곡리 마을 입구의 표지석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10〉 면사무소 중심지 취락 가촌 부근 693번 지방도 변의 무속 업소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11〉 봉대리의 개량 가옥(슬라브 양옥)과 전통가옥(양철 가옥 및 슬레이트 가옥)의 공존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12〉 청송리의 개량 가옥(슬라브 양옥)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13〉 심중리의 마을회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14〉 석곡리의 마을회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15〉 청송리의 마을회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16〉 심중리 도로변의 주유소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17〉 심중리 도로변의 가든 식당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18〉 심중리 도로변의 공업사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19〉 심중리 도로변의 창고 입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20〉 청송리의 마을창고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21〉 청송리 산업단지임구 도로 경관(군도 1호선)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사진 122〉 심중리의 철도 경관

출처 : 2010년 9월 10일 필자 촬영

■ 참고문헌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4, 『한국지리 : 지방편 Ⅱ』, 강원·충북·충남.
 권혁재, 1995, 『한국지리 : 각 지방의 자연과 생활』, 법문사.
 국토지리정보원, 2003, 『한국지리지 : 충청편』.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한국지명유래집』.
 국토지리정보원, 2008a, 1:50,000 지형도 : 전의·청주 도폭.
 국토지리정보원, 2008b, 1:25,000 지형도 : 전동 도폭.
 국토지리정보원, 2008c, 1:5,000 지형도 : 청주 031 도폭.
 국토지리정보원, 2008d, 1:5,000 지형도 : 청주 041 도폭.
 국토지리정보원, 2008e, 1:5,000 지형도 : 청주 042 도폭.
 박성호, 1980, 「농촌의 중심지 기능지역에 관한 연구 : 기촌을 중심으로」, 『한국의 도시와 촌락 연구』, 보진재.
 뿌리깊은나무, 1983, 『한국의 발견 한반도와 한국 사람 : 충청남도』.
 이문중, 1982, 「농촌의 공간구조 파악을 위한 연구와 과제」, 『공주사범대학 논문집』 제20집.
 임덕순, 1990, 『문화지리학 : 문화와 지리의 관계』, 법문사.
 연기군, 2007, 『연기군의 지명유래』.
 연기군, 2007, 1: 50,000 연기군행정지도.
 연기군지편찬위원회, 2008, 『연기군지 : 상권』.
 朝鮮總督府, 1918,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 廣亭里·淸州·天安·梧根場 圖幅.
 충청남도, 1997, 『충청남도 개도 100년사』.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충청남도지 : ① 충남의 자연환경』.
<http://www.yeongi.go.kr>
<http://www.kari.go.kr>

집필 : 최원희(공주대학교 교수)

제2장

전동면의 역사

제1절 선사에서 백제로

제2절 통일신라시대

제3절 고려시대

제4절 조선시대

제5절 일제강점기

제6절 현대시기

제1절

선사에서 백제로

1.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1) 구석기시대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약 300만 년 전이다. 이 시기부터 빙하가 물러간 약 1만 년 전까지를 구석기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온 전체 역사의 거의 대부분은 구석기 시대를 포함한 선사시대에 속한다.

구석기 사람들은 자연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으면서 살림을 꾸렸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은 자연에 대한 적응·이용·정복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구석기문화를 이룩한 사람들은 한곳에 정착생활을 하지 않았다. 짐승을 사냥하고 열매를 채집하면서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옮겨다니는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물줄기 옆이나 동굴 같은 곳에 머물렀다.

구석기시대의 도구는 돌을 떼어서 만든 뿔석기[타제석기], 짐승뼈나 뿔, 나무로 만든 연모 등이 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뿔석기이다. 구석기 사람들은 석기 만들기에 좋은 돌감을 미리 골라 쓰임새에 알맞은 형태의 석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뿔석기는 나무를 자르고 베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짐승을 사냥하여 가죽을 벗기거나 고기를 바르고, 뼈 속의 골수를 먹는 데도 쓰였다. 이러한 구석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인류의 진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까지 한반도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곳은 300여 곳이다. 이 가운데 60여 곳이 발굴 조사되었고, 주로 강가나 동굴 유적이었다. 그러나 전동지역에서는 아직 구석기 유적이 확인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동지역의 구석기문화를 명확히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전동지역은 조천 주변의 평야지대와 높지 않은 야산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구석기인들의 생활에 적합한 자연 지리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동지역이 구석기유적으로 유명한 공주 석장리유적과 마암의 동굴유적지와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로 보아 구석기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매우 높다.

2) 신석기시대

지금부터 약 1만 년 전 즈음 마지막 빙하가 양극으로 물러가고 새로운 후빙기가 시작되면서 인류의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사냥꾼의 생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움집을 짓고 강가나 바닷가 옆에 살았다는 것은 혁명에 가까운 현상이었다.

신석기시대의 움집은 사람들이 한곳에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추위나 비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움집은 주로 바닷가나 큰 강의 언저리인 낮은 습지 또는 넓은 평지에 자리하고 있다. 가끔은 언덕 비탈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집의 바닥면은 항상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다짐을 하였다. 집을 만드는 과정은 먼저 움을 깊게 판 다음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옆에는 풀을 엮어 지붕과 벽이 되게 하였던 것 같다. 집안 가장자리에는 식량이나 연모를 넣어두는 저장구멍이 있으며, 집안의 온도를 적당히 유지하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 집 가운데에 불을 피우는 시설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신석기시대의 연모는 앞 시기의 뎀석기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박이 생활과 다양한 생산활동을 하면서 기술이 좀 더 발전됨에 따라, 차츰 돌을 갈아서 석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간석기는 뎀석기보다 날카로운 날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주로 나무를 자르고 다듬을 때 사용하였던 도끼를 비롯하여 화살촉·끌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신석기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토기의 제작이다. 토기는 음식물을 조리하고 담아두거나 곡식 열매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다. 토기를 자세히 보면 생김새는 바닥이 대부분 둥글거나 뾰족하며, 점과 선을 새기거나 찍은 무늬가 있다. 이러한 무늬가 새겨진 토기를 빗살무늬토기라고 하며 신석기 문화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 변화하였다.

신석기시대의 살림살이에는 농경을 비롯하여 사냥과 채집, 물고기 잡이, 짐승 기르기 등이 있다. 농경은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먹거리가 부족하게 되자 생산량을 늘이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석기시대의 곡식은 일산 신도시지역에서 발굴된 벼씨를 비롯하여 봉산 지탑리유적의 피, 평양 남경유적의 조, 그리고 옥천 대천유적의 오곡 등이 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기술은 팽이·보습같은 농기구의 발전에 따라 일정한 단계를 거쳤다.

사냥과 채집은 이 시기에도 먹거리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앞 시기보다 방법이 크게 발전하였다. 유적에서 출토된 것을 보면 사냥을 할 때에는 활과 화살을 이용하였고, 채집은 자연환경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쉬웠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신석기시대의 유물을 찾은 곳은 약 350여 곳 정도이다. 전동지역을 포함한 연기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굴·조사된 적이 없다. 그러나 금강 유역에서 조사된 몇몇 신석기시대 유적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생각해왔던 바닷가 언저리나 큰 강 바로 옆보다는 강의 지류를 따라 내륙 쪽으로 깊이 들어간 상류지역이나 셋강 옆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전동지역의 자연환경과 비슷하고, 전동지역의 신석기시대 살림살이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로 주목된다.

3)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는 사람들이 청동기를 이용하여 연모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살림을 꾸리던 시기를 가리킨다. 맨 처음에는 구리에 다른 광물을 섞지 않은 순동을 그대로 두드려서 연모나 치레걸이를 만들다가, 치츄 아연이나 주석·납 등을 섞어서 단단한 청동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청동기문화의 상한연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견해들이 있어, 하나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동기문화의 시작 연대에 대해서는 빗살무늬토기와 민무늬토기와의 관계, 청동기가 무기나 생산을 위한 연모로서 어떠한 기능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 등이 밝혀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학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보고 있다.

청동기사회와 문화는 앞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삶의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복합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낮은 구릉의 완만한 사면에 평면 방형 또는 원형 수혈식 주거 취락을 형성하여 생활하였다. 대체로 한 마을에 10여 채에서 100여 채 이상의 집들이 모여 있었는데 부여 송국리와 서산 휴암리 유적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마을은 바람을 막아주는 작은 산을 뒤에 두고 앞으로는 작은 냇가 있어 살림에 필요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오늘날 전동면의 자연적인 마을과 아주 비슷하다.

이 시대의 집은 주로 움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움의 깊이는 신석기시대보다 훨씬 얕고 일부에서는 반지상가옥으로 발전하였다. 청동기시대의 움집은 벽체와 지붕이 나뉘어져 벽체가 밖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자 용마루와 도리 등 서까래를 걸 수 있는 천장 시설이 필요하며, 천장과 벽이 높아져 집의 구조가 복잡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그때 사람들은 신석기시대의 집보다 집안을 밝게 하였으며, 활용할 수 있는 면적도 훨씬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안의 화덕은 강자갈로 만들거나, 흙으로 독을 쌓거나, 맨땅을 조금 움푹 파서 만들기도 하였다. 집 바닥은 맨땅을 그대로 다지기도 하고, 찰흙을 4~5cm 두께로 깐 다음 불에 구워 단단하게 만든 것도 있는데 바닥에는 짚이나 풀을 엮어서 깔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문화를 이룩한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농경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전 시대보다 풍요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농경연모를 대표하는 반달돌같은 곡식의 이삭을 따는 데 쓰인 것으로 전국에서 출토되며, 곡식의 생태적인 면을 고려하여 만든 훌륭한 농기구로 생각된다. 그것은 벼나 조·피는 낱알이 잘 흩어지지 않고, 익는 과정도 불규칙하여 한꺼번에 딸 수 없으므로, 줄기를 자르는 낫보다는 이삭을 따는 칼이 훨씬 효율적이어서 넓게 이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부여 초촌면 송국리의 집자리에서 출토된 탄화미(炭化米)는 당시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도 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이 시기에는 살림도구도 쓰임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기군의 남면 중촌리와 금남면 석삼리에서 수습된 무문토기는 찰흙의 바탕흙에 굵은 모래나 활석을 섞어서 구운 민무늬 토기가 중심을 이루며, 생김새는 쓰임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풍부한 수원과 완만한 구릉지대 등의 자연지형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전동지역에서도 청동기시대의 문화가 폭넓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전동지역에서는 부족간에 정복전쟁이 일어나고, 힘있는 자가 권력과 재산을 차지하면서 점차 지배계급으로 등장하였을 것이다. 즉 족장(族長) 혹은 군장(君長)으로 불리

는 권력자가 나타났는데, 이들은 청동제 창으로 무장하고, 청동으로 장식한 말을 타고, 비파형동검과 거울, 방울 등을 몸에 장식하고 다니면서 권위를 뽐내었을 것이다. 연기군 서면 봉암리에서는 정확한 출토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청동제 창과 같이 발견된 적이 있다. 이밖에도 조치원읍 돌무지무덤에서 무문토기와 함께 청동 마구 등이 출토되었다.

족장들은 죽어서도 거대한 돌무덤에 묻혔다. 고인돌[支石墓]과 돌널무덤[石棺墓]이 그것이다. 금남면 대박리와 봉기리, 월산리를 비롯한 연기군 일대에서 여러 기의 고인돌이 발견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고인돌은 한반도 전역뿐 아니라 중국의 산둥지방과 요동지방 그리고 일본에도 퍼져 있는데, 그 형태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대체로 한반도 북방과 중국 동북지방은 받침돌이 높은 탁자식, 한반도 남방은 받침돌이 낮은 바둑판형과 받침돌이 없이 구덩이 위에 둥근 뚜껑돌을 올려놓은 구덩형이 많다. 고인돌 안에는 시체를 매장하고, 동검과 토기 등을 함께 묻었다.

고인돌은 무게가 수십 톤, 큰 것은 수백 톤에 달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큰돌을 옮기려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족장이나 군장이 아니면 고인돌을 만들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권력자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는 소규모의 국가가 여러 곳에서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개 치소는 방어에 편리한 야산 부근에 건설하고, 주변에 토성과 목책을 쌓고, 성책 밖에는 호를 파는 등의 방어시설을 갖추었다. 이러한 형태의 국가를 고대국가와 구별하여 부족국가, 성읍국가, 읍락국가, 군장사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 가운데 성읍국가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돌널무덤은 직사각형의 돌관을 땅속에 묻고, 그 안에 시체를 매장하여 둥글게 흙을 덮은 것으로 고인돌에서 한 단계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전동지역에서는 돌널무덤 유적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가까운 천안지역에서 많은 돌널무덤 유적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동지역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듯 전동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은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생업을 영위하고 생활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것은 전동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유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것은 전동지역에서도 청동기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인 사회의 분화와 함께 국가 권력의 형태가 생겨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2. 고대 사회의 전개

1) 원삼국시대

원삼국시대는 청동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한편으로는 좀더 발전된 철기문화가 도입되는 시기로부터 삼국이 정립하는 시기까지를 말한다. 즉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대략 300년경까지에 해당한다. 중국측 사서인 『후한서』와 『삼국지』에 의하면 이 시기에 한반도 남쪽에는 마한 54국, 진한 12국, 변한 12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한 54국은 오늘날의 경기도·충청도·전라도 지역에, 진한 12국은 경상도의 낙동강 동쪽, 변한 12국은 경상도의 낙동강 서쪽지역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 나라들은 하나의 통일왕국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마한에 속한 천안·익산·나주지역에는 강력한 정치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전동지역은 마한의 54국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마한 여러 소국들의 위치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기록자체도 매우 소략하다. 따라서 원삼국시대 전동지역에 어떤 정치체가 존재하였는가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마한 소국들이 어느 시기에 백제의 영역으로 편제되었는지도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당시 마한 소국은 ‘큰 나라는 만여 가(家), 작은 나라는 수천 가로 모두 십여만 호(戶)’였다는 중국측 기록을 통해서 대략 만여 가에서 수천 가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삼국시대에는 철기가 사용되면서 생활과 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청동기시대의 원시적인 경작에 비하여 농경이 크게 발전하고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빈부의 차가 발생하였으며 사회적 문화계급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는 전동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거주환경이 좋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갔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송리에 있는 안배일과 아랫배일 유물산포지에서는 원삼국시대의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이들 마을은 운주산을 경계로 천안시 성남면과 행정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성남면 일원에는 중부지방 원삼국·초기백제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자료가 나온 용원리 유적과 강산리 유적 등이 있어 주목되기도 한 곳이다. 이 밖에 미곡리의 미륵당리와 새뜸 유물산포지에서도 원삼국시대 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수습된 유물은 대부분 적갈색, 회백색 계통의 연질 토기편으로 가는 모래가 섞여 있다.

청송리와 미곡리 일대는 현재 미호천으로 유입되는 조천(鳥川)이 흐르는 천변의 충적대지를 중심으로 경작지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그 주변으로 표고 100m 내외의 구릉성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유적의 입지조건으로 최적의 상태를 보이고 있어 현재 밝혀진 곳 이외에도 원삼국·백제시대의 생활 유적이 다수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토기편 이외에 문화상을 밝힐 수 있는 유적·유물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 전동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상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2) 백제시대

백제시대에 전동지역은 전의지역과 함께 구지현(九知縣)에 속하였다. 그렇지만 언제 전동지역이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지방행정구역으로 개편되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백제의 영역확대와과정 속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마한 54국 가운데 하나였던 백제(百濟)는 부여 계통의 이주민 세력과 한강 유역의 선주민이 결합된 정치체였다. 마한의 여러 소국들을 병합하며 백제(百濟)라는 고대국가로 성장·발전하였다. 당시 백제의 중심지는 마한 세력권의 북방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송파구의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한강유역이 중심이었다. 백제의 성장은 마한의 여러 소국들을 복속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백제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주변 정치체들을 포괄하는 연맹왕국으로 성장한 것은 3세기 고이왕(재위 234~286) 때부터였다. 고이왕은 낙랑의 변방지역을 공격하는 등 중국 군현세력과 대립했다.

뿐만 아니라 6좌평을 두고 관등과 그에 따른 복색을 제정하는 등 율령적 성격의 법령을 반포하고 지배체제를 정비하여 이전과는 다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백제가 전성기를 구가한 것은 근초고왕(재위 346~375)시기였다. 이 시기 백제는 현재의 경기도·충청도·전라도를 포함해서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포괄하는 광대한 영역을 확보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일부 가야 세력에 대해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영산강 유역을 근거지로 삼아 독자적인 정치력을 유지했던 마한세력까지 백제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전동지역의 경우도 4세기 후반에는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연기지역은 초기 백제가 남으로 세력을 확장해가면서 차령이북 지역을 점령한 후, 차령 이남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교통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지역을 통하여 금강유역과 청주·보은으로 진출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백제가 웅진에 이어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는 반대로 차령 이북지역인 한강유역으로 접근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현재 1번 국도가 지나고 있는 전동지역 역시 선사시대 이래 인적·물적 이동의 중요지점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전동지역을 포함한 연기지역의 백제문화는 대부분 웅진 천도 이후에 형성된 것만 알려져 있다.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 연기지역은 마한의 문화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어 백제문화적인 특징을 찾아보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공주 수촌리 유적에서 웅진 천도 이전의 백제시대 고분군이 조사됨으로써 그 당시의 백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고분에서 금동관을 비롯해 금동신발, 환두대도, 금동제 허리띠 장식, 기타 많은 토기들이 출토됨으로써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에도 공주지역은 선진적인 백제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주지역과 인접한 연기지역의 백제초기 모습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면 와촌리에서 6점의 백제토기가 발견된 바 있으며, 남면 보통리에서는 백제고분이 발견되었다. 최근에는 남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부지 내에서 조사된 송원리 유적에서 백제시대 굴식돌방무덤 6기, 돌방무덤 19기 등 대규모 고분군이 확인되었다. 이들 고분 시기는 광구장경호, 삼죽기, 개배, 기대 등의 유물로 보아 대체로 5세기 후반의 백제 한성기 말기로 추정된다. 또한 나성리의 4~5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한 수장급 널무덤에서는 이른 시기의 금동신발을 비롯해 금동허리띠, 화살통 등 희귀 부장품이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주변의 주거지, 창고터 등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빙고터와 도로, 고상가옥 등이 드러났다. 이러한 유적·유물은 인접한 전동지역의 초기 백제시대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백제는 4세기 후반이후 약 100여 년간 고구려와 대립관계를 유지하였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와 백제는 4~6세기 동안 37회에 이르는 교전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기사는 고구려 고국원왕 39년(369)에 보인다. 그 이전 고구려는 북방민족 또는 한군현과, 백제는 말갈이나 낙랑과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한군현 세력인 대방·낙랑이 소멸된 이후 두 국가 간에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빚어지게 되었다.

특히 백제는 장수왕이 427년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여 본격적인 남진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더욱 고구려의 직접적인 위협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때 비유왕(재위 427~455)을 이어 왕위에 오른 개로왕(재위 455~475)은 왕족 중심의 지배체제와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통해 전제왕권을 추구해

갔으며, 대외적으로 북조국가인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로왕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내부적 분열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고구려를 자극하여 남침을 초래하게 하였다. 결국 백제의 수도인 한성은 장수왕에게 함락되고, 개로왕은 죽임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문주가 왕위에 오른 후 그해 10월에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백제의 정국은 혼미를 거듭하였다. 한성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귀족들이 계속해서 지배권을 장악하면서 정권쟁탈을 위한 분열과 갈등을 되풀이 했고, 왕권은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동성왕은 즉위 이후 새로운 세력을 이용하여 천도초기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세력은 사씨·목협씨·연씨·백씨라고 추측되는데, 사씨는 부여지방을, 연씨는 온양지방을, 백씨는 웅진지방을 각각의 세력 근거지로 삼고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동성왕은 천도 후 되풀이 되던 정치적 혼란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중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웅진시대에 이르면 정국 안정이라는 백제 왕실의 정치적 필요와 지역에 근거한 현실적인 세력이 성장하여 새로운 지배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동성왕의 정책에 따라 연기지역의 세력도 점차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 연기지역에는 요충지에 성을 쌓고 지방관을 파견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재지세력을 중앙의 관제에 편입시켜 지방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른바 담로제의 실시이다. 담로제의 실시 시기는 한성후기로 소급되지만 웅진기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담로제는 전국을 22담로로 나누어 왕의 자제·종족을 왕·후로 분봉하여 지방의 통치를 담당하게 하던 제도였다. 그러나 일부 토착적 기반이 강한 지역에는 재지세력을 담로로 임명하기도 했다. 전동지역의 경우에도 담로로 편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도읍이었던 웅진과 가까운 점을 비추어 볼 때 중앙의 지배력이 직접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실상은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담로의 장을 중앙에서 파견하였는지, 아니면 재지세력으로 임명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동성왕이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의 기반을 구축하려던 시도는 용이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지배질서가 동요된 상황에서 지방 세력의 향배가 유동적이었으며, 신진세력의 등장에 따른 신구세력의 갈등이나 마찰을 조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힘이 막강해진 신진세력은 또다시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다. 이에 동성왕은 임천의 가림성(성흥산성)을 축조하여 웅진지역에 기반을 가진 위사좌평 백가를 그곳의 성주로 내보냄으로써 점차 비대화하는 신진세력에 대한 제동을 걸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성왕의 견제조치는 위사좌평 백가를 비롯한 신진세력의 불만을 샀고, 결국 동성왕은 사비지역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백가가 보낸 자객에 의해 피살되고 만다.

동성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무령왕은 왕권 강화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질서를 안정궤도에 올려놓았다. 즉위할 때 이미 마흔 살 무렵이었던 무령왕은 원숙하게 정치를 운영하였고, 동성왕을 시해한 백가의 반란을 진압하는 등 왕권을 더욱 안정시켰다. 또한 무령왕은 중국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선진문물을 과감하게 수입하는 한편, 양나라로부터 영동대장군의 작호를 받아 왕권을 강화하고 대외적 신망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대외적 발전을 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초기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지만, 동성왕 시기에 어느 정도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을 도모하면서 국가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무령왕시기에는 정치적 안정

과 함께 국력 증진을 이루었다. 그리고 538년 성왕은 좀 더 강성한 왕국 건설의 응지를 품고 사비로 다시 천도한다. 이후 백제는 새로운 중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사비로 수도를 옮긴 성왕은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고, 겸익과 같은 승려를 등용하여 불교를 토대로 한 사상적 통일을 모색하는 등 왕권 강화에 힘썼다. 또한 중국 양나라와 외교관계를 강화하면서 유교나 불교경전 등 선진문물을 활발하게 수입하고, 바다 건너 왜에 이들 선진문물을 전수함으로써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강화했다.

특히 성왕은 22부(部)의 중앙관부를 완비함과 동시에 지방의 통치체제를 정비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때 정비된 지방통치조직은 방군성제(方郡城制)였는데, 전동지역도 새로운 지방통치체제 속에 편제되었을 것이다. 방군성제는 전국을 5방(方)으로 구획한 후 방 아래 군을 두고, 다시 군 아래에 성을 편제시키는 제도였다. 즉 누층적 편제를 통해 지방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시켰다. 여기서 가장 중심은 방이었는데, 5방은 전국을 크게 5구역으로 나누어 동방·서방·남방·북방·중방으로 편제하였다. 각 방의 중심지소는 방성(方城), 장관은 방령(方領)이라 하였다. 방령에는 16관등 가운데 제2관등인 달솔이 임명되었다. 각 방성에는 1,000명에서 700명의 군사가 배치되었다. 동방은 득안성(得安城)인데, 득안은 덕으로 백제시대 덕근군이며, 은진에 비정된다. 남방은 구지하성(久知下城)으로 구례, 북방은 웅진성(熊津城)으로 공주, 중방은 고사성(古沙城)으로 고부에 비정되고 있다. 서방은 도선성(刀先城)으로 서산·당진 혹은 대흥에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전동지역을 포함한 연기군은 위치상 공주에 치소를 둔 북방의 관할 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군(郡)으로는 37군이 있는데 기본 성격은 방과 유사하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방령의 지휘를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각 군에는 다시 5~6개의 성이 편제되어 있었다. 군의 장은 군장(郡將) 또는 군령(郡領)으로 불렸는데 군지휘관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으며, 관등은 덕솔이었다. 지방통치조직의 최하위 단위는 성(城)이었다. 성은 현(縣)으로 표기되기도 하며, 성에 파견된 지방관은 도사(道使) 또는 성주(城主)라고 하였다.

사비시대 전동지역의 행정구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소략하여 그 변화상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삼국사기』 지리지 웅천조에 보이는 행정조직은 사비시대에 정비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록군(大麓郡)은 본래 백제의 대목악군(大木岳郡)으로 경덕왕 때 개명되었다. 지금의 목주(木州)이니 아래에 현이 둘이다. 순치현(馴雉縣)은 본래 백제의 감매현(甘買縣)으로 경덕왕 때 개명되어 지금의 풍세현(豊歲縣)이다. 금지현(金池縣)은 본래 백제의 구지현(仇知縣)으로 경덕왕 때 개명되어 지금의 전의현(全義縣)이다.

연산군(燕山郡)은 본래 백제의 일모산군(一牟山郡)으로 경덕왕 때 개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아래에 현이 둘이다. 연기현은 본래 백제의 두잉지현(豆仍只縣)으로 경덕왕이 개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매곡현(昧谷縣)은 본래 백제의 미곡현(未谷縣)으로 경덕왕 때 개명되어 지금의 회인현(懷仁縣)이다.

위 사료에 의하면 전동지역은 백제시대에 대목악군에 속해 있던 구지현이었다. 대목악군의 군성은 지금의 목천면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구지현과 함께 대목악군에 편제되어 있던 감매현은 오늘날의 천안시 풍세면 일대를 가리킨다. 그리고 오늘날의 연기군은 백제시대에는 일모산군이었고, 두잉지현과 미곡현이 속해 있었다. 두잉지현은 오늘날 동·서·남면에 해당되며 미곡현은 회

인·보은지역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전의·전동면은 백제시대에는 대목악군에 속해 있어 일모산군에 속해 있던 남면·동면·서면과는 다른 군의 영속 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550년(성왕 28)에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道薩城)을 공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도살성은 바로 지금의 천안지방을 가리킨다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그리고 목천에서 가까운 진천이 당시 신라의 영토였기 때문에 사비시대 전동지역은 백제의 국경지역에 해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전의·전동지방의 행정중심지로 추정되는 오늘날의 전의면 읍내리에는 백제시대에 축조된 토성이 지금도 남아 있다. 성의 둘레는 약 800m이고 성북쪽 성벽의 높이는 2m, 바깥쪽 높이는 6m로서 서쪽 성벽과 북쪽 성벽이 교차하는 지점은 직각으로 되어 있다. 문지(門址)는 동벽 북단에 1개소가 우물을 겸하여 남아있는 흔적이 보이는데 그 너비는 6m이다. 성안에서는 백제토기편과 통일신라시대의 토기편이 출토되고 있다. 또한 전동면소재지에서 서남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전의면 신방리에는 이성산성이 있는데 전형적인 백제시대 산성이다.

이밖에 전동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남면의 연기리와 보통리 뒷산인 당산에는 당산성이 있고, 그 일대에는 아직까지 백제시대 토기편이 수습되고 있다. 당산성 남쪽에는 진의리산성, 서쪽에는 나성리 산성이 있는데 모두 금강과 인접되어 있는 백제시대 산성이다. 이렇게 보면 전동지역은 백제의 교통로뿐만 아니라 고구려·신라와 접전을 벌이면서 웅진이나 사비를 방비하는 데도 큰 역할을 수행했던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비 천도 이후 중흥을 이룬 성왕은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 유역을 탈환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신라 진흥왕과 밀약을 맺고 북진하여 한강 하류의 6군을 탈환했으나 신라의 역공으로 다시 상실하고 말았다. 이에 성왕은 신라에 대해 보복전을 감행하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후 백제는 일시적으로 다시 혼란과 위축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백제는 무왕과 의자왕대에 이르면서 국가적 안정을 되찾아 신라의 당항성과 대야성을 공격하고 경주까지 위협하는 등 세력을 크게 떨치기도 했다.

한편 7세기를 전후하여 중국을 통일한 수·당은 자신들의 통일제국을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 철 생산지이며 전략적인 요충지인 요동을 장악하려 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돌궐-백제-왜를 연결하는 남북 세력권을 형성하여 수·당에 대항하였으며, 신라가 수·당과 연결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동서 세력권간의 항쟁 양상을 띠게 되었다. 고구려는 수·당의 대규모 침략을 계속 저지함으로써 민족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백제는 무왕·의자왕대의 세력 만회를 통해 신라를 위협하게 되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신라는 당과 연합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동서 세력권간의 격렬한 대립끝에 백제와 고구려는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국력이 쇠잔하고 지배층의 분열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3) 백제 부흥운동의 전개

660년 8월 백제가 멸망하자 백제 유민들은 곳곳에서 다시 백제를 일으키고자 노력하였다. 백제의 부흥운동은 사비도성이 함락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663년 11월 지수신이 점유하고 있었던 임진성이 함락될 때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활약한 사람이 귀실복신과

도침, 흑치상지, 사타상여, 지수신 등이다. 여기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백제 멸망 후에 돌아온 부여풍이 왕으로 추대되어 나당군과 대항하였다.

부흥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점은 주류성과 임존성이었다. 임존성은 현재의 예산군 대흥면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서천군 한산, 홍성군 장곡면의 석성산성 등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한편 연기군 향토사학자 가운데는 운주산성을 주류성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주변의 지형과 지명이 부합하고 산성의 구조가 주류성과 같다고 한다. 만약 운주산성을 주류성으로 본다면, 전동지역도 백제 부흥군의 세력권 안에 들어간 셈이 된다.

운주산성은 운주산 정상을 기점으로 서·남단에 있는 3개의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포곡식 산성으로 백제시대 축조되었다. 전동면 3개 마을과 전의면 2개 마을에 걸쳐 위치한 대단히 큰 산성으로 길이 3,098m에 달하는 외성과 안쪽에 543m 달하는 내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성과 내성은 모두 돌로 쌓았다. 성내 평지 및 구릉에는 크고 작은 건물지가 남아있어 많은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내에서는 백제시대의 토기 조각과 고려·조선시대의 자기 조각, 백제~조선시대의 기와 조각 등이 발견된다. 성벽은 운주산의 주봉을 포함한 3개의 작은 봉우리를 아우르며 축조되었고 평면은 동서축의 길이가 조금 긴 타원형이다. 성내시설로는 우물이 확인되고 있으며 성내 곳곳에서 백제시대의 경질토기편 및 기와편을 수습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의 동쪽에 고산이 있고 산에 고산산성(古山山城)이 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고산은 현재의 운주산으로 운주산성은 원래 고산산성이라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운주산성을 주류성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이나 유적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백제부흥운동의 결과 200여 성이 호응하여 나당군에 대항하였는데 백제가 망할 때의 성이 200여 곳이라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비성을 중심으로 한 약간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거의 모든 지역을 백제부흥군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동지역은 백제시대의 산성이 현존하고 있고, 운주산성이 고구려와의 교통로 상에 위치했던 관계로 백제 부흥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중요한 거점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663년 8월 백촌강에서 수군의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주류성에서는 백제부흥군과 나당군의 전투가 벌어졌다. 주류성을 공격한 주력군은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었다. 신라군은 8월 13일에 주류성으로 진격하였으며, 이에 백제부흥군은 성을 나와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결국 백제부흥군은 663년 9월 더 이상의 전투를 진행하지 못하고 왕자 충승 등은 왜군과 함께 신라군에 항복하였으며, 주류성은 마침내 함락되었다. 주류성이 함락되자 두량운성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성들도 따라서 항복하였으며, 지수신이 지키고 있던 임존성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임존성도 마침내 당군에 항복한 흑치상지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다. 이로써 3년여에 걸친 백제부흥운동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제2절

통일신라시대

1. 지방제도 정비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은 신라를 포함하여 당의 영토로 편입하고자 하였으나 신라가 이에 반발하여 10여 년에 걸친 대당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신라는 고구려·백제 유민을 적절히 이용하여 대당투쟁에 동원하고, 매소성 전투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당군을 축출하게 되었다. 당군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성한 신라는 민족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나, 영토의 축소와 발해의 건국, 그리고 외세 개입으로 인한 불안정한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한계를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넓어진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체제정비를 단행하였다. 즉 전국을 9개의 주(옛 신라 경계 안에 상주·양주·강주를 설치하고, 옛 백제 지역에 응주·전주·무주, 옛 고구려 지역에 한주·삭주·명주를 각각 설치)와 그 밑의 행정단위인 군과 현을 두었다. 전동지역은 공주에 치소를 두고 있던 응주에 속하게 되었다. 신라는 757년 전국적인 행정지명 개정을 일제히 단행하였다. 이때 연기군은 대록군(大麓郡)이 되었고, 그 산하의 전동면은 금지현(金池縣)이라 하였다.

신라는 전국을 9주로 나눈 뒤 중앙에는 9서당(誓幢)을 두고, 지방에는 10정(停)의 부대를 배치하였다. 연기지역과 관련된 군사배치는 지방에 배치하였던 10정에 해당된다. 10정은 각 지방의 주에 한 개 정씩 배치하였는데, 전동지역과 관련된 응주에는 지금의 청양지방에 고량부리정(古良夫里停)을 두었다. 10정은 통일신라시대의 군사적 지방통치의 거점이었으며, 국방뿐만 아니라 치안을 위한 군사조직이기도 하였다.

한편 통일신라시대 연기지역을 비롯한 현 전동면의 경제적 토대가 된 것은 토지였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1933년 일본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장적문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서에 나타나는 촌락은 서원경(현 청주지역) 관하의 1개 촌과 그 주변의 3개 촌이다. 서원경 관하의 1개 촌을 제외한 3개의 촌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으나, 서원경과 인접하고 있던 현의 촌락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서원경과 인접해 있던 연기지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까이 접해 있던 전동지역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신라장적문서」에서 확인되듯이 신라 조정에서는 3년에 한번씩 뽕나무와 잣나무의 숫자까지도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을 정도로 전동지역 같은 촌락 말단에까지도 중앙권력의 힘이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때 농촌의 경제 상황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었고, 국가의 조세도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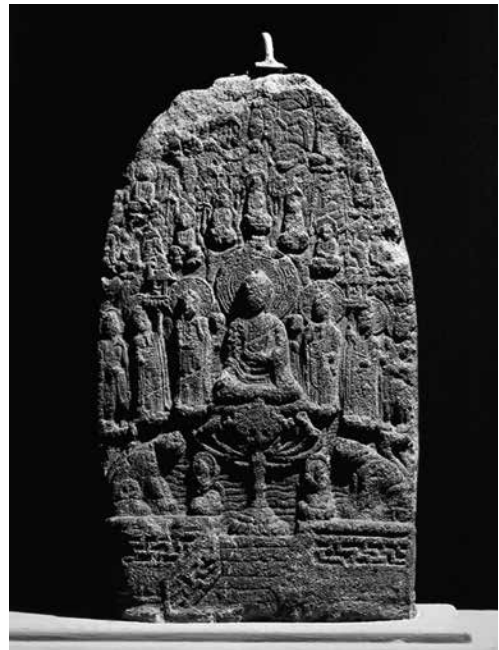
그런데 신라말기에 접어들어서는 일반 농민들은 토착 지배자들에게도 수탈을 당하는 형편이었다. 수탈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촌락을 탈출하여 유민이나 도적이 되었다. 도적떼로부터 자신의 촌락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는 성을 쌓고 사병을 거느린 세력가들이 등장하였다. 성주와 장군을 칭하는 반독립적인 호족들이다. 연기 지역의 경우도 그러한 추세에 결코 초연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호족의 존재는 기록에서 포착되지 않는다.

2. 불교문화의 융성

백제가 신라에 병합되어 통일신라시대로 이어진 후에도 백제불상양식의 전통은 통일신라의 불상 제작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 중에는 충청남도 연기군 출토의 여러 석조불비상(石造佛碑像)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슷한 옛 백제지역에서 발견된 이 불비상들은 출토지나 조각양식으로 보아 백제 조각의 전통을 이어주는 중요한 예들이다. 비암사지(碑巖寺址)에서 출토된 3구의 불비상 중에서 계유년명(癸酉年銘)이 있는 사면비상은 정면에 아미타삼존불이 조각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제자·인왕 등 권속이 좌우로 배치되었다. 이 비상의 전면 들레에 새겨진 명문에는 본존이 아미타불인 것을 알 수 있고, 공양인들의 이름 중에 내말(乃末)·대사(大舍)·소사(小舍) 등의 신라관직과 백제의 관직



〈사진 1〉 계유명삼존불비상(673년, 국보 제108호)



〈사진 2〉 기축명아미타불비상(689년, 보물 제367호)

달솔(達率)과 백제의 성씨인 전씨(金氏)·목씨(木氏)·진모씨(眞牟氏) 등이 발견된다. 이러한 명문은 신라 통일 후 백제 유민에게 신라 관직에서 합당한 지위를 주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연관되어 계유년명 비상을 통일신라 초인 673년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절터에서 발견된 기축년명(己丑年銘)의 아미타불비상은 689년으로 추정된다. 비암사 출토의 나머지 하나의 비상에는 명문은 없으나 반가사유상이 본존이며, 중국 수대 불상에서 유행한 늘어진 장식문양이 보인다. 이 연기군 출토의 불비상군 중에는 조치원 서광암(瑞光庵)에서 발견된 계유명 삼존천불비상과 서면 월하리 연화사에 있는 무인년 불비상 2기도 위의 연기군 출토의 비상의 조각양식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불비상 중 명문이 있는 상들의 본존이 모두 아미타상으로 기록된 것은 이 시대에 유행한 아미타 정토신앙의 유행을 알려준다. 부조로 표현된 상들은 표면이 많이 마멸되어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상들의 배치의 복잡한 구도나 자연스레 서 있는 자세나, 영락장식이 드리워진 모습이 중국 남조의 양나라 불상 계통의 요소들이 발견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 비상들의 조각양식으로 보면 대체로 간지년으로 추정되는 연대보다는 일주기인 60년 앞서는 시기의 특징으로 보아도 좋을 정도로 고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불비상군은 신라에 흡수된 백제의 지방양식이 통일신라에 들어와서도 그 전통을 이어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백제 멸망 후에 이어지는 통일신라 불상양식의 성립에 다양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집필 : 박재용(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제3절

고려시대

1. 고려 건국과 지방제도의 변화

고려 건국 후 왕권 강화와 함께 지방통치제도가 정비되었다. 지방행정체계는 신라의 주(州)-영군(領郡)-영현(領縣) 체제에서 외관이 파견된 주(州)와 그에 속한 속군현(屬郡縣)으로 편성된 군현제(郡縣制)로 바뀌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는 대부분 국정에 반영되어 지방제도의 정비가 본격화되었다. 최승로는 시무책 중 일곱 번째 조항에서 전국에 외관을 파견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는 태조가 삼한을 통일하고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고 토호들의 침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관의 설치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마침내 고려는 성종 2년인 983년 전국의 열두 곳에 12목을 설치하고 외관을 파견하였다. 12목(牧)으로 승격된 곳은 공주(公州)·광주(廣州)·양주(楊州)·충주(忠州)·전주(全州)·나주(羅州)·승주(昇州)·진주(晉州)·상주(尙州)·해주(海州)·청주(淸州)·황주(黃州)이다.

이 시기 전통면 지역인 연기군 전의 지방은 청주목에 속하였을 것이다. 지방관제의 정비와 함께 중앙 행정력이 각 지방에 직접 침투하게 되면서, 각 지방의 호칭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대록군(大麓郡)의 속현이었던 전의는 940년(태조 23)에 전의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992년(성종 11) 대부분 개칭이 이루어졌고, 995년(성종 14)에는 전국을 4도호부 10도(關內, 中原, 河南, 江南, 海陽, 嶺南, 嶺東, 山南, 朔方, 溟西)로 나누는 도제(道制)가 실시되었는데, 전의 지역은 하남도에 속하였다.

도제 실시 이후에도 지방행정은 각 지방의 주요한 주(州)를 중심으로 운용되었고 1018년(현종 9)에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때 4대도호부(大都護府)·8목(牧)·56지주군사(知州郡事)·28진장(鎭將)·20현령(縣令)의 외관(外官)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지방제도의 정비를 일단락 지었다. 이때 주읍(主邑)으로 부상하는 고을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속군현으로 전락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전의현은 양광도(楊廣道) 청주의 속현으로 병합되었다. 이때에 고려의 지방제도는 비로소 골격을 잡게 되었다. 전의현은 조선 건국후 1395년(태조 4)에 감무를 두게 됨으로써 하나의 고을로 독립하였다.

현재의 전통면 지역은 전의의 중심지에서 남동쪽으로 치우친 곳으로 연기현과 접한 지역이었다.

고려시대에 전의현과 관련된 기록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전의현 출신의 인물 중 전의이씨 시조 이도(李焯)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도는 왕건을 호위하여 때마침 물이 넘치는 금강을 건너 후백제를 물리치고 마침내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전의이씨는 전의현의 중심지였던 현재의 전의면 일대에 세거하였고 조선시대를 지나며 주변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동면 지역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전의현의 역사 전개를 통해 당시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2. 불교문화

불교국가를 표방한 고려시대에는 전국 곳곳에 수많은 사찰과 암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전의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지만 고려시대의 기록을 찾기는 어렵다. 조선초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고려말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로 이 지리지에서 당시 전의현에 자리했던 고려시대 사찰의 현황을 찾아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전의현에 원적사(元寂寺), 고정암(高正菴), 연수암(延壽菴), 운점사(雲岾寺) 등 4개의 사찰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중 원적사와 운점사가 지금의 전동면 지역에 자리했던 사찰로 보인다.

노장5리 죽엽리 마을 골짜기의 안쪽에는 지금 ‘원적사’라는 사찰이 운영되고 있다. 현대에 새로 건축된 것이지만, 원래 이 자리는 오래된 절터로 알려져 있었다. 절터골, 동토쟁이, 발마툼, 원적이란 지명이 전해지는 것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옛 절터로 추정되는 지역은 대부분 지형이 변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옛 공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사찰 주변에는 수많은 기와조각이 산포하고 있다. 기와편은 대부분 회청색이고 표면에 어골문(魚骨文) 모양이 남아있다. 이런 무늬의 기와는 고려시대의 것이므로 원래 이곳에 있던 절은 늦어도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초기의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전의현편 사찰조에는 ‘용자산(龍子山)에 원적사(元寂寺)가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용자산은 전의현 고을 치소에서 동쪽으로 16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산이며 조선후기 전의의 지리지인 『전성지』에는 용자산은 청주와 접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용자산’이란 동림산의 옛 이름인 듯하며, 그렇다면 용자산의 원적사가 지금의 원적사 자리에 있던 절일 가능성이 있다. 지역에도 용자산에 대해 알려져 있으며 청원군 옥산면 장동리의 동림산 정상 동쪽 바로 아래에 용자암이란 절도 있었다고 한다. 이 절은 1990년 무렵에 철거되었다. 그러나 용자암 보다는 죽엽리 사지가 동림산 주변에서 확인되는 절터로 원적사 터에 세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조선초기의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곳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추정시기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는 존재하던 사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적사가 언제 폐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던 원적사가 조선후기의 지리지인 『여지도서』에는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00년대~1700년대 사이에 폐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장5리에 전해지기로는 여승이 머물던 절이었고 빈대를 잡으려 불을 피웠다가 모두 소실되어버렸다는 전설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한석봉과 암행어사

박문수 등이 공부 한 곳이라고 하여 이 산의 산신을 박문수 산신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절터에 다시 원적사가 세워진 것은 1950년이였다. 공사를 하면서 수많은 기와 조각이 쏟아져 나왔고, 어느 지점에서는 30cm 정도 크기의 목 없는 돌부처도 발견되었다. 이때에 발견되었던 유물은 조치원에 살던 사람이 가져다 팔았다고 한다.

운주산(雲住山)에 있다는 운점사(雲岾寺)에 대해서는 려말 선초의 문인인 최유중(崔有悤)의 시 한편이 전한다. “절이 연하(煙霞) 속에 있는데, 층층한 봉우리 몇 겹이더냐. 산이 깊으니 낙락장송 빼어나고, 강 넓으매 물이 출렁거린다. 설법하는 강당은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승방의 창은 반공중에 의지했네. 머리 돌려 보니 진세가 아득하고, 늙은 중이 스스로 조용하다.” 운주산의 운점사에 대해서는 비암사를 뜻하는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으나 분명치 않다. 또한 운주산의 범위가 전동면과 전의면, 서면 등에 넓게 걸쳐있어 이 운점사가 전동면 지역에 속해 있던 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3. 외침의 극복

고려는 중국의 강대국인 원나라와 끊임없는 갈등과 교류의 관계에 있었다. 전의와 인접한 연기에서는 우리나라 7대 대첩중 하나로 알려진 연기대첩, 즉 합단적과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1290년 원나라에 반기를 든 몽고 합단적이 우리나라 고려로 침입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왕은 강화도로 피난을 할 정도였다. 합단군이 2년여 동안 고려에 미친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식량의 약탈은 물론이고 살상을 일삼았으며,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삼았기 때문에 반란군이 휩쓸고 간 곳마다 피해가 어마어마하였다.

연기현(燕岐縣)에서의 전투는 1291년(충렬왕 1) 5월 2일 미호천 부근의 쌍전리 정좌산 아래에 합단적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이 기습공격하면서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함으로써 합단적과의 긴 전쟁은 막을 내릴 수 있었다. 합단군의 이동경로에 전동면 지역이 포함되었다면 이 지역의 민간인 피해가 막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공민왕대에 이르러 고려는 끈질긴 원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쪽으로는 홍건적이 침입하고, 남쪽으로는 왜구가 침탈해 들어오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특히 14, 15세기에는 바닷가와 강을 통하여 왜구들이 전국적으로 준동하였다. 왜구의 침입에 관한 기록만 470여건에 이를 만큼 피해가 컸다. 왜구는 선박을 이용해 이동하며 삼남지방을 노략질했는데 그중에서도 충청지방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376년(우왕 2) 왜구는 금강을 거슬러 올라 부여·석성 등을 치고, 나아가 공주를 함락하고 연산 개태사를 도륙하는 등 금강 연안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 싸움에서 공주 목사 김사혁(金斯赫)은 정현(鼎峴 :공주 탄천면 정치리)에서 싸우다 참패하였고, 양광도 원수 박인계(朴仁桂)는 석성에서 사살 당하는 낭패를 보았다. 이에 중앙에서 최영이 출정하여 왜군을 홍산(부여)에서 대파하는데, 이것이 우왕 2년(1376) 최영의 유명한 홍산대첩이다. 이 시기에 전동면 지역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전동면이 남쪽으로는 금강의 지류하천인 미호천과 연결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아산만과 이어지는 곡교천과 가까우므로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였다고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제4절

조선시대

1. 지방제도의 개편

고려말 1356년(공민왕 5) ‘양광도’를 ‘충청도’로 개칭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의 조정이 이루어져 조선 건국 후 태종조에는 대체로 그 윤곽이 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충청도는 4목(홍주·공주·충주·청주)중 홍주목과 공주목이 각각 현재의 충남지역 일대를 관할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연기군 지역은 공주목 관할 연기군과 전의현으로 편제되었다. 이중 전의현의 동남부 지대가 훗날 전동면으로, 서부지역이 전의면이 된다.

전의현은 고려때에 청주 임내에 붙어있던 작은 고을이었고, 조선 건국 후 1395년(태조 4)에 감무(監務)를 두게 되었다. 감무는 고려시대에 실제로 수령을 파견하지 못한 속군현(屬郡縣) 및 향(鄉)·소(所)·부곡(部曲)·장(莊)·처(處) 등에 파견되는 관직이다. 이러한 곳은 주현(主縣)에 의해 피해를 입고 유망민이 생기곤 했는데 이들을 안정시켜 조세와 역을 수취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감무가 설치되었던 곳은 군현제가 정비되면서 군현으로 편제되었는데 1414년(태종 14)에 쓸데없는 관원을 정리하기 위하여 군현 폐합을 단행하였다. 전의는 연기(燕岐)에 합쳐 고을명을 ‘전기(全岐)’로 고쳤다. 조선초에는 전국적으로 군현의 병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고려말까지 너무 많은 군현이 있어 수령을 전부 배치하기가 어려웠고, 강성한 지방 세력을 억누르며 중앙에서 직접 지배하기도 곤란했기 때문이었다. 군현의 병합은 땅의 규모와 군현의 위상을 고려한 방침이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흡수 당하는 쪽에서는 여러 면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병합된 현은 그 칭호를 잃을 뿐만 아니라 관아 시설이 모두 없어져 아전이 자기의 전장(田庄)을 지키기 어렵고 먼곳의 관아까지 출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에 반발하는 이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지역내에서 기득권을 가진 계층이었다. 전의와 연기가 합쳐졌을 때에 치소가 어디에 두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치소가 폐지된 지역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2년만인 1416년(태종 16)에 다시 두 고을을 예전처럼 갈라 ‘전의현(全義縣)’으로 하였으므로 지역내의 갈등은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당시 전의현은 호수가 166호, 인구 572명, 군정은 시위군이 2명, 선군 92명이었다. 이것은 이웃한 연기현의 인구 규모의 반도 안되는 수준이었다. 당시 연기현은

348호에 인구 1,446명에 이르렀다. 이렇듯 군세(郡勢)가 약한 편이었던 전의현의 상황은 조선후기에도 마찬가지였던듯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에서는 전의현의 형세(形勝)을 “세개의 산봉우리가 들을 감싸고, 두개의 물길이 치소를 둘러 흐른다(三峰圍野二水繞城)”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개의 봉우리는 전의현의 진산(鎭山)인 월소산(月昭山)과 고려산(古麗山) 및 운주산(雲住山)을 뜻한다. 들이 넓지 않으므로 경제력이 약할 수 밖에 없고, 고을의 면적도 타 군현에 비해 좁은 편이었던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전동면지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전의현에 있던 두 군데의 자기소(磁器所)중 하나가 서쪽의 망현리(芒峴里), 하나는 남쪽의 송현리(松峴里)에 있다는 기록이 주목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송현리’는 지금의 전동면 송성리 지역이다. 두군데의 자기소 모두 ‘중품(中品)’으로 기록되어 있다. 송성3리 중말에서는 지금도 요지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이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조선후기에 제작된 분청사기 종류가 많아 사료에서 말하는 자기소가 중말인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철장(鐵場)이 현의 동쪽 서방동(西方洞)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의현 동면 서방동리, 지금의 봉대리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은 ‘중품(中品)’으로 나타난다.

전의현은 금강 수계에 있으면서도 호남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이와같이 교통의 요지로서의 지역특성은 지금까지 여전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1번국도, 군도1호와 철도가 지나고 있기도 하다. 조선후기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는 전의현 주변의 큰 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전동면을 통과하는 길목은 다음과 같다.

- 동방(東方) 청주에 이르는 대로(大路) : 수구동리(水口洞里) → 7리 → 대치리(大峙里) → 10리 → 원우리(院隅里) → 15리 → 청주
- 남방(南方) 연기에 이르는 관로(官路) : 미력당리(彌力堂里) → 5리 → 수회리(水回里) → 10리 → 송치리(松峙里) → 15리 → 연기
- 서남간(西南間) 공주에 이르는 관로(官路) : 옥지리(瑱地里) → 5리 → 양지리(陽地里) → 10리 → 사기소리(沙器所里) → 20리 → 공주

전의현에는 역은 없었으나 원은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쪽의 고라원(高羅院, 또는 鯨院)과 남쪽 8리 지점에 있던 송현원(松峴院)이 그것이다. 송현원은 전의현 남방 관로중 마지막 지점인 송치리 인근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송현원은 연기현 지리지의 역원조에도 등장한다. 금사역(金沙驛)에 소속된 송현원(根峴院)이 연기현의 북쪽 21리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두 기록에 등장하는 송현원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 면리편제

1) 면리제의 개편

군현제가 정비되면서 중앙정부는 군현의 하부 구조에 대한 통제와 수취를 위하여 호수(戶數)에

토대를 둔 획일적인 면리제(面里制)를 구상하였다. 조선초기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면에 권농관, 리에는 이정을 두어 촌락을 교화하고 통제하며 면리(面里)의 수취체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은 5호(戶)를 1통(統), 5통을 1리(里)로 하고, 몇 개의 리를 합쳐 1면(面)을 만들고, 통에는 통주(統主), 리에는 이정(里正), 면에는 권농관을 각각 둔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규대로 조선 초기부터 정비된 면리제(面里制)가 실시되지 못하자, 권농관도 전국적으로 설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면리제가 전국의 말단행정구역까지 보급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면리제가 시행될 수 있었다.

조선전기의 자연촌들은 조선후기의 경우처럼 <郡-面-里(洞)-村>의 행정편제가 확연하지 않은 채 반독립적인 형태로 자연촌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전농법(논 농사)이 일반화되면서 농지가 점차 평야·저지대로 확대되고, 농업이 발달하면서 마을의 규모가 커지고 집촌화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마을은 농경지를 중심으로 중심촌락과 주변의 소규모 자연촌이 공존하게 되었는데, 조선후기의 ‘里[洞]’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촌락이었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듯이 1700년 이전의 전의현의 관할 면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선후기의 면리에 대한 기록이 처음 보이는 것은 1700년대 중반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 부터이다. 이때 전의현의 관할 면은 총 6개이고, 그 후에 편찬된 『호구총수』에는 6개 면이 기록되었다. 고지도인 『해동지도』에는 동면, 서면, 소서면, 대서면, 북면 등 5개 면이 표기되어있다.

면리제의 변화는 『여지도서』·『호구총수』 등의 조선후기 사료와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기존의 행정구역 상황을 조사·기록하였는데 이것이 1800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시기별 면리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여지도서』 방리조 중 현재의 전동면 지역

면	리	官門으로부터의 거리	편호		인구			
			각호	계	남	여	계	총계
동면 (東面)	수구동리(水口洞里)	동쪽 7리	77	338	105	159	264	1,390
	대치리(大峙里)	동쪽 10리	89		167	215	382	
	상호장리(上芦長里)	동쪽 20리	100		244	233	477	
	서방동리(西方洞里)	동쪽 20리	72		115	152	267	
남면 (南面)	보평리(寶坪里)	남쪽 20리	108	318	160	189	349	1,237
	상송동리(上松洞里)	남쪽 20리	52		94	124	218	
	남포리(藍浦里)	남쪽 10리	67		120	167	287	
	송치리(松峙里)	남쪽 15리	91		167	216	383	
소서면 (小西面)	경지리(頃地里)	남쪽 5리	46	239	94	78	172	934
	양지리(陽地里)	남쪽 10리	45		83	136	219	
	사기소리(沙器所里)	남쪽 20리	93		147	187	334	
	만로곡리(萬老谷里)	남쪽 10리	55		87	122	209	

1700년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여지도서』의 기록을 보면 동면, 남면, 소서면 모두 4개리로 구성 되어 있고 편호는 큰 차이가 없지만 소서면이 동면보다 100여호가 적어 소서면이 가장 규모가 작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각 면에 소속된 리의 수가 너무 적고, 각 리당 편호와 인구는 많다는 점이다. 이는 가까운 연기현과 비교되는데 『여지도서』에 나타나는 연기현의 경우 7개면 97개리가 기록되어있고 각 리당 평균 26호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의 표에서는 각 리당 편호가 평균 75호에 이르고 있다. 한 마을에 75호 가량이 거주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칭하는 1개리가 여러개의 자연마을을 통합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즉 『여지도서』의 전의현 방리조 기록은 여러 마을중 대표 리명이 기록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앞의 [표 1]에서 확인되는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지명이 자연조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소서면의 ‘사기소리(沙器所里)’는 앞서 조선초기의 지역 상황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자기소가 있던 마을을 칭하고 있어 이곳에서 조선후기까지 자기가 생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 편찬 이후 조선후기 행정구역의 상황을 가장 상세히 알려주는 자료는 1789년 편찬된 『호구총수(戶口總數)』이다. 『호구총수』는 1789년(정조 13)의 전국 호구 수를 총망라하여 정리해 놓은 인구 통계집이다. 총 9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으로 면별로 소속 마을이름을 나열하였고, 호수와 인구 수를 남녀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호구총수』 편찬의 주요목적은 부세(賦稅)를 균등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호구총수』에 나타나는 전동면 지역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호구총수』 전의현 중 현재의 전동면 지역

면	리
동면 (東面)	수구동리(水口洞里), 대치리(大峙里), 서방동리(西方洞里), 노장리(蘆長里)
	마을수 : 4 / 원호 : 296 / 인구 : 1189(남 535, 여 654)
남면 (南面)	심천리(深川里), 송곡리(松谷里), 남보리(藍補里), 송치리(松峙里)
	마을수 : 4 / 원호 : 291 / 인구 : 1275(남 576, 여 699)
소서면 (小西面)	돈지리(頓地里), 양지리(陽地里), 사기소리(沙器所里), 마산리(馬山里), 압곡리(鴨谷里)
	마을수 : 5 / 원호 : 314 / 인구 : 1268(남 510, 여 758)

『여지도서』와 비교하면 마을 수의 변화는 거의 없다. 소서면에서 만로곡리 대신 마산리와 압곡리가 새로 나타나고 경지리가 돈지리로 지명이 달라지지만 이것은 만로곡리의 지명 변화와 한자지명의 독음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편호와 인구 규모에는 변화가 나타난다. 동면과 남면은 편호와 인구가 줄어들지만 소서면은 반대로 마을 수를 비롯해 편호와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1700년대 중반까지 동면이나 남면에 비해 훨씬 작은 지역이었으나 1800년대 후반에는 두 개의 면 지역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서면은 현재의 신방리(莘芳里), 영성리(靈城里), 다방리(多方里), 양곡리(陽谷里), 달전리(達田里), 금사리(金沙里) 등 주로 서면 지역으로 편제된 곳이다. 조선후기 이후 이곳의 경제력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조대 이후 두 차례의 양요(洋擾)를 겪으면서 조선은 서양의 침략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방과 치안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의 실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1871년에는 전국적인 읍지(邑誌) 편찬사업을 벌이고 이듬해인 1872년에 전국적인 차원의 지도제

작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도를 만드는 기간은 짧았지만, 큰 규격으로 작성됨에 따라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당시의 마을 수와 편호의 규모까지 기록되어있다. 지도의 기록과 비교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1700년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마을 수가 주목되며, 오히려 줄어든 편호도 특이한 점이다. 편호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은 인구 이동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동면과 남면 지역은 주로 조천천의 북쪽인 산악지대이거나 조천천 연안이었으므로 작은 지류하천 주위의 넓은 평지인 소서면이나 기타 면 지역에 비해 인구가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소서면의 편호가 증가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 전동면지역 인구규모의 변화

	마을 수			편호			인구	
	여지도서 (1760년대)	호구총수 (1789)	지방지도 (1872)	여지도서 (1760년대)	호구총수 (1789)	지방지도 (1872)	여지도서 (1760년대)	호구총수
동면 (東面)	4	4	19	338	296	275	1,390	1,189
남면 (南面)	4	4	22	318	291	279	1,237	1,275
소서면 (小西面)	4	5	20	239	314	320	934	1,268

한편, 1895년 전의에서는 지역의 유림들이 모여 사찬지리지인 『전성지(全城誌)』를 편찬하였다. 1895년 갑오개혁으로 지방행정구역이 개편된 후의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면리제 상황도 상세히 보이는데 앞서 살펴보았던 『호구총수』에 비해 마을 숫자가 크게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872년 지방지도의 기록보다는 줄어든 모습이다. 지방지도에서는 마을의 숫자만 나타냈지만, 『전성지』에서는 동리명까지 나타나 있어 기존의 면리제가 어떻게 변화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표 4) 1895년 『전성지』에 기록된 전동면 지역의 면리

면	리
동면(東面) 15동리	당리(堂里), 미당리(美堂里), 수구동(水口洞), 지곡리(紙谷里), 대치리(大峙里), 배일리(排日里), 도청(都靑)·석곶(石串), 하노장(下蘆長 혹은 院隅)·중노장(中蘆長)·상노장(上蘆長) 원직(院直), 이목동(梨木洞), 서방동(西方洞)·고소치(古所峙)
남면(南面) 14동리	심천리(深川)·보평(洑坪)·하송동(下松洞), 저치(苧峙), 중송동(中松洞), 상송동(上松洞), 사정동(沙亭洞), 상남포(上藍浦), 하남포(下藍浦), 송치(松峙), 각동(角洞)·수회(水回), 성곡(城谷), 도산(陶山 또는 신대)
소서면(小西面) 22동리	돈지(頓紙), 이성(李城), 신암(莘岩), 세곡(細谷), 양지(陽池), 용지(龍池), 보평(洑坪), 부거곡(富居谷), 서방동(舍方洞)·와야(瓦野), 신리(新里), 다락동(多樂洞), 사기소(沙器所), 누동(樓洞 지금은 達田이라 함), 성동(聖洞), 영성(靈城), 호정(好庭), 압곡(鴨谷), 마산(馬山), 만노곡(晩老谷), 당곡(堂谷)

이중에 주목되는 것은 동면의 노장리가 상노장, 중노장, 하노장으로, 남면의 송곡리가 상송동, 중송동, 하송동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중심 리(里) 아래에 있던 자연촌이 점차 분화되어 독자적인 조직과 규모를 지니면서 독립된 마을로 발전하는 모습이 지명상에 上○○, 下○○, 內○○, 外○○, 元○○, 舊○○, 新○○, 本○○ 등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새롭게 등장하는 마을명은 이때에 형성된 신촌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자연마을이 각 군현의 면별 통계에 더욱 상세하게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행정체제의 근대화

지방행정 체제가 근대화된 것은 갑오·을미개혁 이후의 일이었다. 1895년 모든 군현을 군(郡)으로 통일한 뒤 각 군에는 군수, 각 면에는 면장을 두었으며, 1910년 9월에 새로운 지방관제(칙령 357호)에 의거하여 군마다 군수와 군서기, 기수를 두는 군 행정제도를 마련하였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때까지 동면의 면장(면임)이 있던 곳은 청송리 배일이었다. 전동면 주민들은 청송리의 권참봉택이 바로 그 자리였다고 지목하는데 권참봉택은 바로 청송리 아랫배일에 있는 고택이다. 조선후기의 면 행정이란 것은 각 면의 면임(面任)이 맡아 보았는데 면임은 임명되어 부임하는 직책이 아니었고 조선후기에는 대체로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면임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면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아랫배일의 권씨가 종손이었던 권영기(權榮基, 1878~1943)가 참봉벼슬을 지냈는데 한일조약이 체결되면서 일제의 식민지가 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아랫배일에서 말년을 보냈다. 전동면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그가 면장(면임)의 일을 맡아 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의 [표 5]는 조선총독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기 전 조선의 행정구역을 조사한 내용으로 1800년대 후반의 면·리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때에 동면 20개리, 남면 23개리, 소서면 23개리 등 66개의 마을이 기록되어 있는데, 1800년대 후반 이후에도 자연마을은 분화와 생성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면의 마을의 수는 크게 늘어나서 『전성지』와 비교해 보면 동면 5개리, 남면 9개리, 소서면 1개리 등이다. 이 중 남면에 9개나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1800년대 후반에도 마을 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남면은 현재 전동면의 남쪽 지대로 조천천의 물길이 크게 곡선을 이루며 휘돌아나가는 지점 일대이다. 조선후기에 농법이 발달하고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간척과 치수공사를 통해 하천 주변의 농경지 개발이 이루어지자

[표 5] 1912년의 전동면 지역 면리(『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면	리
동면(東面) 20개리15	당리(堂里), 미당리(美堂里), 지곡리(紙谷里), 대치리(大峙里), 외배일리(外排一里), 내배일리(內排一里), 고소치리(古所峙里), 죽엽리(竹葉里), 상노장리(上蘆長里), 중노장리(中蘆長里), 하노장리(下蘆長里), 갈거리(葛巨里), 덕소리(德沼里), 하석곡리(下石谷里), 상석곡리(上石谷里), 중석곡리(中石谷里), 도청리(都靑里), 삼송정리(三松亭里), 수구동(水口洞), 대동(垞洞)
남면(南面) 23개리14	도산리(陶山里), 성곡리(城谷里), 하수회리(下水回里), 상수회리(上水回里), 중리(中里), 송치리(松峙里), 동곡리(銅谷里), 소정리(少亭里), 신대리(新垞里), 저치동(苧峙洞), 보평리(寶坪里), 심천리(深川里), 동막동(東幕洞), 상남포리(上藍浦里), 하남포리(下藍浦里), 청산리(靑山里), 각곡리(角谷里), 중송동(中松洞), 상중송리(上中松里), 상송동(上松洞), 하송동(下松洞), 개적동(介赤洞), 대중송동(大中松洞)
소서면(小西面) 23개리22	둔지리(頓紙里), 영성리(靈城里), 당리(堂里), 신암리(莘岩里), 마산리(馬山里), 상만곡리(上晩谷里), 하만곡리(下晩谷里), 압곡리(鴨谷里), 상세곡리(上細谷里), 하세곡리(下細谷里), 양지리(陽支里), 용지리(龍支里), 부거곡리(富居谷里), 하달전리(下達田里), 상달전리(上達田里), 하사기소리(下沙器所里), 상사기소리(上沙器所里), 신리(新里), 양방이동(陽芳耳洞), 음방이동(陰芳耳洞), 금성동(金城洞), 사방동(舍方洞), 다락동(多樂洞)

이 일대에 인구가 증가하여 마을이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일제는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면서 전의의 동면, 남면의 대부분과 주변 면리 일부를 병합하여 '전동면'을 새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1917년 6월에는 총독부 제령(제1호)에 따라 조선면제가 실시되면서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의 지방행정체계가 완성되었다. 이 시기 전동면의 면소재지는 미곡리가 되어 면사무소가 건립되었다.

[표 6]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전동면 면리

리	1914년 이전의 면리	
	군·면	리
미곡리(美谷里)	전의군 동면(東面)	당리(堂里), 미당리(美堂里), 자곡리(紙谷里), 수구동(水口洞),
노장리(蘆長里)	전의군 동면(東面)	상노장리(上蘆長里), 중노장리(中蘆長里), 하노장리(下蘆長里), 죽엽리(竹葉里), 이목동(梨木洞)
봉대리(鳳臺里)	전의군 동면(東面)	고소치리(古所峙里), 서방동(西方洞), 대동(垔洞)
청송리(靑松里)	전의군 동면(東面)	대치리(大峙里), 외배일리(外排一里), 내배일리(內排一里), 도청리(都靑里), 삼송정리(三松亭里)
석곡리(石谷里)	전의군 동면(東面)	상석곡리(上石谷里), 중석곡리(中石谷里), 하석곡리(下石谷里)
보덕리(寶德里)	전의군 동면(東面)	덕소리(德沼里), 남면심천리(南面深川里), 보평리(寶坪里)
송정리(松亭里)	전의군 동면(東面)	동곡리(銅谷里), 소정리(少亭里), 신대리(新垔里), 상송동(上松洞)
	전의군 남면(南面)	대중송동(大中松洞)
송곡리(松谷里)	전의군 남면(南面)	저치리(苧峙里), 개적동(介赤洞), 하송동(下松洞), 중송동(中松洞), 상중송동(上中松洞)
청람리(靑藍里)	전의군 남면(南面)	동막동(東幕洞), 상남포리(上藍浦里), 하남포리(下藍浦里), 청산리(靑山里)
송성리(松城里)	전의군 남면(南面)	성곡리(城谷里), 하수회리(下水回里), 상수회리(上水回里), 중리(中里), 송치리(松峙里), 각곡리(角谷里)
신방리(莘芳里)	전의군 소서면(小西面)	돈지리(頓紙里), 양방이동(陽芳耳洞), 음방이동(陰芳耳洞), 신암리(莘岩里), 마산리(馬山里), 남면도산리(南面淘山里)
영성리(靈城里)	전의군 소서면(小西面)	영성리(靈城里), 당리(堂里), 상만곡리(上晩谷里), 하만곡리(下晩谷里)
다방리(多方里)	전의군 소서면(小西面)	사방동(舍方洞), 다락동(多樂洞), 신리(新里)
양곡리(陽谷里)	전의군 소서면(小西面)	암곡리(鴨谷里), 상세곡리(上細谷里), 하세곡리(下細谷里), 양지리(陽支里)
달전리(達田里)	전의군 소서면(小西面)	용지리(龍支里), 부거곡리(富居谷里), 하달전리(下達田里), 상달전리(上達田里), 금성동(金城洞)
금사리(金沙里)	전의군 소서면(小西面)	하사기소리(下沙器所里), 상사기소리(上沙器所里)

3. 성씨와 인물

1) 성씨 기록

전동면 지역은 철도역이 있는 노장리 일대가 현대화되어 타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대부분의 지역이 각성 반이 동네가 되었지만 100여년 전까지는 집성촌이었던 곳이 많다. 집성촌의 성씨는 수백년전 이 땅에 자리잡은 사람들의 후손이다. 그러나 언제 어떤 인물이 무슨 이유로 입향하였는가

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 특히 전통시대에는 전의 지역의 남동쪽에 치우쳐 인구가 많지 않았던 곳이었으므로 전의현의 지리지 성씨·인물 기록에서 전동지역의 성씨를 추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의현의 경우 백제시대부터 성씨가 존재하였고, 특히 계유명천불상에서 보이는 성씨의 존재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현재로서 찾을 길이 없고 다음의 지리지 기록들이 그 편린을 전해 준다.

〔표 7〕 조선시대 전의현 지리지의 성씨 기록

구분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단종 2)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중종)	여지도서 (영조·정조)	충청도읍지	전성지 (1854)	증보문헌비고 (1907)
土姓	李·俞	본현-李 俞·河·全	全義李氏	본현-李 俞·河·全	본현-李 俞·河·全	李·金·鄭·崔· 吳·宋·俞·丁· 邊·全·田·河
亡姓	河					
次姓	全					

전의현 성씨가 처음 나타나는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로 토성 이(李)·유(俞)씨, 망성 하(河)씨, 차성 전(全)씨가 기록되고, 조선전기의 상황을 잘 정리한 성종대의 기록인 『동국여지승람』에는 본현 성씨로 이(李)·유(俞)·하(河)·전(全)씨가 기록된다. 토성(土姓)은 고려 말 이래 지역적 기반을 가지면서 석성에 존재했던 토착성씨이고 망성(亡姓)은 토성이었다가 소멸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차성(次姓)은 토성과의 선후관계를 보여주는 성씨이다. 그런데 이들 성씨가 과연 전동면 지역과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현재 전동면 지역에 거주하는 이(李)·유(俞)·하(河)·전(全)씨가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바로 그 성씨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조선후기의 자료인 『문헌비고』(1770년, 1782년)에는 전의지방 성씨로 이(李)·김(金)·정(鄭)·최(崔)·오(吳)·송(宋)·유(俞)·황(黃)·정(丁)·변(邊)·전(全)·하(河)씨 등 많은 성씨가 나타난다. 조선후기에 이르면서 새로 이거 정착하여 성장한 성씨들의 모습이 기록에서 부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말에 편찬된 『전성지』에서 상세하게 구분·기록되어 성씨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성씨기록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인물조를 원거(元居), 교우(僑偶) 성씨로 구분하고 명현(名賢), 유행(儒行), 절의(節義), 효열(孝烈) 등으로 나누어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원거와 교우 성씨는 다음과 같다.

- 원거성씨(元居姓氏) : 안동김씨(安東金氏), 남양홍씨(南洋洪氏), 거창신씨(居昌慎氏), 순천이씨(順天李氏), 양주조씨(楊州趙氏), 우봉이씨(牛峯李氏), 예안이씨(禮安李氏), 회덕황씨(懷德黃氏), 원주변씨(原州邊氏), 안동권씨(安東權氏), 양성이씨(陽城李氏), 강릉김씨(江陵金氏)
- 교우성씨(僑寓姓氏) : 진주유씨(晉州柳氏), 전주이씨(全州李氏), 한산이씨(韓山李氏), 삭녕최씨(朔寧崔氏), 여산송씨(礪山宋氏)

이렇게 구체적인 기록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전동면 성씨를 구분해내는 것은 어렵다. 2010년 현재 전동면의 주요성씨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성씨와 비교해 보면 안동권씨, 전주이씨, 여산송씨 등이 확인될 뿐이다. 이렇게 소수의 성씨만이 지리지에 기록되는 것은 출신 인물의 활약,

후손의 분포와 관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성씨가 다수라도 출신 인물이 빈약하거나, 훌륭한 인물이 있었더라도 후손이 끊겼다면 성씨 기록에는 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재 전동면에 거주하는 주요 성씨들의 입향과정을 추적해보면 임진왜란 이후인 16세기 이후에 터를 잡은 경우가 많은데 간혹 전설상으로 ‘○씨가 살았다고 전해오는 골짜기’ 또는 ‘아무개씨 고충’과 같은 전설이 있어 지금은 후손이 없으나 옛 사람의 흔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 농사법이 개발되고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양반 사족이 이거하여 터를 잡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하나의 주목되는 기록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측에서 제작한 것이다. 당시 일제는 전국의 집성촌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여 『조선의 성(姓)』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여기에서 전동면의 달전리, 양곡리를 제외하고 현재의 공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청람리와 송곡리의 경주김씨, 송정리의 정선박씨, 노장리와 청송리의 안동권씨 등이 전동면의 대표적인 집성촌 성씨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1912년의 조선의 성씨 기록중 전동면

리	성씨	호구
청람리	경주김씨	28
송곡리		
송정리	정선박씨	15
노장리	안동권씨	28
청송리	안동권씨	31

2) 입향과 활동

전통시대에 전동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았던 성씨 중 상당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후손이 이어지지 못하여 이 땅에 그 흔적도 남기지 못하였을 것이다. 지리지의 성씨조와 인물조에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그들의 거주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정리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전동면의 주요 성씨에 대한 입향과 확산 과정을 살펴보았다. 전동면에 전해지기로는 ‘석곡리 신씨’, ‘봉대리 송씨’, ‘이목동 김씨’, ‘상노장 권씨’를 대표 성씨로 손꼽는다 하는데 이것은 여러 성씨 중에서도 최근까지 가장 번성한 집안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성씨 외에도 더 다양한 성씨가 전동면에 거주하고 있으나, 1800년대 후반 이후에 입향하였거나 입향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성씨는 부득이 제외하였다.

(1) 미곡리 안동김씨 전서공파

미곡리 안동김씨(安東金氏) 전서공파는 충열공(忠烈公) 김방경(金方慶, 1212~1300)의 5세손인 전서공 김성목(金成牧)을 파조로 하는데, 전서공파는 전의현 지역에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입향조는 김휴(金休)로 연기지역에 연고를 가진 최초의 안동김씨 인물이다. 그의 호는 학당(學堂)으로 고려 공민왕 때 검교(檢校)로 있으면서 왕을 시종하였다. 어려서 포은 정몽주에게 수학하였고,

조선 개국 후에는 전의 운주산 밑 학당(현 전동면 미곡리 학당)에 은거하였는데, 남면 양화리에 터전을 잡은 부안임씨 입향조 임난수와도 같은 시기에 연기에 인연을 맺고 있었다.

전의에 은거한 김휴에게 태조는 호군에 임명하지만 그는 노친을 봉양한다는 구실로 사퇴하였다. 그러자 태조는 다시 가선대부 한성부 판윤에 임명하는데 이때도 그는 끝내 새로운 조정에 나아가지 않고 향리에서 성리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충·효·열의 삼강의 도리를 실천하여 주위의 칭송을 들었다고 한다. 부인은 선산김씨로 슬하에는 2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 익정은 효자로 정려를 표창받은 김익정(金益精, ?~1449)이며, 차남은 김익겸(金益謙)이다. 형제는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삼사의 요직을 역임하였으며, 막내 사위가 바로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朴彭年)의 조부인 박안생(朴安生, 순천박씨)이었다.

현재 미곡리에는 안동김씨가 없으며, 현재 연기군의 안동김씨는 김휴의 아들대에 분가되어 전의면 양곡리와 달전리에 세거하고 있다. 양곡리에는 김휴의 둘째 아들인 김익정의 효자 정려가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2) 노장리 안동권씨 추밀공파

노장리 안동권씨 추밀공파(樞密公派)의 파조는 시조의 10세손인 충순공(忠純公) 권수평(權守平, 1180년 경~1250)으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지냈다.

입향조는 권은(權崧, 1400년대)으로 알려져 있다. 파조 권수평의 10세손으로, 조부는 태종(太宗)의 부마인 제간공 권규(權圭)이며, 아버지는 돈녕공(敦寧公) 권담이다. 권담은 원래 병조판서를 지낸 박습(朴習)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박습이 군무처리와 관련하여 퇴각 당하자, 강제 이혼당하고 이어 병조판서 정연(鄭淵)의 딸과 혼인하였다. 권은의 부인은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황보인(皇甫仁)의 딸이다.

권은이 노장리에 입향하게 된 계기는 계유정난에 의해서였다. 권은은 단종 조에 영의정을 지낸 황보인(皇甫仁)의 사위로 수양대군(首陽大君)에 의한 계유정난(癸酉靖難, 1453)이 성공한 직후 황보인·김종서·윤치공 등이 살해되고, 일가가 전멸됨으로써 선영이 있는 용인으로 피신했다. 계유정난을 주도한 권람(權覽)이 그의 당숙이었으나, 쉽게 알려지지 않다가, 10년 후인 1463년에 발견되어, 10년간 양주(楊州)에 부처(付處)되었다가, 제간공과 경안궁주(慶安宮主)의 장손으로 전동면 노장리에 세거하는 계기가 되었다.

배출 인물로는 권은의 6세손인 권주(權柱)가 있다. 『전성지(全城誌)』(1854년 편찬)의 절의 인물 조에는 권주의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권주는 양촌 권근의 9세손이며 안동권씨 24세손으로 참봉 벼슬을 지내며 효로써 아버이를 섬기고 검소하게 집안을 다스렸다. 그리고 항상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바칠 뜻을 품었는데 임진왜란때에 판서 이성중(李誠中)이 왜적의 세력이 강하여 군량을 수송할 길이 없다고 하자 8백곡(斛; 곡식 10말의 용량을 뜻함)의 곡식을 내 놓고 직접 수송하였다. 권봉은 권주의 아들로 주부(主簿)를 지냈고,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 때 정동리(鄭東里; 현재의 정중리)에서 분전하다가 순절하였다. 권봉의 아들 권전(權全)·권건(權健) 형제는 병자호란때에 창의군으로 적과 싸워 전사하니 훌륭한 조부에 훌륭한 손자라 극찬하였다. 이들과 관련된 지명유래도 전해지는데, 노장리는 왜군을 맞아 권주와 일가족 및 마을사람들이 갈대밭에 숨어 참화를 피했으

므로 권주가 그 갈대밭을 노장(蘆長)이라 하였다고 하며, 배일(排日)이란 마을이름도 권봉·권전 부자가 순절한 후 사람들이 일본을 배척한다며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3) 청송리 안동권씨 추밀공파

전동면의 안동권씨는 대대로 노장리에 세거하였으며 점차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었는데 그중 청송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권주의 아들중 권영(權英)은 전의현의 가장 유력한 성씨였던 전의 이씨와 혼인하였고 권영의 손자인 권탁(權擢)대에 청송리와의 관련성이 처음 보인다. 권탁의 처 한양조씨(趙洽의 딸)의 묘가 청송리에 조성된 것이다. 그후에도 대대로 노장리 종산에 산소를 조성하였으나 권국정(權國鼎, 1760~1840)의 묘를 청송리에 쓴 후에 그 자손들이 청송리에서 세거한 것이 확인된다.

권국정은 『전성지』 인물조에 “가정이 어려웠지만 학문을 좋아하고 지극한 효성으로 봉친하였다. 그래서 세상사람들이 칭찬하여 말하기를 학문은 넓고 높으며 지조는 맑고 아름답다 하였다. 자, 손, 증손, 현손의 5대가 한집에 같이 살아서 세상에서 ‘적선지가(積善之家)’라 칭송하였다.”라 기록되어 있다. 권국정의 아들 권부(1782~?)는 1832년 대흥년으로 사람들이 굶주리자 곡식을 풀어 구제하였고 그때 이를 감사히 여긴 이들이 동네 입구에 비석을 세워주었다 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면 권부대에 집안이 큰 부를 축적한 듯하며 청송리에 세워진 비석이 이때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4) 청람리 경주김씨 계림군파

경주김씨 계림군파는 전동면 청람리에 처음 입향한 경주김씨 계림군파 입향조는 김철원(金喆元, 1500년대 초반 인물)으로 예문관 직제학(藝文館 直提學)을 역임한 인물이다.

김철원이 전동면 청람리로 입향하게 된 계기는 김철원의 백조부인 김천령(金千齡, 1469~1503)이 연산군 때 갑자사화(甲子士禍, 1504년)로 부관참시됨에 따라 그 일가족이 각처로 분산되었다고 한다. 바로 이를 계기로 김철원은 조부 김백령(金百齡)을 따라 전동면 청람리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유적으로는 김철원의 묘소가 전동면 청람리 산 102번지에 있다.

(5) 송성3리 예안이씨 동고파

전동면 송성3리 송치 예안이씨들의 시조는 전의 이씨의 시조인 이도(李棹)의 9대손 이혼(李混, 1252~?)으로 고려 원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첨의정승(僉議政丞)을 지내고 예안백(禮安伯)에 봉해졌다. 이혼의 손자 이익(李翊)이 보문각제학(普文閣提學)을 지내고 예안군(禮安君)에 봉해지면서 전의이씨에서 분관하여 본관을 예안으로 하였다.

현재 전의면 유천리에 살고 있는 예안이씨 동고파의 파조는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이명(李莫, 1496~1572)이다.

전동면 송성3리 예안이씨 동고파 입향조는 이영길(李營吉, 1599~1673)로 이준(李峻, 1555~?)과 어머니 의령남씨[宜寧南氏, 절충장군 남순제(南舜濟)의 딸] 사이에서 태어나 증직으로 참관을 지냈다.

이영길은 원래 한양 소용동(所用洞)에서 살다가 병자호란으로 나라가 어려워지자 평안한 이곳 송성리로 입향했다고 전해질뿐 구체적인 시기나 사유가 전해지지 않는다.

(6) 심중리 청주한씨 송제공파

심중리 청주한씨 송제공파는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올랐던 한란(韓蘭, 853~913)을 시조로 한다. 전동면 심중리 조광동 청주한씨 송제공파의 입향조는 한용희(韓用羲, 1833~1915)로 아버지는 한동락(韓東洛), 어머니는 평산신씨(平山申氏)이다.

한용희의 일가가 전동면 심중리에 입향하기 전에는 여흥민씨와 강릉김씨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근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주한씨는 전의면 동교리, 조치원 번암리, 전동면 보덕리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

한용희를 비롯한 청주한씨의 묘가 전동면 심중리 66-1에 선산을 이루고 있으며 재실이 있다. 지난 2003년 전동면 심중리 선산에 납골묘를 세우기 위해 이장하던 중 한준민(韓俊敏, 1570~1638)과 그의 부인 여주민씨, 그리고 며느리 평양조씨의 유골이 발견되었으며 이때 함께 묻었던 조선시대의 많은 복식이 출토되었다.

(7) 봉대리 여산송씨 정가공파

봉대리 여산송씨 정가공파의 입향조는 송인남(宋仁南)이다. 부인은 서씨이다. 송인남은 원래 충북 진천에서 거주하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연기에 입향하였는지는 전해오는 바가 없다. 묘는 전동면 봉대리 운주산 아래에 있다. 여산송씨가에서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봉대리의 토박이는 원래 서씨였다고 한다. 온통 서씨가의 땅이었는데 불행히도 아들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하였고 사위들에게 토지를 나눠 상속하여 송씨가 터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산골짜기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층이 많은데 이것이 모두 서씨 묘라고 전한다. 송씨 집성촌인 고소재 건너편 마을인 '서방동'이 서씨의 동네였다는 전설도 있다.

(8) 심중리 경주김씨 계림군파

심중리 덕용동 일대는 1900년대 초반까지 경주김씨 계림군파(鷄林君派) 자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다. 경주김씨는 전동면 일대에 번성했던 성씨로, 몇 개의 파가 별개로 입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 심중리 경주김씨는 전의 운주산 아래의 학당(현재의 미곡리 학당마을)에 묘가 있는 김춘무(金春茂, 1595~1676)의 후손이다. 김춘무의 선대는 경기도 고양 일대에서 세거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전의에 묘를 두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일화가 없다. 다만 김춘무의 처는 안동권씨 권태원(權泰元)의 딸로, 당시 노장리에 세거했던 안동권씨가의 인물이 아닌가 추측된다.

김춘무의 외아들 김석근(金錫瑾, 1624~1691)이 심중리와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처가 바로 파평윤씨였다. 파평윤씨는 심중2리에 전설로만 전해지는 성씨이다. 덕용동이 원래는 파평윤씨 집성촌이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윤씨집안에서 터를 내놓고 떠났다는 것이다. 김석근의 아들들의 묘는 전부 덕용동에 있고 그후 대대로 덕용동에 거주하여 오늘날 집성촌을 이루었다. 심중리 외에 노장리 이목동에도 후손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9) 석곡리 거창신씨(居昌愼氏)

석곡리의 거창신씨는 전의면 관정리 취촌에 세거하는 거창신씨 감정공파(監正公派)에서 분파된 집안이다. 전의면에 최초로 입향한 사람은 통훈대부 행공조좌랑(通訓大夫 行工曹佐郎)을 지내고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증직받은 신재(愼在, 1537~1605)이다. 자는 효길(孝吉)이며 아버지는 통훈대부 행울산군수(通訓大夫 行蔚山郡守),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를 지낸 신방좌(愼邦佐), 어머니는 사직(司直)을 지낸 곽문형(郭文亨)의 딸인 청주곽씨(淸州郭氏)이다. 부인은 첨정(僉正)을 지낸 이변(李忭)의 딸인 고성이씨(固城李氏)다.

전의로 입향하게 된 것은 증중반정으로 낙향한 신재의 조부(양조부) 신수정(愼守正, 1474~1520)이 현 천안시 성남면 대흥리(농골)에 정착했기 때문에 말년인 1600년대 어간에 선영이 있는 전의면 관정리 취촌에 입향하였다고 전해진다. 이후 신재의 아들대(신수호, 신수준, 신수웅)에 이르러 전의면 관정리와 전동면 석곡리 일대로 분파한 것으로 보인다.

후손으로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를 지낸 신수호(愼秀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를 지낸 신수준(愼秀竣),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지낸 신경윤(愼景尹),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總府 副總管)을 지낸 신익흠(愼益欽),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을 지낸 신후윤(愼後尹), 1691년(숙종 17)에 익위사(翊衛司)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을 지낸 신이의(愼爾儀) 등이 있다.

(10) 송정1리 정선박씨 수종공파

송정1리는 2010년 현재 정선박씨 수종공파가 13대째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에서는 일명 ‘사장굴 박가’라고 불릴 정도로 오랜 세월 많은 후손이 살았다. 본래 집안은 충청북도 진천의 내수였다고 전해지나 400여년전쯤 보덕리로 이거하면서 연기에 터를 잡게되었다. 처음 연기에 입향한 인물은 박민헌(朴敏獻, ?~?)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연기에 입향하였는지 자세한 연유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의 5대손 박제봉(朴濟鳳, ?~?)대에 송정리로 들어와 지금까지 그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송정리로의 이거 배경도 알 수 없으나 후손들은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안온한 마을로 넓은 영토가 있어 농사짓기에 알맞은 환경을 찾아 온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현재 보덕리에 있던 입향조의 묘 등을 송정2리 사장골로 이장한 상태이다.

3) 사족 활동

(1) 사육신 박팽년(朴彭年)

박팽년은 1417년(태종 17)에 태어나 1434년(세종 16)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할 때까지 부단히 학문에 정진하여 성실하게 수업을 닦았다. 과거에 급제 후에는 집현전 학사로 발탁되어 성삼문(成三問)과 더불어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니, 당시 젊고 덕이 있어 장래가 총망되는 선비에게 내려주는 사가독서(賜暇讀書)의 영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세종이 돌아가시고 문종이 뒤를 이어 단종이 즉위하면서 나라는 어지러움에 휘말렸다. 야심이 대단했던 수양대군은 그가 지니고 있는 저의를 드러내어 김종서·황보인 등을 격살하고 영상직에 올라 정권을 장악했던 것이다.

이무렵 박팽년은 외방으로 나와 고향에서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있었다. 관찰사로 있는 동안 세조에게 올리는 공문서에 신(臣)자 대신에 거(巨)자를 써서 올리기도 했다 한다. 1456년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어 서울에 가면서부터 성삼문,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등과 단종의 복위(復位) 운동을 전개했으나 김질이 장인(丈人) 정창손에게 설득되어 밀고(密告)함으로써 체포되었다.

한편 세조(世祖)는 그의 재능을 아껴서 잘 달래어 신하가 될 것을 설득했으나, 끝내 거부하자 잔인한 고문 끝에 사형을 시켰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과천 민절서원(愍節書院)과 홍주 노운서원(魯雲書院)에서 제향을 지내고 있으며 대전시 가양동에 유허비와 비각(장절정: 壯節亭)이 있다.

박팽년의 선조들은 관정리 대부리(大夫里) 마을에서 10대 이상 대대로 살아왔으며 아버지 박중림(朴仲林)의 묘가 박동(朴洞: 현재의 관정리 박동부락)에 있으나 그 위치는 알 수 없고 할아버지 박안생(朴安生)의 묘는 중송동(中松洞: 현재의 송정리 중소골 부락)에 있다고 『전성지(全城誌)』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박팽년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지역으로 추측되고 있기도 하다.

박팽년의 증조부 박원상은 공주 유성에 자리잡고 살았던 듯 그의 묘소가 유성 동쪽 별대리 둔이동에 있다는 사실이 정조 9년(1785년)에 간행된 『순천박씨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박안생은 박팽년의 조부로 의영고사(義盈庫使)와 목사(牧使)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박팽년의 부친인 둘째 자제 한석당 박중림이 이조판서에 오르게 되자 그 부친으로 이조판서에 추증되는 영예를 얻었다.

그런데 박안생은 전의의 명족인 안동김씨(安東金氏) 한성좌운 학당(學堂) 김휴(金休)의 둘째 딸에게 장가들어 처가 근처로 이사하니 그가 살던 전의 읍치 북쪽의 상중 하대부리 일대를 박동(朴洞)이라 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전의면 광정리 일대이다. 상대부리는 전의 읍치에서 7리, 하대부리는 5리 떨어진 곳이다.

전의읍지(全義邑誌)에 의하면 집 부근에 한석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있었다 한다. 따라서 박중림은 외가가 있는 학당리에서 탄생하여 박동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박중림은 이곳을 그 만형 박맹림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전의 남쪽 싯골(金谷 전동면 송성리 중송동)으로 이사하여 그 부근에 부모 산소를 마련하였던 듯하다.

『세종실록』(1446년 12월 18일)의 기록에는 집현전 교리 박팽년이 아버지 박중림의 무죄를 상서

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신의 아버지는 갑자년에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여 전의현(全義縣) 남촌(南村)에서 여묘(廬墓)를 살았는데…” 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분명 박중림이 그 부친 박안생의 시묘살이를 전의 남촌에서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세종실록』(1439년 9월 27일)의 기사에는 집현전 부수찬 박팽년이 사직을 청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집현전(集賢殿) 부수찬(副修撰) 박팽년(朴彭年)이 상언(上言)하기를,
 “신이 학술이 거칠고 소루하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어, 한가한 데에 있어 글을 읽을 뜻이 있으나, 말씀을 하려다가 못한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박중림)가 상(喪)을 당하여 전의현(全義縣)에 여막을 짓고 있고, 신의 어머니도 따라가 있는데 또 병이 있사오니, 멀리 떠나서 베퉴하는 것이 어찌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하여 가서 여막 옆에 있어 면식(眠食)을 살펴 묻고, 또 어머니의 탕약(湯藥)을 받들어서 조석(朝夕)을 함께 하고 다행히余力(餘力)이 있으면 대강 학업을 연구하려 하오니, 옳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신의 조그마한 정성을 양찰하시와 신의 직책을 면하게 하여 구구(區區)한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하니,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도 박중림이 모친상을 당하여 전의로 내려가 시묘를 산다 하였으니 그 산소를 전의에 모시고 시묘를 살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때 박팽년이 비록 면직을 윤택 받고 전의로 내려가지는 못했다 하나 잠시 휴가를 얻어 수십일동안 전의에 머물면서 부모와 형제를 만나고 오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선생유고』의 「아우에게 주는 시의 머리글」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전의현 읍치 남쪽 금곡(金谷)에서 시묘를 사시니 아우 3인이 쫓아 가서 수업을 받았다.”

여기서 박중림 모친의 산소가 전의현 읍치 남쪽에 있는 금곡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 부친의 산소가 있었다는 전의현 남촌이라는 곳이 바로 금곡의 다른 이름인 모양이다. 금곡은 전의읍지인 『전성지』에 남면 하송동·중송동·상송동으로 표기한 현재 전동면 송성리 일대일 터인데 금성산 혹은 철성산으로 표기된 쇠성골로부터 연유한 지명일 것이다. 전의 읍치에서 20리 내지 22리 떨어진 곳이라 하였다.

어떻든 박중림은 이곳 전의에서 나고 자라나서 세종 5년(1432) 계묘 식년시에 을과 3인 중 2등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인수부등으로 즉일 발령받는 영광을 누리며 벼슬길에 나아가는데 이때 나이가 24세 정도였을 듯하다.[『조선왕조총의열전』(최완수)]

(2) 조사석(趙師錫)과 독송정(獨松亭)

송성리 상소골 마을회관 우측에는 숙종 때 좌의정을 지낸 조사석(趙師錫, 1632~1693)이 만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선산이 있는 상소동에서 거처하면서 정자를 짓고 지내던 곳이 전해진다. 독송정의 모습은 조선중기의 고지도에서 확인이 되는데 대략적인 위치는 오봉산 북쪽의 기슭에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소골 마을 야산에는 조사석의 아버지인 조계원(趙啓遠, 1592~1670)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전반에 편찬된 『충청남도읍지』에는

“在縣南二十里上松洞溪上故趙師錫晚年退去先壠因構一亭以爲逍遙之○上有一松故名令有遺址”
 (현의 남쪽 20리 상송동 냇가의 위쪽에 있었다. 옛 조사석이 만년에 되거하여 그 선영을 따라 언덕에 하나의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소요(逍遙) 하였다. 위에 한그루의 소나무가 있어 이름(독송정)을 지었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사석은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공거(公舉), 호는 만회(晩悔) 또는 만휴(晩休)·향산(香山)·나계(蘿溪)이다. 아버지는 형조판서 조계원(趙啓遠)이고, 어머니는 영의정 신흘(申訢)의 딸이다. 1660년(현종 1) 진사가 되고, 1662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의 관직과 주서 등을 거쳤다. 1666년 사관(史官)인 검열이 되고, 이어 봉교·검설서로 승진하였다. 사관으로 있을 때인 1667년 왕이 지난해에 정태화(鄭太和)·홍명하(洪命夏)·허적(許積)을 탄핵한 이숙(李勳)·박증휘(朴增輝) 등 7명의 간관을 유배보내면서 사관들에게 이를 사초(史草)에 기록하지 말도록 명하였으나, 왕의 거동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이라며 거절하고 이를 사초에 기록하였다. 이 일로 왕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당하였으나, 파직의 왕명이 곧 철회됨으로써 복직되었다. 그 뒤 여러 벼슬을 거쳐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진하였고 1675년(숙종 1)에 수원부사를 거쳐 이후 황해도·강원도·충청도·경기도 관찰사·강화유수 등의 외직과 이조참판, 예조판서, 좌참찬, 이조판서 등의 고위직을 두루 역임하며 1687년 우의정, 1688년 좌의정이 되었다. 이때에 인조의 손자인 동평군 향(東平君尙)의 횡포를 논하다가 처벌된 박세채(朴世采)·남구만(南九萬) 등을 변호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자 병을 핑계로 사직하였다. 다음해부터 다시 벼슬 자리에 나아갔지만 1691년 왕세자책봉하례에 참석하지 않은 죄로 고성(固城)에 유배되어 배소에서 죽었다. 죽은 뒤인 1694년 갑술환국으로 복관되었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송정리 상소골 마을은 조사석의 후손들이 400여년간 세거해 오고 있다. 마을 뒷산 야산에는 충정공 조계원의 신도비와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양주조씨가 송정리에 터를 잡게 된 것은 조사석의 아버지인 조계원대로 알려져 있다. 조계원은 1616년(광해군 8) 진사시에 합격하고,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심양에서 소현세자를 시종하였고, 충청도 관찰사, 예조참의, 동부승지, 강화유수, 도승지, 경상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공주로 파천하는 인조를 호위하여 공주에 머물기도 하였다.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조계원이 1647년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지금의 송정리와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당시 송정리의 자리가 좋아서 그곳을 눈여겨 보았고, 첫째 아들인 조진석이 일찍 죽자 미리 봐 두었던 상소골에 진석의 묘를 썼다고 한다. 이후 조계원이 1670년 졸(卒)하면서 묘를 썼고, 후대 자손들이 터를 잡고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다.

집필 : 홍제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제5절

일제강점기

1. 시대상황

1) 경제적 현황

일제강점기 전동면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현재 남아 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일제강점기였던 1932년 말 당시 일본인들이 조사한 조선인과 일본인 소유의 토지면적과 그 당시의 땅의 가격을 통해 전동면의 경제적인 상황을 살펴보자.

[표 9] 조선인, 일본인 소유 토지면적과 지가(1932년 말 현재)

	조선인 소유				일본인 소유			
	필수(筆數)	면적(面積)		지가(地價)	필수(筆數)	면적(面積)		지가(地價)
		町	反			町	反	
조치원읍	574	116	87	38,292	949	120	64	139,141
동면	5,995	14,035	3	310,664	979	300	8	39,551
서면	8,663	1,730	42	470,983	1,336	343	4	144,795
남면	6,893	1,763	64	644,753	1,570	276	28	12,148
금남면	10,252	1,711	47	11,825	1,471	325	84	미상
전의면	632	1,355	31	560,131	162	32	99	14,545
전동면	미상	1,501	26	571,254	미상	99	74	22,293

* 주 : 1町 = 10反, 1反 = 10a(100m²)

위 [표 9]를 통해 전동면은 필수가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았지만 조선인 소유의 면적은 다른 면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독 조선인 소유의 면적이 넓은 연기군의 동면을 제외한다면 서면과 남면, 금남면 다음으로 전동면은 조선인 소유의 토지가 많았다. 조선인 소유의 면적과 비례하여 일본인 소유의 소유 토지면적도 전의면을 제외하고 넓지만, 비율적으로는 다른 면에 비하며 상당히

적은 토지가 일본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연기군의 다른 면들과 비교하였을 때, 전동면은 다른 면에 비하여 일본인들의 간섭이 적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전동면민들은 연기군의 다른 면민들에 비하여 일본인들에 의한 수탈과 일본인 지주에 의한 간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말할 수 있다.

전동면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광업과 관련된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당시의 신문기사들과 조선총독부의 관보를 통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사들이 광업권 설정과 관련된 것이다. 1929년 3월 22일에 전동면에 소재한 금, 은, 동, 연광(鉛鑛) 백여평에 산전정웅(山田政雄)이라는 일본인이 광업권을 설정하였다는 기사가 처음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통해 1920년대에 백여평이 넘는 큰 규모의 광산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후 1933년 7월 5일 기사를 통해 금은광 943,600평에 서덕순(徐惠淳)의 광업권이 설정되었다는 기사는 1930년대 초반에 전동면에서 백만평의 광업이 행해졌음도 알 수 있는 기사로 눈길을 끈다. 또한 1937년 9월 18일자 매일신보에는 주목할 만한 기사가 실려있다. 연기군 전동면의 청람리에서 남한에서는 최초로, 광산업계에서는 최초로 함유율이 10%인 닛켈 광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견으로 총독부가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전동면은 당시 상당히 넓은 규모로 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남한 최초의 함유율 10%인 닛켈 광산이 발견된 곳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광산자원을 토대로 전동면은 다른 면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연기군의 다른 면과 비교했을 때 온전히 벼농사에만 의존하는 농촌이 아니라 비약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현황 - 전동면영회

당시의 신문 기사를 통해 1917년 5월 2일, 전동면 달전리에 하달리 미감리교회당(下達里美監理敎會堂)이 설립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기사를 통해 전동면에서는 달전리에 제일 먼저 교회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1942년 2월 12일에 발행된 관보를 통해 농, 산촌 지도공적자 표창에 표창된 26명 중 전동면의 서기로 일하던 당시 28세의 진산박(眞山博)씨가 표창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전동면의 사회적인 현황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동면에서 1935년에 이미 번영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전동면사무소를 이전하는 재원에 대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문서를 통해 확인이 된다.(이 문서는 전동면사무소에서 제공하였음을 밝힌다.) 문서는 1935년(소화10년) 9월 4일 '전동면사무소이전비 재원기부금모집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주로 허가신청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를 통해 당시 전동면번영회장은 김진석(金振奭)씨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전동면번영회는 노장리 18번지에 위치해 있었고, 회장 김진석씨의 자택인 노장리 582-1번지에 본 사무소가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회장 김진석씨는 석곡리 260번지에서 1905년 4월 24일에 태어나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인물이었다. 또한 이 문서의 끝부분에는 전동면번영회의 규약이 기록되어 있어 번영회가 일시적으로 조직된 조직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데, 전동면번영회의 규약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회는 전동번영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의 친목과 당지(當地)의 번영을 도모함으로써 목적한다.

제3조 본회는 지방유지 회원으로 조직한다.

제4조 본회의 사무소는 노장리 산미개량조합사무소내에 위치한다.

제5조 본회役員(役員)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회장
2. 부회장
3. 평의원 약 20명
4. 간사 2인
5. 회계 1인

단, 역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총회시에 이를 호선(互選)한다.

제6조 본회는 월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에 대한 제반사항을 평의처리한다.

제7조 본회는 회원명부와 금전출납부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한다.

제8조 본회의 사무업은 역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로 인정한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한다.

또한 이 문서는 단순하게 번영회가 존재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도 면사무소가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면사무소를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부금으로 모집하여 충당하겠다는 허가신청을 번영회 회장이 직접 면을 상대로 했고, 면에서는 이를 허가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원래 전동면사무소는 1915년에 건축되었다가 1921년에 화재가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신축하였다. 그러나 당시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던 노장리가 전동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 및 경제적 발전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불편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수년동안 이전에 따른 신축문제가 불거져 왔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건축비를 기부받아 이전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은 전동번영회의 회원 중에서 면사무소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조금씩 기부하여, 3개월여 동안 모집하여 그해 12월 말까지 이전비용을 모두 충당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문서를 통해 전동면사무소이전축진운동결의서도 확인되는데, 아래와 같다.

[전동면사무소이전 축진운동 결의서]

제1조 전동번영회원은 전동면사무소이전에 필요한 노력의 무상급부(無償給付)를 하기 위해 축진한다.

제2조 앞에서 기술한 노력급부는 회원 각자의 자각으로 최고로 타당한 방법을 청구결의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3조 본회는 제1조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의한다.

1. 회원면사무소이전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 각자의 신분상 응당한 금액을 임의로 차출한다.
2. 전항의 차출금은 소화 10년 11월 말일까지 본회의 회계계에 납부한다.

이상을 결의한다.

소화 10년 9월 4일

이러한 결의서 뒤로는 면사무소이전 촉진운동에 참여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1935년 번영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김진석(金振奭)씨를 비롯하여 부회장은 권처상(權處祥), 간사는 권오형(權五亨), 평의원은 김정석(金正錫), 이용석(李用奭), 이종화(李鍾和), 김구희(金鑿熙), 신하범(愼夏範), 남성희(南成熙), 권처중(權處重)이 맡았다. 회원으로는 구자선(具滋善), 안병철(安炳哲), 권처형(權處衡), 방상운(方相云), 윤성집(尹聖集), 권오렴(權五濂), 구자민(具滋民), 김청미(金淸微), 권처인(權處仁), 이헌민(李憲敏), 박영석(朴永錫), 김교익(金教翼), 남경희(南敬熙), 김인식(金仁式), 김영근(金永根), 오학준(吳學俊), 김영득(金英得)이 있었다. 또한 이전비 기부금명단과 사업계획도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연기군전동면사무소 이전비 기부금모집 및 사업계획]

1. 모집금액의 종류 수량 및 보관방법

- 모집금액의 종류 : 현금
- 수량 : 일금 3천엔
- 보관방법 : 모집된 기부금은 돈이 모이면 아무리 적더라도 바로 면회계원에게 인도하여 전의금 융조함에 저금한다.

2. 모집기간

- 소화10년 9월 20일부터 소화10년 12월 말일까지

3. 사업

1) 면사무소이전에 필요한 비용

- 금 오천엔
- 내역 : 면사무소부지대금 322엔, 664평(매평 50전), 면사무소건축비 4668엔 단, 현재의 면사무소 및 창고 32평은 소화 11년도의 면경비예산에 그 비용을 계상하여 신사무소의 창고 등의 건축에 이용한다. 현사무소의 부지 170평은 매각의 이유로 소화 11년도의 구사무소 고재목 운반 및 창고건축비용에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미계획으로 계산하였다.

2) 면사무소이전경비의 수입방법

- 금 2천엔 : 면의 개축적립금 및 기타 일반경비로 계획해 놓은 액수
- 금 3천엔 : 전동번영회에서 모집한 기부금액

위와 같은 경비로 소화 11년 5월 말일까지 이전한다.

[연기군전동면사무소이전비 기부금 수입지출예산]

- 수입 : 일금 3천엔(기부금모집액)
- 지출 : 일금 3천엔(전동면사무소이전비 재원보충)

이 문서외에도 확인되는 이 당시의 신문기사들을 통해서 1930년대 전동면의 가장 큰 화두는 전동면사무소의 이전과 공립보통학교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와 회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동면사무소가 1936년 7월 19일에 노장리(蘆長里)로 이전한다는 기사와 조선총독부 충청남도고시 제 19호에 의하여 전동면사무소는 원래 청송리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 후 미곡리로 면사무소를 이전하였던 것을 1936년에 노장리로 다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전동면민들이 면사무소를 노장리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면사무소를 옮기게 된 배경으로는 미곡리에 위치한 전동면사무소가 너무 협소하여 집무를 하는데 불편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오래 전부터 신축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전 장소는 경부선 전동역전인 노장리로 이전하기로 군면간에 타협이 내정되었었다. 그리고 7월 16일에 동면사무소에서 면민대회를 열고 이전문제를 제의하

였으나, 전동면의 전체 16개의 리중에 10개리가 이전반대를 표명하면서 결국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회의가 결렬되었다. 10개 리의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당시 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었던 미곡리는 전의역과도 멀지 않을 뿐 아니라 미곡리가 전동면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동안은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또한 전동면의 상권을 비롯한 각종 시설이 전의면에 있었기 때문에 면사무소가 노장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전동면을 통털어 3분의 1에 미치지도 못하는 6개리는 면사무소가 가깝지만, 나머지 10개리는 거리가 멀어져 불편이 크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 충청남도고시 제69호에 의하여 1937년 5월 31일에 노장리 583번지로 전동면사무소가 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년이 못되는 기간동안 어떠한 과정과 협의를 통해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갑오개혁 이후의 행정조직 개편

조선시대의 행정기구는 1894년의 갑오개혁을 통해 근대적으로 개편되었고, 지방제도의 개혁도 갑오개혁 최후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내무아문은 이 지방제도 개혁안을 작성하기 위해 각 도의 행정실무자로부터 도의 연혁과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하였고, 1895년 5월 26일에 도제의 폐지, 지방제도의 개혁 및 지방제도가 공포되어 다음달인 윤 5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8도의 감영, 안무영 및 유수부를 폐지하는 동시에 각 도의 관찰사, 안무사 및 각부의 유수 이하 지방관도 모두 폐하였다. 이 지방제도의 개혁은 소지역주의(小地域主義)를 채택하여 전국을 23부로 개편하고 종래의 부, 목, 군, 현 등 대소의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군으로 획일화시켰다. 그리하여 전국에 336개 군을 설치하고 신설된 23개 부에 분속시켰다.

충청도는 공주부, 홍주부, 충주부로 나누어 치소는 공주, 홍주, 충주에 두었다. 공주부는 27개 군을 관할하였는데, 연기군과 전의군은 이에 소속되었다. 당시 연기군을 구성하고 있던 면은 연기군 소재지인 읍내면과 동일면, 동이면, 북일면, 북이면, 북삼면, 남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치소는 연남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이와 같은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은 불합리한 점이 많아 다음 해인 1896년 8월 4일에 부제를 개정하여 수도인 한성부를 제외하고 전국을 13도, 1목, 9부, 329군으로 하여 각 부군은 5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인원, 봉급, 경비를 달리하였다. 이때 개정된 13도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었는데, 연기군과 전의군은 4등급의 군이었다.

2. 항일독립운동

1)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했던 충청남도 지역은 회덕, 진잠, 공주, 은진, 한산, 비인, 연산, 서천, 서산, 홍성, 예산, 당진, 면천, 보령, 전의, 연기, 정산 등이었다. 1894년 3월 하순에 동학군이 전라도 일대를 휩쓸자 최시형의 문하들은 교주 최시형을 움직이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4월

2일 최시형의 이름으로 각 접주에게 통문을 띄웠고, 호남과 호서의 동학군들은 논산으로 집결하였다. 원래 이들의 계획은 일본인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공주로 복진할 계획이었으나, 일본군은 조선 정부군을 앞세워 남하하였다. 결국 이들은 천안에서 집결하였는데, 부대가 통과하는 지역의 수령이나 읍민은 여러 가지 군수물자를 강제로 헌납해야만 했다. 연기군이 속해있던 북접의 동학농민군은 거의 청주, 공주 사이의 인근 동학농민군이 참여하여 이곳에 이르는 관아의 피해가 컸다.

당시 전의에 인접한 지역인 연기 고을에서는 수령이 관아를 비우면서 병기가 동학군들의 손에 넘어갔다. 이때 청주 이북의 관군이 출동하여 이를 진압하려 하였다. 창위영 영관 죽산주사 이두환은 이들 북접의 동학농민군을 추적하여 10월 17일 회인현으로 행군하여 이어 부강에 이르러 주둔한 다음 18일에는 연기현으로 진출하여 연기 봉암동에 진을 쳤다. 이때 관군이 파악한 북접의 동학농민군은 이곳에서 40여리 떨어진 유성에서 논산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한편 논산에 집결된 동학농민군의 주력부대는 11월 초순에 이르러 요충지인 공주를 향해 북상하였다. 그리하여 동학농민군은 관군 및 일본군의 주력부대와 공주의 관문인 우금티와 그 근처에서 마주쳐서 피비린내 나는 격전을 6~7일간에 걸쳐 거듭 벌인 끝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연기현이 속했던 북접동학농민군은 활동상이 구체적으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당시 일본군에 입수된 충청남도 각 지방의 동학군 두령들 명단을 통해 연기에서는 최명규(崔鳴奎)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더더욱 가까운 전동면의 동학농민운동을 그려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나, 뚜렷한 활동상을 그려낼 수는 없었다.

2) 3·1독립만세운동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전동면이 속해 있는 연기군의 항일운동의 흐름은 3·1독립만세운동을 기점으로 변한다. 3·1독립만세운동 이전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활동이 3·1독립만세운동을 통해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연기군의 항일운동의 흐름은 전동면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기군의 3·1독립만세운동은 3월 15일 전의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산위에서 봉화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3월 23일에는 조치원을 중심으로 이웃하고 있던 충북 청원군 등지에서 호응하여 만세를 부르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다음날인 3월 24일에는 남면 연기리에서도 밤에 횃불을 들고 만세를 불렀고, 3월 30일에는 조치원장날을 이용하여 연기군의 3·1독립만세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연기군의 3·1독립만세운동에서 전동면은 전의역과 가까웠던 지리적인 이유로 3월 15일 연기군의 3·1독립만세운동과 시작점이 같았다. 전동면 주민들은 3월 15일 인근 연기군의 주민들과 함께 수백 명의 군중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3·1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 이뿐 아니라 전동면 곳곳에서 봉화시위도 진행되었다. 연기군의 봉화시위는 3월 23일 밤에 연기군의 북면(北面)(현재 조치원읍)·서면(西面)·남면(南面)의 3개 면, 10여개 리 주민들과 이들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충북 청주군 강내·강외·옥산면 등의 주민들이 호응하여 수천 명이 대대

적으로 햇불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동면민들의 햇불시위운동은 3월 29일 청송리에서 시작되었다. 전동면의 청송리(靑松里)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약 20명이 마을 뒤편에 위치한 내동산(內洞山, 청송리 주민들은 독립산이라고 이야기함) 위에 올라가 햇불을 올리고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다. 햇불시위운동은 권혁기(權赫基)에 의하여 주동된 운동으로 그는 결국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또한 전동면의 햇불시위운동이 계기가 되어 다음날인 30일에 조치원읍에서도 햇불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석곡리 주민들은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던 날 석곡리의 뒤편에 위치한 국사봉에서 햇불을 올리고 만세를 고창했던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석곡리의 국사봉, 미곡리의 운주산, 송성리의 까치산을 연결하면 삼각형의 모양이 된다고 한다. 특히나 국사봉에는 봉화대가 있기 때문에, 국사봉을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다른 지점들에게 햇불로 독립만세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당시의 자료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을조사과정에서 봉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4월 1일에 벌어진 천안의 아우내삼일만세운동에 봉대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이야기한다. 봉대리는 전동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산촌 오지 마을이었지만, 천안 병천(아우내)으로 넘어가는 고개입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 봉대리 주민들은 성남면 병천까지 10리길을 걸어 공부를 하러다니기도 했을 정도였다. 당시 봉대리 주민들이 아우내삼일만세운동에 주도세력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천안의 수신면과 성남면민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봉대리 주민들은 만세운동이 끝나고 일본 순경이 출동하여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사격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천안에서부터 일본 순경이 마을로 들어와 수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마을 주민 중 어느 누구도 붙잡혀가지는 않았다.

전동면의 햇불시위운동을 주동한 권혁기(權赫基, 이명 權明瑞)라는 인물은 1889년 5월 7일에 전동면 청송리에서 태어나, 1933년 2월 1일에 생을 마감한 전동면 출신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동네 주민인 청송리 주민들을 선동하여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6개월을 복역했고,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3) 독립운동가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한 권혁기 이외에 전동면 출신 독립운동가로 황갑수라는 인물이 있다. 황갑수(黃甲秀, 이명 黃仁德)는 1921년 6월 30일에 전동면 성리(城里) 613번지에서 출생한 인물로, 1990년에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황갑수는 1945년 2월에 광복군 제1지대에 입대하여 광복군 제1지대 제3분대 제3분대장을 맡아서 중국의 호남성(湖南省)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황갑수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독립운동사』 6권에 기록되어 있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44년 말을 전후하여 각 전선에는 백여 명의 애국 청년들이 일본군을 탈출하여 왔다. 현지 중국군 지휘관은 재량에 따라 일이 없는 사병들을 역이용하여 나름의 적을 상대하는 임무를 수행시켰는데, 이들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인술로 인하여 여러 적의 부대를 섬멸하면서 많은 포로를 포획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병곤(李炳坤)은 설악사령장관에게 이들을 후방 지역에 집결시켜

교육을 실시하게 할 것과, 제9전구를 단위로 한 광복군 편성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를 설악사령장관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탈출한 백여 명의 인원과 앞으로 탈출할 장병 전원을 장관 사령부 소재지인 계동(桂東)과 전방 지휘소 소재지인 강서성(江西省) 의춘(宜春)에 각각 집결시키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광복군 편성에 따르는 절차에 대하여 군사위원회에 주선해 줄 것을 승락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설악사령장관 지시가 각 부대에 시달된 직후, 1945년 1월을 전후하여 제2진으로 여성(汝城) 지구 유격대에서 활약하던 학도병 출신인 황갑수(黃甲秀)[황인덕(黃仁德)]를 비롯하여 총 제3진까지 새로이 40여 명의 한국 청년이 집결되었다. 이들은 광복군으로 편성될 때까지 비호대(飛虎隊)라는 부대명으로 대장 이봉훈, 부대장 진병길을 주축(主軸)으로 하여 동지 결속 및 우군에 대한 작전 지원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현지 중국 각 부대에서 활동하던 인원의 후방 집결은 대체적으로 완료되었다. 그리고 각종 지침에 따라 1945년 2월 15일을 기하여 '제3구대'가 창설되었다. 여기서 황갑수는 제3분대 2대 분대장으로 명령받았다.

이렇게 광복군에 편성된 황갑수는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정규 교육 훈련을 받았다. 그런데 교육 도중, 각 전선으로부터 광복군 공작 요원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여 부득이 일면 교육, 일면 공작으로의 방침으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구대장 이병곤(李炳坤)은 계동(桂東)에서, 먼저 편성된 제1분대 대원 중에서 전재덕(全在德), 강익진(康翊鎭), 황갑수(黃甲秀)를 각각 조장(組長)으로 한 3개 공작조를 편성하는 것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공작에 임하였다. 한편 구대 본부에서는 교육반을 편성하여, 후방 잔류 대원 및 새로 입대하는 인원에게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음 단계의 목표로 결정적인 시기에 무장 부대로 강화하여 참전할 계획을 세웠다. 미 군사 지원단에 근무하면서 단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정운성을 통하여 미군의 신에 무기 획득을 위한 교섭을 진행, 거의 성공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무렵에 아쉽게도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듯 제9전구지역에 있어서의 황갑수가 속해 있던 광복군의 활동은 우군의 제일선 싸움터에서 1백 70여 대원이 집결되어 전방 또는 후방 공작에 참여함으로써 우군 작전에 많은 공헌을 세웠다.

3. 전동면출신 유명인사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를 제외하고, 전동면에서 출생하여 공적을 남긴 인물로 권오영과 박동길이 있다.

권오영(權五泳)은 노장리에서 출생한 인물이다. 그는 1912년 7월 4일에 전의군 동면장을 역임하였고, 1914년 4월 1일에 연기군 전동면장을 역임했으며, 10월 29일에는 본인의 바람에 따라 면장을 면하고 연기군 북면장을 맡았다. 그리고 1917년 10월 1일에는 본인의 바람에 따라 연기군 전동면장을 맡았다. 또한 1932년 6월 30일에는 태임관 대우를 받았고, 1933년 11월 15일에는 서(絃)종 7위(從7位)를 맡았다. 이러한 업적들 때문에 권오영은 조선총독부시정 25주년 기념표창자로 선정되기에 이른다. 일제강점기라는 기간동안 전동면의 면장을 1914년과 1917년부터 맡으면서 전동면출신 유명인사가 되었다.

박동길(朴東吉, 1897~1983)은 신대리 출신인물로, 1897년에 박용순(朴容淳)의 아들로 태어났

다. 그는 지질학자이며, 과학교육자로 전동면출신 유명인사이다. 국민학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고학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 도호쿠제국대학(東北帝國大學) 이학부 지질광물학과를 1930년에 졸업하였다. 귀국 후 경성고등공업학교와 경성광산전문학교에서 15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슬픈화유지제조법의 발명(일본특허 제70930호), 함경북도지역에서의 안테신 발견, 알칼리 혼블렌드의 발견, 극동지역 최초의 금강석 원석 발견, 화학적 방법에 의한 고광물의 감정과 유통성분의 검출법, 강원도지역에서의 하석광상(霞石鑛床)의 발견, 황해도지역에서의 알칼리장석광상의 발견, 각종 코발트광 감정법의 발명(일본특허 제169534호)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광복 후 미군정청 상무부 지질광산연구소장을 거쳐 건국 후 국립지질광물연구소장, 초대원자력위원을 지냈으며, 1958년 이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를 거쳐 인하공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그동안 형석광의 선광방법의 발명(특허 제36호), 『강원도 양양 철산광상 성인(成因)에 대한 연구』, 아연광의 처리방법의 발명(특허 제1254호), 아연광의 제련방법의 발명(특허 제1437호) 등의 연구업적이 있다. 50년에 걸친 강단생활을 통하여 많은 지질학도들을 길러내는 한편, 연구활동에 전념하였고 대한지질학회를 창립한 우리나라 지질학계의 태두라고 칭송되었다. 청조소성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당과학상, 5·16민족문화상 등을 받았으며, 학술원 부원장을 역임하였다. 지질학회는 그의 이름을 기려 운암지질학상제도를 마련, 매년 지질학계에 공헌이 큰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있다. 그의 주요저서로는 『한국의 광물자원』(1953), 『방사성광물의 탐광』(1961) 등이 있다.

4. 교육문화운동

전동면의 일제강점기 교육문화운동으로는 1934년과 1935년의 공립보통학교의 설립과 간이보통학교의 설치를 들 수 있다. 1934년 9월 28일 동아일보기사에 의하면, 전동공보교설립기성회가 9월 25일에 전동면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소전(小田)군수가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각리의 구장과 유지들이 다수 참석하여 회장선거와 위원임명을 한 후 제반사항들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공립보통학교의 위치는 전동역전인 노장리로 정하고, 면민들이 부담할 금액은 3천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또한 개교는 1935년 4월로 결정이 된 이후에 기성회가 해산되었다. 기성회의 회장은 권오영(權五泳), 부회장은 권영기(權榮基), 위원은 박영래(朴榮來), 장효천(張孝天), 김영국(金榮國), 이한섭(李漢燮), 정○○(鄭○○), 김재원(金在元), 임○하(林○河), 안병철(安炳哲), 권○상(權○祥), ○하범(○夏範), 권○동(權○童), 권오형(權五亨), 남성희(南成熙), 송재순(宋在淳), ○○성(○○成), 김교만(金教晩), 김교○(金教○), 이○(李○), 김진석(金振奭), 이용필(李用弼)이 맡았다.

또한 이듬해인 1935년에 전동면의 달전리에 간이보통학교설치를 구상하는 기성회가 조직되었다는 신문기사가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전동면에 속해있던 달전리는 현재는 전의면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1935년 3월 7일자 동아일보를 통해 살펴보면, 전동면의 달전리를 비롯한 다섯 개의 촌락이 통학거리가 멀어서 학교설치가 이들 촌락의 숙원사업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염원이 모여 3월 2일에 6개 촌락의 인사들이 달전리에 모여 간이보통학교설치기성회를 조직한 것이었다. 기본금은 6개 촌락에서 약 천원가량을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학교위치는 군당국에 위임결정시켰다. 또한 이 간이보통학교는 4월에 개학할 수 있도록 맹렬하게 운동중이었으며 기성회의 회장은 전동면장

권오영(權五泳)씨를 비롯한 27명이었다.

이처럼 1934년과 1935년 두차례 전동면의 유지와 각리의 구장들이 모여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던 움직임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보덕1리 중뚝 부근에 남아 있는 ‘서당 골’이라는 지명을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조사한 결과 이곳에는 예전부터 서당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서당에서 서생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보덕1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을이 커지기 시작했다. 당시 주민들은 이 서당을 ‘김서방네 서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한 노장1리는 면소재지로 전동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서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전동면민들이 기차를 타고 조치원으로 나가 장을 보는 등, 전동면민들의 생활권이 조치원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기차로 통학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전동초등학교를 졸업한 주민들은 조치원이나 대전의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5. 수탈의 기억

1) 징용과 징병

일제강점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였지만, 현재 1번 국도, 군도1호와 철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전동면의 면민들은 모두가 동원되어 국도와 철도를 놓는 일에 힘을 쏟았다. 특히 청송2리 주민들을 비롯하여 심중리 주민들은 당시 흙을 파서 지게에 지고 공사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심중2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일제강점기는 이유없는 착취로 기억되고 있다. 그들의 기억속에 일본인 관리는 부유한 사람에게는 너그럽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혹독했던 악랄한 존재였다. 당시 마을의 구장을 맡았던 사람들은 일본인 관리인 면장보다 힘이 더 세다고 할 만큼 주민들 위에 군림하였다. 따라서 마을 주민중 누구든 구장에게 밍보이는 일이 생기면 고초를 겪는 일이 다반사였다. 심중2리 주민 중 권모씨의 부친 권○씨는 대쪽같은 성품으로 유명했던 인물로 동네에서 못된 짓을 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불러서 때려가며 호통을 칠 정도였다. 어느날 그가 마을에서 설쳐대는 구장에게 쓴 소리를 하였다가 징용자 명단에 오르게 되어 보급대로 일본에 끌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일본의 탄광에서 죽을 고생을 하던 끝에 광복 후 마을로 귀국하였는데, 히로시마 원폭의 피해를 입어 귀국 후에도 평생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임종하였다고 한다.

보덕1리 주민 중 20여명이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는 일도 일어났다. 광복을 맞이하여 20명 전원이 모두 마을로 돌아왔고, 현재 20명 중 9명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당시 이장이나 반장을 맡고 있으면 징용당할 일은 없었기 때문에, 힘없고 가난한 주민들만 일제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장이나 반장을 맡고 있었던 주민들을 대신하여 힘없는 주민이 대신 끌려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게 끌려가서 고생했다고 말하는 주민들의 사연은 기막힌다. 한 주민은 16세에 보국대로 징용을 갔는데 광복이 되어서 몇날

몇일을 걸어서 결국 마을로 들어왔으나, 당시 일한 품삯은 지급할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징용에 끌려 가는 것이 죽기보다 무서워서 안간다고 버티다가 결국 형무소에 끌려가 감옥생활을 하고 광복이 되어야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는 주민도 있다. 또한 탱크탄알을 만드는 곳에서 밥냇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는 주민도 있었다.

심중리 주민들은 징용과 징병, 보급대의 명목으로 무수히 끌려갔다. 실제로 당시에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아직까지도 연락이 끊긴 주민이 있다. 또한, 노장1리 주민 중 보급대에 끌려갔다가 가족들이 사정하며 조서를 꾸며 겨우 빼내오기도 했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기고서야 광복이 되어 살아서 돌아온 경우도 많다. 봉대리 마을 주민들은 남녀 구분없이 징용·징병·보국대 등의 명목으로 억지로 끌려가 전쟁터로 거거나 강제 노동을 당하기도 했다. 주민들 중에는 보국대에 끌려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다. 봉대리는 당시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서로 숨겨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들이 많았던 마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지속적인 탄압을 피해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제는 금광산을 찾기 위해 전동면민들을 괴롭히는 일도 자행했다. 당시 일본인들은 한반도에서 금맥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충청남도 일대가 금줄기가 지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에, 아직도 일본인들이 금광산을 찾기 위해 산을 파헤쳤던 흔적이 남아 있을 정도이다. 운주산 일대도 금맥에 대한 소문이 있었던 장소였지만 금광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전해진다. 다만 사금을 캐던 소규모 금공장이 많아서 겨울철 농한기에는 마을 주민들이 사금을 구하는 일에 동원되어 품삯을 받고 일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심중1리 서당골 위에는 금점이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금점은 일본인 광산업자들이 금맥을 따라 땅을 파고 금을 캐내는 시설이었다. 따라서 심중1리 주민들은 암석에 박혀있는 금을 찾아 뿔아 물에 일어 금가루를 모으는 작업을 했다. 결국 일제강점기 말에 한국인들이 이 사업을 이어 받았지만 큰 성과없이 폐점되었는데, 현재도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2) 공출

전동면의 공출도 당시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도 끔찍했던 일로 기억되어 있다. 심중리 주민들은 일제강점기는 극악한 공출에 시달렸던 기억만이 가득하다. 당시 일제는 곡식을 추수하기 무섭게 빼앗아 갔고, 마을 공출이 가장 심했던 곳은 면소재지에 위치한 노장1리였다. 노장1리의 징용·징병, 공출 등 인적, 물적 자원의 유출은 심각했다. 다른 동네에서는 관리와 구장의 눈을 피해 숨어서 넘어가는 일도 있었지만 노장1리는 통할 일이 없었다.

봉대리 주민들에게 일제강점기는 참혹했다. 일제의 끈질기고 폭압적인 공출 때문에 식량과 생활용품까지 강제로 빼앗겼다. 심중2리 주민들에게도 일제의 잔혹한 공출은 고개를 돌릴만큼 괴로운 기억이다. 그 시절에는 피할 방법이 없어 늘 고스란히 빼앗기고 굶주리는게 다반사였다고 이야기한다. 공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집마다 순사들이 찾아와 마구잡이로 집안을 뒤졌고, 숨긴 것을 찾아 대꼬챙이로 찔러가며 벼와 쌀을 거둬갔다. 특히나 일제가 가장 중심으로 조사했던 것은 술과 나무조사였다고 한다. 술조사와 관련하여 보덕2리에서는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진다. 보덕2리는 아직도 주민들에 의하여 윗지프내마을로 불리고 있는데, 아래지프내에 해당하는 곳은 조천

을 경계하고 있는 심중2리이다. 당시의 행정구역은 두마을의 사이를 흐르고 있던 조천을 경계로 충남과 충북으로 나뉘었다. 즉, 조천의 윗부분에 해당했던 보덕2리는 충청남도에 속했고, 조천의 아랫부분에 해당했던 심중2리는 충청북도에 속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는 엄격하게 개인이 술을 만드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를 가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일년에 몇 차례 주기적으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시골마을에서는 단속을 피해 개인들이 암암리에 술을 만들어 팔기도 했고, 개별적으로도 마시기 위한 용도로 주조활동을 했다. 그러나 그 무섭다는 일본 경찰들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보덕2리와 심중2리에는 있었다. 당시의 단속 여건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즉, 충남지역을 단속하는 날은 다른 지역을 단속하지 않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 점을 이용하여 윗지프내인 보덕2리에 단속반이 나타나면 보덕2리 주민들은 조천을 건너 심중2리에 술을 숨겨두었다. 물론 아래지프내인 심중2리에 단속반이 나타나면 심중2리 주민들은 조천을 건너 보덕2리에 술을 숨겨 두는 것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송정2리 주민들에게 지금껏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일제강점기였다고 한다. 한해동안 힘들여 농사지은 것은 모두 일제가 공출을 해 가서 먹고 살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배급으로 받은 썩은 콩깨묵으로 간신히 죽을 썰먹고, 밥 해 먹으며 입에 풀칠만 할 정도였다. 동네 주민들은 가을철 추수가 끝나면 농사지은 짚으로 가마니를 짜서 생계를 유지했다. 마을 사람들은 흔히 ‘가마니 치기’라고 불렀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2명씩 짝을 지어 한쪽은 새끼줄을 꼬아서 바늘대질하고, 한쪽은 바디질을 해서 가마니를 만들었다. 많이 만들수록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철 마을에는 아침저녁 상관없이 가마니치기로 눈코 뜰새없이 바빴다. 당시 호롱불을 밝힐 기름조차도 배급을 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떨어지면 집에 있는 들기름으로 심지를 맡아서 간신히 불을 비추어 밤새 가마니를 짰는데 들기름은 그을음이 심해 아침에는 콧등 주변이 새카맣게 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짠 가마니는 돈으로 바꾸어 식량을 사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가마니는 1등급은 최상위 제품, 2등급, 3등급 순으로 나뉘었는데, 3등급은 제일 낮은 등급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껏 만들어도 헛수고였던 작업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만든 가마니는 현재 조치원보건소가 있는 자리로 가져가 돈으로 바꿨는데, 큰 창고가 있어서 모든 농산물, 농산품이 모이는 곳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일제는 잔인할 정도로 더 많은 광물과 농산물을 착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황당한 일은 조천천의 물길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조천천이 심중리 갈거리를 지나면서 방향을 틀어 말발굽 모양으로 아래지프내를 휘감아 도는데, 이 물길을 일직선으로 통과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물이 흐르던 자리를 농경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공사 비용에 비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적다는 이유로 이 계획은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제6절

현대시기

1. 한국전쟁

1) 전동면의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침을 하게 되면서 벌어진 한국전쟁은 연기군을 비롯하여 전동면에도 큰 희생을 가져왔다. 북한군은 일요일을 틈타 남한으로 침략하였고, 한국과 미군 양군은 이에 대한 반격작전을 감행하였으나 역부족상태로 계속적으로 남쪽으로 후퇴하였다. 한국전쟁 기간동안 연기군에서 일어난 전투는 연기군에서 2008년에 발간한 『연기군지』와 개미고개에 위치한 기념비와 당시 개미고개전투에 참여한 채명신 장군의 증언내용과는 차이점이 있다.

먼저 『연기군지』에서는 연기군에서 벌어진 전투는 1950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열흘 간 전투가 벌어졌다고 설명한다.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는 미군 제24사단의 딘 소장이 이끄는 제21연대 1대대와 3대대, 제24연대의 1대대와 3대대가 방어에 나섰다. 반면 상대편은 제3사단 이영호 소장이 이끄는 제7연대, 8연대, 제9연대, 포병연대로 1950년 7월 8일 오후 늦게 삼룡리에서 제1대대가 전의면으로 철수하였다. 이곳은 딘소장이 스티븐스 대령에게 잔여부대의 지휘를 명령 받은 제21연대장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곳으로 군도1호에 걸친 지연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7월 9일 11대의 전차와 300여 명의 북한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로 북한군의 전차 5대가 불에 탔고, 북한군의 차량 12대가 파괴되었다. 이튿날인 10일에도 다시 전투가 벌어졌다. 북한군은 정면 돌파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측면돌파를 통해 미군을 괴롭혔으며, 미군은 이 전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미곡리로 후퇴하였다. 그리고 7월 11일 개미고개 전투에서는 전동면에서 일어났던 전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전쟁 참전 전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채명신씨의 증언과 개미고개에 건립된 『자유평화의 빛 위령비』를 통해 확인되는 개미고개전투의 내용은 조금 다르다. 개미고개전투는 1950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 6일동안 벌어진 전투라고 정의되어 있다. 개미고개전투의 상세한 내용을 밝히는데 큰 공헌을 한 채명신씨는 당시 개미고개전투에 직접 참여한 장군으로 개미고개전투와



〈사진 3〉 개미고개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증언하였다. 채명신씨의 증언을 토대로 현재 연기군의회 의원을 맡고 있는 황순덕씨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살펴본 개미고개전투의 전말은 아래와 같다.

“병사들아! 진지로 되돌아 가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급료를 받지 않느냐.”

이 글귀는 당시 한국전쟁에서 패하여 물러나는 미군 병사들을 독려하는 니세이와 오키다 하사의 울부짖음이었다고 한다.

“본인은 괴뢰군 및 괴뢰병사의 훈련과 장비상황이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확신함”

이 글귀는 1950년 7월 8일 당시 단소장이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낸 통신문이었다. 위의 두 글귀를 통해 당시의 개미고개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즉, 개미고개는 미군의 마지노선이었던 것이었다. 실제로 개미고개는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과 전동면 사이에 있는 고개로, 군도1호와 경부선 철도 터널이 나란히 지나는 곳이다.

당시 북한군은 안성, 천안에 이어 국도를 따라 대전 함락을 위해 진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특히 천안 함락은 북한군에게는 한국의 서부 및 남부 대부분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소장은 한강 이남의 첫번째 강이었던 금강에 방어선을 펼 수밖에 없었다. 금강은 전략상 중요한 대전을 에워싸고 있는 천연의 방위선이었다. 만일 대전이 무너진다면 대구와 부산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미고개가 포함된 전동지역의 전투는 금강을 지키기 위한 전투로서 중요했다. 따라서 단소장은 미군의 지원대를 연이어 금강변에 집결시키면서 전의와 전동, 조치원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긴급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 7월 8일 단소장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금강 방어선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모든 부대에 전달하면서 전투를 시작했다. 단소장은 제34연대를 공주에서 금강에 이르는 도로에 배치하였고, 제21연대에는 조치원 전방 봉쇄를 맡겼다. 또한 11 야전포대대의 155mm 곡사포대도 조치원으로 이동시켰고, 제78중전차대대, 제24수색전차중대를 대신하는 4대의 전차소대 및 제3공병전투 대대도 제21연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히 제3전투 공병대대는 공주 북강에서 제34연대의 철수로를 따라 도로 봉쇄와 금강에 가설된 모든 교량의 폭파 임무도 부여받았다.

또한 단장군은 스티븐슨 대령에게 “제21연대는 반드시 조치원을 확보해야 한다. 청주 동쪽 근교에 위치한 한국군의 퇴각시까지 좌측방을 엄호치 못하면 죽음을 각오하라. 오늘 이후 제21연대는

4일간 아무런 원조도 받지 못함을 각오하라”고 말했다. 단소장의 의도는 명백했다. 제34연대, 제21연대는 가능한한 적군이 금강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최후의 저항은 금강 남쪽 진지였던 것이다. 드디어 7월 9일 아침, 미군 제21연대 3대대는 81mm와 42인치 박격포로 사격을 시작했다. 공병대는 전의 전방의 모든 교량을 폭파하고 전투준비를 마쳤다. 이날 오후, 진지를 지휘하던 엘카이어 대위는 11대의 전차와 2~3백명의 적보병이 이동함을 발견하고 포병대의 관측사격으로 전차 11대중 5대를 불태웠다.

그러나 북한군 보병은 박격포와 야포의 사격을 무릅쓰고 압박을 계속해 왔다. 그중에서도 미국측의 항공기는 해질 무렵 평택~전의 도로상에서 2백대에 이르는 적 차량 중 1백 여대를 불태우는 전과를 올렸다. 이로써 전의읍내는 밤새 화염에 휩싸였다. 7월 10일 개미고개전투에 밀려닥친 보병은 북한군보다 밤새 질게 깔린 안개였다. 이날 새벽 북한군은 안개를 이용하여 방어선 깊숙이 침투했다. 짙은 안개가 갠 것은 오전 8시쯤이었다. 이때는 이미 미군이 배후에 있는 적의 전차소리를 들어야 했고 이들 전차는 새벽 5~6시에 미군 방어선을 뚫고 보병과 합류한 후 미군의 박격포 진지에 공격을 가했다. 이로써 미군은 연대장과 박격포 진지간의 통신이 두절되었다.

북한군은 오전 9시 미군 진지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 이미 통신망이 진내폭격을 시도 하였으나 적의 공격은 더욱 치열해졌고 미군 병사들 가운데는 진지를 버리고 도망하는 숫자가 늘어났다. 이와 같은 방어진지의 혼란은 급기야 미군 제31연대의 퇴각을 재촉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미공리에 위치한 제3대대는 역습으로 전의를 재탈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아직 후퇴하지 못하고 있는 제1대대 병사들은 구하고 사상자의 수용과 장비회수 및 진지회복에 나섰다. 그러나 역습은 북한군이 개미고개 곳곳에 잠복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미군은 한국전 최초로 M24전차를 사용하여 전의 근교에서 북한군을 맞아 싸웠다. 그러나 적전차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 끝내 M24경전차 2대가 파괴되면서 뒤따르던 전차마저 후퇴하게 되었다.

반면 7월 10일은 미공군 한국전쟁에서 최대의 전과를 얻은 날로도 기록되고 있는 날이었다. 미군 3대대가 개미고개를 역습하고 있을 무렵 F80전투기 1대가 평택부근에서 적전차와 차량 행렬을 발견하고 집중사격을 가해 38대의 전차와 7대의 자주포 및 17대의 트럭을 파괴했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7월 11일 다시 안개를 이용한 북한군은 전차를 투입하여 아군 진지를 공격했다. 전투의 특징은 앞선 전투와 마찬가지로 주공격에 앞서 예비공격을 실시한 후 사단 게릴라 부대를 침투시켜 미군진지를 정밀 탐색하고 공격하는 수법으로 공격 순위는 보병진지, 포병진지, 지휘소간의 통신망, 탄약보급소 순이었다. 이때 아군의 후방퇴로 차단도 병행되었다.

이같은 적의 공격에 따라 미 제21연대는 12시간에 걸친 개미고개 전투에서 667명의 병력 중 무려 517명을 잃었다. 4대의 경전차와 2개보병 소대분의 장비도 잃었다. 한편 미 제21연대 1대대가 205명의 보충병을 받아 조치원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개미고개를 넘어선 북한군은 오봉산으로 이동한 2백명 외 8백명이 추가되었다. 이어 7월 12일 새벽엔 2천명이 넘어선 북한군이 조치원에서 들어서고 이날 저녁 미군 제21연대는 금강을 넘어 철수를 했으나 진지 구축에 확보된 병력은 고작 325명뿐이었다. 그럼에도 전의 조치원 전투에서 미군 제21연대는 북한군의 가장 강력한 2개 사단을 맞아 3일간이나 남진을 지연시켰다. 비록 개미고개전투에서 인명과 장비의 막대한 손실이 있었으나, 작전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듯 개미고개전투는 전동면의 한국전쟁에서 가장 큰 희생과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

었다. 이 전투로 희생된 장병들의 명복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개미고개에는 위령비를 비롯하여 ‘자유평화의 빛 위령비’ 등이 건립되어 있다. 이 기념비의 건립목적은 개미고개전투에서 사망한 미24사단 21연대 제 3대대 소속 517명의 미군전사자의 넋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개미고개인 청람리 산 16-1번지에 340㎡(약 100평) 규모로 2004년 12월 18일에 1억 5천만원(민간자본)을 들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충남지부 연기군지회가 추진하여 위령비 1식, 건립취지문 1식, 출입문 상징조형물 1식을 건립하였다. 또한 2005년 5월 20일의 제막식을 시작으로 매년 개미고개 마지막 전투일이었던 7월 11일을 기념하여 추모제를 실시되고 있다.

기념비의 뒷면에 조각된 ‘기념비 건립의 뜻’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북한군이 남침을 시작하자 미국은 전쟁개입을 선언 한 후 미 제24사단 제21연대 제1대대를 선발대로 지정, 대대장 스미스(Charles B. Smith) 중령 지휘 하에 7월 1일 부산으로 공수 하였다. 스미스 특수임무대는 지체 없이 전선으로 향해, 오산 죽미령에 배치, 북한군의 남진 저지 임무를 부여 받았다. 7월 5일,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을 받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전투에 임했으나 대부대 공세를 감당 못하고 격과 당하여 분산 철수하는 비운을 겪게 되었다. 이에 미 제24사단은 제21연대장 스티븐스(Richard W. Stephens)대령에게 잔여부대를 지휘, 1번 국도(현 군도1호)에 걸친 지연작전을 수행케 하였다. 7월 7일, 미 제21연대는 사단장 딘(William, F. Dean)소장으로부터 “조치원 부근에 진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음날 미곡리의 개미고개 좌우측 능선에 지연진지를 구축하였다. 7월 11일, 새벽 북한군 제4사단에 이어 제3사단이 교대하여 개미고개를 공격해 왔다. 제21연대는 전의 조치원간 전투에서 절대 우세한 적과 맞서 무려 5일간 적의 남진을 지연시킴으로써 북한 북한군의 남침전략에 타격을 입혔다. 이에 장병들의 영웅적인 공적을 기리고 전사한 장병의 명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격전지 개미고개에 위령비를 세운다. 이 위령비가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후세에 일깨우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사진 4〉 ‘자유평화의 빛’ 위령비



〈사진 5〉 개미고개 조형물

주민들에게 직접 듣는 생생한 개미고개전투에 대한 일화들도 마을조사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송성2리 주민들에게 한국전쟁은 개미고개전투로 대변되고, 개미고개전투라는 단어만 들어도 개미고개에 널려있던 시체들의 영상으로 대체된다. 당시 개미고개에는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미군들의 시체 200여구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고 한다.

개미고개가 위치한 청람리의 주민들에게 개미고개전투와 관련된 일화가 많다. 마을 주민 중에 개미고개전투에 군인으로 참여하여 목숨을 잃은 마을 주민이 2명이 있고, 전투가 끝난 이후에 포

병부대가 땅에 놓은 폭탄을 무심코 만져 목숨을 잃은 주민이 2명, 그 폭탄의 파편으로 손을 크게 다친 주민이 2명이 있다. 그 당시의 폭탄이 시계나 볼펜 모양 등 여러 모양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호기심에 가지고 놀다가 이런 불상사를 겪었던 것이었다. 당시에 미군들이 개미고개에 진을 치면서 주민들을 모두 대피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은 없었다. 때문에 주민들에게 개미고개전투는 미군들의 시신이 가득했던, 미군들이 폐죽음을 당했던 곳이라는 기억만이 남아 있다.

개미고개전투가 끝나면서 북으로 이동하던 북한군들은 마을 주민들의 집에 들어와 밥을 해달라고 괴롭히는 행위는 두달 가까이나 지속되었다. 또한 낮에는 집안에 들어와 숨어 있었고, 밤에는 포를 보급하는 등의 일로 주민들이 강제로 북한군들에 의하여 동원되어 밤새 지계에 포를 짊어지고 나르는 일을 하기도 했다. 이미 남한과 북한의 싸움이 끝났다는 소문은 돌았지만, 북한군이 피난을 가는 광경을 목격하고 또다시 전쟁이 날 것을 두려워한 서울과 경기도의 주민들이 아래로 아래로 피난을 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피난민들은 밤이 되면 개미고개 근처에 있던 청람리 주민들의 집에 무작정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잠을 자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먼저 온 사람이 안방을 차지하고, 그후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헛간까지 들어가 잠을 잘 정도였다. 1·4후퇴가 진행되던 시기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새벽에는 추위를 이기지 못한 피난민들이 방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람이 자는 위에서 누워 잠을 청하기도 했다.

2) 주민들이 겪은 한국전쟁

전동면의 마을조사에서 채록된 주민들의 경험담을 통해서도 한국전쟁 당시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군도1호를 따라 위치한 마을들은 한국전쟁시기에 북한군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 청송2리 주민들은 국도를 따라 이동하던 북한군들이 동네를 들락거리는 바람에 곤혹스러운 일도 있었고, 북한군이 마을 주민의 집에 주둔했다가 떠나는 일도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노장1리 주민들은 국도와 철도가 지나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군대가 이동하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한다. 북한군 선발대가 국도를 지나갈 때에는 주민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고 한다. 노장2리와 5리 주민들 역시 북한군들이 마을 앞 도로에 총을 들고 앉아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북한군들은 낮에는 없어졌다가 밤이 되면 다시 나타났는데, 특히나 노장5리의 상노장 주민들의 집에 북한군들이 머무르면서 동네의 소를 몇 마리나 잡아 먹고 떠났다. 군도1호에 위치하고 있는 청송1리 주민들도 국도를 따라 북한군이 지나가는 것을 봤다. 특히 북한군은 청송1리에서 가장 큰 집이었던 권씨 종가에 들이닥쳐 집안에 있던 책과 문서를 모조리 꺼내어 밖에 쌓아 놓는 바람에 많은 유물들이 소실되는 일이 있었다. 또한 북한군들은 주로 아침에 들어와 해가 질때까지 마을에 머물다 떠났다고 한다. 주민들에게 밥을 달라는 일도 있었고 가축을 잡아먹기도 하였는데 어느날 이들이 권처은씨의 부친 권혁봉씨의 소를 잡았다. 소값을 준다고 하더니 해가 지자마자 군인들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권혁봉씨는 그중 장교로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 소 값을 내놓으라고 하였고, 결국 준다 못준다는 실갱이가 벌어져 내판까지 따라가서 결국 돈을 받아왔다는 일화가 주민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보덕2리 역시 마을 앞으로 군도1호가 지나고 있어서 한국전쟁기에 길을 따라 이동하는 북한군들이 마을 민가에 들어와 밥을 먹여 달라고 했다. 어느날은 마을 주민의 집에 20명이 넘는 북한군들이 들어와 밥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 많은 북한군들의 밥을 짓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주민이 있다. 당시 북한군들은 민가에 들어와 밥을 달라고 하면서 어김없이 불을 꺼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상대방에게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했던 행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군의 밥을 해먹이느라 고생했다는 주민들에게 북한군이 귀찮은 존재로 기억되어 있을 것 같지만, 보덕2리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북한군은 선량하다고 한다. 북한군들은 밥을 공짜로 얻어 먹기 미안했던 탓인지 밥이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집안의 잡일을 스스로 도왔다. 명석을 깔아준다든지, 마당에 널려 있는 짚신을 꼬아 준다는 등의 일을 도왔던 것이다. 석곡리도 보덕2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북한군들이 마을에 들어와 주민들에게 밥을 해달라고 해서 여러 차례 밥을 해주기도 했고, 북한군들에게 밥을 먹이다가 마을에 폭탄이 떨어져 북한군들이 밥을 먹던 중간에 도망가는 일도 있었다.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빨갱이는 그냥 도깨비인 줄 알았는데, 짐나르고 이야기하고 밥먹다 보니 개네들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어”라는 이야기를 한다.

봉대리를 관통하여 고소재를 넘는 693번도로는 전동면과 천안 수신면 아우내(병천)을 잇는 큰 길이었다. 한국전쟁때에는 군대의 이동로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북한군 부대가 마을에 들어와 잠시 머물다 간 일이 있었다. 주민들은 북한군의 복장이 매우 화려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들의 요구대로 밥을 해주었더니 별 다른 피해는 없었는데 그렇게 밥을 먹고 수신면 쪽으로 넘어간 북한군들이 전투가 벌어져 북한군이 거의 몰살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주민들은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미곡1리는 개미고개와 가까웠기 때문에 개미고개에 진을 치고 있던 북한군들이 마을로 들어와 주민들이 키우던 소를 끌고 가서 개미고개 터널에서 소를 잡아 먹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보덕2리에서는 주민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 권씨 성을 갖고 있던 주민이 살던 집에 하루는 퇴각하던 미군이 숨어 들어갔다. 권씨는 미군을 안방으로 숨겼고, 미군이 권씨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오던 북한군은 권씨네 집으로 들어가 권씨에게 미군이 어디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권씨는 미군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이 과정에서 안방을 수색하던 북한군의 눈에 건너방으로 건너가던 미군의 군화발이 목격된 것이다. 결국 북한군의 손에 잡힌 미군과 미군을 숨겨준 권씨는 마을 앞 철길에서 주민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했다. 보덕1리도 사정은 똑같다. 매일 북한군들이 마을로 들어와서 밥을 해달라고 주민들을 괴롭혔고, 하루씩 돌아가면서 잠을 자기도 했다. 마을로 들어와 있던 북한군은 밤만 되면 마을 앞 도랑에 모여 “집합”이라는 소리와 함께 모여서 봉산리로 넘어가는 모습은 여러 마을주민들의 기억 속에 있다.

북한군들은 주민들의 집에 들어와 괴롭히는 일뿐 아니라 정신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석곡리 주민 이모씨에 의하면 당시 초등학교 정도의 마을 어린이들을 모아 놓고 북한군들은 끊임없이 정신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북한군들은 북한노래를 가르치기도 했고, 북한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을 곳이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주입시켰다. 또한 하루에도 몇 차례씩 비행기로 전단을 뿌려졌는데, 어렵게 기억나는 전단의 내용은 “이승만을 죽여라”, “이승만의 목을 잘라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전단에 그려져 있던 그림도 이승만의 목을 칼로 찌르는 등의 그림도 있었다. 또한 당시 전동면의 주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던 소문에 의하면 전동면 일대에서 잡힌 보도연맹 가입자를 잡아 떡빵이

골에서 학살하였다고도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비 오는 날에 멍쟁이골을 지나면 곡소리가 들린다하여 혼자는 갈 수 없다고 했고 그곳의 멍개나무가 잘 자랐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미군들의 폭격이 각 마을마다 빈번하게 일어났다. 청송2리는 논이 여러군데 패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폭격이 제일 심했던 곳은 석곡리와 봉대리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석곡리에는 폭탄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움푹 움푹 패인 자리를 피해 다니느라 주민들이 고생을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폭탄이 떨어지자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갔고, 결국 주민들은 마을 뒷산 골짜기 깊숙하게 들어가 숨기도 여러 차례 했다. 봉대리는 미군의 폭격이 거세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연자방아를 돌려 보리를 짙어 먹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청송리에서는 폭격으로 철길이 끊어지기도 했는데 미군은 철길의 중간에 있던 굴에 무기를 감추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조명탄을 터뜨린 후 총질을 하였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미군 공군기가 벼룩재 모퉁이에 폭격을 퍼부어 주민들이 크게 놀라 대피한 일도 있었다. 노장1리는 직접적으로 총탄의 피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미군부대가 한때 전동초등학교 건물에 주둔했다 떠난 일도 있었다. 또한 청송리 주민 중에는 미군들이 남겨 놓고 간 총기를 가지고 있다가 오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

북한군들의 괴롭힘과 미군들의 폭격에 시달리던 전동면민들은 피난의 길에 오르기도 했다. 송성2리 주민들은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피난을 다녔던 기억이 전부였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주민들이 주로 피난을 갔던 곳은 수박고개를 넘어 ‘다방리’라고 부르던 곳이었는데, 다방리는 현재 전의 면에 속하는 곳이지만, 당시에는 전동면에 속했던 지역이었다. 특히 다방리에 있던 ‘수랑골’이라고 불리웠던 곳은 워낙 산속에 위치했었다. 북한군이 그곳까지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리외방 가까이 위치한 송성2리 주민들 대부분은 이곳으로 피난을 갔다. 반면 송성3리 주민들은 대부분 서면으로 피난을 갔다고 한다. 어느날은 도둑골에 폭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곧 송성3리에도 폭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모든 주민이 피난을 떠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마을 주민 중 한명은 금산까지 피난을 가는 바람에 가는 길목에서 북한군들에게 붙들려 애를 먹기도 했지만, 마을 주민 어느 누구도 목숨을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청송리 주민들도 대부분 피난을 떠났는데, 어느 가족은 북한군의 남침을 피해 열심히 남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미 북한군이 도착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것도 하필 피난처가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였던 바람에 피난민들은 산 속으로 숨어들었다. 밤새 총격전이 벌어지는 틈에서 이산 저산으로 도망다니다 결국 다시 동네로 돌아오게 되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보는 이들이 놀랐지만 그것은 다행히도 산속에서 나뭇가지에 다친 상처였다. 또한 다른 주민들은 가까운 노장리로 몸을 숨기기도 했다. 위태로운 목숨을 당장은 숨길 수 있었지만 산속에서의 굶주림은 더욱 무서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집에 있는 닭과 돼지라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을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길목에서 군인들의 저지로 다시 되돌아 가야했다. 동네가 안정을 되찾은 후 집에 와보니 이미 가족은 모두 사라진 뒤였다. 군인들이 식량 삼아 잡아먹은 것이었다. 보덕1리 주민들도 모두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피난길이 너무 고생스러워 죽어도 마을에서 죽자는 생각으로 마을로 다시 들어오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피난을 가지 않고 마을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버틴 주민들도 꽤 많았다. 노장1리의

하노장 사람들도 피난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다지 멀리까지 가지 못했고, 피난을 포기한 채 동네에 머물렀던 사람들도 있었다. 외출을 할 때에는 길 옆의 풀숲으로 남몰래 다녀야 했다. 어떤 이는 신탄까지 피난을 갔다가 남하하는 북한군과 맞닥뜨려 되돌아 오는 일도 있었다. 송성1리 주민들도 서면으로 피난을 갔다가 2~3일 후에는 집이 걱정되서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송성1리에서는 피난을 가지 못해 목숨을 잃은 주민이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피난을 선택했지만, 힘이 없던 노인들은 죽더라도 내 집에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피난을 가지 않았다. 그날도 마을 주민 중 노인 한분이 보리라도 감추었다가 피난간 자식들이 돌아오면 주겠다는 생각으로 동네에 있던 방앗간을 가기 위해 산을 넘다가 폭탄에 맞아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반면 피난골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따로 피난을 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노장5리의 이목동과 죽엽리는 피난골이었기 때문에 타지에서 피난민들이 이곳으로 숨어 들어왔다. 이목동 사람들은 불안한 심정에 뒷산에 방공호를 파고 숨어있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주민들은 낮에는 동네 나무 아래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집으로 들어와 자기를 반복했다. 봉대리도 피난골은 아니었지만 피난을 가지 않은 주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들은 낮에는 산골짜기에 숨어서 몸을 숨겼다. 심중리도 피난골은 아니었지만, 심중1리와 2리 주민들 대부분은 심중2리의 산골짜기에 몸을 숨기면서 피난을 떠나지 않았다. 송정2리의 골짜기는 피난골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비롯하여 다른 동네의 주민들까지 이곳으로 몸을 숨겼다. 마을 주민들은 그 당시가 마을에 주민이 가장 많았을 때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전쟁때 마을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송정2리는 지금도 주민들에 의하여 ‘피난고지’라고 불리는데, 마을 지형이 도로가 생기기 이전에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마을을 드나들 수 있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었다.

보덕2리도 송정2리와 비슷한 지리적인 위치이다. 특히나 보덕2리는 송학산의 아랫자락에 위치하였을 뿐 아니라 보덕리를 관통하는 조천이 동그랗게 마을을 휘감아 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을이 산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즉, 마을입구에서 마을을 보면 가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송학산 골짜기마다 굴이 있어서 마음먹고 숨어버리면 절대로 찾을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피난하기 위해 적당한 장소로 활용되었다.

북한군과 미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컸고, 그들을 피하기 위해 피난을 가는 과정에서도 피해를 받았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쟁으로 인한 강제부역때문에도 주민들은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노장1리 주민들은 조천에서 내판으로 가는 스물두칸다리를 복구하는 작업과 끊어진 철도를 고치는 공사에 모두 동원되어 강제적으로 일을 해야 했다. 당시 부역에 동원되었던 주민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해야했던 처참한 시기였다고 이야기한다. 보덕2리 주민들 중 남자들도 한국전쟁 기간 내내 청람리의 개미고개로 끌려 나갔다. 북한군들이 마을로 들어와 남자들에게 지계를 짊어지고 나오라고 해서, 밤마다 지계를 지고 개미고개로 가서 포탄같은 무기들을 지계에 지고 나르는 일에 동원된 것이었다. 석곡리 주민들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북한군들이 마을로 들어와 밤마다 군수물자를 운반하라고 주민들을 괴롭혔고, 매일밤 모든 주민들이 동원되어 군수물자와 같은 북한군들의 짐을 나르는 일을 했다.

2. 한국전쟁 이후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어 미군과 한국군이 조치원에 진주하게 되면서 시민들은 환영의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1951년 1월 1일 대반격 작전을 감행하였고, 다시 한반도는 1·4후퇴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2년이란 세월을 두고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대통령의 사전양해도 없이 불명예스러운 휴전조약을 체결해버렸다. 4월 25일에는 대한민국 시민대표자회의 명의로 주한 미국대사인 부르크스에게 보내는 휴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유엔결의서를 분쇄하지는 건의서를 변영태 외무부 장관에게 송부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대한민국 주권사수 선포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에 연기군 자결대표들은 5월 8일, 지방 유지들을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5월 15일에는 각 읍면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에 참석하였던 각 읍면 대표들의 명단이 확인 가능한데, 전동면의 대표로는 김태일 외 4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1954년 9월 22일 동아일보를 통해 한국전쟁 기간동안 공식으로 있었던 전동면장(선거는 지난 5일 11시) 선출에 관련된 투표가 전동면의회 회의실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전동면에 20여년간 근무하고 있는 부면장인 신혁범(愼赫範)씨가 당선되었다.

3. 새마을운동기

1)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1970년 초 박정희대통령에 의하여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된 전국적인 운동으로, 전동면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이 나타났다.

청송2리의 모습은 새마을운동으로 많이 현대화되게 변했다. 마을 안길이 개통되어 이동이 편리해졌고, 차가 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속개울도 정비되었다. 노장1리 역시 하천 정비가 시급했던 노장천의 중보를 건설하고 제방을 정비하여 농업용수 활용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쳐 우수마을로 선정되기까지 하였다. 시상금이 100만원에 이르렀는데 지금으로 치면 3천만원 정도의 가치가 되어 이것으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 마을 안길의 포장까지 모두 마칠 수 있었다.

노장2리는 이 시기에 693번도로를 확포장하는 큰 일을 해냈다. 면소재지에서 천안 수신면으로 이어지는 693번도로는 병천아우내장을 보러 다니던 사람들이 애용한 길이었다. 옛길과 현재의 도로 노선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확·포장되었다. 도로가 포장되기 전까지는 마차 한대가 겨우 다닐 만큼 폭이 좁았다. 오일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던 장사꾼들은 이 길을 따라 가면서 노장리와 봉대리 등에서 농산품을 싼값에 사들여 아우내장에 팔았던 것이다. 이 길을 확포장하는 작업은 이 도로가 지나는 주변의 마을에 포장 구역이 할당되어 주민들이 동원되어 작업이 진행되었다. 주민들의 하루 일당은 밀가루 배급으로 대신하였다. 각자 지계를 지고 리어카를 끌고 나와 하루종일 땅을 파고 자갈을 깔아가며 고생스럽게 일을 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두명치의

배급을 받고 리어카를 가져오면 일당의 서너배가 지급되었다. 꼬불꼬불 이어지는 고갯길을 직선으로 만들면서 경작중인 밭이 길이 되기도 했는데 땅주인이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노장리의 중노장다리도 이시기에 건립되었다. 공사업자 신천범씨가 중노장에서 노장천을 건너는 곳에 다리공사를 벌여 세월교를 만든 것이었다. 세월교는 비가 내리면 침수하는 다리였지만 매우 쓸모가 있었다. 노장리 마을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 이전까지 도로변에 '대동산업'이라는 기와공장에서 흙으로 만든 기와를 사다 지붕을 올렸는데 새마을 사업때에 초가지붕은 모두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었고 기와집도 일부는 그렇게 고쳤다. 여러 가지 동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정부로부터 1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고 그것으로 양지말 앞에 마을회관을 짓게 되었다. 봉대리도 이 시기에 다른 여느 마을처럼 길을 넓히고 지붕을 개량하는 등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함께 봉대소류지를 건설하였다. 운주산 바로 아래의 밤실과 서봉동 골짜기는 물이 없어서 봉대리에서는 넓은 들임에도 불구하고 콩이나 메밀을 심는 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모두 일일이 땅을 파고 지게로 흙을 퍼 나르며 밤실터골 안쪽에 작은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때에 일하는 모습을 보고 봉대리 사람들이 지게질을 제일 잘한다는 말이 나왔을 만큼 열성적으로 일을 했다. 소류지 건설로 봉대리에서는 가장 넓은 들인 서봉동, 평말 앞의 들에서 농사 짓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그렇다고 가뭄 피해를 아예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후에 관정공사로 지하수를 끌어 쓰게 되면서부터 골짜기 구석구석까지 농사가 가능해졌다.

다음으로 미곡1리 역시 새마을운동시기에 신작로가 깔리고, 지붕이 개량되는 등 다른 동네와 별반 다르지 않게 마을에 변화가 찾아왔다. 특히나 미곡1리 주민들의 상수도 사업은 다른 마을과는 조금 다르게, 미륵당 마을 도로 한가운데 위치한 샘물을 상수도 사업을 통해 수돗물 대신 샘물을 사용하였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마을 주민들은 식수로 이 물을 사용했는데, 새마을운동의 일환이었던 상수도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이 좋은 샘물을 수돗물로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자 의견을 모았던 것이었다. 송성1리 역시 새마을운동 시기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마을이다. 마을 주민들은 적성산 밑에 있던 공동묘지에서 나무를 베서 마을 안길에 다리를 놓기도 하고, 마을을 둘러 싸고 있던 산에서 나무를 직접 해서 나무다리를 비롯하여 마을 안길 포장을 직접했다. 옆마을인 송성3리 주민들이 이 시기에 마을을 위해서 손수 했던 가장 큰 일은 산에서 나무를 베고, 직접 돌을 지게로 짊어 지면서 다리를 놓은 일이다. 현재 송성3리 1반과 2반, 3반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송성천은 송성1리 조천으로 합류하는 물줄기이다. 이 다리가 놓여지기 전까지 송성천 중간 중간에 큰 돌을 놓아 내를 건너던 주민들은 새마을운동때 모두 함께 멋진 다리를 놓자고 의견을 내놓아서 시작되었다.

4. 신문으로 살펴보는 전통면의 현대사

[동아일보] 1963년 5월 14일0

- 국보순례(115)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 보기 드문 균불상...앞 뒤 면의 명문도 특이

서울로 되돌아왔다. 국립박물관 소장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국보 제106호)은 제2진열실에 안치되어 있는데 크기는 높이가 43cm, 폭이 26.7cm, 앞이 17cm 조그만 비석모양의 석불이다. 비석모양으로 된 네면에 전부 불상을 새기고 네 개의 원주꼴을 만들어 마치 불감같다. 윗면 가운데에 있는 둥근 광배(부처 뒤에서 빛이 나는 모습)안에는 미래불인 아미타여래를 비롯, 삼존상이 새겨져 있고, 그 옆으로는 나한, 인왕 및 화불이 각각 삼존을 모신 모습을 보였고, 그 아래는 사자연화 무늬를 조식해 놓았다. 측면을 보니 역시 상하이단으로 각각 사구씩 낙천 좌상이 악기를 갖고 있으며 그 아래로는 용의 머리가 앞을 향하고 있다. 불상뒷면 역시 사단씩 각각 오구의 좌불을 연화좌위에 안치하였는데 불상전체의 보존상태는 그나마 좋은 편이지만 아미타여래의 얼굴 등 부분에서는 마멸이 심하다. 이 불상의 특징은 앞, 옆, 뒷 사면에 명문이 새겨진 점, 이 명문에 나타난 글자 가운데는 계유명, 전씨 및 신라시대 관리의 계급인 내목, 대사 등이 보이며 또한 해명법사, 법신사 등의 중이름은 꼭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황수영 교수는 보고 있다. 제작연대는 통일신라초기. 이런 균불상은 대단히 희귀한 유물이다. 이 불상은 원래 충남 연기군 전동면 다방리 비암사 삼층석탑 꼭대기에 놓여 있던 삼존의 불상 중 하나로 후에 서울로 옮겨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막중수공사를 끝낸 남대문으로 향했다.

[경향신문] 1964년 8월 19일

• 손님이 잡은 날치기

서울 송인동 시외버스 정류장에는 날치기들이 우글거리는데 18일 하오 피해당한 승객 이준구(李俊求, 32, 충남 연기군 전동면)씨가 같은 곳에서 연거푸 승객의 시계 3개를 날치기한 박동윤(20, 창신동 8)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

범인 박은 버스가 발차할 때마다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승객의 팔뚝 시계를 채어 공범 이무성(李戊成, 20)에게 넘겨주는 릴레이식 날치기행각을 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경향신문] 1969년 2월 1일

• 천안열차 참사 사망자 명단

...(전략)...양원수(46, 충남 연기군 전동면)...(후략)

[경향신문] 1970년 8월 14일

• 농협창립 9돌 기념식 새 농민상 8명 시상

농협창립 9주년 기념식이 14일 상오 10시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이효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부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서봉균 농협중앙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현재의 시점에서 농협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주 금융체제확립을 위한 농민의 노력”을 촉구했다. 서회장은 또한 농협은 오는 76년말까지 자기조성자금을 현재의 8백 93억원에서 2천7백67억원으로 늘리고 상호금융자금은 3백64억원으로 농협의 총자금 조달규모도 4천7백70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올해 선정된 각 분야별 새농민상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부문별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략)...과학상=구자창(具茲昌, 46, 충남연기군 전동면)...(후략)...

[매일경제] 1971년 12월 23일

- 정남규상의(鄭南圭商議) 부회장

정남규 대한상의상근부회장이 22일 하오 4시 30분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53세. 고 정남규박사는 경도제대농업경제과를 졸업, 위스콘신 주립대에서 농학박사학위를 받고 농림차관, 농협 부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오는 24일 10시 서울특별시 종로구통의동 자택에서 발인하며 장지는 충남 연기군 전동면 신방리 유족으로는 부인인 조재원여사와 3남1녀가 있다.

[매일경제] 1972년 11월 27일

- 대의원선거구 및 정수

...(전략)...연기군 8=조치원읍 2, 동면 1, 서면1, 남면1, 금남면1, 전의면1, 전동면 1

[동아일보] 1972년 12월 16일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명단

연기군...(중략)...전동면 김진태(金振台, 57 농업 국졸)2,354...(후략)...

[경향신문] 1973년 2월 20일

- 혐의풀린 재수학생 불손하다 경찰서에

19일 상오 8시반쯤 서울중구 남대문로 광교버스정류장에서 종로2가 제이고시학원으로 가던 대학입시재수생 신광범군이 버스에서 내리자 같은 버스에 탔던 노량진서 은천파출소 박경순 순경이 “거동이 수당하다”며 수갑을 채우고 은천파출소로 연행됐다. 신군은 파출소에서 3시간의 신문끝에 혐의가 풀렸는데도 박순경은 신군이 “검문때 반항하는 등 불손했다”며 즉심에 돌리도록 노량진서로 넘겼는데 노량진서는 이날 하오 2시쯤 혼방했다. 신군은 고향인 충남연기군 전동면 청송리에서 지난 14일 상경, 형의 집에서 학원에 다니다가 변을 당한 것.

[경향신문] 1973년 9월 5일

- “교통순경 육감에 의한 과속은 인정 못해” 서울지법판시

서울형사지법 정동윤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춘영피고인(41, 서울마포구 동교동 153의 2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경찰관이 육감으로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 이같이 판결했다.

정피고인은 지난 3월 13일 하오 6시반쯤 충남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 앞 국도를 시속 40km제한 지역인데도 50km의 속도로 운전한 혐의로 조치원서 소속 정조영 순경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즉심에 회부되었는데 운전자 정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경향신문] 1973년 9월 18일

- 박대통령이 우수새마을 8곳에 4백만원까지 지원

박정희대통령은 18일 새마을 가꾸기 등 73년도 새마을사업실적이 우수한 경기도 가평군외서면 하천1리 등 전국 8개마을에 마을당 2백만원~4백만원씩을 주어 새마을사업을 지원했다.···(중략)···충남 연기군 전동면 보덕이 2백만원···(후략)···

[경향신문] 1974년 3월 7일

- 사할린교포 생존 사망 78명 새명단 밝혀

사할린 억류포귀환추진회(회장 한영상)는 6일 하오 사할린 억류 한국교포 생존사 60명과 사망자 18명 등 78명의 새 명단을 밝혀냈다. 이 명단은 지난해 12월 이후 3차례에 걸친 9백58명의 새 명단에 이어 사할린에서 오는 편지 중 가려낸 것이다.

생존자(60명)···(중략)···고봉노(高鳳魯, 충남연기군 전동면 高學魯)

[경향신문] 1974년 9월 27일

- 40여년간 불우환자위해 공헌 옥수복씨에 용신봉사상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금년도 용신봉사상 수상자에 옥수복씨(63, 서울서대문구역촌동23의 41)를, 장려상수상자에 최재희씨(43, 충남연기군 전동면 보덕리267)를 선정하고 27일 전국여성대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후략)···

[경향신문] 1974년 10월 25일

- 11회 저축의 날 3백60명 표창

제11회 저축의날 기념식이 25일 상오 중앙국립극장에서 김종필 국무총리와 김용환 재무장관 등 정부인사와 김성환 한은총재를 비롯한 은행 증권보험관계직원 등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기념식에서 김총리는 치사를 통해 “한일 사태 및 장기개발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긴급한 과제로 되어 있는 이때 근검절약에 의한 저축증대를 해야할 입장에 있으며 특히 부유층과 사회 지도층이 근검생활을 통한 저축증대에 솔선 수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저축활동을 통해 내자동원에 공이 큰 이육주여사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한 것을 비롯해서 모두 3백60명의 인사에게 국민포장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을 주었다. 표창을 받은 인사는 다음과 같다.···(중략)···국민포장 최재희(崔在嬪)(충남연기군 전동면 생마을 지도자)···(후략)···

[경향신문] 1974년 11월 1일

- 새마을성공사례 마포구청 발표회

마포구청은 지난달 31일 주민 2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성공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자는 최재희씨(충남 연기군 전동면 도동리2구 지도자), 이명자씨(영등포구 방화동 지도자)등이었다.

[매일경제] 1976년 2월 3일

- 충남지방서 호조 장안, 문방 등서 월척 총 19수 아직 저수지방질은 좋아 용인저세일회서 30센티급 잉어80여수나 청수회원 고루 6치이상 50수예당
장안, 예당, 신창, 문방 등 중남부지방의 저수지가 결빙됨에 따라 조황은 크게 호조를 보이고 있다. 1월중에만 해도 이들 저수지의 빙질약화로 조계는 강원도방면으로 집중출조하여 몇몇 조사들에 의한 대어로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주엔 대지, 신촌 등에서 중남부지방의 저수지를 찾아 형, 양 모두 히트하여 겨울낚시의 막바지를 장식하고 있다. 이들 저수지가 크게 호조를 보이는 것은 원래부터 대어 및 마리수 산지로 알려진데다가 그간 결빙이 되지 않다가 최근 결빙되어 수온마저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계는 앞으로 중남부지방의 집중적인 출조현상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의 월척은 예당, 문방 등에서 총 19수 기록되었다. …(중략)…연기 대종회가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조그마한 방죽을 찾아 준척2수, 회원평균 5치급으로 10수 정도 올렸다.

[경향신문] 1976년 2월 16일

- 섬이름 알아맞히기 퀴즈 경기부천 이명교씨 당첨
지난주 싱글빙글쇼 퀴즈 섬이름 알아맞히기의 추첨에서는 정답자 중 경기도 부천시 이명교씨가 행운의 1등을 차지했다. …(중략)…2등 김영희(충남 연기군 전동면 양곡리1구 양지마을)…(후략)…

[동아일보] 1978년 5월 6일

- 전국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입후보자 명단
대의원입후보자명단…(중략)…연기군 전동면 이덕노(李德魯)(54, 전공무원)

[동아일보] 1978년 5월 19일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당선자명단
…(중략)…연기군 전동면 이덕노(李德魯)(54, 중졸 전면장)…(후략)…

[매일경제] 1980년 7월 30일

- 부가세신고 95만명 추산 일반 21만명, 특례자 74만여명
국세청은 25일로 마감한 8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자를 95만 2천여명으로 추산했다. 26일 국세청은 1기 확정신고자를 연간외형이 2천4백만원이상인 일반과세자 20만 9천명과 2천 4백만원미만 과세특례자 74만3천명 등 모두 95만2천여명으로 추산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수해로 피해가 큰…(중략)…충남 연기군 전의면과 전동면지역 납세자 1백80여명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15일 연장초지하여 오는 8월 10일까지 받아주기로 했다.

[경향신문] 1981년 2월 12일

- 대통령선거인당선거명단

충남 연기군 전동면 김웅기(金雄起, 41, 민, 양조업) 김승회(金承會, 44, 민, 농업)

[매일경제] 1981년 7월 15일

- 전의광업소 갱내서 일산화가스에 중독 광부 4명 질식사

14일 새벽 1시 20분께 충남 연기군 전동면 양곡리의 금광전의광업소(대표 정희경, 68)수직갱 9미터 지점에서 일산화탄소가스에 질식, 숨져 있는 광부 박준용씨(55, 연기군 전동면 달전리 527)를 구출하기 위해 갱내에 들어갔던 동료광부 최하돈(38), 김성도(40), 김영봉씨(40)등 3명도 잇달아 질식 모두 숨졌다.

사고가 난 이후 60미터 지점의 막장에서 양수작업을 하다 갱속에 갇혀 있던 광부 한만식(48), 진대연씨(43) 등 2명은 이날 하오 5시쯤 산소마스크 등 장비를 갖춘 구조대에 구출됐다.

이날 사고는 배수작업을 하기 위해 갱내로 내려가던 광부 김성도씨와 최씨가 지하 9미터 지점에 이르러 박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갱밖에 나와 이 사고를 보고한 뒤 채광주임 전이행씨(36)의 지시로 이날 새벽 1시 20분쯤 다시 김영봉, 정명후(36)전씨 등 5명이 함께 차례로 들어가다 앞서 들어가던 3명이 잇달아 쓰러져 일어났다.

사고가 나자 광업소측은 이날 새벽 3시 40분께부터 환풍기를 통해 갱내에 가스를 뽑아내는 한편 대한광업진흥공사 직원, 경찰관 등 30여명과 같이 구조에 나서 상오 5시께 광부 김성도씨의 사체를 인양해냈다. 광업소측은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광산에서는 개광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가스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1981년 7월 20일

- 권노동부장관 사고광부에 조의금=권중동 노동부장

권노동부장관 사고광부에 조의금=권중동 노동부장관은 지난 17일 충남 연기군 전동면 양곡리 금광전의광업소(대표 정희경)의 갱내에서 배수작업 중 숨진 광부 김성도씨(39), 운반부 최하돈(38), 배수부 박준용(57), 채광주임 김영봉씨(41)의 유족에게 노동부천안지방사무소(소장 김종일)를 통하여 각각 10만원의 조의금을 전달했다.

[경향신문] [매일경제] 1982년 4월 9일

- 지하철공사 철관 길붕괴 인부 등 10명 매몰사 버스등 3대 추락 어제 하오 독립문서 발파잘못 44명 중경상 무악재 12일까지 불통

8일 하오 5시 45분쯤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0 앞 삼호주택(대표 조용시)이 시공하고 있는 지하철 3호선 318공구 공사장에서 철제복공판 1백여m가 무너져 내려 시내쪽으로 달리던 버스1대와 공사장의 크레인 1대, 굴착차 1대 등이 깊이 25미터 가량의 공사장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이 공사장의 강재공 김호경씨(30,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정리 150)등 4명이 숨지고 착암공 김용호씨(39, 서울 강남구 마천동 275) 등 6명이 매몰됐으며, 범양여객 소속 서울5사2550호 시내버스(운전사 임정호, 42)에 타고 있던 35명의 승객과 공사장 인부

등 4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매몰된 6명도 사고현장에 물이 깊이 차있고 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돼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지하철 굴착을 위해 가설해 놓은 너비 15미터 길이 1백m의 철판이 함몰하면서 일으킨 이 충격으로 인근 만나슈퍼마켓 등 10여동의 건물바닥 등에 금이 갔고 불광동~서대문 로터리로 이르는 간선도로가 완전 차단됐으며 지름 7백밀리미터의 송수관이 터져 인근 16개동이 단수 되는 등 일대는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특히 하루에 10여만대의 각종 차량이 통과하는 이 도로의 차단으로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도로 차단으로 인한 영향이 인근간선도로에까지 크게 미쳐 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중략)...사고조사에 나선 경찰은 일단 폭파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폭파작업을 펴 그 충격으로 송수관이 터지고 복공판을 받치고 있는 H형빔을 뒤틀리게해 철판길이 함몰한 것으로 보고 서울시지하철공사 현장감독 권만수씨(37), 시공회사인 삼호주택현장사무소장 박인하씨(43), 화약주임 장승원씨(35) 등을 업무상 중과실치시상등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경위를 캐고 있다. 경찰은 또 지하철 이구간시공회사인 삼호주택 대표 조용시씨도 입건기로 했다. 한편 사고수습대책본부는 9일 상오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복구작업에 앞서 공사장내에 파묻혀 있는 30톤 가량의 폭약처리문제를 놓고 숙의했다.

따라서 무악재~독립문에 이르는 간선도로와 송수관은 일러도 5~6일 후이나 복구될 것으로 보여 이 일대를 오가는 시민들은 당분간 심한 교통난을, 주민들은 식수난을 겪게 됐다.

[매일경제] 1984년 1월 11일

- 열차화물차 충돌 4명 그 자리서 숨져
10일 하오 8시경 충남연기군 조치원을 신안동 모시울철도건널목에서 충남7다2493 트럭(1.4톤 운전사 박종구, 26)과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가던 제48무궁화열차(기관사 박선규, 42, 서울기관차사무소 소속)가 충돌, 트럭에 타고 있던 강원호씨(46,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116)등 4명이 그 자리서 숨졌다.

[경향신문] 1984년 10월 24일

- 새마을서훈자
...(전략)...새마을포장 정해영(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후략)...

[매일경제] 1985년 12월 25일

- 새농공지구 15개 조성 자금2백62억원 용자
정부는 내년에 농공지구 15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25일 상공부에 따르면 새해 조성될 농공지구는 올해 선정된 21개 예정지구 가운데 입주대상업체로부터 신청받은 입주예정면적이 해당 농공지구 예정면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농공지구로 지정하면서 조성공사도 동시에 착공하게 된다.
상공부는 새로 조성될 농공지구에 입주하는 업체에 재정자금 2백억원과 중소기업진흥기금 62억원 등 2백62억원을 연 9%, 1~3년거치 2~5년균분상환조건으로 용자해 줄 계획이다.

그런데 상공부는 현재 조성중인 7개 농공지구 가운데 횡성1개업체, 진천 2개업체, 남원 2개업체 등 5개업체에 15억원을 지원했다.

농공지구는 내년에 15개가 새로 조성되면 모두 22개가 되는데 내년도 조성대상 후보지는 다음과 같다.

...(중략)...연기 전동면 노장리...(후략)...

[동아일보] 1986년 7월 29일

- 중원 음성 영동 나주 등 26곳 농공지구 연내지정

최근들어 경기활성화와 수도권지역 공단건설억제로 농공지구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금년중 모두 26개의 농공지구를 새로 지정키로 하는 한편, 농공지구의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경제기획원에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위원장 문희갑기획원차관)를 열어 작년에 농공지구예정지구로 선정된 21개 지역 가운데 14개 지역과 기업체가 희망하는 농공지구(특별수시지정 농공지구)12개 지역 등 모두 26개 지역을 금년중 농공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이 날짜로 충북 중원 음성, 영동군과 전남 영암군 등 4곳을 농공지구로 지정했다.

올들어 농공지구로 지정됐거나 연내에 새로 지정될 지역은 다음과 같다.

...(중략)...8월중 지정예정(9개 지역)...(중략)...연기 전동면...(후략)...

[동아일보] 1986년 8월 28일

- 농공지구 3곳 추가지정 춘성 연기 밀양...46개업체 입주

정부는 27일 충남 연기군 전동면과 강원 춘성군 남면, 경남 밀양군 밀양읍 등 3개지역을 농공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전동면 농공지구는 4만5천평에 29개기업이, 남면은 3만2천평에...(중략)...이로써 전국에는 현재 16개지역이 농공지구로 지정됐는데 정부는 연말까지 14개지역을 추가지정할 계획이어서 연말에 가면 농공지구는 3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향신문] 1988년 1월 21일

- 토막소식 참피온, 조치원공장준공

참피온 스파크 플러그 코리아(대표 임병운)는 21일 충남 연기군 전동면에서 조치원공장준공식을 거행...(후략)...

[매일경제] 1988년 2월 26일

- 동형물산설립 절연도료 생산 동형전선 수요늘어 기존사업부 확대개편

동형전선(대표 박계동)은 절연도료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동형물산(주)를 설립했다.

에나멜동선 전문제조업체인 동형전선은 내수증가와 해외시장개척에 따라 기존도료사업부를 별도법인으로 확대개편, 대규모의 절연도료공장건설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25억원을 투입, 충남 연기군 전동면에 5천평의 부지를 확보, 연간 7천2백톤의 도료

공장을 11월말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형전선은 연간1천톤 규모의 부평공장 생산시설도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동형물산은 생산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생산량의 50%를 동남아지역에 수출기로 했다.

[매일경제] 1988년 6월 20일

- 한일정공 공장확장

가전제품용 모터축 전문제조업체인 한일정공(대표 오정남)은 최근 본사 및 공장을 대전에서 연기산업단지로 확장 이전했다. 이전주소는 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404의 19 노장산업단지.

[매일경제] 1988년 11월 22일

- 생산시설 대폭 증설 동형그룹, 국내외 판매시장 확대대비

동형전선 동형물산 동일전자통신 등 3개계열사를 거닐고 있는 동형그룹(대표 박계동)이 내수 및 수출증가에 대비, 대규모공장증설에 나선다.

트랜스포머 전문제조업체인 동일전자통신은 수출주문의 적기소화와 품질고급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주생산품목인 고압변성기의 규모를 현재의 연산 1백44만대에서 1백80만대로 증설하는 한편 기존 생산라인도 완전 자동화시설로 대체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에나멜동선 전문업체인 동형전선은 0.02밀리미터 이하의 초극세선 등 고부가가치제품을 양산, 수출물량을 늘려나간다는 전략아래 내년 3월까지 생산능력을 현재보다 30%늘린 연산 7천8백톤으로 증설기로 했다.

특히 지난 4월 전기절연도료(에나멜바니시)전문업체로 신설된 동형물산도 내수위주에서 해외 시장개척에 적극 나서기 위해 내년 5월까지 충남 연기군 전동면소재 특별산업단지내 대지 2만 3천평에 연산 4천2백톤 규모의 전용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공장부지를 조성중에 있는 이 회사는 전기절연도료 이외에도 특수절연도료를 생산키 위해 일본 후루카와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1989년 2월 18일

- 대낮 열차에 사제권총강도 경부선상행 무궁화호 공포위협 금품털어 “폼짜마라” 승객 인질로 고갯길서 서행때 하차 어제 연기서 사건직후 20대 범인검거

17일 하오 4시 25분쯤 충남 연기군 전의면 소정리 경부선 개미고개터널을 지나던 부산발 서울행 제68무궁화호(기관사 전경식)열차안에서 박응수씨(23, 광주시 동구 계림3동85)가 사제권총을 쏘며 승객들을 위협, 현금87만여원(승객신고액수)을 털어 달아나다 이날 하오 6시쯤 사 건발생장소에서 5백여미터 떨어진 연기군 전동면 청람리 마을 앞길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박씨로부터 “지난해 2월 교도소를 출감한 뒤 주변으로부터 소의를 받아 단독범행했다”는 자백을 받고 수사중이다.

박씨는 얼룩무늬 예비군차림에 등산용 소형가방을 메고 열차 맨끝칸인 6호객차 뒤쪽의 홍익회 물품창고에 들어가 물품을 정리하던 문대홍씨(28)를 권총으로 위협, 금품을 요구, 거절당하자

권총자루로 문씨의 이마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이어 박씨는 80여명이 타고 있던 객차로 들어가 사제권총과 장난감 권총을 양손에 꺼내들고 “나는 강도다. 모두 엎드려라. 고개를 들면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승객들에게 갖고 있는 돈을 모두 통로에 내놓으라고 한뒤 승객 이모씨(21, 여 충남 천안 시다가동)를 시켜 돈을 자기가 갖고 있던 국박생 가방에 담아오게 했다.

이때 승객 김구환씨(22, 대전시 동구대1동)가 옆칸으로 달아나자 박씨가 권총 2발을 발사, 옆에 있던 이정화씨(28, 경북 영천군 금호읍 신대동)가 실탄파편이 뒷머리를 스쳐가는 바람에 상처를 입었다. 박씨는 전의역 전방 2킬로미터지점 오르막길에서 열차가 25킬로미터 속도로 서행하는 틈을 타 뛰어내렸다.

경찰은 박씨를 연행한 뒤 목격자 김기철씨(54, 연기군 조치원을 교리23의 13)와 김구환씨, 소성영씨(33,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덕성리)등 3명을 대질, 박씨가 범인임을 확인했다. 박씨는 검거 이후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 18일 상오 3시 20분쯤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목뒤에 생긴 찰과상도 열차에서 뛰어내릴때 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갖고 있던 동대구~대전간 열차표 1장과 쓰다 남은 공업용본드 1개, 현금 44만 7천1백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청람리 국사봉근처 야산중턱에서 사제권총과 예비군복, 운동화, 배낭 등을 찾아냈다....(후략)...

(매일경제) 1989년 12월 19일

- 농한기 농지매물 쏟아져 이농, 자녀학자금 마련위해 서해고속도 주변 등 유망지 외지인 투기발길도 잦아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농지가 전국 각지에서 매물로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농산물수입개방화추세, 일손부족난 및 인건비상승 등 농사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농사를 포기, 이농 또는 탈농하는 농가가 속출하는데다 내년 신학기 자녀학자금마련을 위해 농지를 팔려는 농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매물이 이처럼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 경유지를 비롯, 도시인들이 선호하는 투자유망지역을 중심으로 농지거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요건이 강화된 농지매매 증명발급의 까다로운 절차와 투기에 대한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시인들은 농지를 구입하고서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농민명의를 그대로 놓아둔채 가등기만을 설정, 권리를 확보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최근 한달동안 농지를 포함한 토지거래건수가 1천80건으로 이 가운데 40% 이상이 외지인에 의해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경유지가 인기를 끌어 당진지역이 1백65건, 아산이 22건, 태안 56건이 거래되었으며 이중 외지인들의 매입비중은 각각 56.4%, 54.5%, 66.1%에 달하고 있다....(중략)...충남 연기군 전동면 청송마을에서 이장일을 맡고 있는 권처은씨(權處殷, 50)도 “농사일이 싫어서, 수지타산이 신통치 않아서, 또는 자녀들 교육 때문에 농지를 팔려고 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다.

농지매물이 이처럼 최근들어 늘어나고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시인들은 현지

주민명의로 농지를 사들인 후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후략)...

[경향신문] 1990년 7월 28일

- 지방사학회순례 충남연기군 향토사연구소
 국보급 석불비상 발굴 등 보람 고향 바로 알자...운주산성 복원 계획도
 산기슭에 묻혀 있던 국보급문화재를 찾아낸 것을 비롯, 고장의 유적, 유물 등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는 충남 연기군향토사연구소(소장 김재봉, 74)
 지난 86년 뜻을 같이하는 각 분야의 인사 12명이 사설향토사연구소를 설립, 운영해 오면서 내고장역사의 올바른 인식 운동을 펴는 한편 방치돼온 역사유적 발굴작업에 정열을 쏟고 있다. 연기군 향토사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소장 김재봉씨는 일본까지 오가며 써낸 향토사연구논문이 20여편이나 되며 오로지 이 고장 향토사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외길의 향토사학자.
 김씨는 그동안 연기군 동면 다방리 비암사지를 연구하면서 부근에서 찾아낸 석불비상과 조치원읍 서창동에서 발견한 석불비상을 국보급문화재로 지정받는 등 연기군내에서만 석불비상 7점을 찾아내 석불비상문화의 고증체계를 세웠다.
 최근엔 산성유적조사 발굴에 몰두,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 운주산성을 비롯, 금이성, 이성 등 연기군내에서 백제시대 성지 8곳을 찾아냈고, 그중 운주산성, 금이성, 이성 등 3개 성은 지난 연말 충남도문화재로 지정됐다.
 동국여지승람에 유일하게 운주산성기록이 나오지만 오래전에 폐성된 것임을 기록했을 뿐 축성 연대를 알리지 않았습시다. 다만 5천여척이 된다는 기록만 남아있어 비록 오래된 성이지만 규모로 보아 비중이 대단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고 김씨는 설명한다.
 김씨가 향토사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부터...(후략)...

[경향신문] 1991년 3월 22일

- 폐놀방류 계속되고 있다 오염소동속 15개업체서 하루 5톤씩 환경행정 부재드러나 연기서도 수돗물 악취
 ...(전략)...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노장산업단지 입주업체인 동성고분자에서도 최근 글리세린과 알콜 등이 함유된 폐수 5톤이 조천으로 유출돼 연기군 조치원일대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 주민들이 고발했으나 행정당국은 뒤늦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후략)...

[경향신문] 1991년 8월 27일

- 폐수찌꺼기녹화도 돕고 돈도 벌고 대전하수처리장의 일석이조 탈수거처 조경자재 원료로 납품 연간 천만원수입...매축난 해결도
 종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찌꺼기가 돈이 되어 지방재정에 큰몫을 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훼손된 자연경관 복원과 홍수방재시공자재 원료로 납품해 연간 수억원씩 소요되는 매축비용 절감은 물론 세제곱미터당 5천원씩 폐수찌꺼기 판매수익까지 올리고 있는 곳이다.

대전직할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소장 윤석정, 53)가 바로 그곳.

침전조 바닥에 가라앉아 쌓이는 하수 찌꺼기를 탈수 가공하여 조경 및 녹화사업 전문업체인 에텐녹화산업 연기공장(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암리)에 세제곱미터당 5천원씩 조경자재 및 수방자재 가공원료로 납품하고 있다.

연간 1천2백여만원의 세외수입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주민반발 등 매축장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연간 2억~3억원씩의 예산을 낭비해야하는 별도 처리비절감효과가 더욱 중요한 것.

에텐녹화산업(서울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은 국토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관 훼손지 등 대형 토목공사장 주변 조경 및 녹화사업 전문업체.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암리에 자재생산공장을 짓고 대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납품되는 폐수찌꺼기를 원료로 녹화 및 조경사업 시공자재를 만들어내고 있다...(후략)...

[경향신문] 1991년 9월 15일

- 무의탁 암환자 구명온정 의료봉사단이 찾아낸 말기중상.. 이웃사촌들 합심마을운동으로 추진. 충남연기군 전동면 주민병원서도 감복 무료진료 쾌히 승낙

요즘 서울 강남성모병원 산부인과 병동에는 오갈데 없는 50대 암환자의 구명이야기로 조용한 화제의 꽃을 피우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2일이 병원 6004호실에 입원한 박○○씨(56), 산부인과 병동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들은 물론 박씨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 보호자들 모두가 박씨가 이 병실에 입원하기까지의 사연을 듣고는 뜨거운 이웃사랑을 느꼈다.

수년전부터 시골 벽지마을을 찾아다니며 순회 무료의료봉사활동을 벌여온 강남 성모병원 의료봉사단은 지난달 여름휴가철에도 충남 연기군 전동면 주민 5백여명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벌였다.

단순한 진찰행위와는 달리 이 병원의 의료봉사단은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임상병리과 등 종합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혈액검사 간염 및 간기능검사, 부인암검사 등을 체크, 진료결과를 자세히 알려준은 물론 치료약까지 전달해 진료한 벽지마을 마다 큰 환영을 받았다.

지난달 연기군 전동면 주민들을 진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진료한 5백여명의 주민들 중에서 박○○씨를 진찰하던 산부인과팀의 김진우박사는 깜짝 놀랐다. 박씨의 상태가 자궁암 말기로 이미 암세포가 깊이 퍼져 있음을 알았던 것. 박여인 자신도 병명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병세가 깊은 줄을 몰랐다.

연기군 전동면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고향마을을 벗어나 본 일이 없는 토박이인 박씨는 남편과 함께 밭일 등의 날뎠을 팔며 살아왔는데 3년전 남편이 병으로 죽고 하나뿐인 딸자식마저 기출하자 오갈데 없는 외톨이 신세로 전락했고 병마까지 시달리는 비참한 신세가 됐다. 없는 형편이라 변변한 치료조차 못받고 있는 터에 이번 의료봉사단의 진찰을 받고 자신의 병세를 알았으나 막대한 치료비용 때문에 아예 삶을 포기해야만 했다.

의료봉사단이 다년간 후 이런 박씨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자 전동면 주민들은 생명이 꺼져가는 박씨가 치료나 제대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수십년을 같은 마을에서 산 사람들의

도리라며 구명운동에 나섰다. 인추협(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연기군지부(지부장 박종민)에서 10만원 그리고 전동면(면장 전병훈) 직원들이 30만원 등 농민들의 땀이 든 귀한 성금이 모여졌으나 수술비 및 입원비용 등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마을주민 모두가 모여 대책을 숙의했으나 별 빠른 수가 없었다. 그러자 주민들 중 누군가가 의료봉사활동오신 의사선생님께 인술에 호소해보자고 제의했다. 마을주민들의 박씨 구명호소를 전해 받은 강남성모병원 산부인과 김진우박사는 깊은 인간적 고민에 빠졌다. 치료비용은 물론 부족한 병실 등 병원사정을 잘 아는 탓에 이 병원 사회사업과와 상의했다.

의사 김씨의 머리 속에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나 순박하기만 한 모습의 박씨가 떠올랐고 그의 사정을 그대로 전했다. 어떻게든 시골의 박씨를 병원에 데려와 정밀 진단을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9월 2일 박씨가 입원하자 전동면 주민들은 복숭아 2궤짝을 들고 병원을 찾아왔다. 의사, 간호사들과 전동면 주민 그리고 이웃 병실의 환자과 보호자들도 이 사연을 전해 듣고 뜨거운 이웃사랑과 인술에 눈시울을 적셨다. 박씨는 그 독한 항암제 주사를 맞으면서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고 희망찬 투병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병원의 사정상 박씨가 시한부치료로 끝나지 않을지 의사김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전동면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1년 11월 10일

- 농민은 제값받고 소비자는 믿고 산다 농축산물 직판장 인기 대도시 2백 80곳에 설치 마진줄여 시중보다 10~15%싸게 팔아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문을 열기 시작한 서울 등 대도시의 농축산물 직판장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같은 생산농어민과 도시소비자간의 직거래는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유통경비와 중간 상인의 마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우루과이라운드파고에 대응한 자구책을 마련해 갈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농축산물 직판장은 각 지역단위 농협이 개설한 5개소외에도 각 군단위 농어민후계자회가 운영하는 6개 상설직판장, 수협의 5개 수산물직판장, 축협의 자회사인 한국축산유통의 2개직판장과 서울 축산물공판장의 직매점 2백80개소 등이 있다. …(중략)… 충남 연기군 전동면 농어민 후계자들이 잠실본동 지하철 2호선 신천역옆에 설치한 직판장의 잠실주공아파트5단지 주민들과 직거래 해오고 있는 쌀만해도 매달 평균 4백50가마씩 팔려나가 전동면 농민들의 생산량만으로는 공급을 감당키 어려워 인근지역 농민들로부터도 쌀을 구입, 위탁판매할 정도라는 것.

판매가격이 시중가 12만5천원보다 15%가량 싼 11만2천원선인데다 전화주문(90%가량)에 따라 직접 배달해 줄뿐 아니라 품질을 믿을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채소와 각종 양념류 버섯 등의 특산물을 그때 그때 직송해 와 상품의 신선도가 높아 소비자 들이 즐겨 찾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실정은 다른 직판장의 경우도 비슷해 몇몇 직판장에서는 미리 예약을 받고 물건을 팔고 있다.

[경향신문] 1992년 2월 3일

- 인정이 모여 암도 녹였다 인추협주선 무의촌촌부구명 무료수술로 새삶찾아 이웃들이 상경간 호도

남편과 딸자식을 잃고 혼자 쓸쓸히 죽음만을 기다리던 농촌의 50대 자궁암 말기환자가 인간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주위의 극진한 정성으로 기적처럼 소생,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강남성모병원 입원실에서 이제는 죽음이 아닌 퇴원을 기다리는 박○○씨는 설날을 맞아 병문안을 온 고향 사람들을 맞으면서 새로 주어진 삶을 설계하느라 마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늙은이 하나 살리려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애썼습니다. 모든 분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죠”

박씨가 이 병원에 입원한 것은 6개월여전인 지난해 9월 2일.

무의촌 무료진료활동을 벌이던 중 박씨가 자궁암3기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된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인추협 회장 김부성)가 전동면 이웃들과 병원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만들어낸 기적의 첫발이었다.

이미 박씨는 이미 다른병으로 대전모병원에 갔다가 자신이 가망없는 자궁암말기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인추협의 그같이 분주한 노력들이 고마울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다. 박씨로서는 설사 살아날 가망이 있다하더라도 암치료에 드는 엄청난 치료비를 날품과는 처지에 무슨 수로 감당하겠느냐는 둔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전동면장 전병훈씨, 전동면 부녀회장 김명숙씨 등 이웃들은 연기군인추협지부(지부장 이영만)에 “사람하나 살릴 길 없겠느냐”고 호소했고, 인추협은 김부성회장이 과거 원장으로 있던 강남성모병원(원장 김승조)에 “인간사랑의 정신으로 한번 해보자”고 제의, 흔쾌히 무료진료승낙을 얻어냈다.

이때부터 병원측은 김원장의 직접 지시아래 항암제투여, 방사선치료 등 수술에 앞서 다원복합요법에 들어갔고 전동면주민들은 복숭아 수확상자를 들고 상경, 병원진료진들에 돌리며 격려했다.

김부녀회장 등 주부들은 1~2명씩 서울과 연기군을 교대로 오르락내리락하며 직접 박씨 간호를 맡았다.

박씨는 3차 항암제치료를 받은 뒤 지난달 15일 김원장의 집도로 수술을 받아 오는 10일쯤 퇴원할 예정이다. 박씨의 귀향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인추협과 연기군 주민들은 박씨의 안정된 새삶을 돕기 위해 벌써부터 쌀모으기 등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박씨가 4년전 남편과 사별한데다 지난해 7월에는 하나밖에 없는 딸마저 가출, 혼자 남의 집 농사를 거들어 주며 사는 발한땀기없는 딱한 처지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1992년 3월 16일

- 정신병자 27명탈출 연기 송현원서, 18명은 붙잡아
15일 하오 2시 30분쯤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산19 정신요양시설 송현원(원장 노재중, 50)에서 요양중이던 김영조씨(35)등 정신질환자 27명이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직원들을 때려 실신시킨 뒤 송현원 뒷산을 넘어 서면쪽으로 집단탈주, 김씨등 18명은 경찰에 붙잡혔으나 흥기와 몽둥이를 가진 조순천씨(30)등 9명은 이웃 서면 예비군 사격장쪽으로 달아났다. 직원 조은구씨(44)에 따르면 이날 하오 2시쯤 식사를 마친 김씨 등이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고춧가루를 직원 3명의 눈에 뿌리고 의자 등으로 마구 폭행한 뒤 열쇠를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마을 뒷산 등을 수색, 김씨 등 18명을 붙잡고 이씨 등의 도주로를 따라 추적하고 있다. 송현원은 지난 86년 12월 1일 문을 연 사회복지법인으로 수용건물 2동과 식당 등 3동의 건물에 2백 8명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2년 5월 1일

- 경부고속전철 주요 통과지
...(전략)...연기군 전의면 전동면...(후략)...

[동아일보] 1992년 9월 7일

- 사실로 확인된 관권개입 한전군수 폭로 검찰수사 점검 금품살포 선심공사 유권자파악 등 밝혀 전국적 현상 가능성...대선 공정성 쟁점화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부정선거폭로내용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조직적인 금품 살포 등 한씨 폭로내용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연기군의 경우 지난 3·24총선 당시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금품이 뿌려졌고 공무원들이 각종 선거정보문건을 작성, 유권자 동향 등을 파악했으며 국가예산으로 선심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3·24총선이 광범위한 관권개입하에 치러졌으며 특히 야후보간의 치열한 접전지역, 여당후보가 불리한 지역에서 관권개입이 더욱 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어 3·24총선의 부정시비는 물론 대통령선거에서 관의 공정성 문제가 정치쟁점화 될 것이 분명해졌다.
검찰은 이번주중 한씨에 대한 소화조사와는 별도로 도청직원들을 소환, 도청에서 연기군에 보낸 이른바 선거지침서 등에 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중략)...검찰조사결과 나타난 연기군의 부정선거 실패는 다음과 같다.
불우이웃돕기 자금살포 ...(중략)... 검찰조사결과 불우이웃돕기자금은 ...(중략)... 전동면에 57만원 ...(후략)...

[동아일보] 1993년 6월 22일

- 장교부인들 산업단지서 구슬땀 “3D기피풍조 깨겠다” 집단취업 1년넘어 연기군 모터조립공장 “생산성 향상”희석

육군충룡부대의 고급장교부인들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산업단지의 부품조립 공장에 취업, 생산현장에서 기름때를 묻혀가며 값진 땀을 흘리고 있다.

거의 대부분 대학출신인 영관장교부인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생산직 기피풍토에 따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업체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년 3월부터 충남 연기군 전동면의 노장산업단지내 모터조립공장인 지남엔지니어링(대표 김종국)에 홍미옥씨(40, 대대장 부인)등 13명이 취업했다.

선풍기모터의 부품인 스테이터를 조립생산하고 있는 이 공장은 장교부인들이 취업하기 전에는 1백명의 근로자가 필요한데도 70여명밖에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들이 취업한 후 작년 5월부터는 제품 불량률도 3%에서 1%로 떨어지고 생산성도 30%나 상승했다. 이 회사 윤종호 생산부장(41)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능동적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의 작업능률이 훨씬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교부인들은 일반상용근로자와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월 30만원~40만원씩 받아 가정살림에도 보탬을 주는 한편 불우이웃돕기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장교부인회는 작년 11월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지역내 소년소녀가장 10명에게 각각 10만원씩 1백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연말연시에는 양로원, 육아원 등에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교부인회장 홍미옥씨는 “산업현장에서 살피볼 때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인 이른바 3D 기피현상이 뚜렷해 우리 경제 현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시민의식마저 상실돼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부인회에서 하는 일이 한국을 치유하는 작은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1994년 6월 22일

- 대우건설 경부고속철 천안구간 터널굴착 첨단장비로 안전시공

21세기 산업의 대동맥이 될 경부고속철도, 대우건설부문이 시공하는 충남연기군 전의면 대곡리와 전동면 청송리의 8.88킬로미터 구간은 터널 2개, 교량 5개 등을 포함한 대표적인 난공사로 첨단장비를 동원한 기계화 시공의 대표적 현장을 꼽는다.

이 공사는 지난해 영국의 터널 전문잡지인 머플스에 소개되기도 해 화제를 모았다. 이 잡지는 아시아 리뷰 코너에서 대우의 천안고속철도의 시공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면서 현장소장과 콘크리트 타설 모습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대우의 천안고속철도 현장은 터널의 기계화 시공, 현장의 안전관리 등으로 공사초기부터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최근에는 파키스탄 근로자들이 연수과정으로 이곳에 파견돼 기술전수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우는 수평, 수직장치가 부착된 점보 드릴 등 첨단장비에 의한 암반굴착과 로봇에 의한 숏 콘크리트 타설, 첨단기기를 이용한 굴착단면측량과 터널계측 등으로 기계화 시공을 하고 있다. 오는 95년 12월에 완공될 이 현장은 현재 12%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계화시공과 함께 완벽한 안전관리로 무재해 1백만시간에 도전하는 현장이기도 하다. 안전관리 노력으로 93년

에는 매일경제신문사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산업안전보건건설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이 공사는 길이 4천20미터의 운주터널과 1천4백80미터의 고등터널을 건설해야 하며 최대교각 높이가 28미터인 장대고가 교량 등이 포함돼 안전관리 위험이 높은 것이 특징, 시공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계화를 도입한 것이 가장 관심을 끄는데 특히 산재비율이 높은 터널 굴착 공사를 기계화해 안전도 제고와 함께 정밀 시공에 역점을 쏟고 있다.

막장에서 가장 위험한 공정인 천공작업만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팔이 4개 달린 로봇(점보 드릴)이 맡고 있다. 이 로봇의 팔은 수평과 수직이 자동으로 조절돼 정확한 천공작업을 수행하며 나머지 1개의 팔은 뚫린 구멍에 폭약을 장착한다.

천공을 폭파한 후에 생기는 버럭처리도 페이로더와 덤프트럭을 사용해 자동화했다.

[동아일보] 1994년 7월 3일

- 고속철 건설현장 방문

김영삼대통령이 2일 충남연기군전동면의 경부고속전철 운주터널 건설현장을 방문, 건설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4년 7월 3일

- 대역사 직접챙길터

김영삼대통령은 2일 낮 충북청원군강외면 고속철도 중부건설공사사무소를 방문, 제11차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이어 충남연기군전동면 운주터널공사현장을 시찰.

회의 중 김대통령은 최종현 전경련회장 등 경제인 5명을 지명,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방안을 물었는데 이들은 “절대 농지와 그린벨트가 너무 많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최회장) “중국시장을 생각해 신항구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구평회 무역협회장)고 건의.

참석자들은 또 “중소중견업체끼리의 합작투자도 가능하다”(박상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 주도권을 쥐야한다”(양수길 교통개발연구원장) “정부와 민간의 분업체제와 상호보완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한다”(박영철 신경제전문위위원장)고 주문.

김대통령은 귀경도중 전용열차안에서 수행기자단과 만나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자주 찾아 직접 대역사를 챙기겠다”며 “내 임기중에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한다해도 20~30년 앞을 생각해 공사를 튼튼히 해야한다”고 강조.

[매일경제] 1994년 9월 14일

- 농어촌 지하수개발 20개 읍면확정 추경예산 270억 투입 96년완료

환경처는 13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일환인 지방상수도 개발과 관련, 올 추경사업 대상 지역을 20개 읍면으로 확정해 각 시도에 통보했다.

이들 20개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의 총용량은 1일 10만톤 규모, 급수대상 인구는 27만여명이며 올 추경예산 2백70억원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개발을 올해안에 시작해 지역별로

내년부터 96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환경처는 또 농어촌특별세를 이용한 2004년까지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0개년계획중 환경처가 맡고 있는 지방상수도 사업비가 4천억원으로 잠정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4백억원을 투입, 10곳을 추가로 개발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중략)...충남=연기군 전동면...(후략)...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1994년 10월 7일

- 미군헬기추락 5명 사망 충남연기 비행중 고압선 걸려
6일 오후 7시 50분쯤 충남 연기군 전동면 청람리 조천천에 미 공군전투 비행단 소속 유에이치 160헬기 1대가 추락, 미군탑승자 5명이 모두 사망했다.
경찰은 저공비행을 하던 헬기가 하천위를 지나는 고압선에 걸려 추락한 뒤 화염에 휩싸였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사고헬기가 야간훈련 중 고압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매일경제] 1995년 1월 1일

- 단군이래 대역사
올해년 새해를 여는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소재 노장1교 건설현장. 올해부터 교각위에 상판을 올리기 위해 최첨단장비인 이동식 거푸집을 설치했다.

[동아일보] (매일경제) 1995년 3월 15일

- 경부고속철 운주터널 관통
경부고속철도 천안~대전 구간 길이 4킬로미터의 운주터널이 착공 2년 4개월만에 14일 관통됐다. 충남 연기군 전의면과 전동면 일대를 지나는 이 터널공사에는 4백30억원이 투입됐다.

[매일경제] 1995년 5월 19일

- 유나이트제약연구소 설립 충남 연기에 1천300여평 규모
항암제 생산업체인 한국유나이트제약(대표 미덕영)이 부설중앙연구소를 설립한다.
한국 유나이트제약은 최근 충남 연기군 전동면에 오는 9월말 완공예정으로 대지 1천3백평, 건평 2백50평 규모의 중앙연구소건설에 나섰다 밝혔다.
이 연구소는 앞으로 항암제의 생선기술을 자체개발하고 항암제를 만들기 위한 신물질합성에 관한 연구를 맡기로 했다. 또 순환기약물과 각종 의약품의 제형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약개발의 전담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다.
한국유나이트제약은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박사2명을 포함, 12명의 연구인력을 내년까지 20명으로 확충하고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첨단 연구기자재를 들여올 계획이다.
지난 87년 설립된 이 회사는 그동안 항암제 생산기술을 자체개발해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원료

로 항암제 완제품을 생산, 내수시장과 증남미시장에 판매했으며 올해 1백20억원의 매출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경향신문] 1995년 8월 28일

• 한포기라도 더...

나흘간 계속된 집중호우가 그치자 27일 아침 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들녘에서 농부들이 폭우로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 참고문헌

『한민족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자료집』, 『독립운동사』, 『개벽』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중외일보》

《매일신보》

『朝鮮總督府官報』

네이버 디지털 뉴스아카이브(<http://dna.naver.com>)

집필 :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제3장

전동면의 전통문화

제1절 민간신앙

제2절 세시풍속

제3절 구비전승

제1절

민간신앙

1. 동제

이 글에서 살펴본 전동면의 동제는 10여 사례이다. 이 가운데 가장 우위를 점하는 동제의 예는 산신제이다. 이 외에 등구나무제, 거리제, 미륵제와 같은 소수 사례가 전한다. 그런데 이러한 동제의 예는 전반적으로 쇠락의 면모를 보여준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활력적으로 제의가 전승되던 것이 2010년에 이르러 쇠락하거나 단절된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쇠락이나 단절의 양상은 무엇보다 제의주체(제관 등)의 고령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의를 주도하던 인물이 사망하는 등의 연유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동제의 제의진행은 대부분 유교제례의 형식을 받고 있다. 곧, 현주·고축·배례의 형식을 기본으로 소지올림이 덧붙은 형태가 지배적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석곡리의 사례는 토속신앙적 면모가 나타난다. 석곡리의 경우 국사봉 산신을 대상으로 먼저 치제하고 동서남북 네 방위의 신들을 대상으로 각각 4배를 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토착신이라 할 방위신을 대상으로 마을의 안정과 풍요를 받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 전동면 동제의 사례를 옮겨놓았다. 심중리와 노장리, 석곡리, 청람리를 중심으로 기록하였고, 제의목적, 일시, 제관선정과 금기, 제장과 신물(神物), 제물과 비용, 제의전개 등의 소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심중2리의 등구나무제와 거리제

(1) 등구나무제

심중2리의 동제는 등구나무제이다. 등구나무의 수종은 느티나무인데 마을 가운데 우뚝 서 있다. 1996년 11월에 보호수로 지정된 이 나무는 지정 당시 “수령이 250년, 수고(나무 높이) 17미터, 나무둘레 6.1미터”였다. 이처럼 심중리의 느티나무는 보호수인 동시에 마을 주민들에 의해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목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심중리 동구나무제의 유래는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시원이 정확치 않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에도 존재하던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동제와 관련된 마을문서는 전하지 않는다.

동구나무제는 매년 정초에 길일을 정하여 지낸다. 제관을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제를 주도하도록 한다. 제의에서는 마을의 평안과 개개 가정의 안정, 풍농을 기원한다.

예전에는 동구나무제를 지내기 위해 그 비용을 각 가정에서 거두었다. 1970년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쌀 한 봉투 또는 한 되를 거두어 그것으로 제물 비용을 삼았다. 그러다가 8~90년대에 이르러서는 가정에서 1만원을 거두어 동구나무제를 지냈다. 이후 2000년대에 와서는 마을의 동계자금을 가지고 제의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제물은 돼지머리, 떡 한 시루, 삼색실과, 북어포, 막걸리 등이다. 이들 제물을 동구나무 앞에 진설해 놓고 제를 지내는 것이다. 떡시루 한 가운데에 불백기쌀을 놓고 그 가운데에 초를 꽂아 불을 밝혀놓았다. 그리고 북어는 떡시루 좌우의 손잡이에 북어의 머리가 위로 가게 하여 꽂아 놓기도 한다.

동구나무제는 저녁 6시경에 지내기 시작하여 30분 전후의 시간 동안 진행된다. 제물 진설 이후 제관이 앞으로 나아가 현주 배례하고, 축관이 독축한 뒤 제관 이하 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재배한다. 이후 술을 올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 현주 배례한다. 이처럼 현주 배례 후에 소지를 올린다. 목신소지나 대동소지는 제관이 올리고 마을주민들의 소지는 개개 주민들이 직접 소지종이를 받아 올린다.

이렇게 제사를 마치고 나면 마을의 풍물패들이 풍장을 치며 동구나무 주위를 돈다. 연후 제사 지낸 음식을 음복하며 덕담을 나눈다. 한편 동구나무제는 마을 인근 암자의 스님이 참여하여 염불축원을 해주거나 제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2) 거리제

앞에서와 같이 동구나무제를 지내고 난 뒤 거리제를 지낸다. 거리제장은 대로에서 마을로 이어진 입구이다. 이곳에는 특별한 표지가 없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거리제는 과거 동제가 아닌 개인제로 지내던 제의라고 한다. 곧 주민 가운데 거리제를 지내고자 하는 인물이 마을 입구인 세 갈래 길에 나가 제물을 차려놓고 고사하던 예가 오늘날의 마을 거리제가 된 것이다.

“거리제는 우리 시어머니가 자손들 잘 되게 해 달라구 사뭇 하더라구. 시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했지. 자손들 차갈구 잘 다니게 해달라구 해마다 ‘길대장군! 길대장군! 길대장군!’ 부르고, 부정사발에 고춧가루, 소금, 만수향 분질러서 넣고, 물 넣어서 한 사발 해서, 둘러서 내버리고, 잘 되게 해 달라구 절하구, 축원하구 그러지. 우리 자손이 차 끌구 천 리 만 리 땡기더라구 잘 땡기게 해 달라구 절하구. 막걸리 잘 뷔서 내빌구, 또 뷔서 놓구, 내빌구 그러지. 뭐.”

위 지문은 심중리 박씨의 구술이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가족의 무탈함을 위해 하는 일련의 고사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였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자신이 역시 제물을 차려 삼거리에 가져

다 놓고 치성을 드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거리제의 전통이 지금은 마을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곧 삼거리에 상을 놓고 과일, 막걸리, 포, 잡곡밥, 찬류, 된장, 사탕 등을 차려놓는다. 밥은 큰 그릇에 수북하게 퍼 놓는다. 그리고는 이 밥 그릇에 수저 7개를 꽂아놓는다. 이처럼 많은 수저를 꽂는 것에 대해 제보자들은 거리의 잡신들이 두루 먹으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처럼 진설이 이루어진 뒤에 제주와 마을 주민들이 현주한 뒤 재배한다.

2) 노장리 중노장의 산신제

노장리의 산신제는 1975년 무렵에 시작되었다. 당시 마을의 젊은이들이 이유 없이 사망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어느 해인가는 한 해에 몇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마을이 뒤숭숭하던 차에 풍수를 아는 인물이 “동네에 악상이 자주 나는 것을 보니 산제를 지내야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에 당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산제시행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의견을 모아 산제를 지내기로 하였다.

이 무렵 중노장 마을에서는 상수도 공사를 위해 마을의 뒤편 야산을 파헤치는 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물탱크를 가설하여 놓았다. 요컨대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마을에 불행한 일이 반복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암암리에 상사의 반복이 “산을 건드려서 그렇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던 차에, 행인의 산제 권유를 수용하여 산신제를 지내게 된 것이다.

중노장의 산신제는 매년 정월 초사흘에서 보름 사이의 길한 날을 잡아 시행하였다. 산신제를 주도하던 인물은 이승제(남, 1944)씨로 그가 천세력을 보아 산제 길일을 정하고 아울러 동민 가운데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을 정하였다. 곧 제를 주도할 유사를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제사를 수행하게 한 것이다. 유사의 역할은 제물의 준비와 제를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제장은 현 마을 뒷산의 산기슭에 위치한다. 곧 마을의 물탱크 상부에 평평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를 시행해 왔다. 제단은 직사각형 형태이며 흙을 돌아 만들었다.

제물은 돼지머리, 떡 한 시루, 밤, 대추, 사과, 배, 꽃감, 복어, 술 등이다. 떡시루 한 가운데에는 초를 꽂은 불백기를 놓는다. 제단의 전면에는 향불을 피워놓는다. 이렇게 제물이 준비되면 제관이 단 앞에 나아가 강신 후 헌작한다. 이후 사고지를 가지고 소지를 올린다. 유사가 마을을 대표하여 만동소지를 올리고 나머지 제사에 참석한 개인들이 자신의 소지를 올린다. 곧 제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각자의 가정을 위해 축원을 하는 것이다.

제의 초기에는 마을에 거주하던 만신이 제사를 보조하였다. 유사의 현주 배례가 있는 이후 만신이 징을 치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축원하였다. 그러다가 만신이 이사를 가면서 유사를 중심으로 산신제를 거행해 왔다.

아울러 중노장의 산신제 금기 또한 엄격하였다. 유사는 비린 것을 먹지 않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각별한 근신생활을 하였다. 문 밖 출입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목욕을 하여 부정 감염을 피하였다. 마을 주민 또한 조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 산제 시행 시에는 사흘 동안 마을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금할 정도로 엄격한 금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출입금지 금기를 하루로 단축하였다. 마을 사람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출입금기를 단축한 것이다. 이 외에

제의 비용은 10~15만원 정도인데 마을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중노장의 산신제는 2009년을 끝으로 단절되었다. 산신제 시행 이후 마을에 불상사가 사라졌고, 그런 가운데 30여 년 동안 제의가 지속되었다. 이처럼 마을이 안정을 찾고 또한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의시행에 대한 절박함이 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으로 주민들의 산신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되면서 제의가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이승제(남, 1944), 노장리]

3) 노장리 이목동의 산신제

노장리 이목동은 상노장의 북쪽 골짜기에 위치한 자연마을이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정초에 산신을 위하는 제사를 지낸다. 산제에서는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한다.

제관과 공양주는 마을 주민 가운데 깨끗한 사람을 가려 정한다. 여기에서 제관은 산신제 전반을 주도하는 인물이고, 공양주는 제물을 맡아 재료구입, 조리, 운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의 수행을 위해 제당으로 갈 때에도 이들이 중심이 된다. 공양주가 지계에 제수를 짚어지고 올라가고 나머지 소품을 제관 등이 가지고 이동한다.

제의는 분향, 강신, 헌주, 배례와 같은 순으로 진행된다. 공양주와 제관이 제물을 진설한 뒤, 제관이 제단 앞으로 나가 헌주 배례한다. 이처럼 산신에게 공양을 마치고 나면 소지를 올려 다시 한 번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축원한다. 소지는 대동소지를 먼저 올리고 이어 주민소지를 올린다.

이 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지내고 난 뒤 제관과 공양주가 바로 하산하지 않는다. 곧 제장에서 밤을 새운 뒤에 하산한다. 그리고 술항아리를 산제당 한쪽에 묻어놓아 다음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석곡리의 산신제

석곡리는 전통면 소재 국사봉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는 시원이 오래된 산신제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 제보자 이종문(남, 1928)씨는 “몇 해 전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산신제를 지내지 못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제사를 주도할 젊은이들이 마을에 없기 때문이다. 제보자의 말처럼 지낼 사람이 없어지면서 제사가 단절되게 되었다.

석곡리의 국사봉 산신제는 상·중·하석곡리 사람들이 연합하여 지내던 제의이다. 일제강점기에 일인들이 산신제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제사를 지속적으로 지내었다고 한다. 이처럼 한때 역동적이고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던 제의였다.

국사봉 산상의 제장은 별도의 제당이 없고 자연 암반형태이다. 곧 산상에 너른 암반이 있어 이곳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왔다. 그리고 제장의 한쪽에는 사기로 구운 말이 있었다. 말은 다리가 잘려나간 것이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군가가 가져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종문씨는 이 사기로 만든 말의 실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1960년대 이전에는 낫쇠로 만든 말이 있었다고도 한다. 곧 낫쇠로 만든 말을 누군가 가져가자 사기로 만든 말을 구해와 제의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제를 주도하는 인물은 제관, 축관, 공양주 등이다. 제관은 산신제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인물이

고, 축관은 독축, 공양주는 제물을 맡아 준비한다. 이 외에 2~4인의 제원을 두어 이들이 제수의 이동이나 기타 제의수행을 보조하기도 한다. 곧 5~7인 정도가 산신제 수행을 위해 제장에 오른다. 이처럼 석곡리의 제의수행자가 다수인 것은 과거 이 마을에서 산신제 거행시에 소를 잡아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석곡리의 산신제에서 소를 잡아 제물로 사용한 예는 쇠코뚜레에서 확인된다. 이 마을의 산제장은 샘이 하나 있는데 이 샘가에 코뚜레가 20여개 발견되었다. 곧 산신제를 지내면서 소를 잡으면 코뚜레를 버리지 않고 샘가의 나무에 걸어두었다고 한다.

“처음엔 소를 잡아 썼지. 전부 추념해서 그렇게 했어. 쇠코뚜레가 20여개가 되지. 그걸, 한 곳에 쇠코뚜레를 모아뒀어. 중간에 샘이 있는데 거기서 소를 잡았어. (그리고는 쇠코뚜레를) 샘 근처 나무에 죽 걸어둔 거. 때꺼리가 없어두, 빛을 은어서라두 (소 잡는 비용을) 댔지. (예전에는) 성의가 있었어. 그 뒤로다가 어려우니까 돼지를 잡아서 올리고, 나중에는 돼지머리를 썼지.” [이종문]

소를 잡는 관행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소를 잡게 되면 산신제가 끝난 뒤에 고기를 일정하게 분배하고 이것을 각 가정에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고기값을 받아 소 구입비용과 산신제 제물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한동안 지속되다가 주민들의 비용부담과 맞물리면서 돼지의 도축으로 변화되었고, 그 뒤에 다시 머리만 구입하여 제사지내게 되었다.

이 외의 제물로는 떡 한 시루, 삼색실과, 술, 북어포 등이다. 과일은 칼을 대지 않고 씻어서 진설하고, 술은 7~9일 전에 담았다. 향아리에 술밥과 누룩을 넣어 제장의 현장에 담아놓았다가 술이 익으면 떠서 제의 당일 사용하였다.

정월 초사흘과 보름 사이의 길한 날을 정하여 올리는 석곡리 국사봉 산신제는 나름의 독특한 제의진행 형식을 가지고 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먼저 제관과 공양주 등이 산상의 너른 암반에 제물을 진설한다. 이어 제관이 제단 앞으로 나아가 분향 강신을 하고 초헌·독축을 한 뒤 4배한다. 이후 제관은 동서남북의 각 방위에 재배를 한다. 그리고는 대동소지, 제관 및 일행소지, 주민소지, 우마소지를 올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밤 11시경인 자시에 제사를 시작하면 1시간 이내에 제가 끝난다.

제사를 마치면 제관과 그 일행이 제물을 거두어 하산한다. 마을에서는 이들이 머물 거처를 정해준다. 곧 공양주의 집이나 너른 공간을 가진 주민의 집을 정하여 두고 이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정해진 가정에는 마을 주민 2~30명이 미리 와서 제관 일행을 기다린다.

정해진 공간에 제관 일행이 도착하여 제물을 내려놓으면 주민들이 방이나 대청 등에서 음복을 한다. 그리고 희생으로 사용한 소나 돼지를 해체하여 분배 작업을 한다. 고기의 분배를 잘 못하면 뒷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배자는 균등분배에 관심을 두고 고기를 나눈다. 이처럼 고기를 나누고 음복을 한 뒤에 마을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간다.

제보자 이종문씨는 석곡리에 살면서 국사봉 산신제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교통사고 이후 기억력이 떨어지고 거동에 있어서 불편해 한다. 그럼에도 산신제에 대한 그의 관심은 특별하다. 그는 산에 오를 수 있는 기력이 없기에 2010년 정초에 국사봉 산제당을 바라보며 망배하였다고 한다.

현재 국사봉 산신제 관련 문서는 축문 하나가 남아있을 뿐인데, 이 축문을 그가 보관하고 있다. [이종문(남, 1928), 석곡리]

5) 청람리의 산신제

(1) 남포의 산신제

석곡리와 마찬가지로 청람리 또한 국사봉을 주산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석곡리의 반대 방향인 청람리는 국사봉의 서쪽 산기슭에 민가가 늘어서 있다. 따라서 이 마을 역시 석곡리와 같이 국사봉 산신제를 지낸다. 다만 석곡리가 새해의 정초에 지내는 제의라 한다면 청람리는 그 해의 시월에 치제하고 있다.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번영, 농사의 풍작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청람리의 산신제는 그 유래가 오래 된 것이라고 한다. 다만, 유래를 밝힐 만한 문서가 전하지 않아 그 시원을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 마을의 산신제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제의임을 구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신제는 매년 시월 초순에 지내는데, 대개 시월 초사흘로부터 보름 사이의 길일을 정하여 제를 올린다. 그렇지만 산신제 일자를 받아놓고 마을에 상사나 출산과 같은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제사를 연기하여 지냈다.

제장은 국사봉 상봉 아래의 큰 소나무와 그 주변이다. 소나무 아래의 자연제단에서 제를 지낸다. 제장에 이웃하여 샘이 있다. 이 샘은 제물의 준비나 술을 빚을 때 활용된다. 그리고 이 샘 주변에서 희생으로 올릴 소를 잡는다. 이러한 점은 석곡리의 사례와 유사한 것이다.

이처럼 소를 잡아 제물로 삼았던 옛 제물 전통은 석곡리와 마찬가지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돼지로 바뀌고, 또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돼지머리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제물은 옛 모습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 지내기 일주일 전후에 술을 빚고, 밥, 삼색실과, 포 등의 제물을 준비하였다. 이 가운데 밥이나 떡을 찌는 쌀은 서되서흠을 계량하여 사용하였다.

제의 비용은 주민들로부터 각출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각출은 제물로 쓴 고기를 나누어주고 그에 따른 비용을 거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고기는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나누어주었고, 비용 역시 주민들이 동일하게 분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나 돼지 값을 거두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부담 외에 마을 기금을 통하여 제의 비용을 충당하였다.

제주는 제관을 비롯하여 축관, 멧고양주(매 공양주) 3인이었다. 이 가운데 제관은 산신제를 주도하는 인물이고 축관은 독축을 맡아 하였다. 그리고 멧고양주는 밥을 비롯한 제물 일체를 준비한다. 과거 소를 잡던 시기에는 소의 도축과 해체 등의 역할을 맡은 인물들이 함께 산에 올라가 도축작업을 하였다.

제사는 제의 당일 자시에 지내는데, 보통 밤 11시경에 시작한다. 따라서 저녁 무렵에 제관 일행이 제장에 올라가 주변을 정비하고 밥을 짓는 등으로 준비를 한다. 그리고는 자시에 임박하여 제단에 제물을 진설한다. 이후 자시에 이르면 바로 제를 시행한다.

한편, 이날 마을의 각 가정에서 주부가 떡을 찌 고사를 지냈다. 곧, 산제당에서 자시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 각 가정에서도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장독대 등에 떡시루를 떼어다 놓고 비손

형식으로 고사를 올렸다. 요컨대,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된 산신제에서 동민 전체의 평안과 풍농, 안정 등을 기원한다면, 각 가정의 고사에서는 개개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무사무탈 등을 축원하였던 것이다.

산신제는 길어도 1시간 이내에 헌주, 독축, 소지올림 등의 모든 과정을 마친다. 이와 같이 제를 마치게 되면 제관 일행이 제물을 거두어서 마을로 내려온다. 마을로 내려와서는 공양주의 집이나 마을회관 등에 음복할 장소를 정하고, 이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음복을 한다.

과거 청람리의 산신제는 주민들이 일심으로 정성껏 지내오던 제의였다. 산제 당일에는 마을 입구에 금줄을 쳐서 외지인의 출입을 금하고 부정을 쫓았다. 제관의 집 앞에 황토를 놓아 역시 부정을 차단하려 하였다. 이처럼 산신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성도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점차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곧 마을 주민 다수가 고령이 되면서 역동적으로 제를 주도할 인물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의 여건으로 1990년대 말부터 제의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김교석(남, 1919), 청람리]

(2) 청미의 산신제

청람리 청미의 산신제 또한 남포의 산신제와 유사하다. 매년 10월 초순의 길일을 정하여 산신제를 올렸었다. 제의 준비와 진행 양상이 앞의 남포와 유사하다. 그곳은 두 자연마을이 이웃하여 있으면서 상호 영향관계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다만 이 마을의 산신제에서는 떡을 올리지 않고 밥을 지어 올리는 면을 볼 수 있다. 역시 제물로 고미하지 않은 수퇘지를 도살하여 올렸음도 보인다. 남포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개개 가정에서 산신제에 맞물려 시루를 놓고 고사하였음도 나타난다. 부연하면, 제장에 올라간 제관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산신제의 시행을 햇볼로 알려준다. 그러면 이를 시점으로 마을의 주부들이 떡시루를 떼어 마당 등으로 가지고 나온다. 시루를 놓을 자리에 짚을 열십자로 깔아놓고 그 위에 시루를 위치시킨다. 그리고는 시루 앞에서 큰절이나 비손을 하는 등으로 치성을 드린다.

6) 미곡리의 동제

(1) 무수골 산신제

미곡리 무수골에서는 마을의 평안과 농사의 풍년 등을 목적으로 매년 양력 2월 중 길일을 택하여 산신제를 지낸다. 제당은 마을 뒤편의 운주산 산기슭이다. 이곳에서 운주산 쪽을 향하여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제의를 주도하는 인물은 운주산의 산주들이다. 물론 주민들도 제의에 참여하지만 이들이 중심이 되어 산신제를 수행하고 있다. 제물은 떡 한시루, 실과, 포 등이다. 제의진행은 헌주, 배례, 도축, 소지올림의 순이다.

(2) 미륵당이 미륵제

미륵당이 마을은 운주산 서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에는 미륵불로 돌미륵 2기가 있다. 이 미륵은 마을이 형성되기 전에 연못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 곧 연못에 미륵이 떠 있던 것을 모신 것이라는 유래담이 전한다.

이런 연유로 마을 사람들은 돌미륵을 신성시한다. 따라서 이 돌미륵을 마을 신으로 상정하고 매년 같은 시기에 치제를 한다. 제의 일은 정월 열나흘인데 이날 떡 한시루, 실과, 포 등의 제물을 진설하고 미륵불을 위한다.

(3) 수구동 산신제

수구동은 운주산의 산기슭이자 무수골의 남쪽에 이웃한 마을이다. 이 마을 역시 과거 산신제를 지냈었다. 수구동 산신제는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목적으로 제를 지내왔는데 오래 전부터 단절되어 전승되지 않고 있다.

산신제가 온전하게 지속되던 무렵에는 산기슭에 산제당을 두고 제의를 지냈었다. 그런데 제의 지속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면서 제관을 마을 주민들이 돌려가며 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제의 자체가 점차 쇠락하게 되었다. 이처럼 제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수구동의 산신제는 단절되었다.

(4) 조일말 둥구나무제

조일말에는 마을 주민들이 위하는 둥구나무가 있다. 이 나무의 수종은 느티나무인데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마을을 지켜주는 목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조일말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마을의 부녀자들은 이 느티나무를 대상으로 치성을 올렸다. 그런데 우연한 일로 이 나무를 베게 되었다. 이후 마을에서는 우환이 끊이질 않았다. 이처럼 좋지 못한 일이 마을에서 반복하여 발생하면서 둥구나무를 베어 그렇다고 하는 원성이 일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의 원성이 계기가 되어 1990년 경에 다시 느티나무를 심고 제사를 지내기에 이르렀다.

조일말의 둥구나무제는 매년 정월에 택일하여 지낸다. 제관과 축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생기복덕을 짚어 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제관은 금욕이나 살생과 같은 부정한 일을 피하는 등으로 금신생활을 한다. 제물이나 제의진행은 보편적인 동제의 사례와 유사하다.

2. 가정신앙

전통사회에서의 가정신앙은 가정의 성인 여성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어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고리로 가정신앙이 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신앙의 존재는 대부분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에서의 가정신앙은 이미 찾아볼 수 없으며 시골에서조차

상당 부분 소멸되었거나 잔영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전동면 일대에는 7~80대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몇몇 가정신앙의 사례가 전승되고 있다. 소수의 가정에서 정초고사와 성주나 터주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사례는 심증리나 노장리, 석곡리, 청람리 등 비교적 산간에 위치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가정의 안위와 가족의 건강 및 재복을 기원하던 가정신앙은 소극적 의미에 있어서 주택의 울타리가 하나의 경계가 된다. 그리고 이 울타리 안의 가신(家神)으로 성주, 터주, 조왕, 유헡(용왕; 우물신), 문신, 업신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면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것인데 전동면 지역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는 이들 가신들 대상으로 전동면의 전승사례를 정리한다.

1) 성주

이 지역에서는 주택의 신인 성주를 최고의 가신(家神)으로 인식한다. 성주는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나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나무 가운데에서도 상량에 머무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반자를 하지 않은 전통 한옥에서는 성주를 상량의 위나 주변에 봉안하였다. 그러다가 천장에 반자를 하면서 상량이 감추어지자 안방이나 대청 등의 공간에 성주를 봉안하였다.

전동면 지역의 성주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보인다. 하나는 단지형이고 다른 하나는 한지로 접은 것이다. 전자의 경우 벽의 상부나 시렁 등에 판자를 고정시키고 그 위에 놓아둔다. 단지의 내부에는 쌀을 담아 놓는다. 후자의 경우는 만신이나 법사를 불러 성주굿을 시행하고 성주를 받아 모신다. 한지 성주에는 마당이나 대문 밖에서 받아들인 죽은 나뭇가지, 쌀과 동전, 잡곡 등을 넣어 만든다. 이처럼 죽은 나뭇가지를 꺾어 성주로 삼는 것은 성주신이 상량과 같이 죽은 나뭇가지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한다. 곧, 성주는 산 나뭇가지에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80대의 제보자 박씨는 성주가 가신 가운데 제일 어른신이라고 한다. 따라서 성주신을 정성스럽게 모셔왔다. 정초나 칠석 고사 때에 떡시루를 안방에 떼어다 놓고 비손을 하여 성주를 위하였다. 집안의 안정과 대주의 재물은 자녀들의 건강 등 두루 소망하는 바를 이 성주께 축원하였다고 한다.

2) 터주

터주신은 가정의 울타리 안 대지(垵地)의 신이다. 이 지역에서는 이 터주를 터줏대감이라고 부른다. 터줏대감의 신체는 대부분 단지형태이다. 크기 50센티미터 안팎의 단지에 벼나 보리를 담아 위하였다. 초여름에 보리를 수확하면 키 등으로 정선하여 터주단지에 담았다. 그리고는 장독대 위나 주변 한 쪽에 터주단지를 봉안하고 주저리를 덮어 놓았다. 마찬가지로 가을에 벼를 수확하면 첫 수확한 벼를 담아놓았다. 단지 안에 담아놓은 보리를 꺼내고 그 속에 햇벼를 담아놓는 것이다.

터주를 위하는 때는 성주와 마찬가지로 주부가 고사떡을 찌 때이다. 고사떡은 정초, 칠석, 시월 상달 등에 찌다. 이때 떡시루를 “부엌→터주→성주”전으로 옮겨놓고 비손을 한다. 비손은 주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부연하면, 주부는 터주고사를 위해 맨 먼저 터주단지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리고는 떡

시루를 놓을 자리에 정선한 짚을 깔아놓는다. 이 짚 위에 떡시루를 떼어다 놓는다. 시루 한쪽에는 맑은 물을 한 양푼 가져다 놓는다. 또는 막걸리가 담긴 양푼을 놓는 예도 있다. 시루의 한쪽에 통북어를 놓기도 한다. 여기에 쌀이 담긴 그릇에 초를 쬐고 불을 밝힌 뒤 이 그릇을 떡시루 중앙에 놓는다. 이러한 제물은 가정의 형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제물을 차리고 나면 터줏대감에게 가정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한다. 자녀의 무사함과 건강에 대한 기원 또한 빠지지 않는다.

3) 조왕

부엌의 신은 조왕(寵王)이다. 이 일대에서는 부엌의 신을 보통 조왕님, 조왕대감으로 호칭한다. 조왕신이 머무는 부엌은 불을 통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불의 사용이 일상화된 공간임으로 해서 조왕을 화신(火神)으로 여긴다. 아울러 음식의 조리라고 하는 면에서 조왕신은 식복을 관장하는 신으로 인식한다.

심중리의 제보자 박씨는 맑은 청수로 조왕을 위하였다고 한다. 가족 가운데 어느 일인이 마을 밖으로 출타하게 되면 으레 청수를 떠다 부뚜막의 조왕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무사히 다녀오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지금도 자녀가 찾아오거나 귀가할 때에 남몰래 청수를 떠다 주방에 가져다 놓는다고 한다.

조왕에 대한 고사는 성주나 터주치성 때에 행한다. 곧 가신치성을 위해 떡시루를 찌면 시루를 떼어 부뚜막에 놓고 맨 먼저 조왕전에 비손을 한다. 심중리의 제보자 박씨는 조왕이 식복의 신인 관계로 예전에는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농사가 풍년들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4) 기타 가신(家神)

집안의 여러 처소에는 각각의 신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우물에는 물을 관장하는 유향(용왕)이 있고 곡간에는 곡식을 살피는 곡간신이 머무는 것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출입문의 문신, 화장실의 측간신 등 각각의 처소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가신을 위한 고사를 지내게 되면, 중요 가신에 대한 치성 이후 떡이나 음식을 그릇에 담아 집안의 각 처소에 가져다 놓았다. 요컨대 각 처소의 가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려 한 것이다.

이 외에 구렁이, 두꺼비 등을 업신이라 하여 위하기도 하였다. 특별한 음식을 차려놓고 위하는 것은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이들 동물을 해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구렁이와 같은 업을 보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3. 기우제

전동면 일대의 주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농경을 통하여 생활한다. 논에서는 벼를 수확하고

밭에서는 콩이나 감자, 고추, 깨, 고구마, 무, 배추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한다. 그런데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수리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대부분 하늘에 의지하여 농사를 지었다. 따라서 파종기나 생육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예가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주민들이 합심하여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기우제는 여성들의 사례와 남성들의 사례가 확연히 구분된다. 심중리에서는 1960년대에 여성들이 기우제를 행한 바 있다.

“비가 안 오자 마을 어른들이 상의하여 기우의식을 하게 하였다. 이 의식은 맏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6가구에 맏며느리가 있었다. 이들 6명이 해질 무렵 정자나무 앞에서 기우의식을 하였다. 이 기우의식은 마을의 성인 여성 대부분이 나와 구경하였다. 성인 남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여러 개의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나왔다. 맏며느리들은 솔뚜껑을 뒤집어쓰고 춤을 추었다. 춤을 추면서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돌았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여성들이 양동이의 물을 바가지에 담아 춤을 추는 여성들의 머리 위에 뿌렸다. 물이 허공에 높이 떠올랐다가 솔뚜껑에 떨어졌다. 물이 솔뚜껑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물 뿌리기는 양동이의 물이 바닥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김계순]

75세인 제보자는 자신이 시집와서 살던 25세 무렵에 이와 같은 기우의식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기우의식을 행한 뒤에 비가 왔다고 한다.

“기우제를 더러 몇 번 지냈다. 산제처럼 일정한 날을 가리지 않았다. 비가 안 와서 농사를 질 수 없을 때에 지냈다.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 뒤 산에 올라가서 지냈다. 산제사 지내듯 지낸다.” [이종문]

위 지문은 석곡리 이종문씨의 구술을 요약한 것이다. 그는 과거에 국사봉 산 중턱에서 기우제를 지낸 바가 있다고 하였다. 제사 방식은 산신제와 비슷하였고 제물 역시 돼지머리, 떡 한 시루, 북어 포, 과일, 막걸리 등이라고 하였다.

“요게 운주산이라구 전통면에 젤 높은 명산인데, 구름 운(雲)자 운주산. 그런데 거기다가 묘를 쓰면 가뭄, 비가 안 온다고 그런 소리가 있었구 한디, 크게 가뭄으면 운주산에 가서 기우제 지낸다구 그 소리는 털 어렸을 때 들은 거 같어유. 운주산에 가서 기우제 지냈다구. (가뭄이 들면) 누가 묘이를 썼는게 비다? 그래서 이르케 가뭄비다? 그래서 찾으러 댕기는 그런 얘기 두 있었구.” [이승제(남, 1944), 노장리]

위 지문은 가뭄과 기우제에 관한 일화이다. 제보자 이승제씨는 어려서 들은 운주산 기우제에 대한 일화를 구술하고 있다. 지문에서도 보이듯이 운주산은 이 일대의 명산으로 이름을 얻고 있다. 대개 이러한 명산에는 상봉 등에 명당과 관련된 풍수설이 따르기 마련인데, 바로 이러한 자리에 누군가 남몰래 투장(偷葬)이나 암장(暗葬)을 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투장이나 암장은 가뭄을 불러오는 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지문에서처럼 사람들이 직접 산에 올라가 투장이나 암장된 시신을 찾으러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세시풍속

세시풍속(歲時風俗)은 일년 사계절의 풍속을 말한다. 사계절에 분포된 풍속이 같은 시기에 매년 반복되는 것이 세시풍속이다. 이처럼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되는 풍속은 공동체의 일상생활에 녹아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세시풍속은 사람들의 삶의 경험에서 형성된 문화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체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가 시대를 지속하며 전승되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승에는 변화가 따르기도 한다. 문명이나 문화의 변화에 새로운 세시풍속이 생겨나기도 하고 반대로 풍속 자체가 소멸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세시풍속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오늘날 전통적인 세시풍속은 점차 쇠퇴해가고 있다.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가 범람하면서 전통문화와 그 한 내질인 세시풍속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전통면 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전통 세시풍속 또한 쇠락과 소멸의 도상에 놓여있다. 비록 현실이 어려움에도 여기에서는 전통면의 세시풍속 사례를 정리하려 한다. 기록을 통하여 이 고장의 세시풍속을 확인하고, 이것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문화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1. 정월

새해의 첫 머리를 여는 정월은 한 해의 세시풍속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가 편재되어 있다. 일년 열두 달의 세시풍속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의 사례가 이 정월에 속해있다고 할 정도로 정월은 세시풍속이 흥성한 달이다. 이처럼 다수의 세시풍속이 정월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정월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달인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새로운 해를 열면서 조상에 대해 제사하고 한편으로 가족의 액운을 떨어내며, 새 해의 건강과 행운, 재복, 안정, 풍농 등 다양한 소망에서 풍속이 생성·전승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고 하는 말처럼 더위팔기나 귀밝이술 마시기, 부럼깨기 등을 통하여 그 해의 건강을 꾀하는 것과 같이 우리 민족은 각종 정월 풍속을 통하여 삶의 안정과 풍요를 추구해 왔다.

1) 설

새해의 첫 번째 날을 설, 원단(元旦), 원조(元朝), 신일(愼日)이라고 한다. 이 날은 새해에 처음 맞이하는 날인 까닭에 돌아간 조상님들 대상으로 차례를 지낸다. 차례는 4대조 이내의 조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른 아침에 안방이나 거실에 큰 상을 놓고 떡국을 비롯한 음식을 진설한다. 상의 중앙 전면에는 신위표지로 지방이나 사진을 봉안한다.

제물이 진설되고 신위를 모신 뒤에 바로 차례에 들어간다. 제주가 상의 전면 앞으로 나와 분향강신 한 뒤 자손들이 다 함께 재배를 한다. 이어 제주가 헌주를 하고 재배한다. 차례 때에는 축을 읽지 않고 술을 한 잔만 올리는 예가 지배적이다. 가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예가 보편적 사례로 나타난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세배를 한다. 세배는 직계 가족에게 먼저 행하고 이어 친척을 대상으로 올린다. 곧 조부모, 부모에게 먼저 세배하고 이어서 백·숙부모께 세배한다. 같은 항렬의 사람들과는 나이에 관계없이 맞절을 한다. 이와 같이 세배를 하면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덕담을 한 두 마디 해준다. 세배한 인물이 그 해에 이루어야 할 소망 등을 짚어 그것을 이루어거나 건강한 생활을 하라는 등으로 덕담을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는 세뱃돈을 주기도 한다. 세뱃돈은 돈을 주는 사람의 생활형편이나 세뱃돈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양하다. 보통 1천원으로부터 1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드물게 3만원 이상의 세뱃돈을 준다고 하는 예도 있다.

이어 차례음식을 가지고 아침 식사를 한다. 설날의 아침 식사 주 메뉴는 떡국이다. 속담에도 “이날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할 정도로 설날엔 으레 떡국을 먹어왔다. 이렇게 가족과 친척들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고 나면 조상의 묘를 찾아간다. 성묘는 직계 조상의 묘를 대상으로 다녀온다. 일반적으로 부모나 조부모, 또는 증조·고조부모의 묘를 살피고 온다. 만일 선영이 있어 조상의 묘가 한 곳에 모여 있을 경우에는 그 일대의 조상 묘를 돌며 성묘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조상의 묘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예는 그 사례가 흔치 않다.

성묘를 다녀온 뒤에는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가 세배한다. 이러한 세배문화는 종족마을인 경우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하나의 마을이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기에 성묘 이후 무리를 지어 세배를 다니는 예가 전한다. 비록 종족마을이 아니더라도 1970년대 이전에는 또래가 무리를 지어 마을의 어른 댁을 방문하여 세배하였다. 그러면 그 집에서 차례음식을 차려주기도 하였다.

2) 정초고사와 액막이

정초에 집안의 편안함을 위한 고사풍속이 전한다. 정초고사는 정월 초사흘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고사를 “초사흘고사”라고도 한다. 초사흘 오전에 고사떡 쌀을 계량한다. 가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서되 서홉, 한되 서홉의 쌀을 물에 담가 불린다. 여기에서 삼중리의 제보자 박씨는 한 홉을 한 주먹 정도의 쌀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불린 쌀을 건져내어 절구통에 넣고 뿜는다. 다 뿜은 쌀은 눈이 가는 채로 쳐서 가루만 거르고 이 가루를 가지고 떡을 찐다. 떡의 종류 역시 가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백설기를 찌서 고사하는 예도 있고, 콩을 쪼켜로 박아 떡을 찌는 예도 있다. 어떤 종류의 떡을 찌는가는 그 가정 주부의 기호에 따라 다르다.

떡을 찌면 맨 먼저 부뚜막에 떼어놓고 조왕신께 비손을 한다. 이어 장독대나 터주단지 앞에 떡시루를 가져다 놓고 역시 비손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으로 떡시루를 가지고 와서 성주전에 놓고 성주신께 역시 치성을 드린다. 치성의 내용은 “가족들 일 년 열두 달 건강하고 신수 좋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초사흘 또는 정초 고사는 1970년대 무렵까지만 해도 전동면 일대 다수 가정에서 행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소수의 가정에서만 이와 같은 고사의 사례가 전한다.

삼재풀이나 홍수(홍수)맥이 같은 액막이도 심중리를 비롯하여 전동면 일대에서 다수 이루어졌었다. 대개 액막이는 정월 초사흘로부터 보름 사이에 많이 시행되었다. 간혹 보름을 넘겨 이와 같은 액막이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홍수맥이는 해당 인물의 일 년 운수 가운데 횡재수(橫災數)가 들어 있을 때 하는 주술적 행위이다. 마찬가지로 삼재풀이도 사람에게 닥친 도병(刀兵), 기근(饑饉), 질병(疾疫)이나 화재(火災), 수재(水災), 풍재(風災) 등을 물리치기 위한 주술행위이다. 요컨대, 이러한 액운이 든 인물의 운수를 액막이를 통하여 떨어내서 당사자로 하여금 한 해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액막이는 대개 20세 이하의 젊은이나 청소년들이 주 대상이었다.

액막이는 주로 세 갈래 길에서 이루어진다. 곧 액막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이가 당일 해가 떨어진 이후 삼거리에 나가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비손을 하며 자녀의 액운을 떨어내려 한다. 한 예로 노장리의 서낭당은 정초에 액막이가 끊이지 않던 장소이다. 인근 마을의 여성들은 정월 초사흘로부터 보름 전후 이곳에 나와 자녀들의 액을 막아주기 위해 제물을 차려놓고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심중리의 마을 입구 삼거리 역시 액막이가 이루어지던 장소이다. 액막이의 주체인 주부가 길가에 밥 한 양푼, 된장, 막걸리, 북어를 차려놓고 자녀의 불운 소멸과 운수대길을 소망하였다고 한다.

3) 지신밟기

지신밟기는 각 가정의 터를 밟아주는 정초 풍속이다. 전동면 지역에서의 지신밟기는 정월 보름 이전에 시행되었다. 마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초로부터 보름 사이에 주로 지신밟기를 하였다.

지신밟기는 말 그대로 각 가정의 터를 밟아 지신을 위하는 풍물놀이이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풍물패가 팽과리, 징, 북, 장구를 치며 각 가정을 방문한다. 이들 풍물패는 그 가정의 장독대, 부엌, 우물 등에서 풍물을 치며 돌아준다. 그런데 이 놀이는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지신을 비롯한 가신을 위로하고 그들 가신들로부터 해당 가정의 평안과 운수대길을 예측하는 표현이다. 곧 가신을 위로하여 가신으로 하여금 가호를 유도하는 주술적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풍물패가 가정에 들어가 한바탕 놀아주면 그 가정의 주부가 음식상을 내오기도 한다. 1960년대에 김치찌개나 콩나물국에 막걸리를 얹어 내놓으면 최고의 대접이라고 한다. 여기에 쌀이나 돈을 내놓는 예도 전한다. 가정의 주부가 이들 풍물패를 맞이하면서 한편으로 상 위에 한 양푼의 쌀을 놓고 비손하는데, 풍물패의 지신밟기가 끝나면 양푼의 쌀을 그들에게 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지신밟기의 사례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발견된다.

4) 쥐불놀이

정월 열나흘 저녁에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쥐불놀이를 하였다. 지금은 마을에 청소년들이 거의 없어 이러한 쥐불놀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1970년대 전후까지도 쥐불놀이는 청소년들의 큰 정월 놀이 중 하나였다. 깡통에 세로로 구멍을 내고 철사나 전기줄로 줄을 내어 쥐불놀이 깡통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 깡통 속에 마른 나뭇가지, 광솔조각 등을 넣고 불을 붙여 돌리면 불덩이가 춤추듯 원무를 그리며 허공을 갈랐다. 이렇게 정월 열나흘 저녁에 불놀이를 즐기다가 깡통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허공에 이 깡통을 던졌다. 그러면 깡통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불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쥐불놀이를 하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며 환호를 지르기도 하였다.

노장리의 제보자 이승제씨는 독방에서 주로 쥐불놀이를 하였는데 깡통이 독에 떨어져 독을 온통 태우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 심중리의 제보자 김씨는 아이들이 쥐불놀이를 하다가 눈에 쌓이든 짚가리를 다 태웠다고 구술한다.

5) 오곡밥

정월 열나흘 저녁에 오곡밥을 해먹는다. 오곡은 다섯 가지 곡식을 말하지만 오곡밥을 짓는 재료는 보통 쌀, 보리, 콩, 동부, 팥, 조, 수수 등 여러 잡곡을 섞어 짓는다. 그리고 이날 살림 형편이 나은 가정에서는 떡을 찌기도 한다. 오곡밥의 반찬은 묵은 나물이다. 전 해의 봄부터 가을까지 나오는 여러 종류의 나물을 말려두었다가 이날 물에 불려 조리한다. 심중리의 윤인열씨는 “시래기, 가지, 산나물, 도라지, 고사리, 호박고지, 무나물” 등을 오곡밥 반찬으로 삼았다고 한다.

오곡밥을 흠쳐다 먹는 관습도 전한다. 오곡밥을 얻어먹거나 흠쳐다 먹는 관습은 전통면 일대 어느 마을에나 들을 수 있을 만큼 보편 관행이었다.

“우리들두 여기서 밥, 짬지 흠쳐다가 먹고 놀았다. 옷놀이 하고 화투 치고 하였다. 두 사람이 살살 가서……. 그 집에서 하두 흠쳐가니까 화로를 부엌문 앞에다 놓았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줌니 뭐하셔?’ 하고 말을 걸고, 한 사람은 부엌에 들어가서 소두방을 살짝 열고 밥을 흠쳐가지고 왔다. 그렇게 흠쳐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불러서 맛있게 먹었다. 결혼한 뒤에 한 일이다. 장난하느라구 하였다. 그때는 소쿠리 가지구 다니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밥이나 떡을 거두어서 왔다.” [김계순]

위 지문은 제보자 김계순씨의 구술이다. 그녀는 시집와서 살면서 지문에서와 같이 이웃집의 오곡밥을 가져다 포래의 여성들과 먹는 경험이 있다. 그런데 오곡밥을 얻어다 먹거나 흠쳐다 먹는 사례는 여성보다 남성들이 보다 많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나 청소년들이 오곡밥을 얻으려 다녔다.

한편 정월 보름날에는 밥을 아홉 번 먹고 나무도 아홉 집 해야 잘 산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에 반찬 또한 아홉 가지 나물로 아홉 가지 반찬을 해서 먹었다.

6) 귀밝이술·부럼깨기·더위팔기

귀밝이술은 보름날 이른 아침에 마시는 청주이다. 대개 이 청주는 설을 위해 빚은 것을 남겨 둔 것이다. 곧 이 청주를 차가운 데에 놓아두었다가 이날 이른 아침에 마신다. 이처럼 이날 이른 아침에 맑은 술을 마시면 그 해 내내 귀가 밝다고 한다.

부럼 또한 이날 이른 아침에 깬다. 부럼은 은행, 밤, 호두, 잣, 땅콩과 같이 딱딱한 견과류인데, 이들 부럼을 이빨로 깨면 일년 내내 부스럼이 나지 않고 건강하다고 한다. 따라서 부럼을 준비하였다가 이로 깨고, 맨 처음 깬 것을 마당에 버린다. 뒤이어 깨는 것은 먹어도 좋다고 한다.

역시 같은 날 더위팔기를 한다. 당일 맨 사람을 만나면 그 이름을 부르고, 그가 대답하면 “내 더위! 네 더위!”와 같은 방식으로 더위를 판다. 그러면 자신의 더위를 상대에게 판 것으로 가정한다. 그런데 제보자에 따라서는 더위팔기를 해 뜨기 이전에 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또, 이와 같은 더위팔기로 인해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이도 있다.

이들 풍속은 모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주술성을 바탕으로 한다.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주술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치료법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내면에 무언가를 먹는다고 하는 즐거움을 지니고 있어 오늘날까지 부럼깨기나 귀밝이술 마시기가 전승되고 있다.

7) 소밥주기

보름날 아침에 소에게 밥을 주는데 이것을 ‘소밥 준다.’ 또는 ‘치밥’이라고 하였다. 소밥은 말 그대로 소에게 밥을 주는 데서 유래한 것이고, 치밥은 소에게 밥을 줄 때 키에 밥을 얹어 주기 때문에 나온 명칭이다.

이 일대에서의 소밥은 키에 밥과 나물을 얹어 가져다가 준다. 구유에 밥과 나물이 담긴 키를 가져다 놓으면 소가 이것을 먹는다. 그러면 소가 먼저 먹은 작물이 풍년이 든다고 한다. 곧 밥을 먼저 먹으면 ‘올 해에 벼농사가 풍년 들겠다.’고 하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채소나 밭작물이 풍년 들겠다.’고 점친다. 이와 달리 조상대대로 해온 관습인 까닭에 소밥을 주었다고 하는 제보자도 있다.

8) 가수(嫁樹)

정월 보름날 ‘낭구 장개 들인다.’고 하여 나무의 가지 사이에 길쭉한 돌을 끼워 놓았다. 대개 대추나무나 감나무 등 유실수에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나무를 여성으로 보고 나뭇가지 사이에 남성성을 상징하는 돌을 끼워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남녀의 성적 결합이 출산이라고 하는 생산과 연계되듯이 나무의 성적 결합을 통하여 보다 많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데서 나온 풍속이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나무 시집 보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9) 강달리기

전동면 일대에서는 줄다리를 ‘강달리기, 강다리기, 팡달리기’라고 한다. 강달리기의 강은 힘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줄을 당겨 힘겨루기를 한다는 뜻에서 강달리기란 용어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강달리기는 정월 상달 중에 날을 정하여 하거나 보름날 저녁에 하였다.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편을 나누어 하는 예가 많다. 간혹 아랫말과 웃말, 양지말과 음지말 등과 같이 경계를 근거로 편을 나누어 하는 예도 있다. 심중리나 노장리에서는 남녀 가리지 않고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이 줄다리를 하였다고 한다.

노장리나 석곡리에서도 강달리기의 사례가 발견된다. 마을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 겨루는 이 강달리기는 단판 또는 삼판을 겨루어 승부를 결정하였다. 대개 삼판 겨루기가 많았다. 그런데 승부에 따른 상품 수여와 같은 일은 거의 없었다. 다만 승부가 결정되면 한 데 어울려 풍물을 치는 등으로 놀았다. 제보자들은 이러한 줄다리기 풍속이 한국전쟁 이전의 일이거나 1960년대 안쪽에 이루어지던 것이라고 한다.

2. 이월

1) 초하루 콩 볶아 먹기

이월 초하루면 으레 콩을 볶아 가족들이 나누어 먹었다. 청소년들은 볶은 콩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다.

콩을 볶을 때에 노간주나무로 불을 때는 예도 전한다. 산에서 생나무를 베어다가 아궁이에 넣으면 노간주 잎이 타면서 툭툭 튀는 소리를 냈다. 이처럼 툭툭 튀는 소리를 곡식이 익어서 나는 소리를 유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2) 나이떡 해먹기

이월 초하루에 나이떡을 해서 먹는 가정도 발견된다. 주부는 먼저 가족의 나이 수를 합산하였다. 시부모, 남편, 자녀 등의 나이를 모두 합한 뒤 쌀독으로 간다. 그리고는 쌀독에서 합산한 나이 수만큼 수저로 쌀을 떠낸다. 이 쌀을 가지고 부엌으로 나와 쌀을 불린다. 이후 쌀을 건져내서 빵은 뒤 가루를 반죽하여 송편을 빚는다. 송편을 다 빚으면 시루에 넣고 찌서 가족들과 함께 이 떡을 먹는다.

나이떡은 충청도 보다 경기지역에서 일반화된 풍속이다. 이 지역에서는 나이떡으로 송편을 빚어 먹는 예가 흔히 발견된다. 전동면과 다르게 송편을 가족의 나이 수만큼 빚어 역시 각각의 나이 수에 해당하는 떡을 먹는다. 물론 이러한 나이 수만큼의 떡의 분배와 먹기는 하나의 원칙에 해당할

뿐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제보자에게 말하자 그는 “여기에서도 예전에는 나이 수대로 먹었다.”고 하면서, 하지만 “먹는 것에 대해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려고 하는 일일 뿐이다.”라고 답한다.

3) 머슴 옷 해주기

머슴을 들인 집에서는 2월 초하루에 머슴 옷을 지어주었다. 봄철 농사에 대비해 새옷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대개 농사의 시작 시점을 정월 보름이나 이월 초하루로 보고 이날 옷을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머슴 옷 해주기는 1960년대 전후까지 전하던 풍속이다.

4) 노래기 쫓기

대부분의 민가가 초가집이던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날 노래기 쫓기 관습이 있었다. 노래기는 초가집의 지붕 짙은 습한 곳에 사는 벌레로 모양이 혐오스럽고 냄새가 독하게 난다. 그리고 봄철이면 지붕에서 벽을 타고 내려와 집안 여기저기를 기어 다닌다. 따라서 노래기는 퇴치의 대상이 되었다.

노래기퇴치는 솔가지 등을 꺾어 지붕에 던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곧 주부가 솔가지를 지붕에 던지며, “노래기야 썩 물러가라! 또는 노래기야 침 받아라!”와 같은 말로 퇴치하려 하였다.

3. 삼사월

1) 한식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다. 한식은 본래 중국의 개지추 고사에서 유래하여 ‘차가운 밥(남은 밥)’을 먹는 날이었으나 우리나라에 전래되어서는 돌아간 조상을 돌아보는 날로 의미가 전이되었다.

이날의 행사로 드물지만 한식차례를 지내는 예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날 산의 조상 묘역에서 시제를 지내는 집안이 있으나 이 또한 사례가 드물다. 가장 일반적인 예가 한식날 조상의 묘역을 살피는 것이다. 곧 조상의 묘를 찾아가 봉분이 무너졌거나 묘역 가운데 훼손된 곳은 없는지를 살피고 보수하는 관습이 전한다.

2) 초파일

사월 초파일은 부처님 탄신일로 불자들이 절을 찾아가 공양을 하고 공덕을 쌓는다. 전통면 일대

에는 원적사, 덕룡사, 바위암, 광덕사, 송악사, 계룡사 등 여러 절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러한 인근의 절을 찾아가 불공을 올린다.

3) 천렵

음력 삼사월은 논이 깊이갈이를 하거나 밭의 이랑을 만드는 등으로 농사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면 서도 한가한 시간에는 가까운 골짜기나 시냇가에 나가 천렵을 한다. 골짜기의 개울에서는 주로 가재를 잡았고, 시내에서는 피라미 등의 민물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잡은 가재나 민물고기로 찌개를 끓여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먹으며 하루를 보냈다.

이처럼 천렵을 할 때에는 각자 준비물을 배당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다. 곧 사전에 쌀이나 고추장, 된장, 양념거리, 술, 조리도구 등을 참여자에게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공평분배를 하지만 살림 형편이 나은 사람이 보다 많은 준비를 해오거나 또는 쌀과 같이 값나가는 준비물을 책임진다.

4. 오뉴월

1) 단오 그네뛰기

음력 오월 오일은 단오이다. 단오 풍속으로 전통면 일대에서 가장 보편적 사례가 그네뛰기이다. 마을의 정자나무나 소나무 등의 노거수 가지에 짚으로 꼰 동아줄로 그네를 맨다. 그네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두루 즐겼던 단오놀이의 하나였다. 그런데 단오의 그네뛰기는 1970년대 이후 점차 쇠락하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거의 단절된 것으로 조사된다.

2) 단오 화장

단오날에 창포를 베어다 삶은 뒤 그 물로 머리를 감았다.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고와지고 윤이 난다고 한다. 또한 머리에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심중리의 윤인열씨는 창포 뿌리를 캐서 비너처럼 다듬은 뒤 이것을 머리에 꽂고 다녔다고 한다. 창포뿌리를 머리에 꽂는 이유는 건강과 복을 바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 외에 단오날 이른 아침에 상추 앞에 달린 이슬을 받아다가 이슬에 분을 개어 화장을 하였다. 이 또한 피부가 고와진다는 속설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3) 약쑥 채취

단오날 야산에 난 약쑥을 끊어다가 말렸다. 이 약쑥을 말릴 때에는 이슬을 맞혀야 한다. 곧 끊어

온 약썩을 이슬에 맞춰가며 말렸다가 약으로 사용한다.

4) 모내기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오월 중에 모내기를 하였다. 따라서 이 무렵은 모내기로 분주하였다. 1980년대 기계모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대부분 손으로 모내기를 하였다. 적은 규모의 논은 전주나 가족이 중심이 되어 하지만 규모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품을 사서 하였다.

모내기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여 해가 떨어질 무렵까지 지속된다. 이른 아침에 모판에서 모내기할 만큼의 모를 찌고 이것을 모내기할 논에 운반하여 산포한 뒤 모줄을 놓으며 모를 심었다.

한편, 사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고지모를 심기도 하였다. 고지모는 마지기당 일정액을 사전에 받아서 쓰고 모내기철을 당하여 모를 심어주는 것이다. 또 노동력을 주고받는 품앗이가 있었다. 곧 이웃에서 와 하루를 일해주면 자신도 이웃에 가서 하루를 일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품앗이는 동일 성끼리 교환하는 것이 관행이다. 남자가 와서 일을 해주었으면 남자 품으로 갚고 여자가 와서 일을 해주면 역시 여자가 그 품을 갚는다. 소를 빌려 하루를 쓰면 남자 이를 품으로 갚는다.

5) 두레 논매기

전통면의 두레는 한국전쟁 무렵 대부분 단절되지만 생명력이 긴 사례는 1960년대까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두레는 공동체의 노동관행으로 주로 김매기에 동원된다. 두레가 유지되던 시절만 하더라도 농촌 사람들은 전답의 경작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조직된 두레패원으로 자연스럽게 가입된다.

논매기는 아시매기, 이듬매기, 만물매기로 3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논매기에 있어서 이듬매기에 두레패가 동원된다. 하지만 반드시 이듬매기에만 두레가 동원되었던 것은 아니다. 마을의 여건에 따라 이듬매기와 만물매기에도 두레패가 참여하여 논매기를 한 예가 나타난다.

“예전에는 두레가 동네 동네 다 있다시피 하였다. 석곡이 두레 할 때에는 자연마을 단위로 하였다. 작은 마을이 인근에 있어도 자연마을 단위로 하였다. 농기가 있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기가 있었다. 논 땀 때에는 풍장치고 다니면서 하였는데 그 풍장을 두레 풍장이라고 하여 하였다. 앞에서 풍장치고 나가면 뒤에서 논매며 따라다녔다.” [이종문]

“두레도 많이 했다. 두레기 가지고 다니면서 풍장 치면서 옮겨가며 두레를 하였다. 두레 끝나면 칠석이나 유두 때에 동민이 모두 모여 먹고 놀고 하였다. 일 끝나고 다 모여서 두레를 먹었다. 먹고는 노는 것을 두레먹자고 하는 것이다. 두레먹는 것은 두레 논 땀 때에 거둔 돈으로 하였다. 돌아다니며 모조리 논을 매고서 시방 돈으로 천원이고 만원이고 논 한 마지기에 일정액을 받았다.” [김교석]

위 두 지문은 석곡리와 청람리의 두레 사례이다. 이 두 마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두레에는 농기와 풍물패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두레 논매기를 하면 전주가 일정액을 논 매준 값으

로 지불하였음도 나타난다. 이렇게 거두어 들인 돈으로 논을 매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는 칠석이나 백중에 두레먹이를 하였다.

6) 유두와 초복

유월 보름인 유두에 밀개떡을 해서 찌 먹거나 호박전을 붙여 먹었다. 초복에는 삼계탕을 해서 먹기도 하였다. 개장은 남성들이 주로 먹었는데 집안에서 먹기보다 집 밖의 음식점에 가서 사먹었다. 전동면 일대에는 예로부터 불자들이 많아 집안에서 개국을 끓이는 예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근래 들어와 초복 등의 복날 마을회관에서 삼계탕을 끓여 먹는 마을이 생겨나고 있다. 부녀회나 노인회 등이 주관하여 생닭과 인삼 등을 구입해 오면 이것을 회관에서 끓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

5. 칠팔월

1) 두레먹이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칠석이나 백중에 두레먹이를 하였다. 두레 논매기 때에 모아둔 자금을 가지고 고기와 국거리 등을 구입해 와 동네 한가운데에 가마솥을 걸고 끓였다. 한쪽에서는 밥을 짓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찬을 만드는 등으로 음식을 준비한다. 그리고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국밥을 나누어 먹었다. 이처럼 두레자금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을 두레먹이라고 하였다. 두레먹이 이후에는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풍물을 치는 등으로 흥겹게 놀았다. 이와 같은 두레먹이는 두레가 단절되면서 사라졌다.

2) 칠석과 백중

음력 7월 7일 칠석에 호박전 등을 붙여 먹었다. 칠석을 맞아 불자들은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기도 한다. 또 이날 떡을 찌서 가신들을 대상으로 고사하는 예도 있다.

머슴을 들인 집에서는 백중에 머슴에게 돈을 태워준다. 여기에서 돈을 태워준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머슴에게 격려의 뜻으로 돈을 준다는 뜻이다. 주인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쌀 3되나 한 말 값의 돈을 준다고 한다. 돈을 받은 머슴은 이 돈을 가지고 장이나 주막에 가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인다고 한다.

3) 추석 차례와 성묘

음력 팔월 보름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날이다. 이날 이른 아침에 송편을 빚어 차례를

지낸다. 차례상의 음식은 햇곡으로 조리해서 올린다. 전통면 일대는 아직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기에 자신들이 전답에서 경작한 곡식을 가지고 차례상을 준비한다. 차례를 지낸 뒤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아침을 먹고 성묘를 간다.

한편, 추석을 맞이하기 2~3주 전에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풀을 깎는 관습이 있다. 이것을 벌초라 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무성하게 자란 잡풀을 제거하고 잔디를 깎아 묘소를 단정하게 꾸미는 것이다. 요즘에는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 벌초를 마을 사람들에게 의뢰하기도 한다. 대개 이 경우 묘 1기당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다.

6. 구시월

1) 구일차례

음력 9월 9일에 차례를 지낸 예가 전한다.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상사나 햇곡이 나지 않아 구일차례를 지낸 사례가 조사된다. 곧 추석차례를 9월 9일 중양(重陽)에 지냈던 것이다.

2) 구절초 말리기

구절초는 배앓이 때에 달여 마시는 약재이다. 또 애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이 구절초를 달여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구절초를 음력 9월 무렵 베어다 말린다.

3) 갈떡고사

지금은 갈떡을 찌는 예가 흔치 않다. 물론 떡을 찌서 고사하고 먹는 사례가 있으나 1970년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희소하다.

갈떡은 쌀 한 두 말로 떡을 찌 만큼 양을 많이 하였다. 이렇게 떡을 찌면 조왕, 터주, 성주 전에 치성을 올리고, 떡을 그릇에 나누어 담아 이웃집에 돌렸다. 농사거리가 많은 가정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에 노인들만 남아있어 떡을 해도 먹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갈떡을 하지 않게 되었다.

4) 시제(時祭)

음력 시월 중에 대부분의 문중에서 시제를 지낸다. 5대조 이상의 조상 묘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처럼 5대조 이상의 조상 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많은 자손들이 참여하여 제사를 지내게 된다. 따라서 시제를 지낼 때에는 사전에 후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한다.

그리고 시제의 음식을 준비할 유사를 정해 그로 하여금 제물과 참석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도록 한다.

그런데 근래 들어와 이러한 시제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후손들의 편의를 위하여 조상의 묘를 한 곳에 모아 놓고 치제 하는 예를 볼 수 있다. 또 선영의 산기슭에 사당을 짓고 그 안에 신위를 모신 뒤 사당에서 일시에 시제를 지내는 예도 나타난다.

7. 동지선달

1) 동지팔죽

동지에는 팔을 갈을 팔죽을 쏜다. 팔죽을 쑤면 맨 먼저 그릇에 나누어 담아 조왕, 터주, 성주, 우물, 곡간 등에 가져다 놓았다. 또 바가지에 팔죽을 담아서 가정의 집 주위를 돌며 수저로 팔죽을 뿌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나서 가까운 이웃에 팔죽을 돌리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불러 함께 먹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팔죽을 쑤어먹지 않는다.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인 까닭에 팔죽을 쑤는 일 자체가 버겁다. 또한 팔죽을 쏜다고 하더라도 노부부나 홀로 된 자신뿐이라 먹을 사람이 없다. 따라서 팔죽 쑤어먹기를 포기한다. 다만 불자들은 인근 사찰에 가서 팔죽을 얻어먹기도 한다.

2) 종발 돌리기

겨울철은 밤이 길어 남성들은 사랑으로 마실을 가고 여성들 또한 마을의 특정 가정에 가서 놀고 온다. 그런 가운데 여성들의 놀이 중 하나가 종발돌리기이다. 이 놀이는 자그마한 종발을 손수건에 싸서 돌리고, 술래는 그 종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연하면, 여성들이 동그랗게 둘러 앉아 종발을 무릎 아래에 숨긴 채로 돌린다.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술래가 지켜보고 그런 가운데 돌리기를 멈추면 술래가 종발 가진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다.

3) 수세(守歲)

선달 그믐날 저녁에 온 집안에 불을 밝혀 두었다. 작은 접시나 종발에 들기름을 붓고 그 속에 심지를 박아 불을 밝혔다. 그리고는 이 종발을 각각의 방과 부엌, 측간, 헛간 등에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날이 새 무렵까지 불을 밝혀 두었다.

또 이날 잠을 자면 눈썹이 쇠다고 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가족들이 윗놀이를 하거나 화투를 치는 등으로 밤이 늦도록 놀이를 하였다.

제3절

구비전승

1. 석곡리 돌꽃이 유래 1

여기가 돌꽃이, 근디 으른들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 장수가 지구가다가 박아 났다는 돌이 있다는 기유. 난 못 봤슈. 근디 그 돌이 있을 적이는 석곡리 전체가 아주 잘 살았대유. 그른디 병오년 장마라 구 하는데, 뭇 번 지난 병오년인지는 모르겄시유. 병오년이 육십년이 한번 씩 오니께, 근디 동네 사람들이 사흘을 가려자기구.

병오년 장마에 옛날에 선로 없을 적에는 이쪽을 치믄 이쪽을 치구 저쪽을 치믄 이쪽을 치구 물길 이 내려갔다구. 옛날이 선로 놓기 전이네. 그래 동네 사람들이 가래하구 삽하구 사흘 간을 파다가 어딘지 몰르구 사흘을 파다가 못 찾았다는기유. 그래가지구 그거 묻히구 나서 이 동네가 빈촌이 났다는기유. (문: 그 돌이 어디 쯤에 있었다는 거예요?) 들올라믄 첫 번 집 한 채 있잖어. 그집 마당 거기있었어유. 옛날에 철도 놓기 전이네.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돌꽃이. 돌이 땅에 꽃혀 있다 구 해서.

돌꽃이 하구 선돌백이 하구 두 가지 이름이 있었시유. 돌이 꽃혀 있었다구 해서 돌꽃이구, 돌이 섰다구 해서 선돌백이. 병오년 장마에 개벽을 해서 싹 묻혔다는 거유.[이중문(남, 1928). 석곡리]

2. 석곡리 돌꽃이 유래 2

옛날에 한 장수가 이 마을을 지나다가 큰 돌을 지팡이 모양으로 꽃아 놓았다고 한다. 이 돌에는 녁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제보자가 어려서 본 것이어서 무슨 글자인지는 알지 못한다. 마을 사람들은 국사당 산신제를 지낼 때에 이 돌 앞에서도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병오년 장마 때에 토사가 밀려와 이 돌이 흙 속에 묻혀 버렸다. 이처럼 돌이 흙 속에 묻힌 이후부터 동네가 빈촌이 되었다고 한다. [『연기민속』 400쪽, 석곡리 지명유래 요약]

3. 능안

석곡리 마을회관 주변을 능안이라고 한다. 이 능안이란 지명은 고려 때에 도선국사의 일화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곧 도선국사가 이 일대를 돌아보고 고려 왕릉의 적지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 일대가 뛰어난 장소로 알려지자 뒤에 여러 지사들이 이곳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이들 지사들은 이곳을 둘러보고 “불길지지(不吉之地)”라고 하였다. 따라서 왕릉이 들어서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왕릉은 취소되었고, 능안이란 지명만 남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연기민속』 400쪽, 능안 지명유래 요약]

4. 용무담(龍無潭)과 용혈(龍穴)

국사봉을 중심으로 해서 전의 쪽으로 용무담이라고 현재 있습니다. 지금은 변해서 논이 되었지만 그 옛날에 용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제 솟음이 살고 있고, 고 위에 지금 올라가면 개미고개라고 있는데, 그 개미고개 밑에를 용혈이라고 그립니다.

두 용이 이제, 암용 솟음이 여기서 수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 솟음은 이제 제대로 수도를 해서, 산에서 삼년, 들에서 삼년, 사람 안 보게 한 구년 동안을 수도를 해서 등천을 했고, 그 암용은 용혈리라는 데, 용혈리, 용의 혈 속에 잠겼다고 해서, 구멍으로 잠겼다고 해서 현재도 그 구멍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경부선 철도를 놓으면서 그 산을, 굴을 파게 됐죠. 산을 훼손하게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느껴온 사실이지만 삼일 동안 산이 울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수직원을 두었던 모양이죠. 굴을 지키는 수직원을 두는데, 오기만 하면 병이 나서 죽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할 수 없이 일본 아이들도 무당 같이 점술하는 사람을 갖다, 데려와서 매달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이 근처 주민들이 거기를 가게 되면 점도 쳐지고, 이러한 사실이 있었고…. 그 굴을 뚫으면서 그 인근 부락에는, 그 때, 지금 장질부사죠. 점염병이 퍼져서 거의 상청이 한 마을에 이삼십개씩 났다는 이러한 액운을 견뎠다고 하는 사실이 전해옵니다.

그래 인자 지금도 그 용혈산을 건드리게 되면 그 양화가 그 지역에 미친다고 그라죠. 왜 그러냐면 하늘에 올라간 솟음이 자기 부인을 건드린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고…. 현재의 지명도 솟음이 올라간 것을 용무담, 또 그 위쪽으로 보면 창룡승천(蒼龍昇天)이라고 그라죠. 푸른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전하고, 저번쪽은 용혈, 용 용(龍)자, 구멍 혈(穴)자를 써서 용이 구멍에 잠겼던 잠용(潛龍)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옛날 얘기가 전합니다. [『연기민속』 402쪽.]

5. 총신 김승로와 지명전설

고려 말 몽고병이 내침하였을 때 피난 길에 오른 고려 왕이 전의 북방에 이르러 공주쪽으로 갈 것인가, 조치원 방면으로 갈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었다. 이때 한 장수가 나서서 “조치원 쪽으로는 비록 산이 험한 것 같으나 삼십리를 가면은 평야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수확한 곡식이 많을

테니 곡식을 모아 병사를 먹이면 몽고병을 격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언하였다. 왕이 이 말을 승낙하여 조치원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동 중 한 고개에서 군신회의를 열었다. 지나온 길이 이미 삼십리가 되는데 아직도 산중이라며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에 연유하여 군신들이 회의를 고개를 큰 대(大)자, 앉은 좌(座)자를 붙여 대좌고개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의 결과 병사를 국사봉에 보내 주변을 관찰하게 하였다. 하지만 병사가 국사봉에 올랐을 때 주변이 안개가 끼서 살펴볼 수 없었다. 결국 왕 일행은 남쪽으로 행진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치원 쪽으로의 남진을 주장한 신하의 목에 칼을 씌웠다. 신하는 왕을 속인 죄로 한 고개에서 목에 칼을 차게 되었는데 이에 연유하여 이 고개를 버르재 고개라고 하고, 칼을 씌운 장소를 칼거리라고 하였다 한다. 여기에서 버르재는 신하를 죽이려고 버렸다 해서 그와 같은 이름을 제명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나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작은 언덕에 이르러 조치원쪽의 남진을 주장한 신하의 목을 치게 되었다. 신하는 참형을 당하면서 진언하기를 “불과 오리를 가게 되면 평야를 만나게 되고, 그대들은 충신을 참했다고 후회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일행이 오리쯤 남진하니 미호평야가 나타났다. 신하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후회하였으나 충신의 죽음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다. 이때부터 충신이 참형당한 언덕을 붉은덕이라 하였는데 이는 충신의 붉은 피가 물든 곳인 데에서 연유한 지명이다.

미호평야에서 식량을 조달한 일행은 병사를 모아 몽고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리고 환도하는 길에 충신을 개미고개 근처에서 장례치러 주었다고 한다. 이때의 충신은 강릉김씨인 김승로 장군이라고 한다. [『연기민속』 406쪽.]

6. 돌을 굴러내려 망한 조씨네

삼한 때 비암사 근처에 큰 부자가 살았다. 그 집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아 며느리의 손이 마를 새가 없었다. 어느 날 중이 와서 시주를 청하였다. 그러자 며느리가 중에게 시주를 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손님이 안 와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중은 “비암사가 있는 산에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이것을 아래로 굴리면 된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사람들을 풀어 산에 있는 큰 바위를 굴러 내려가게 하였다. 그러다 이때부터 집안의 가세가 기울더니 끝내는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다. 집안이 망하면서 손님 또한 발길이 끊겼다고 한다. [『연기민속』 415쪽.]

7. 이여송이 자른 혈

옛날 이여송이가 나와가지구, 임진왜란때 이여송이 나왔잖어유. 이여송이가 나와서, 승리를 하구서 이렇게 보니까 조선이 산세로 보면 참 명지(名地)가 많거든? 그래서 돌아댁이면서 산을, 혈(穴)을 질렀는디, 여기 와서 갈마음수(渴馬飲水)라구 있시유. 여기 홍씨네 모이, 그 밑에다 썼는디….

이게 이산 덩어리가, 여기서 보이는 철로변 덩어리가 말의 형국이유. 이 앞산에는 목아지 질게 빼구 있는 형국이유. 그래서 거기 혈을 질렀다는 디유. 어려서 가보면은, “여기가 혈을 질른 디다.” 어른 들이 사뭇 해유. 이렇게 구멍이를 팠더먼유. 구덩이를 파구서 혈을 질렀다는디, 새카맣게 댕시유. 그냥 막 혈을 질러서… 칼로 잘른 게 아니구 침을 가지구… 지금 말루하면 화약을 묻어서 혈을 질러댕시유. 그래서, 혈을 질러서 여기가 명기가 없다는 기유. 인물이 안 난대유. [『연기민속』 418 쪽.]

8. 청람리 지명유래

예전에는 청람리를 남포(藍浦) 또는 조캐라고 불렀다. 남포는 쪽 남자와 개 포자인 까닭에 순 우리말의 지명은 “쪽개”였다. 실제 과거에는 쪽개가 이 지역의 이름이었다.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쪽개”란 말이 “쫘개”가 되고 다시 “죽개 또는 조캐”로 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글지명은 지금의 노인들이 어려서 부르던 지명이라고 한다. [『연기민속』 418쪽.]

9. 권봉장군과 말무덤

인제 그걸, 그사람만 단순히 얘기를 하게 되면 안되고 고 위서부텨

내게로 십삼대조 할아버지가 권주라구 길주지를 쓰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호는 양목재 라구 하구. 인제 그 저기가, 우리가 인제, 양목재 할아버지가 오형제를 낳어요. 오형제를 낳는디, 우리가 큰집이구, 영자 할아버지가 둘째 집이 순만이, 셋째 집이 내판 강다리 건너서 그전이 조합장 했던 사람, 저 안골 거기 있고, 넷째 집이 여기 청송리, 배일이라는데. 다섯째가 인제 공자 할아버지 여. 공자 할아버진디, 무과에, 그 양반이 아마 무예가 특출하게 좋았었나봐. 그래 무과에 합격하고 저기를 했는디, 그 양목재 할아버지가 임진왜란때 일본사람 약탈하게 하는 거를 보고, 아마 칠백명 씩을 몇 백명씩을 가노(家奴)로 거느리고 살았는가 봐. 그르켰는디 거, 군량미로다가 … 그랬는디, 그 운주산에 가면 신라때부터 성이 있구, 독립산에 가면 말바탕이란 디가 있어. 저기를 가 보면 천평도 넘는 말 훈련시킨 디가 있어. 그렇게 그걸로 따지구 보면 말바탕이라구 그라지. 그러무는 그 경사도가 있는디는 흙으루 쌓구, 그르케가지구서 거기서 만경대라구 그계 왜 그계 거기에 만경대 봉우리에 가 보든, 뺨 둘러서 말이 간 길두 있어. 거기서 운주산을 하구, 만경대하구 독립대 하구 세 군데가 있는데, 거 만경대에서 이르게 훈련을 하고 바위가 있는데 봉화를 올리구 한 디여. 거기 가. 그때 당시 권주 할아버지가 삼백석을 쌀을 줬어. 군량미루다가. 그래 거기서 사람하구 말하구 훈련시킨 군인을 조치원 그 오봉상 여기 병마산 여기 산주령이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왜놈을 거기서 인제 훈련을 시켜서 싸우구 그랬는디 그 공을 많이 세웠다는 거. 그 옛날이 쌀두 없구 먹는 것두 저기 하구 그랬는디, 으 증말 나라는 위해서 저기를 하구. 읍으면 주었어? 맘이 우러나야 주는 거지 읍으면 주었어. 그르칸뒤두 막네 봉자 할아버지가 그계 왜 무과에 합격 하구서 그 가노 삼백명을 줬어. 노비. 삼백명을 주구서 너는 왜놈들하구 싸워라. 그래서 아들두 그계 저기를 잘

했나봐 아들까지 가가꾸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어. 전사를 했는디 지금은 증봉리라구 요게 흥농원. 옛날에는 정동리라구 해가꾸서, 정동리에서 싸우다가 죽었는디 시체는 못 보내구, 피묻은 적삼을 이르게 인저 말 위에 올려놓구 저기해니께, 여기가 큰 집이니께, 여기가 종손집이니께 여기 오다가 들구 인저 말이 우는 거여. 밤이 . 그 저기로는 실지가 찾았겄어? 어머니 아버지를. 혼이. 어머니 아버지 하구 울었다는 겨. 근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뜨게 말 울음소리가 그르케 들렸겄지.

그래서 저기 서당골에 가면 권장군 묘소가 있어유. 지금은 사초를 해서 옛날 멋이 안나. 그 밑이 말무덤이 있구. 그 할아버지는 적삼 백이 안 묻힌 거유. 말이 거기다가 저기하구서 그 하말이 그 자리에 죽었어. 그래서 사람은 그 위에다 쓰구 말은 아래에 쓰구. [권순백(남, 1941) 노장리]

10. 흥년 구제

한 분이 즘 옛날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구 그런 분은 한 분 계셨어유. 남신편데, 여동네 백석군인가 천석군인가 그랬었는디, 기미년 가뭄이 들었다구 했는디, 기미년이면 언제 기미년인지는 몰라두, 카, 흥년이 들어가지구 먹구 살수가 없어가지구 이 골 안쪽에 사람들이 다 참 뭐 죽을 지경이 됐는디, 한 분이 자기 창고, 그르키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창고를 열어서 마을 사람들 쌀 한 되박 씩이라두 주어서 굶어죽지 않게 해준 분이 있어유. 그래서 그분 비석이 요기에 있구, 저 윗동네에 있구. 그런 유래가 있지. (문: 그분 성함이?) 남성의지. [이승제(남, 1944), 노장리]

- _ 권순백(남, 1941), 노장리
- _ 이승제(남, 1944), 노장리
- _ 윤인열(여, 1928), 심중리
- _ 김영희(여, 1931), 심중리
- _ 박순임(여, 1929), 심중리
- _ 김계순(여, 1938), 심중리
- _ 이종문(남, 1928), 석곡리

제4장

전동면의 행정과 정치

제1절 일반적 행정현황

제2절 행정조직 및 인력

제3절 지방자치와 선거

제1절

일반적 행정현황

1. 행정구역의 변천과 유래

1) 행정구역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은 극 관할지역을 넓힘으로써 통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를 마련하면서 비롯되었다. 즉 삼한시대에는 부락사회국가가 전체적인 지역단위까지 직할하였으나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군현제도를 만들어 통치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백제(百濟)의 경우 원시적이기는 하나 오방제도(五方制度)가 도단위의 성격이며 군현은 지방통치제도에 있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군은 도보다 오랜 연혁을 갖고 있다. 신라의 경우를 보면 성(城)·촌(村)·군(郡)·현(縣), 고려시대의 목(牧)·군·현, 조선시대의 목·부(府)·군·현 등은 모두 지금의 군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칭 즉 지방단위적 지방구역이 군으로 일괄 통일된 것은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시 그 관할 구역으로 전국을 336군제로 채택하면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다음해의 336군제가 혁파되고 전국을 13도 1목 7부 341군의 제도가 채택됨으로써 시의 전신인 부(府)가 근대사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1913년에 부제로 확립되었다.

면(面)이 법률상 행정구역으로 등장한 것은 1909년의 법률 제20호 「지방구역과 명칭에 관한 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 이전에는 면과 같은 구역의 호칭을 사(社), 방(坊), 부(部), 면 등의 서로 다른 호칭으로 불러 왔으며 또한 관치제도가 면이 법률상의 면으로 행정구역의 단위로 등장한 것이다. 한일병합(韓日併合) 당시에는 부·군 관할 구역내에 322개의 면이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혁으로 부구역내의 면이 전폐되고 군내의 면도 폐합하였다. 1917년의 면제, 1920년의 개정, 1930년의 읍, 면제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에는 75읍, 1,418면이 있었으나 후의 폐합으로 1966년에는 91읍, 1,382면이 되었다.

다음은 상고시대부터 군 폐합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1) 마한시대(馬韓時代)

한반도에는 삼한이 존재하였다. 삼한은 마한·진한·변한으로 연기군은 마한에 속하였다. 마한에는 크고 작은 나라가 54개국 있었다고 전하는데, 그 범위는 대개 지금의 경기, 충남, 전남 지역에 해당된다고 한다. 마한의 54개국 중 충남에는 15개국이 있었는데, 연기군과 인접한 곳에는 월지국(月支國 혹은 目支國-직산)·신운신국(臣雲新國-천안)·불운국(不雲國-공주 서부)이다. 이 중 연기군은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형성하지 못하였으나, 이들에 흡수되어 행정력을 행사하는 영역에 속한 것은 사실이다.

(2) 백제시대(百濟時代)

현재의 연기군은 백제시대에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지금의 전의, 소정, 전동면은 구지현(仇知縣)이었고, 서면, 남면, 조치원 동면은 두인지현(豆仍只縣)이었으며, 금남면은 웅천주(熊川州) 혹은 웅주(熊州)의 소비포현(所比浦縣)이었다. 이들을 정리하면 전의, 연기, 금남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백제시대 연기군은 백제의 도읍을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긴 475년을 전후하여 연씨(燕氏)와 백제말기 전씨(全氏)가 활약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훗날 두인지현이 연기현으로, 구지현이 금지현으로 변했다가 전의현으로 불리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연기는 연씨들 즉 웅진초기에 활약했던 연신(燕信)과 연돌(燕突)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근거지로 추측할 수 있다. 연신과 연돌은 벼슬이 병관좌평(兵官佐平)에 이르러 오늘날 국방장관에 올랐다. 비암사에서 출토된 백제말기 유물인 석불비상(石佛碑像)에 전씨가 주동이 되어 제작되었음이 명기되었고, 이는 계유년(673)에 제작된 것으로 백제유민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과 그곳의 지명이 전의, 전동이란 것으로 보아 전씨 근거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통일신라시대에 지금의 전의(全義)는 서원경(西原京)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대록군(大麓郡, 지금의 천안)의 영현(領縣)이었다. 대록군은 본래 백제의 대목약군(大木岳郡)을 신라 경덕왕이 개명한 것이다. 대록군의 영현으로는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순치현(馴陟縣)으로 본래 백제의 감매현(甘買縣)을 경덕왕때 개명한 곳이며 지금의 천안지방에 해당한다. 또 하나의 영현은 금지현(金池縣)으로 본래 백제의 구지현(仇知縣)을 경덕왕때 개명한 것으로 지금의 전의(全義)에 해당한다.

연기(燕岐)는 통일신라시대에는 연산군(燕山郡)의 영현이었다. 연산군은 백제의 일모산군(一牟山郡)을 신라 경덕왕이 개명한 것이다. 연산군의 영현은 두 개 현인데, 하나는 연기현으로 백제의 두인지현(豆仍只縣)을 경덕왕때 개명한 것으로 지금의 연기에 해당하며, 다른 하나는 매곡현(昧谷縣)을 경덕왕 때 개명한 것으로 지금의 회인(懷仁) 지방에 해당된다. 지금의 금남지역은 웅천주(熊川州)였는데, 757년(경덕왕 16) 웅주(熊州)로 개명하였다. 웅주는 오늘의 공주를 지칭하는 것이며, 금남은 그 일부이다.

(4) 고려시대(高麗時代)

연기군은 성종때 10도제가 실시되었을 때는 중원도(中原道), 지금의 충청북도에 속하였다. 5도양계(五道兩界)의 제도가 실시되면서 양광도(楊廣道-지금의 경기와 충청)에 속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연기군은 연기현과 전의현으로 청주(淸州)의 속현이었다. 연기현은 고려 현종(顯宗) 9년에 청주의 속현이 되었고 명종 2년에는 감무(監務)를 두었으나 뒤에는 목천(木川) 감무가 겸하였다. 전의현은 신라 경덕왕때 금지현(金池縣)으로 개명한 것을 고려 때 전의로 고친 것이다. 금남은 통일신라시대 웅주(熊州)였다가 고려시대 공주(公州)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는데 공주의 동쪽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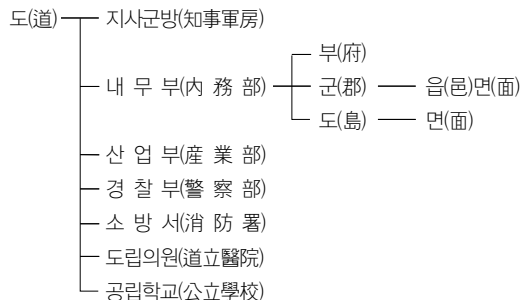
(5) 조선시대(朝鮮時代)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연기군은 연기현과 전의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금남지역은 공주로 연기군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다. 연기현(燕岐縣)은 태종 6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태종 14년(1414) 전의에 합쳐져서 전기현(全岐縣)이 되었다가 다시 태종 16년(1416) 연기현으로 복설(復設)되어 조선시대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전의현은 태조 4년에 감무를 두었고 태종 13년에 현감을 두었으며 다음해에는 연기현을 합하여 전기현이 되었다가 태종 16년(1416)에 연기현이 복설(復設)되면서 전의현이 되어서 조선시대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금남지역은 공주의 일부로 조선시대 후기까지 공주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의 지방제도는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종래의 8도를 23부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개편은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한성부(漢城府) 이외의 지역을 13도로 개편하고 그 밑에 7부(府), 1목(牧), 231군(郡)을 두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광복이후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6) 일제강점기

한일병합 후에 일제는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행정·군사·입법·사법권을 행사하였다. 중앙행정조직의 개편과 아울러 지방행정조직도 개편하였는데, 지방은 다음의 표와 같이 3단계로 조직되었다.



즉 전국을 13도로 나누었으며, 도(道)에는 지사(知事), 부(府)에는 부윤(府尹), 군(郡)에는 군수(郡守), 도(島)에는 도사(島司)가 도장관(道長官)의 지도 감독 아래 행정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부(府)·군(郡)·도(島)의 행정기구도 도(道)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성되었다. 또한 도(道)와 부(府)에는 도회(道會)와 부회(府會) 등의 의결기관이 있었으나, 이는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고서 형식상 내세운 어용의 지방자치 기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지사(知事)와 부윤(府尹)이 맡고 있었고, 이들은 총독에 예속되어 행정, 일부의 사법권, 그리고 일본군의 지방분견대장(地方分遣隊長)에게 요청하여 한국인을 탄압하기 위한 분대(分隊)를 사용할 수 있는 등의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읍과 면은 1940년에 전국에 76읍, 2,262면이 있었다. 이때에 일본인은 대부분 부(府)에 거주하였던데 반하여 한국인은 읍·면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다. 그리고 읍장(邑長)은 대부분 일본인이 맡았으며, 면장(面長)은 대부분 한국인이 맡았다. 읍과 면에도 도회 및 부회와 같은 읍회(邑會)와 면협의회(面協議會)를 두었으나 이 기구 역시 어용단체였다.

2) 전동면의 연혁 및 유래

전동면은 전의의 동쪽에 있는 면이란 뜻이다. 과거 전동면은 전의지역이었으므로 원삼국시대에는 마한(馬韓)의 54개국 중 하나였고 백제시대에는 구지현(九知縣)에 속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금지현(金池縣)이라 하여 대륙군(大麓郡)의 영현이 되었다가 고려 때 전의현(全義縣)에 속하였다. 조



선시대 1414년 연기현과 합하여 전기현(全岐縣)이 되었다가 1416년 다시 전의현이 되었으며 1895년 전의현이 전의군이 되었을 때 전의군 동쪽 지역에 속해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전동면이 되었다. 1995년 3월 1일부로 동면의 갈산리를 청원군에 떼어주고 청원군의 심중리를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하여 청원군과의 경계가 동림산 정상을 중심으로 그어졌다. 동림산은 동림산성(東林山城)과 송천사지(松泉寺址), 백자가마터 등 유적이 많은 곳이다. 전동면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들은 이웃마을과 경계를 이루다 보니 그 산의 주인이 자신있게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운주산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적상 엄연히 산 정상의 2/3가 전동지역인데, 1/3을 차지하고 있는 전의면이 운주산과 관련된 모든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다. 그 예로 정초에 하는 해맞이 행사도 전의면 주관이다. 금이성이 있는 금이산(원이름 : 운주산) 또한 산정상을 기준으로 전의, 전동이 나누어져있고 남쪽에 있는 오봉산도 조치원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산에는 산성이 쌓여져 있어 고대 삼국시대부터 중요한 전쟁터였음을 알 수 있다. 청원군에서는 병마산과 동림산에서 강감찬 장군이 군대를 훈련하였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동림산의 작은 암자에서는 강감찬 장군을 산신으로 모시고 있으니 우연이 아닌 듯하다.

운주산 남쪽의 청송리에는 배일이란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안동권씨가 집성을 이루어 살던 곳으로 임진왜란 때 권주(權柱)가 의병 300명 군량 450석을 지원하려고 금산싸움에 갔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 후 안동권씨들은 일본을 배척한다는 뜻으로 배일(排日)이라 부르다 정조 때의 학자 권복(權復)은 자신의 호를 이원(李遠)이라 짓고 마을 입구에 이원동천(李遠洞天)이라 새

겨 세웠는데 원 뜻은 ‘일본을 배척하는 마을이다’라는 뜻이 들어 있다고 한다. 이 비로 인하여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하였다.

전동면에는 개미고개가 있다. 개미고개는 운주산의 남쪽 줄기로 전의에서 조치원으로 넘어가는 고개이고 그 아래에는 경부선 철도가 놓여져 있으며 고개 아래로는 터널이다. 한국전쟁때 이곳에서 미군과 북괴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여 죽은 시체가 개미떼 같이 쌓여 있었다 한다. 1950년 7월 9일 벌어진 전투에서 당시 이곳을 지키던 사람은 미24사단 병력들이다. 이들은 길가에 호를 파고 개미처럼 밀려오는 북괴군과 전투를 하는데 처음에는 안개가 끼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북괴군이 쏜 총에 대응하여 발포하였다가 위치가 탄로나 많은 피해를 보았고, 북괴군은 우회하여 앞뒤에서 공격하는가 하면 주무기인 소련제 탱크로 밀고 왔다. 미군의 주무기는 공중에서 공격하는 제트기였는데 짙은 안개로 인하여 아군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져 결국 많은 사상자를 내고 조치원으로 후퇴해야만 했다. 몇 일 뒤 미군은 한강 다음으로 금강선을 제2방어지역으로 설정하고 다리를 폭파한 후 방어를 하였으나 조명탄을 조정하는 병사가 실수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쏘자 이때를 놓칠세라 북괴군이 금강을 건너는 바람에 금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전동면 마을의 유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청송리** : 조선말엽에는 전의군(全義郡) 동면(東面)의 지역(地域)인데, 이 곳에 예전부터 세 그루의 노송(老松)이 이곳 사람들의 신앙(信仰) 대상(對像)으로 모셨으므로 ‘청송(靑松)’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청송리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編入)되었다
- ② **쇠성** : 전동면과 서면(西面) 경계에 있는 산이다. 곧 까치성 위에 있는 산성인데 높이가 383m이며 돌로 쌓은 성(城)이 견고하여 철옹성과 같다 한다. 단단한 산성(山城)이라 하여 ‘쇠성’이라 부른다.
- ③ **배일** : 운주산 남쪽 아래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학자 권주(權柱)가 임진왜란 때 의병 300명, 군량(軍糧) 800곡을 내놓고 직접 수송하였으며 금산(錦山) 싸움에 이르렀다가 별세(別世)하였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일본(日本)을 배척하는 의미(意味)에서 ‘배일(排日)’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지었다 한다. 뒷산이 높고 골이 아늑하므로 ‘배일’을 ‘이곡(梨谷)’이라 하였는데 정조(正祖)때 학자 권복(權復)이 살면서 호(號)를 이일(梨逸)이라 고쳤다. ‘이곡(梨谷)’ 즉, 배나무가 많은 골이라 하여 그렇게 부른다. 권복은 일본을 배이[梨]로 비유하여 일본을 멀리한다는 뜻으로 이일(梨逸)이라 하였다.
- ④ **이일동천비** : ‘아래배일’ 입구에 있는 비(碑)를 이일동천비(梨逸洞天碑)라 부른다. 정조(正祖)때 학자 권복(權復)의 호(號)를 이일(梨逸)이라 하고 마을 앞에 비(碑)를 세웠다.
- ⑤ **삼송정** : ‘배일’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여기엔 소나무 정자가 세 그루 있다 해서 ‘삼송정(三松亭)’이라 부른다.
- ⑥ **도청** : ‘삼송정’ 남동쪽에 있는 큰 마을이다. 전의이씨(全義李氏)와 거창(居昌)신씨가 살면서 서로 의중계 모이는 도회청을 두었으므로 도청(都廳)이라 하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쉬운 글자를 취하여 도청(都靑)으로 변했다
- ⑦ **청람리** : 조선말엽에는 전의군 남면(南面)의 지역이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동막리,

상남포리, 하남포리, 청산리를 병합하여 ‘청산’과 ‘남포’의 이름을 따서 ‘청람리(靑藍里)’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⑧ **청산** : ‘증미’ 밑에 있는 마을이다. ‘증미’라 하던 것이 변하여 ‘청미’ 또는 ‘청산(靑山)’이라고 부른다.
- ⑨ **시루바위** : ‘시루봉’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다. 큰 바위가 봉우리를 이루었는데 그 모양이 시루와 같다 하여 ‘시루바위’라 부르며 ‘증암’이라고도 부른다.
- ⑩ **독막골** : ‘버드나무말’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어려운 사람들이 처음 마을이 형성(形成)될 때 움막을 짓고 살던 것이 점점 큰 마을을 이루었다 하여 동막, 또는 동막골 이라고도 부른다.
- ⑪ **개미기 고개** : ‘청산’에서 전의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개미기’ 고개라고 부른다. 고개가 잘록하여 개미허리와 비슷하다 하여 ‘개미기’ 고개라 부른다 한다. ‘의현(蟻峴)’이라고도 부른다.
- ⑫ **동막골** : 청람리 중 제일 윗동네로 이곳에 경주김씨가 동막을 짓고 오랫동안 살았던 마을이라 하여 동막골이라 한다.
- ⑬ **남포** : 쪽개라고도 불리우며 큰말, 도라말, 양지말, 버드나무말이 이에 속하며 이곳이 옛날에 뿔이었다 하여 남포라 한다.
- ⑭ **등글봉** : 연수봉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동막골 뒷산을 가리킨다. 이 산에는 큰 광산 1개와 작은 광산 1개가 있다.
- ⑮ **송정리(松亭里)** : 조선말엽에는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으로서 조선 숙종(肅宗)때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선비 한 사람이 만년(晩年)에 그 선영(先塋)을 따라 이 곳에 은거하면서 솔밭 부근(附近)에 정자(亭子)를 짓고 소요하였다 하여 송정(松亭)이라 불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송동’과 ‘사정’ 그리고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송정리라 하고 연기군(燕岐郡) 전동면(全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⑯ **솔재** : 송정리에 있는 마을이다. 소나무가 있는 고개마을이라 해서 ‘솔재’라 부른다.
- ⑰ **안터** : 연수봉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을 안터라고 부른다. 새터 안쪽에 위치하는데 내기(內基)라고도 부른다.
- ⑱ **사장골** : ‘구리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려 때 사기점이 있었던 곳이다. ‘사장동(沙場洞)’ ‘사정리(沙亭里)’라고도 부른다. ‘사장골’ 안쪽에 있는 마을을 ‘안사장골’이라 부르고 바깥 편에 있는 마을을 또한 ‘바깥사장골’이라 부른다.
- ⑲ **상소골** : ‘송정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송곡리 ‘소골’ 위쪽에 있다. ‘상송동(上松洞)’, ‘상송곡(上松谷)’이라고도 부른다.
- ⑳ **절텃골** : 연수봉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예전에 연수암(延壽岩)이라는 절이 있었다 하여 ‘절텃골’이라 부른다.
- ㉑ **독송정(獨松亭)** : ‘상소골’ 앞 냇가에 있던 정자로, 지금은 예전의 정자의 터가 없어졌지만 숙종(肅宗)때 좌의정(左議政) 조사석(趙師錫)이 만년(晩年)에 그 선영(先塋)을 따라 이 곳에 은거하면서 정자를 짓고 소요하였다 하는데 그 정자(亭子)를 독송정(獨松亭)이라고 한다.
- ㉒ **송성리(松城里)** : 조선말엽에는 전의군(全義郡) 동면(東面)의 지역이었다. 원래가 백제 때부터 솔이 울창했고 또한 백제 멸망 후 부흥운동이 활발했던 송성(松城) ‘금성(金城)’이 여기에

있어 여기를 ‘솔티’와 ‘성곡’의 이름을 따서 송성리(松城里)라 하여 이웃마을을 병합하고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가 되었다.

- ㉓ **요골** : 예전에 이 마을에 한 가구가 살 때 어느 해에 산사태가 나서 집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자 그 곳에 요란스럽게 흐르는 물을 보고, 지나던 한 선비가 말하기를 요곡(堯谷), 골곡(谷)이라 말한 것이 그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요골’로 변하여 부르게 되었다. 지금은 예산이씨(李氏)들이 집을 짓고 많이 살고 있다.
- ㉔ **주막뜸** : 예전 전의군(全義郡) 당시 남면을 거쳐 서면으로 가는 길목에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주막이 있어서 ‘주막거리’라 부르게 되었다.
- ㉕ **무드리** : 잿말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물이 흐르면 뱅글뱅글 돌아 때로는 강바닥까지 보였다 하여 ‘물도래’, ‘무도리’라 부르다가 ‘무드리’라 부르게 되었다. 물이 뱅글뱅글 돈다해서 수전(水田), 수전리(水田里), 수회(水回), 수회리(水回里)라고도 부른다.
- ㉖ **솔티** : ‘중말’ 남서쪽에 있는 고개를 ‘솔티’라 하고 그 아래 마을도 솔티고개 아래에 있다 해서 솔티라 부른다. 솔티고개는 고개가 길고 험하여서 도둑이 많기로 유명하였다. ‘솔티’마을은 조선시대 때 사기소가 있었다고 한다.
- ㉗ **송곡리(松谷里)** : 조선말엽에는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으로서 ‘보평’ 안쪽 골짜기에 자리함으로 ‘속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소골’ 또는 ‘송곡(松谷)’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시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송곡리’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㉘ **꽃짜골** : 송곡리에 있는 마을로 꽃이 잘 어울려 피는 마을이라 해서 ‘꽃밭골’이라 불렀는데, 변하여 ‘꽃짜골’이라 부른다.
- ㉙ **소골** : ‘보령’ 안쪽 골짜기에 있으므로 속골, 즉 산 속에 있는 마을로 ‘속골’이라 불렀는데, 변하여 소골이라 부른다. 송곡(松谷)이라고도 한다.
- ㉚ **모시티** : ‘모시티’에서 조치원읍 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모시티’라 부르고, 그 아래 마을을 ‘모시티’고개 아래에 있다 해서 역시 ‘모시티’라 부른다.
- ㉛ **성재** : ‘하소골’ 동북쪽 송곡리 산26번지에 있는 낮은 토성(土城)이다. 토성이 아래 위 두 층으로 되어 있는데 삼한(三韓)때의 농성(農城)이다.
- ㉜ **옥자리티** : ‘모시티’ 동쪽에 ‘모시티’에서 300m거리에 ‘옥자리티’가 있다. 예전 삼한시대에 농성(農城)인 토성(土城)을 쌓을 때 부역자를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 옥자리인데, 한 번은 임신한 여인을 가두어 두었더니 쌍둥이를 분만하여 그 때부터 옥자리를 옮겼다 한다. 지금은 일명 쌍둥이 자리라 하여 집을 짓지 않고 전답(田畓)으로 사용한다.
- ㉝ **석곡리(石谷里)** : 조선말엽에는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이었다. 마을 앞에 ‘선돌’이 있으므로 ‘선돌배기’, ‘돌꽃이’로 불리우던 곳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혁시 ‘석곡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㉞ **선돌배기** : 선돌이 서 있었다 하여 ‘선돌배기’, ‘돌꽃이’, ‘석곡(石谷)’이라 부른다. 예전에 한 장수가 한 길이 넘는 돌을 지팡이로 짚고 다니다가, 지금의 284-1번지에 꽂아 놓았는데 그 돌을 선돌이라 부른다. 선돌이 병오년(丙午年) 장마에 넘어져 지금은 그 자취가 없어졌는데 선돌이 있던 마을은 ‘선돌배기’의 ‘하석곡’이며, 이 선돌을 주축으로 웃말은 ‘위선돌’, 가운데는 ‘중석곡’이라 부른다. ‘중석곡’은 ‘온고비골’이라고도 부른다.

- ㉔ 국사봉(國師峰) : ‘돌꽃이’ 남서쪽에 있는 산을 ‘국사봉(國師峰)’이라 부른다. 높이가 267m되는 산인데, 산에 돌산과 청마가 있고 산제당(山祭堂)이 있다. 고려 때부터 산봉(山峰)에서 국사에 큰 도움을 주었던 곳이며 봉화대(烽火臺)가 있었다. 또한 서민(庶民)들이 산신제(山神祭)를 지내는 제단(祭壇)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돌단과 철마가 있고, 산제당이 있다.
- ㉕ 보덕리(寶德里) : 조선 태종(太宗)때에 전의현(全義縣)에 속했다가 다음에 전기현(全岐縣)에 속했으며 다시 전의현에 속했었다. 이 지역에는 넓은 들과 큰 보(寶)가 있어서 농사가 잘 된다 하여 ‘보덕(寶德)’이라 부르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보평(寶坪)의 ‘보(寶)’자와 덕소의 ‘덕(德)’자를 따서 보덕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속하게 되었다.
- ㉖ 보평(寶坪) : 보덕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붓들’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은 ‘붓들’ 즉, 말해서 보(洑)가 있는 들이라는 뜻이 변해서 ‘붓들’이라 부른다. 앞들이 넓고 보(洑)가 있어서 농사(農事)가 잘 되어 붙여진 명칭(名稱)인데, 그래서 보물 같은 들이라 하여 ‘보평(寶坪)’이라 부른다.
- ㉗ 덕소 : ‘지프네’ 위쪽에 있는 마을을 덕소(德沼)라 부른다. 예전에는 냇물이 흘러와서 고여 ‘덕소’라 부르고 선녀(仙女)들이 노는 신선지(神仙池)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모래가 쌓여서 소(沼)는 없어졌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고이는 소(沼)가 있다 해서 이 마을을 ‘덕소’라 부른다.
- ㉘ 심천(深川) : ‘보평(寶坪)’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앞에 깊은 냇가 있다 해서 ‘심천’이라 부른다. 또한 ‘지프네’라고도 부르는데, 처음은 ‘깊은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지프네’라 부르게 되었다. 심천(深川)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은 조천(鳥川)으로서 소(沼)가 있었다 한다. 여기는 깨끗한 물이 고여서 선녀(仙女)들이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 놀고 가는 곳이라 전해 내려왔는데, 지금은 소(沼)자리에 깊은 못은 없어졌으며 심천(深川)으로 부르고 있다.
- ㉙ 미곡리(美谷里) : 원래 이 지역은 계곡(溪谷)에 풍류(風流)가 있어서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미곡(美谷)’이란 시조(時調)와 학이 있듯이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곳으로 통칭(通稱)되어 왔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미곡리’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조선말엽에는 전의군(全義郡) 동면(東面)의 구역이었다.
- ㉚ 노장리 : 조선말엽엔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이었다. 이 지역엔 갈대가 무성하여 ‘갈가리’라 불렸었고 임진왜란 때 학자 권주(權柱)가 이 곳에 살면서 갈대의 덕을 입어 무난히 그 왜란(倭亂)을 피한 후 마을을 그가 ‘노장(蘆長)’이라 하였다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노장리’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㉛ 노장 : 노장리(蘆長里)에 ‘하노장’, ‘중노장’, ‘상노장’의 세 마을이 있는데 모두가 갈대와 연유한 마을명을 갖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학자인 권주(權柱)가 이 곳에 살면서 왜군(倭軍)이 쳐들어 왔을 때 갈대가 길게 늘어서 무사히 난(亂)을 피할 수 있었다 하여 갈대를 칭찬하기를 ‘노장(蘆長)’이라 하고 마을 이름도 ‘노장’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마을이 갈대숲 아래 위로 생기면서부터 위쪽은 ‘상노장(上蘆長)’ 또는 ‘상로정(上蘆汀)’, 아래는 ‘하노장(下蘆長)’, 가운데는 ‘중노장(中蘆長)’ 또는 ‘중로정(中蘆汀)’이라 부르게 되었다. ‘노장(蘆長)’을 ‘갈가리’라고도 부른다.
- ㉜ 봉대리(鳳臺里) : 조선말엽에는 전의군(全義郡) 동면(東面)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고소상리(古所峯里), 서방동(西方洞), 대동(垆洞) 등을 병합하여 서봉과 만경대의 이름

을 따서 봉대리(鳳臺里)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編入)되었다.

- ④ 서봉동(棲鳳洞) : ‘고삿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을 서봉동(棲鳳洞)이라 부른다. 토형(土形)이 봉(鳳)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形局)이라 하는데, 예전에 봉(鳳)이 날아와서 집을 짓고 살았다 하여 서봉동(棲鳳洞)이라 부른다. 또한 ‘고삿재’ 서쪽에 마을이 자리하였다 하여 ‘서방(西方)골’이라고도 부른다.
- ④ 고삿재 : 봉대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전동면에서 천안시(天安市) 수신면(修身面)으로 넘어가는 큰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를 ‘고삿재’라 부르며 이 재는 운주산과 망경대 중간 허리가 잘룩하게 되어 있는 고개이다. 이 고개 아래에 마을이 있다 해서 ‘고삿재’라 부른다. ‘고소터(古所峙)’, ‘고소터리(古所峙里)’라고도 부른다.
- ④ 심중리(深中里) : 심중리(深中里)는 본래 청주시 서강의 일하면 지역으로 강외면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은 공북리(拱北里), 서는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와 접하고 있다. 조선 영조 후반(1750~1776)에는 심천리(深川里)라 불렀으나, 정조 13년(1785)경 한때 없어졌다가 현종때(1895) 다시 부활되어 고종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10년경 경술국치 직전 상심동(上深洞), 하심동(下深洞), 심남리(深南里), 심서리(深西里), 갈거리(葛巨里), 조광동(早光洞), 태고동(太古洞)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상심동과 하심동의 각 일부를 상봉리(上鳳里)로 넘겨주고 미원동(彌院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심중리라 하여 강외면에 편입되었다가, 1995년 3월 1일부로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자연부락으로는 갈거리(葛巨里), 불근덕(丹憲), 덕룡굴(德龍窟), 민태절, 사기소(砂器所), 소죽골, 중지프내(中深里), 지프내(深川)로 나뉘어진다.
- ④ 민태절 : 심중2리 마을로 연기군 전동면과 청원군 동림리와의 경계지역이다. 예전에는 청원군 강외면 심중2리였던 것을 1995년 3월 1일 연기군 전동면으로 편입되었으며 민태산이란 이름은 마을 뒷산 동림산 중턱에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의 이름이 민태절이라 부르면서 연유했고, 절이 폐사되면서 절 이름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민태절 절터는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다. 돌축대를 쌓는 곳과 그곳에서 산 정상 쪽에 계단식 건물지가 보이고 동쪽으로 험준한 벽을 오르니 기와편이 무더기로 산재한 건물지가 있었다.

2. 행정구역현황

행정구역은 정치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국가의 영역을 국가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획한 행정단위를 말한다. 행정구역은 나라의 행정 사정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는 현재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로 구획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구 등 특별한 목적으로 구획되는 행정구역이 있으며, 이는 일반 행정구역을 토대로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한다.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실의 사회, 경제생활을 통하여 주민이 관계하는 지역적 확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행정구역은 자연 지리적 기준은 물론이고 정치·행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의식과 같은 역사문화적 특징 등을 포함한 매우 복잡한 관점과 기준에서 설정된다고 할 수 있다.

연기군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연기군은 충청도의 동쪽에 위치하여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

며 충청남북도로 보면 중앙에 위치한다. 연기군의 동쪽은 충청북도 청원군과 도계(道界)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은 천안시와 경계, 서쪽은 공주시, 남쪽은 대전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주변의 커다란 도시로 인하여 연기군은 경제, 문화, 역사 면에서 그리 크게 두각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권마저 이들 큰 도시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연기군의 주변도시와 생활권을 연결 지어보면 소정, 전의는 천안시와 생활권이 연결되어 천안의 시내버스가 전의 지역까지 운행이 되고 있으며 조치원, 동면은 청주와 생활권이 연결되어 역시 청주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금남은 대전시, 남면, 서면은 공주시와 시내버스가 왕래하여 생활권을 연결하고 있으며 거리상으로 볼 때 대전은 45km, 공주가 25km, 청주가 20km 정도이며 서울과는 114km 이내이다.

연기군은 어느 지역보다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소위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통망은 연기군을 관통하여 전국으로 연결되어 있다. 국도 1호선과 철도의 경부선이 지나고 충북선 철도의 시발점이며 경부·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하고 고속철도가 연기군을 관통하여 소위 사통팔달을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가장 복잡한 거리인 아홉거리(구거리)라고 하며 아홉갈래의 길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가 있는 곳이 연기군이다. 미호천과 금강이 흘러 용수가 풍부하고 산은 높지 않아 목야지, 과수원으로서 농산물의 재배에 적당하다. 온도는 연평균 12.4℃로 한서의 차이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극심한 편이 아니다.

연기군의 관계적 위치[관계적 위치는 역사적 위치이며 가변적 위치라고도 볼 수 있다]를 살펴보면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속하였고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할 때 연기에는 연씨들, 전의에는 전씨들이 활동했으며, 연씨의 연신, 연들은 백제의 병관좌평까지 오른 인물이다. 연기, 전의는 백제의 왕도 웅진과 가까이 있기에 이곳을 지키는 역할로 많은 성을 쌓았고 그러기에 연기의 산에는 당시 축조했던 성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660년 의자왕이 항복하고 3년 간 백제유민이 부흥운동을 전개할 때 연기지역의 성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결국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유민은 역대왕에 대한 추모제례를 전의 다방리에 절을 짓고 매년 4월 15일 대제를 거행하였으니 그것이 오늘날 백제대제이다. 왕건이 고려 건국시 삼한 통일에 박차를 가할 때 금강을 건너 공주의 견훤과 싸움을 벌이기 위하여 금강에 도착하니 7월 장마로 물이 불어 건널 수 없게 되자 이치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건을 건너게 해주었다. 이때의 공으로 이름을 하사 받아 이도(李棟)라 부르고 전의 이씨 시조가 되었으며 전의 남쪽성에 거주하였다하여 이곳을 이성(李城)이라 부른다.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략이 이어져 나라가 위태로울 때 연기에서 몽고적을 물리치니 이것이 연기대첩이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시 연기, 전의 출신 인물들은 의병에 가담하여 왜군을 맞아 싸웠으며 근대에는 한국전쟁이 전의 개미고개 금남의 금강방어 전투로 이어져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렇게 연기군은 고대 웅진을 지키기 위한 지리적 위치에서 한반도의 남쪽을 방어하기 위한 요충지 역할을 하여왔다.

연기군의 구성은 연기와 전의 그리고 금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기는 백제시대 두인지현(豆仍只縣)이었고 통일신라시대 연산군에 속한 연기현(燕岐縣)이라 하였다. 전의는 백제때 구지현(仇知縣)이었고 통일신라시대에 금지(金池-金地)라 하였으며 고려시대 전의현(全義縣)이라 하였다. 조선 태조 4년(1395) 전의에 감무를 두었으며 태종 6년(1406)에는 연기에도 따로 감무를 두었다. 태종 14년(1414)에는 연기와 전의를 합병하여 전기현(全岐縣)으로 하였다가 태종 16년(1416)에 각각 환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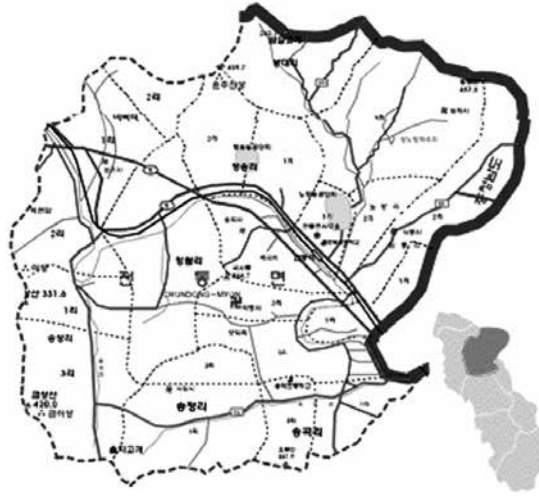
전의는 연산군때 환관 김처선에 의하여 1505년 전의가 없어졌다가 중종반정때(1506) 다시 복직

되었으며 연기는 숙종 6년(1680) 읍인 만설의 모역벌주(謀逆伐誅)로 인하여 문의에 속하였으나 1685년 복구하여 연기현이라 부르게 되었다.

고종 32년(1895) 전국 지방관제를 개정함에 따라 각각 군이라 칭하고 군수를 두게 되었으며, 이때 연기군, 전의군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연기군과 전의군을 합하고 금강 건너 금남을 연기에 편입하였는데, 이곳은 백제 때 웅진(熊津 : 熊川)에 속한 소비포현이었으며 고려 때는 공주에 속했다가 1914년 연기군에 편입되면서 금강의 남쪽에 있다하여 금남면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 약간의 변화에 의하여 현재 연기군은 1읍 7개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기군은 충청남도의 동북단에 위치하여 동으로는 충북 청원군과, 서로는 공주시, 남으로는 대전광역시, 북으로는 천안시와 경계를 이루며 1읍 7면, 207개 행정리로 되어있다.



소정면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48번지 (우 339-872) Tel. 041-860-4850 Fax. 041-861-2880	소정면	전동면 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583번지 (우 339-841) Tel. 041-860-4810 Fax. 041-863-1553	전동면
전의면 충남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99번지 (우 339-854) Tel. 041-860-4770 Fax. 041-863-1552	전의면	조치원읍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9-1번지 (우 339-801) Tel. 041-860-4599 Fax. 041-865-4322	조치원읍
서면 충남 연기군 서면 성제리 299번지 (우 339-814) Tel. 041-860-4640 Fax. 041-867-4323	서면	동면 충남 연기군 동면 내편리 9번지 (우 339-861) Tel. 041-860-4600 Fax. 041-866-8014	동면
남면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144-1번지 (우 339-823) Tel. 041-860-4690 Fax. 041-866-8015	남면	금남면 충남 연기군 금남면 흥포리 122-1번지 (우 339-835) Tel. 041-860-4730 Fax. 041-866-8016	금남면



그 중 전동면은 충청남도 연기군의 북부에 있는 면으로서 면적은 57.76km², 행정구분 23행정리 (11법정리) 반수 60반, 소재지는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583번지이다. 동쪽은 충북 청원군 강외면(江外面)·옥산면(玉山面), 서쪽은 전의면(全義面), 남쪽은 서면(西面)·조치원읍, 북쪽은 천안시 수신면(修身面)·성남면(城南面)과 경계를 이룬다. 면의 대부분이 해발고도 300~400m 안팎의 산지이고 산세가 험하여 지역적으로 외진 곳이 많다. 전동면의 중앙을 거쳐 조치원 쪽으로 흘러가는 금강(錦江)의 지류 조천(鳥川) 주변과 조천으로 유입하는 소하천 연변에 약간의 논이 형성되고, 주위의 구릉지대에 밭이 조성되어 있다. 주곡 외에 배·복숭아·포도 등이 다양하게 산출되며 1980년 대까지는 특용작물로 목화·참깨·들깨·잎담배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조천과 나란히 경부선 철도와 국도가 통과하고, 지방도가 동서로 분기하여 교통은 편리하다.

(표 1) 전동면의 행정구역

구분	법정리	행정리	반	자연마을
2010년 현재	11	23	60	47

법정리	구분	면적(ha)	행정리수	반수	자연마을수
노 장 리		6.9	5	10	6
미 곡 리		4.6	2	5	5
보 덕 리		3.9	2	6	2
봉 대 리		5.3	1	4	3
석 곡 리		2.8	1	3	3
송 곡 리		3.7	2	3	3
송 성 리		8.8	3	7	6
송 정 리		5.0	2	5	3
심 중 리		6.7	2	7	8
청 람 리		5.1	1	5	4
청 송 리		5.0	2	5	4
계		57.8	23	60	47

[표 2] 전동면의 면적

구분	계(㎡)	농경지(㎡)		대지(㎡)	임야(㎡)	기타(㎡)
		전	답			
면 적(㎡)	57,739,997	3,840,951	6,575,592	887,001	39,478,767	6,957,686
구성비(%)	100	6.7	11.4	1.5	68.4	12.0

전동면은 연기군의 북부권으로 동쪽은 충북과 경계를 이루고, 국·철도·고속철도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지방도가 천안시 병천과 통과하고 있고, 북쪽은 전의면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동면의 연혁은 백제시대에는 구지현에 속했다가, 고려시대에는 전의현에, 조선시대 1895년에는 전의군으로 속하였다가, 1914년에 연기군으로 편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쟁때에는 청람리 개미고개 부근이 최고의 격전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동면은 경제작물인 복숭아, 포도, 배,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시설 채소, 한우사육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 전동면의 모습

 - 면 적 : 57.74km² (경지 18.1%, 임야 68.4%, 기타 13.5%)
 - 가구 및 인구 : 1,615가구/4,518명 (남 2,366명, 여 2,152명)
 - 행정구역 : 법정리 11개리 / 행정리 23개리 / 반수 60반
 - 행정조직 : 직원 15명 (일반 12, 기능 2, 일용 1)
- 전동면의 교육문화시설

 - 교육시설 : 1개교 (전동초등학교)
 - 문 화 재 : 3개소 (운주산성, 금이성, 이성)
 - 종교단체 : 21개소 (기독교 8, 불교 12, 기타 1)
 - 사회복지시설
 - 경 로 당 : 33개소
 - 간이급수 : 20개소
 - 보건지소 : 1개소 (노장1리)
 - 보건진료소 : 1개소 (송곡1리)
- 전동면의 주요시설

 - 3585부대 3대대(예비군 훈련교장) : 전동면 송곡1리(모시터), 설치연도 : 1982년도
- 전동면의 주요기관

시설/기관	주소	전화번호	기타
전 동 파 출 소	전동면 노장리 583-1	863-1112	직원: 9명
전동초등학교	전동면 노장리 595	863-1208	직원: 19명
전 동 우 체 국	전동면 노장리 648-6	863-1001	직원: 7명
- 전동면의 지역경제

 - 기업체 : 88개업체
 - 숙박·요식업 : 18개소
 - 주유소 : 5개소
 - 자동차 : 1,813대 (승용차 1,071대, 승합차 106대, 화물차 635대, 기타 1대) - 2011.11 기준
- 전동면의 특산물

 - 배, 포도, 복숭아, 표고버섯, 한우, 돼지, 산양삼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동면에 속한 마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노장리** : 노장리는 본래 백제때는 구지현에, 신라때는 대륙군(목천)의 영현에 속했었다. 고려때는 청주목에, 조선 태종때는 전의현에 속하였다 조선 말엽엔 전의군 동면 지역이었다. 이곳은 갈대가 무성하여, 임진왜란 때 학자 권주가 이곳에 살다가 갈대의 덕을 입어 무난히 그 왜란을 피한 후 그가 마을 이름을 ‘노장’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 동리를 병합하여 노장이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어 노장1·2·3·4·5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배나뭇골, 양지말, 원지기, 죽엽리, 중노장, 상노장 등이 있다. 배나뭇골은 원지기 북쪽에 있는 마을로 배나무가 많이 있었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이목동이라고도 한다. 양지말은 중노장의 양지쪽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지기는 상노장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며 선조때 학자 권주(權柱)가 이곳에서 임진왜란을 피하였다고 한다. 죽엽리는 원지기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전에 대나무가 무성했다고하여 죽엽리라 칭하였다. 중노장은 노장리의 중앙에 있는 마을이라 하며, 상노장은 노장리의 위쪽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미곡리** : 해발고도 300~400m 안팎의 산지가 대부분이고 산세가 험하여 지역적으로 외진 곳이 많고 구릉지대에 밭이 조성되어 있다. 자연마을로는 미륵당이, 수구동, 조일말, 학당이 등이 있다. 미륵당은 조일말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마을 모퉁이에 미륵이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수구동은 임진왜란때 이곳에 피난하였던 수백명이 왜적에게 피살되어 피가 내를 이루었다하여 피숫골, 또는 피수동이라 하였는데 그 이름이 흉하다해서 수구동으로 개명하였다. 조일말은 미곡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제지곡 또는 지곡이라 불린다. 학당은 미륵당이 동북쪽 산 속에 있는 마을로 고려 말 안렴사(按廉使) 김휴가 살면서 학당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하였다고 하여 학당이라 불린다.



- **보덕리** : 보덕리 마을은 백제때는 구지현에 신라때는 대륙(목천)군의 영현에, 고려때는 청주목에 속했으며, 조선 태종때는 전의현에 속했었다. 이 지역에 넓은 들과 큰보가 있어서 농사가 잘된다하여 ‘보덕’이라 부른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보평의 ‘보’자와 덕소의 ‘덕’자를 따서 보덕이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조치원 쪽으로 흘러가는 금강의 지류 조천(鳥川) 주변과 조천으로 유입하는 소하천 연변에

약간의 논이 형성되고, 주위의 구릉지대에 밭이 조성되어 있다. 자연마을로는 봇들, 서당골, 지프내, 위지프내 등이 있다. 봇들은 보덕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앞에 넓은 들과 큰 보가 있어서 봇들 또는 한자어로 보평이라 불린다. 서당골은 보평 뒤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프내는 보평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는 내가 있어서 지프내라 칭하였으며 한자어로 심천이라 한다. 위지프내는 지프내의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며 상심천이라고도 불린다. 나주나씨 효부정려비가 있다.



- **봉대리** : 노장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마을에는 봉대소류지가 축조되어 있다. 자연마을로는 고깃재, 서방골마을 등이 있다. 고깃재마을은 봉대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고깃재 고개 밑이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서방골마을은 고깃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서봉동이라고도 불린다.



- **석곡리** : 국사봉과 같은 낮은 산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앞으로는 조천이 흘러간다. 마을 앞에 선돌이 있으므로 선돌배기, 또는 돌꽃이라 하였는데 후에 석곡리라 개칭되었다. 자연마을로는 석곡, 가운데돌꽃이, 상석곡, 하석곡마을 등이 있다. 가운데 돌꽃마을은 중석곡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돌꽃이 중앙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상석곡마을은 돌꽃이 북쪽에, 하석곡마을은 남쪽에 자리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열녀 기계유씨 정려가 있다.



- **송곡리** : 송곡리 마을은 백제때는 구지현의 지역이었으며, 고려때엔 청주목에 속했다가 조선 태종때 전의현에 속하였다. 조선 말엽에는 전의군 동면의 지역으로서 '보평' 안쪽 골짜기에 자리함으로써 '속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소골 또는 송곡이라 불렸다. 낮은 산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마을 앞에 송곡



천이 흐르고 송곡소류지가 축조되어 있다. 자연마을로는 송곡, 가재골, 저티리마을 등이 있다. 가재골마을은 무시터 동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고 저티리마을은 무시터 고개 아래가 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시 이웃 동리를 병합하여 송곡리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송성리** : 완만한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진 지역이며 마을 앞으로 조천천이 흘러간다. 성곡리, 상수희리, 송티리, 각곡리 등을 병합하여 송티와 성곡의 이름을 따서 송성리라 하였다. 자연마을로는 무드리, 각골, 벌말, 솔티, 절터골, 중말마을 등이 있다. 무드리마을은 큰 냇물이 빙 돌아간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각골마을은 무드리 남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빨처럼 생겼다하여 각골이라 칭한다. 벌말마을은 벌판이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솔티마을은 솔티고개 밑에 있다하여 칭하게 된 이름이다. 절터골마을은 절터가 있다 하여 불리우는 이름이고, 중말마을은 무드리와 솔티의 중간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중말이라 칭한다.



- **송정리** : 평지와 완만한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진 지역이며 마을 앞으로 송곡천이 흘러간다. 동곡리, 사정리, 상송동 등을 병합하여 송동과 사정의 이름을 따서 송정리라 하였다. 자연마을로는 구리골, 사장골, 발사장골, 상소골마을 등이 있다. 구리골 마을은 옛날 이곳에서 구리가 많이 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사장골마을은 고려때 사기점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발사장골마을은 사장골의 바깥쪽에 자리한 마을이며, 상소골마을은 송곡리 소골의 위쪽이 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심중리** : 심중리 마을은 본래 청원군 서강외 일하면 지역으로 면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 영조 후반(1750~1776)에는 심천리로 되어있었으나 정조 13년에 없어졌다가 현종때 다시 부활되어 고종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10년 경술국치 직전 하심동, 상심동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심중리라하여 강외면으



로 있다가 1995년 3월 1일자로 충남 연기군 전동면 심중리로 행정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청람리** : 청람리 마을은 전동면 소재지와 전의면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백제때는 구지현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엔 대륙군의 영현에 속했었다. 고려때는 청주목에 속했으며 조선 태종때 전기현에 속하였다가 다음에 전의현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동막리, 상남포리, 하남포리, 청산리를 병합하여 청산과 남포의 이름을 따서 청람리라 하며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청송리** : 운주산으로부터 동남향한 낮은 산줄기가 감싸 안으며 낮은 산지가 분포하며 마을 앞으로 조천천이 흐른다. 대치리, 삼송정리, 도청리를 병합하면서 도청과 삼송정의 이름을 따 청송리라 하였다. 자연마을로는 대자, 도청, 이곡, 삼송정, 솥골마을 등이 있다. 대자마을은 마을 서쪽에 큰 고개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도청마을은 전의 이씨와 거창 신씨가 살면서 서로 의종계 모이는 도회청을 두었으므로 도청(都廳)이라 하였는데, 일제때 쉬운 글자를 취하여 도청(都靑)이 되었다. 이곡마을은 뒷산이 높고 골이 아늑하므로 이곡(梨谷)이라 하였다. 삼송정마을은 소나무 정자 세 그루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솥골마을은 솥가마가 있었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표 3] 전동면의 토지목적별현황

(단위 : m²)

연별	조치원읍	동면	서면	남면	금남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합 계	13,545,767	29,432,877	54,668,143	53,391,546	73,717,661	62,400,335	57,752,484	16,472,719
전	1,121,658	3,581,710	4,655,327	4,973,072	6,050,175	6,126,796	3,839,740	1,810,196
답	1,602,181	8,070,782	8,247,291	11,386,696	13,847,321	8,148,138	6,631,327	2,519,485
과수원	871,921	302,394	3,378,331	331,309	188,824	45,227	673,479	7,117
목장용지	45,438	156,970	401,206	460,317	119,836	357,051	523,666	132,635
임야	4,243,522	10,328,284	28,593,705	25,076,585	39,093,093	39,677,844	39,597,095	9,983,114
대지	2,104,659	916,408	1,433,717	1,631,309	1,754,569	1,145,386	875,041	463,235
공장용지	222,544	662,640	571,406	2,286,594	418,877	1,136,235	642,461	135,269
학교용지	801,536	47,628	52,029	95,446	89,974	213,700	21,008	23,328
주차장	5,681	-	15,343	20,506	3,786	5,398	633	6,027

연별	조치원읍	동면	서면	남면	금남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주요소용지	10,975	4,812	2,225	14,361	2,545	14,562	5,217	5,188
창고용지	17,601	17,002	48,563	22,622	30,913	17,095	18,426	16,805
도로	760,869	758,624	1,052,409	1,861,951	1,881,662	1,242,375	1,082,796	467,060
철도용지	340,419	302,759	-	-	-	535,911	240,822	69,741
하천	735,816	2,800,467	2,640,002	3,678,587	7,364,017	1,106,531	1,457,491	356,115
제방	82,952	264,740	174,067	386,596	294,755	34,245	178,911	29,439
구거	211,771	1,052,394	1,607,384	1,252,494	2,088,600	839,959	1,006,685	290,286
유지	16,589	3,557	725,249	20,646	41,503	56,894	56,386	17,442
양어장	5,018	4,886	15,733	-	9,013	11,159	23,054	-
수도용지	18,563	-	829	1,266	4,820	49,047	156,580	69,870
공원	40,380	-	15,285	-	1,500	19,015	-	2,123
체육용지	-	-	-	-	-	1,257,218	-	-
유원지	-	-	-	-	-	-	-	-
종교용지	17,662	6,854	26,874	12,585	51,221	16,012	11,431	8,965
사적지	-	-	-	-	-	-	-	-
묘지	92,880	69,922	153,505	65,836	327,264	194,135	498,427	11,342
잡종지	180,848	88,477	891,406	546,669	204,527	195,335	216,358	58,910

* 자료 : 자치행정과

(표 4) 전동면의 주민등록인구통계

(단위 : 명, %)

연별/연도별	세대	인 구					
		인구	구성비	남	구성비	여	구성비
2000	26,893	80,851	100.0	40,811	50.5	40,040	49.5
2001	27,638	81,821	100.0	41,341	50.5	40,480	49.5
2002	28,854	83,063	100.0	41,907	50.5	41,156	49.5
2003	30,236	82,732	100.0	41,683	50.4	41,049	49.6
2004	32,215	84,455	100.0	42,743	50.6	41,712	49.4
2005	32,884	84,308	100.0	42,807	50.8	41,501	49.2
2006	33,388	84,107	100.0	43,123	51.2	40,984	48.8
2007	32,652	81,450	100.0	41,822	51.3	39,628	48.7
2008	32,123	80,118	100.0	41,214	51.4	38,904	48.6
조치원읍	14,458	37,929	100.0	19,272	50.8	18,657	49.2
동면	1,998	4,447	100.0	2,315	52.1	2,132	47.9
서면	3,310	8,353	100.0	4,347	52.0	4,006	48.0
남면	1,676	4,243	100.0	2,243	52.9	2,000	47.1
금남면	4,159	9,877	100.0	5,061	51.2	4,816	48.8
전의면	3,155	7,503	100.0	3,890	51.8	3,613	48.2
전동면	2,046	4,107	100.0	2,192	53.4	1,915	46.6
소정면	1,321	3,356	100.0	1,718	51.2	1,638	48.8

* 자료 : 자치행정과

[표 5] 연기군 및 전동면의 연령별/성별 인구추이

(단위 : 명, %)

연령별	2008				2009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계	남	여		계	남	여	
총계	78,645	40,238	38,407	100	4,107	2,192	1,915	100
0~4세	3,629	1,826	1,803	4.61	74	39	35	1.8
5~9세	4,196	2,197	1,999	5.34	83	51	32	2.0
10~14세	4,678	2,441	2,237	5.95	150	79	71	3.7
15~19세	4,506	2,390	2,116	5.73	244	140	104	5.9
20~24세	4,670	2,510	2,160	5.94	218	120	98	5.3
25~29세	6,072	3,362	2,710	7.72	226	133	93	5.5
30~34세	5,702	3,127	2,575	7.25	187	118	69	4.6
35~39세	6,308	3,531	2,777	8.02	217	134	83	5.2
40~44세	5,704	3,134	2,570	7.25	305	164	141	7.5
45~49세	6,361	3,404	2,957	8.09	382	231	151	9.3
50~54세	5,885	3,078	2,807	7.48	418	250	168	10.2
55~59세	4,432	2,241	2,191	5.64	351	184	167	8.6
60~64세	3,718	1,830	1,888	4.73	262	138	124	6.4
65~69세	4,257	1,891	2,366	5.41	277	147	130	6.7
70~74세	3,698	1,631	2,067	4.70	288	120	168	7.0
75~79세	2,505	895	1,610	3.19	230	84	146	5.6
80~84세	1,382	471	911	1.76	117	40	77	2.8
85세 이상	942	279	663	1.20	78	20	58	1.9
연령 미상	-	-	-	-	-	-	-	-

* 주 : 외국인제외

연별/연도별	세대	인 구					
		인구	구성비	남	구성비	여	구성비
조치원읍	14,458	37,929	100.0	19,272	50.8	18,657	49.2
동 면	1,998	4,447	100.0	2,315	52.1	2,132	47.9
서 면	3,310	8,353	100.0	4,347	52.0	4,006	48.0
남 면	1,676	4,243	100.0	2,243	52.9	2,000	47.1
금 남 면	4,159	9,877	100.0	5,061	51.2	4,816	48.8
전 의 면	3,155	7,503	100.0	3,890	51.8	3,613	48.2
전 동 면	2,046	4,107	100.0	2,192	53.4	1,915	46.6
소 정 면	1,321	3,356	100.0	1,718	51.2	1,638	48.8

* 자료 : 자치행정과

[표 6] 인구동태

(단위 : 명, 쌍)

연도별/읍면별	시도간				순이동	
	전입	이동률	전출	이동률	순이동	이동률
2000	6,6366	7.9	6,685	8.3	-798	-1.0
2001	7,835	9.7	7,343	9.1	533	0.7

연도별/읍면별	시도간				순이동	
	전입	이동률	전출	이동률	순이동	이동률
2002	8,257	10.0	7,634	9.3	878	1.1
2003	9,107	11.0	8,710	10.5	358	0.4
2004	13,143	16.3	11,824	14.7	1,533	1.9
2005	8,520	10.1	8,595	10.2	-318	-0.4
2006	8,437	10.2	9,696	11.7	-1,648	-2.0
2007	6,630	7.9	8,696	10.3	-2,878	-3.6
2008	6,672	7.9	7,705	9.1	-1,551	-1.9
조치원읍	3,643	4.3	3,670	4.4	613	0.8
동 면	141	0.5	555	0.6	-176	-0.2
서 면	618	0.7	787	0.9	-303	-0.4
남 면	233	0.3	569	0.7	-1,116	-1.4
금 남 면	957	1.1	1,299	1.5	-352	-0.4
전 의 면	423	0.5	444	0.5	-68	-0.1
전 동 면	185	-	219	-	-	-
소 정 면	149	0.2	137	0.2	-61	-0.1

* 자료 : 자치행정과

(표 7) 인구이동

(단위 : 명, %)

연도별/읍면별	총이동				시군내				시군간	
	전입	이동률	전출	이동률	전입	이동률	전출	이동률	전입	이동률
2000	9,212	11.4	10,010	12.4	1,681	2.1	1,165	1.4	1,644	2.0
2001	11,453	14.2	10,920	13.6	2,092	2.6	1,526	1.9	1,485	1.8
2002	12,495	15.2	11,617	14.1	2,316	2.8	1,922	2.3	1,675	2.0
2003	13,859	16.8	13,501	16.3	2,853	3.4	1,899	2.3	1,939	2.3
2004	18,943	23.5	17,410	21.6	2,892	3.6	2,908	3.6	2,887	3.6
2005	12,403	14.7	12,721	15.1	2,015	2.4	2,015	2.4	1,868	2.2
2006	12,598	15.2	14,246	17.2	2,510	3.0	2,510	3.0	1,651	2.0
2007	11,578	13.7	14,456	17.1	3,433	4.1	3,433	4.1	1,515	1.8
2008	10,794	12.8	12,345	14.6	2,616	3.1	2,616	3.1	1,506	1.8
조치원읍	5,567	6.6	4,954	5.9	1,350	1.6	646	0.8	574	0.7
동 면	562	0.7	738	0.9	109	0.1	153	0.2	39	0.0
서 면	1,240	1.5	1,543	1.8	491	0.6	589	0.7	131	0.2
남 면	481	0.6	1,597	1.9	190	0.2	769	0.9	58	0.1
금 남 면	1,280	1.5	1,632	1.9	193	0.2	143	0.2	130	0.2
전 의 면	839	1.0	907	1.1	144	0.2	124	0.1	272	0.3
전 동 면	367	-	370	-	105	-	80	-	262	-
소 정 면	408	0.5	469	0.6	37	0.0	28	0.0	222	0.3

연도별/읍면별	출생	사망	혼인(쌍)	이혼(쌍)	기아	실종	혼인취소
2000	1,009	769	567	199	1	6	-
2001	936	704	587	222			-
2002	906	762	578	237			-

연도별/읍면별	출생	사망	혼인(쌍)	이혼(쌍)	기아	실종	혼인취소
2003	804	687	560	232		4	-
2004	952	745	558	215		4	-
2005	839	752	522	166		4	-
2006	768	676	616	176	3	5	-
2007	831	687	552	191	-	-	-
2008	812	622	520	209	-	-	-
조치원읍	451	206	-	-	-	-	-
동 면	41	39	-	-	-	-	-
서 면	92	83	-	-	-	-	-
남 면	32	36	-	-	-	-	-
금 남 면	82	91	-	-	-	-	-
전 의 면	61	68	-	-	-	-	-
전 동 면	19	46	14	8	-	-	-
소 정 면	26	28	-	-	-	-	-

3. 역대면장

면(面)은 군(郡)에 딸린 지방행정구역 단위이다. 면장은 군 아래에 있는 면의 최고책임자로서,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군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이다. 면장은 군수가 임명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임명조건은 우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국가나 지방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나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가운데서 임명하게 되어 있다. 면장제가 확립된 것은 1910년 일제가 ‘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때부터이며 이때부터 면장은 도장관(道長官 : 1919년 이후 도지사로 개칭)이 직접 임명해 왔다. 정부 수립 후는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면의회가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면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때도 도지사가 임명하였다. 1952년에 이르러서야 몇 군데 특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 면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이때부터 면장 선출권이 지방의회로 넘어갔고, 1956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이 직접 선거를 하게 되었다. 1958년 일시 임명권이 도지사에게로 넘어갔다가 1960년에 다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면서 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고 면장은 군수가 임명하게 되었다. 면장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호적 주민등록을 비롯한 병무·산업·선거·새마을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주민의 생활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1대 권오영면장이 부임한 이래 전동면, 서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등을 거쳐 연기군의회 전문위원을 하였던 제26대 변영호면장이 2010년 8월 3일 부임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8) 전동면 역대 면장

구분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역	비고
제1대	권 오 영	1947. 1. 1 ~ 1951. 5. 22		
제2대	김 태 일	1951. 5. 23 ~ 1952. 5. 4		
제3대	김 태 일	1952. 5. 5 ~ 1954. 8. 31	전 동 면	
제4대	신 혁 범	1954. 9. 5 ~ 1958. 8. 5	전 동 면	
제5대	신 혁 범	1958. 9. 5 ~ 1960. 12. 1	전 동 면	
제6대	신 혁 범	1960. 12. 26 ~ 1961. 6. 28	전 동 면	
제7대	권 혁 조	1961. 7. 8 ~ 1969. 12. 3	전 동 면	
제8대	이 덕 노	1969. 12. 11 ~ 1973. 3. 19	전 동 면	
제9대	홍 종 방	1973. 3. 20 ~ 1974. 2. 28	서 면	
제10대	이 덕 노	1974. 3. 1 ~ 1977. 4. 27	전 동 면	
제11대	임 창 복	1977. 4. 28 ~ 1977. 5. 12	남 면	
제12대	백 남 석	1977. 5. 13 ~ 1977. 12. 12		
제13대	이 달 상	1977. 12. 13 ~ 1979. 3. 16	조치원읍	
제14대	황 의 중	1979. 3. 17 ~ 1980. 7. 11	동 면	
제15대	이 달 상	1980. 7. 12 ~ 1985. 12. 22	조치원읍	
제16대	박 중 신	1985. 12. 23 ~ 1989. 8. 13	조치원읍	
제17대	이 수 호	1989. 8. 14 ~ 1990. 3. 1	조치원읍	
제18대	전 병 훈	1990. 3. 2 ~ 1993. 6. 27	전 동 면	
제19대	이 성 노	1993. 6. 28 ~ 1996. 12. 31	전 동 면	
제20대	한 문 수	1997. 1. 1 ~ 2003. 2. 11	전 동 면	
제21대	한 경 전	2003. 2. 12 ~ 2006. 7. 18	조치원읍	
제22대	서 금 택	2006. 7. 19 ~ 2006. 12. 31	조치원읍	
제23대	김 달 용	2007. 1. 1 ~ 2008. 1. 31	조치원읍	
제24대	이 유 찬	2008. 2. 1 ~ 2009. 12. 31	조치원읍	
제25대	안 기 문	2010. 1. 1 ~ 2010. 8. 2	서 면	
제26대	변 영 호	2010. 8. 3 ~ 현재	전남 영암군	

제2절

행정조직 및 인력

1. 전동면의 행정조직

현재 전동면의 조직은 「연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담당과 산업담당으로 분장한다.



〈그림 1〉 전동면의 조직구조

2. 담당별 업무현황

2010년 현재 전동면에는 면장을 맡고 있는 5급 1명과,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 9급 4명과 기능직 2명 등 총 1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총무담당 8명, 민원담당 3명, 산업담당 4명 등이다.

1) 전동면장

- 전동면 업무 총괄

2) 부면장(총무담당)

- 총무분야 업무 총괄조정
- 소내행정의 종합조정
- 면행정 주요시책 자료수집
- 인사, 상훈, 징계업무
- 비밀문서관리
- 각종의식행사 및 리행정감독
- 선거업무
- 전도자금출납관리
- 직원복무관리
- 일반서무
- 선거, 감사, 교육훈련
- 기획, 법제
- 주민자치
- 체육회
- 옥외광고물
- 기록물관리
- 회계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 청사시설물관리, 자산취득
- 통계업무
- 국민기초생활업무 일반
- 의료급여
- 자활사업
- 보훈업무
- 보육업무
- 장애인복지
- 아동·노인·여성복지 일반
- 장묘업무
- 세무업무
- 국·공유재산 관리
- 환경업무 일반
- 간이급수 및 상수도업무
- 경로당관리
- 재활용품수집 및 대형폐기물 처리
- 생활쓰레기수거관리

3) 민원담당

- 민원분야 총괄
- 호적신고사항 처리
- 수형인명표 관리
- 신원조회
- 인구동태처리
- 주민등록 총괄
- 학사 일반
- 1주택수가구신청
- 인감대장관리 및 증명발급
- 기타 제증명 발급
- 민방위 총괄

4) 산업담당

- 산업분야 업무 총괄
- 농지이용실태조사
- 농지원부 작성관리, 자경증명발급 업무
- 농산업무
- 축산업무
- 쌀직불제
- 주민편의시설사업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업무
- 도로 점용허가
- 재난, 재해 대책업무
- 건설, 농지, 토목, 도시, 재난관리 업무
- 지역개발(마을회관, 시설물)
- 도시(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
- 버스승강장 보수
- 과수 및 수출유통, 원예특작 업무
- 농촌체험 및 복숭아축제 지원
- 농업발전기금,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농정 분야 업무
- 농지원부작성관리, 자경증명, 실경작확인
- 산림통계업무
- 경제진흥
- 생활경제

-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 교통행정
- 자원경제
- 기업지원
- 산업단지
- 산불방지

[표 10] 전동면사무소의 직원 현황(2010년 8월 기준)

구분	구 분							비 고
	총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정 원	15	1	3	3	2	4	2	
현 원	15	1	3	2	4	2	3	

제3절

지방자치와 선거

1.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의 역사적 변천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97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그리고 제3항의 『지방자치의회의 조직 및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규정에 의하여 1949년 7월 4일에 공포된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동년 12월 5일자로 개정·공포되고 이듬해인 1950년 12월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선거가 연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1952년 4월 25일에 전쟁중에 처음으로 읍·면의원 선거가 그리고 5월 10일에는 도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의회와 도의회 의원과 시·읍·면의회 주민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다가 1956년 2월 10일 개정(제2차 개정)으로 시·읍·면장도 주민이 직접선거하도록 하였다. 그후 1958년 시·읍·면장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였다.

제2공화국에 들어서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을 주민이 직접선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아 지방선거가 없었다. 그러다가 1991년 3월 26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어 6월 20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그보다 4년 뒤인 1995년 6월 27에 실시되었다. 이때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임기가 만료된 시·군·구의원의 임기를 연장하였다. 이를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라고 한다. 이어 3년 뒤인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가 공히 4년임에도 불구하고 초대 지방자치 단체장과 제2대 지방의원의 임기를 1998년 6월 30일 만료하도록 지방자치법 부칙에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주기와 2년의 차이를 두기 위한 기술적 조치 때문이다.

1) 태동기

1948년 제정된 우리나라 초대헌법은 민주주의의 외형적 틀을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를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나,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도는 일제가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편제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바탕 위에 지방의회 및 단체장에 대한 선거·임명 규정만 덧붙인 것이었다. 즉 대한민국정부수립 당시의 지방자치제는 명목적인 장식물에 불과하였다.

그 이후 이승만 정부는 1949년 12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국내적 불안정을 이유로 지방자치의 실시를 보류하여 초래된 지방행정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선거실시를 보류함으로써 지방자치제를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는 당시 야당과 이승만의 정치적 반대세력의 주도하에 있던 상황이 이승만의 재집권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지방의회선거는 국내정세의 불안과 치안유지를 구실로 이승만에게 불리한 기존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치지형을 타파하고자 유보되었다. 기존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그동안 국내정세의 불안과 치안유지를 구실로 실시가 유보되었다. 1952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돌연 지방의 회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되었을 뿐이었다. 1952년 초대 지방의회가 생긴지 3년도 안되어 이승만 정권은 제2차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방단체장들이 고유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의원들 사이에 청탁이나 이권거래가 성행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운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1956년 2월 제2차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5개월 만에 이승만정권은 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야당계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승만정권은 1958년 12월 24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임명제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다시 한 번 개정했다. 개정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를 유명무실화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1960년 4·19 혁명에 의해 이승만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는 최고권력자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

2) 암흑기

1960년 4·19 혁명은 민주주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1960년 11월 1일 전면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에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선거, 시·읍·면장 선거 및 서울시장과 도지사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자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 권력의 공간적 분권화를 위한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발전은 1961년 5월 16일에 발생한 군사쿠데타에 의해 좌절되었다. 5·16 군사쿠데타는 학생을 통해 표출되었던 시민사회의 역량을 군부중심의 국가가 무력으로 진압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군사정권은 전국의 지방의회를 일시에 해산하고 각급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도록 조치했다. 1962년 4월 21일 공포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하향적 임면원칙을 제도화하였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직으로 바뀐 사실은 내용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지방자치제의 퇴보를 의미했다.

박정희 정권은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였지만(1962년 12월 26일 개정헌법 제96조, 제97조), 실제로는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16 군사

쿠데타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전면적 관치(官治)의 초중앙집권적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이후 안보와 경제발전이 국가의 최우선목표로 설정되었고,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전형적인 국가주도형이었다. 강력한 국가적 지도력을 위해 정치적 분권화보다는 행정적 일원화논리가 지배적이었고, 지방은 중앙권력기관의 대리인이자 하수인에 불과했다. 독재권력에 의해 지방자치가 철저히 박탈당하는 동안 권력과 자본의 지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들은 중앙집권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박정희시대를 통틀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암흑기에 갇혀 있게 된 것이다.

3) 부활 및 발전기

제5공화국 말기인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지방자치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으로 1985년 2월 제12대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통일당이 대약진에 성공한 것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시민사회의 신장, 재벌로 대표되는 자본가계급의 국가의 개입에 대한 반발, 노동자계급의 양적·질적 성장, 경제성장과정에서 축적된 국력신장으로 안보부담의 축소, 동서냉전체제의 약화, 80년대 말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붕괴, 부와 권력의 중앙집중이 자원낭비와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국내외적, 정치·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시대적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제는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1987년 당시 민정당대표인 노태우의 '6·29 선언'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전면구성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7일 정부와 여당은 제13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를 발표하였으며 정당들도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지지하였다.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여야간에 정치적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민정당은 1988년 3월 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등을 단독으로 변칙 처리했다. 같은 해 4월 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에 의하면 시·군·구의회는 1989년 4월 30일까지, 시·도의회는 1991년 4월 30일까지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이른바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인해 야권 3당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야권3당은 지방자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하였고, 1989년 3월 4일에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3월 15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통과시킨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도, 당시까지 유효하게 남아있던 지방자치제 관련 현행법률, 즉 1989년 4월 30일까지 시·군·구의회를 구성한다는 법률적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비판으로 여야 4당은 지방자치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재협상하기로 하고 마침내 1989년 12월 19일 새로운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여야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제 시행만이 남은 듯 보였던 지방자치문제는 1990년 1월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이른바 3당 통합을 결행함으로써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거대 집권여당으로 등장한 민주자유당은 1989년 12월에 합의한 지방자치제 관련 법안의 전면적 재검토를 선언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시까지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던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지방의회를 구성한다는 정치적 약속과 법률적 의무

를 또다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여야간 첨예한 대립 끝에 1990년 12월 31일 제151회 정기 국회에서 여야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원선거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안 등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준비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마침내 1992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집권여당인 민자당이 비타협적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1992년 12월에 제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캠페인에서 1995년 단체장선거 실시를 공약하였다. 따라서 1994년 3월 4일에 마침내 단체장선거를 포함한 이른바 4대 지방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6일에 공포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6월 27일에 역사적인 제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지방의회는 제2기를 출범시켰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60년대 이후 30여년 만에 부활했다. 1991년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선거가 없는 반쪽 지방자치제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95년 6월 27일 처음으로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온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11〕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구분	제도내용			비고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장과의회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정 (1949. 7. 4)	· 주민직선제 · 의원임기 : 4년 · 명예직	· 특별시·도 : 대통령 임명 · 시·읍·면 : 의회간선	· 장에 대한 불신임권 및 의회해산권 인정	· 특별시, 도, 시, 읍면자치
지방자치법 개정 (1949. 12. 15.)	· 시·도는 내무부장관 · 시·읍·면은 도지사의 승인으로 의회의결 대치	· 특별시·도지사는 대통령 · 시·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		의회구성까지 경과조치 시읍면의원선거('52. 4. 25) 시도의원선거('52. 5. 10)
1956. 2. 13	· 의원임기단축 : 4년→3년 · 회의일수제한	· 시·읍·면장 직 선제 · 임기 : 4년→3년	· 시·읍·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 폐지	기초단체 의원 및 장 선거('52. 8. 8) 시도의원선거('56. 8. 13)
1956. 7. 8	· 의원정원 및 선거구 관계부분 개정			
1958. 12. 26		· 시·읍·면장 임명제로 전환·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 부활		
1960. 11. 1		· 모든 단체장 주민직선		의회, 단체장 선거('60.12)
1961. 9. 1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시행 읍면자치를 군자치로 변경 장은 임명제로 함 의결은 상급관청의 승인으로 대행			
1988. 4. 6 (전면개정)	· 시도와 시군구를 자치단체로 함 · 단체장 주민직선(한시적으로 임명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1989. 12. 30	· 지방의회에 행정감사권 인정 · 시도의 부단체장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임명 · 지방의원선거는 '90. 6. 30, 단체장 선거는 '91. 6. 30 실시			최초 선출지사의 임기중은 종전대로 임용

구분	제도내용			비고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장과의회의 관계	
1990. 12. 31	· 의원겸직금지 확대 · 지방의원선거 '91. 6. 30 단체장 선거 '92. 6. 30이내 실시			지방의원, 단체장 선거법 별도제정('90. 12. 30)
1991. 5. 23	· 의원겸직 금지규정중 농업, 수산업, 축산업협동조합장 등 제외			서울특별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 제정('91. 5. 31)
1991. 12. 31	· 회의참석의원 여비지급 · 지방의원 체포·구금시 통보제 · 시군·자치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둠			
1994. 3. 16	·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 조례로 정할 벌칙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제한 · 증언선서 조항 설치 · 단체장에 대한 이행명령제 도입등			· 자치단체장 선거 1995. 6. 30이전으로 규정
1994. 12. 20	·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정 · 단체장 연임제한 등 · 자치단체 국가공무원 소속장관이 제청(1995. 1 단체장 제청으로 재개정)			
1995. 8. 4	·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기준 설정 등			도농 복합시 행정특례법 규정 개정
1999. 8. 31	· 주민의 조례제안 감사 청구제 도입 · 중앙 및 지방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			
2000. 1. 12	· 인구 800만 이상 단체 부단체장 3인 규정			
2002. 3. 25	· 단체장의 권한 대행사유 확대 (금고 이상 형을 받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가)			2002. 7. 1 시행
2003. 7. 18	·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 삭제 · 도출장소로 인구 3만 이상 지역, 도농복합지 기준추가			
2004. 1. 29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인정 · 주민투표 관련 규정 정리			주민투표법 제정 (2004. 1. 29)
지방분권특별법 (2004. 1. 16)	· 지방분권과제 추진방안 절차 규정			5년 한시법
2005. 1. 27	· 주민감사청구제 개선 · 주민소송제 도입			'06부터 시행
2005. 3. 24	· 권한일부 이양 등 관련(읍면동 구역 변경 승인 등)			
2005. 8. 4	·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유급제) · 단체장 입후보시 권한 대행 등			
2006. 1. 11	· 자치단체 종류에 특별자치도 추가 · 조례제정, 감사청구 규정 개선 · 지방공무원의 정원, 인건비 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06. 2. 21)
2006. 4. 28	· 지방의회 윤리 강령 조례로 정함 · 지방의회 연간 회의일 수, 회기 등 조례로 정함			
2006. 5. 24	· 선출직인 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규정 마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06. 5. 24)

* 자료 : 2006. 7. 법제처 법령자료.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연기군의 전동면 또한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적·시대적 흐름과 함께 하였다. 따라서 전동면의 지방자치 발전을 지방선거를 통해 역사적 시기별로 살펴본다.

2. 1991년 이전의 전동면의 지방자치선거

1) 제1차 지방자치선거(제1차 지방의원선거-1952. 4. 25)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법은 우여곡절 끝에 1949년 7월에 제정·공포되어, 서울특별시와 도, 그리고 시·읍·면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시·읍·면장은 시·읍·면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었다. 반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은 4년 임기의 명예직으로 정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도 지방선거는 바로 실시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는 지방선거를 연기하다가 한국전쟁 중 1952년 4월에 지방선거를 공고하고 나섰다. 선거권은 만21세 이상 주민으로 6개월 동안 동일한 자치단체 구역내에 거주한 자여야 하며,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 만25세 이상으로 특정한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은 없었다. 도의원 및 읍면의원은 주민에 의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였고, 직선으로 선출된 초대 읍의회는 읍면장을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실시된 것은 1952년 4월 25일 시·읍·면 의회의원선거 및 5월 10일 도의회의원선거였다. 기초의원선거는 한강 이북지역 및 지리산 주변 8개 면을 제외한 17개시, 72개 읍, 1,308개 면에서 치러졌는데, 중선거구제와 다 득표자 우선방식에 의해 378명의 시의원과 1,114명의 읍의원, 16,502명의 면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도의원은 306명이 선출되었다.

(표 12) 초대 읍면의회 전동면 의원명단

초대 읍면의회 전동면 의원		
의 장	부의장	의 원
김진태	신용규	송재순, 남상범, 이상하, 이창령, 조달인, 이정규, 김우현, 이병덕, 김재득, 이흥렬, 김지현

2) 제2차 지방자치선거

(제2차 지방의원 및 제1차 단체장 선거-1956. 8. 8)

1952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대 지방의원·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1956년에 치러진 제2대 지방의원·자치단체장 선거는 선거 6개월 전인 1956년 2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의해 치러졌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기존의 임명제를 유지하되, 시·읍·면장은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지방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축소한다는 것이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의원선거구를 중선거구에서 분할하여 1인 1구의 소선거구제로 변경하였다. 시·읍·면장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한 것은 부패와 혼란 등 간선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직선제가 여권후보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이승만 정부의 계산이 반영되어 있었다.

충청남도에서도 1956년 8월 8일 제1대 민선면장과 제2대 면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으며,

제2대 도의원선거가 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되었다. 도의원선거는 충청남도 전체 유권자 720,673인 가운데 626,575인이 투표에 참가하여 86.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도의회 의원정수는 45인으로 123인이 입후보하여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제2대 전동면의회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13] 제2대 읍면의회 의원명단(1956. 8. 8 시행)

제2대 읍면의회 전동면 의원		
의 장	부의장	의 원
신용규	윤철병	안병우, 권오준, 이상아, 정병철, 윤종석, 이정규, 김우현, 이병덕, 김재득, 정중호

3) 제3차 지방자치선거

(제3차 지방의원 및 제2차 단체장 선거-1960. 12. 19)

1960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자유당 정부는 1958년 12월 각급 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임명제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4·19 혁명으로 집권하게 된 민주당 정부는 시·읍·면장은 물론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개정했다. 이로써 건국 이래 처음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주민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1960년 11월 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제3대 도의원선거는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되었다. 제3차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정당추천이 가능하였고, 광역의회는 소선거구제,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하였다.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로 낮추었고, 도의원선거에 관해서는 종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제3대 전동면의회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14] 제3대 읍면의회 의원명단(1960. 12. 19 시행)

제3대 전동면 의원		
의 장	부의장	의 원
윤병철	정중호	구분준, 정병철, 안병우, 이용규, 윤종석, 정광현, 김선균, 이흥렬

3. 1991년 이후의 전동면 지방자치선거

1) 1991년 2차 지방선거(2차 지방의원, 1차 단체장 선거)

제13대 대통령 선거(1987. 12. 16)에 의해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1988년 4월 26일 실시되었다. 동년 5월 30일에 국회가 개원되면서 지방자치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진행하다가 1990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1980년 12·12 군사쿠데타에 의한 제5공화국 등장 속에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폭발하였고, 이러한 욕구가 1986년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후보에 의해 “6·29 선언”에 반영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6·29 선언”에는 지방자치의 실시가 포함되었다.

1990년 12월에 개정된 새로운 지방자치법(1960. 12. 31 법률 4310호) 부칙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선거를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시행한다고 규정되었고, 이 선거를 위하여 개정된 지방의 회의원 선거법(1990. 12. 31 법률 제4311호)에서는 구·시·군의회 의원선거와 서울특별시, 직할시·도의회, 의원선거 절차가 다르게 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모두 주민선거에 의해 구성하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 우여곡절 끝에 시·군·자치구의원 선거는 1991년 3월 26일, 그리고 시·도의원 선거는 동년 6월 20일에 실시되었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지방선거가 중단된 지 30년만의 일이었다. 투표율은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 모두 78.0%였다.

(표 15) 전동면 기초의원 입후보 상황

기호	성명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1	황순덕	남	36	전동면 노장리 588-3	자영업
2	남용우	남	37	전동면 노장리 435-1	회사원
3	한준석	남	59	전동면 보덕리 138	농업
4	김수진	남	53	전동면 미곡리 353-3	자영업

(표 16) 전동면 기초의원 입후보 득표 현황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계	황순덕	남용우	한준석	김수진		
3,293	2,603	2,522	1,137	902	393	90	81	690

2) 1995년 5차 지방선거(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년 5차 지방선거는 1960년 장면의 민주당 정부 이후 지방선거의 네 가지를 모두 한 날짜에 실시한 제1차 통합지방선거이다. 199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후보가 1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기간 내인 1995년 6월 27일 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모두 직접 선거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5차 지방선거(1차 통합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임기는 3년(이후 4년)이고,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광역의회는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기초의회의원은 4차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추천을 배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89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1991년 6월 30일에 실시하게 되어 있었다. 또 1990년 12월의 제9차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1992년 6월 30일에 실시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와 복잡한 정치일정 등으로 수차례 연기된 후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선거의 형태로 실시되

었다. 1995년 지방선거는 지방의원선거법에 의해 실시되었던 1991년의 지방선거와 달리 1994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지방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선거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묶어 새로이 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따라서 6·27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장을 임명하던 시대를 마감하고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복원을 실현하고, 단체장의 직선은 강력한 지방분권세력의 대두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구도의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한 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강력한 선거법이 실효를 거둔 부정방지선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는 광역의회선거에 있어 비례대표제 도입을 규정한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 모두에 정당의 후보 추천을 허용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그러나 정당의 후보추천 문제는 1995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정당추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었다.

한편으로, 투표율은 68.4%로 6·27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포함하여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상당수 유권자들이 투표에 대한 관심과 의무감을 가진데다, TV토론 등 언론정치가 활성화됨으로써 동시선거의 복잡성으로 인한 투표기피심리 및 젊은층의 연휴이용심리 등을 상쇄한 덕분에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첫 전국동시선거와 더불어 실시된 연기군 전동면 기초의원 입후보 상황 및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7] 전동면 기초의원 입후보 상황

기호	성명 (한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1	황순덕	남	40	전동면 노장리 588-3	자영업

[표 18] 기초의원 입후보 득표 현황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황순덕	무투표당선		
3,584					

3) 1998년 6차 지방선거(제2차 전국동시지방선거)

1997년 12월에 1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1998년 6월 4일에는 6차 지방선거(2차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의 선거제도는 5차 선거와 동일하였지만,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와 유급선거사무원의 수를 축소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축의·부 의금품 제공과 주례행위를 제한하는 등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현수막과 명함형의 소형인쇄 물을 폐지하는 등 비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통합선거법의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통합선거법의 부칙 조항에 따라 제2회 전국지방선거는 1998년 6월 4일에 실시되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 기초의원의 선거구가 조정되었고, 의원정수도 축소되었다.

1998년 6월 4일 제6차 지방선거와 제2차 전국동시선거와 더불어 실시된 연기군 전동면 기초의원 입후보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때에 김웅기가 당선되었으나 김웅기 위원이 조치원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기초의원을 동시에 재직할 수 없게 되어 2000년 10월 26일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황순덕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표 19] 전동면 기초의원 입후보 상황

기호	성명 (한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1	황순덕	남	43	전동면 노장리 588-3	자영업
2	김웅기	남	58	전동면 노장리 582-6	농업

[표 20] 기초의원 입후보 득표 현황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황순덕	김웅기		
3,474	2,494	1,039	1,380	75	980

4) 2002년 7차 지방선거(제3차 전국동시지방선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2년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선거였으며, 노사모열풍, 월드컵 열기 등 정치적 세대교체의 흐름 속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의원선거로는 네 번째, 자치단체장 선거로는 세 번째 치른 선거였다. 각 정당은 6·13 지방선거가 2002년 8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판단아래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사상 최초로 정당명부식 광역의회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선거구가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로 나뉘었다.

2002년 제7차 지방선거와 제3차 전국동시선거와 더불어 실시된 연기군 전동면 기초의원 입후보 상황 및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 전동면 기초의원 입후보 상황

기호	성명 (한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1	황순덕	남	47	전동면 노장리 588-3	자영업

[표 22] 전동면 기초의원 입후보 득표 현황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황순덕	무투표당선		

5) 2006년 8차 지방선거(제4차 전국동시지방선거)

제4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위원을 뽑는 5·31 지방선거가 2006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었다. 1991년 지방선거의 실시로 지방자치체가 부활한 이래 5·31 지방선거는 지방의회로는 다섯 번째, 각급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위원들을 동시에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는 네 번째였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의회의원들도 의정활동비 제공과 정당 명부제 도입 등과 함께 맞물려 상당한 과열 현상을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로 선거구가 변경되었으며, 처음으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의회의원들도 의정활동비 제공과 정당 명부제 도입 등과 함께 맞물려 상당한 과열 현상을 보였다. 한편 5·31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1.6%로 나타났는데, 6·13 지방선거보다는 높지만 그 외 다른 지방선거 보다 낮은 것으로, 특히 도저촌고(都低村高)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5·31 지방선거의 주요 특징은 정권심판론과 한나라당 견제론,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인 국민중심당 창당, 선거법 개정 선거구 중대선거구로 변경, 처음 도입되는 비례대표 선출의 영향으로 1인 4매에 이르던 투표지도 1인 6매로 늘어나는 등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2006년 제8차 지방선거와 제4차 전국동시선거와 더불어 실시된 연기군 전동면 선거구 현황과 입후보 현황,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 연기군 지방선거 선거구 현황

선거명	선거구명	인구수	선거구역	정수	비례대표정수
도의원	충청남도의회 의원 제1선거구	33,808	조치원읍, 동면, 전동면	1	-
군의원	연기군의회의원 연기군 나선거구	7,817	동면, 전동면	2	-

[표 24] 연기군 다선거구 기초의원 입후보 상황

기호	정당	성명 (한자)	성별	나이	주소	직업
1	열린우리당	황순덕	남	51	전동면 노장리 632-6	제조업
2	한나라당	장승업	남	50	동면 송용리 105-1	자영업
3	국민중심당	김장식	남	46	동면 내판리 637-2	농업

[표 25] 연기군 다선거구 후보자별 득표현황

선거 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무효 투표수	기권수
		황순덕	장승업	김장식	계		
7,817	5,086	1,792	1,818	1,316	4,926	160	2,731

6) 2010년 9차 지방선거(제5차 전국동시지방선거)

제6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뽑는 9차 지방선거가 2010년 6월 2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는 도지사(민선 6대), 군수(제5대), 도의원(제9대), 시군의원(제6대)을 선출하고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선거도 함께 진행되었다. 전동면은 동면과 함께 제1선거구(광역의원)의 나선거구(기초의원) 제2구(교육의원)에 속하였다. 2010년의 입후보 현황,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6) 도지사 선거 투표 현황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박해춘 (한나라당)	안희정 (민주당)	박상돈 (자유선진당)		
연기군 전체	64,534	37,808	4,265	18,037	14,244	1,262	26,726
전동면	3,171	1,977	254	676	928	119	1,194

※ 당선자 : 안희정(민주당)

(표 27) 연기군수 선거 투표현황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이규진 (한나라당)	홍영섭 (민주당)	유한식 (자유 선진당)	권문용 (국민중심 연합)	김준희 (미래연합)	이성원 (무소속)		
연기군	64,534	37,803	3,175	11,075	19,542	1,344	997	762	908	26,731
전동면	3,171	1,977	148	328	1,198	120	65	45	73	1,194

(표 28) 도의회의원 선거 투표현황(연기군 제1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한문수 (한나라당)	최재민 (민주당)	유환준 (자유 선진당)	유용철 (국민중심 연합)	김대순 (무소속)		
연기군 제1선거구	38,981	22,131	5,043	6,220	7,108	2,249	846	665	16,850
전동면	3,171	1,977	836	261	604	117	65	94	1,194

(표 29) 비례대표 도의회 의원 선거 투표현황

	선거인 수	투표수	정당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진보신당	국민 참여당	미래연합	사회당		
연기군	101,953	61,123	12,536	23,619	17,988	1,878	616	947	599	351	2,589	40,830
전동면	3,171	1,976	291	454	847	70	38	71	55	21	129	1,195

[표 30] 군의원 선거 투표현황(연기군 나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김장식 (민주당)	장승업 (자유 선진당)	황순덕 (자유 선진당)	홍성용 (국민중심 연합)	박영진 (미래연합)		
나선거구	7,057	4,446	1,064	1,142	948	419	600	273	2,611
전동면	3,171	1,977	165	83	754	360	535	80	1,194

[표 31] 비례대표 군의회 의원 선거 투표현황

	선거인수	투표수	정당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진보신당	국민 참여당	미래연합	사회당		
연기군	64,534	37,799	5,044	14,034	14,340	852	499	908	499	166	1,457	26,735
전동면	3,171	1,976	291	454	847	70	38	71	55	21	129	1,195

[표 32] 교육감 선거 투표현황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김종성	강복환		
연기군	64,534	37,806	22,838	11,836	3,132	26,728
전동면	3,171	1,975	1,167	570	238	1,196

[표 33] 교육의원 선거 투표현황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투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이우룡	이은철		
연기군	64,534	37,788	13,075	20,527	4,186	26,746
전동면	3,171	1,975	719	971	285	1,196

[표 34] 1991년 이후 연기군의회 역대 의원 현황(전동면 출신)

의원 성명	주소	재임기간	생년월일	비고
황순덕	전동면노장리	1991. 4.15 ~ 1995.6.30 (4년)	55.10.15	초선
황순덕	"	1995. 7. 1 ~ 1998.6.30 (3년)	55.10.15	연기군의회위원장 2선
김웅기	"	1998. 7. 1 ~ 2000.6.30 (2년)	40.11. 1	2000.6.30. 농협조합장 겸직금지법제정으로사직
황순덕	"	2000.10.27 ~ 2002.6.30 (2년)	55.10.15	보궐선거 당선 3선
황순덕	"	2002. 7. 1 ~ 2006.6.30 (4년)	55.10.15	4선
황순덕	"	2006. 7. 1 ~ 2010.6.30 (4년)	55.10.15	5선

제5장 전동면의 산업과 경제

제1절 농업

제2절 생산물 및 소득

제3절 축산업

제4절 산업구조

제5절 관광산업

제1절

농업

1. 농업환경

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농업은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시작한 원시산업으로 여러 산업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연기군의 논과 밭의 비중은 16.6%, 8.9%로 충남의 21.1%, 9.4%보다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임야의 비중은 54.0%로서 전국의 64.7%, 충남의 51.9%와 비교하여 전국의 비중보다는 낮지만 충남의 임야 비중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2007년)

(단위 : km²)

구분	전국		충남		연기군	
	면적	%	면적	%	면적	%
계	99,828	100%	8,600	100%	361	100%
전	7,852	7.9%	808	9.4%	32	8.9%
답	11,945	12.0%	1,817	21.1%	60	16.6%
대	2,659	2.6%	234	2.7%	11	2.9%
임야	64,546	64.7%	4,461	51.9%	195	54.0%
기타	12,825	12.8%	1,280	14.9%	64	17.6%

* 자료 : 연기군, 각연도, 『연기군 통계연보』.

전동면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2007년 기준으로 총 57.74km²로서 전(田)의 비중은 6.7%, 답(畓)의 비중은 11.4%, 임야가 68.4%이다. 그리고 2008년 현재 전동면의 농경지 비율은 18.1%로서 이는 충남의 30.5%, 전국의 19.9%와 비교해 볼때 낮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과 답의 비중은 1980년 8.4%, 14.3%, 1990년 6.4%, 14.8%에서 2008년 6.7%, 11.4%로 매년 농경지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의 비중은 1980년 74.3%, 1990년 69.6%, 2008년 68.4%로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공장용지 등의 기타 부문은 1980년 1.6%에서 1990년 7.7%, 2008년 12.1%로써 증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전동면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km², %)

구분	1980		1990		1995		2000		2005		2008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74.02	100	50.99	100	57.85	100	57.81	100	57.75	100	57.74	100
전	6.28	8.4	3.30	6.4	4.18	7.2	4.10	7.1	3.84	6.7	3.84	6.7
답	10.58	14.3	7.59	14.8	7.48	12.9	7.26	12.6	6.66	11.5	6.58	11.4
대	0.95	1.5	0.68	1.3	0.77	1.3	0.81	1.4	0.87	1.5	0.89	1.5
임야	55.00	74.3	35.48	69.6	40.02	69.2	39.87	69.0	39.60	68.6	39.48	68.4
기타	1.21	1.6	3.94	7.7	5.40	9.3	5.76	9.9	6.78	11.7	6.96	12.1

* 자료 : 연기군, 각연도, 『연기군 통계연보』.

2) 농경지 현황

연기군 농경지의 규모별 농가분포를 살펴보면 구조적 변화가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의 변화를 보면 농업 농가 인구의 꾸준한 감소 속에서 규모별 농가 분포수도 감소하고 있다.

0.5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의 비중은 2000년 34.2%에서 2008년 34.8%로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농계층(0.5ha~2.0ha)은 2000년 55.5%에서 2008년 53.6%로 소폭 감소하였다. 대농계층(2ha~5ha)은 2000년 10.1%에서 2008년 11.7%로 소폭 증가하였다. 경지규모별 농가의 전체 농가에 대한 상대적 비율분포에서 나타난 구조적 특징은 0.5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와, 중농계층(0.5ha~2.0ha)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대농계층(2ha~5ha)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동면에서도 비슷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 전동면의 경우에는 0.5ha 미만을 경작

〔표 3〕 농경지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연기군				전동면			
	2000		2008		2000		2008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계	7,425	100	6,424	100	722	100	593	100
무경지농가	77	1.0	96	1.5	6	0.8	8	1.4
0.5ha 미만	2,468	33.2	2,137	33.3	215	29.8	167	28.2
0.5~1ha	2,312	31.1	1,960	30.5	230	31.9	167	28.2
1~2ha	1,815	24.4	1,481	23.1	184	25.5	164	27.7
2~3ha	437	5.9	408	6.4	46	6.4	43	7.3
3~5ha	239	3.2	209	3.3	32	4.4	28	4.7
5ha 이상	77	1.0	127	2.0	9	1.3	16	2.7

* 자료 : 연기군, 각연도, 『연기군 통계연보』.

하는 농가의 비중은 2000년 30.6%에서 2008년 30.2%로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농계층(0.5ha~2.0ha)은 2000년 57.4%에서 2008년 55.9%로 소폭 증가하였다. 대농계층(2ha~5ha)은 2000년 12.1%에서 2008년 14.7%로 증가하였다. 전동면의 경지규모별 농가의 전체 농가에 대한 상대적 비율분포에서 나타난 구조적 특징은 0.5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와, 중농계층(0.5ha~2.0ha)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대농계층(2ha~5ha)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기군의 농경지 현황에서와 같이 전동면 농가들에서도 대규모 경작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농경지는 점차 산업화나 도시된 용지로 변화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경지는 전국토의 22% 수준으로 절대면적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의 면적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탈농과 농지전용이 많아 농경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1992년 농업진흥지역제도 시행으로 이전의 절대농지, 상대농지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 종전의 절대농지, 상대농지는 필지단위의 개념으로 생산성이 높은 경우에는 절대농지, 그 외 농지는 상대농지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제도에서는 권역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농지집단화도와 토지생산성 및 경사도 등을 기준으로 일단의 농지를 권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진흥구역은 농업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진흥시키며, 농업에 이용하기 위한 일단의 토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것이다.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농업진흥지역에 필요한 수자원을 오염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및 농업진흥지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것이다. 이러한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에 관련되거나 농업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기타 직선화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시설(도로, 철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구역의 경우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오염시설이 아닌 공장 등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개발이 허용되고 있다.

[표 4] 농경지 현황

(면적 : ha, %)

연도	연기군			전동면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008	2,493	2,406 (96.5%)	87 (3.5%)	408	385 (94.3%)	23 (5.7%)
2005	4,899	4,326	573	630	528.7	101.3
2002	5,362	4,800	561	644.8	541.9	102.9
증가율 (%)	-53.5	-49.8	-84.5	-36.7	-28.9	-77.6

* 자료 : 연기군, 각연도, 『연기군 통계연보』.

이러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기군의 총 농경지 면적은 2008년 현재 2,493ha로서 이중 96.5%인 2,406ha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3.5%인 87ha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지난 6년 동안 농업진흥구역은 약 53.5%가 감소하고, 농업보호구역은 84.5%가 감소한 수치로써,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전동면의 경우에는 2008년 총 408ha가 지정되어 있으며 농업진흥구역은 94.2%인 385ha, 농업보호구역은 5.7%인 23ha가 지정되어 있다. 이는 지난 6년 동안 총 36.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농업진흥구역 28.9%, 농업보호구역 77.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동면 역시 점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농기계 현황

우리나라의 농업기계화는 1970년대의 정부의 식량증산정책과 향도이촌에 따른 탈농과 고령화 그리고 부녀화 등으로 인한 농업노동력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업화를 바탕으로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농업 인력이 대거 공업 인력화 되는 가운데 농업기계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1978년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농업노동력을 해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시켰다. 최근에는 첨단 농업기계가 개발 보급됨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농업노동력 부족의 해결은 물론 복지농촌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기군과 전동면이 보유한 농업기계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는 농촌 농업기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농업 운송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운기는 그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연기군의 경운기 보급현황은 1990년 3,225대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0년 14,512대를 기점으로 보급대수가 점차 줄고 있으며 2008년 현재 2,873대가 보급되어 있다. 트랙터의 경우에는 1990년 217대에 지나지 않았으나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여 2000년 3,504대, 2008년에는 1,113대가 운행중이다. 이앙기의 경우도 급격한 증가를 보여왔다. 1990년 736대였던 이앙기가 2000년에는 1,609대, 2008년에는 1,409대가 운행중이다. 증가율로 살펴보면 경운기는 -10.9%, 트랙터는 412.9%, 이앙기는 9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면의 경우 경운기는 1990년 376대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0년에는 1,609대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05년 393대로 감소중에 있다. 트랙터는 1990년 15대에 지나지 않았으나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여 2000년 376대가 운행하였으나, 2008년에는 43대가 운행중이다. 이앙기의 경우도 지난 18년간 급격한 증가를 보여왔다. 1990년 103대였던 이앙기가 2000년에는 168대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 215대를 기점으로, 2008년 현재 71대가 운행중이다. 증가율로 살펴보면 지난 22년 동안 경운기는 -100%, 트랙터는 186.7%, 이앙기는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농기계 현황

(단위 : 대)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8	증가율(%)	
연기군	경운기	3,225	3,750	14,512	3,203	2,873	-10.9
	트랙터	217	449	3,504	1,048	1,113	412.9
	이앙기	736	1,106	1,609	1,696	1,409	91.4
전동면	경운기	376	393	1514	393	0	-100.0
	트랙터	15	49	376	135	43	186.7
	이앙기	103	134	168	215	71	-31.1

* 주 : 2008년 경운기의 경우 읍, 면별로 집계되지 않음

* 자료 : 연기군, 각연도, 『연기군 통계연보』.

(2) 수확기

바인더와 콤바인으로 대표되는 수확기의 보유현황을 보면 연기군은 1990년 118대였던 바인더가 2008년 6대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콤바인의 경우에는 1990년 253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487대가 운영되는 것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428대가 운영되고 있다.

전동면의 바인더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27대에서 보급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3대가 운영되던 바인더는 2005년 이후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콤바인은 1990년 24대에서 1995년 55대가 보급된 후, 2008년 현재 57대가 운영되고 있다. 보급추세를 살펴보면 1995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까지 이후 보급대수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6] 수확기 보유현황

(단위 : 대)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8	증가율(%)	
연기군	바인더	118	53	16	14	6	-95
	콤바인	253	468	487	447	428	69
전동면	바인더	27	13	3	0	0	-100
	콤바인	24	55	49	61	57	138

* 자료 : 연기군, 각연도, 『연기군 통계연보』.

2. 농가 및 농가인구

1) 농가현황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연기군의 농가와 농가수는 2005년 현재 6,424세대에 19,325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0년 7,425세대에 23,611명에서 농가세대는 13%, 농가인구는 18%가 감소한 것이다. 2005년 연기군의 농가세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업농가세대는 3,769세대로 58.7%로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종겸업세대는 824세대로 13.1%, 2종겸업세대는 28.2%로 나타났다. 연기군 농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2종겸업세대 비율이 증가하고 전업농가 세대와 1종겸업세대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농업수입보다 농외수입이 많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의미로는 농업의 생산성 감소로 인하여 다른 수입원을 찾는 농가의 수가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동면의 농가와 농가수는 2005년 기준으로 593세대에 1,748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0년 723세대에 2,283명에서 농가세대는 17.9%, 농가인구는 23.4%가 감소한 것이다. 2005년 전동면의 농가세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업농가세대는 336세대로 5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종겸업세대는 76세대로 12.8%, 2종겸업세대는 181세대로 30.5%로 나타났다. 전동면 농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업농가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1종겸업농가의 비율은 소폭 감소, 2종겸업농가수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종겸업농가 세대의 비율이 연기군, 전동면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농업이외 다른 농가 소득이 꾸준히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표 7)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2000		2005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연기군	세대수	7,425	6,424	100%
	전업	4,508	3,769	58.7%
	1종겸업	1,200	842	13.1%
	2종겸업	1,717	1,813	28.2%
	농가인구	23,611	19,325	-
전동면	세대수	723	593	100%
	전업	489	336	56.7%
	1종겸업	115	76	12.8%
	2종겸업	119	181	30.5%
	농가인구	2,283	1,748	-

- * 주 : 1종겸업농가 : 겸업농가 중 농업수입이 농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2종겸업농가 : 겸업농가 중 농외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 농업수입과 농외수입이 비슷할 때에는 노력을 많이 경주한 쪽으로 선택한다.
 * 자료 : 통계청, 각연도, 『농업총조사보고서』.

2) 연령별 농가인구

연기군의 연령별 농가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2005년 남자는 9,693명, 여자는 9,632명으로 2000년도 보다 남자는 2,016명, 여자는 2,27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군 인구구조를 코호트별로 그래프로 살펴보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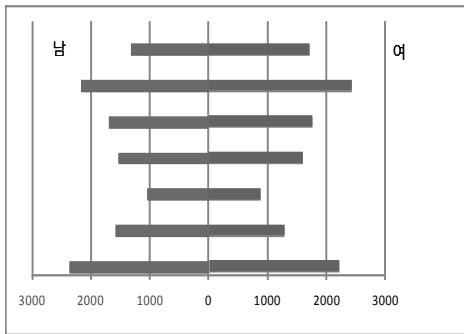
인구계층별로 살펴보면 분포가 가장 많은 연령계층은 60~69세로서 남자 18%, 여자 20%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에 비하여 70세 이상의 인구구조 비율도 남녀 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령별 농가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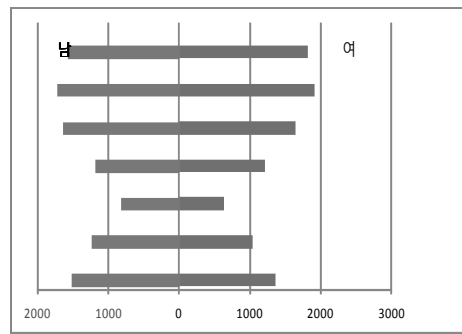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연기군				전동면			
	2000		2005		2000		2005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1,709	11,902	9,693	9,632	1,177	1,202	876	87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세	2,360	2,225	1,519	1,359	261	237	132	124
	20%	19%	16%	14%	22%	20%	15%	14%
20~29세	1,588	1,287	1,241	1,037	144	118	90	65
	14%	11%	13%	11%	12%	10%	10%	7%
30~39세	1,045	879	824	637	98	98	67	56
	9%	7%	9%	7%	8%	8%	8%	6%
40~49세	1,538	1,594	1,187	1,219	158	148	125	119
	13%	13%	12%	13%	13%	12%	14%	14%
50~59세	1,692	1,768	1,638	1,639	164	157	151	149
	14%	15%	17%	17%	14%	13%	17%	17%
60~69세	2,163	2,429	1,716	1,916	202	258	156	179
	18%	20%	18%	20%	17%	21%	18%	21%
70세 이상	1,323	1,720	1,568	1,825	150	186	156	180
	11%	14%	16%	19%	13%	15%	18%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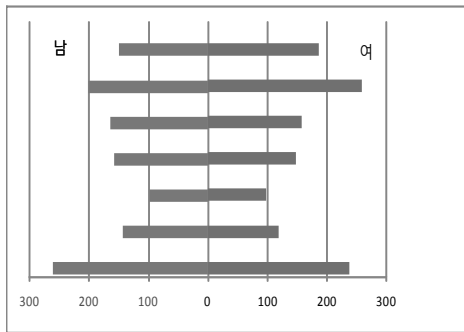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각연도, 『농업총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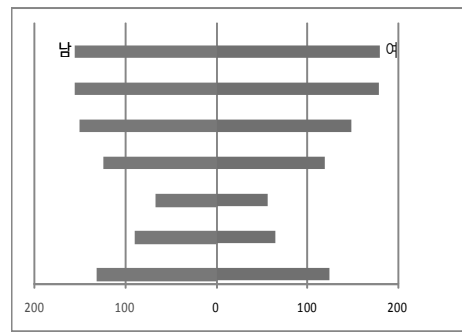
<연기군 2000년도 인구구조>



<연기군 2005년도 인구구조>



<전동면 2000년도 인구구조>



<전동면 2005년도 인구구조>

이는 인구구조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운데가 오목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젊은 인구들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전동면의 연령별 농가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2005년 남자는 876명, 여자는 872명으로 2000년도 보다 남자는 301명, 여자는 33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면의 인구구조 역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계층별로 살펴보면 분포가 가장 많은 연령은 60~69세 이상으로서 남자 18%, 여자 21%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에 비하여 70세 이상의 코호트 비율도 남자 5%, 여자 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구조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운데가 오목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젊은 인구들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3. 경작지 현황

1) 영농형태별 농가

연기군의 영농형태별 농가를 살펴보면 2005년 논벼를 경작하는 농가는 6,424호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과수 1,064호 16.6%, 채소 586호 9.1%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해 보면 논벼를 경작하는 가구는 감소하였으며, 과수 및 축산농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농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재배 작물 및 영농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전동면의 영농형태별 농가를 살펴보면 2005년 논벼를 경작하는 농가가 304호인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과수 163호 27.5%, 축산 59호 9.9%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해 보면 논벼를 경작하는 가구의 비율이 8% 정도 감소하였으나, 과수, 축산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면의 영농형태 특징을 연기군과 비교해 보면 논벼를 경작하는 가구의 비율은 약 9% 낮으며, 반면 과수농가의 비율은 11%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영농형태별 농가

(단위 : 가구)

구분	계	논벼	과수	특용작물	채소	화훼	일반발작물	축산	기타	
연기군	2005	6,424	3,863	1,064	84	586	43	257	515	12
		100%	60.1%	16.6%	1.3%	9.1%	0.7%	4.0%	8.0%	0.2%
	2000	7,425	4,804	967	143	734	3	289	446	39
		100%	64.7%	13.0%	1.9%	9.9%	0%	3.9%	6.0%	0.5%
전동면	2005	593	304	163	8	38	1	20	59	0
		100%	51.3%	27.5%	1.3%	6.4%	0.2%	3.4%	9.9%	0%
	2000	722	427	145	13	56	0	26	53	2
		100%	59.1%	20.1%	1.8%	7.8%	0%	3.6%	7.3%	0.3%

* 자료 : 통계청, 각연도, 『농업총조사보고서』.

2) 논경작 농가 현황

연기군의 논면적을 살펴보면 1980년 6,321ha에서 1990년 5,486ha까지 증가하였으나, 그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4,870ha에 이르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22.9%의 논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수는 1980년 8,339호에서 2005년 5,314호로 36.2% 감소하였다.

전동면을 살펴보면 1980년도에 601ha이었던 논경작 면적은 1990년 642ha로 증가하였으나 그후 감소하여 2005년 593ha에 이르고 있다. 지난 25년간 증가율을 살펴보면 21.8%의 논경작 면적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논경작 가구수는 1980년 728호에서 2005년 593호로 33.3% 감소하였다.

(표 10) 논 경작 농가수 및 논면적

구 분			2005	2000	1990	1980	증가율(%)
연기군	가구	(호)	5,314	4,804	6,859	8,339	-36.2
	면적	(ha)	4,870	4,236	5,486	6,321	-22.9
전동면	가구	(호)	485	613	642	728	-33.3
	면적	(ha)	470	505	543	601	21.8

* 자료 : 통계청, 각연도, 『농업총조사보고서』.

3) 밭경작 농가 현황

연기군의 밭경작 면적을 살펴보면 1980년 2,689ha에서 매년 감소하여, 1990년 2,312ha, 2005년 1,385ha에 이르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48.5%의 밭경작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밭 경작 농가의 가구수는 1980년 7,575호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4,718호에 이르고 있으며 같은 기간동안 37.7%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전동면을 살펴보면 1980년도에 273ha이었던 밭경작 면적은 2000년 304ha로 증가한 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05년 259ha에 이르고 있다. 지난 25년간 증가율을 살펴보면 5.1%의 밭경작 면적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작 가구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 701호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498호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변화율은 28.9%의 감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1) 밭면적 규모 및 농가

구 분			2005	2000	1990	1980	증가율
연기군	가구	(호)	4,718	5,015	5,299	7,575	-37.7
	면적	(ha)	1,385	2,377	2,312	2,689	-48.5
전동면	가구	(호)	498	523	596	701	-28.9
	면적	(ha)	259	304	246	273	-5.1

* 자료 : 통계청, 각연도, 『농업총조사보고서』.

4) 과수원 농가 현황

연기군의 과수원 면적을 살펴보면 2000년 876ha에서 2005년 949ha에 이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8.3%의 과수원 경작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원 경작 가구수를 살펴보면 2000년 967호에서 2005년 1,597호로 같은 기간동안 65.1%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전동면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145ha이었던 과수원 경작 면적은 2005년 166ha로 증가하였다. 지난 5년 동안의 경작지 변화율을 살펴보면 14.5%의 과수원 경작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면의 과수원 경작 가구수 변화는 2000년에는 113호에서 2005년 251호로 122.1% 증가하였다.

(표 12) 과수원 농가 및 과수원 면적

구 분			2005	2000	증가율
연기군	가구	(호)	1,597	967	65.1
	면적	(ha)	949	876	8.3
전동면	가구	(호)	251	113	122.1
	면적	(ha)	166	145	14.5

* 자료 : 통계청, 각연도, 『농업총조사보고서』.

제2절

생산물 및 소득

1. 수확작물별 재배 가구수

수확작물별 재배 가구수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연기군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은 논벼로써 5,310가구가 재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콩 2,647가구, 고추 2,970가구, 김장배추 2,133가구가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면의 수확 작물 재배 가구수를 살펴보면 논벼가 485가구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고추 302가구, 김장배추 240가구, 콩 239가구로 나타났다.

[표 13] 수확작물별 재배 가구수(2005년)

(단위 : 가구)

구분	논벼	보리	옥수수	콩	팥	감자	고구마
연기군	5,310	10	247	2,647	388	895	1,278
전동면	485	0	3	239	22	67	90
구분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양파	대파	마늘	기타
연기군	35	2,133	2,970	72	529	768	32
전동면	3	240	302	8	11	85	3

* 자료 : 통계청, 각연도, 『농업총조사보고서』.

2. 수확작물별 경작 면적

수확작물별 경작 면적을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연기군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논벼로서 4,754ha에서 재배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콩 365ha로 나타났다. 전동면의 수확 작물 경작 면적을 살펴보면 논벼가 512ha로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콩 48ha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수확작물별 경작 면적

(단위 : ha)

구분	논벼	보리	옥수수	콩	팥	감자	고구마
연기군	4,754	6	13	365	6	69	32
전동면	512	0	1	48	1	4	3
구분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양파	대파	마늘	기타
연기군	11	6	28	2.2	27	24	6
전동면	1	2	4	0.1	2	3	0.4

* 자료 : 통계청, 각연도, 『농업총조사보고서』.

3.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수

연기군의 농축산물 판매 금액별 농가수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100~500만원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가구가 2,744가구 4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500~1,000만원인 가구가 1,119가구 17.4%, 2,000~5,000만원인 가구가 12.2%, 1,000~2,000만원인 가구가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가구수의 비율이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천만원 이상 판매하는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500~2,000만원을 판매한다는 가구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축산물 판매 금액에서도 소득의 편차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농축산물 판매 금액별 농가수(연기군)

(단위 : 가구, %)

구분	계	판매 없음	1~5백만원	5백만~1천만원	1~2천만원	2~5천만원	5천만원~1억	1억이상~
2005	6,424	715	2,744	1,119	768	783	203	92
비율	100	11.1	42.7	17.4	12.0	12.2	3.2	1.4
2000	6,298	172	2,933	1,502	998	583	78	32
비율	100	2.7	46.6	23.8	15.8	9.3	1.2	0.5

* 자료 : 통계청, 각연도, 『농업총조사보고서』.

전동면의 농축산물 판매 금액별 농가수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100~500만원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가구가 175가구 2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500~1,000만원인 가구가 123가구 20.7%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00~5,000만원인 가구가 18가구 3.0%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판매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이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금액이 높은 가구(5,000만원 이상 판매하는 가구)의 비율이 2000년도에는 16가구 2.2%에서 2005년에는 26가구 4.3%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동면 역시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낮은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반면 금액이 높은 가구

[표 16] 농축산물 판매 금액별 농가수(전동면)

(단위 : 가구, %)

구분	계	판매 없음	~1백만	1~5백만원	5백만~1천만원	1~2천만원	2~5천만원	5천만원~1억	1억 이상~
2005	593	48	64	175	123	83	74	18	8
비율	100%	8.1%	10.8%	29.5%	20.7%	14.0%	12.5%	3.0%	1.3%
2000	722	13	130	232	158	90	83	10	6
비율	100%	1.8%	18.0%	32.1%	21.9%	12.5%	11.5%	1.4%	0.8%

* 자료 : 통계청, 각연도, 『농업총조사보고서』.

의 비중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농축산물 판매 금액에서도 소득의 편차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과수 재배 농가 및 면적

과수 재배 농가 및 면적을 살펴보면 2005년 연기군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과수는 복숭아로 452ha의 면적에서 934가구가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배가 365ha 705가구에서 재배되고 있다. 그리고 포도는 100ha 179가구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과수는 복숭아로 106ha의 면적에서 194가구가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배로 48ha 84가구, 포도 7ha 15가구가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과수 재배 농가 및 면적

(단위 : 호, h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기타	
		가구	면적	가구	면적	가구	면적	가구	면적	가구	면적
연기군	2005	17	10	705	365	934	452	179	100	117	19
	2000	13	6	848	390	808	334	257	114	128	62
전동면	2005	1	2	84	48	194	106	15	7	11	3
	2000	1	0	116	51	173	80	36	14	10	2

* 자료 : 통계청, 각연도, 『농업총조사보고서』.

제3절

축산업

축산이란 넓은 의미로는 가축, 가금을 사육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여 그 생산물을 이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축산은 가축이나 가금 중에서 농업과 관련이 있는 농용가축을 사육하고 증식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축산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축산물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여 외국 축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그 양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의 경영형태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축산은 영세적인 농가부업성격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표 18) 가축사육 농가 및 마리수

		연기군				전동면			
		2005	2000	1995	1990	2005	2000	1995	1990
한육우	가우	870	1,005	2,783	3,887	106	101	260	360
	마리	14,469	9,582	16,925	12,521	2,495	1,259	1,615	835
젖소	가우	74	92	116	147	3	6	14	13
	마리	4,668	4,595	2,939	1,939	154	242	347	136
돼지	가우	80	105	153	354	16	16	16	13
	마리	84,306	61,564	46,376	26,549	12,500	12,094	5,224	1,629
닭	가우	403	173	320	528	44	7	21	57
	마리	1,918,101	1,354,122	915,731	573,857	233,488	194,000	81,327	57,404
염소	가우	228	121	202	211	0	16	0	13
	마리	3,721	2,237	2,018	1,806	0	188	0	110
사슴	가우	45	42	33	23	7	7	3	0
	마리	705	421	304	102	362	198	83	0
오리	가우	24	76	80	79	6	9	8	13
	마리	21,375	4,131	8,195	21,547	13,209	1,602	1,858	7,572
꿀벌	가우	100	127	71	120	9	10	6	5
	통	9,017	7,091	1,973	1,900	403	510	79	70

* 자료 : 통계청, 각연도, 『농업총조사보고서』.

최근 축산 전업농가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축산규모나 사육두수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어 기업적 축산 경영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식생활의 변화, 수출을 위한 각종 축산물의 가공산업이 본격화되면서 축산물 소비성향도 크게 향상되었다. 최근에는 농가 주요 소득원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연기군의 축산현황을 보면 사슴사육 농가를 제외한 축산의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수는 줄고 있는 가운데 한우, 젓소, 돼지, 닭, 사슴, 꿀벌의 사육 마리수는 증가하였다. 전동면은 돼지, 사슴, 꿀벌 사육 농가를 제외한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수는 줄고 있으며,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꿀벌의 사육 마리수는 증가하였다. 특히 연기군 및 전동면 모두 돼지의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육류소비 패턴이 전통적인 소, 돼지 등에서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육류소비가 양보다는 질로 그리고 식도락의 형태로 바뀌어 육식문화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한 단면으로 해석된다. 한편 돼지와 닭의 경우 사육가구 수는 줄고 있으나 사육 마리수는 늘고 있어 사육가구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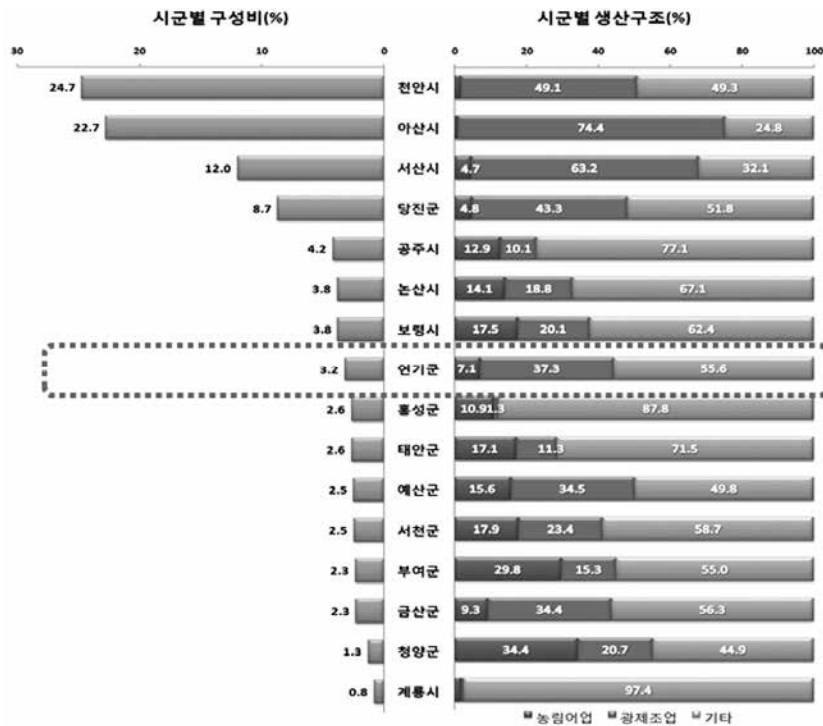
제4절

산업구조

1. 전통면 산업의 형태

연기군의 제조업 부문의 산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충남 서북부권의 성장과 세종시 건설 등에 따라 잠재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충남지역의 지역총생산 중에서 연기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2% 정도이다. 이러한 연기군의 생산구조를 지역총생산 데이터로 살펴보면

[표 19] 충남도 시군별 GRDP 규모 및 산업구조



* 자료 : 충청남도, 2009, 「2007년도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농림어업의 1차 산업 비중이 7.1%, 광공업 및 제조업이 37.3%, 기타 3차 산업이 55.8%로 나타났다. 사업체 수로 살펴보면 1차산업 0.2%, 2차산업 14.9%, 3차산업 84.9%로 나타났다. 사업체 종사자 수로 살펴보면 1차산업 0.3%, 2차산업 44.0%, 3차산업 55.7%로 나타났다.

전동면의 경우에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산업구조는 2008년 현재 사업체수 기준으로 1차산업 0.5%, 2차산업 43.6%, 3차산업 55.9%로 나타났다. 사업체 종사자 수로 살펴보면 1차산업 0.4%, 2차산업 74.4%, 3차산업 25.2%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화된 사업체를 기준으로 한 결과임으로 1차 산업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농가인구를 포함하여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1차 산업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전동면은 연기군에 비하여 2차 산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전동면 도로 현황(2009년 말 기준)

등 급	노 선 번 호	노 선 명	연 장(km)		기 점 (면)	종 점 (면)	포장상태		차선	비고
			연기군	전동면			포장	미포장		
국 도	1 호	목포~신의주	45.0		목 포 (조치원)	신의주 (미곡리)	45		4	
지방도	627 호	공주~전동	17.9		공 주 (송성리)	전 동 (미곡리)	17.9		2	
지방도	693 호	전동~병천	6.0		전 동 (노장리)	병 천 (봉대리)	6.0		2	
군 도	1 호	대곡~심중	14.9		미곡리	심중리	14.9		2	
군 도	9 호	미곡~소정	12.0		미곡리	미곡리	12.0		2	
군 도	15 호	월하~심중	12.3		송곡리	심중리	12.3		2	
군 도	16 호	신안~송성	7.1		보덕리	송성리	7.1		2	
군 도	21 호	대곡~심중	5.5							미개설
리 도	202 호	청 송 선		3.2	석곡리 산32-1	청람리397-5	2.0	1.2	1	
리 도	203 호	청 석 선		1.5	청송리 118-8	석곡리 산24-8	0.7	0.8	1	
리 도	204 호	모 술 선		0.5	송곡리 310-26	송곡리 76-2	0.5	0.0	1	
리 도	205 호	성 보 선		4.4	송성리 395-1	보덕리 246-2	1.4	3.0	1	
리 도	206 호	송 정 선		1.0	송정리 104-1	송성리 산61	0.0	1.0	1	
리 도	207 호	송 보 선		1.5	송곡리 216	보덕리 371-6	0.0	1.5	1	
리 도	208 호	성 곡 선		1.8	송성리 42	송성리 174	0.0	1.8	1	
리 도	209 호	심 중 선		2.4	심중리 669-2	심중리 379-1	0.2	2.2	1	
리 도	210 호	상 심 선	-	-	-	-	-	-	-	-
리 도	211 호	상 심 선		0.5	심중리 135	심중리 109-1	0.0	0.5	1	
농 도	301 호	송 신 선		2.3	송성리 215	신방리 97-4	2.3	0.0	2	
농 도	302 호	이 녹 선		1.7	노장리 522-7	노장리 174-1	1.7	0.0	1	
농 도	303 호	서 봉 선		1.0	봉대리 340-1	봉대리 205	1.0	0.0	1	
농 도	304 호	미 곡 선		1.2	미곡리 157	미곡리 산105-3	1.2	0.0	1	

(표 21) 전동면 임도 현황(2009년 말 기준)

연번	시설년도	시점	경유	종점	연장(m)	사업비 (천원)	구조개량 여부	비고
1	1987	보덕리		송성리	2,500	50,751		
2	1988	송정리		고북리	2,730	58,059		
3	1989~1994	다방리	달전리 양곡리	송성리	12,304	331,677	2002 2004	
4	1990~1991	미곡리		미곡리	3,260	71,167	2001	운주산
5	1992	송성리		송성리	1,740	60,485	2003	금성산
6	1992~1993	봉대리	청송리	미곡리	5,760	197,469	2002	운주산
7	1994	봉대리		노곡리	1,300	54,000	2003	운주산
8	1995	송성리		신방리	2,770	89,636	2004	
9	1996	노곡리		미곡리	3,630	216,384	2003	
10	1997	청송리		청송리	1,400	92,185	2004	
11	2000~2002	쌍류리		송성리	5,105	387,548		
12	2007~2008	노장리		봉대리	1,230	218,902		
13	2010	심중리		노장리				설치중

(표 22) 전동면 소류지 현황(2009년 말 기준)

소류지명 (저수지)	소재지	만수 면적 (ha)	저수량 (천㎥)	유역 면적 (ha)	수혜 면적 (ha)	수혜자 수 (인)	제 당		관리자 연락 전화
							제장	제고	
이목동	전동면 노장리	0.4	11	15	10	19	60	9	"
봉 대	전동면 봉대리	1.2	13	35	16	38	90	7	"
송 곡	전동면 송곡리	0.7	7	8	11	19	90	7	"
죽업리	전동면 노장리	0.5	13	10	7	21	144	6	"
송 정	전동면 송정리	0.8	14	20	10	23	90	7	"
보 덕	전동면 보덕리	1.2	15	21	15	47	124	12	"
송 성	전동면 송성리	1.0	9	60	21	17	115	14	"
심 중	전동면 심중리	1.0	14	30	12	20	45	8	"
동 막	전동면 청람리	2.0	13	60	24	42	83	16	"



〈구리골 저수지〉

2. 산업단지

1) 산업단지 현황

연기군에는 소정지방산업단지외에 7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전동면의 경우에는 노장산업단지와 청송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전동면에 입지한 공장 수는 31개로서 연기군에 입지한 공장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 지역별 공장 등록현황(2007년)

구분	공장수		종업원수		산업단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연기군	172	-	9,329	-	소정지방산업단지외 7개단지
전동면	31	18.0	1,101	11.8	노장산업단지, 청송산업단지

* 자료 : 연기군 홈페이지(<http://www.yeongi.go.kr>)

[표 24] 사업체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구분			1995		2000		2005		2008	
			개	비율(%)	개	비율(%)	개	비율(%)	개	비율(%)
연기군	사업체수	계	4,980	100	5,281	100	5,212	100	4,953	100
		1차산업	20	0.4	20	0.4	13	0.2	11	0.2
		2차산업	729	14.6	720	13.6	809	15.5	738	14.9
	종사자수	3차산업	4,231	85.0	6,021	114.0	4,390	84.2	4,204	84.9
		계	23,706	100	26,728	100	27,610	100	25,991	100
		1차산업	193	0.8	169	0.6	117	0.4	75	0.3
전동면	사업체수	2차산업	10,817	45.6	12,507	46.8	13,081	47.4	11,448	44.0
		3차산업	12,696	53.6	14,052	52.6	14,412	52.2	14,468	55.7
		계	152	100	183	100	196	100	195	100
	종사자수	1차산업	0	0	3	1.6	2	1.0	1	0.5
		2차산업	59	38.8	65	35.5	86	43.9	85	43.6
		3차산업	93	61.2	115	62.8	108	55.1	109	55.9
		계	2,215	100	1,866	100	1,831	100	1,842	100
		1차산업	0	0	19	1.0	11	0.6	7	0.4
		2차산업	519	23.4	1478	79.2	1420	77.6	1370	74.4
3차산업	1,696	76.6	369	19.8	400	21.8	465	25.2		

* 자료 : 연기군, 각연도, 『연기군 통계연보』.

2) 노장산업단지

조성목적 및 특징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시행자/관리기관		연기군/입주업체운영협의회										
위치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일원										
지역지정		1986. 9. 15 : 산업단지 지정										
조성기간		1986~1987										
면적	조성면적	총면적 : 161,984㎡			산업시설구역 : 134,714㎡				지원시설구역 : 4,449㎡			
	분양면적	총면적 : 134,714㎡			산업시설구역 : 134,714㎡				녹지 구역 : 3,927㎡			
분양가격		산업시설구역(년) : 17천원/㎡정도										
공시지가		산업시설구역 : 65천원/㎡정도										
입주업체 현황	업 체 수	입주업체 : 18개사 가동업체 : 17개사										
	고용인원	761명(남487명, 여274명)										
	생산,수출	생산액 : 185십억원(전년대비122.5%), 수출액 : 140백만불(전년대비29.8%)										
	업종구분	구 분	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가동업체(개사)	17	2			2	1	3	4	1	4
	근로자 수(명)	761	93			40	60	112	142	67	247	
배후지역	연기군 제조업체수 470개사, 근로자수 12,178명											
입지여건	도로	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청주IC(15km), 청원IC(20km), 중부고속도로 : 청주IC(20km) 국 도 : 국도1호선(1km) 지 방 도 : 지방도(691호선) 연결										
	철도	경부선 조치원역(8km) 이용										
	항공	청주공항(33km) 이용										
	항만	아산항(60km) 이용, 2~5만톤급 선박접안 가능 화물하역능력 2,450만톤/년, 화물접안능력 6~8선좌										
	용수	공업용수 : 400톤/일										
	오·폐수	단지내 오폐수처리장 설치										
	전력	인입경로 : 조치원변전소 공급 / 공급능력 : 22.9kv 공급										
	통신	조치원전화국 공급										
	유통물류	공구단지 인근 1km지점에 물류센터 건설중 정기시장 3개소, 일반시장 1개소										
입주조건	입주업종	식료품,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금속 등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										
	입주제한	공업용수 다소비 업종, 기타 공해다발업종 및 산업단지 입주금지업종										
입주절차		입주신청 → 심의위원회 심의 → 계약체결										
입주혜택	세제	취득세, 등록세 전액 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최초취득시 5년이내)										
	금융	충청남도 중소기업 지원자금(문의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042) 220-3224) · 지원사업 :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창업조성, 사업전환, 대기업협력, 지역특화, 소기업, 기술지도 연계 · 지원대상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 · 지원조건 : 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금리 연 5.9% · 대출기간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운전자금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입주신청, 입주기업체 정보문의 등		연 기 군 : 경제진흥과 주 소 (우 339-807)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을 신흥리 123 전 화 041) 861-2543, FAX 041) 861-2539										

• 용수 현황

(단위 : 톤/일)

구분	필요량	처리량	부족량	비고
지하수	400	400		지하수

※ 구분에는 상수도, 지하수 기재

• 폐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 톤/일)

준공년월일	시설용량	처리량	운영자	비고
'89.9.15	800	750	운영협의회	

• 입주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공장 용지 면적	제조 시설 (㎡)	부대 시설 (㎡)	주 생산품	종업 원수	승인일	등록일	비고
(주)풍국	이동초	전동면 노장리 404-8	19,905	2,844	2,139.41	황동선	40	04.10.22	05.4.21 05.12.23 등록변경 승인 07.08.30 완료신고 08.12.26 임대신고	
(주)피앤피테크	안재현	전동면 노장리 404-8	0.00	1,429.68	0	와이어	8	05.12.23	05.12.23	
(주)피앰씨튜브스	손영	전동면 노장리 404-8	0.00	350.00	64	EDM COOPER TUBE	4	07.09.07	07.09.18	
풍국다이소(주)	허범현	전동면 노장리 404-8	0.00	115.50	0	다이소	26	08.12.26		
금강(주)	정순엽	전동면 노장리 404-2	10,036.00	7,006.20	1,119.42	가족신발	142	91.9.27	92.4.29 02.9.12 등록변경	
계룡재단	이종욱	전동면 노장리 404-2	-	660.00	-	가족신발		08.07.08		
한국콜마(주)	강세훈	전동면 노장리 404-15	6,248.00	2,354.61	1,205.24	화장품	60	96.7.31	97.2.14 10.4.23 등록변경	
(주)주한산업	김창문	전동면 노장리 404-24	7,428.00	1,914.64	1,044.00	빙과류	15	86.9.29	97.4.15 04.1.9 등록변경	
(주)이디엠풍전	이근무	전동면 노장리 404-23	5,549.00	2,519.46	553.04	비철금속	10	03.1.29	07.07.24	
(주)지남 전자산업	김종국	전동면 노장리 404-6	4,466.00	1,296	626	선풍기	20	98.1.12	01.8.3	07.09.27 계약변경
(주)인터닉스	장지순	전동면 노장리 404-6	-	130	-	교통 신호등	5	07.09.27	07.09.28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주)	강덕영	전동면 노장리 404-16	9,844.00	158.16	1,940	자양 강장제	24	00.3.14 입주계약 변경	00.8.10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공장 용지 면적	제조 시설 (㎡)	부대 시설 (㎡)	주 생산품	종업 원수	승인일	등록일	비고
(주)유라테크	엄병윤 엄대열	전동면 노장리 404-13	5,274.00	478.80	1372.22	와이어	30	94.3.21	97.2.1 02.10.14 등록변경 07.09.19 공장등록 07.10.19 등록변경 07.11.06 임대신고 10.03.10 임대신고	
(주)유라 코퍼레이션	엄병윤 엄대열	전동면 노장리 404-13	-	1,487.00	328	와이어, 터미널	119	10.3.10	10.3.10	임대공장
(주)유아아이디	박종수	전동면 노장리 404-25	1,783.00	1,910.50	277	PDP필터 유리	45	94.10.18 '06.11.2 계약변경	99.4.24 06.12.01 등록변경	06.11.2 업종변경, 제조시설 증
한우리 포리텍(주)	최익진	전동면 노장리 404-22	3,180.00	750.12	554.61	케이블 보호관	14	00.12.12	01.4.18 03.2.6 등록변경 10.05.19 등록변경	
(주)화성전선	이상규	전동면 노장리 404-26	15,492.00	5,204.77	2,444.57	전선	70	97.3.18	97.4.20 98.11.26 등록변경	
삼화전착(주)	임정희	전동면 노장리 404-1	3,135.00	1,319.20	230.25	자동차 부품	30	96.12.5	98.5.15 07.5.10 폐업	
(주)화성전선	이상규	전동면 노장리 404-12	6,607.00	3,303.70	1,240.29	전선	14	98.11.26	98.12.31	
상훈자활용사촌	박 준	전동면 노장리 404-12	6,607.00	3,303.70	1,208.72	전선	5	06.1.12	06.1.12 06.1.20 등록변경	
(주)한일정공	오세일	전동면 노장리 404-19	4,104.00	1,393.65	601.53	샤프트	53	97.3.14	98.2.18 00.8.14 등록변경	
(주)하원 정밀화학	구자춘	전동면 노장리 404-18	5,461.00	1,393.65	689.66	화학약품	18	97.2.4	00.3.15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주)	강덕영	전동면 노장리 404-10	2,148.00	1,190.34	1825.45	의약품	129	00.3.14 입주계약 변경 07.1.29 입주계약 변경 08.7.11 입주계약 변경	07.02.09	
(주)유나이티드 인터팜	강선영	전동면 노장리 404-10	210.00	82.00	128	구강용 가글	6	07.01.29	07.02.09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공장 용지 면적	제조 시설 (㎡)	부대 시설 (㎡)	주 생산품	종 업 수	승인일	등록일	비고
한양사료(주)	양명	전동면 노장리 404-14	6,151.00	3,594.32	4,096.31	사료	74	96.5.8 07.03.28 입주계약 변경 08.07.17 입주계약 변경	00.9.9 08.12.30 등록변경	
(주)동양에이 케이코리아	서정열	전동면 노장리 404-20,404-21 (노장농공)	5,665.00	3,096.34	608.83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 품제조업	17	2006.11. 23 (입주계약)	07.07.04 09.07.27 등록변경	영신전공 처분신고 및 계약해지 2006.11. 23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주)	강덕영	전동면 노장리 404-29	4,993.00	2,231.60	612.00	의약품	95	98.2.20	99.3.11	
(주)지앤씨 바이오	김고성	전동면 노장리 404-37	6,031.00	1,254	441.58	축사소독제 기구소독제 구강용소독제 욕용소독제 일반소독제	10	06.3.29 06.11.17 변경 08.10.17 입주계약 변경	06.11.30	삼아통상 매수
(주)대동에이씨	이재승	전동면 노장리 404	3,955.00	1,184.015	762.33	액체 여과기	25	07.05.17	07.11.01	신한정밀 매수

3) 청송산업단지

조성목적 및 특징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시행자/관리기관		연기군/입주업체운영협의회										
위치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 일원										
지역지정		1988.12.13 : 산업단지 지정										
조성기간		1988~1988										
면적	조성면적	총면적 : 76,033㎡		산업시설구역 : 62,707㎡			지원시설구역 : 6,305㎡					
	분양면적	총면적 : 62,707㎡		공공시설구역 : 3,629㎡			녹지 구역 : 3,392㎡					
분양가격		산업시설구역(년) : 22천원/㎡정도										
지가	공시지가	산업시설구역 : 69천원/㎡정도										
입주업체 현황	업 체 수	입주업체 : 4개사 가동업체 : 4개사										
	고용인원	98명(남 90명, 여 8명)										
	생산,수출	생산액 : 10십억원(전년대비4%) 수출액 : 7백만원(전년대비140%)										
	업종구분	구 분	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가동업체(개사)	4						4			
	근로자 수(명)	147						147				
배후지역		연기군 제조업체수 470개사, 근로자수 12,178명										

입지여건	도로	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청주IC(15km), 청원IC(20km), 중부고속도로 : 청주IC(20km) 국 도 : 국도1호선(1km) 지 방 도 : 지방도(691호선) 연결
	철도	경부선 조치원역(8km) 이용
	항공	청주공항(33km) 이용
	항만	아산항(60km) 이용, 2~5만톤급 선박접안 가능 화물하역능력 2,450만톤/년, 화물접안능력 6-8선좌
입주조건	입주업종	식품,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금속등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
	입주제한	공업용수 다소비 업종, 기타 공해다발업종 및 산업단지 입주금지업종
입주절차	입주신청 → 심의위원회 심의 → 계약체결	
입주가능일	입주완료(수시)	
입주혜택	세제	취득세, 등록세 전액 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최초취득시 5년이내)
	금융	충청남도 중소기업 지원자금(문의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042) 220-3224) · 지원사업 :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창업조성, 사업전환, 대기업협력, 지역특화, 소기업, 기술지도 연계 · 지원대상 : 분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 · 지원조건 : 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금리 연 5.9% · 대출기간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운전자금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입주신청 서류	입 주 신 청 시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 입주계약체결시 : 계약금, 인감도장	
입주신청, 입주기업체 정보문의 등	연기군 : 경제진흥과 주 소 (우 339-807)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23 전 화 041) 861-2543, FAX 041) 861-2539	

• 용수 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필요량	처리량	부족량	비 고
지하수	100	100		지하수

※ 구분에는 상수도, 지하수 기재

• 입주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공장 용지 면적	제조 시설 (㎡)	부대 시설 (㎡)	주 생산품	종업 원수	승인일	등록일	비 고
(주)엔프라텍	이창복	전동면 청송리 167-6	11,521	862.92	1,496.28	바니쉬	14	98.9.22	99.5.10 00.11.15 등록변경	
(주)켄트로닉스	이재능	전동면 청송리 167-8외3필지	33,164	11,791.80	7,037.11	액정 디스플레이 혼합용제	64	08.3.7	08.12.18	한양자원 인수
(주)유승전자	김성수	전동면 청송리 167-4,2,10,11	9,562	3,009.51	1,270.88	전기전선	19	02.10.5	02.10.05 07.11.16 입주계약 변경	연합정밀 임차
연합정밀(주)	김인솔	전동면 청송리 167-4,2,10,11	7,016	6,735.45	2,469.60	전기전선	50	06.5.3		

[표 25] 전동면의 제조업체

업체명	기업형태	주생산물	규모(㎡)		종업원(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인원	외국인
경인화학산업(주)	법인	액상소석회	12,005	1,499	8	
국제엔지니어링	개인	성형기계	2,846	978	6	
국제금속(주)	법인	철선,강선	2,821	1,423	12	5
굿플레이랜드(주)	법인	놀이시설물제조	1,672	488	4	
기흥정밀	개인	금형용핀	1,478	335	8	
남도엔지니어링(주)	법인	공기조화장치제조	150	150	3	
대영인포텍	개인	컴퓨터장치	1,300	776	1	
리젠텍	개인	산업기계	1,772	383	10	
메리트산업	개인	종이기지귀	490	350	8	1
무지개영농법인	법인	돈육가공	5,900	1,535	15	
미래산업	개인	전선분쇄	4,665	4,124	4	
미호산업	개인	철강	1,592	492	4	
보성산업	개인	유기질비료	4,554	1,635	3	
부용전선(주)	법인	전선	8,926	1,046	11	5
삼화기업(주)	법인	자석부자성재료	28,859	11,918	20	
세일콘크리트공업(주)	법인	철근콘크리트PC암거	41,500	1,621	7	1
수화테크	개인	수배전반	402	368	5	
신한정밀공업(주)	법인	사푸트	3,955	1,746	42	
에덴녹화	법인	녹화토	3,957	2,136	9	
에스엠산업개발(주)	법인	우레탄보드	3,300	1,175	20	
엔프라텍	법인	폴리우레탄바니쉬	11,521	2,359	10	
엠에스안전가스(주)	법인	산업용가스	2,742	621	10	
연기영농조합법인	법인	유기질비료	8,441	4,570	5	
왕훈산업사	개인	자동차고무부품	1,648	493	20	
우리목재산업	개인	파렛트	2,850	395	10	
원광산업	개인	쟁기	3,952	1,062	15	
이택산업	개인	티올	2,529	1,011	7	
인화산업	개인	자동차고무부품	990	437	20	6
조강산업	개인	코팅철선	1,412	774	5	
조치원발전기	개인	발전기	578	400	3	
(주)육일산업	법인	조립식마루	4,630	1,000	3	
(주)명일산업	법인	유기질비료	6,136	1,262	5	
(주)아성프라텍제2공장	법인	금형	1,266	664	3	
(주)청석환경개발	법인	목재제조업	9,989	300	62	
(주)피앤에프	법인	EF소켓	1,000	230	4	
(주)광명	법인	스크린인쇄	2,733	1,769	45	
(주)대성특수산업	법인	판유리제작	4,998	1,739	10	
(주)동우정밀	법인	자동차모타보트	2,437	975	13	3
(주)삼화전착	법인	자동차도장	3,135	1,319	26	7
(주)성인	법인	파유리	11,689	890	30	4
(주)유라테크	법인	내연기관용전기장치	20,576	12,441	194	

업체명	기업형태	주생산물	규모(m ²)		종업원(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인원	외국인
(주)세종산업	법인	골든사시	4,998	1,694	12	
(주)신명	법인	플라스틱사출통	8,703	2,045	3	
(주)신원산업개발	법인	철근콘크리트PC암거	8,411	4,570	5	2
(주)신원콘크리트	법인	벤치플룸관	16,352	1,606	14	3
주신통상(주)	법인	재생화장지	7,644	812	3	
(주)아그로텍	개인	유기질비료	4,621	2,155	4	
(주)유승전자	법인	전선	17,335	13,526	54	4
(주)유아이디	법인	PDP필터유리제조	1,783	1,465	32	5
(주)이디엠풍전	법인	황동선임가공	5,549	2,049	19	
(주)지남전자산업	법인	자동차용선풍기	4,466	2,052	9	
(주)청암녹화	개인	녹화토양	5,157	1,718	8	
(주)청운엔터프라이즈	법인	조제계면활성제	1,412	774	6	2
(주)풍국	법인	방전기공용황동선	12,905	4,944	42	8
(주)하원정밀화학	법인	항생제	5,461	2,148	26	
(주)한국유나이티드제약	법인	연질캡슐	17,195	8,036	113	13
주한산업(주)	법인	빙과류	7,428	2,958	32	
(주)한일정공	법인	샤푸트	4,104	1,995	53	
(주)화성전선	법인	전선	22,099	11,407	50	6
참사랑한과	개인	약과, 한과	990	392	13	
풍국다이스	개인	다이스	1,648	493	6	
피애피	개인	종이제품	2,210	495	3	
한국콜마(주)	법인	화장품	6,248	3,559	88	3
한길 연기포장	개인	골판지BOX	1,124	397	5	
한양사료(주)	법인	대용유	2,083	1,347	46	7
한영엔지니어링	개인	설치용금속램프	996	256	4	
한우리포리텍(주)	법인	광케이블보호관	3,180	750	11	2
형제산업	개인	자동차부품	1,620	600	1	
화곡농산	개인	옛기름	3,901	1,086	3	
흥진레미콘(주)	법인	아스콘	67,210	4,796	18	
흥진산업(주)	법인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8,053	1,717	25	
KJ전자	개인	자동차부품	3,527	562	6	
(주)흥진테크	법인	소독제	6,031	1,695	10	

* 자료 : 연기군 홈페이지(<http://www.yeongi.go.kr>).

제5절

관광산업

1. 전동면 관광산업의 현황

전동면은 전통적인 농업지대로 관광산업 부문의 성과는 저조한 형편이다. 1990년대까지 전동면의 관광자원은 운주산성 등의 문화재와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관광지로 개발되지 못하여 이곳을 찾는 이가 드물었으므로 '관광산업'과 연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접한 대도시가 급격히 성장하고 대도시를 이어주는 도로망이 전동면을 통과하여 전동면 역시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화되기에 이르렀고 농업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관광산업은 전세계총생산(GWP)에서 12%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또한 관광산업은 관세장벽이나 공해도 없는 산업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금융이나 자동차 산업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해동안 관광여행 경험율은 99% 이상으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관광여행을 즐기고 있는 셈이다. 이는 관광에 대한 관심과 여가생활의 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도 관광산업을 지식정보산업, 환경보전산업 등과 함께 21세기의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관광은 단순한 여행행태에서 벗어나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행태를 보이고 있다. 단체여행보다는 개별여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역사·문화관광,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 모험관광, 크루즈관광 등의 테마위주의 관광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관광자원을 상품화하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관광산업을 구성하는 관광자원은 자연, 문화유적, 산업 등 상당히 다양하다. 전동면은 전의면, 서면, 조치원읍을 비롯해 천안시, 충북 청원군 등의 대도시와도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주변의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최근 체류형 여가활동이 주제가 되는 농촌관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베어트리파크(송파랜드), 뒤옹박고을(장류 체험박물관) 등의 현대적 관광시설이 들어서기도 하였다.

전동면에서도 각종 관광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운주산공원화 사업과

동림산 산림욕장조성 등의 관광지 개발사업에 약 45억원 가량이 투자되어 공원과 등산로 등이 정비되었다(2009년 현재). 이 외에 모시울-송성리간 도로에 이팝나무, 봉대리간 도로에 매실 및 이팝나무, 송성리 도로에 왕벚나무, 심중리 도로에 왕벚나무, 구 국도 1호선도로에 백일홍을 식재하여 환경을 개선하는데 애쓰고 있다. 또한 심중리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면서 이 주변에 수영장, 찜질방, 헬스장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여 2010년 8월에 개장하였다. 그밖에 개미고개 6·25 격전지, 운주산과 동림산의 등산로, 운주산성, 금이산성, 작성 등의 전통 성곽시설 정비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주요 관광자원

1) 녹색농촌체험마을

2008년 1월에 청송1리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농촌체험과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의 관광과는 차별화된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체험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체험농장, 캠핑장, 산책로 등의 구성에 공공자금이 투자되었고, 마을의 경관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의 비용도 지원받았다.

청송1리의 경쟁력은 다양하다. 마을 뒷산의 운주산성, 마을에 전해져 온 민속전통인 ‘청송리지신밧기’, 현대에 새롭게 재현되고 있는 ‘고산제’,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결성하고 활동하는 품물패인 ‘덩덕쿵품물패’ 등이 있다. 덩덕쿵품물패는 2007년에 도내경연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바 있다. 또한 마을 안쪽에 전통장류테마공원인 ‘뒤옹박고을’, 농경체험을 실시하는 ‘가외농장’이 자리 잡고 있어 관광객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청송1리는 ‘청솔마을’이란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전통면의 대표적인 농촌체험 관광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청송1리 체험마을〉



〈정육이네 농장(송성3리)〉

이밖에 전통면의 각 마을에서는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통면발전회(2009년 발족)에서는 다음과 같이 마을별 대표 특산물의 이름을 활용하고 있다.

- 앵두마을(노장1리)
- 보리수마을(노장2리)
- 오디마을(노장3리)
- 매실마을(노장4리)
- 포도마을(봉대리)
- 배마을(보덕1리)
- 황금복분자마을(보덕2리)
- 비타민마을(송곡1리)
- 블루베리마을(송곡2리)
- 자두마을(송정1리)
- 석류마을(송정2리)
- 보리수마을(석곡리)
- 산삼마을(청송1리)
- 자두마을(청송2리)
- 복숭아마을(청람리)
- 흑감마을(송성1리)
- 밤마을(송성2리)
- 계란대추마을(송성3리)
- 고염마을(미곡1리)
- 산딸기마을(미곡2리)
- 딸기마을(심중1리)
- 감마을(심중2리)

2) 전동역 국제만화로

전동역의 철도를 따라 이어지는 방음벽에는 대형 만화 벽화가 줄지어 게시되어 있다. 이것은 전동면 출향인사와 각 마을에서 모금한 성금으로 2009년에 조성된 '전동역 국제만화로'이다. 이 사업을 위하여 전동면 출신의 공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임청산 명예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2년부터 매년 주최해 온 '대전 국제만화영상전'에 출품된 60개국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전동역 만화루에 설치하고 2009년 2월 22일에 개막식을 열었다. 주민 모금액은 1천만원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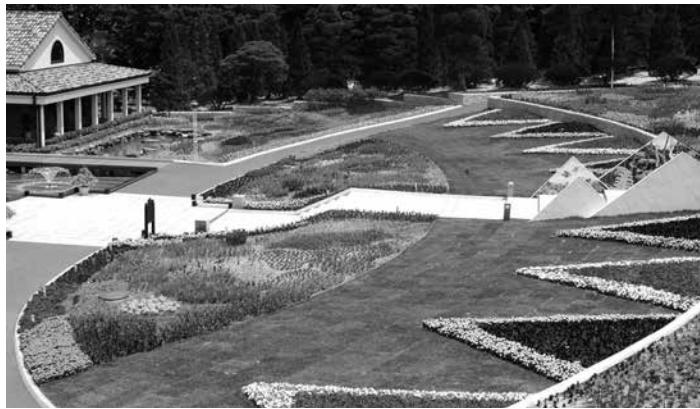
대한민국 최초로 개설되었다는 점이 주목되어 TV와 신문 등의 언론에 집중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 일을 통해 전동면을 전국에 알리고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베어트리 파크(Beartree Park)

베어트리 파크는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에 위치한 ‘동물이 있는 수목원’이다. 베어트리 파크는 설립자인 송파(松波) 이재연 회장이 재계에 몸담았던 시절부터 주말이면 달려가 보살피고 가꾸은 수목원이다. 이재연 회장은 취미로 화초와 향나무 등을 소중하게 키워왔고, 지인으로부터 반달곰과 사슴 한 쌍을 선물로 받아 사육하였다. 이후 35년 동안 당시 시골 마을의 담벼락에서 옮겨온 향나무는 아름다워가 되었고, 반달곰과 사슴 한 쌍은 대를 이어 이제는 수백마리의 동물가족을 이루고 있다. 10만여 평 숲에 150여 마리의 반달곰과 꽃사슴, 비단잉어 등의 동물자원과 각종 수목, 꽃, 희귀분재 등 1,000여 종, 40만여 그루의 초목류 등의 식물자원이 있다.

45년 동안 한 개인의 정성으로 가꾸어졌던 ‘비밀의 정원’은 2010년 5월 “베어트리파크”라는 이름으로 일반에게 개방되었다. 푸르른 자연 속에서 즐기는 음악회 및 미술전시, 그리고 아기반달곰과 꽃사슴과 함께 뛰노는 동식물체험 등 남다른 볼거리와 사계절 문화,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베어트리 파크에는 오색연못, 웰컴하우스, 베어트리정원, 반달곰동산, 수련원, 만경비원, 야생화동산, 곰조각공원 등 8경이 있다. 오색연못에는 500여 마리 비단잉어가 있다. 베어트리 정원에는 통나무폭포와 어울려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반달곰동산에는 150여 마리의 반달곰이 있으며, 곰조각공원에는 고종수 작가가 꾸민 세총곰가족이라는 동화이야기가 표현되어 있다. 분재원에는 기묘묘한 분재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만경비원(Secret Garden)은 열대조경과 한국의 산수조경을 한 폭의 동양화로 담아내고 있다.



〈베어트리 파크〉

4) 뒤희박고을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에 위치한 뒤희박고을(<http://www.dweeungbark.co.kr>)은 전통 장류를 현대에 널리 보급하여 건강한 참살이 식문화를 계승하고자 2010년 조성된 전통장류테마공원이다. 뒤희박고을에서는 우리 전통음식의 제조과정을 관람할 수 있고,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족, 회사, 동호회의 고유장류 장독을 회원에게 해당틀 장독대를 분양하고

있다. 편의시설로는 다양한 전통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한옥생활체험관인 동월당, 전통장류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장류 전문음식점인 농기맛집 장향, 뒤웅박고을에서 생산되는 전통장류와 연기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전시판매장 등이 있다.



〈뒤웅박고을〉

5) 동림산 산림욕장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위치한 동림산 산림욕장은 도시민이 조용히 산책하는 장소로 적합한 산림욕장이다. 나뭇 깊은 계곡과 험한 지역이 있지만 주위 운주산과 연결된 등산코스가 있고 산책로들이 꾸며져 있어, 적막한 산중에서 낭만적인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오토캠핑이 가능한 8동 규모의 무료 야영시설이 있으며 화장실과 개수대 등이 설치되어 바람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산중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동림산 산림욕장〉

집필 : 임형빈(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6장 전동면의 문화유적

제1절 지정문화재

제2절 관방유적

제3절 불교유적

제4절 유교유적

제5절 묘·석물·금석문

제6절 요지

제7절 유물산포지

제8절 기타유적

제1절

지정문화재

1. 운주산성(雲住山城)

- 소재지 : 청송리 산 1-1
- 시대 : 통일신라
- 지정번호 : 충청남도지정기념물 제79호

전동면 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4km의 거리에 전의면과 경계지점을 이루는 운주산이 있다. 이 운주산은 전의면 노곡리와 전동면 청송리 사이에 솟아 있는 표고 459m의 비교적 높은 산으로 1989년 12월 29일에 충청남도 기념물 79호로 지정되었으며 산의 정상부에 포곡식으로 축조되어 있다.

이 운주산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의현 산천조에는 “운주산 재현남칠리 흥증산고산현치(雲住山 在縣南七里 興甌山高山縣峙)”라고 되어 있고 이리 고적조에는 “금이성 재운주산 석축 주일천오백이십팔척 내유일정 금폐(金伊城 在雲住山 石築 周一千五百二十八尺 內有一井 今廢)”라고 하



〈사진 1〉 운주산성

여 운주산에 있는 산성이 금이성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동지지』에는 “운주산 동십리 여증산 고산현치(雲住山 東十里 與甌山高山鼎峙)”라고 하여 동쪽 10리 지점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운주산이 남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 보면 “금이성 재운주산 석축주일천오백이십팔척 내유일정 금폐(金伊城 在雲住山 石築周一千五百二十八尺 內有一井 今廢)”라고 하여 운주산에 있는 산성이 금이성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동지지』에는 “운주산 동십리 여증산고산정치(雲住山 東十里 與甌山高山鼎峙)”라고 하여 동쪽 10리 지점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운주산이 남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 보면 “고산산성 석축주오천일백삼십이척 내유일정 금폐(高山山城 石築周五千一百三十二尺 內有一井 今廢)”라고 되어 있고, 『대동지지』에도 “고산산성 동팔리 주오천일백삼십이척 정삼(高山山城 東八里 周五千一百三十二尺 井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운주산은 원래 고산으로 불렸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운주산성 역시 고산산성(高山山城)으로 불렸던 것을 알 수 있다.

운주산성은 말 그대로 내성과 외곽성이 결합된 성곽의 형태를 하고 있다. 즉 바깥쪽으로 세 개의 산봉을 에워싸면서 축조된 포곡식산성이 있고 그 안에 다시 테피식의 소규모 산성이 이중으로 둘러져 있다. 외곽성의 규모는 3,098m 이고 내성은 543m다.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쪽은 낮으며, 동쪽이 높고 서쪽은 낮아 전체적으로 북동고 서남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남사면과 서사면에는 건물지로 보이는 평탄면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 성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면서 편축식으로 축조하였는데 일부 구간은 협축의 형태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 대부분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지만 일부는 남아 있는 구간도 있는데 장방형으로 다듬은 성돌을 이용하여 수평쌓기의 형태로 축조하였다.

성문은 사방에서 모두 5개소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평문식인 것이 특징이다. 그중 동문지와 서문지는 최근에 발굴된 조사를 통해 확인된 구조와 규모를 바탕으로 복원되었다. 우물터는 원래 성내에 3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개소만이 확인되었다. 성내에서는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어 매우 장기간에 걸쳐 기능했던 산성임을 말해주고 있다.

2. 연기(燕岐) 이성(李城)

- 소재지 : 송성리 산 38
- 시대 : 백제
- 지정번호 : 충청남도지정기념물 제77호

전의면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4.2km 정도의 거리에 해발 240m의 이성산(李城山)이 자리하고 있다. 이성산성은 바로 이 이성산에 자리하고 있는 삼태기식의 석축산성이다. 이성은 1989년 12월 29일에 충청남도지정기념물 77호로 지정되었다.

이 산성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의현 고적조에 “이성 재운주산북봉 석축 세전이도고



〈사진 2〉 이성

거 기증관창 주일천일백팔십사척 내유일정 금폐(李城 在雲住山北峰 石築 世傳李棹故居 其中寬敞 周一千一百八十四尺 內有一井 今廢)”라 하여 조선 초기에 이미 폐성(廢城)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을 보면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에 축조된 고대산성으로 보인다.

성벽의 둘레는 약 510m인데, 대부분의 성벽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남아있는 성벽을 통해서 볼 때 편축식으로 축성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에서는 협축의 흔적도 발견된다. 다만, 면석이 남아있는 것이 없어 더 이상 자세한 축성법은 확인할 수 없다.

산성과 관련된 부대시설로는 문지와 건물지가 남아있다. 문지는 동문지와 남문지가 남아 있으며, 서벽쪽에도 문지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건물지는 성내 곳곳에 남아 있는데, 평탄대지는 모두가 건물지로 판단된다. 특히 전체적으로 성내의 지형이 북고남저형을 이루고 있는 만큼 남벽 안쪽에는 넓은 평탄면이 남아 있는데, 위치로 보아 원래는 저수시설이 있던 곳으로 보인다.

이 밖에 지표조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성내의 우물이 1개소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매몰된 듯 하다.

성내에서는 토기편과 와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이미 폐성된 만큼 고려시대 이전에 축성되었고, 선조문이 시문된 와편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3. 연기 금이성(金伊城)

- 소재지 : 송성리 산 86
- 시대 : 고려
- 지정번호 : 충청남도지정기념물 제77호

전의면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4km의 거리에, 표고 405m의 금성산이 있다. 금이성은 이 금성산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 석성으로, 금성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어 ‘금성산성’이라고도 부른다.



〈사진 3〉 금이성

이 성은 1989년 12월 29일에 충청남도지정기념물 제78호로 지정되었다.

금이성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의현 산천조에 “금성산 재현남팔리 유고석성(金城山 在縣南八里 有古石城)”이라 되어 있고, 고적조에는 “금이성 재운주산 석축 주일천오백이십팔척 내 유일정 금폐(金伊城 在雲住山 石築 周一千五百二十八尺 內有一井 今廢)”라고 하여 금이성(金伊城)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대동지지』에는 “운주산남성 동남팔리 일천오백이십팔척 정일 속칭 금성산성(雲住山南城 東南八里 一千五百二十八尺 井一 俗稱 金城山城)”이라 하여 금이산성을 운주산남성으로도 불렀음을 소개하고 있다.

금이산성은 전체적인 평면형태가 말각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전체 둘레는 660m에 이른다. 성벽의 대부분은 이미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만 흔적의 일부를 남기고 있다. 성벽은 벽돌처럼 납작하게 잘 다듬은 성돌을 이용하여 한단한단 수평을 맞추면서 쌓아 올리고 있다.

성벽은 전체적으로 협축식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이 완전히 붕괴되어 정확한 성벽의 높이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3m 이상은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내고는 현재 최고 약 2m 정도가 남아 있다.

성문의 흔적은 동벽, 서벽, 북벽에서 확인되었으며, 남벽에도 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성벽이 붕괴되어 현재는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 또한 서문지의 경우 동문지나 북문지와 달리 현문식(懸門式)의 형태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성내에는 곳곳에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어 건물이 있던 곳임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평탄면 주변에서는 와편과 토기편을 쉽게 수습할 수 있었는데, 와편의 경우 등쪽에 어골문이 시문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4. 열부 신이초처(愼爾草妻) 기계유씨(杞溪俞氏) 정려(旌閭)

- 소재지 : 석곡리 산 25-6
- 시대 : 조선
- 지정번호 : 연기군향토유적 제33호



〈사진 4〉 기계유씨 정려

석곡리 상석곡 마을의 북서쪽에 열녀 기계유씨(杞溪俞氏)의 정려(旌閭)가 있다. 이 정려는 2001년 5월 31일 연기군 향토유적 제33호로 지정되었다. 열부 기계유씨(?~1719)는 시남 유계의 중손녀로, 남편 신이초가 죽자 정성껏 예를 다해 장례를 치른 후 식음을 전폐하고 7일만에 죽은 열부이다. 이러한 열행이 알려져 1729년(영조 5)에 명정을 받았다. 창건 이후 세월이 오래 지나 건물이 퇴락하자 1896년에 중수를 하였고, 다시 퇴락하자 1971년 문중의 협의과 군비 보조로 재차 중수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에 맞배지붕을 하고 있으며 처마는 겹처마로 되어 있다. 정려의 내부에는 기계유씨 명정 현판(220×29cm)과 1896년과 1971년의 중수기가 걸려 있다.

5. 효부(孝婦) 김진창처(金震敞妻) 나주나씨(羅州羅氏) 정려

- 소재지 : 보덕리 133-1
- 시대 : 조선(1676년·숙종 2)
- 지정번호 : 연기군향토유적 제32호

보덕리 보평마을의 중앙에 효부 나주나씨의 정려가 있다. 이 정려는 2001년 5월 31일 연기군 향토유적 제32호로 지정되었다.

효부 나주나씨는 1600년 중반(현종조)의 인물조 나응수(羅應壽)의 딸이다. 그녀는 나이가 차자 강릉김씨 김진창에게 시집과 시부모와 남편을 잘 섬겼다. 남편 김진창이 죽자 홀로 집안 살림을 떠 맡아 생계를 이어나갔다. 시부모가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3년 시묘를 정성껏 마치고 그 뒤를 따라 죽었다. 1676년(숙종 2) 이런 행적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게 되었다. 그 뒤 30여년이 지난 1706년(숙종 32)에 1차 중수를 하였으며 그 후의 중수 연혁은 상세하지 않다. 현재의 정려는 1976년 중수를 한 것이다. 정려의 구조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형식을 하고 있으며 양측면의 박공 밑에는 방풍판이 설치되어 있다. 화강석재를 가공한 8각 고주 초석 위에 원주를



〈사진 5〉 효부(孝婦) 김진장(金震敞) 처 나주나씨(羅州羅氏) 정려

올리고 4면은 홍상을 돌려 놓았으며 처마는 흘치마로 처리하였다. 정려의 내부에는 나주나씨의 명정현판(181cm×21cm)이 걸려 있다.

6. 변응정(邊應井) 사당(祠堂)

- 소재지 : 청람리 244
- 시대 : 일제(1930년대)
- 지정번호 : 연기군향토유적 제34호

청람리 큰말에는 변응정 사당이 위치한다. 이 사당은 2001년 5월 31일 연기군 향토유적 34호로 지정되었다.

변응정(邊應井, 1557~1592)의 본관은 원주이다. 1585년(선조 18) 무과에 급제하고 1592년



〈사진 6〉 변응정 사당

해남현감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관내의 소요를 진정시키고 격문을 돌려 의병을 규합하였고, 금산 전투에 조헌과 합류하기 위하여 행군하였으나 차질이 생겨 조헌이 전사한 뒤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제군수 정담(鄭澗)과 함께 싸워 큰 전과를 올리다 적군의 야습을 맞아 육탄으로 맞서 싸우다 끝내 웅령(熊嶺)에서 전사하였다. 성훈(成渾)의 상소로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증직되었다. 시호(諡號)는 충장(忠壯)이다. 금산 중용사에 조헌, 고경명 등과 함께 제향되어 있다.

이 사당은 변응정의 충절을 기리고자 1930년대에 원주변씨(原州邊氏) 후손들이 주도하여 종가집 뒤편 야산에 건립한 것이다. 전·후·양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그 아래에 방풍관이 설치되어 있다. 퇴락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내부에는 위패만이 모셔져 있다. 1988년에 전의향교에서 세운 변응정의 추모비가 개미고개(청람리 산 18-1)에 있다.

7. 충정사(忠貞祠)

- 소재지 : 송성리 570
- 시대 : 조선(1902년·광무 6)
- 지정번호 : 연기군향토유적 제38호

충정사는 송성리 중말 마을의 서쪽에 있는 산림지역의 동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이 사우는 2001년 5월 31일 연기군 향토유적 제38호로 지정되었다.

충정사는 예안이씨 동고파의 파조인 이명(李堇, 1496~1572)을 배향한 사우이다. 이명의 호는 동고(東皐)이며, 중종·명종조의 문신으로 당시 권신 이명(李芑)을 탄핵한 것과 을사사화 때 피화자의 신원을 주장하였고 70세의 나이로 사직을 청하니 귀장을 하사받았다. 1551년(명종 6)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며,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충정사는 후손들의 주도로 1902년에 건립하여 동고파 시조 이명을 배향하게 되었으며, 1985년에 한차례 중건을 마쳤다.



〈사진 7〉 충정사

제2절

관방유적

1. 보덕리 토성(寶德里 土城)

- 소재지 : 보덕리 산 54-1
- 시대 : 미상

보덕리 마을에는 하소골 성재라고 전해오는 나지막한 구릉이 있는데 이곳에 있던 토성이 보덕리 토성이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곳에는 원래 구릉의 정상부에서 산자락에 걸쳐 토성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밭으로 경작하는 과정에서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

실제로 현재는 성벽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서벽쪽 일부에만 토성벽처럼 남아 있는 구릉이 있는데 발독인지 성벽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관련 유물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곳에 실제로 성벽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토성이 있었다는 전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성곽으로 표시해 둔다.

2. 송성리 작성산성(鵲城山城)

- 소재지 : 송성리 471-1
- 시대 : 미상

전의면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3km의 거리에 전동면 송성리와 전동면 청람리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표고 332m의 작성산이 솟아 있다. 작성산성은 이 작성산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소규모 석성이다. 산성이라고는 하지만 규모가 100m에도 채 이르지 못해 실제로는 산성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종래에 작성산성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대로 부르기로 한다.

산성은 작성산 정상부를 평탄하게 조성한 다음 돌로 성내 전체를 부석(敷石)한 형태로 남아 있다. 대체로 70cm 정도 크기의 판석형 할석을 전면 부석하여 만들었는데, 높이는 약 5단 정도에 불과하

다. 그런 점에서도 이 유구는 산성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도읍지』의 전의현 산천조에는 이성산과 금성산 사이에 운주산(雲住山)이 있음을 설명하고 뒤이어 “일명작성 재현남팔리 읍치대안 상유기우제단(一名鵲城 在縣南八里 邑治對岸 上有祈雨祭壇)”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대로라면 현재의 유구는 산성이라기 보다는 기우제단(祈雨祭壇)임을 알 수 있다.

3. 심중리 동림산성(東林山城)

- 소재지 : 심중리 산1-2
- 시대 : 미상

전동면소재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내외의 거리에 전동면 심중리와 충북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사이에는 표고 458m의 동림산이 솟아 있다. 동림산성은 바로 이 동림산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석축산성이다. 산성이 자리한 동림산의 남북쪽으로는 험준한 산악지대가 이어지고 있고, 그중 가장 높은 산이 동림산이기 때문에 산성의 접근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산성은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는 두개의 산봉(山峰)을 에워싸면서 축조되었는데, 이미 성벽은 완전히 붕괴되어 흔적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계곡을 지나는 구간은 전혀 흔적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유실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성벽이 완전 파괴되어 정확한 축성법은 알 수 없지만 석성으로 축성된 것만은 분명하다. 면석(面石)은 이미 완전히 유실된 상태이며, 뒤채움한 석재들도 붕괴된 채 일부만이 돌무더기 형태로 남아있다.

동림산 자체가 험산을 이루고 있어 성내의 면적은 그다지 넓지 못하다. 다만 남벽과 서벽 근처에 있는 민묘자리는 원래 건물이 있던 곳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제법 넓게 평탄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 유물의 흔적은 없고, 문지 터도 남아있지 않다.

제3절

불교유적

1. 노장리 죽엽이 사지(寺址)

- 소재지 : 노장리 산 35-1
- 시대 : 고려

사지는 마을 북동쪽에 있는 동림산에서 남서주한 능선의 남향사면 중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사지로 전해지고 있는 곳에 '원적사'라는 절이 세워져 있다. 스님의 전언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이곳에 절이 있었다고 전해 내려와 이곳에 사찰을 세웠다고 한다. 사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대부분 지형이 변형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사역의 범위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넓게 터를 닦아 조성한 사찰 주변에서는 어골문의 회청색 기와편이 산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대부분 회청색조의 경질소성된 것으로 단순 어골문과 어골 복합문이 시문된 것이다. 따라서 유물로 미루어 볼 때 죽엽리 사지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운주산성(雲住山城) 내 사지(寺址)

- 소재지 : 청송리 산 75
- 시대 : 조선

미곡리 마을의 북쪽에는 전의면과 전동면의 경계를 이루는 표고 640m의 '운주산'이 솟아 있는데 정상부에는 석축산성인 운주산성이 있다. 사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150여 평 가량의 대지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사지 앞쪽으로는 운주산성으로 집입하는 소로가 개설되어 있고 주변에는 약수터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현재 사지로 추정되는 곳은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로 사지의 흔적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조사된 기록을 살펴볼때 석축된 축대가

일부 남아 있으며 얼마전까지 암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폐사되었다고 한다.

『여지승람』에 의하면 본래 운주산에는 ‘운첩사(雲帖寺)’란 사원(寺院)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지와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사지 내에서 수습된 기와편과 토기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시대 중·후기에 조성된 사찰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3. 청람리 남포 사지(寺址)

- 소재지 : 청람리 216
- 시대 : 조선

사지는 청남리 남포마을의 남동쪽에 있는 ‘하랏골’이라는 골짜기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

사지로 추정되는 곳은 수 년 전까지 계단식의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다가 최근에 이르러 묵고 있는데, 사역의 범위는 약 100여 평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 답사를 통해서 사역 내에서는 사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로는 잡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원형의 우물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역의 구체적인 구조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설물과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표면에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유물수습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수습된 유물은 격자문이 시문된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무문의 회색 토기편이 일부 있을 뿐이다. 다만 기존의 조사된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말기의 백자편과 와편 그리고 옹기편 등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이 사지는 조선시대 말기에 조성된 작은 암자터로 추정된다.

4. 청람리 버드나무 사지(寺址)

- 소재지 : 청람리 산 96
- 시대 : 조선

청람리 버드나무마을의 서쪽에 있는 야산의 남동향 사면 중하단부에 ‘절터골’이라고 불리는 지점에 사지가 위치한다.

버드나무 마을 서쪽에 있는 야산의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해발 100m 지점에 약 150평 정도 크기의 평지가 있는데 이곳이 사지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사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어 구체적인 사역의 범위나 구조는 알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조사된 기록을 보면 60m 정도의 길이로 자연적으로 된 석축대가 무너진 상태로 있었다고 한다.

지표답사를 통하여 사지 주변지역에서 집선문이 시문된 회청색경질의 조선시대 말기 와편 몇 점과 토기편, 분청사기편이 수습되었다.

5. 송성리 물도리 사지(寺址)

- 소재지 : 송성리 산 45
- 시대 : 고려

송성리 물도리 마을의 북쪽 300m 거리에 할렐루야 수양관이 있는데, 사지는 이 할렐루야 수양관 뒤쪽의 계곡을 따라 작성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7부 능선상에 약 100평 크기의 평평한 묵은 밭에 위치하고 있다.

사지로 전하는 지역은 십 수 년 전까지 경작지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묵고 있는 상태인데, 밭으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1차적인 지형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지 주변에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어서 사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축대 등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사지 내에 석불좌상 3~4구가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장에서 석불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소재 또한 알 수 없다. 수습되는 유물은 회청색무문기와편과 격자문이 새겨진 회청색경질토기편이 있다. 구체적인 사지의 조형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말기에 조성되었던 작은 암자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4절

유교유적

1. 석산정터

- 소재지 : 보덕리 산 60
- 시대 : 조선(연대미상)

석산정터는 조천 너머 철로 오른편 구릉의 절벽에 위치한다.

석산정은 기묘사화 때 명현이었던 필재 박광우(華齋 朴光佑)의 종손 박곤(朴坤)이 건립한 것이다. 박곤은 효성과 우애가 두터워 널리 알려졌는데 나라에서 감역의 벼슬로 불렀으나 나가지 않고 보덕리에 은거하였다. 그리고 깊은내 마을을 흐르는 시냇물의 양쪽 언덕 위에 돌을 쌓아 좌우에 정자를 짓고 토정 이지함과 더불어 돌 위에서 의리를 논하였다고 한다. 훗날에 사람들이 그 정자를 ‘석정(石亭)’이라 하였다 한다. 현재 석산정터에는 수풀만 우거져 있다.

2. 충익사(忠翼祠)

- 소재지 : 송곡리 산 36-2
- 시대 : 조선(연대미상)

충익사는 송곡리 농골 마을의 가장 안쪽에 있는 민가 뒤에 위치하고 있다.

충익사는 김명원(金命元, 1534~1602)의 부조묘로, 최초 건립연도는 전하는 기록이 없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후손의 전언에 의하면 약 60년 전 김익경이 주도하여 충익사의 주초를 올렸고 김익경이 죽고 나자 공사가 지연되어 20년 뒤 완공하였다고 한다.

김명원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주은(酒隱)이다.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고위 관직을 두루 역임하다가 1587년 왜구가 녹도(鹿島)를 함락하자 도순찰사(都巡察使)가 되어 이를 퇴치하였고 1589년에는 정여립(鄭汝立)의 난을 수습하는데 공을 세워 평난공신 3등에 책록되

고 경림군(慶林君)에 봉해졌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팔도도원수로 한강 및 임진강 방어에 임하였으며 평양이 함락된 뒤 순안에 주둔, 행재소(行在所) 경비에 힘썼다. 1597년 정유재란 때는 병조판서로 유도대장(留都大將)을 겸임하였고 좌찬성·이조판서·우의정을 거쳐 1601년 부원군에 진봉되고 좌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현재 충익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에 맞배지붕을 올린 형식이다.



〈사진 8〉 충익사 전경

3. 독송정지(獨松亭址)

- 소재지 : 송정리 142-1
- 시대 : 조선(연대미상)

조선 중기 재상 조사석이 만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선산이 있는 송정리 상송동(上松洞)에서 거처하면서 정자를 짓고 소요하던 곳이었는데, 거기에 소나무 한그루가 있어서 독송정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정자 자리만 남아있다.

조사석(趙師錫, 1632~1693)의 본관은 양주로 호는 만회(晩悔)·만휴(晩休),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조계원(趙啓遠)의 아들이며 외조가 신흠(申欽)이다. 숙종대의 학자이자 정치가이다. 뒷편 야산에 조사석의 아버지인 조계원의 묘소와 신도비가 있다.

제5절

묘·석물·금석문

1. 노장리 이목동 문인석(文人石)

- 소재지 : 노장리 산 17
- 시대 : 조선

이목동 마을의 동림산 서향사면 하단부에 문인석이 방치되어 있는데 전체 크기는 78cm, 두께는 25cm의 화강암 석재로 머리는 부러져서 남아있지 않고 몸통 아래 부분 20cm는 땅에 박기위한 방형의 기단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문인석의 표현은 마모가 심해 명문 등은 확인할 수 없으며 평면적이나 세부적인 조각수법을 보이는데 특히 손가락 묘사가 정교하다. 조선시대 묘 앞에 세우는 문인석으로 추측되나 보통의 문인석보다는 상당히 작은 편이다. 이 문인석은 조선시대 장군인 엄부장군의 묘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흩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2. 청송리 이일동천비(梨逸同天碑)

- 소재지 : 청송리 산75
- 시대 : 조선

이일동천비는 아랫배일 마을 입구의 민가 앞에서 시냇물을 사이에 두고 있다.

정조 때 학자 조복(趙腹)이 여기에 살면서 호를 이일(梨逸)이라 하고 마을 입구에 ‘이일동천(梨逸同天)’이란 사자(四字)를 새긴 돌을 세워 마을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비는 자연석의 형태로서 비의 윗부분이 뾰족하며, 가로 38cm, 세로 30cm, 높이 113cm의 크기이다.

3. 김남중(金南重) 묘

- 소재지 : 송곡리 산 36-2
- 시대 : 조선(1687년·숙종 13)

송곡리 능골마을 입구에서 충익사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 김남중 묘소는 충익사 북쪽에 있는 산의 남향사면 중단부인 표고 1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김남중(1596~1663)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 호는 야당(野塘)이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예조참의로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하고, 이듬해 대사간이 되어 강화도가 함락당한테 대한 수장(守將)의 책임을 물어 처형할 것과 척화신(斥和臣)을 문책하지 말것을 주장하였다. 경기도관찰사, 대사간, 이조참판, 형조판서 등을 지냈다. 저서로 『역대인감(歷代人鑑)』이 있다. 시호는 정효(貞孝)이다.

묘소에는 망주 2기와 문인석 2기, 상석이 있다. 묘 오른쪽에 세워진 묘비는 1687년(숙종 13)에 김수항(金壽恒)이 찬(撰)하였고, 크기는 162cm×63cm×27cm이다. 묘의 중앙에는 옛 묘비를 세웠던 대좌만이 놓여 있는데, 대좌에는 연화무늬가 새겨져 있다.

4. 김홍진(金弘振) 묘

- 소재지 : 송곡리 산 36-2
- 시대 : 조선(1707년·숙종 33)

능골마을 입구에서 충익사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 김홍진(金弘振, 1627~?) 묘소는 충익사 북쪽에 있는 산림지역의 남향사면 중단부에 있는 김남중 묘소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김홍진은 경주인으로 의금부도사, 호조좌랑·정랑, 직산현감, 신계현령을 지냈다. 묘소에는 망주 2기와 묘비 2기, 처음 묘비를 세울 때 같이 세운 듯한 향로대와 초근에 세운 상석이 있다. 묘비 65cm×28cm×145cm의 크기로 옛 대좌 위에 새로운 묘비를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뒷면에는 비문이 없어 건립연대는 알 수 없다. 묘의 왼쪽으로 1707년(숙종 33) 남구만(南九萬)이 찬(撰)한 묘갈명이 있는데, 묘갈명의 크기는 65cm×28cm×157cm이다.

5. 박안생(朴安生) 묘

- 소재지 : 송정리 산 4
- 시대 : 조선(연대미상)

송곡리 마을의 북쪽에 있는 산의 남향사면 중단부에 박안생의 묘가 있다. 박안생(1400년대 인물)은 전의면 관정리 순천박씨 입향조로, 호는 학석정(學石亭)이다. 사육신 중의 한 명인 박팽년(朴彭

年, 1417~1456)의 조부이다. 묘비는 옥개형의 이수를 올린 것으로 방형의 화강석대좌 위에 비신을 올렸는데 비신은 너비 62cm, 높이 151cm, 두께 27cm의 크기이다.



〈사진 9〉 박안생 묘소

6. 조계원(趙啓遠) 신도비(神道碑)

- 소재지 : 송정리 산 410-3
- 시대 : 조선(1670년~1680년)

조계원(1592~1670) 신도비는 송정리 상소골 마을의 북쪽에 있는 야산의 남향사면 중하단부에 위치한다.

병자호란 때 군량을 보급하고 심양에 볼모로 잡혀 있던 소현세자를 보좌한 인물이다. 본관은 양주(陽州), 호는 약천(藥泉)이다. 일찍이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에게 수학하며 뛰어난 학문의 경지를 보였다.

조계원 신도비는 복련이 조식된 화강석재의 방형대좌 위에 비신(107cm×208cm×42cm)을 세우고 옥개형의 이수를 올렸다.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찬(撰)하고, 조사석 서(書), 조태기(趙太期) 전(篆)이다. 신도비의 건립연대는 조계원이 ‘충정(忠靖)’이라는 시호를 받고 영의정에 추증되는 1680년대 어간으로 추정된다.



〈사진 10〉 조계원 신도비

7. 조계원(趙啓遠) 묘

- 소재지 : 송정리 산 7-7
- 시대 : 조선(1670년대)

조계원 묘소는 상소골 마을 북쪽에 있는 야산의 남향사면 중하단부에 위치하는데, 전방에는 조계원의 신도비가 있다.

조계원(1592~1670)은 병자호란 때 군량을 보급하고 심양에 볼모로 잡혀 있던 소현세자를 보좌한 인물이다. 본관은 양주(陽州), 호는 약천(藥泉)이다. 그는 장성하여 신흘(申欽)의 딸과 혼인하였고, 슬하에는 모두 7남 4녀를 두었다. 이괄(李适)의 난(亂)이 일어나자 공주로 파천하는 인조를 호위하여 공주에 머물기도 하였다.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김자점(金自點)을 도와 군량보급에 노력하였으며 호란 이후 사헌부 장령을 거쳐 춘추관 수찬이 되었는데 당시 김향헌(金尙憲)이 무고로 곤경에 빠지자 상소를 올려 구원하기도 하였다. 심양에서 소현세자를 시종하였고 충청도관찰사, 예조참의, 동부승지, 강화유수, 도승지,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사후 1671년(현종 12) 좌찬성에 증직되었고 이어 1676년(숙종 2) 영의정에 가증되었으며, 1685년(숙종 11)에는 ‘충정(忠靖)’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조계원의 묘소에는 중앙에 묘비가 세워져 있다. 묘비의 음기(陰記)는 현각(玄峇) 박세채(朴世采)가 짓고 넷째아들 조사석(趙師錫)이 썼지만 건립연대가 불명이다. 묘전 좌우에는 2개의 문인상과 4개의 석등이 세워져 있다.



〈사진 11〉 조계원 묘소

8. 김승로(金承露) 묘

- 소재지 : 청람리 산 35-1
- 시대 : 조선(1439년·세종 21)

김승로의 묘소는 청람리 큰말 마을 안쪽 야산의 서향사면 중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김승로(金承露, 1359~1438)는 본관은 강릉, 호는 송오(松塢)이다. 태학에서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에게 수학하였고 고려가 멸망하자 조복을 찢어 동문 밖에 걸고는 통곡하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후 태종조에 여러번 관직을 내려 조정으로 불렸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고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다 죽어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으로 불린다. 나라에서는 1439년(세종 21) 우의정의 증직을 내렸고, 충의(忠義)라는 시호를 내렸다.

김승로의 묘소는 장대한 석재를 이용하여 봉토의 하단부에 방형의 호석을 두른 전형적인 예장묘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묘 앞에는 1439년(세종 21)에 세워진 구묘갈[舊墓碣, 비신 44cm×90cm×20cm]과 1986년 후손들에 의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신묘갈(新墓碣)이 나란히 서있다. 그리고 묘갈 바로 앞 중앙에는 오래된 석등이 하나 세워져 있으며 조금 더 앞으로는 2개의 문신상과 새로이 만들어진 2개의 석등이 세워져 있다. 또한 이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1961년 후손들에 의하여 세워진 신도비[67cm×36cm×115cm, 김진화 찬(撰) 최영현 서(書)]가 있다.

9. 김휴(金休) 유허비(遺墟碑)

- 소재지 : 미곡리 산 6-17
- 시대 : 조선(1819년·순조 19)

김휴 유허비는 학당이 마을에서 수구동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의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김휴(金休, 1350~?)는 안동인으로 호는 학당(學堂)이다. 고려 공민왕 때 검교(檢校)로 있으면서 왕을 시종하였다. 어려서 포은 정몽주에게 수학하였고, 조선 개국 후에는 전의 운주산 밑 학당(현 전동면 미곡리 학당)에 은거하였는데, 연기지역에 연고를 가진 최초의 안동 김씨 인물이다.

김휴 유허비는 1819년(순조 18)에 세워졌고, 송치규 찬이다. 행장은 이채(李采) 찬, 김광(金鑛) 서이다. 대좌와 비신과 이수 등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화강 석재를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비신 규모는 너비 80cm, 높이 180cm, 두께 25cm이며, 이수는 너비 90cm, 높이 60cm, 두께 30cm이다. 이수는 방형으로 여의주를 입에 문 용 두 마리가 영켜 있는 조각으로 되어있다.



〈사진 12〉 김휴 유허비

10. 김휴(金休) 묘

- 소재지 : 미곡리 산 56-1
- 시대 : 조선(1819년·순조 19)

김휴 묘소는 학당이 마을 뒷편 구릉에 위치한다.

김휴(金休, 1350~?)는 안동인이다. 고려 공민왕 때 검교(檢校)로 있으면서 왕을 시종하였다. 묘비는 1819년(순조 19)에 세워졌고, 오른쪽에 1992년 새로 세운 묘비 오른쪽에 문인석과 함께 세워져 있다. 묘 주위를 호석으로 둥글게 둘러쌌다.



〈사진 13〉 김휴 묘소

11. 이영길(李榮吉) 묘

- 소재지 : 송성리 570
- 시대 : 현대(1957년)

이영길의 묘소는 송성리 중말마을 구릉의 동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이영길(李榮吉, 1599~1673)은 송성리 예안이씨의 입향조로, 원래 거주지는 한양 소용동(所用洞)이었으나, 병자호란으로 나라가 어려워지자 이곳 송성리로 입향했다고 전해진다. 묘역은 새 비석과 호석으로 단장되어 있고, 양 옆의 무인석만 조선 말기의 것으로 보인다. 묘비는 1957년에 세워진 것이다.

제6절

요지

1. 원직이 백자요지(白磁窯址)

- 소재지 : 노장리 산 81
- 시대 : 조선

마을입구에서 동남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낮은 구릉이 있는데 요지는 구릉의 남남동향 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백자요지가 확인된 곳은 현재 민가 등이 들어서 있거나 농로 개설과정에서 구릉을 일부 절개하였는데 요(窯)는 그 과정에서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능선 절대면에서는 소성실의 요벽으로 판단되는 소토층이 노출되어 있다. 요는 남북으로 형성된 능선을 따라 오름식 등요의 형태로 판단되나 요(窯)의 훼손이 심해 구체적인 형태나 규모는 알 수 없다. 현재 요지 주변으로는 다량의 백자편과 소토편 등이 확인되고 있다. 전체적인 유물산포범위와 주민의 전언을 통해 약 100여 평의 면적에 걸쳐 약 2~3기의 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습된 유물은 백자편과 소토편으로 백자(白磁)는 굽 주위에 굵은 모래받침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포개구운 것으로 확인된다. 백자의 주요 기종은 투박한 대접류인데 표면에는 유백색조의 유약이 굽안에 이르기까지 두텁게 시유(施釉)되어 있다. 일부 청색안료(靑色顔料)의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의 민수용의 자기를 생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노장리 죽엽이 백자요지

- 소재지 : 노장리 산 43
- 시대 : 조선

죽엽리 백자요지는 마을의 북동쪽에 있는 동림산에서 남서주한 능선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의

남동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요지로 확인된 지역은 근래까지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이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묵고 있는 곳이다. 원래의 지형이 산림지역이었던 것을 경작지로 개간한 곳이므로 지형은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면 답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물은 요벽 파괴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소토펜과 다량의 백자편이다. 백자는 대부분 순백자이며 기형은 주로 대접편이다. 대접의 굽 주위와 내저면의 중앙에는 굽은 모래받침을 하여 포개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조선시대 말기에 민수용의 자기를 공급하기 위해 요업활동을 하던 백자요지로 추정된다.

3. 봉대리 먹뱅이골 백자요지

- 소재지 : 봉대리 33
- 시대 : 조선

봉대리 먹뱅이골 골짜기에 백자요지가 확인되는데 이 골짜기 안쪽 상단부의 북서향사면에 해당한다. 요지로 알려진 곳에는 현재 민묘 5~6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산사면의 일부를 개간하여 과수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경작지로 개간할 당시 요의 일부분이 노출되어 다시 복토한 것으로 전하는데 이미 매몰된 상태이므로 지표면 조사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요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요와 관련된 자기편 혹은 소토펜이 수습되는 것으로 미루어 요와 관련된 자기편 혹은 소토펜이 수습되는 것으로 미루어 요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전체적인 유물 산포 범위로 미루어 볼 때 약 100여 평의 면적에 걸쳐서 요와 관련된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물이 산포되어 있는 위치로 미루어 가마는 지형경사에 따라 오름식의 등요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지 주변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많은 양의 백자편과 소토펜이다. 백자편은 사발과 대접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표면에는 유백색조의 유약이 굽 안쪽에 이르기까지 두텁게 시유되어 있다. 굽 주위에는 굽은 모래 받침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포개구운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노출된 유적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요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주로 조선시대 후반에 민수용의 자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봉대리 고소재 백자요지

- 소재지 : 봉대리 산 27-14
- 시대 : 조선

요지는 봉대리 고소재 마을에 있는 고소재 고개 주변에 위치하는데 693번 지방도로의 서쪽 능선 하단부에 있는 서향사면 밭 가운데에 해당한다.

요지(窯址)의 상단부는 이미 693번 지방도로 개설과 밭으로 개간과정에서 삭평을 가함으로써

상당한 지형변경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요는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와 관련된 소토펜(燒土片)이 수습되는 경작지의 면적은 약 300평 정도로 경작지 주변에 소토펜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요지로 추정되는 밭 주변에서 소토펜이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백자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예전에는 이곳에 많은 양의 백자편이 산포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백자요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봉대리 평말 백자요지

- 소재지 : 봉대리 372-2
- 시대 : 조선

봉대리 마을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골짜기에서 개울이 흐르고 있어 요지(窯址)의 입지조건으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주민들이 ‘점밭’이라 부르고 있는 이 요지는 야산의 하단부의 동향사면으로 현재 배나무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능선 하단부의 약 500여평의 면적에 걸쳐 백자편과 옹기편이 산포되어 있다. 요지는 개간과 경작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보여진다.

요지(窯址) 주변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대부분 백자편과 요벽파괴 과정에서 노출된 소토펜이 있다. 수습된 자기류는 백자와 청화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대접과 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굽 주위에는 굽은 모래를 받침으로 하여 포개구운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6. 석곡리 상석곡 백자요지(白磁窯址)

- 소재지 : 청송리 산75
- 시대 : 조선

요지는 상석곡 마을의 뒤편으로 ‘국사봉’에서 북주한 능선의 동남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현재 요지로 전하는 곳은 묵고 있는 논으로 주민들은 이곳을 ‘사기정터’라고 부르고 있다. 요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논으로 개간되어 경작되었던 관계로 경작지 주변에 소토펜과 백자편이 산포되어 있다. 현재 요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잡풀이 우거져 있으며 요는 대부분 개간 당시 파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표면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주로 요벽 파괴과정에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소결토와 백자편이다.

수습되는 유물은 백자편으로 접시와 발이 주요 기종을 이루는데 모두 모래받침을 하여 포개구이를 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유약은 맑은 청색조를 보이고 있다. 요지의 북동쪽 전방으로는 작은 냇물이 흐르고 있다.

7. 송정리 점고개 분청사기 요지

- 소재지 : 송정리 369
- 시대 : 조선

송정리 점고개 요지는 구리골 마을의 북서쪽으로 송정리 솔치마을로 넘어가는 곳에 ‘점고개’가 있는데, 점고개의 상단부 도로 오른쪽 절개된 사면에 위치한다.

요지가 있는 지역은 전동면 송정리 산 28의 2일대를 관통하는 지방산업도로 공사 중에 유구의 일부가 노출됨에 따라 공주대박물관과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의 연합하여 긴급 구제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1990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실시되었다.

주변의 지역은 기복이 가파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해발 약 150m 지점에 해당한다. 현재는 산업도로 공사로 인하여 2차선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남쪽의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송정리 마을로 통하는 소로가 유일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된 요지의 주변으로는 산림지역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요업에 필요한 번목을 구하는 것과 관련한 입지조건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요는 산사면을 중심축으로 하였을 때 약 20° 정도 비스듬히 설치되었다. 주변의 조사에서 같은 성격의 도요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표면 조사에서 수습된 유물은 인화분청사기가 주를 이룬다. 주로 사용된 문양은 단독국화문과 집단연권문 그리고 여의두문인데, 흑상감된편들도 일부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유물 가운데 내저 바닥에 ‘사선(司膳)’이 흑상감된 편이 있는데, 이는 15세기 초반에 왕실의 음식을 담당하던 ‘사선서’에 공납하던 물건으로 그 제품의 질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조사 전에 이 지역에서 수습되었다고 전하는 명문접시가 있는데, 접시 뒷면 굽 주위에 ‘관원해원주사영영(官員海員珠司永永)’이라 음각되어 있는 것도 있다. 요업관련 도구로 도침이 주로 산전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태토비집는 받침을 하여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있다.

8. 송정리 사장골 옹기요지(甕器窯址)

- 소재지 : 송정리 산 49
- 시대 : 조선

송정리 사장동 마을의 남쪽에 있는 표고 167.7m의 산에서 북주한 능선들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요지는 이 마을 남쪽으로 길게 형성된 골짜기 안쪽에 위치한 양계장 뒷쪽 밭에서 확인된다.

현재 옹기요지로 확인되는 곳의 주변은 밭으로 개간되거나 복숭아나무가 심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삭평되어 있는 상태이다. 유물이 집중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은 골짜기가 끝나는 곳에 위치한 밭으로 옹기편과 소토편이 산전되고 있는데, 이곳이 요의 중심이 되지 않았나 한다. 요지와

관련된 유물은 약 100여 평에 걸쳐서 산포되어 있는데, 요는 1기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 송성리 중말 분청사기요지(粉靑沙器窯址)

- 소재지 : 송성리 산 88
- 시대 : 조선

송성리 중말 마을의 남쪽에는 ‘송성저수지’가 있는데, 요지는 송성저수지의 아래 낮은 구릉의 남동향 사면에 위치한다.

요지로 전하는 지역은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수로가 개설되어 있다. 지형상으로는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구릉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경작지로의 개간 등으로 인하여 1차적인 지형훼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주변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밭 주변과 산사면에 걸쳐 분청사기편, 도질, 내화토비집받침이 다량으로 산포되어 있는데, 주로 민묘를 경계로 남쪽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유물이 산포하는 범위로 보아 요가 2~3기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된 분청사기편은 매우 정제된 인화분청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단독 국화문과 집단연권문이 주요 문양으로 시문되어 있다. 주로 수습되는 기종은 저면이 넓은 접시류와 대접류이다.

특히 흑상감된 분청사기편이 발견되고 있어 주목되는데, 이 흑상감은 상감청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이 지역 요업활동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문양구성을 보이는 요지가 동쪽의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와 증흥리 일대의 분청사기요지에서 확인된다.

10. 심중리 사기소 분청사기요지(粉靑沙器窯址)

- 소재지 : 심중리 94
- 시대 : 조선

요지는 심중리 사기소 마을 입구의 경작지로 개간된 지역에 북서향하여 위치한다. 현재 요지 주변에는 민가가 들어서 있으며, 요의 중심부로 추정되는 지역은 밭으로 개간되어 있다. 따라서 요지는 개간과 민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으로 보이며, 수습되는 유물 또한 반복적인 경작 등으로 인해 모두 심하게 파손된 잔편만이 수습될 뿐이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밭으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소토와 자기편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지표면 조사를 통하여 수습되는 유물은 주로 분청사기편인데, 심하게 파손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구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다. 자기에 사용된 문양은 집단연권문과 단독국화문, 그리고 육각형의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이 밖에 요와 관련된 유물로는 초별구이편과 태토비집눈 받침편, 그리고 소토편 등이 있다. 이러한 유물의 분포범위로 미루어 볼 때, 요는 2~3기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 심중리 민태절 분청사기요지(粉靑沙器窯址)

- 소재지 : 심중리 산 1-1
- 시대 : 조선

요지는 심중리 민태절 마을 입구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가마골’이라고 불리는 계곡의 남동향사면에 위치한다.

현재 요지가 확인된 지역은 마을 북쪽에 위치한 표고 458m의 동림산에서 남주한 남동향사면으로, 지형의 경사가 급하고 전방으로는 냇물이 흐르고 있다. 요지로 추정되는 곳은 현재 토사가 쌓여 있고 낙엽과 잡목이 우거져 있어 요의 구체적인 형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요지 추정지에 산포되어 있는 유물과 주민의 전언에 의해 요지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유물의 산포범위나 지형조건으로 볼 때 요는 2~3기 내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되는 유물은 분청사기편, 도침, 소토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화분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문양은 주로 단독국화문과 원권문이 돌려져 있다. 자기의 굽주위와 내저면에는 태토비집눈을 받쳐서 포개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유약의 시유상태와 태토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질의 자기를 생산하던 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7절

유물산포지

1. 노장리 이목동 유물산포지

- 소재지 : 노장리 산 122-3
- 시대 : 백제~고려

유물산포지는 노장리 이목동 마을 서쪽 입구에 있는 야산의 남동향사면 중하단부에서 넓게 확인된다.

현재 유물산포지로 확인된 지역은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이 이루어 지고 있는 관계로 지표면의 상당부분은 1차적인 지형훼손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지표면에서 주로 수습되는 유물은 적갈색조의 연질토기편과 회청색조의 경질토기편인데 대부분 심하게 파손된 잔편이므로 구체적인 기형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유물산포지 내에서 확인되는 유물과 관련된 유구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유물의 종류로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 생활유적과 같은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청송리 도청 유물 산포지

- 소재지 : 청송리 41
- 시대 : 원삼국~백제

청송리 도청 마을의 유물 산포지는 이 마을 북쪽에 있는 산에서 남쪽으로 흘러 내린 능선의 남향사면 중단부에 해당한다.

유물산포지로 확인된 지역은 원래 산림지역이었던 곳이 과수원과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이 이루어 지고 있는 곳으로 1차적인 지형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진 상태이다. 지표면에서 수습된 유물은 주로 적갈색조의 연질로 소성된 토기편으로 표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확인된

다. 주로 원삼국~백제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물의 파손 상태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유구의 현황을 파악할 구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청송리 안배일 유물산포지

- 소재지 : 청송리 산 2-3
- 시대 : 원삼국~백제

안배일 마을은 운주산(雲住山)의 동남쪽 지대로 조천의 물길에 접한 곳이다. 성남면 일원에는 중부지방 원삼국 초기 백제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시한 용원리 유적이라든지 장산리 유적 등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주목되기도 한 곳이다. 유물산포지가 확인된 안배일 마을은 대체로 운주산에서 뻗어 나온 능선이 남동-남주하여 마을 전체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국으로 마을의 전면은 넓게 전방을 조망할 수 있게 트여 있기도 하다. 마을의 남쪽으로 1km 내외에는 미호천으로 합류되는 조천(烏川)이 서(西)에서 동(東)으로 흐르고 있다.

유물의 산포지가 확인된 곳은 마을이 자리잡은 전체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는데 이곳은 현재 민가 5~6채가 들어서 있고 이외의 대부분은 포도 과수 농장 등으로 개간하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경작지 주변에 대한 지표면 답사 결과 상당량의 유물이 지표면에서 확인된다. 수습되는 유물은 대부분 토기편으로 연질과 경질 모두가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원삼국~백제기로 편년되는데 표면에는 주로 격자문이 시문된 것으로 호형토기와 발형토기의 기형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수습되는 유물의 정황이라든지 이외에 간헐적으로 짚·풀 등을 섞은 소토덩어리 등이 수습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랫배일 유물 산포지와 비교할 수 있는 생활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4. 청송리 아랫배일 유물산포지

- 소재지 : 청송리 산 44-1
- 시대 : 원삼국~백제, 조선

청송리 아랫배일 마을은 북쪽과 동서쪽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남쪽 전방부만 일부 트여 있는 지형을 갖추고 있다. 유물산포지는 아랫배일 마을의 북쪽에 있는 산림 지대로 운주산(459.7m)에서 동남-남쪽으로 길게 흘러내린 지형이다.

현재 유물의 산포가 확인된 지역은 완만한 구릉사면을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최근 개통한 경부고속철도 '운주터널'의 입구부에 해당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 민묘 조성과 양어장 등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대부분의 지역이 상당한 지형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면 답사를 통해서 수습된 유물은 원삼국~백제기로 편년되는 토기편과 조선시대 분청사기

편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러나 수습된 유물의 양이 많지 않고 산포되어 있는 유물의 밀집도도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적의 성격을 추론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북쪽으로 약 300m 내외의 거리에 위치한 안배일 마을에서도 상당한 양의 유물이 지표면에서 확인되는 겹으로 미루어 볼 때 서로 비교·검토는 가능하리라 추정된다.

수습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편으로 표면에는 격자문, 격자문+횡침선이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점토로 정선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반면에 분청사기편은 인화분청사기편으로 표면에는 연판문(蓮瓣文) 위에 조밀하게 원문(圓文)이 인화되었는데 시문상태가 양호하여 인화분청의 이른 단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5. 미곡리 미륵당이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

- 소재지 : 미곡리 7-11
- 시대 : 원삼국~백제

유물산포지는 미륵당이 마을을 지나는 도로를 중심으로 남서향한 구릉지대에 걸쳐서 확인된다.

유물의 산포가 확인된 지역은 미곡리 미륵당이 마을의 북동쪽에 있는 운주산(459.7m)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흘러내린 능선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표고 60m 내외의 나지막한 저산성 구릉지대가 길게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현재 구릉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선상부를 중심으로 공장이 들어서 있다거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어 일차적인 지형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지표면 조사과정에서 원삼국·백제시대로 편년될 수 있는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대부분 적갈색, 회백색 계통의 연질 토기편으로 태토에는 가는 모래가 섞여 있다. 심하게 파손된 잔편이므로 구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으나, 유물이 확인되는 능선을 중심으로 원삼국·백제시대 생활유적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곡리 일대는 미호천으로 유입되는 ‘조천(鳥川)’의 상류로 천변의 충적대지를 중심으로 경작지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그 주변으로 표고 100m 내외의 구릉성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 유적의 입지조건으로 최적의 상태를 보이고 있어 원삼국, 백제시대의 생활유적이 입지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6. 미곡리 새뜸 유물산포지

- 소재지 : 미곡리 177
- 시대 : 원삼국~백제

새뜸마을은 ‘운주산’의 남향사면 하단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서쪽으로 약 200m의 거리에 미륵

댕이 유물산포지가 위치한다. 유물의 산포가 확인된 것은 ‘운주산(雲住山)’에서 남주한 능선의 북서향사면 하단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그 전방으로는 ‘조천(鳥川)’이 흐르고 있다. 이곳은 입지상으로는 북서향 사면에 해당하는 곳이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지형이다. 현재 이 지역의 능선 중하단부는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으며, 그 위쪽으로는 자연 산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민가를 새로이 짓고 주변을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형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지표면 답사를 통해서 원삼국~백제기로 편년되는 다량의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이는 경작지로 개간하거나 산사면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매장되어 있던 유적이 훼손되면서 유물이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습되는 유물은 모두 토기편인데, 적갈색조의 연질소성된 것과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모두 확인된다. 표면에는 격자문, 집선+횡침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태토는 굵은 입자가 포함된 점토로 거친 것이다. 기형은 대체로 발형토기와 호형토기편으로 추정되는데, 일부 연질토기의 경우 불에 그을려서 생긴 흑반이 기내·외면에서 확인된다. 지표면 답사를 통해서 정확한 유적내용은 알 수 없으나 미륵댕이 유물산포지와 비교할 수 있는 생활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추후에 보다 정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8절

기타유적

1. 석곡리 상석곡 느티나무

- 소재지 : 석곡리 220-1
- 시대 : 미상

느티나무는 중석곡 마을에서 상석곡 마을로 가는 삼거리상에 위치한다. 나무의 수종은 느티나무이며 1996년 11월에 군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나무의 고유번호는 8-5-385이다. 수령은 약 300여 년이고 나무의 규모는 높이 20m에 둘레는 약 5m 정도의 계측된다. 현재 나무에 대한 특별한 민속행위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나 여름철이면 마을 주민들의 쉼터나 마을의 주요 사항이 있을 시 나무 밑에 모여 서로 상의 합심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전한다. 정행선씨의 관리 아래 양호한 양육상태를 보이고 있다.

2. 송성리 물도리 느티나무

- 소재지 : 송성리 331-3
- 시대 : 미상

느티나무는 송성리 물도리 마을의 입구에 위치한다. 나무의 수종은 느티나무이며, 2000년 12월 29일에 면나무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수령은 330년이 되었으며, 규모는 높이 10m, 둘레 4.5m로 계측된다. 주변에 별도의 보호시설은 없으나,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터를 닦아 놓았다. 마을사람들이 별도로 나무에 제를 올리거나 위하지 않으나, 나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현재 마을이장이 관리하고 있다.

3. 송성리 솔티 느티나무

- 소재지 : 송성리 566
- 시대 : 미상

송성리 솔티 마을의 입구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나무는 회관 바로 옆에 위치한다.

나무의 수종은 느티나무이며, 수령이 약 250여 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의 규모는 높이 17m, 나무둘레는 4.5m이며 2000년 12월 29일 면나무로 지정되었다. 주변에 별도의 보호시설은 없으나,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터를 닦아 놓았다. 마을 사람들이 별도로 나무에 제를 올리거나 위하지는 않으나, 나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나무의 관리는 마을 이장이 하고 있다.

4. 심중리 덕룡골 느티나무

- 소재지 : 심중리 산 89
- 시대 : 조선

나무는 심중리 덕룡골 마을 입구에 위치하는데, 북쪽에는 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논으로 개간된 경작지가 있다. 나무의 수종은 느티나무이며, 수령은 약 300여 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 주변에는 시멘트로 휴식공간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나무의 생육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관리는 마을의 이장이 하고 있다.

[기타 보호수]

[보호수 목록]

지정번호	소재지	수령 (년)	수고 (m)	흉고둘레 (m)	비고
23 (8-5-7-48)	노장리 72	50	8.2	0.9	생육상태 대체적 양호, 안내판 등 설치 - 1본은 수관 상층부의 수세약화로 고사지 발생
13 (8-5-385)	석곡리 221-1	300	18	5	도나무, 생육상태 양호, 안내판 설치
45 (2005-2)	송성리 146	350	15.8	4.8	생육상태 양호, 안내판 등 설치
42 (2000-17)	송성리 328	330	15.4	5.8	생육상태 양호, 안내판 등 설치 - 일부 가지정리 필요
12 (8-5-384)	송성리 423	300	18.5	5	생육상태 양호, 안내판 등 설치
43 (2000-18)	송성리 567	150	19	4.5	생육상태 양호, 안내판 등 설치
25 (8-5-7-400)	심중리 211-2	370	18	6.3	생육상태 양호, 표시석 설치

5. 경주김씨 소장 고문서

- 소 재 지 : 송곡2리 경주김씨 문중
- 시 대 : 조선중후기

송곡2리 능골마을에 전해오는 경주김씨 계룡공파의 고문서로 경주김씨는 15대 이상 마을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 현재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문서는 교지를 비롯해 시권, 분재기 등으로 당시 경주김씨들의 재산과 사회적 위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경주김씨 소장 유물(목록)]

	유물명	년 도	내 용	특이사항
1	教旨	1600年 (萬曆 6月 26日)	淑夫人 閔氏를 貞夫人으로 추증하는 교지, 小字芳書로 平亂功臣 金命元이 증직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됨	印記 1
2	教旨	1605年 (萬曆 33年 5月 初2日)	朝散大夫行忠勳府都事	印記 1 불에 탄 흔적이 보이며 일부 글자가 결실됨
3	教旨	1632年 (崇禎 5年 6月 初6日)	李氏를 淑夫人으로 임명함	좌측상단에 소자방서로 남편인 김남중이 증직되어 부인인 이씨도 법전에 의거하여 증직되었다고 기록, 복사본임
4	教旨	1648年 (順治 5年 9月 初3日)	幼學 金弘振이 進士一等第二人 入格 하였음을 증명하는 백패	印記 1 우측 상단에는 후대에 덧붙인 것으로 보여 지는데 ‘幼學 金弘振進士一等第二人’라고 적혀 있음
5	教旨	1669年 (康熙 8年 5月 11日)	幼學 金鼎臣이 生員三等第五十四人에 입격 하였음을 증명하는 백패	印記 1 우측 상단에는 후대에 덧붙인 것으로 보여 지는데 ‘幼學金鼎臣 生員三等第五十四人’라고 적혀 있음
6	帖	1680年 (康熙 19年)	忠勳府에서 平亂功臣 김명원의 후손 김정신에게 내린帖	印記 5 훼손되어 일부 글자 판독 불가.
7	教旨	1714年 (康熙 52年 9月 20日)	授仕郎前敦寧府參奉 金泰衍 生員三等第六十五人에 입격 하였음을 증명하는 백패	우측 ‘教旨’라는 글자 아래에 ‘授仕郎前敦寧府參奉金泰衍 生員三等第六十五人’이라는 글이 덧붙여 있음
8	教旨	1714年 (康熙 52年 7月 初)	金泰衍을 朝奉大夫行永喜殿參奉에 임명 別加	좌측의 결락으로 날짜가 보이지 않음 좌측의 상단에 ‘甲七別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別加’는 벼슬아치의 品階를 특별히 올려 주던것임.
9	教牒	1839年 (道光 19年 6月 29日)	教學生 金秉熙를 通德郎行惠陵參奉에 임명하는 증서	印記 1 行判書, 參判, 參議, 佐郎, 正郎의 수결이 있음
10	教旨	1841年 (道光 21年 12月 25日)	金秉熙를 ‘朝奉大夫行宗廟署副奉事’에 임명	印記 1 하단의 부식이 심함. 문서 우측 뒷면에 이 문서를 작성한 ‘使 安元默’이 기록됨 좌측 하단에 ‘奉’자가 결락되었음
11	教旨	1842年 (道光 22年 12月 25日)	金秉熙를 ‘朝奉大夫行尙瑞院副直長’에 임명	印記 1 하단의 부식이 심함. 문서 우측 뒷면에 이 문서를 작성한 ‘使 安元默’이 기록됨.
12	教旨	1843年 (道光 23年 6月 25日)	金秉熙를 ‘朝奉大夫行尙瑞院副直長’에 임명	印記 1 하단의 부식이 심함. 문서 우측 뒷면에 이 문서를 작성한 ‘使 安元默’이 기록됨.

	유물명	년 도	내 용	특이사항
13	教旨	1843年 (道光 23年 6月 29日)	金秉熙를 ‘朝奉大夫行漢城府主範’에 임명	印記 1
14	教旨	1844年 (道光 24年 正月 1日)	金秉熙를 ‘兼晉州鎭管宜寧兵馬節制都尉’에 임명	印記 1
15	教旨	1844年 (道光 24年 正月 21日)	金秉熙를 ‘通訓大夫行宜寧縣監’에 임명	印記 1
16	教旨	1844年 (道光 24年 正月)	金秉熙를 ‘兼晉州鎭管宜寧兵馬節制都尉’에 임명	印記 1 복사본임
17	教旨	1848年 (道光 28年 6月 25日)	金秉熙를 ‘通訓大夫行抱川縣監’에 임명	印記 1 부식을 막기 위해 문서의 뒤면에 종이를 덧붙였음
18	教旨	1860年 (咸豐 10年 5月)	儒人鄭氏를 淑夫人에 임명 左側에 小字 芳書로 士族婦女の 나이가 90세가 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보해짐	좌측상단에는 古學生 金義集의 妻 淑夫人 鄭氏의 生年이 기록됨
19	教旨	1899年 (光緒 15年 12月)	金敎承이 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	印記 1 하단이 부식됨
20	教旨	1891年 (光緒 17年 10月)	幼學 金正翊이 進士三等第四十二人에 入格 하였음을 증명하는 백패	印記 1 좌측에 연도가 부식되어 ‘〇緒’로 표기되어 있으나 추측이 가능함
21	勅命	1899年 (光武 3年 11月 25日)	九品從仕郎 金正翊을 陞六品承訓郎에 임명	印記 1 상단중앙에 접연문서가 있음
22	勅命	1900年 (光武 4年 5月 23日)	六品通訓大夫 金敎承任中樞院議官敍奏任官六等	印記 1 좌측 상단에 ‘中樞院議長申箕善 宣’이라고 적힘
23	分財記	甲午 9月 初5日	財主인 아버지가 2명의 자식에게 재산을 별급해주는 분재기	아버지가 자필로 쓴 것으로, 본 문서는 복사본임.
24	試券	庚辰年	庚辰年 增廣試에 응시한 金昌熙의 시권 뒷면. 우측상단에는 四祖單子 일부가 적혀 있음.	
25	圖形	미상	墓圖	
26	諭書	미상	유서로 보이거나 대부분 결실된 상태임.	印記 1
27	時文	미상	香化市煌 紫泥倚杖	

■ 참고문헌

- 百濟文化開發研究院·公州大學校博物館, 1999,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第 12輯, 燕岐郡篇.
- 안동김씨연기군중친회, 1997, 『연기지역의 충열공 후예들』.
- 연기군, 1991, 『연기·전성지』.
- 연기군·공주대학교 박물관, 1998, 『연기군 충효열 유적』, 『居昌愼氏世譜』.
- 연기군지편찬위원회, 1988, 『연기군지』.
- 전의면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조치원문화원, 1997, 『전의향토지』.
- 조치원문화원, 1997, 『燕岐郡人物誌』.
- 충청남도, 1991, 『문화유적총람』, 금석문편 상.

제7장 전동면의 기관·단체

제1절 공공기관

제2절 교육기관

제3절 복지시설

제4절 사회단체

제5절 종교단체

제1절

공공기관

기관명	주소	대표자
전동면사무소*	전동면 노장리 583	변영호
연기경찰서 전동파출소	전동면 노장리 583-1	홍헌표
전동우체국	전동면 노장리 648-6	양문교
전동면보건지소	전동면 노장리 583	최성호
송곡보건진료소	전동면 송곡리 138-24	장춘희
제99보병연대 3세대 전동면대	전동면 노장리 583	조준희
조치원농협전동지점	전동면 노장리 608-9	송승선
전동역	전동면 노장리 632-1	박종수
전동면 전담의용소방대(전의119안전센터)	전동면 노장리 584-7	김병용

* 전동면사무소는 행정·정치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제외함.

1) 연기경찰서 전동파출소

- 위치 : 전동면 노장리 583-1
- 연혁 : 1914년 일본헌병대가 파견되었음.
 1925년 7월 전동경찰관 주재소로 개편 16개리 관할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하 국립경찰 창립에 따라 전동지서로 개칭
 1948년 11월 11일 전동면 청송리 권처중이 사비로 건평 12평 관사 2동 신축
 1952년 5월 1일 전동면 청송리 권처중이 토담으로 된 청사를 목조건물로 개축
 1968년 8월 26일 향토예비군 설치로 예비군무기고 4평 시멘트 벽돌조로 국고보조 건축
 1988년 4월 15일 국고 3,900만원 건평 40평 슬라브 2층 청사 기공
 1988년 8월 26일 강내건설 김고성 사장 사비 800만원으로 예비군 무기고, 탄약고 신축 기증

- 1995년 1월 27일 전동지서를 전동파출소로 개칭
- 2003년 7월 10일 전동치안센터로 개칭
- 2004년 7월 1일 운주지구대 전동치안센터로 개편
- 2010년 5월 12일 전동치안센터에서 전동파출소로 명칭변경

- 관할 : 전동면 전지역
- 현황
 - 건물면적 : 170.30㎡, 대지면적 : 562㎡
 - 직원현황

직책	부별	계급	성명
파출소장	일근	경위	홍헌표
순찰팀원	지원	경사	이문환
관리팀원	일근	경사	박민서
순찰팀원	순찰3팀	경사	김헌태
순찰팀원	순찰3팀	경사	정인영
순찰팀원	순찰2팀	경사	연규수
순찰팀원	순찰2팀	경사	정성식
순찰팀원	순찰1팀	경사	조호현
순찰팀원	순찰1팀	경사	김재철

- 지역특성 및 중점추진사항
 - 지역특성 : 천안·충북 청원과 경계, 전형적인 농촌지역. 노장산업단지 형성 및 국가중요시설 위치. 주민 대부분 농축산업에 종사.
 - 중점추진사항 : 농, 축산물 절도 예방강화, 독거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보순찰을 통한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 전개.



〈사진 1〉 전동파출소

2) 전동우체국

- 위치 : 전동면 노장리 648-6
- 연혁 : 1963년 9월 20일 전동우체국 개국
 1981년 12월 31일 우편집배구 기동화구 2구
 1984년 8월 15일 전화업무광역화로 교환업무폐지
 1886년 1월 28일 현청사 신축
 2000년 6월 1일 우편배달업무광역화(연기우체국 통합)
- 역대 우체국장

역 대	성 명	재임기간
1대	송 창 석	1963.09.20 ~ 1973.12.30
2대	이 흥 기	1973.12.31 ~ 2007.11.30
3대	양 문 교	2007.12.01 ~ 현재

• 직원 현황 및 담당업무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국장	양 문 교	총괄
사무장	이 규 선	택배·서무
사무주임	전 형 권	우편담당
사무주임	신 미 희	금융
집배원	오 명 균	우편배달
집배원	구 총 모	우편배달
보험FC	김 명 순	보험FC

• 목표관리사업(2009. 12월 말)

(단위 : 천원, %)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득점	전년동기 실적	성장률	청순위
우편매출액 (44점)	147,300	234,078	158.9	44,000	164,158	42.6% ↑	16
우편매출기여도 (5점)	135,498	234,078	172.8	5,000			0
우체국소핑 (5점)	354	373	105.5	5,000	463	19.4% ↓	1
예금수신고 (33점)	3,400,000	3,446,000	101.35	30,404	3,129,431	10.08% ↑	1
보험정산계약고 (12점)	2,400,000	5,555,480	230.79	12,000	4,993,000	15.27% ↑	1
정산월액보험료 (11점)	15,000	36,236	237.88	237.88	25,585	45.53% ↑	1
합계득점 (110점)	107,388	9,506,245			8,312,637	2.99% ↑	11



〈사진 2〉 전동우체국

3) 전동면보건지소

- 위치 : 전동면 노장리 583
- 연혁 : 1986년 전동면보건지소 개소
 2006년 2월 2일 전동면보건지소 신축
- 현황
 - 직원현황 : 지소장 및 공중보건 의사 1명, 일반진료 1명, 통합보건 1명 / 총 3명 근무
 - 규 모 : 진료실과 보건사업실 등 132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 콘크리트건물
 - 진료과목 : 일반
- 주요업무
 - 보건사업 : 임신부·영유아 건강관리, 미취학아동 건강검진, 성인병 검진 및 암검진 등
 - 전염병 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등
 - 치매조기검진
 -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진 3〉 전동면보건지소 준공식
(2006. 1. 25)



〈사진 4〉 전동면보건지소

4) 송곡보건진료소

- 위 치 : 전동면 송곡리 138-24
- 연 혁 : 1985년 10월 23일 개소
- 직원현황 : 보건진료소장 1명(장춘희, 1985년 10월 23일~현재)
- 주요업무
 - 일차 진료 업무
 - 건강증진관리업무
 - 모자보건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성인병관리(고혈압, 당뇨, 안 보건 관리)
 - 예방접종 및 집단 보건교육



〈사진 5〉 송곡보건진료소



〈사진 6〉 주민건강교실



〈사진 7〉 진료실



〈사진 8〉 건강증진실

5) 제99보병연대 3대대 전동면대

- 위 치 : 전동면 노장리 583
- 기관장명 : 조준희(2009.07.01~현재)

- 직원현황

구 분	성 명
중 대 장	예비군 관리 사무관 조 준 희
상근예비역	일병 정 문 순
상근예비역	이병 천 황 일

- 시설현황 : 사무실 1개동, 장비고 1개동

- 주요업무

- 전동면지역 또는 면소재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 동원된 소속예비군 대원의 지휘통솔 및 포상추천
- 소속대원의 보직부여 및 자원관리
- 예하 지휘관의 임명 또는 추천과 파견 근무요원의 지휘감독
- 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소집통지서의 전달
- 훈련참가자의 확인 감독
-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
- 무기 및 탄약의 관리책임자로 임명되거나, 교육 또는 작전을 위하여 무기와 탄약을 수령 시 이에 대한 관리 유지
- 시설 및 장비 기타 비품의 유지관리
- 병무관서장의 업무협조 및 지원



〈사진 9〉 제99보병연대 3세대 전동면대

6) 조치원농협 전동지점

- 위치 : 전동면 노장리 608-9
- 연혁 : 1972년 12월 19일 전동면 이동조합 설립(초대 조합장 이채)
전동면 노장리 588-2번지 청사신축

1979년 8월 10일 조치원농협에 흡수합병(자립기반 취약)
 조치원농협 전동지점으로 명칭변경
 1991년 9월 4일 청사신축 이전(현 위치)
 2006년 4월 16일 조치원농협전동지점 DSC(산물벼건조저장시설) 준공

• 역대 조합장

성명	재임기간	비고
이 채	1972.12.19 ~ 1979.08.09	전동면 초대
이봉재	1970.03.30 ~ 1973.03.31	조치원농협 초대
백성기	1973.04.01 ~ 1980.03.31	2, 3, 4대(조치원농협)
이장호	1980.04.01 ~ 1989.03.31	5, 6, 7대(조치원농협)
김웅기	1989.04.01 ~ 현재	8, 9, 10, 11, 12, 13대(조치원농협)

• 역대 지점장

역대	성명	재임기간
1대	김지현	1979.08.16 ~ 1984.02.19
2대	이철희	1981.07.28 ~ 1984.02.19
3대	오광표	1984.02.20 ~ 1986.03.31
4대	이범재	1986.04.01 ~ 1990.03.31
5대	장필순	1990.04.01 ~ 1994.03.17
6대	황의빈	1994.03.18 ~ 1996.09.01
7대	류근철	1996.09.02 ~ 1998.03.31
8대	김수환	1998.07.01 ~ 1999.04.14
9대	박종대	2000.04.15 ~ 2001.04.08
10대	김종구	2001.04.09 ~ 2002.03.31
11대	구완회	2002.04.01 ~ 2004.03.31
12대	강수현	2004.04.01 ~ 2006.04.11
13대	김종구	2006.04.12 ~ 2008.01.31
14대	이범재	2008.02.01 ~ 2009.03.31
15대	송승선	2009.04.01 ~ 2010.12.31
16대	이범재	2011.01.01 ~ 현재

• 직원 현황

직명	지점장	과장	대리	대리	대리	대리	기사	기사	P.T
성명	이범재	임재영	윤명구	김태남	성지혜	한상미	곽재신	민관기	신영숙
담당업무	총괄	총괄	판매	대출	수신	출납	농기계	구매	마트

- 주요업무(2010년 12월 31일 현재)
 - 예·적금(325억), 공과금, 공제(보험), 카드업무
 - 상호금융대출(263억), 정책자금대출업무(32억)
 - 하나로마트 업무(5.9억)
 - 경세사업업무(농약, 비료, 일반자재, 면세유, 농기계수리)(28억)
 - 판매사업업무(36억)



〈사진 10〉 조치원농협 전동지점

7) 전동역

- 위치 : 전동면 노장리 632-1
- 연혁 : 1925년 7월 1일 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39년 2월 16일 소화물, 화물취급 개시
 1957년 11월 11일 보통역으로 승격
 1974년 3월 11일 소화물 취급 중지
 1983년 8월 1일 무배치간이역으로 격하 및 화물취급 중지
 1997년 2월 20일 신호장으로 변경
 2005년 8월 1일 여객취급 중단
 2009년 2월 26일 전동역국제만화로 조성
- 역명유래 : 1914년 행정구역울 개편하면서 전의의 동쪽이라 하여 전동면이라 한데서 비롯됨.
- 현황
 - 등급 : 신호장(전의역 관리)
 - 특징 : 전의와 조치원을 연결하는 국도상에 위치한 곳으로 전동면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나 조치원 인근에 위치해 있고 도로교통이 발달하여 각역정차 열차만 정차했으며 2005년 8월 1일부터 내판역과 같이 안전을 이유로 여객열차가 더 이상 정차하지 않았다. 현재는 신호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 1일 여객열차 정차횟수 : 없음
 - 전용선&지선현황 : 없음
 - 전동역 통계자료(1965년~현재)

년도	승차인원 (단위 : 명)	강차인원 (단위 : 명)	화물발송량 (단위 : 톤)	화물도착량 (단위 : 톤)
1965	79,276	76,603	321	2,271
1966	77,432	71,834	1,796	1,753
1967	79,778	73,191	492	974

년도	승차인원 (단위 : 명)	강차인원 (단위 : 명)	화물발송량 (단위 : 톤)	화물도착량 (단위 : 톤)
1968	63,642	65,723	336	1,295
1969	60,767	59,480	74	7,306
1970	46,943	43,682	1,122	3,304
1971	73,408	70,813	291	1,164
1972	55,627	48,643	3,618	3,299
1973	48,201	40,716	498	1,750
1974	50,440	41,215	176	2,698
1975	46,485	37,768	90	3,065
1976	48,135	36,731	80	4,150
1977	47,488	38,886	117	5,425
1978	54,031	28,106	160	1,239
1979	64,233	67,372	0	600
1980	45,277	33,086	90	1,527
1981	48,445	35,146	0	490
1982	46,839	30,851	160	1,028
1983	41,110	26,809	45	2,018
1984	34,043	32,760	0	50
1985	27,370	33,274	0	0
1986	21,539	27,195	0	0
1987	19,266	26,504	0	0
1988	19,919	23,930	0	290
1989	16,629	19,613	0	0
1990	865	15,444	0	0
1991	230	14,382	0	32
1992	110	11,713	0	32
1993	624	10,775	0	0
1994	0	8,941	0	0
1995	0	7,051	0	100
1996	0	3,584	0	0
1997	0	1,450	0	0
1998	25	2,007	0	0
1999	75	1,601	0	0
2000	388	1,470	0	0
2001	520	1,507	0	0
2002	228	1,071	0	0
2003	90	1,799	0	0
2004	1,017	2,575	0	102
2005	607	643	0	0
2006	-	-	0	0
2007	-	-	0	0
2008	-	-	0	0
2009	-	-	0	0
2010	-	-	0	0



〈사진 11〉 전동역



〈사진 12〉 전동역국제만화로

8) 전동면 전담의용소방대

- 위치 : 전동면 노장리 583
- 연혁 : 1988년 3월 2일 공주소방서 조치원과출소 개소
 - 관할구역 : 조치원, 소정, 전의, 전동, 동면, 남면, 서면, 금남면
- 2001년 전동지역대 건물 증축
- 2008년 2월 14일 공주소방서 전의 119안전센터 개소
 - 관할구역 : 전의, 전동, 소정
- 2008년 12월 26일 연기소방서 전의 119안전센터로 명칭 변경
 - 관할구역 : 전의, 전동, 소정
- 2010년 10월 25일 전동면 전담의용소방대 발대식
- 현황
 - 부지면적 : 2,195㎡, 면적 : 총 1층(40.89㎡), 구조 : 세면벽돌조 슬라브
 - 용도 : 차고, 사무실, 대기실
- 주요업무
 - 전동지역대의 모든 업무는 전의 119안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음.
 - 화재예방 및 점검
 - 화재진압, 인명구조



〈사진 13〉 전동면 전담의용소방대

제2절

교육기관

기 관 명	주 소	대 표 자
전동초등학교*	전동면 노장리 595 (하노장 3길 9)	임 명 식
전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동면 노장리 595 (하노장 3길 9)	임 명 식

* 전동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전동초등학교 내용 안에 같이 수록하였다.

1) 전동초등학교

- 위치 : 전동면 노장리 595 (하노장 3길 9)
- 연혁 : 1935년 5월 10일 전동국민학교 설립인가
 1935년 5월 30일 전동공립보통학교 개교
 1961년 2월 4일 문교부 지정 연구학교(3년)
 1992년 3월 1일 충남교육청지정 환경보전 시범학교(2년)
 1994년 3월 1일 전동초등학교 송성분교장 통·폐합
 1995년 10월 31일 연기교육청지정 시범학교(교육발전과제)
 1996년 3월 1일 전동초등학교 송덕분교장 통·폐합
 1997년 3월 1일 연기교육청 지정 열린교육 시범학교(1년)
 1997년 11월 28일 독서교육심사 우수학교 표창(교육감)
 2002년 12월 28일 학교교육운영 우수학교 표창(교육감)
 2007년 2월 14일 제69회 졸업식(총 4,974명)
 2007년 3월 1일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학교 운영(3년간)
 2008년 2월 14일 제70회 졸업식(총 5,004명)
 2008년 3월 1일 특수학급 1학급 신설
 2008년 12월 17일 독서교육 선도학교 운영 우수학교 표창(충청남도교육감)
 2009년 2월 10일 제71회 졸업식(총 5,026명)
 2009년 3월 1일 아름다운 학교 숲 가꾸기 시범학교 지정(3년간)

- 2009년 6월 1일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
 2009년 12월 29일 학교교육과정운영(건강안전교육) 우수학교 표창(충청남도교육감)
 2009년 12월 31일 도장학지도 유공학교 표창(충청남도교육감)
 2010년 2월 19일 제72회 졸업(총 졸업생수 5,045명)
 2010년 12월 7일 과학교육 현장지원 중심장학 우수학교 표창(충청남도교육감)
 2010년 12월 23일 과학·정보교육 우수학교 표창(충청남도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 2월 18일 제73회 졸업(총 졸업생수 5,061명)
 2011년 3월 1일 7학급 편성(특수 1), 유치원 1학급 편성

• 역대 학교장 명단

역 대	성 명	재임기간
1대	임 종 덕	1945.10.25 ~ 1946.04.30
2대	김 대 성	1946.05.01 ~ 1949.08.14
3대	이 은 창	1949.08.15 ~ 1951.02.04
4대	임 종 응	1951.02.05 ~ 1956.03.27
5대	정 연 순	1956.03.28 ~ 1958.08.29
6대	유 엄 준	1958.08.30 ~ 1959.03.30
7대	최 원 식	1959.03.31 ~ 1960.08.04
8대	권 혁 정	1960.08.05 ~ 1962.02.28
9대	유 기 설	1962.03.01 ~ 1964.03.26
10대	권 순 안	1961.03.27 ~ 1965.02.28
11대	최 성 옥	1965.03.01 ~ 1970.03.31
12대	홍 종 범	1970.04.01 ~ 1973.01.04
13대	홍 종 석	1973.01.05 ~ 1975.08.30
14대	김 윤 식	1975.08.31 ~ 1977.08.31
15대	김 정 국	1977.09.01 ~ 1983.02.28
16대	임 재 진	1983.03.01 ~ 1985.02.28
17대	최 순 상	1985.03.01 ~ 1988.02.28
18대	박 용 목	1988.03.01 ~ 1990.08.31
19대	민 영 이	1990.09.01 ~ 1994.02.28
20대	배 만 진	1994.03.01 ~ 1996.08.31
21대	유 흥 준	1996.09.01 ~ 1999.08.31
22대	이 충 로	1999.09.01 ~ 2003.08.31
23대	장 우 현	2003.09.01 ~ 2006.08.31
24대	이 옥 균	2006.09.01 ~ 2009.08.31
25대	양 동 직	2009.09.01 ~ 2011.02.28
26대	임 명 식	2011.03.01 ~ 현재

• 학교 현황

– 학생현황

학년	1	2	3	4	5	6	특수	계	유치원
학급수	1	1	1	1	1	1	1	7	1
학생수	남	4	4	8	8	11	4	39	9
	여	3	3	8	6	6	18	44	6
	계	7	7	16	14	17	22	83	15




－ 교직원현황

구분	교원							일반직					학교회계직			총계		
	직급	교장	교감	교사				행정 실장	사무원	조무원	운전원	위생원	소계	영양사	조리 종사원		소계	
				초등	특수	보건	유치원											소계
남	1			3				3	1		1	1		3				7
여		1		4		1	1	6		1			1	2	1	2	3	12
계	1	1		7		1	1	9	1	1	1	1	1	5	1	2	3	19

－ 교육시설

구분	교장실	교무실	초등 교실	특수 교실	유치원 교실	보건실	과학실	도서실	컴퓨터 실	영어 체험실	행정실	급식실	다목적 강당	계
수 (칸)	0.5	0.5	6	1	1	0.5	1	1	1	1	0.5	1	1	16

－ 학교상징물

교표	교목	교화	교조
	은행나무	개나리	원앙새
			

－ 학교 교가



운 주 산 높은정 기 희망에 솟 - 고
 마 - 한 의 푸른전 설 감 도 - 는고 장
 배 우 자 슬기로운 나 라 의 새 싹
 보 람 찬 가슴으로 우 리는모였 다아 -
 아 - 영 원토 록 길 이 뻗어 나갈배움의동 산
 온 누 리 에 빛나 - 는 우 리 전 동 교



〈사진 14〉 전동초등학교

• 전동초등학교 총동문회

- 연혁 : 1994년 전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발족
1996년 전동초등학교 총동문회 장학회 설치
2006년 10월 권혁하씨(제12회 졸업생) 총동문회 장학회에 장학금 1억원 기증
2010년 8월 제16회 전동초등학교 총동문회 개최
- 설립목적 : 동문 상호간의 유대 및 협조를 도모하고 모교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역대 전동초등학교 총동문회장(임기 2년)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1대	신 용 협	1994년 ~ 1996년
2대	오 광 교	1996년 ~ 1998년
3대	안 덕 기	1998년 ~ 2000년
4대	권 도 형	2000년 ~ 2002년
5대	이 봉 무	2002년 ~ 2004년
6대	한 문 수	2004년 ~ 2006년
7대	김 상 규	2006년 ~ 2008년
8대	김 남 건	2008년 ~ 2010년
9대	박 영 진	2011년 ~

- 총동문회 조직 : 고문 6명, 총회장 1명, 총부회장 6명, 감사 2명, 총무 1명, 재무 1명, 대의원 17명 / 총 회원 5,000명
총동문회 장학회 조직 : 위원장 1명(총동문회장), 부위원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
- 주요활동 :
정기총회(매년 8월 15일) 및 임시총회 개최
회원 상호간을 위한 사업 개최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개최
장학 운영 사업 등



〈사진 15〉 전동초등학교 제16회 총동문화 화합 한마당
(2010. 8. 15)

2) 전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위치 : 전동면 노장리 595
- 연혁 : 1981년 3월 1일 전동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인가(1학급)
 1981년 3월 12일 개원식 및 1회 입원식
 1999년 10월 27일 연기교육청 지정 유아교육 시범보고회
 2010년 2월 19일 제29회 졸업식
- 현황
 - 직 원 수 : 1명(송희숙)
 - 원아현황 : 남 9명, 여 6명 / 총 15명
 - 교 실 수 : 1실
 - 전원급식
- 교육활동내용
 - 바른 품성 5운동과 연계한 인성교육 충실
 - 감성 계발을 위한 음악감상 시간 운영
 - 다양한 종이접기 활동을 통한 창의성 교육
 - 책읽기 활동 및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한 독서습관 생활화
- 활동 내용
 - 쌓기놀이, 역할놀이, 언어, 수조작, 과학, 조형, 음률, 컴퓨터, 이야기나누기, 동시·동화·동극, 음악활동, 신체활동, 조형활동, 게임, 요리활동, 현장학습 등



〈사진 16〉 화재대피훈련 모습



〈사진 17〉 천안박물관 답사



〈사진 18〉 전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내부 모습

제3절

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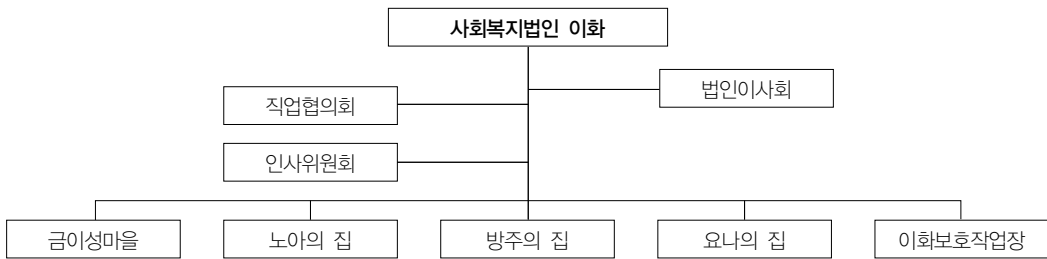
기 관 명	주 소	대 표 자
사회복지법인 이화	전동면 송성리 650-3	조 영 구
오암복지원	전동면 청송리 368	홍 준 혜
평강요양원	전동면 송성리 675-2	김 용 균
송정노인복지센터	전동면 송정리 108-2	홍 종 현

1) 사회복지법인 이화

- 설립일 : 2004년 3월 18일
- 위 치 : 전동면 송성리 650-3
- 대표자 : 대표이사 조영구
- 연 혁
 - 1983년 02월 08일 부랑인복지시설 (현)금이성 마을 설치운영
 - 1986년 12월 13일 정신요양시설 (현)방주의 집 설치운영
 - 1995년 11월 28일 중증장애 생활시설 (현)노아의 집 설치운영
 - 2004년 03월 18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서 “이화”로 법인 분리
 - 2005년 11월 17일 지적장애 생활시설 요나의 집 설치 운영
 - 2008년 10월 14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화보호 작업장 설치 운영
- 설립목적

인간존중의 가치와 행복추구를 기본이념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 대상과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 부랑인들의 생활보호재활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조직도



• 시설별 현황

시 설 명	시설유형	설립연도	대표자	기타사항	전화번호
금이성마을	부랑인복지시설	1983년	여운승	전동면 송성리 650-3	862-7004
노아의 집	중증장애인생활시설	1995년	노문희	전동면 송성리 650-2	862-7002
방주의 집	정신요양시설	1986년	노연희	전동면 송성리 산 119	862-7000
요나의 집	지적장애인시설	2005년	박정자	전동면 송성리 650-5	865-9035
이화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08년	황인수	전동면 송성리 650-2	862-7014

• 직원 현황

시 설 명	정 원	현 원	남 자	여 자	비 고
금이성마을	20명	20명	12명	8명	
노아의 집	34명	34명	19명	15명	
방주의 집	36명	36명	18명	18명	
요나의 집					
이화보호작업장	5명	4명	3명	1명	

• 생활인 현황

시 설 명	정 원	현 원	남 자	여 자	비 고
금이성마을	221명	136명	111명	25명	
노아의 집	97명	78명	51명	27명	
방주의 집	300명	202명	109명	93명	
요나의 집	76명	55명	55명		
이화보호작업장	60명	55명	46명	9명	

• 주요사업

-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신질환, 노숙인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추진
- 요양보호/직업교육/의료/사회/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복지 지원
- 장애인/노숙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 자원봉사자 개발 교육 관리
- 홍보사업 : 시설개방, 소식지발행, 홈페이지 운영
- 사회복지 현장실습생지도 등

(1) 금이성마을

- 위 치 : 전동면 송성리 650-3
- 연 혁 : 1983년 2월 8일 설립
- 설립목적

부랑인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며 의료서비스와 재활운동, 자활작업, 사회심리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역대 시설장

대 별	성 명	직 급	재임기간
1대	노 재 증	원장	1982.09.25 ~ 1985.08.31
2대	김 형 기	원장	1985.09.01 ~ 1998.09.30
3대	김 형 기	원장	1998.12.18 ~ 2000.11.30
4대	오 금 선	원장	2000.12.01 ~ 2001.11.30
5대	여 운 승	원장	2000.12.01 ~ 현재

- 현황

- 건물 면적 : 대지 7,002㎡, 건평 6,816.5㎡
- 수용인원

구분	총계			18~30세			31~40세			41~50세			51~64세			65~69세			70세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인원	136	111	25	1		1	12	10	2	34	28	6	49	45	4	28	19	9	12	9	3

- 직원현황

구분	계	시설장	사무국장	영양사	상담원	간호사	사무원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경비원	조리원
인원	20	1	1	1	1	1	1	4	6	1	3

-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 상담사업 : 입소상담, 개별상담, 가족상담, 사례관리
- 직업재활사업 : 원내작업, 취업교육, 작업치료
- 사회재활사업 : 사회적응훈련, 대인관계기술훈련, 일상생활기술훈련, 한글교실, 요리교실
- 종교활동사업 : 목요예배활동
- 취미/문화프로그램 : 영화플러스, 이동도서, 노래방, 장기, 찾아오는 문화공연
- 건강관리프로그램 : 산책, 골프, 웰빙클럽, 생활체육
- 교육프로그램 : 소방훈련, 건강교육
- 유대관계프로그램 : 환경사랑캠페인, 지역사회행사참석, 사랑의 바자회, 명랑운동회
- 나들이사업 : 테마여행, 봄야유회, 여름야유회
- 축하/행사 : 생일잔치, 칠순잔치, 설행사, 한가위행사
- 교육 : 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 활동모습



〈사진 19〉 건강교육



〈사진 20〉 생활체육교실



〈사진 21〉 스키캠프



〈사진 22〉 룩앤쿠키(요리교실)



〈사진 23〉 금이성마을

(2) 노아의집

- 위 치 : 전통면 송성리 650-2
- 연 혁 : 1995년 11월 28일 설립
- 설립목적

인간존중의 가치와 행복추구를 기본이념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요양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을 기본목적으로 하며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에 이바지함.

• 역대 시설장

대 별	성 명	직 급	재임기간
1대	노 재 중	원장	1995년 ~ 1998년
2대	여 운 승	원장	1998년 ~ 1999년
3대	노 연 희	원장	1999년 ~ 2000년
4대	여 운 승	원장	2000년 ~ 2004년
5대	노 문 희	원장	2004년 ~ 현재

• 현황

- 수용인원

구분	총계			18~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0세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지적장애1급	52	31	21	6	1	5	13	8	5	22	14	8	4	3	1	5	4	1	2	1	1
지적장애2급	9	5	4	3		3				2	1	1	1	1		2	2		1	1	
지체장애1급	3	3	0	1	1		1	1		1	1										
지체장애2급	11	9	2	1		1				2	2		5	4	1	3	3				
뇌병변1급	1	1	0	1	1																
뇌병변2급	2	2	0							1	1		1	1							

- 직원현황

구분	원장	사무국장	촉탁의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세탁원	사회재활교사	생활재활교사
인원	1	1	1	1	1	1	2	1	1	24
현원	34명									

• 주요사업

- 교육치료서비스 : 정서·심리면에서의 문제와 부적응현상 등에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극복의지를 길러주고 재활의 동기를 강화하는 서비스.
- 직업재활서비스 : 생활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직업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립생활서비스 : 자신의 삶에 대한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화하여 사회적서비스 주체로서 참여시킬 수 있는 분명한 사회통합의 방법들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시스템.
- 생활재활서비스 : 생활장애인의 기능 및 장애 유형에 따라 일상생활기술, 기초 훈련을 하여 기능적 기술을 익히고 보다 독립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조.
- 가족지원서비스 : 생활장애인·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간 중심의 세계 속 전문 장애인생활시설의 시스템.
- 의료재활서비스 : 생활장애인의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며,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여 밝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

• 활동모습



〈사진 24〉 건강검진



〈사진 25〉 직업적응훈련



〈사진 26〉 행복한동행 여름캠프



〈사진 27〉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



〈사진 28〉 노아의집

(3) 방주의집

- 위 치 : 전동면 송성리 산 119
- 연 혁 : 1986년 12월 13일 설립
- 설립목적
 - 정신분열증, 조울증, 신경증(불안장애·히스테리·강박신경증·우울신경증), 기질성 신경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장애인들을 요양·보호함.
 - 정신장애인들이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훈련을 통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역대시설장

대 별	성 명	직 급	재임기간
1대	노 재 중	원장	1987.01.01 ~ 1995.11.30
2대	박 정 자	원장	1995.12.01 ~ 1999.08.30
3대	여 운 승	원장	1999.09.01 ~ 2001.11.30
4대	노 연 희	원장	2001.12.01 ~ 현재

• 현황

– 종사자현황

구분	시설장	사무국장	촉탁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관리인	위생원	작업지도원	계
인원	1	1	1	1	7	1	2	14	2	3	1	1		36

– 수용인원

구분	총계			18~30세			31~40세			41~50세			51~64세			65~69세			70세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정신질환	202	109	93	2	-	2	13	9	4	51	28	23	110	59	51	19	9	10	7	4	3

• 주요사업

- 생활재활서비스 : 위생케어서비스, 자산관리서비스, 가족회의 운영 등
- 사회재활서비스 : 사회적응훈련, 나들이, 컴퓨터교실, 텃밭가꾸기 등 14개 주간프로그램 운영
- 직업재활서비스 : 보호작업장훈련, 취업전교육 프로그램 등
- 의료재활서비스 : 건강검진, 물리치료, 질병예방교육, 약물교육 등
- 여가활동서비스 : 종교활동, 노래방, 영화감상, 레크리덴스 등
- 이벤트서비스 : 명절행사, 명랑운동회, 테마여행, 가을축제한마당 등
- 지역사회연계 : 문화공연유치, 환경캠페인, 연기도서관 프로그램 연계

• 활동모습



〈사진 29〉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진 30〉 나들이프로그램



〈사진 31〉 작품전시회



〈사진 32〉 건강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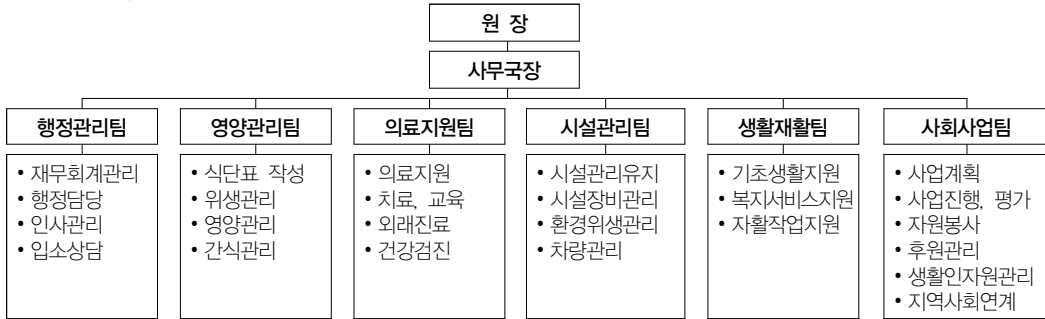
〈사진 33〉 방주익집

(4) 요나의집

- 위치 : 전통면 송성리 650-5
- 연혁 : 2004년 12월 15일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요나의 집 신축공사 착공
2005년 9월 7일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요나의 집 준공
2005년 11월 17일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인가
2006년 1월 1일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요나의 집 개원
- 설립목적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로 장애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사회와의 꾸준한 교류를 통한 지적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자립 지원.
- 역대 시설장

대 별	성 명	직 급	재임기간
1대	노 문 희	원장	2006.01.01 ~ 2006.11.30
2대	박 정 자	원장	2006.12.01 ~ 현재

- 현황
 - 조직



- 수용인원

구분	총계			18~30세			31~40세			41~50세			51~64세			65~69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지역장애	55	55	-	13	13	-	19	19	-	11	11	-	11	11	-	1	1	-

- 직원현황

구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생활재활교사	조리원	위생원	축탁의
인원	1	1	1	1	1	11	2	1	1

- 주요사업
 - 개별욕구지원 : happy market, 사례관리, 상담
 - 생활재활서비스 : 일상생활기술훈련(ADL), 생활체육, 주거환경개선서비스, Iron Body, 아름다운 나
 - 사회심리재활서비스 : 생일잔치, 동아리활동(갈매기의 꿈, 요리교실, 클레이월드, 한걸음더, 볼링), 종교활동, 견학 및 테마여행, 이벤트행사(여름캠프, 래프팅 등)
 - 교육재활서비스 : 한글교실, 인권교육 등
 - 직업재활서비스 : 보호작업장 이용
 - 의료재활서비스 : 축탁의 진료, 예방접종, 병원 진료, 입·퇴원 관리, 정기 건강검진 등
 - 인식개선서비스 : 지역사회 연계활동(자원봉사, 시설개방, 지역사회 행사 참여 등)
 - 직원활동 : 직원 워크숍, 직원회의 등

• 활동모습



〈사진 34〉 여행프로그램



〈사진 35〉 등산프로그램



〈사진 36〉 개별화지원서비스



〈사진 37〉 정기건강검진



〈사진 38〉 요나의집

(5) 이화보호작업장

- 위 치 : 전통면 송성리 650-2
- 연 혁 : 2008년 10월 14일 설립
- 설립목적
 - 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 보호적인 조건에서 생산활동 참여
- 역대시설장

대 별	성 명	직 급	재임기간
1대	황 인 수	원장	2008년 10월 14일 ~ 현재

- 현황
 - 종사자현황

구 분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인 원	1	1	2

- 수용인원

구분	총계			18~30세			31~40세			41~50세			51~64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인 원	55	46	9	5	3	2	15	14	1	12	10	2	23	19	4

• 주요사업

- 생활재활서비스 : 고민거리나 기분의 변화를 상담 프로그램제공
- 사회재활서비스 : 기본 적인 학습과 장애정도에 따른 놀이 프로그램제공
- 직업재활서비스 : 작업능력과 기초생활능력 프로그램 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정기적인 병원진료를 통한 건강관리
- 여가활동서비스 : 사회적응 훈련 및 야유회 행사 진행
- 이벤트서비스 : 체육대회, 영화관람, 스포츠활동
- 지역사회연계 : 농작물 재배 및 판매 활동

• 활동모습



〈사진 39〉 명랑운동회



〈사진 40〉 재활상담



〈사진 41〉 프로그램활동



〈사진 42〉 야유회



〈사진 43〉 이화보호작업장

2) 오암복지원

- 위치 : 전동면 청송리 368
- 연혁 : 1993년 3월 교회건물 30평, 숙소 35평으로 무료 양로원 개원
1994년 6월 숙소 30평 증축
- 설립목적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3)
오암복지원은 일가친척도 없고 자녀들은 있으나 돌보지 못하는 처지에 있으면서 외롭게 지내고 있는 노인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드리기 위해 설립된 복지단체이다.
- 시설장 : 홍준혜
- 현황
 - 입소정원 : 20명, 현원 : 16명
 - 직원현황 :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위생원 1명, 조리원 1명, 간호조무사 1명
- 운영방침 :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그 후원으로 입소 노인들을 한가족 같이 돌보아준다.
- 원훈 :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하여 주며 살자.



〈사진 44〉 개원 당시의 모습



〈사진 45〉 1993년 증축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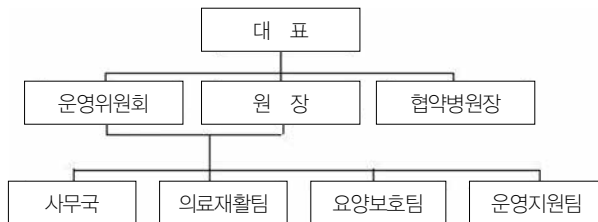


〈사진 46〉 오암복지원

3) 평강요양원

- 위치 : 전동면 송성리 675-2 (솔티로 361-15)
- 연혁 : 1998년 9월 21일 설립
 2004년 7월 22일 조건부 승인
 2006년 10월 11일 인가
 2008년 5월 23일 장기요양기관 지정
- 설립목적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을 전개하여 노인차별 사회에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 현황
 - 입소정원 : 43명, 입소현원 : 40명
 - 부지면적 : 2,817.00㎡
 - 건물연면적 : 736.57㎡(1동 1층 : 271.80㎡, 1동 2층 : 248.08㎡, 2동 : 216.69㎡)
 - 직원현황

원장	사무국장	사무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총계
1	-	1	1	2	-	8	3	-	16



〈평강요양원 조직도〉

- 협력의료기관 : 중앙요양병원, 성모안과
- 주요활동 : 수용보호사업, 의료재활사업, 사회재활사업, 신앙사업 등
- 활동모습



〈사진 47〉 트리만들기



〈사진 48〉 노인학대예방교육



〈사진 49〉 미술프로그램



〈사진 50〉 어버이날 행사



〈사진 51〉 평강요양원

4) 송정노인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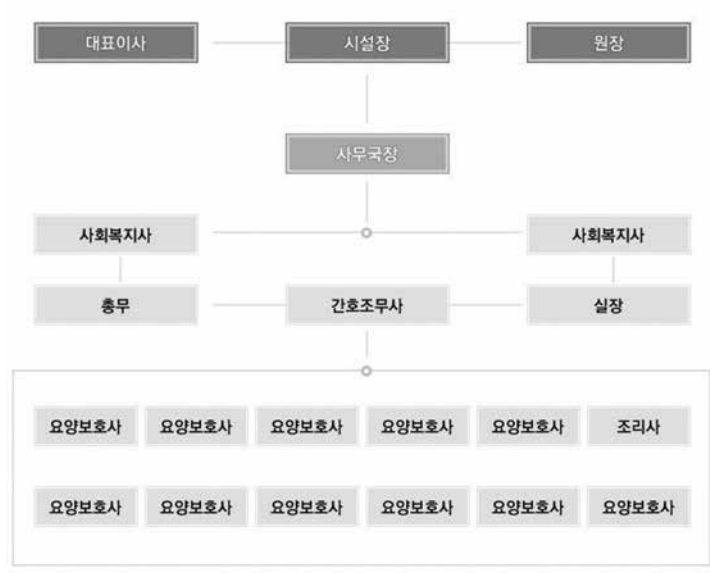
- 위 치 : 전통면 송정리 108-2
- 연 혁 : 2009년 9월 11일 송정노인복지센터 개소
- 설립목적

송정노인복지센터에서는 치매 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이나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지역사회의 의료, 복지시설에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물론 부양가족에게도 휴식·상담·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인 부양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황
 - 시설현황

시설 내역	층별	주용도	세부용도
	1층	관리시설	사무실, 거실, 식당 및 조리실, 일상동작훈련실
	2층	생활실	사랑마을 : 4인실-장미, 목련, 동백 목욕실, 의료 및 간호사실
	3층	생활실	행복마을 : 4인실 - 수선화, 민들레, 채송화, 나팔꽃
	4층	생활실	기쁨마을 : 2인실 - 맨드라미, 해바라기, 코스모스, 카네이션 원장실, 세탁실, 프로그램실

－ 직원현황



• 주요사업 및 연중행사

－ 주요사업

프로그램	사업 내용
1. 상담사업	이용문의, 가족문제 및 갈등해소 상담과 시설 관련 정보제공
2. 일상생활 지원사업	일상생활 동작 기능지원, 급식제공, 간식제공 등
3. 보건위생 사업	신변처리 기능지원, 목욕, 이·미용 등
4. 건강관리 사업	건강상담, 투약, 혈당, 혈압점검, 상처관리, 촉탁의진료서비스, 내원지도, 전문간호사의 간병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사업	물리치료, 새천년 건강체조, 웃기운동, 건강운동
6. 건강증진 사업	놀이요법, 레크레이션, 발마사지
7. 인지기능유지, 증진사업	원예치료, 음악치료, 음악인지요법, 아침뉴스 소개
8. 취미 정서 함양 사업	노래교실, 미술교실, 민요교실, 한지공예, 종이접기, 퍼즐맞추기, 명상요법, 한자교실, 산책, 텃밭 가꾸기
9. 특별행사 사업	생신잔치,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날 행사, 명절나누기, 식목일 행사, 성탄 행사, 특별식 제공
10. 외출지원 사업	야외나들이, 사회적응 훈련, 외식 서비스, 문화공연 관람, 시설견학
11. 가족관계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송년잔치, 소식지 발송, 가족운영 간담회(연1회), 가족운동회
12. 기타사업	직원교육, 후원 및 홍보사업,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관리, 자료집 발간

－ 연중행사

월	행사 내용
1월	새해인사, 설맞이 민속놀이, 위문공연
2월	온천나들이, 공연관람
3월	어린이집 위문공연
4월	부활절 행사, 봄나들이, 벚꽃놀이
5월	어버이날 행사, 공연관람, 운동회
6월	박물관 견학

월	행 사 내 용
7월	여름나들이
8월	공연관람
9월	가을나들이
10월	추석행사, 송편만들기, 민속놀이, 노인의날 행사(선물전달, 가족동반)
11월	추수감사절, 공연관람
12월	성탄절행사, 송년회

• 활동모습



〈사진 52〉 국악배우기



〈사진 53〉 예배시간



〈사진 54〉 송정노인복지센터

제4절

사회단체

단체명	주소	단체장
전동면주민자치위원회	전동면 청람리 20	이영석
전동면이장단협의회	전동면 심중리 379	오흥교
전동면지역협의회	전동면 노장리 583	변영호
전동면체육회	전동면 노장리 583	변영호
전동면방위협의회	전동면 노장리 583	변영호
전동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전동면 심중리 563	이한용
전동면새마을부녀협의회	전동면 노장리 563	오명숙
바르게살기운동전동면위원회	전동면 청송리 225	권처은
전동면의용소방대	전동면 석곡리 30-5	송종근
전동면자율방범대	전동면 송곡리 313-9	신원호
전동면여성자율방범대	전동면 봉대리 120	한종자
전동면농업경영인회	전동면 송정리 127	한석수
전동면농촌지도자회	전동면 노장리 466	이혁재
전동면생활개선회	전동면 청송리 155	박세원
전동면쌀전업농협의회	전동면 노장리 534-1	권혁용
전동면청년회	전동면 노장리 591	오상진
대한적십자사 전동봉사회	전동면 석곡리 112-6	엄경애
전동면생활안전협의회	전동면 송정리 315-12	박병대
대한노인회 연기군지부 전동면분회	전동면 노장리 590-9	오광교

1) 전동면주민자치위원회

- 연 혁 : 2003년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구성
2004년 정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발족 및 운영
- 설립목적 :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역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1대	박 병 대	2004년 ~ 2005년
2대	정 용 화	2006년 ~ 2010.2.23
3대	이 영 석	2010.2.24 ~ 현재

- 조직

위원장 1명(이영석), 부위원장 1명(남상열), 간사 1명(정용화), 고문 2명(황순덕, 김용기)
회원 25명

- 주요업무

- 주민자치센터 운영

- ① 에어로빅 : 화·목, 오후 8시~9시
- ② 요가 : 월·목, 보덕리마을회관, 오전 11시~12시
화·목, 주민자치센터, 오후 8시~9시
- ③ 꽃꽂이 : 가을에만 운영
- ④ 서예교실 : 화·금, 노장리노인회관, 오전 11시

- 월1회 회의 개최



〈사진 55〉 전동면주민자치센터 개관



〈사진 56〉 꽃꽂이교실 운영

2) 전동면이장단협의회

- 연혁 : 1970년대 전동면이장단협의회 발족
- 역대 이장단협의회회장

구 분	성 명
1대	권 용 천
2대	권 용 국
3대	박 병 대
4대	홍 성 용
5대	오 흥 교

- 조직 : 회장 1명(오흥교), 부회장 1명(신용혁), 총무 1명(최용인), 감사 1명(이재성)
회원 총 23명
- 주요업무
 - 월1회(매달 5일) 정기회의 개최
 -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등

3) 전동면지역협의회

- 연 혁 : 2008년 1월 10일 전동면지역협의회 발족.
- 설립목적 : 전동면의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함.
- 조 직 : 회장 1명(전동면장), 부회장 1명, 간사 1명
- 회원현황(총 42명)

연번	기관·단체명	성명	주소
1	전동면사무소	변영호	노장리 583
2	연기군의회	황순덕	노장리 588-3
3	연기군의회	장승업	송용리 105-1
4	연기군의회	김장식	내판리 637-2
5	전동파출소	홍헌표	노장리 583-1
6	조치원농협	김웅기	노장리 582-6
7	전동초등학교	양동직	노장리 595
8	전동우체국	양문교	노장리 648-6
9	법무사연기군지부	권도형	청송리 155
10	재향군인회	권용석	청송리 429-1
11	바르게살기위원회	권처은	청송리 225
12	쌀전업농협의회	권혁용	노장리 534-1
13	베어트리파크	성우경	송성리 8-5
14	전동면체육회	김광오	노장리 111-1
15	노장산업단지	남용우	노장리 404-2
16	생활안전협의회	박병대	송정리 315-12
17	전의농협	박상호	미곡리 191
18	생활개선회	박세원	청송리 155
19	상훈영농조합	박연옥	보덕리 266
20	평화통일회	박춘복	노장리 534
21	의용소방대	송종근	석곡리 30-5
22	농민단체연합회	신용면	석곡리 218
23	자율방범대	신원호	송곡리 313-9
24	적십자봉사회	엄경애	석곡리 112-6
25	금이성마을	여운승	송성리 산116
26	전동면노인회	오광교	노장리 590-9
27	새마을부녀회	오명숙	노장리 563
28	이장단체협의회(발전회장)	오흥교	심중리 379

연번	기관·단체명	성명	주소
29	산악회	윤동옥	청송리 18-2
30	(주)지앤씨바이오	이기용	노장리 404-37
31	한국콜마(주)	이영봉	노장리 404-15
32	주민자치위원회(동운정 사무)	이영석	청람리 20
33	뒤웅박고을	이옥임	청송리 3
34	새마을협의회	이한용	심중리 563
35	농촌지도자회	이혁재	노장리 466
36	운주회	정박일	보덕리 34-2
37	예비군면대	조준희	노장리 583
38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조진호	노장리 404-10
39	(주)유라테크	한상무	심중리 502-1
40	농업경영인회	한석수	송정리 127
41	인선이엔티(주)	박종민	송성리 611-1
42	국제금속(주)	신종화	봉대리 68

- 가입조건
 - 전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기업체 및 기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 협의회원의 기관·단체장 등이 인사이동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승계하는 것이 원칙.
 - 회원은 40인 내외로 구성.
- 주요업무
 - 정기회의 개최(2개월에 한번, 10일날 개최. 단, 농번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도 함)
 - 지역현안 사항 협의 및 해결방안 강구
 - 기관·단체·기업체 등의 업무협의 및 지원
 - 각종 지역행사 지원 및 협조 등

4) 전동면체육회

- 연혁 : 1989년 8월 전동면체육회 발족
- 특징 : 연기군에 면민체육대회가 없었는데, 전동면에서 가장 먼저 체육회를 구성하여 1989년 처음으로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당시 연기군수였던 강희복 군수가 다른 면에 대해서도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 조직 : 회장 1명(변영호, 전동면장), 부회장 1명(김광오), 사무국장 1명(한석수)
총무 1명(정용화), 감사 1명(오흥교) / 회원 총 25명
- 가입조건
 - 전동면에 거주하며 뜻이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회원가입 가능
 - 회비는 초창기에는 매월 5천원씩 걷었는데, 현재는 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따로 없음.
- 주요업무
 - 군민 체육대회 지원 및 참가

- 면민 체육대회 개최
- 연1회 정기총회 개최,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



〈사진 57〉 전동면민체육대회 모습

5) 전동면방위협의회

- 전동면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연기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연기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로서 전동면 방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조직 : 본부장 1명(면장이 역임), 상황실 실장 1명(부면장이 역임)
 분야별 지원반 - 총괄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
- 주요업무
 - 주민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 수행
 -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개최
 - 취약지역 관리
 - 통제구역 설정 등

6) 전동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 연혁 : 1970년대 즈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발족
- 조직 : 회장 1명(이한용), 부회장 2명(최병국, 정규성), 감사 1명(정대규), 총무 1명(신원호)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현황

마을	성명	마을	성명
노장1리	오상진	송곡2리	문명국
노장2리	김보수	송정1리	정대규
노장3리	권용신	송정2리	김선봉
노장4리	최병국	청람리	이형배

마 을	성 명	마 을	성 명
노장5리	김진승	미곡1리	박종만
봉대리	김응태	미곡2리	이성호
청송1리	이용태	송성1리	이창선
청송2리	이영구	송성2리	정규성
석곡리	김온기	송성3리	강선영
보덕1리	박성완	심중1리	이한용(회장)
보덕2리	이대호	심중2리	박용성
송곡1리	신원호(총무)		

- 주요업무
 - 사랑의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 꽃길조성 등

7) 전동면새마을부녀협의회

- 연혁 : 1970년대 쯤 전동면 새마을부녀협의회 발족
- 조직 : 회장 1명(오명숙), 부회장 2명(이복임, 유송자), 총무 1명(한순이), 감사 1명(원영숙), 회계 1명(박금옥)
- 새마을부녀협의회 회원 현황

마 을	성 명	마 을	성 명
노장1리	노하순	송곡2리	한순이
노장2리	이양수	송정1리	이남숙
노장3리	오명숙	송정2리	김미숙
노장4리	임옥례	청람리	김지월
노장5리	김임응	미곡1리	홍재희
봉대리	임헌복	미곡2리	전순복
청송1리	박영순	송성1리	강희열
청송2리	박금옥	송성2리	이복임
석곡리	여길순	송성3리	지재희
보덕1리	최금순	심중1리	원영숙
보덕2리	유송자	심중2리	박금자
송곡1리	이영례		

- 주요업무
 - 봉사활동(불우이웃·독거노인 돕기) 및 환경정화 활동
 -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면 단위 행사 지원 등

8) 바르게살기운동전동면위원회

- 연 혁 : 1991년 4월 14일 전동면 바르게살기위원회 발족
- 설립목적 : 서로 믿고 사랑하는 좋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진실·질서·화합 이념을 시대정신에 반영하고 창조적인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문화국민의식의 함양과 선진 국형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역대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1대	한 준 석	1991년 ~ 1999년
2대	김 동 식	1999년 ~ 2009.01.22
3대	권 처 은	2009.01.23 ~ 현재

- 조직 : 위원장 1명(권처은), 부위원장 2명(홍성용, 이용분, 이희용), 여성대표 1명(현재 공석), 사무총장 1명(오광교) / 회원 총 35명
- 가입조건
 - 별도의 규정 없음, 착실한 사람이면 회원 가입 가능.
 - 회비 : 연 2만원
- 주요업무
 - 여성도의학교 운영(연1회)
 - 가정폭력방지·아동폭력방지 등의 법질서 캠페인 활동
 - 꽃길조성 등의 환경정화 활동
 - 불우이웃돕기



〈사진 58〉 바르게살기 도의학교 개강
(2010. 6. 23)



〈사진 59〉 법질서 캠페인활동 모습
(2010. 6. 23)

9) 전동면의용소방대

- 연 혁 : 1945년 쯤에 전동의용소방대 발족
- 설립목적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돕기 위해 설치된 소방조직,

대원은 그 지역주민 중 희망자로서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특별한 화재 시에만 출동하여 전문소방대원의 보조역할을 한다.

• 전동면 의용소방대 현황

성명	주소	비고
송종근	전동면 석곡리 30-5	소방대장
한상익	전동면 심중리 287	부대장
어영락	전동면 노장리 430-3	
이흥배	전동면 노장리 646	
임오택	전동면 노장리 423	
홍성용	전동면 보덕리 265	
엄문식	전동면 노장리 585-15	
오문석	전동면 봉대리 152	
권오열	전동면 노장리 423	
노기섭	전동면 노장리 도원아파트 B-401	
신종재	전동면 석곡리 218	
강태봉	전동면 보덕리 155-2	
이호성	전동면 청송리 474-1	
이동연	전동면 노장리 616-1	
한완수	전동면 송곡리 108-5	
김정진	전동면 청람리 444	
조상환	전동면 노장리 도원아파트 A-205	
김응태	전동면 봉대리 327	
김창운	전동면 노장리 614-5	
최용인	전동면 노장리 470-2	
권오훈	전동면 노장리 도원아파트 B-101	
박재두	전동면 심중리 113	
김현태	전동면 노장리 587	
김현낙	전동면 봉대리 294	
신봉수	전동면 송곡리 59-4	
오호진	전동면 노장리 608-12	
신용건	전동면 노장리 도원아파트 A-405	
송한웅	전동면 봉대리 129	
양석인	전동면 노장리 650-7	
오상진	전동면 노장리 591	

• 가입조건

- 전동면민으로서, 50세 이하 성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주요업무

- 산불진화, 수해복구사업
- 봉사활동
- 매월 1일·15일 정기소집
- 연1회 정기총회 개최 등

10) 전동면자율방범대

- 연혁 : 1990년 11월 전동면 자율방범대 발족
2006년 전동면 자율방범대 건물 신축
- 역대 자율방범대장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1대	김 지 필	1990년 ~ 1992년
2대	정 용 화	1993년 ~ 2001년
3대	권 용 신	2002년 ~ 2003년
4대	강 태 봉	2004년 ~ 2009년
5대	신 원 호	2010년 1월 ~ 현재

- 조직



- 가입조건
 - 성실한 사람으로,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입 가능.
- 주요업무
 - 지역행사 지원, 마을순찰
 - 봉사활동
 - 월1회 임원회의 개최, 2달에 한번 월례회 개최 등



〈사진 60〉 전동자율방범대



〈사진 61〉 자율방범대 현판식

11) 전동면 여성자율방범대

- 연혁 : 2002년 전동면 여성자율방범대 발족
- 역대 여성자율방범대장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1대	노 화 순	2002년 ~ 2010년 3월
2대	한 종 자	2010년 4월 ~ 현재

- 조직 : 대장 1명(한종자), 부대장 1명(이영례), 총무 1명(김미자), 감사 1명(허부원)
/ 총 인원 12명
- 주요업무
 - 지역행사 지원, 마을순찰
 - 봉사활동 등

12) 전동면농업경영인회

- 연혁 : 1987년 농업경영인회 발족
- 역대 농업경영인회장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1대	정 용 화	1987년 ~ 1988년
2대	신 용 혁	1989년 ~ 1990년
3대	김 현 태	1991년 ~ 1992년
4대	정 용 화	1993년
5대	정 용 화	1994년
6대	한 완 수	1995년 ~ 1996년
7대	김 현 태	1997년 ~ 1998년
8대	곽 상 용	1999년
9대	곽 상 용	2000년 ~ 2001년
10대	곽 상 용	2002년 ~ 2003년
11대	곽 상 용	2004년
12대	박 용 성	2005년 ~ 2006년
13대	오 흥 교	2007년 ~ 2008년
14대	한 석 수	2009년 ~ 현재

- 조직 :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 총무 1명, 지역장 3명
- 주요업무
 - 회의 개최(정기회의 : 짝수달 15일, 연시총회 : 2월 15일, 연말총회 : 12월 15일)
 - 농업 현안 및 과학영농교육
 - 선진지 견학

- 대학진학 자녀 장학금 전달
- 친목도모 체육대회 또는 등반대회 실시 등



〈사진 62〉 황성한우견학



〈사진 63〉 2009년도 연시총회

13) 전동면농촌지도자회

- 역대 농촌지도자회장

구 분	성 명
1대	신 용 면
2대	한 석 수
3대	이 혁 재

- 조직 : 회장 1명(이혁재, 2005년~현재), 부회장 2명(정용화, 이영석), 총무 1명(권태욱), 재무 1명(허정일), 감사 2명(남상열, 함재일) / 회원 총 81명
- 주요업무
 - 상조회 운영
 - 농사 기술 보급 및 교육
 - 정기회의 개최(씩수달 30일) 등

14) 전동면생활개선회

- 연 혁 : 1994년 전동면 생활개선회 조직 및 발족
- 설립목적 : 생활개선회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부녀자 모임으로 농촌 주거환경, 식생활 등의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보급 및 친목도모 등을 행하는 농업인여성조직체이다.
- 역대 생활개선회 회장
 - 1대 파윤희 / 2대 광영자 / 3대 이용분 / 4대 오명숙 / 5대 장순옥 / 6대 박세원
- 조직 : 회장 1명(박세원), 부회장 1명(정영식), 총무 1명(현재 공식), 재무 1명(한중자)

감사 1명(김진순) / 회원 총 80명

- 가입조건
 - 농업 종사자 부녀자 가운데 20~60세의 희망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주요업무
 - 농촌생활개선
 - 농업기술보급
 - 친목도모 등

15) 전동면쌀전업농협의회

- 목적 : 한국쌀전업농전동면연합회는 친목강화, 고품질의 쌀 생산 및 출하정보교환, 영농의 과학화 협동화 실현, 농가소득 증대 및 복리향상 이바지, 농의 규모화·집단화 및 농지 가격의 안정 등으로 영농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 조직
 - 회장 1명(권혁용, 2009년 1월 1일 ~ 현재), 부회장 1명(정규성), 감사 2명(권처원, 박병익), 총무 1명(김보수), 회원 14명 / 총 19명
- 가입조건
 - 전동면에 거주하며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회비 : 연 12만원
- 주요업무
 - 마을 단위 농지 집단화에 상호간 절충
 - 회원의 재배 품종 및 종자결정(주남, 삼강)
 - 새로운 영농기술의 도입 실천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회원가의 보급
 - 고품질 쌀 생산의 정보 교환
 - 지력증진 및 환경오염 방지
 - 영농개선을 위한 연구 및 체험보고
 - 본회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구매 공동출하 사업
 - RPC통합 및 선전(단일품목 삼강)

16) 전동면청년회

- 연 혁 : 2004년 2월 전동면청년회 발족
- 설립목적 : 전통의 계승과 지역사회 발전과 아름다운 문화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둔.
- 조 직 :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서기 1명, 감사 2명 / 회원 총 26명
- 가입조건 : 만 25세 이상 55세 이하로 전동면에 고향을 두고 있거나, 거주하는 사람으로 입회

소속을 받아, 임원회의에서 심사하여 가입여부 결정. 또한, 55세 이상되면 자동으로 사임하되 고문으로 선출함(단, 사퇴후 재 입회는 불허함)

- 주요활동
 - 정기모임 : 매월 첫째주 수요일, 정기총회 : 매년 12월
 - 면내 행사 참여 봉사
 - 면내 자연보존, 환경감시 및 활동
 -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 지급 등



(사진 64) 전동면 청년회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 모습(2010. 3. 7)

17) 대한적십자사 전동봉사회

- 연 혁 : 1996년 전동면 대한적십자 봉사회 결성
- 설립목적 :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내심을 기르고 복지증진에 참여하며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고 봉사활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조 직 : 회장 1명(엄경애), 부회장 1명(심은옥), 총무 1명(최현옥), 감사 1명(김경자)
회원 총 20명
- 주요업무
 - 구호 및 안전
 - 보건 및 혈액사업지원
 -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 활동
 - 환경보호캠페인, 꽃길조성 등

18) 전동면생활안전협의회

- 연혁 : 2003년 12월 31일 생활안전협의회 발족

- 역대 생활안전협의회 위원장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1대	박 병 대	2003.12.31 ~ 현재

- 조직

직 책	성 명	주 소
위 원 장	박 병 대	전동면 소정2리 315-12
총 무	정 용 화	전동면 보덕리 290-5
회 원	오 흥 교	전동면 심중리 379
	송 낙 천	전동면 봉대리 131-1
	여 운 성	전동면 노장리 437
	신 용 혁	전동면 석곡리 195-1
	안 호 민	전동면 청람리 20-1
	곽 상 용	전동면 송곡리 108-7
	박 연 옥	전동면 보덕리 266
	박 병 익	전동면 송정리 240-1
	김 명 순	전동면 노장리 589-3
	김 성 심	전동면 노장리 도원아파트A 308호
조 영 심	전동면 노장리 도원아파트A 304호	

- 주요업무

- 경찰업무 보조
- 자율방범대 경제적 지원 등

19) 대한노인회연기군지부전동면분회

- 연혁 : 1984년 5월 1일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전동면노인회 발족
1999년 9월 13일 노인여가복지시설 소재지 변경(노장리 682 → 노장리 603-3)
2000년 3월 11일 노인여가복지시설 명칭 변경(전동학구경로당 → 전동분회경로당)
2002년 1월 1일 전동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2008년 9월 15일 전동면분회경로당 신축
- 역대 전동면노인회장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1대	안 병 우	1984.5.1 ~ 1990년
2대	이 영 근	1991년 ~ 1992년
3대	장 현 옥	1993년
4~5대	김 진 규	1994년 ~ 2008.3.31
6대	오 광 교	2008.4.1 ~ 현재

- 조직 : 회장 1명(오광교), 부회장 1명(김용재), 감사 2명(오청치, 임재희), 사무장 1명(김동식)
이사 6명(송재근, 오영진, 박무희, 이웅구, 구본성, 양기천)

- 각 마을별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경로당과 책임자

마을	성명	마을	성명
전동면 분회장	오광교	송곡1리	곽영재
노장1리	윤성길	송곡2리	신용균
노장2리	홍창기	송정1리	정옥균
노장3리	김갑봉	송정2리	고필준
노장4리	최홍복	청람(청미)	김시남
노장5리	이재영	청람리	신용봉
봉대리	송재근	미곡1리	명계덕
청송1리	오청치	미곡2리	박노성
청송2리	구본성	송성1리	최원규
석곡리	신용범	송성2리	김창영
보덕1리	오영진	송성3리	이웅구
보덕2리	박무희	심중1리	황진석
송곡1리(송덕학구)	양기천	심중2리	김광남
송곡1리	최성교		

- 가입조건 : 65세 이상 전동면 거주자
- 주요업무
 - 연1회 총회(3월) 개최,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
 - 선진지 견학(연1회)
 - 서예교실 운영(화, 목, 토요일 오전 10시)
 - 게이트볼장 운영(오전 10시~오후 4시, 회원 23명)
- 공덕비 건립 : 전동면 노인회에서는 전동면분회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힘을 쓴 이덕노, 이범일, 김진규씨에게 공덕비를 건립해줌.



〈사진 65〉 전동면분회 경로당 신축 공덕비

- 李公德魯功績碑(1984년 5월) 비문 : 공은 다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功勞至大하였으며 奉心과 경로사상이 지극하여 타에 귀감이 되어오던 바 本面 노인회관 건립추진위원장으로 率先不顧家事하고 誠熱을 須注한 결과 完築을 보게되어 그 공을 기리 찬양코져 이 비를 건립한다.
- 李公範一記念碑(1984년 5월) 비문 : 공은 우리고장 태생으로서 立志出鄉後에도 애항심이 투철하여 항시 지방발전에 기여한 功勞至大하거니와 특히 本面 노인회관 건립에 있어서도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결과 完築을 보게되어 그 공을 찬양코져 이 비를 세운다.
- 김진규공덕비(2008년 3월 20일) 비문 : 귀하께서는 15년간 전동면 노인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였으며 효심과 경로사상이 지극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어 오던 바 2001년 전동면 게이트볼장 완공과 2008년 노인회관 건립에 성과 열을 다하신 결과 신축을 하게 되어 그 공을 길이 후세에 전하고져 이 비를 새겨 드립니다.



〈사진 66〉 전동면분회경로당



〈사진 67〉 전동면전천후게이트볼장

제5절

종교단체

1. 교회현황

교회명	주소	종파	대표자		신도수			교직자수			
			직명	성명	계	남	여	계	목사	장로	기타
기독교한국침례회 전동중앙침례교회	전동면 노장리 616-1	침례교	목사	윤석운	15	5	10	2	1	-	전도사 1
전동장로교회	전동면 노장리 677-1	장로교	목사	박광재	20	5	15	5	-	-	집사 5
송성감리교회	전동면 송성리 340	감리교	목사	유한찬	25	5	20	7	-	1	전도사 1 집사 5
기독교대한성결교 전동교회	전동면 노장리 591-18	성결교	목사	전용환	100	30	70	45	2	-	권사 6 집사 37
기독교대한성결교 송덕교회	전동면 송곡리 165	성결교	목사	이준호	180	50	130	50	2	-	전도사 2 집사 46
할렐루야기도원	전동면 송성리 334-3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	김계화	-	-	-	5	1	1	집사 3
평강교회	전동면 송성리 675-2	순복음	목사	김용균	30	10	20	1	1	-	-
오암교회	전동면 청송리 368-2	기타	목사	안형식	20	8	12	2	2	-	-

2. 사찰현황

사찰명	주소	종파	대표자		신도수			교직자수			
			직명	성명	계	남	여	계	주지	총무	기타
자비정사	전동면 노장리 산41	한국불교 문화원	주지	황연환	50	15	35	1	1	-	-
경원사	전동면 청람리 429-2	태고종	주지	김희경	100	35	65	3	1	2	-

사찰명	주소	종파	대표자		신도수			교직자수			
			직명	성명	계	남	여	계	주지	총무	기타
고산사*	전동면 미곡리 88-3	태고종	주지	최병식	800	300	500	2	1	1	-
계룡사	전동면 보덕리 263	신인종	주지	김인숙	120	40	80	4	1	3	-
지장사	전동면 노장리 145-11	조계종	주지	김상남	50	10	40	2	1	1	-
광덕사	전동면 심종리 168	태고종	주지	김윤경	30	10	20	2	1	1	-
도명사	전동면 송정리 170-6	태고종	주지	이정구	50	10	40	1	1	-	-
백련사	전동면 송성리 143	태고종	주지	한상선	100	35	65	2	1	1	-
보은사	전동면 미곡리 산 41-1	태고종	주지	박용현	100	30	70	1	1	-	-
송학사	전동면 석곡리 25	태고종	주지	강명근	250	50	200	2	1	1	-
원적사**	전동면 노장리 산35	조계종	주지	반학 스님	30	5	25	1	1	-	-
해천사	전동면 미곡리 20-18	태고종	주지	이현구	30	10	20	1	1	-	1

* 고산사에 관한 내용은 마을면 미곡2리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 원적사는 마을면 노장5리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집필 : 신유진(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마을편

全／東／面／誌

노장1리

노장1리는 전동면의 면소재지이다.
면사무소 뿐만 아니라 전동면의 주요 기관이 노장1리에 집중되어있다.
특히 경부선 철도의 전동역이 있어 전동면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이 되었다.



1. 마을개관

노장1리는 전동면의 면소재지이다. 면사무소 뿐만 아니라 전동면의 주요 기관이 노장1리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경부선 철도의 전동역이 있어 전동면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이 되었다. 철도가 놓이자 조치원과 대전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증가하여 한국전쟁 무렵 폭격으로 철도가 막혀있던 때를 제외하고는 조치원과 대전 등 큰 도시가 전동면 사람들의 생활권이였다.

노장1리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조선후기까지도 이곳은 물이 넘치는 갈대밭 무성한 천변 마을이었던 것이다. ‘노장(蘆長)’이란 지명에서도 갈대가 등장한다. 북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노장천과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조천천이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 하천을 정비하기 전까지는 큰 비가 내렸다면 홍수피해가 심하여 농경지로 개간이 어려웠다. 원래 물이 잠겨있던 지역이 천지개벽으로 땅이 되었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그러나 하천정비가 이루어지고 군도1호와 철도가 개설되면서 하천 주변의 평지는 모두 옥토가 되었고 교통의 요지로 각광받으며 1938년에 면소재지로 선택되기에 이르렀다. 미곡1리 미륵당마을에 있던 면 행정의 센터는 일제강점기에 노장1리로 이동되었다.

1990년대 초에 노장산업단지가 입주하고 공단의 직원들이 전입하면서 전동역과 노장리 일대도 활기가 넘쳤지만, 얼마나지 않아 인구가 주변의 대도시로 빠져나가게 되어 전동역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였고, 결국 사람이 타지 않는 간이역이 되고 말았다.

노장리는 1~5리까지 다섯개 행정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노장천과 조천천이 합수되는 지점이 노장1리이고 여기에서 물길의 흐름을 역행하여 북쪽 방향으로 2리~5리까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마을 이름을 하노장(1리) → 중노장(2리) → 상노장(3리) → 이목동(5리)으로 칭한다. 노장4리는 도원아파트단지이다.

2. 지명유래

노장리는 조선 말엽까지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에 속해있었다. 노장이란 지명에도 드러나듯 갈대가 무성한 지역이라 ‘갈거리’라 불리기도 하였다. 전설에는 조선중기 임진왜란때 안동권씨 권주(權柱)가 노장리에 터를 잡고 살면서 갈대 덕분에 왜란을 피하여 마을 이름을 ‘노장(蘆長)’이라 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에 상노장리(上蘆長里), 중노장리(中蘆長里), 하노장리(下蘆長里), 죽엽리(竹葉里), 이목동(梨木洞)을 합하여 노장리(蘆長里)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편입(編入)하였다.

조선시대의 사료인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는 각각 ‘상호장리(上芦長里)’, ‘노장리(蘆長里)’로만 기록되어 있으나 1913년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면리 자료에 하노장이란 마을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아마도 호구총수가 편찬된 1700년대 후반까지 노장리의 중심지는 상노장이나 중노장 마을 일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노장리의 규모가 커지면서 동리가 상·중·하로 나뉘게 되고 1800년대 후반에 하노장이 하나의 리로 편제될 만큼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가 짧고 현대화된 마을인 만큼 건물로 뻐뻐하게 들어차 있어 옛 지명을 채록하기 어렵다. 또



〈노장천의 위성사진(네이버지도)〉

한 인구구성에 있어서도 원주민보다 외지에서 전입한 사람이 많고, 농업인보다 상업 종사자나 주변의 산업단지 취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노장천 : 노장리 앞을 흐르는 하천이라 하여 노장천이라고 부름. 개간 전에는 이곳이 모두 갈대밭이었으며 노장천의 상류, 중류, 하류에 따라 상노장, 중노장, 하노장이라고 부름.

3. 역사와 변천

■ 성씨

일제강점기 이후 번성한 마을이므로 수대에 걸쳐 마을에 세거해 온 성씨가 없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변 마을에서 이거하거나 타지에서 전입한 경우가 많다. 마을에 전해지기로는 제주양씨, 정씨, 파주임씨의 순으로 입향하였다 하며, 현재 안동권씨가 다수 거주하고 있다. 안동권씨는 노장리 중노장을 중심으로 확산된 전동면의 대표적인 세거 성씨이기도 하다.

■ 일제강점기

한말까지 노장1리는 조천천과 노장천 물이 수시로 넘치는 갈대밭이었다. 지금도 이곳의 땅을 파면 생토 대신 썩은 모래만 나온다 할 만큼 토질이 좋지 않아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이 땅을 메워 철도를 놓고 역을 지으면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정비가 일부 이루어지게 되었고, 역 앞으로 장사꾼이 몰리고 거주자도 늘었다. 노장1리 마을이 이때에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의 면소재지이다보니 일본인들의 수탈에 더더욱 대책 없이 놓여질 수 밖에 없었다. 징용·징병과 공출 등 인적·물적 자원의 유출은 심각한

였다. 타 동네에서는 관리와 구장의 눈을 피해 숨기도 했지만 노장1리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보급대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는 가족들이 사정하며 조서를 꾸며 겨우 빼내오기도 하고 죽을뻔한 고비를 넘기고 광복 이후에 겨우 살아 돌아온 경우도 많았다.

한편, 면소재지로 유동인구가 많았음에도 장이 서지 않았다. 전동면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조치원으로 직접 왕래하였기 때문이다. 통학도 가능하여 전동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조치원이나 대전의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 전동양조장

노장1리 582-2번지에는 일제강점기에 운영되던 양조장이 있었다. 이것을 광복 무렵에 주민 김웅기씨의 조부가 인수하여 1995년까지 대를 이어 운영하였다. 이때의 양조장은 직접 술을 주조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원주조주식회사에서 만든 것을 사다 파는 것이었다. 이때에 구역을 정해 전의, 소정, 금남 등을 각각의 지역별 양조장에서 전담하였다. 전동면은 그중 인구가 적은 곳이어서 사업이 크게 번성하지는 못하였다.

■ 한국전쟁

하노장은 주민들의 성향이 난폭하지 않았고 각성밭이 마을에 서로 어렵게 사는 처지여서 그랬는지 이웃간에 편히 지내는 마을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전국 곳곳에서 좌우의 갈등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하노장은 조용히 넘어간 편이었다. 다만 전동면의 중심지이고 군도1호와 철도가 지나가는 마을이었으므로 군대가 이동하는 모습은 수차례 목격되었다. 북한군 선발대가 지날 때에는 그들이 민심을 사려는 의도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기억이 있다. 동네에서 직접적으로 총탄의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개미고개의 폭격 사건의 여파로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



〈면사무소 일대〉



〈전동초등학교〉

다. 미군부대가 한때 전동초등학교 건물에 주둔했다가 떠난 일도 있었다.

하노장 사람들도 피난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다지 멀리까지 가지 못했고, 피난을 포기한 채 동네에 머물렀던 사람들도 있다. 외출을 할때에는 길 옆의 풀숲으로 남몰래 다녀야했다. 어떤 이는 신탄까지 피난을 갔다가 남하하는 북한군과 맞닥뜨려 다시 돌아 온 일도 있었다. 이 무렵 강제부역으로 시달려야했는데 조치원에서 내판으로 가는 스물두 칸다리를 복구할 때와 끊어진 철도를 고치는 공사에 동원되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라는대로 해야했던 처참한 시기였다.

■ 새마을사업

1974년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때에 노장천의 중보를 건설하였다. 하천 정비가 시급하였던 노장1



〈마을 앞을 지나는 철도〉

리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제방을 정비하고 농업용수 활용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 이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우수마을로 선정되기까지 하였다. 시상금이 100만원에 이르렀는데 지금으로 치면 3천만원 정도의 가치가 되어 이것으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 마을 안길의 포장까지 모두 마칠 수 있었다.

■ 김웅기씨의 정치활동

노장1리 주민 김웅기씨는 조치원농협조합장으로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물이다. 광복 무렵부터 집안이 노장1리에서 양조장을 경영하고 부친과 본인이 모두 정치활동을 활발히 하여 이 지역의 근현대사를 정리하는데 언급될 필요가 있다.

김웅기씨는 강릉김씨로, 집안이 대대로 석곡리 중석곡에서 세거해 오다 일제강점기에 노장리에 터를 잡았다. 김웅기씨의 조부는 노장리의 양조장을 인수해 사업을 벌이고 농사를 지으며 부를 일구었다. 김웅기씨의 부친 김진태씨는 양조장을 이어 받고 1960년대에 조치원읍에 목재소까지 함께 경영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 제재소 사업은 활황기여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유력 인사가 되었다. 1972년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한 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조직되고 각 지역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였는데 이때 연기군 전동면에서 김진태씨(당시

57세)가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김진태씨가 1976년에 별세한 후 아들 김웅기씨가 집안의 가업을 잇고 동시에 정계에 입문하였다. 1980년 선거인단에 선출되어 전두환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였고 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농협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후 1989년 민선조합장선거에 당선되어 합병된 전동면과 조치원농협의 조합장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연기군 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3대 군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전반기 부의장까지 맡았으나, 농협조합장과의 겸직이 불가하여 의회에서 물러나 현재 농협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군의원 황순덕**

주민 황순덕씨는 연기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5선 의원을 지낸 인물로 1991년 36세의 젊은 나이에 연기군 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상추진을 위해 행정수도 사수 연기군 비상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삭발과 단식투쟁에 참여했고, 2005년 11월 24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이 때의 공로를 인정받아 충남지사·대전시장·충북지사·충남도의회장·대전시의회장·충북도의회장 공동명의로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전동면을 농촌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전동역



〈행정수도 사수 1만연기군민대회〉

국제만화로 조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운주산 등산로, 운주산성 공원화사업, 동림산 등산로, 동림산 산림욕장, 명품 가로수 조성 등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장섰다.

그밖에 조치원복숭아 홍보와 판매를 위해 농산물전자쇼핑몰인 ‘와이팜’ 운영에도 관여해 큰 매출을 올리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연기군민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2009년 12월 1일 ‘2009 풀뿌리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충남발전협의회 연기군 지회장, 조치원중학교 총동문회 제14대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 **전동면사무소**

1935년 미곡리에 있던 전동면사무소가 노장리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전사유는 미곡리의 면사무소가 협소한데다 전의면에 가까워 당시 전동면 16개리 중 10개리 사람들이 면사무소를 이용하는게 불편하다는 것이었고 노장리에는 전동역이 있다는 사실도 큰 플러스요인이 되었다. 미곡리 주변 지역의 반대는 예견된 일이었다. 전동면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대회를 열어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이때의 일이 동아일보에도 실렸다. (1935년 7월 19일) 그러나 면사무소 이전은 계속 추진되어 마침내 1937년에 전동면사무소가 노장리 583번지로 이전되기에 이르렀다.

면사무소가 이전되는 시기에 전동면장이었던 권오영씨가 마침 노장리 출신이었고, 면사무소 부지는 당시 석곡리에 살던 신용춘씨 집안에서 희사하다 시피 내놓으면서 면사무소 이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다. 석곡리 신씨가는 전동면에서도 손꼽히는 부자로 면사무소와 면사무소 뒷산, 파출소부지, 현 전동주유소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신용춘씨의 조부는 서당을 운영하며 교육활동을 펼쳐 지역에서 인심이 좋았다고 한다. 지금도 석곡리 상석곡에는 거창신씨의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다.



〈전동면사무소〉

면사무소 건물은 1937년에 신축되고 그 후 이병오 군수 재직 시절(1983~1985)에 한차례 대대적으로 개축하였다. 이때 건물의 방향을 정남향으로 틀었다 한다.

4. 전통민속

■ 노장1리 대동계

노장1리 대동계는 1968년에 창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전 시기의 마을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고 기록도 없어 당시의 모습을 재구성하기는 어렵다. ‘대동계’라는 공식조직이 아니더라도 주민합의체는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대동계의 가입대상은 노장1리 주민으로, 다른 마을과 달리 전 주민이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형식은 아니다. 인구가 많기도 하거니와 전입·전출자가 많고 농업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동계에 입계할 경우 백미 5두를 내고, 탈계할때에도 마찬가지로 백미 5두를 내도록 하여 대동계의 가입과 탈퇴를 분명히 하였다.

대동계의 활동 내용도 다른 동네의 연반계 정도

의 의미를 갖고 있다. 마을의 공공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이장과 반장, 개발위원 등이고 대동계에서는 주민들의 애경사에 관여한다. 특히 계원이 초상을 당하면 반드시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쓴다.

대동계의 정기 총회는 매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정해져있다. 이날 결산을 하고 2년에 한번 임원을 재선출한다. 계장은 재임할 수 있다. 대동계에서 관리하는 자산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므로 현금뿐이다. 그 외에는 마을 행사에 사용하는 그릇과 풍물이 있다.

■ 소박한 민속놀이

각성반이 마을이면서 타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아 주민이 함께 모이는 일이 흔하지 않다. 이런 점이 늘 아쉬웠던 주민들은 이장과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매년 한번씩 마을 잔치를 연다. 이른바 ‘화합의 잔치’라 하며 음력 정월 보름에 전 주민이 모두 모여 윷놀이를 벌이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거출하고 찬조를 받기도 한다. 전통 마을의 끈끈한 정이 사라지는 현대화의 과정 속에서도 이웃 간 정을 나누는 데에는 인색하지 않다.



〈전동면노인회관〉
(2010년 9월까지 마을회관으로 사용)



〈군도1호〉

5. 생활환경

■ 급변하는 마을모습

일제강점기에 1번국도(현 군도1호)가 놓이고 철도역이 자리하게 되면서 노장1리의 환경은 급변했다. 면소재지도 미곡리에서 노장1리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노장1리는 황무지에 가까웠고 하천의 범람으로 농사짓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던 까닭에 농가가 많지 않았다. 한동안 빈촌이라는 소리를 들은 만큼 대부분의 주민이 품팔이로 먹고 살았다. 1970년대에 새마을사업이 한창일때에 마을

이 가장 번성한 편이었고 전동역이 신호장으로 운영되기 전까지 사람이 타고 내리던 때에는 유동인구가 많았다. 이때에 역 주변에 좌판을 벌이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큰 벌이는 되지 않았다. 전동역이 간이역으로 개편되면서 주변의 상가는 한동안 침체기를 맞이하였고 최근 노장리와 청송리 일대에 들어선 공단의 상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대홍수

1980년대 초 큰 비가 내려 전동면 일대가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다. 강수량이 650mm 정도로 알



〈노장천 하류〉

려져 있다. 이때 노장천의 제방이 붕괴되어 하노장과 청송리 일대가 침수되었다. 철도가 끊기고 석곡리 농경지도 모두 물에 잠겼다. 특히 물길을 따라 건설된 국도의 주변 지역이 심각한 사태를 맞았는데 20여 가구의 가옥이 침수되고 논 200마지기도 완전히 매몰될 정도였다. 면사무소 코앞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한다. 당시에 그나마 도로와 철도가 제방 역할을 하여 피해규모를 줄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자연재해와 피해범위가 너무 넓어 구호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호물품도 크게 부족해 주민들이 오랜시간 고통을 겪었다. 그 후 제방 공사에 정성을 들여 이때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겪는 일은 없다. 2004년의 폭설 피해는 최근에 겪은 가장 큰 자연재해였다.

■ 토박이 없는 동네

농토가 좁고 그나마 약간의 토지는 대부분 청송리 사람들이 경작하고 있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농가가 아니고 가까운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일제강점기부터 외부인의 유입이 많아 지금도 노장1리의 토박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주민 이창복씨가 3대째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김 옹 기	71	남	조치원농협장	011-462-2460
오 광 교	74	남	전동면노인회장	863-1266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623	324	299	215	15	200	51.57	16.2	10.58	24.79	-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	1반	노 하 순	58	863-1287
2	2반	윤 성 길	39	863-1109
3	3반	오 광 자	13	863-1227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이 장	허 재	노 인 회	최 복 순
대 동 계	이 창 복	부 녀 회	노 하 순
새 마을 지도자	오 상 진	청 년 회	오 상 진
개 발 위 원	허 재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경로당)	614-7	150.8m ²	75.4m ²	2010	이장
전동면 노인회 회관	606-3	141m ²	137.04m ²	2008	오광교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김 시 운	75.1.1	79.3.20		7	권 용 천	92.2.18	98.3.12	
2	김 시 운	79.3.20	80.3.1		8	오 광 교	98.3.18	04.1.31	
3	이 창 복	80.3.1	87.3.23		9	김 창 운	04.2.1	06.2.1	
4	최 운 식	87.3.24	89.3.24		10	허 재	06.2.1	09.2.1	
5	최 운 식	89.3.25	90.2.16		11	허 재	09.2.1		
6	권 용 천	90.2.17	92.2.17						

노장2리

노장2리는 전통면소재지인 노장1리의 북쪽에 접한 지역으로 노장리를 노장천을 따라 북쪽부터 상노장, 중노장, 하노장으로 구분할때에 중노장으로 불리는 곳이다.



1. 마을개관

노장2리는 전동면소재지인 노장1리의 북쪽에 접한 지역으로 노장리를 노장천을 따라 북쪽부터 상노장, 중노장, 하노장으로 구분할때에 중노장으로 불리는 곳이다. 693번 지방도의 서쪽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공단의 일부는 노장2리, 일부는 1리에 속해있다. 노장천을 가운데 두고 서쪽의 '양지말'과 동쪽의 '중노장' 두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중노장이 큰 마을이다.

'노장(蘆長)'이란 지명은 갈대밭을 의미한다. 즉 노장천 일대가 갈대밭이 무성한 황무지였던 것이다. 지금도 땅을 파면 검은 진흙이 나온다고 할 만큼 노장천변 일대가 농경지로 개간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현재 거의 직선으로 흐르는 노장천 물길은 일제강점기 제방 구축사업의 결과이며 그 전까지는 물길이 구불구불한 형태로 흐르는 사행천이었다. 중노장 사람들은 노장천 곳곳에 보를 막아 이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였고 산간지대의 마을에 비해 물걱정이 없었다.

노장리에 포함되는 지역은 노장천 주변의 동네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매우 크다. 한때 이장 한사람과 이서기를 따로 둘 만큼 관리가 벅찬 곳이었으므로 몇 개의 행정리로 분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면소재지인 1리 하노장과 그 북쪽 지역의 중노장·상노장을 2리로 나누었고, 중노장에 공단이 들어서 인구가 급증하자 1990년경에 중노장과 상노장을 분구해 2·3리로 편제하였다. 이때 면소재지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아파트단지를 노장4리로 나누고, 2010년에는 3리를 다시 3리와 5리로 나누어 현재의 5개 행정리가 되었다.

마을 남쪽에 들어선 노장산업단지는 야산을 깎아내고 일부 농경지를 포함하여 조성되었다. 초기에는 공단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전입하면서 한때 100세대가 넘는 가구가 거주하기도 하였지만 점차 주변 도시로 빠져나가 현 거주자는 40여 세대에 불과하다. 공단에서 흘러 보내는 오염물질로 인해 노장천의 수질은 예전같지 않다.

1993년에 고속철도가 양쪽 마을 어귀 산등성이를 관통하여 지나게 되면서 마을의 경관은 크게 휘



〈노장2리 위성사진(네이버지도)〉

손되었다. 철도를 버티는 거대한 기둥 여러개가 동네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철도의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져 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2. 지명유래

노장리는 조선 말엽까지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에 속해 있었다. ‘노장(蘆長)’이란 지명에 대해서는 몇가지 유래가 있는데 갈대가 무성하다는 의미의 ‘갈거리’라는 것과, 조선중기 임진왜란 중에 권주(權柱)가 노장리에 피난하여 살았는데 갈대 덕분에 무사히 피할 수 있었다 하여 ‘노장(蘆長)’이라 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상노장리(上蘆長里), 중노장리(中蘆長里), 하노장리(下蘆長里), 죽엽리(竹葉里), 이목동(梨木洞)을 합하여 노장리(蘆長里)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편입(編入)하였다.

조선시대의 사료인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는 각각 ‘상호장리(上芦長里)’, ‘노장리(蘆長里)’로만 기록되어 있으나 1913년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면리 자료에 하노장이란 마을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 노장천 : 노장리 앞을 흐르는 하천이라 하여 노장천이라고 부름. 개간 전에는 이곳이 모두 갈대

밭이었으며 노장천의 상류, 중류, 하류에 따라 상노장, 중노장, 하노장 이라고 부름.

- 도통굴 : 중노장에서 하노장 가는 길목임.
- 동산적굴 : 중노장 북쪽마을로 동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동산적굴이라고 함. 3~4가구가 거주하는 곳이었었는데 공단이 입주하면서 모두 떠나고 1가구만 남았음.
- 동구나무식당 : 양지말에서 북쪽으로 상노장 입구에 있는 식당으로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뒷뜰 : 중노장 앞뜰.
- 서낭당 : 상노장가는 도로 옆.
- 숯골 : 노장산업단지가 들어선 골짜기.
- 안동산적굴 : 중노장의 북쪽 골짜기. 모두 농경지이고 3~4채의 집이 있음.
- 양뚝고개 : 여우와 늑대가 나타나는 곳. 중노장 뒷고개로 넘어가는 길로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서낭당이 있었음.
- 양지말 : 노장천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마을. 양지바른 곳에 마을이 있다 하여 양지말이라 부름. 양지촌(陽地村) 이라고도 함.
- 중노장(中蘆長) : 양지말에서 노장천 건너편에 있는 마을.
- 중노장다리 : 중노장 서쪽의 다리.
- 헛방굴 : 한국전쟁때 사람들이 끌려가 학살당했다고 전해짐. 노장산업단지 쪽의 계곡.



〈양지말 전경〉



〈중노장 전경〉

■ 노장천

노장천이 현재의 모습으로 흐르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하천 제방공사를 마치게 되면서부터였다. 이전까지는 물이 둘러둘러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사행천에 가까웠다. 큰 비가 내리면 물길이가 바뀌기 일쑤여서 하천 주변의 땅은 경작지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제방을 쌓은 후 노장천 일대에 전답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이 동원되어 지계에 돌을 지어 날라 독을 쌓았다고 한다.

노장천의 중간에 보를 막아 물을 가두어 썼다. 상류에서 하류의 순서로 보면 뒤뜰보 → 안뜰보 → 하수보 → 중보의 순이었다. 뒤뜰보는 70여 마지기의 전답과 물레방아가 있는 물레방아들에 물을 댔고, 안뜰보도 비슷한 면적의 안뜰, 뒤뜰을 댔다. 하수보는 40여 마지기에 불과하여 가장 좁은편이었으며 중보는 하노장 들을 전부 적시는 곳으로 약 70여 마지기가 되었다.

산간지대 마을이 대부분 천수답이었던데 비하면 노장천 물 덕분에 중노장은 가뭄 걱정이 덜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이 일대의 토지가 중노장 의령남씨가의 소유여서 남씨가가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던 배경이 되었다.

■ 배 형국의 땅

옛 사람들은 노장2리가 배 형국의 땅이라 여겼다. 전체적인 땅 모양이 물에 떠 가는 배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지금의 현대자동차운전학원 자리를 뱃머리로 보았다. 1980년대에 전기줄을 잇는 철탑이 동네 한가운데에 세워진 적이 있는데, 마침 그 자리가 배의 가운데라 하여 돛대가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중노장 한구석에 있던 큰 바위는 닻줄을 매는 바위라 불리우며 바위를 함부로 치우면 배가 떠내려 간다고 믿었던 적도 있었다. 모두 허황된 이야기라고 하면서도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인지라 바위도 건드리지 않았고, 배에 구멍을 뚫으면 가라앉는다는 생각에 동네에서는 깊은 우물을 파지도 않았다. 각 가정에서는 우물을 파지 못해 동네에 3개의 얇은 샘을 만들어 길어다 먹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날 철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바위도 함께 치워버리고, 상수도 공사를 벌인 일이 있었다.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당장 별다른 사고는 없었는데 상수도 공사 후 물탱크를 산중턱에 올려 놓으면서 동네에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불과 3년만에 젊은 남자들 9명이 줄줄이 사망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배 형국의 명당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당시 무속인의 충고



〈배 형국(오른쪽 끝 아래가 자동차운전학원)〉



〈벃머리 형국의 끝 부분〉

로 산신제를 지내게 된 것도 그와 같은 배경이 있었다.

3. 역사와 변천

■ 중노장 의령남씨

중노장의 의령남씨가는 노장리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로 하노장에서 봉대리까지 노장천 일대의 대토지 소유자였다. 남성희는 원래 목천 사람이었는데 전의면에서 대소사 일을 맡아보면서 노장천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당시 노장리와 봉대리 사람들이 모두 의령남씨 집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먹는다고 할 정도로 수천마지기의 농토가 이 집안의 소유였다. 소작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나마의 땅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노동 일을 하기도 했는데 일제강점기에는 쌀 한말이 닷새동안의 품삯이었다. 중노장에 있던 큰 기와집과 큰 창고가 집안의 위세를 보여주었다.

일제강점기였던 기미년(기묘년?) 충청도 일대의 극심한 가뭄으로 큰 고생을 한 일이 있는데 이때 남씨가에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창고의 곡식을 풀어 나누었다. 덕분에 겨우 목숨을 구했던 주민들은 남성희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접 돈을 모아 비석을 세웠다. 봉대리 길목과 중노장에 각각 1기의 비석이 있다.

그러나 이 집안의 영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광복 후 토지개혁 과정에서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대토지의 대부분을 모두 강제 분할당하고 그와 함께 가세도 기울었다. 그때 남은 땅은 20여 마지기에 불과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 한국전쟁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소식이 알려졌지만, 주민들은 라디오를 통해 전황을 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주민 이승재씨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 쓰리대문 울타리 넘어 북한군이 총을 들고 앉아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군인들은 낮에는 없어졌다가 밤에 다시 나타났다.

이웃한 상노장에는 큰 느티나무와 목욕탕이 있었고 가까운 곳에 송씨가 살던 집이 있었다. 이때에 나타난 북한군들은 느티나무 그늘과 송씨 집에서 머물며 동네 소를 몇 마리나 잡아먹고 떠났다. 주민들 중에는 피난을 가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 낮에는 동네 나무 아래에 숨어있다가 밤에 집에서 잤다. 산등성이에 올라 보면 조치원읍내 쪽으로 폭격의 불빛이 보여 가슴 졸이던 기억이 생생하다.

■ 693번도로

면소재지에서 천안 수신면으로 이어지는 693번도로는 병천 아우내장을 보러다니던 사람들이 애용한 길이었다. 옛길과 현재의 도로 노선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확·포장되었다. 도로가 포장되기 전까지는 마차 한대가 겨우 다닐 만큼 폭이 좁았다. 5일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던 장사꾼들은 이 길을 따라 가면서 노장리와 봉대리 등에서 농산품을 싼값에 사들여 아우내장에 팔았다. 그들이 주로 사가는 것은 무겁지 않고 값은 많이 나가는 참깨, 팥, 고추 등의 발작물이었다. 시골 사람들은 농산물의 시세를 알지 못했던데다 맘먹고 속이려드는 장사꾼에게 바가지쓰는 일

이 많았다. 머리를 쓰려고 저울에 달아 판다고 하더라도 무게 단위가 복잡해서 속아넘어가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즉, ‘한 말’이라 하면 콩 한말과 팥 한말의 무게가 다른데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 해질 무렵 자전거에 짐차를 이어 붙이고 장으로 이동하는 장사꾼 모습은 흔한 광경이었다.

한국전쟁 후 이 길에 큰 구덩이가 몇 개씩 발견되었는데, 군인들이 차를 감추려고 땅을 팠다는 소문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사람 많이 다니는 길이라 폭격을 맞아 땅이 패인 것이라고도 하였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때에 이 길에 대한 확장공사가 이루어졌다. 길 주변의 마을에 포장 구역이 할당되어 주민들이 동원되었고 하루 일당은 밀가루 배급으로 대신하였다. 각자 지게를 지고 리어카를 끌고 나와 하루 종일 땅파고 자갈을 깔아가며 고생스럽게 일을 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두명치의 배급을 받고 리어카를 가져오면 일당의 서너배가 지급되었다. 꼬불꼬불 이어지는 고갯길을 직선으로 만들면서 경작중인 밭이 길이 되기도 했는데 땅주인이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노장리 산업단지가 계획되면서 1986년에 주변 지역의 도로가 포장되었다. 이때까지도 693번도로 일대는 자갈길이었다.

도로가 자갈길이나마 확·포장이 된 후에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미니버스에 하루 중 두세번 왕래하는 정도였다. 여전히 조치원까지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 중노장다리

1970년대 새마을사업때에 공사업자 신천범씨가 중노장에서 노장천을 건너는 곳에 다리공사를 벌여 세월교를 만들었다. 세월교는 비가 내리면 침수하는 다리였지만 그래도 매우 쓸모가 있었다. 1979년에 좀더 튼튼하고 침수가 안되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 임시로 기둥을 세웠는데 이듬해인 1980년 장마때에 큰 홍수가 나면서 겨우 만든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다. 그 해에 다시 기둥을 놓았고 1982년에야 비로소 완공되었다. 이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는 제방에서 많이 자라던 플라타너스를 베어다 엮어 다릿발을 만들기도 했고 징검다리로 아슬아슬하게 물을 건너곤 했다.

■ 새마을사업

19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동네 모습은 크게 바뀌었다. 이전까지 도로변에 ‘대동산업’이라는 기와공장에서 흙으로 만든 기와를 사다 지붕을 올렸는데 새마을 사업때에 초가지붕은 모두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었고 기와집도 일부는 그렇게 고쳤다. 여러 가지 동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정부로부터 1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고 그것으로 양지말 앞에 마을회관을 짓게 되었다. 이때에는 상노장과 중노장이 하나의 행정리였던 시절이므로 상노장 사람들도 이 회관을 이용하였다. 훗날 다시 2리와 3리가 나뉘게 되었을 때에 마을회관의 소유 문제가 제기되면서 양지말의 건물은 노장2리에서 갖고, 그때 받은 포상금 150만원은 노장3리에서 가져가 3리 회관을 짓는 것으로 합의하였던 일이 있었다.

한편, 중노장 남씨 집안의 창고를 동네사람들이 함께 공동창고로 사용하였다. 1990년대까지도 그릇과 차일, 훈구, 풍장 등을 이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그 후 창고를 철거하고 대지를 사들여 회관을 새로 지었다.



(노장산업단지 복지회관)

4. 전통민속

■ 길목을 지키던 서낭당

상노장 가는 길목의 서낭당에는 나무 한그루와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안녕을 빌었고 정월 보름이면 주민들이 새끼줄을 꼬아 나무에 둘렀다. 나뭇가지에는 색색이 형짚 조각을 묶어 바람결에 흔들리는 모습이 제법 화려했다. 1980년대초 까지만해도 옛모습이 살아있었는데, 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없어졌다.

■ 농촌생활

농촌마을의 일년은 농사일력과 절기에 맞춰 흘러간다. 정월이면 주민들이 모두 모여 짚을 쌓아두고 동아줄을 꼬는데 1년 쓸 것을 정월보름쯤에 모두 만든다. 보름날에 소의 고삐도 만들어 놓고 여자들이 모여 술과 음식을 낸다. 최근에는 정월보름에 마을회관에 모여 옷판을 벌인다. 또 이때에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사람도 많았다. 중노장과 양지말에 각각 3개, 2개의 샘이 있어서 이곳에서 떡을 해놓고 용왕제를 지내며 기원하였다.

봄이 되면 일손이 바빠지므로 논매기를 하면서 두레패가 나서는데 일제강점기에 큰 부자였던 남씨가 일을 주로 했던 기억이 있다. 김매기와 추수때에도 마찬가지로. 단오에 그네를 매고 널뛰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모였다하면 풍장을 치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 대동계

노장2리 대동계는 중노장과 양지말 사람들이 함께 한다. 한때 상노장과 중노장이 하나의 행정리로 편제되었던 시절에도 중노장과 양지말 사람들의 동계가 따로 있었을 만큼 전통적으로 두 마을의 관계는 끈끈하다.



〈도움주신 분들〉

마을운영에 있어서 이장은 행정적인 부분과 공공사업을 주관하고, 대동계는 주민 개개인의 애경사를 서로 도우며 동네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기금을 동계장이 관리하는 것은 기금이 주민 각자의 찬조금과 동계회비, 애사때 상주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장이 공동 기금을 이용할때에는 반드시 동계장을 통해 투명한 경로로 지출한다.

대동계의 회원은 전체가구가 되며 전입시에는 얼마간의 거주기간을 지나 현금 5만원 정도를 회비로 내도록 한다. 예전에는 쌀 두말이었다. 동계장은 2년마다 선출하며 연임하는 경우도 많다. 매년 연말에 총회를 여는데 주말 중 참여자가 많은 날로 고른다. 이날 상호회 겸 주민화합을 결의하며 한해를 결산하고 다음해의 사업을 논의한다.

대동계에서 관리하던 상여집은 솥골에 있었는데, 1960년대 초에 청람리 사람을 불러서 만들었다. 그 후 30여년간 잘 사용하다가 꽃상여와 병원장례식이 흔해지면서 상여는 쓰지 않았고 산업단지 입주 후에 상여집도 없었다.

■ 산신제

1980년대에 상수도공사를 벌이고 물탱크를 중노장 뒷산에 올려둔 일이 있는데 이 무렵 동네에 줄초상이 났다. 계속되는 우환으로 어수선하던 사람들이 유명한 무속인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지를 물어 무속인으로부터 뒷산에 물탱크를 올린 것이 문제라며 산신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라는 충고를 듣게 되었다. 그 후 매년 정월에 중노장과 양지말 사람들이 함께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물탱크 위에 산신제를 지내는 터를 만들어 놓았고, 동네 기금을 활용해 비용을 충당한다. 큰 일이 없는 이상 보통 초사흘날에 제를 올리며 전년도 연말에 생기복덕이 닿는 사람을 제관으로 선출하여 준비를 맡긴다. 제물은 돼지머리와 술을 비롯해 가정집 제상에 오르는 음식이다. 제관이 제물 준비에서 축문 낭독과 소지올리기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제의를 마치면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하며 새해의 안녕을 기원한다.

5. 생활환경

■ 좁은 농토

노장2리 사람들의 전답은 대부분 노장천 주변의 개간지이다. 이는 물론 제방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조성된 경지로 하천 바로 옆에 있는 덕에 가뭄 걱정은 없이 살았다. 제방공사 전부터도 노장천 물이 맑고 마르지 않았고 별이 좋아 벼농사는 잘 되는 곳이다. 2000년대에 들어 복숭아와 포도 과수원을 만든 가구도 있는데 연기군의 타지역 보다는 과수 재배 면적이 좁다. 주민들은 산업단지가 들어온 후 일부 취업도 하고 일을 받아 가내수공업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산업단지가 입주했던 1990년대 초에 120세대가 거주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현재의 마을 규모는 크게 축소된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권은 조치원읍이다. 전동면소재지가 가깝지만, 예로부터 전동면에는 시장이 서지 않아서 결국 인근의 장터를 이용해야 했고 가장 가까운 곳이 조치원읍이었다. 1990년대 이후 버스가 증편되면서 병천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 물 좋은 동네

노장2리는 물이 맑고 좋기로 유명했다. 가뭄걱정 없을 만큼 물이 풍부해서 솥골의 전답만 천수답이라 할 정도였다. 지형구조가 노장천물을 끌어 쓰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지하수 공사를 마친 지금도 옛 시설을 그대로 쓰고 있다. 마을의 풍수가 배의 형국이라 우물을 깊게 파면 배가 가라앉고 동네가 좋지 않다고 하여 얇은 샘을 파 썼는데 온 동네 주민이 모두 쓰고도 불편이 없을 만큼 샘물이 잘 솟았다. 중노장에 3개, 양지말에 2개의 샘이 있어서 각 동네 사람들이 매년 샘물을 품어 청소를 하는 것도 일이었다. 노장천 맑은물에 가재와 민물새우가 흔했는데 산업단지가 들어선 이후 하천생물이 사라졌다.

■ 주민 구성

각성 받이 마을이다. 대대로 세거성씨가 없던 동네라 텃세가 덜하였다.

분관·성씨	호수
파평윤씨	4
전주이씨	5
함양여씨	2
함종여씨	2
의령남씨	2
전주최씨	2
경주김씨	2

■ 옛 도로

상노장에서 하노장까지 이어지는 노장천 독길은 군도1호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이 길은 일제강점기에 하천 제방건설이 된 후 하노장에서 병천방향으로 오가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다. 한때 제방을 높이고 넓혀서 폭 3m정도의 도로를 만들 계획이 있었다. 693번 도로가 나기 전의 일이었다.



〈노장천 독길〉



〈노장산업단지〉



〈노장교〉



〈노장산업단지〉

그런데 하노장은 지형상 낮은 지대였고 중간에 세 월교를 넘기도 했으므로 홍수 때에는 독이 터질 위험이 큰 곳이었다. 결국 이런 점을 우려하여 지금의 693번 도로가 새로 건설되기에 이르렀다. 지금도 하천을 따라 이어지는 옛길은 차 한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포장된 상태이지만 중노장에서 도통굴까지 연결되지 않아 693번도로로 나가야만 군도1호에 다다를 수 있다. 주민들은 이 길을 개통해 군도1호로 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 노장산업단지

1990년대 초 이승재 이장이 동네 일을 보던 때에 산업단지가 건설되어 수많은 기업체가 입주하였다. 입주지역은 노장1리와 2리 사이의 '숯골'이란 작은 골짜기로 원래 사람사는 동네가 아닌 전답 8천여평과 야산 중턱의 지대였다. 처음 공단이 들

어오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이 지역에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세금수입도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나며 주민들이 일터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런 까닭에 노장1리에서 공단의 일부를 1리에 편제하기를 위하여 공장 중 일부의 주소지를 노장1리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청송리까지 넓히려던 계획도 있었지만 축소되었다. 숯골 일대에 땅을 소유했던 사람은 시세보다 좋은 가격에 땅을 팔았지만 큰 이익은 없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희망과 달리 산업단지로 인한 이득은 많지 않았다. 전동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에 전입하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의 도시로 빠져나갔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 노장천에 글리세린과 알콜 등이 함유된 폐수를 흘려보내 일간지에 보도될 만큼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노장천 물을 상수도로 활용하는 조치원읍의 주민들이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

다며 업체를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공단이 들어선 후부터 노장천에서는 물고기를 찾아볼 수 없고 잡히더라도 독한 냄새가 나서 낚시를 하지 않는다.

공단의 취업자도 전동면 사람보다는 외부인들이 훨씬 많다. ‘베잔트’라는 가죽제품 공장이 있을 때에는 가내수공업으로 일감을 받아서 소득을 올리던 가구도 있었지만, 그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그나마의 일거리도 사라지게 되었다.

■ 고속철도

노장2리의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양지말과 중노장의 사이를 관통하여 지나는 고속철도이다. 철도가 산과 산 사이를 지나면서 철도를 받쳐주는 거대한 다리 기둥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다. 이 철도가 놓이는 과정은 1990년대 이후 노장2리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93년 고속철도 노선이 결정되고 공사가 시작되었다. 누구에게나 내 고향땅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지만 국책사업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국가와 주민간에 합의를 통해 최대한 불만을 축소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노장2리에서도 공사 과정에서 많은 일

이 있었다. 최초 계획안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완공 후의 모습은 현재와 같은 것이 아닌 산을 경사면으로 크게 절개하는 것이었다. 이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당시 이장과 개발위원 등이 고속철도공사를 찾아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끝에 지금의 상태와 같은 터널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후 공사가 시작되자 발파작업 과정에서 깨진 돌이 마을로 날아와 가옥의 지붕에 흡이 생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잘못하면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어 항의하였고, 고속철도공사에서는 사과의 뜻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마을 기금 조성 및 마을회관 건립을 약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 중에는 여전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 고속철도건설 반대운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갈등이 증폭되었고 말았다. 짧은 시기에 공사장의 담당 소장이 3번이나 교체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였다. 약 3개월간의 공방 끝에 공사는 재개되었지만 처음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였고 지역사회 내부에도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 노장천의 홍수

1980년의 홍수는 지금도 전동면 사람들이 기억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철도〉

하는 가장 큰 자연재해였다. 이때 노장천의 독이 터지면서 이 일대의 농경지가 모두 물에 잠겼다. 큰 비로 운주산과 동립산에서 나무와 흙더미가 밀려내려와 물의 흐름을 막았고 여기에 제방 옆으로 늘어서 있던 플라타너스 나무들까지 휩쓸려 버리는 바람에 피해가 더욱 컸다.

■ 역대이장

노장리가 한개의 행정리였던 시절에 권혁노, 안병우 이장이 일을 맡았고, 1·2리로 분리된 후 권순영 → 권혁도 → 이희중 → 권혁년 → 김사우 → 권순백 순으로 2리 이장을 맡아 보았다. 그 후 1987년 윤석찬씨가 현재 범위의 노장2리 이장이 되었다. 이승재 이장이 1993년 4월 30일에 이장직을 그만 두고 1개월간 공석이었던 것은 당시 전동면에서 이승재 이장의 사직서가 곧장 처리되지



〈마을표지석〉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승재 이장 당시에 산업단지 와 고속철도 공사 등 큰 일이 많았다. 홍창기 이장은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앞장섰고 여영락 이장은 마을길 포장 사업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마을회관〉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이 승 재	67	남	자영업	863-1319
김 시 흥	64	남	농업	863-0992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187	110	77	76	22	54	87.60	25.79	12.23	49.59	-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	중노장	김 명 배	25	863-1325
2	양지마을	윤 석 철	26	863-1413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이 장	최 용 인	노 인 회	홍 창 기
동 계	윤 석 준	부 녀 회	이 양 수
새 마을 지도 자	김 보 수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	430-8	113m ²	132,948m ²	1994	이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이 희 중	75.1.1	83.2.7		9	홍 창 기	93.6.1	95.6.1	
2	김 사 우	83.2.7	85.2.19		10	홍 창 기	95.6.2	98.1.3	
3	권 혁 련	85.3.15	87.1.8		11	어 영 락	98.1.5	02.1.2	
4	권 순 백	87.1.8	87.5.1		12	여 운 성	02.1.2	04.2.1	
5	윤 석 찬	87.5.1	89.1.31		13	여 운 성	04.2.2	06.1.2	
6	이 승 재	89.2.1	91.1.23		14	남 철 우	06.1.2	08.1.2	
7	이 승 재	91.1.24	93.1.24		15	최 용 인	08.1.2	11.1.2	
8	이 승 재	93.1.25	93.4.30		16	최 용 인	11.1.2		

노장3리

망경대산의 산줄기가 남으로 뻗어내려 노장천의 중간 지점에 멈추는데 이 나지막한 야산의 산등성이를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예로부터 상노장으로 불리웠다. 오래전부터 전동과 천안을 잇는 길목으로, 왕래하는 사람이 많았다.



1. 마을개관

노장3리는 전동면의 면소재지인 노장1리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망경대산의 산줄기가 남으로 뻗어내려 노장천의 중간 지점에 멈추는데 이 나즈막한 야산의 산등성이를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예로부터 상노장으로 불리웠다. 노장리의 5개 행정리를 북→남의 순으로 살펴보면 노장5리 이목동과 죽엽리→노장3리 상노장→노장2리 중노장→노장4리 아파트단지→노장1리의 순으로 편제되어 있다. 천안군 수신면으로 이어지는 693년 국도에 접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전동과 천안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수신면 아우내 장터로 이동하는 장꾼들이 걸던 길이기도 하였다.

상노장과 이목동·죽엽리는 모두 노장3리였는데 2010년 5월에 이목동과 죽엽리가 노장5리로 행정구역이 재편됨에 따라 노장3리의 규모는 크게 줄었고 오직 상노장만이 노장3리로 불린다. 동네간에 거리가 너무 멀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으므로 노장5리를 신설한 것은 양쪽 동네에서 모두 환영하는 일이었다.

‘노장(蘆長)’이란 지명은 길게 이어진 갈대밭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지리지인 『여지도서』에는 ‘호장리(芦長里)’라는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호장리라 불리던 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호(芦)’는 갈대와 비슷한 식물인 지황, 부들을 뜻하고 있어 ‘노장’과 같은 의미였던 듯 하다. 갈대가 무성했던 것은 바로 노장천 주변 습지의 모습이었다. 노장천은 현재 직선으로 흐르고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하천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물길이 굽이치는 곳이었다. 큰 비가 내리면 물길의 형태가 이리저리 변하기도 했으므로 하천 주변은 농경지로 활용되지 못하는 황무지였을 것이다. 노장천 물은 상노장 사람들의 생활에 중요한 수원으로 식수와 농수로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노장5리 이목동 산골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물과 봉

대리에서 남으로 흐르는 물길이 합쳐지는 곳여서 물이 혼한 동네이다.

2. 지명유래

노장리는 조선 말엽까지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에 속해있었다. 노장이란 지명은 갈대밭이 무성한 곳이란 뜻으로 ‘갈거리’라 불리우기도 하였는데 갈거리는 노장2리와 심증리의 사이에 있는 곳이다. 노장이란 지명의 유래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벌어지자 안동권씨 권주(權柱)가 갈대가 무성했던 노장리로 피신하여 무사히 살았으므로 이를 고맙게 여겨 마을 이름에 갈대라는 뜻을 담아 ‘노장(蘆長)’이라 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하기 이전까지 상노장리(上蘆長里), 중노장리(中蘆長里), 하노장리(下蘆長里), 죽엽리(竹葉里), 이목동(梨木洞)의 마을이 존재하였는데 5개 마을을 합쳐 노장리(蘆長里)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5개 마을은 현재 5개의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다.

1700년대에 편찬된 지리지인 『여지도서』에는 ‘상호장리(上芦長里)’가, 1700년대 후반의 인구기록인 『호구총수』에는 ‘노장리(蘆長里)’라는 지명이 보이고 있어 노장리의 5개 마을중 상노장의 규모가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인다. 중노장, 하노장 등의 마을 이름은 1896년의 행정구역 개편시 처음 등장하는 것이다. 지명의 변천을 통해 볼때에 상노장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해 있다가 농경지를 넓혀가면서 사람들도 점차 주변 저지대로 확산되어 갔고 마을의 수가 늘어났을 것이다. 중노장과 하노장 등의 지명이 나타나는 것도 이와 같은 지역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노장천의 하류 방향으로 중노장과 하노장 마을이 자리한 것은 농경이 가능한 지역이 산간지대에서 평지로 광역화되어 가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낯은터 : 만두라 옆을 말하는데 상노장 사람들이 처음 살았던 낯은 곳이라 하여 낯은터라고 함.
- 두티미골 : 원지기 옆 골을 말함.
- 마루뜰 : 상노장 저수지 있는 쪽이며 죽엽리 가는 곳을 말함.
- 무디미 : 지금의 가스공장이 있는 곳.
- 벽시미 : 가스공장 있는 무시미 밑을 말하는데 예전에 주막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음.
- 산막골 : 임진왜란때 안동권씨 13대조가 산에 막을 치고 피난을 했다하여 산막골이라고 함.
- 상노장 : 노장3리를 말하며 원래는 상노장 내 건너편에 있었는데 물이 너무 자주 들어와 홍수가 나서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고 함.
- 서당골 : 상노장 북쪽에 있는 골을 말하며 예전에 서당이 있었다 하여 서당골이라 함.
- 서당대 : 옛날에 서장자라는 큰 부자가 살았던 곳이며 현재 주춧돌과 우물이 발견됨.

- 수렁골 : 수렁이 많다고 하여 수렁골이라 했는데 헛가마와 원지기 중간에 위치함.
- 원지기 : 상노장 동쪽에 있는 마을임. 선조(宣祖)때 학자 권주(權柱)가 이곳에서 임진왜란을 피하였다 함. '원직(元直)'이라고도 부름.
- 진설미 : 상소골 환영슈퍼 앞들.
- 큰사랑집 :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곳으로 안동 권씨네 종손집이었음.



〈마을입구〉



〈회관 뒷골짜기〉



〈상노장 앞들〉



〈남성희 기적비〉



〈농산물 간이 집하장〉

3. 역사와 변천

■ 안동권씨 집성촌

‘노장’이란 지명 자체가 임진왜란 당시 피난을 온 권주(權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할 만큼 노장리 안동권씨(제간공파)는 보덕리의 청주한씨와 함께 전동면에서 손꼽히는 역사 깊은 가문이다. 종손 집이 있던 곳을 ‘큰사랑집’이라 불러 지금까지 이 자리를 큰사랑집이라 하는 것도 이 마을의 역사에서 안동권씨가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준다. 큰사랑집은 이른바 ‘부마할아버지’의 종손가였다고 한다. 가옥의 규모가 매우 커서 안채와 사랑채에 방이 수십칸이 있었다고 하는데 후손들이 살지 않아 고택이 낡고 허름해져 십수년전에 모두 헐었다고 한다. 후손과 주민들은 지금도 이 아름다운 고택을 없앤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이라는 혼란기에 권주는 왜 상노장으로 입향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이웃한 전의 양안에서 이곳으로 이거하였다는 전언으로 보아 가까운 전의에서 가까운 노장리에 권씨가 소유한 토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의의 안동권씨는 조선 초기부터 전의 일대에서 세거했던 집안이었다. 근대에 들어 안동권씨의 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실전했던 전의이씨 시조묘가 발견되기도 했을만큼 안동권씨는 수백년간 전의와 전동에서 그 위세를 이어갔다. 노장리로 입향한 전동면의 안동권씨는 점차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 인근의 청송리에서도 집성촌을 이루었다. 가문은 대대로 번성하여 한말에는 3천석 부자도 있었다. 그의 땅이 수신면에까지 있을 정도였고 봉대리로 가는 길목인 노루목 고개에 큰 창고를 지어 매년 받은 도지를 쌓아 놓았다고 한다.

상노장 뒷산 일대가 권씨가 세장지이다. 현 거주자의 13대조 묘가 이곳에 있고 그 전대의 산소는 전의에 있다. 노장리에서 번성한 권씨집안은 한

때 상노장에서만 50호가 넘게 거주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인구 이동이 활발해져 상노장도 지금은 각성만이 마을이 되었다.

■ 권주(權柱)의 일화

임진왜란의 혼란을 피해 권주가 노장리에 사는 동안 말을 타고 훈련하던 장소를 ‘말바탕’, ‘치마대’라 하였고, 산에 막을 치고 피난을 했다가하여 산막골이라 불렀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권주에게는 다섯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인 권영의 후손들이 주로 상노장에서 살았고, 넷째인 권기의 후손이 청송리에 뿌리를 내렸다. 막내 권봉은 임진왜란 중에 순절하였다. 권봉은 조치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병마산 아래에서 왜적과 싸우다 순절하였는데 이때에 피묻은 적삼을 말 등에 올리자 말이 스스로 상노장 종가집으로 달려와 한참을 울던 끝에 죽었다고 한다. 집안에서는 시신 대신 적삼을 묻고, 말 무덤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 전동면의 1대면장 권오영(權五泳)

상노장 권씨 가문의 권오영은 전동면의 1대면장이다. 1912년 7월 4일 전의군 동면장을 지냈고, 1914년 4월 1일 전동면장이 되었다. 6개월만인 같은해 10월에 다시 북면장이 되었다가, 1917년 10월 1일에 다시 전동면장으로 부임하였다. 그후 1932년까지 15년간 계속해서 전동면장을 지냈고 오랜 세월을 면장으로 지냈음에도 평판이 좋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의 기억에는 원적에 살던 권오영 면장이 면사무소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하였는데 늘 개똥망태기를 들고 다니며 길가에서 개똥을 주워담아 퇴비로 썼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개똥면장’이란 별명을 붙여줬을 정도로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

한국전쟁이 벌어질 무렵에 이북으로 끌려갈 뻔



〈마을회관〉



〈전동장로교회〉

했지만 전동면민들이 함께 진정하여 다행히 풀려나기도 했을만큼 인심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4. 생활환경

■ 정보러 가던 길

상노장 앞의 큰 길인 693번 지방도는 천안시 수신면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예로부터 수신면 아우내(병천)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지나는 길목이었다. 전동면 사람들은 아우내장보다는 조치원읍 내의 장을 이용하였으므로 이 길을 지나는 이들은 대부분 장사꾼이었다. 오일을 단위로 이곳에서 저

곳으로 옮겨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은 때로 상노장 길가에 머물며 숨을 돌리기도 하였는데 이들을 위하여 벽시미에는 주막이 운영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기에는 군부대가 지나기도 하여 상노장 사람들은 북한군과 국군이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도로가 포장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흙먼지 날리는 길을 털썩거리는 버스로 이동하였다.

■ 노장천 물길

상노장은 북쪽과 동북쪽에서 각각 발원하여 흘러 내려오는 하천이 만나는 곳이다. 물은 풍부하지



〈노장천〉

만 이것도 물가의 땅만 혜택을 받은 것이지 물에서 먼 곳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포기하고 땅을 묵히는 일도 있었다. 그리하여 죽엽리 입구에 저수지를 만들어 상노장의 농경지에 물을 댔다.

노장천 때문에 곤란할 때도 있었다. 하천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큰 비에 물이 범람하는 일이 잦아

산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하천 제방이 만들어진 후에 물길의 형태로 고정되었고 하수처리가 잘되어 자연재해는 감소되었다. 다만 1980년대 초 전동면 일대를 강타한 홍수로 상노장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권 오 용	95	남	농업	863-1402
권 순 백	69	남	농업	863-1335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249	116	133	79	71	8	181.82	47.93	14.88	119	-
특산물 : 느타리버섯					축산물(두) : 한우, 닭, 돼지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	상노장	권 처 원	43	863-7209
2	원직이	권 태 욱	33	865-8704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이 장	이 혁 재	개 발 위 원	권 태 욱
대 동 계	권 순 백	노 인 회	김 갑 봉
새 마을 지도 자	권 용 신	부 녀 회	오 명 속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	516-1	109.5m ²	109.5m ²	1992	이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권 순 백	87.5.1	89.1.31		7	권 순 범	03.1.9	05.1.10	
2	권 용 국	89.2.1	91.1.23		8	권 순 범	05.1.10	07.1.8	
3	권 용 국	91.1.24	93.1.24		9	김 광 오	07.1.8	09.1.6	
4	권 용 국	93.1.25	95.1.24		10	이 혁 재	09.1.6	11.1.1	
5	권 순 범	95.1.25	97.1.14		11	권 혁 용	11.1.1		
6	권 용 국	97.1.15	03.1.2						

노장4리

노장4리는 1995년에 지어진 도원아파트 단지로 2004년 노장1리에서 분구되어 신설된 마을이다. 사방이 노장1리와 맞닿아 있으며, 전동면사무소와 약 동남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1. 마을개관

노장4리는 1995년에 지어진 도원아파트 단지
로 2004년 노장1리에서 분구되어 신설된 마을이
다. 사방이 노장1리와 맞닿아 있으며, 전동면사무
소와 약 동남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
해 있다.

본래 노장4리는 처음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노장1리에 속했던 곳이다. 이후 마을의 인구가 늘
어나면서 노장1리의 인구 100세대, 도원아파트의
인구 100세대, 각각 200세대 정도가 되어 자연스
럽게 분리되었다.

본래 아파트가 지어진 곳은 수령 논으로 개인소
유지였으나, 연기군청에서 연기군 근로자 아파트
로 착공하였다. 그러나 분양이 되지 않아 민영화
로 바뀌면서 현재는 일반인 100여 세대가 거주하
고 있다.

마을 주민 중 20% 정도는 전동면민에 해당하나
80%는 외지인이다. 그중 10%는 노장리와 청송리
에 위치한 농공단지과 산업단지의 숙소·기숙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인구변동이 많
다. 도원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로 A동과 B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동과 B동은 각각 17평으로 총
100세대이며, 높이는 5층으로 통로(라인)는 1~10
호까지 있다.

2. 생활환경

■ 1년에 한번, 마을 총회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장4리는 한달
에 한번을 원칙으로 반사회 및 개발위원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특성상 주민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개발위원회를 열거나 중요
한 일이 있을 때는 자율적으로 날을 정해 수시로
회의를 한다.



〈마을 사람들의 쉼터〉

그러나 1년에 한번 열리는 마을 총회는 여느 마
울과 다른 점이 있다. 다른 마을처럼 날짜가 정해
져 있지는 않지만 12월 말에서 1월 10일 사이에
개발위원회와 부녀회가 상의를 해서 날짜를 잡는
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 주로 주말로 정해 많은 주
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참여율은 60% 내외
이지만, 다른 도시의 아파트 마을들과는 다르게 참
여율이 높고, 적극적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총회는 저녁식사 후인 7~8
시 정도에 마을회관에 모여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서로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도 익힐 겸
식사라도 함께 하자는 뜻에서 점심시간에 모여 식
사를 하고 연말 결산과 함께 마을의 개·보수 상황
을 전하며 한해를 마무리한다. 총회의 주관은 이장
님이 주축이 되는 개발위원회와 부녀회에서 주관
을 해 식사를 준비하지만 대부분의 주민이 맞벌이
하는 사람들로 서로 바쁘기 때문에 음식준비를 못
할 경우에는 주변 식당에서 음식을 맞추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마을 사람들의 잔칫날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주말
에 날짜를 잡아 잔치가 벌어진다. 한해는 마을회관
앞에 다같이 주민들이 모여 척사대회를 열었고, 그
다음해에는 관광버스를 대절해 여행을 간다. 마을

의 여건상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직장인 등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모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종일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여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해에 척사대회를 기대 할 수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착안한 방법이다. 그동안 다녀온 여행지는 새만금과 통영이며, 2010년에는 척사대회를

열었다. 척사대회는 처음 시작할 때에는 A동과 B동으로 편을 나눴는데 A동이 상대적으로 참여 인구가 적어 2010년부터는 라인으로 나뉘어서 진행하고 있다. A동의 1~5라인, B동의 1~5라인이 한편이고, A동의 6~10라인, B동 6~10라인으로 마주 보고 있는 라인(호 수)이 한 편이 된다. 상품은 생활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보통 오전 10에서 오후 4시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 이날은 점심식사를 마련하여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먹고 즐길 수 있는 화합잔치가 된다.



〈새만금 방조제 여행〉

■ 전동면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은 동네

전동초등학교와 바로 마주하고 있는 노장4리는 전동면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요즘 농촌 마을에서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지만 노장4리는 전동초등학교와 3분도 안



〈도원아파트로 들어 가는 입구〉



〈아파트에 마련된 놀이터〉



〈마을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면사무소 앞을 지나는 버스〉

되는 거리에 있어 대부분 맞벌이 가정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고, 생활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다. 중고등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치원중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은 면소재지 마을이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 통학에 불편함이 없다. 조치원에서 출발하여 종점인 전의에 다다른 버스가 다시 조치원방면으로 돌아 나오는데 보통 아침에는 20~30분 간격으로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 마을 앞을 지나는 버스는 '성일교통'과 '세종교통'이 운행하고 있다.

■ 마을의 만능 살림꾼

현재 아파트의 모든 살림살이를 14년째 맡아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노장1리에서 분리되기 이전부터 아파트 일을 도맡아 보고 있는 홍순호씨는 마을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 홍순호씨가 처음 아파

트와 인연이 되기 시작한 것은 신문에 난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 후 당시 이장과 부녀회장에게 연락 온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아파트 일을 보고 있다. 아파트가 생긴 이래 현재까지 3번째 관리직 일을 맡아 오고 있지만 기간은 가장 오래됐다. 현재 아파트의 유지 관리와 경비, 청소 등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만능 살림꾼으로 아파트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 단지가 작고 세대수가 많지 않지만 이것저것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주민들과도 서스름 없이 잘 어울려 마을 사람인지 착각할 정도라고 하는데 12년의 세월동안 마을에 정도 많이 들어 이제는 모두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해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 마을회관

노장4리의 마을회관은 도원아파트 A동의 뒤쪽



〈마을회관〉



〈마을회관에 내부에 걸려있는 현수막〉



〈구 마을회관〉



〈구 마을회관 내에 있는 헬스장〉



〈노기섭 이장〉

에 있는 건물로 2004년에 신설되었다. 이곳은 노인회관을 함께 겸하고 있는데, 매달 군에서 나오는 돈을 지원 받아 점심시간에는 회관에 모이는 사람들 5~6명이 식사를 해결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더욱 북적인다. 몇 달전까지만 해도 마을회관 내에서는 연기군 보건소에서 나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운동하기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호응이 좋았지만 현재는 이루



〈마을회관 옆에 있는 주민들의 쉼터〉

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마을 입구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들어오다 보면 '구 마을회관'이 보인다. 현재는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2층 건물이지만 현재 1층만을 사용한다. 1층의 전면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뒤쪽은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어 저녁시간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며 특히 마을주민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노기섭	51	남	자영업	010-5476-3063
홍순호	74	남	아파트 관리	-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300	140	160		10%	90%	6,060				6,060
특산물 :					축산물(두) :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반	A동	이옥경	50	010-3436-1161
2반	B동	황복자	50	010-7751-4859

• 마을조직

구분	대표성명	구분	대표성명
개발위원회	노기섭	부녀회	임옥례
노인회	최홍복	청년회	이창순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관리사무실	586	-	330,579	1995	경비
마을회관	586	-	92,562	2004	이장
창고	586	-	33,058	2004	이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권오훈	03.6.1	05.6.2		3	노기섭	07.1.8	10.1.8	
2	권오훈	05.6.2	07.1.8		4	노기섭	10.1.8		

노장5리

노장5리는 노장3리에 속해있었으나 2010년 5월에 분리되어 5리로 새롭게 편제되었다. 천안시와 충북 청원군의 경계를 이루는 망경대 산줄기가 남쪽으로 길게 뻗어내려오고 동립산 말바탕산으로 이어지며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깊은 골짜기인 이목골의 안쪽이 노장5리이다.



1. 마을개관

노장5리는 노장3리에 속해있었으나 2010년 5월에 분리되어 5리로 새롭게 편제되었다.

천안시와 충북 청원군의 경계를 이루는 망경대 산줄기가 남쪽으로 길게 뻗어내려오고 동립산 말바탕산으로 이어지며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깊은 골짜기인 이목골의 안쪽이 노장5리이다. 이목골의 남동쪽에는 이른바 '사도혈'이라 부르는 통미산의 길쭉한 산등성이가 길게 이어지며 이곳 너머의 죽엽리골도 노장5리에 속한다. 전동면에서는 심중리와 더불어 가장 골짜기 깊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다.

근대시기부터 노장천과 조천천 주변의 낮은 지대에 위치한 마을이 번성하였지만, 전통시대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노장5리와 같은 지형을 갖춘 곳이었다. 즉 골이 깊어 홍수피해가 없고 낮은 구릉지대에 경작할만한 토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활용하기 좋은 지대야말로 선사시대부터 옛 사람들이 선호하던 주거지였다. 이를 증명하듯 이목골 구석구석에 유물산포지와 요지, 절터 등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1700년대 후반부터 농사 기술이 발전하고 치수(治水) 문제가 해결되자 마을은 농경지가 넓은 저지대로 확산되었고, 이목골과 같은 골짜기보다는 상노장, 중노장, 하노장과 같은 하천변의 마을에 인구가 증가하여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따라서 각 마을의

역사성을 되짚어 본다면 노장5리 이목골의 역사가 가장 깊고 상노장 → 중노장 → 하노장의 순으로 사람들의 주거지가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장3리로 편제되어 있는 동안 상노장 마을과의 거리가 약 2km로 떨어져 있어 행정적으로 불편이 컸고, 이목동과 죽엽리는 상노장과 별개의 동계를 운영하여왔던 까닭에 2010년 5월 10일에 노장5리로 분리·재편되었다.

2. 지명유래

노장5리는 조선 말엽엔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이었다. 이 지역엔 갈대가 무성하여 갈거리라 불리울 정도였다. 임진왜란때 학자 권주(權柱)가 이곳에 살면서 갈대의 턱을 입어 무난히 그 왜란(倭亂)을 피한 후 마을을 그가 노장(蘆長)이라 하였다. 전설이 전해진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에 상노장리(上蘆長里), 중노장리(中蘆長里), 하노장리(下蘆長里), 죽엽리(竹葉里), 이목동(梨木洞)을 합하여 노장리(蘆長里)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편입(編入)하였다. 노장리는 5개의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이목동과 죽엽리가 노장5리의 자연마을이다.

- 가마골 : 까마골이라고도 하는데 골이 까맣게 보인다하여 가마골이라고 함.



〈이목동과 죽엽리의 갈림길〉



〈이목동〉

- 감나무골 : 감나무가 많았던 곳.
- 개구리바위 : 백산이라고도 하고, 그 산을 통미산이라고도 하는데 산이 길어서 뱀혈이라고 함. 개구리 바위가 뱀의 머리라 함. 바위에 청색이 박혀 있는데 개구리 같다하여 뱀이 개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라 함.
- 굴방아골 : 안에 작은 굴이 하나 있다하여 굴방아골이라 했으며, 그 굴에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았음.
- 꼭지마골 : 골 모양이 꼭지처럼 생겨서 꼭지마골이라고 함.
- 너러바위 : 개울 사이에 바위가 박혀 있는데 넓고 납작하다 하여 너러바위라고 하며, 아이들이 줄타고 떡 감으며 놀았던 바위임.
- 노루바위 : 말발자국같은 형태의 흔적이 남아있는 바위로 공룡발자국이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음.
- 독진골 : 5,000:1 지도상에 이목동소류지 아래의 지명으로 표기되어있으나, 마을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음.
- 동투정 : 자비정사가 있는 곳으로 이목동의 동쪽에 있다하여 동투정이라 하였음.
- 마골 : 노장3리에서 봉대리 가는 길목.
- 말바탕 : 마을 동쪽 도림산 옆을 말하는데 말을 타고 그곳을 돌고 말을 묶어 놓았던 곳이라고 함. 말의 훈련장이란 전설이 있음. 말바탕에 묘를 쓰려고 땅을 팠는데 신기하게도 물에 씻긴 돌과 빗살무늬 질그릇이 나왔다고 함.
- 맨자마골 : 골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맨자마 같다하여 맨자마골이라고 함.
- 목뽕이 : 골은 좁은데 나무가 많다하여 목뽕이라고 함.
- 백산(통미산) : 원적골과 죽엽리 사이의 길쭉한 모양의 구릉임. 산주인이 백씨라서 백산으로 칭했고, 백씨의 묘가 3위 있음. 이목동 사람들이 이 산을 통미산, 통말림이라고도 불렀음.
- 병풍바위 : 병풍모양의 바위.
- 비바위 : 비가 오면 4, 5명이 비를 피할 수 있는 바위라 해서 비바위라고 하며, 원적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음.
- 산제당골 : 이목골 안쪽으로 산신제를 지내던 장소임.
- 상노장저수지 : 백산의 산줄기 아래에 있는 저수지로 마을에서는 '죽엽리저수지'라 부름.
- 소죽골 : 마을회관 아래의 논. 소의 먹이가 되는 소죽이 있는 자리라는 뜻으로 와우형 지형에 따라붙는 소의 먹이 형국임. 먹이가 있어야 소가 편안하므로 명당이 된다는 것임.
- 양물내기 : 1. 예전에 아주 좋은 약수가 있어, 쌍가마(벼슬아치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와서 이 물을 마셨음. 이 곳은 개인소유였는데 돌을 덮어서 찾을 수 없게 만들음. / 2. 아주 좋은 약수가 있었는데 어떤 기운 센 장수가 양물뽕이 옆을 지나다 돌에 맞았다고 함. 화가 난 장수는 큰 돌을 들어서 거기를 막아 놓았다고 함. 그 후로 그 약수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며, 병풍바위 위쪽에 위치함.
- 와우형 : 이장 김광오씨 집의 뒤편을 소가 누운 듯한 모습의 와우형 지형이라 부름.
- 원적골 : 원적사 있던 곳. 원적사는 고려중엽 때의 절로 불타서 없어졌던 것을 한국전쟁 이후 지어졌음.
- 원적사 : 전설이 깊은 절로 빈대가 많아서 스님이 빈대를 죽이려고 절을 모두 태웠다가 1940년대 초에 다시 원적사를 지었음.
- 이목동(梨木洞) : 원지기북쪽에 있는 마을임. 배나무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전에 배나무가 많았다하여 이목동(梨木洞)이라 부름. 경주김씨(慶州金氏)가 많이 살고 있음.
- 이목동소류지 : 이목골 가장 깊은 곳에 조성된 소규모 저수지.
- 자비정사 : 2002년에 건립된 새로 생긴 절임.
- 작은 불당골, 큰 불당골 : 불당이 있었다고 해서 불당이라 했는데 가보면 절터 같은 지형임.



〈1970년대의 마을길〉

- 작은가재골, 큰가재골 : 가재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짐.
- 점진너 : 죽엽리 점터 건너편의 마을.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음.
- 점터밭 : 죽엽리 마을 안쪽 골짜기 깊은 곳. 백자요지가 위치함.
- 죽엽리(竹葉里) : 원지기 북쪽에 있는 마을임. 주접나라고도 부르는데, 대나무골이라고 부름. 대나무밭이 있다는 뜻이라는 전설과 함께 지형이 대나무 잎과 같이 길쭉하기 때문에 죽엽리라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함. 전설에는 대나무가 무성했던 마을로 여기에서 나오는 대나무는 나라에서 군기를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하였다고 함.
- 틈터골 : 이목동 저수지 아래로 큰골 옆에 낀 틈새 같다고 하여 틈골, 틈터골이라 하게 되었음.
- 한배나무골 : 이목동저수지 안쪽 골짜기.
- 함바골 : 이목동소류지 옆의 골짜기. 골짜기의 형태가 큰 박처럼 생겨 '함박'이라 하였음.
- 헛가마 : 원지기로 가는 길 밑의 호두나무 있는 곳.

■ 뱀이 개구리를 물은 형국

이목동과 죽엽리 마을 사이에는 길게 뻗어있는 낮은 산줄기가 가로지르고 있다. 산의 모습이 마치 길쭉한 뱀 몸뚱이리 같다하여 '사도혈'의 지형이라 하였는데, 마침 산줄기의 끝에는 작은 바위가 드러

나 있어 뱀이 개구리를 물고 있는 듯 보인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이 바위를 개구리바위라 불렀다. 뱀을 닮은 이 산을 '통미산', '백산'이라 한다. 백씨 집안에서 산을 사들여 묘를 썼기 때문이다.

3. 역사와 변천

■ 백제 사람의 흔적

이목동과 죽엽리는 망경대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 안쪽의 골짜기 마을로 전통시대 사람들이 선호하는 생활 환경을 갖춘 곳이다. 이목골의 서쪽편 언덕배기 남동향사면에서는 백제시대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목동 역사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할만한 유적이다. 그러나 이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유물이 분포한 지점은 밭으로 개간되고 경작이 이루어져 지표면의 지형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밭 주변에는 적갈색의 토기 조각과 회청색의 단단한 토기 조각들이 흩어져 나타난다. 이것은 모두 너무 작은 파편이어서 원래의 그릇 형태도 추정할 수 없다. 유물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물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주거지인지, 무덤인지 확인할 만한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토기 파편의 질감과 무늬 등이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그릇과 같은 것이어서 이곳에 당대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이 있던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 백자를 굽던 요지

죽엽리 골짜기 가장 안쪽에서는 조선시대에 백자를 구웠던 요지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곳은 동림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 사이의 골짜기이다. 요지는 양질의 흙과 물이 있고 땀감을 구하기 좋은 자리에 조성되기 때문에 죽엽리 골짜기는 요지가 자리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요지가 있던



〈이목동의 유물산포지 전경〉

곳은 10여년전까지도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다가 묵고 있는 곳으로 원래의 지형은 많이 훼손된 상태로 보인다. 주변 지역에서는 깨진 백자편과 불에 탄 흙이 다량으로 산포되어 있어 그릇을 굽던 요의 벽체가 모두 파괴되어 노출된 듯 하다. 백자의 형태는 순백자이며 주로 대접 조각이 많다. 대접의 굽 주변과 그릇 안쪽에 포개구운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고급 자기는 아니며 민간에서 사용하기 위해 대량으로 생산한 그릇으로 추측되고 있다. 요지가 운영되던 조선 후기에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지만, 지금은 잡목이 우거지고 민가는 없다.

■ 죽엽리 옛 절터에 세워진 원적사

죽엽리 골짜기의 안쪽 백자 요지의 뒤편 골짜기에 ‘원적사’라는 사찰이 있다. 이 절은 현대에 새로 건축된 것이지만, 원래 이 자리는 절터로 알려져 있었다. 절터골, 동토쟁이, 발마툼, 원직이란 지명이 전해지는 것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옛 절터로 추정되는 지역은 대부분 지형이 변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옛 공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사찰 주변에서는 수많은 기와조각이 산포하고 있다. 기와편은 대부분 회청색이고 표면에 어골문(魚骨文) 모양이 남아있다. 이런 무늬의 기와는 고려시대의 것이므로 원래 이곳에 있던 절

은 늦어도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초기의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전의현편 사찰조에는 ‘용자산(龍子山)에 원적사(元寂寺)가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용자산은 전의현 고을 치소에서 동쪽으로 16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산이며, 조선 후기 전의의 지리지인 『전성지』에는 용자산은 청주와 접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용자산’이란 동림산의 옛 이름인듯 하며, 그렇다면 용자산의 원적사가 지금의 원적사 자리에 있던 절일 가능성이 있다. 지역에서도 용자산에 대해 알고 있으며 청원군 옥산면 장동리의 동림산 정상 동쪽 바로 아래에 용자암이란 절도 있었다고 한다. 이 절은 1990년 무렵에 철거되었다. 그러나 용자암보다는 죽엽리 사지가 동림산 주변에서 확인되는 절터로 원적사 터에 세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조선 초기의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곳



〈원적사〉



〈1600년경에 제작된 동여비고(영남대학교 소장)에 전동면과 노장5리 소재 원적사가 표기 돼 있어 원적사는 1600년경에 축조되었다가 소실된 사찰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추정시기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는 존재하던 사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적사가 언제 폐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있던 원적사가 조선 후기의 지리지인 『여지도서』에는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00년대 ~ 1700년대 사이에 폐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장5리에 전해지기로는 여승이 머물던 절이었고 빈대를 잡으려 불을 피웠다가 모두 소실되어버렸다는 전설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한석봉과 암행어사 박문수 등이 공부한 곳이라고 하여 이 산의 산신을 박문수 산신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절터에 다시 원적사가 세워진 것은 1950년이였다. 전쟁이 시작될 무렵 이곳에 도명 김우규(金祐奎) 스님이 찾아와 절을 짓겠다고 하자 주민이 다 함께 협력하여 ‘울력’으로 절을 지었다고 한다. 세상이 어수선하여 종교적인 신심에 기대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이때 공사를 하면서 수많은 기와 조각이 쏟아져 나왔고, 어느 지점에서는 30cm 정도 크기의 목 없는 돌부처도 발견되었다. 이때에 발견되었던 유물은 조치원에 살던 사람이 가져다 팔았다고 한다. 이때에 건축된 사찰건물은 약간의 보수를 거쳐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주소 : 전동면 노장리 35 / 전화 : 041-866-5696 / 종파 : 조계종 / 주지 : 반학 스님)

■ 경주김씨 집성촌

이목동은 경주김씨 계림군파의 자손이 17대째 살고 있는 집성촌으로 전체 주민의 2/3 가량이 경주김씨이다. 대대로 충청북도 진천에 살아오던 집안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전의로 이거하였고, 그 자손들이 청람리, 노장리, 송곡리, 심중리 등으로 퍼져나가면서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다.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바로는 이목동이 피난골이어서 살기 좋은 곳이라하여 터를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전통시대에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경우는 그 지역과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경주김씨가 또한 외가나 처가, 또는 농경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목동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처음 마을에 입향한 선조의 기록이 있어야 가능한데 족보상으로 나타나는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다. 이목동 경주김씨는 전의 운주산 아래의 학당(현재의 미곡리 학당마을)에 묘가 있는 김춘무(金春茂, 1595~1676)의 후손이다. 김춘무의 처는 안동권씨 권태원(權泰元)의 딸로, 당시 노장리에 세거했던 안동권씨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후손이 심중리와 노장리 등으로 퍼져나가 터를 잡아 오늘날 전동면 지역의 경주김씨 일가를 이루었다.

■ 어모장군 대구서씨 묘

마을회관 뒤편 산등성이에 문인석 1기가 방치된 채 땅에 묻혀있다. 충청남도와 문화재청에서 연기군의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할 때에 이것이 문화유적으로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때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크기는 78cm, 두께는 25cm의 화강암 석재로 머리는 부러져서 남아있지 않고 몸통 아래 부분 20cm는 땅에 박기 위한 네모난 기단부의 형태이다. 표면은 마모가 심해 완전한 형태를 확인할 수 없고 평면적이며 세부적인 조각수법이지만 손가락 묘사는 정교한 편이다. 주변에는 잡목이 우거져 그 모습을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원래 묘비와 문인석이 각각 1기씩 있었다고 하는데 산사태로 묘는 붕괴되었으며 그 후 석회로 둘러싸인 광정이 드러났다고 한다. 마을에 전해지기로는 대구서씨의 묘로, 묘비는 없지만, ‘어모장군’, ‘서장군’의 묘라고 불렀다. 예전부터 동네 뒷산에 묵은 묘가 많았는데 대구서씨의 묘라는 얘기가 있었고, 문인석이 있는 자리의 묘는 지금 봉분을 확인하기도 어렵지만 예전에는 묘 주변에 방형으로 돌벽이 둘러져 있었다고 한다. 전언이 맞다면 이러한 형식의 무덤은 조선 초기의 것일 가능성이 크며, 경주김씨의 입향 무렵 이목동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동샘〉

4. 전통민속

■ 이목동 산신제

40여년전까지 이목동에서는 산신제를 지냈다.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이목골 골짜기 안쪽의 산제당골에 있는 참나무 아래에서였다. 그 전통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왜 산신제를 지내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지만, 대대손손 마을 전통으로 이어져왔다.

산신제는 이목동과 죽엽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두 마을이 하나의 동계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매년 음력 정월 중 부정하지 않은 날을 택하여 이목동 뒷산인 동림산으로 올라간다. 산신제를 지내기 보름전부터 준비에 들어가는데 생기복덕을 가려서 일진이 좋은 사람 중 제관, 축관 그리고 유사 역할을 하는 ‘소염’을 뽑는다. 이들은 산제를 지내기로 한 날짜에 임박해서 선출하며 산제날까지 부정을 타지 않도록 조심한다. 마을 입구에는 금줄을 걸어 타동네 사람의 출입을 막고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주민들은 비린 것을 먹지 않으며 몸가짐을 조심하기 시작한다. 제물의 마련은 동네의 공동경비를 이용하는데 삼색실과·쌀 한 되 서홉·북어를 준비하고 장을 보는 사람은 제를 지낼 음식이므로 절대로 재료의 값을 깎지 않고 구입한다. 형편이 되면 돼지머리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떡은 흰무리떡을 쓴다.



〈산신제 지내는 곳〉

산제 당일에는 자정 무렵 뒷산 산신당에 제관과 공양주만 올라가 밥을 짓고 집에서 담근 술과 함께 제물을 진설한다. 제관이 축문을 읽고 제를 진행한 뒤에 소지는 호별로 대주 1인씩만 소지를 올린다. 산제를 모두 올린 후에는 가지고 올라간 술항아리를 산신당 앞에 파묻고 내려오는 것이 특징적이다. 산제를 올린 다음 마을로 내려와 '수살나무'라 부르는 마을 입구의 고목 두그루에 각각 제를 지낸다. 제의를 마친 후 주민들은 함께 풍장을 치면서 함께 음복한다. 나무가 모두 고사한 후 산신제의 전통이 끊겼다.

■ 화재로 잃어버린 느티나무 고목

동네 입구와 이목동 중앙(140번지)에는 어른 여섯명이 감싸안아야 할 만큼 나이 많은 느티나무가 한그루씩 있었다. 전설에는 몇 천년된 고목이라 하였고, 산신제와 함께 주민들이 수살제를 올리는 전통이 있는 마을의 수호신이기도 하였다. 나무 아래는 수십평의 그늘이 생겨 농한기에 주민들이 그 아래에 모여 명석과 짚그릇 등을 만들기도 하고, 피서를 즐기던 명소였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다.

1959년 정월의 일이다. 다른 동네 젊은 남자가 밤에 몰래 이 나무를 불태웠다. 당시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러 불을 났다기 보다는 주변에 나뭇가지가 쌓여 있었고 주변에 수수나무가 많았는데 쥐불놀이를 하다 불뿔이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주민들이 모두 몰려나와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마른 나무에 붙은 불은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다. 새벽녘에 불길은 잡혔고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아직 꺼지지 않았던 잔불이 살아나 나무는 거의 다 소실되어 버렸다. 범인을 잡지도 못하였고, 잡을 엄두를 내지도 못했다. 그 해에 4·19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동네사람들은 고목이 불타고 나라에 큰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했다.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나무를 잃어버렸다고 믿

고 있을때 그 다음 해에 신기하게도 남아있는 가지에 싹이 났다. 싹이 난 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동네 사람들은 그 해를 잊지 못한다. 1961년 단 한번 싹이 움텄던 고목은 그 후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 채 그대로 죽고 말았다. 한참이 지난 후에 불을 낸 범인이 밝혀졌는데 그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 느티나무에서 약간 떨어진 자리에 있던 또 하나의 고목 한그루가 있었다. 나뭇가지에 그네 줄을 매어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노인들이 장기와 바둑판을 펼쳐놓고 여유를 즐기던 곳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뿌리가 썩어들어가더니 결국 나무가 죽고 말았다. 쓰러진 나무등걸을 가져다 팔았던 사람이 우연찮게도 불미스러운 일로 단명하게 되자 신령스러운 나무를 건드린 까닭이라는 뒷얘기가 돌았다.

■ 한국전쟁

이목동과 죽엽리는 피난골이었다. 한국전쟁의 와중에도 별다른 사건이 없었다. 북한군이 잠시 주둔하고 떠난 적이 있었지만 피해를 주지는 않았고 의용군으로 갔던 사람들은 모두 귀향하였다. 타지에서 피난민들이 동네로 숨어 들어왔다. 이목동 사람들은 불안한 심정에 뒷산에 방공호를 파고 숨어있기도 하였는데 다행히도 굴이 숨어있을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전국 곳곳에서 사상 갈등을 빌미로 주민끼리 죽고 죽이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노장리는 조용한 편이었다. 짐성촌이었던데다 빈부차이가 심하지 않았고, 좌익사상을 배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 동계

이목동과 죽엽리는 하나의 동계로 운영되었다. 상노장과 함께 노장3리로 편제되었던 시절에도 마



〈1950년대 주민 사진〉



〈1970년대의 환갑잔치〉

찬가지였다. 상노장과는 상여도 따로, 혼구도 따로 사용하였다. 동계의 운영을 위해 이른바 ‘장리쌀’이라 불리는 고리대금 사업도 성행하였다. 한가마에 댓말 이자라 할 만큼 높은 이자가 버거웠어도 그나마 빌려 먹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던 시절이었다. 동계의 운영을 위해 장부를 썼지만 한동안 장부 쓸 일이 없어 옛 문서는 모두 분실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계장은 이장이 겸하지 않고 따로 선출한다. 이장은 젊은 사람이 맡고 동계장은 마을 어른이 맡게 된다. 매년 12월 25일에 동계모임을 갖는데, 이날이 성탄절로 공휴일이기 때문이다. 주민중에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신자가 거의 없다.

동네에 이사를 오게되면 동계에 가입금 5만원 정도를 내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는 쌀 한말이었다. 곡식으로 가치를 따지던 때에 집집마다 봄에 보리 2말, 가을에 벼 2말을 걷어 이장에게 수고비를 주기도 하였다. 동계에서 주관하는 일이 많은데 산신제를 지낼때에는 산신제가 가장 큰 행사였다. 지금은 마을 일과 주민들의 혼인, 상례 등 대소사를 함께 돕는 것이 동계의 주된 역할이다.

5. 생활환경

■ 이목동저수지

이목동 골짜기는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의 양

이 많지 않아 식수를 사용하기 위해 우물을 팠는데, 동네에 두군데 우물이 있었다. 농업용수는 늘 부족해서 허덕였다. 가뭄이 길어지면 주민들끼리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 이목동저수지를 준공하면서부터 물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때만해도 주민들이 품삯 없이 동원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라 정부에서 나눠주는 밀가루를 받아가며 직접 돌을 지고 날라 저수지를 만들었다. 저수지가 생기면서 비로소 벼농사가 수월해졌다. 수리시설이 개발되기 전까지 저지대인 상노장, 중노장, 하노장은 큰비가 내리면 물길이가 바뀌어 고생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지하수 개발로 어디에서나 물대기가 좋은 상황이다.

■ 골골마다 애들 목소리가 들리던 시절

동네에 사람이 가장 많이 살았던 한말에는 이목동과 죽엽리를 합쳐 200가구가 넘었다. 골짜기마다 가옥이 자리잡고 있어서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죽엽리의 안쪽 골짜기인 점터에도 동네가 있었고, 점터와 마주보는 ‘점진너’라는 마을은 기껏해야 20마지기 땅이었지만 사람들이 집짓고 밭을 일구며 살았다. 현재 몇가구 살지 않는 죽엽리 마을이 4개마을로 나뉘어져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더 많은 인구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1960년대에 동네 주민이 저수지 위쪽 깊은 골짜기에 묘를 쓰려고 땅을 파보니

기와편과 주춧돌이 나왔다고 한다. 1960년에도 이미 풀만 우거진 산속이었는데 그런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수백년 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인구가 한참 많았을 때에도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 전의면까지 걸어다녔다. 장을 보기위해 조치원읍내까지 12km 넘는 길을 걷기도 하였다. 조치원과 전의, 병천아우네가 모두 30리길이라 하였는데 생활권은 조치원에 속해있었다. 뒷산 꼭대기는 도계로 산을 넘으면 청원군 옥산면이었는데 고갯마루에 서낭당이 있어서 떡과 과일을 놓고 치성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 옥산을 왕래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깃발 펴려이던 두레

노장5리는 전통적인 농촌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대대로 벼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다. 농기계가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일을 사람 손으로 해결해야 했던 1980년대까지 두레 조직이 있었다. 모내기, 김매기 등 특히 힘든 일을 해야하는 농번기에 동네 남자들이 모두 함께 일을 도왔다. 두레가 나가는 날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쓰여진 깃발과 풍장소리가 요란한 농악패가 앞장선다. 상모를 돌리는 재주꾼도 있었다. 두레는 동계와 마찬가지로 상노장과 별개로 이목동과 죽엽리가 함께 했다.



〈마을회관〉

■ 행정구역의 변천

노장5리는 노장리에서 몇차례 행정편제 과정을 거쳤다. 1960년대 초 ‘자유당시절’에 노장4리로 편제되어 있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독립된 행정리를 구성할 수 없게 되자 노장3리에 속하게 되었다. 그 후 노장리에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서 노장4리가 되었고, 노장3리의 이목동과 죽엽리에서 불편을 호소하며 연기군에 새로운 행정리로 편제해줄기를 요청하여 2010년 5월 10일 드디어 노장5리로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기존에 노장3리 할머니회관이었던 마을회관은 공식적으로 노장5리 마을회관이 되었다. 2010년 6월 24일 현판식을 가지며 큰 잔치를 벌였다.

■ 동림산 산림욕장

원적사 인근에 연기군의 ‘동림산 산림욕장’이 위치하고 있다. 2007년 연기군산림조합에서 임도를 개설하였고 등산로와 함께 건강활동지구, 산림산책지구, 자연관찰지구, 자연보전지구 등 갖가지 체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은 원래 평산신씨의 사패지라고 알려져 있었다. ‘신평서 묘’라 부르는 고총이 있었는데 병조판서의 묘로 신평서의 형은 우승지를 지낸 인물이었다고 한다. 후손들이 돌보지 않아 봉분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신씨가 소유의 땅만 ‘35정’에 이를 정도였다. 이 땅



〈도와주신 분들〉



〈1993년 आय회〉

이 경매로 나오게 되어 연기군에서 사들였고 산림 육장을 조성한 것이다. 최근 점차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 현대생활

이목동과 죽엽리는 전동면과 천안을 잇는 큰 도로에서 한참 벗어난 골짜기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오지마을이다. 도로상황도 좋지 않아 버스도 드물어 노장3리 입구까지 걸어 나가야 한다. 농경지도 넓지 않은데다 모두 논이며 밭이 거의 없어 특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없다. 예나 지금이나 큰 부자는 없는 대신 주민들은 어려울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느 농촌마을과 같이 인구도 줄었고 노령화가 심각한 편이다. 사시사철 세시때마다 풍물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지



〈주민 일동(아유회)〉

금은 풍장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노인들 뿐이라 흥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동네 잔치도 드물어졌다. 정월에 옷놀이를 벌이고 한여름 복날에 다같이 한 끼 식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KBS 방송 출연

2010년 7월 2일 KBS의 '생방송 오늘'이란 프로그램에 노장5리 마을이 방송되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활기찬 농촌 생활을 보여주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우연한 기회에 방송 제작진에게 이목동이 알려져 6월 25일에 촬영팀이 마을을 찾았다. 이목동저수지에서 잡히는 민물새우로 만든 요리를 소개했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김 맹 수	78세(1933년생)	남	농업	863-1407
이 재 영	71세(1940년생)	남	농업	010-5125-1409 / 863-1409
이 재 국	65세(1946년생)	남	농업	862-7783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56	28	28	24	16	8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	이목동·죽엽리	김 상 철	24	863-1707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이 장	김 광 오	부 녀 회	김 임 응
동 계	이 재 영	청 년 회	김 진 승
노 인 회	이 재 영	새 마을 지도 자	김 진 승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	144	212.00㎡	82.32㎡	1998	이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김 광 오	10.6.1							

미곡1리

미곡리는 계곡에 풍류가 있어서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알려졌던 곳이다. 운주산의 남서쪽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개편 당시 당리, 미당리, 지곡리, 수구동을 병합하여 미당과 지곡의 이름을 따서 미곡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1. 마을개관

미곡리는 계곡에 풍류가 있어서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알려졌던 곳이다. 운주산의 남서쪽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개편 당시 당리, 미당리, 지곡리, 수구동을 병합하여 미당과 지곡의 이름을 따서 미곡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조선 말엽에는 전의군 동면의 지역이었다. 두 동네의 이름을 각각 따서 ‘미곡’이라 하게 되었지만 주민들은 미곡(美谷)의 뜻은 시조와 학이 있듯이 아름다운 계곡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미곡1리는 조천과 경부선, 1번 국도를 경계로 송성리와 마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현재 도로변을 중심으로 남쪽이 1반 조일말과 북쪽인 언덕배기에 2반 미륵당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1반과 2반 사이로 논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마을 뒤편으로는 까치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곳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2. 지명유래

미곡1리에 전래되는 지명유래는 1974년에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총람』과 2007년에 조치원문화원에서 편찬한 『연기군의 지명유래』와 마을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가재울 : 등짐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 ‘보은사’라는 절이 위치해 있는 곳임. 현재 1반인 조일말 옆의 고랑을 지칭하는데, 가재가 많아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전해지고 있음. 현재도 가재가 발견되고 있음.
- 등짐산 : 조일말 동북쪽에 있는 산을 지칭함. 현재 1반과 2반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임.
- 면소터 : 미륵당에 있는 전동면사무소의 터를 지칭하는데, 1937년에 면사무소는 경부선의 전동역이 있는 노장리로 옮겼음.
- 미당 : 미륵당, 미당리, 미력당이라고도 부르며, 조일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지칭함. 마을 모퉁이에 미륵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임.
- 미륵당 : 미륵당이 모퉁이에 있는 미륵으로 남녀 두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96cm, 너비는 33cm임.
- 오씨암 : 옷오른 사람이 목욕하면 치료가 된다는 샘임.
- 조일말 : 제지곡, 지곡이, 조일말이라고 부름. 미곡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제지소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전해짐. 옛날 이 마을에 종이(창호지)를 만들던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마을이란 뜻으로 조일말이라고 함. 현재 마을회관이 위치한 곳을 지칭함.



〈미륵당 전경〉



〈조일말 전경〉



〈가재울 전경〉

3. 역사와 변천

■ 미륵당 유물산포지

1반에 해당하는 미륵당 마을에 고대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유물의 산포가 확인된 지역은 미곡리 미륵당 마을의 북동쪽에 있는 운주산(459.7m)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흘러내린 능선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표고 60m 내외의 나즈막한 저산성 구릉지대가 길게 형성되어 있다. 이 곳은 현재 구릉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선상부를 중심으로 공장이 들어서 있고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어 일차적인 지형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지표면 조사 과정에서 원삼국, 백제시대로 편년될 수 있는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대부분 적갈색, 회백색 계통의 연결 토기편으로 태토에는 가는 모래가 섞여 있다. 심하게 파손된 잔편이므로 구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으나, 유물이 확인되는 능선을 중심으로 원삼국, 백제시대 생활유적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곡리 일대는 미호천으로 유입되는 ‘조천(鳥川)’의 상류로 천변의 충적대지를 중심으로 경

작지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그 주변으로 표고 100m 내외의 구릉성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유적의 입지조건으로 최적의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삼국, 백제시대의 생활유적이 입지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전동면사무소가 있던 곳

미륵당마을에는 아직도 주민들에 의하여 ‘면소터’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1937년에 전동면사무소가 전동역이 있는 노장리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미곡1리에 전동면사무소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전동면사무소는 미곡1리에 있기 전에는 청송리에 있었으나, 미곡1리로 옮겨지게 된 이유는 미곡1리가 교통의 요지였던 점과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미곡1리는 미륵당과 조일말 앞으로 큰 길이 지나고 있다. 이 길은 전의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길로서, 미곡1리는 전의와 조치원을 잇는 길목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또한 미곡1리와 멀지 않은 소정면의 대곡리에 역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곡1리는 전동면의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면사무



〈마을의 특산물, 고추〉

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경부선 전동역이 있는 노장리로 1937년에 이전하게 되었다. 즉, 경부선 철로가 놓이기 전까지 미곡1리는 육로상의 교통의 요지의 역할을 하였다.

■ 근현대이야기

개미고개와 가까운 지리적인 위치에 자리잡은 미곡1리의 근현대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전국적으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마을의 뒤편에 위치한 까치산에서 햇불을 올린다거나 마을 주민들이 뒷산에 다같이 올라가 만세운동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개미고개에서 벌어진 격렬한 전투에도 마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별다른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마을에 일어났던 큰 사건도 없다고 한다. 다만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당시에 개미고개에서 진을 치고 있던 북한군들이 가까이 있는 미곡1리로 들어와 마을에 있던 소를 끌고 가서 개미고개에서 터널을 뚫고 소를 잡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할 뿐이다.

새마을운동시기의 미곡1리는 신작로가 깔렸고, 지붕이 개량되는 등 다른 동네와 별반 다르지 않게 마을에 변화가 찾아왔다. 특히나 미곡1리 주민들의 상수도 사업은 다른 마을과는 조금 달랐다. 현재 미륵당 마을 도로 한가운데 위치한 샘물을 상수도 사업을 통해 수도물 대신 샘물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마을 주민들이 ‘오씨암’이라고 부르는 이 샘



〈웃샘〉

은 웃이 오른 사람이 이 샘물로 목욕을 하면 금방 나은 정도로 물이 좋고 맑았던 샘이었다. 새마을운동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마을 주민들은 식수로 이 물을 사용했는데, 새마을운동의 일환이었던 상수도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이 좋은 샘물을 수도물로 각 가정에서 사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계속 샘수는 샘물이라는 개념 때문인지 주민들의 사용량이 너무 많았고, 아래 동네에서 많이 사용하면 윗 동네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결국 빈번하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현재 미곡1리 주민들도 샘물 대신 수도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4. 전통민속

■ 미륵당이 미륵, 미륵제

미륵당 마을에서 매년 거르지 않고 하는 행사는 미륵제이다. 미륵당 마을이 위치한 곳이 군도1호와 경부선 철로 사이의 경작지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약 1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의 지명 유래가 된 미륵은 마을의 가장 안쪽의 민가 뒤 철로변에 남서향하여 세워진 미륵당에 모셔져 있다. 주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미륵제를 올리는데, 제관과 축관은 생기복덕을 가려 일진이 좋은 사람 각각 1인



〈미륵당에 모신 미륵〉

씩 선출하고 제물 비용은 동네기금이 아닌 정성에 대한 표시로 집집마다 걷어 마련한다. 제물로는 명태포, 백설기, 삼색실과 술을 준비한다.

미륵제 당일에는 미륵당에 황토 흙을 퍼서 놓은 후 축관과 제관이 목욕재계하고, 오후 3시쯤부터 제를 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현재는 편의상 오전에 제를 올리고 다같이 마을회관에 모여 주민들끼리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미륵제는 현재도 매우 엄격하고 신성하게 여겨진다. 부정한 사람은 미륵당 근처에 오는 것을 금지하고 마을에 부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제일을 연기한다.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은 다음 대주 1인씩 나이 차례로 소지를 올리는데, 객지에 나간 사람이 있으면 원하는 경우에 함께 올려준다. 제가 끝나면 풍물을 울리며 주민 모두가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한다.

현재 미륵제의 신격인 2기의 미륵을 발견하게 된 경위는 마을에 전설로 전해진다. 처음 마을이 형성되기 전에 연못이 있었고 집이 들어서면서 연못을 파보니 물속에 미륵이 떠있었다고 한다. 2기 중 하나는 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나머지 하나는 화강암석재로 만든 것으로 높이 96cm, 두께는

33cm의 규모였다. 뒷면은 편평하고 전체적인 조각 상태는 매우 조악한 편이나 손모양만은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다. 상현좌에 수인은 시무외인이고 코와 눈은 파손되어 인위적으로 눈을 그렸고, 관모를 쓰고 있다. 귀는 음각되었고 의습은 알 수 없다.

■ 조일말 느티나무제

미륵당 마을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전통을 이어 나가는 행사가 미륵제라면, 조일말 마을에서는 느티나무제가 행해지고 있다. 느티나무는 조일말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나무로서, 매년 정월에 마을의 안녕과 평안 그리고 풍작을 기원하는 마을제를 올리고 있다.

느티나무제는 매년 음력 정월 중 적당한 날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축관과 제관은 마을의 덕망 있는 연장자 중에서 생기복덕을 가려 일진이 좋은 사람을 뽑고, 부정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날짜를 연기한다. 제물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성껏 거둔 비용으로 삼색실과와 돼지머리, 백설기를 마련하고 제를 올리는 당일이 되면 축관과 제관은 목욕재계를 하고 오후 3시쯤 제를 진행한다. 소지는 대동소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주민의 요청에 의해 호별로 대주 한명만 올리기도 한다. 제가 끝난 후에는 서로 풍작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누고 풍악을 즐기면서 마을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느티나무〉

■ 느티나무를 다시 심은 사연

느티나무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느티나무는 현재 버스 정류장 옆 도로변에 있어서 마을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잘 보전되고 있다. 수고는 약 10m, 둘레 1.4m 정도로 계측되는데, 지정된 보호수는 아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원래 느티나무제를 지냈던 느티나무는 1970년대 후반 경에 느티나무 주변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마을 주민이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느티나무를 베어버리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이 있은 이후로 마을에서는 안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났다. 마을 주민이 교통사고로 죽는 일도 있었고, 느티나무를 베어버린 당사자에게도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결국 주민들은 다같이 느티나무제를 부활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그리하여 마을 뒷산인 까치산에서 느티나무인 묘목을 뽑아와 그 자리에 다시 심으면서 1년 만에 다시 느티나무제를 올리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느티나무제가 시작되면서 마을에 계속되는 우환은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다고 한다.

현재 마을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느티나무 보존문제이다. 30년 동안 잘 커오던 느티나무가 최근에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 주민들이 확인해 보니, 느티나무가 심어진 바닥에 콘크리트가 있어서 더 이상 나무의 뿌리가 자라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나무가 아프면 마을에 우환이

생길 것이 두려워 면의 협조를 받아 느티나무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전통적인 민속행사들이 미신이라는 이유로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일말의 느티나무제도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조일말 주민 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일말만의 고유한 민속행사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싶다는 것이 조일말 주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5. 생활환경

■ 마을의 이모저모

현재 마을의 가장 큰 행사는 한여름의 복날행사이다. 복날은 온 주민들이 다같이 마을회관에 모여 성대하게 점심을 먹고, 옷놀이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한다. 이뿐 아니라 어버이날에도 점심식사를 다같이 나누는 것으로 행사를 대신하고 있고, 마을 총회는 연말에 성대하게 치루고 있다.

마을 앞으로 넓게 펼쳐진 논이 말해주듯이 미곡1리의 마을 주민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농농사로 삶을 일구어 나가고 있다. 농농사 뿐 아니라 조일말에서 한우를 키우는 축산 농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삶은 조금 더 여유로워진 것이 사실이다. 마을 앞으로 드넓게 펼쳐진 논 때



〈조일말 노인회관〉



〈미륵당 마을회관〉



〈마을앞 논〉

문에 예로부터 미곡1리 주민들은 수려한 경치속에서 먹고 사는데 걱정도 없는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주변 동네 주민들의 질투를 받아왔다. 큰 걱정없는 마을주민들이 일구어 낸 삶 속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면, 2008년에 개최된 전동면민 체육대회에서 마을 주민들이 단합된 힘으로 거머쥔 준우승 트로피라고 한다. 이렇듯 미곡1리 주민들의 자량은 마을 주민들간의 끈끈한 단결력이다.

■ 마을에 하나뿐인 절, 보은사

마을에 하나뿐인 절인 ‘보은사(普恩寺)’는 가재울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다. 현재 이 절을 지키



〈체육대회 준우승 트로피〉

고 있는 지성(志成)스님(본명 박용현, 82세)과 이장을 맡고 있는 박상호씨의 말에 의하면 광복이 되고 얼마되지 않은 1948년에 당시 보은사가 위치한 산의 주인이던 박항래씨(당시 전의면장)가 수양딸을 위해 절을 지은 것이라고 한다. 보은사가 위치한 가재울골은 왼편으로는 운주산과 오른편으로는 까치산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숲이 울창한 조용한 곳이다. 절을 지을 당시에 숲이 울창해서 호랑이를 잡을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박항래씨의 수양딸인 박도순씨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수양딸이 이 절에서 기거하게 되면서 보은사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주민들은 박도순씨를 ‘박보살’이라고 부르면서 마을에 위치



〈도움주신 분들〉



〈보은사〉

한 이 절에 자주 왕래했다. 당시의 보은사는 지금 처럼 절이라는 개념보다는 박보살이 무당처럼 주민들의 사주팔자를 알려주는 무속신앙과 비슷한 측면이 많았다고 한다. 1990년대 중반 박보살이 이승을 떠나면서 보은사에서 같이 생활하던 지성스님이 승계받아 지금까지 보은사를 지키고 있다. 지성스님은 보은사에 오기 전에 수원에서 수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은사를 찾는 신도들의 대부분은 전동면 주민들보다는 수원이나 서울에서



〈대웅전〉

내려오는 신도들이 대부분이다. 처음에는 안방에 부처를 모시는 등 작았던 절을 지성스님이 대웅전을 1990년 후반에 건립하고 절을 개보수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성스님은 앞으로도 계획이 크다. 멀리서 찾아오는 신도들을 위해 현재의 절을 조금 더 넓히는 공사를 하고, 불교대학에서 수료를 마친 부인과 함께 보은사를 좀 더 크게 키워볼 생각이라고 한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박 상 호	65	남	농업	011-490-3208 / 863-3208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193	91	102	58	40	18	80.99	39.67	21.49	19.83	-
특산물 : 고추					축산물(두) : 한우(200여두)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	조일말(지곡)	황 기 선	31	863-2674
2	미륵당(미당)	박 종 만	24	863-3240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노 인 회	명 계 덕	지 도 자 회	박 종 만
할 머 니 회	김 옥 삼	부 녀 회	홍 재 희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경로당)	218-7	141m ²	40m ²	1994	명 계 덕
할머니경로당	344-3	233m ²	78.11m ²	2010	김 옥 삼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이 창 동	73.2.1	77.8.3		9	박 상 호	91.6.1	93.6.1	
2	김 동 식	77.8.5	79.3.1		10	박 상 호	93.6.2	95.2.20	
3	이 창 동	79.3.1	83.1.27		11	염 형 택	95.2.21	99.1.4	
4	김 수 진	83.1.27	85.3.5		12	이 규 홍	99.1.4	04.3.14	
5	고 영 수	85.3.15	86.1.20		13	염 형 택	04.3.15	06.3.15	
6	김 일 학	86.1.20	88.1.20		14	염 형 택	06.3.15	07.1.31	
7	김 일 학	88.1.21	89.5.31		15	박 상 호	07.1.31		
8	박 상 호	89.6.1	91.5.31						

미곡2리

미곡2리는 전의면과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고, 전동면의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로 전동면사무소에서 약 7.4km 떨어져 있다.



1. 마을개관

미곡2리는 전의면과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고, 전동면의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로 전동면사무소에서 약 7.4km 떨어져 있다.

미곡리 일대는 운주산에서 남주한 능선의 하단 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마을 앞으로는 ‘조천(鳥川)’이 흐른다. 미곡2리는 미호천으로 유입되는 상류 지역에 해당한다. 마을은 전의면과 전동면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동쪽은 노장리, 서쪽은 전의면 동교리, 남쪽은 송성리, 그리고 북쪽은 봉대리와 접해 있다.

본래 전의군 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당리, 미당리, 지곡리, 수구동을 병합하여 미당과 지곡의 이름을 따서 미곡리라고 하고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원래 이 지역은 계곡(溪谷)에 풍류(風流)가 있어서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마을로, 운주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미곡2리는 운주산이 마을 전체를 굽이굽이 산줄기가 감싸고 있어 아늑한 느낌을 준다. 마을에 전해지는 전설과 지명 그리고 백제시대의 유물산포지, 안동김씨와의 인연 등 여러 유적과 유물들이 마을의 오랜 역사를 대변해 주고 있다. 특히 마을 전언에 의하면 미곡2리의 뒷산에 해당하는 운주산의 지형이 호랑이가 누워 있는 형국이다. 풍수지리

설에 의하면 호랑이는 숲이 무성해야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하고 하는데 이 말은 운주산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서남향을 하고 있는 미곡리의 주요 소득원은 벼농사이고 생활권은 전의면과 접하고 있는데 교통도 편리해 전의, 천안의 직장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학당이 마을에는 몇해전부터 전원마을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있다.

2. 지명유래

미곡2리에 전래되는 지명유래는 1974년에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총람』과 마을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건너뜸 샘 : 바가지를 이용해 식수를 길던 곳임.
- 고산나들 : 전원주택단지에서 학당이 마을로 내려 오는 골짜기.
- 곱들깡 : 학당이 마을 뒤 우측방면으로 옛날 이곳에서 곱들(무던돌)이 많이 나왔음.
- 구렁밭 : 무속골 마을 서쪽으로 산중턱에 있는 밭으로 음달밭이라고도 함.
- 굴멍 : 다마니 밭 옆쪽으로 굴이 있어서 이름 붙여짐.
- 귀신바위 : 운주산 삼천굴 옆에 있는 바위로 3000명이 죽어 귀신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임.



〈고산나들 전경〉



〈구렁밭 전경〉



〈귀신바위 전경〉



〈다마니밭 전경〉



〈대자루 골짜기 전경〉



〈새뜸 마을 전경〉

- 노적봉 : 학당이 앞에 있는 봉우리로 옛날에 이곳에 부자가 살았다고 전해짐.
- 다마니 밭 : 무속골 골짜기에 있는 밭으로 현재는 묵고 있음.
- 대자루 골짜기 : 학당으로 가는 골짜기.
- 대자루 툽병 : 무속골과 학당의 물이 합쳐 지는 곳으로 툽병이 있었음.
- 무속골 : 수구동이라고도 하며 처음에는 피숫골이라도 불리었음.
- 무속골 샘 : 무속골 사람들의 식수로 사용하던 곳인데 두레박을 이용해 물을 길던 곳으로 무속골에는 3개의 샘이 있었음.
- 바탕고개 : 무속골에서 전의로 넘어가는 고개.
- 병풍바위 : 운주산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모양의 바위.
- 삼천암(三千岩) : 운주산 중턱에 있는 바위임, 임진왜란때 이 바위에 3,000명이 피난하였다가

- 왜적에게 발각되어 모두 피살되었음.
- 새뜸 : 신동(新洞)이라고도 하며, 조일말 동북쪽에 새로 된 마을.
- 안렴사유허비 : 학당이 앞에 있는 비(碑)를 안렴사유허비라 부름. 이 비(碑)는 안렴사(按廉使)였던 김휴의 사적을 기록한 유허비(遺墟碑)임.
- 연거지 논다랭이 : 무속골 마을 안쪽으로 있는 논.
- 열세마지기내글 : 연거지 논다랭이 부분으로 논 열 세마지기를 뜻함.
- 운주산성(雲住山城) : 미곡리(美谷里)에 운주산정(雲住山頂)에 있는 산성을 운주산성이라 부름. 예전에 전성부사(全城府使)가 있을 때 목민(牧民)을 다스렸던 산성임.
- 잔등밭 : 구렁밭 위의 산잔등이란 뜻의 잔등밭으로 양달밭이라고도 부름.
- 처막골 : 수구동 마을 안쪽으로 좌측 끝 골짜기

기를 말하며 장수남매의 치마바위와 관련지어 불림.

- 치마바위 : 처막골에 있는 바위로 이곳에 장수남매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음.

- 큰골 : 수구동 우측 끝에 있는 골짜기로 방아골이라고도 했으며 운주산 올라가는 고랑이며, 골이 크다 하여 큰골이라고 함.

- 텃굴 : 새뜸 앞에 위치함.



〈논다랭이 전경〉



〈잔등밭 전경〉



〈큰골 전경〉



〈학당이 마을 전경〉



〈학당이고개 전경〉

- 학당고개 : 학당에서 동교리 상정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학당리(學堂里) : 미륵당이 동북쪽 산 속에 있는 마을, 학당리 또는 학당이, 학당이라 부름.
- 학당이 샘 : 학당이 마을에 있는 샘으로 2개의 샘이 있음.

3. 역사와 변천

■ 운주산 정상에 묘를 쓰면 자손이 잘 된다.

예로부터 마을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운주산 정상에 조상의 묘를 쓰면 자손들이 번성한다고 한다. 미곡리 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도 명당자리라고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모르개 산에 올라 산소 자리를 마련해 두고 묘를 쓰고 가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운주산에 묘를 쓰면 마을에는 어김없이 가뭄이 들었다. 농번기에도 비가 오지 않아 벼를 심을 수가 없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럴때면 마을 어르신들 서너명이 어김없이 운주산에 올라 주변을 살펴보면 항상 새로운 묘가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즉시 묘를 파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가뭄이 해소되었다. 지금도 전통면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면 “운주산에 묘 썼나”라는 말을 한다.

■ 피숫골 전설

전동면 미곡2리 수구동(피숫골)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 옛날부터 피난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금의 미곡리 일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미곡2리는 전의, 전통지역은 물론 멀리 천안과 맞닿아 있어 그 주변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는데, 박도령이라 불리는 소년도 마을에 들어왔다. 박도

령은 나이 열 살로 목천에서 부모와 함께 미곡리로 피난을 왔다. 주위에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피난장소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왜구들이 마을의 피난민을 에워 쌓고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고 소리치며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렀다. 주위는 순식간에 붉은 피가 내를 이루듯 참혹한 광경이 벌어졌다.

박도령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리저리 왜구를 피했으나 결국 왜구의 칼에 맞아 아버지는 쓰러졌고, 어머니 역시 칼에 찔려 붉은 피가 흰옷을 물들였다.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옆의 사람이 쓰러지고 시체는 겹겹이 쌓여 갔지만 박도령은 아버지가 잡은 손과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앞을 가려 왜구의 시퍼런 칼날을 피할 수 있었다. 그때 마구 뛰어다니며 칼을 휘두르던 왜구들 사이에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외는 중이 눈에 띄었다. 박도령은 그 중의 얼굴을 푹푹히 바라보았고, 부모가 무참히 죽었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고 오직 훗날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했다.

왜구들은 이제 더이상 생존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청주 쪽으로 떠났다. 박도령은 주위가 어두운 것을 틈타 도망쳐 고향인 목천으로 향하였다. 박도령은 목천에 닿자 마을사람들을 모아놓고 전통의 미곡리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알려주었고, 이 소식을 들은 청년들은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그들은 상의한 결과 왜구가 목천에 당도하기 전에 기습공격을 하여 목천에 오기 전에 교란시키자는 것과 그 사이 목천 사람들이 산 속으로 피신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박도령과 결사대는 왜구가 올만한 곳으로 향하였고, 산줄기를 타고 소정리에 와서 전통의 미곡리에서 주민을 살해했던 왜구를 만났다. 왜구는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청주 쪽으로, 다른 한 패는 목천 쪽으로 향해 오다 소정리에서 천막을 치고 쉬고 있었다. 결사대는 주위가 어둡기를 기다렸다가 밤이 되자 왜구의 천막으로 숨어들었다. 우선 중이 묵고 있는 천막을 찾아 박도령이 안을 들여다보니 중이 혼자 앉아 염불을 외

고 있었다. 박도령은 숨을 죽여 가까이 가서 준비한 칼로 중의 목을 향해 힘껏 내리쳐서 중을 죽였다. 다른 청년들은 각각 천막을 습격하여 높은 왜장을 죽이고 천막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삼시간에 왜구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왜장이 죽었다고 하자 살아난 왜구는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박도령은 청년 한 명과 같이 죽은 중을 밖으로 끌어내고 모두 불살라 버렸다. 박도령과 청년들은 중의 시체를 들고 전동의 미곡리에 와서 중을 거꾸로 매달고 까마귀밥이 되도록 했으며 부모와 피난민의 영혼을 위해 청년들이 모두 절을 하며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박도령과 결사대는 왜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밤에 기습공격을 하여 왜구들을 괴롭혔다. 박도령이 죽인 왜구의 중만 하더라도 십여 명이 되었고, 사무친 응어리 때문에 죽인 중들을 모두 거꾸로 나무에 묶어 놓았다. 피난처로는 가장 좋다고 해서 각지에서 몰려들었던 전동면 미곡리, 중의 염탐으로 인해 수많은 피난민이 목숨을 잃었고 작은 내가 온통 붉은 피로 물드는 잔인한 광경으로 인해 그때부터 그곳을 ‘피숫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 삼천명의 피난골 ‘삼천바위’

전동면 미곡리 운주산의 중턱에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삼천 바위’라고 부르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임진왜란때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왜구를 막을 수 없어 백성들은 너나없이 피난을 떠나야 했다. 그때 백성들 사이에서 명당자리로 피난을 가면 살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피난민들이 운주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왜구는 삼시간에 전의를 점령하고 피난민을 쫓아 운주산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운주산 중턱에는 커다란 바위가 한 개 있었는데 그 밑을 보니 굴이 뚫려 있었다. 이 굴이 어찌나 큰지 천원군(현재 천안군) 목천과 수신까지 통했다. 피난민들은 너나없이 그 굴로 숨어들었다. 그 숫자가



〈삼천바위 전경〉

자그마치 삼천명이었다.

한편 운주산으로 몰려온 왜구들은 감쪽같이 사라진 피난민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분명히 운주산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피난민들을 보았는데 목전에서 사라진 것이다. 왜구들은 조를 나누어 온 산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큰 굴이지만 삼천 명이나 들어왔으니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밖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꼼짝없이 숨어 있어야 했다. 피난민들은 이곳이 명산이라 산신령께서 보호하시리라 믿고 있었다. 그런데 굴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한 아낙네가 산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낙의 신음소리 때문에 금방이라도 왜구들이 올 듯했다. 사람들은 돌로 굴의 입구를 막고 침묵을 지켰다. 굴 밖에서 왜구들이 서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하필이면 산모가 아기를 낳아 아기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갔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왜구들이 피난민이 여기에 있다고 굴의 입구를 막은 돌을 헐고 마구 총질을 해댔다. 피난민들은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왜구들이 쏘는 총탄에 맞아 모두 죽었다.

그 후 삼천명의 피난민이 떼죽음을 당했다 하여 이 바위를 ‘삼천암’ 또는 ‘삼천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

■ 치마바위에 얽힌 전설

치마바위는 삼천바위 아래에 있는 바위로 그 주



〈치마 바위가 있는 처막골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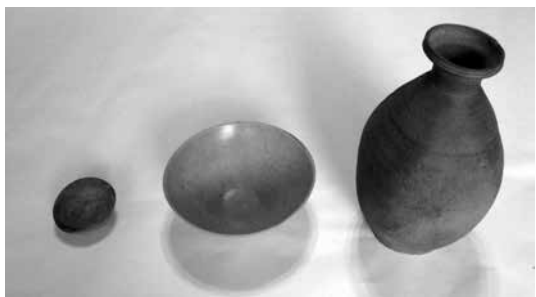
〈새뜸 마을 전경〉

변은 잔돌이 모여 큰 바위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다. 이곳에는 남매 장사 이야기가 전해 온다.

옛날 남매 장사가 있어서 한 집안에 두명씩 장사가 있으면 안된다는 어머니의 판단에 따라 서로 목숨을 걸고 언약하고, 내기를 하였다. 남동생은 목매기 송아지를 끌고 서울에 갔다 오기로 하고, 누이는 운주산에 성을 쌓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누이는 거의 산을 다 쌓아 마지막 돌 하나만 남겨 두고 있었다. 어머니가 보니 아들이 질 것이 분명하므로 그를 구하기 위해, 뜨거운 국밥을 딸에게 권하여 먹이는 동안에 그 아들이 돌아와, 그 딸이 깜짝 놀라 치마에 짚 돌을 산기슭에 쏟아 놓아서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 새뜸 마을의 오랜 역사

새뜸 마을은 ‘운주산’의 남향사면 하단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서쪽으로 약 200m의 거리에 유물산포지가 위치한다. 유물의 산포가 확인된 지역은 전방으로는 ‘조천(鳥川)’이 흐르고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지형이다. 현재 이 지역은 능선의 중하단부는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으며, 그 위쪽으로는 자연 산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근래에 민가를 새로이 짓고 주변을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형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학당이 마을에서 발견된 토기들〉

지표면 답사를 통해서 원삼국~백제기로 편년되는 다량의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이는 경작지로 개간하거나 산사면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매장되어 있던 유적이 훼손되면서 유물이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몇몇개의 편들이 마을 주민에 의해 보관되고 있다.

수습되는 유물은 모두 토기편인데, 적갈색조의 연질소성된 것과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모두 확인된다. 표면에는 격자문, 집선과 횡침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태토는 굵은 입자가 포함된 점토로 거친 것이다. 기형은 대체로 발형토기와 호형토기편으로 추정되는데, 일부 연질토기의 경우 불에 그을려서 생긴 흑반이 기 내·외면에서 확인된다.

또한 마을 전언에 의하면 학당이 마을 뒤편 논을 개간할 당시 여러 토기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미곡2리의 유적은 정확한 유적내용은 알 수 없으나 미곡1리의 미륵명이 유물산포지와 비교할 수 있는 생활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미곡리 마을의 오랜 역사를 대변해 주는 유적이다.

■ 안동김씨와 연기의 인연

미곡2리의 3반 학당이 마을은 안동김씨 전서공파(典書公派)가 연기에 처음 터를 잡은 곳이다. 현재 안동김씨 재실인 ‘학당재(學堂齋)’가 위치한 곳이 처음 자리 잡은 터라고 전해진다. 학당이는 운주산의 중턱에 자리잡은 마을로 흔히 운주산은 호랑이 형국이라고 일컬어지는데 학당이는 호랑이의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

입향조는 안동김씨 중시조인(中始祖)인 충렬공(忠烈公) 김방경(金方慶)의 현손이며, 전서공파(典書公派) 파조(派祖)인 성목(成牧)의 아들 휴이다. 정확한 입향연대는 전해지지 않으나 후손에 의하면 선대부터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살았는데, 고려가 망하자 절의를 지키고자 아버지인 성목, 그리고 두 아들이 곧바로 고향에 내려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위로 연기군으로 낙향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전해오는 문헌은 없다. 다만 후손의 전언과 1997년에 발행된 『연기지역 충렬공의 후예들』에 의하면 안동김씨 중시조 방경(方慶)의 둘째 아들인 김흔(金忻)장군이 합단적을 물리친 곳인 연기군 서면의 ‘연기대첩’에 참전하여 공훈을 세웠던 인연도 결코 배제하여서는 곤란할 듯하다고 한다. 그리고 고려 말의 안동김씨들은 충

렬공 김방경 부자의 행적이 보여주는 것처럼 국권의 중심부에 있었다. 따라서 고려 말의 인연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새로운 세력에 의한 조선 건국에 동조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안동김씨는 관직을 버리고 연기로 이거해 터를 잡고 살았다. 그러나 현재 마을에는 안동김씨는 한 가구도 살지 않는다. 대부분의 연기에 세거하는 안동김씨들은 현재 김휴의 아들들이 장성하여 주변 마을인 전의면 양곡리로 분가하였다. 전의면 양곡리에 90% 이상이 살고 있으며, 주변 마을인 영국리와 달전리에 후손들이 많이 분파하여 안동김씨들이 80% 이상 터를 잡고 살고 있다. 특히 양곡리에는 김휴의 둘째 아들인 김익정의 정려비가 건립되어 있다.

■ 학당이 마을 지명유래

입향조인 성목의 아들 김휴의 호는 학당(學堂)으로 고려 공민왕 때에 검교로 있으면서 왕을 시종하였다. 어려서 포은 정몽주에게 수학하였고 조선



〈재실 현판〉



〈김성목 묘소에서 바라본 학당리 전경〉



〈안동김씨 재실〉

개국 후에는 전의 운주산 밑 학당이(전동면 미곡리 학당)에 은거하였다. 태조는 호군에 임명하지만 그는 노친을 봉양한다는 구실로 사퇴하였다. 그러자 태조는 다시 가선대부한성부판윤에 임명하였는데 이때도 그는 끝내 새로운 조정에 나아가지 않고 향리에서 후학에만 힘을 쏟았다. 그는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충·효·열 삼강의 도리를 실천하여 주위의 칭송을 들었다고 한다.

김휴의 문하생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 인근에 사는 유림들이 깊은 뜻을 새기기 위하여 그가 살던 마을 이름을 김휴의 호(號)를 따서 학당이라 불리게 되었다. 현재 학당마을에는 김휴의 묘소를 비롯해 안동김씨 문중묘역과 재실, 그리고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 학당이의 유적들

학당이 마을에는 안동김씨와 관련한 유적들이 있다. 마을 입구에는 김휴의 신도비가 서 있다. 신도비의 전면 좌측 중간부분에는 한국전쟁때 총탄 파편에 의해 일부 파손된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다.

학당이 마을 뒤편 구릉에는 안동김씨 재실과 묘소가 위치한다. 재실이 위치하는 곳은 성목이 처음 미곡리에 자리 잡았던 터로 전해지는 곳으로 1990년대 초반에 중중회의를 거쳐 지어졌다. 이곳에서 시제를 준비하며, 문중 일을 도모하고 있다. 시제

는 매년 음력 10월 초 정(丁)일날 지내고 있으며, 연기군을 비롯해 주변에 거주하는 전서공파들이 50여명 이상 참여하고 있다. 묘소 제일 상단부에는 김성목의 부친인 장령공 구(玖)의 단비가 건립되어 있는데 묘소의 위치를 알 수 없어 비만 건립하여 세워 모시고 있다. 그 아래로는 김성목과 김휴의 묘가 자리 잡고 있다.

김성목의 묘비는 구비는 무오년에 건립된 것이고, 김휴의 묘비는 1819년(순조 19)에 세워졌다. 그 후 안동김씨 종중에서는 1992년 구, 성목, 휴의 묘비를 새로 새웠으며 묘 주위를 호석으로 둥글게 둘렀다.

낮은 구릉에 자리 잡고 있는 안동김씨 묘소는 전체가 잔디로 둘러져 있고, 평탄하며 전의와 맞닿아 있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의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소풍 장소였다.

■ 검교공(檢校公) 휴(休)의 유허비(遺墟碑)

유허비는 1819년(순조 19)에 세웠는데, 유허비 건립은 후손으로 전의현감으로 부임했던 규한(奎漢)이 주선하였으며, 그 후 후손 광순(光淳)이 1896년(고종 13) 2월에 개각했고 이 유허비는 동지들이 세워줬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의 6대손이자 가선대부 대사헌 이조참판(嘉善大夫 大司憲 吏曹參判)을 지낸 강재(剛齋) 송치규(宋禔圭)가 찬(撰)하였으며, 뒷면의 행



〈김성목의 묘와 묘비〉



〈김휴의 묘와 묘비〉



〈김휴 유허비〉

장은 외후손(外後孫) 삼주(三州) 이채(李采)가 찬(撰)하고 연안 김광(延安 金鑛)이 서(書)하였다. 순조(純祖 19년, 1819)대에 세웠는데, 유허비(遺墟碑) 건립(建立)은 후손으로 전의현감(全義縣監)으로 부임(赴任)했던 규한(奎漢)이 주선하고, 그 후 후손 광순(光淳)이 고종(高宗 13년, 1896) 2월에 개각했고 이 유허비는 동지들이 세워줬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비(碑) 전면(前面) 내용을 살펴 보면,

전의현(全義縣) 동쪽 운주산(雲住山) 아래 학당동(學堂洞)은 고려때 검교공(檢校公)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나서 마음을 편안히 살던 곳이라, 공(公)의 이름은 휴(休)요, 자(字)는 연부(鍊夫)니 안동인(安東人)이다.

공이 서울에서 화려한 가문(家門)으로 급제(及第)를 해서 조정에 벼슬했는데 포은(圃隱) 정선생(鄭先生, 정몽주)이 죽으매 만육(晩六) 최양(崔 養,全州人)과 같이 대궐문을 나오면서 통곡을 하며 이별(離別)을 하고, 각각 자기(自己) 고향(故鄉)에 가서 은거(隱居)했다. 이 두분은 정 포은 선생 문하에서 다 같이 학문을 배웠는데 공은 세상에 벼슬할 뜻을 단념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학문을 강마 하는 것에 힘썼는데, 조선이 들어서면서 태종대왕이 누차 벼슬을 즐려고 불렀으나 끝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돌아가셔서 여기에 장사를 지냈으니 대대로 동네 이름을 전하기를 공이 있을때 부터인데 공의 실적을 인해서 아! 문헌이 전하지 아

니해서 공의平生 실적을 상세히 알 수 없는지라 모든 족보와 읍지에 기재된 것을 상고해서 대절에 우뚝함이 나타나 있는 즉 나머지 일은 알수 있도다. 공이 대현 정 포은을 스승으로 섬겨서 일찍이 높은 절개와 지극한 행실이 칭찬 할만 하고 이와 같이 성취를 했으니 그 학문에 올바름을 가히 알 수 있도다. 민몰되어 전함은 없으나 그러나 후손들이 충효로서 정려에 표창을 많이 받았고 외손인 즉 평양 박팽년(朴彭年) 사육신(死六臣)은 태양(太陽)에 다음듯한 곧은 충성(忠誠)과, 타우(打愚) 이문목(李文穆) 공과 도암 이문정(李文正) 공의 도학이 세상에 유명 했으니 누군들 영지(靈芝)가 근거(根據)가 없다 하고 예천(醴泉)이 근원(根源)이 없다고 하리오.

공의 후손들이 장차 비석을 세워 그 유허를 표시 하려고 할새 나에게 와서 음기(陰記)를 기록(記錄)해 달라고 하는 자는 규한(奎漢), 인기(仁基)이라 내가 누추(陋醜)하고 용졸(壘拙)함으로 사양(辭讓)해도 되지 아니해서 대략 이렇게 써서 돌아가 새기도록 하노라.

승전기원후네번째 기유(己卯, 1819년 5월)에
은진(은진) 宋穉圭(송치규)는 짓노라

이 유허비의 내용은 안동김씨 전서공파의 카페(<http://cafe.naver.com/andongkimjeon>)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 수록하였으며, 이글은 안동김씨(安東金氏) 전서공파(典書公派) 파보(派譜)에 실린 글을 옮겨 쓴 것이라고 한다.

4. 전통민속

■ 운주산 고산제

운주산에서 열리는 백제고산제는 매년 음력 9월 8일을 전후하여 열리고 있다. 9월 8일은 1300여년 전인 663년 백제부흥군이 멸망한 날이다. 고산사의 최병식 원장을 주축으로 마을사람들이 모여 고산제를 지내는데 최병식 원장은 백제 사람들의 치열한 전투에서 나라를 수호하고자 하는 충정으로 싸우다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주어야겠다는



〈의자왕 의혼비(고산제를 지내는 곳)〉

마음으로 진혼굿을 열기 시작한 것이 고산제의 시작이다. 1994년에는 운주산 정상에서 팔도의 유명한 무당들을 불러 진혼굿을 올렸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해마다 10월이면 백제 고산제를 지내고 있다. 고산제(高山祭)라 부르는 것은 운주산의 원 이름이 고산(高山), 고산산성(高山山城)에서 붙여진 것이다. 1996년 운주산 중턱에 고산사(高山寺)라는 사찰을 창건하였는데 예전에는 정상이나 중턱에 지어진 정자, 산 아래 주차장에서 천막을 치고 지내던 제를 사찰이 지어지면서 고산사에서 제를 지내고 있다. 또한 단순히 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미곡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뜻을 기리며 백제와 관련된 세미나, 책자 발간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마련해 사람들의 참여를 돕고 있다. 때문에 주변지역 사람들은 연기지역의 백제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제를 지내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절을 지은 창건주인 최병식 원장이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백제고산제는 연기지역 백제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행사이며 연기군에서 가장 높은 산인 운주산을 더욱 신령스럽게 하고 있다. 가끔씩 무속인들은 이곳의 기운이 좋아고 하여 기도를 하고 기를 받는다고도 한다.



〈백제삼천범종〉

■ 무수골 산신제

무수골 마을은 표고 400m의 운주산이 서남주한 능선의 서향한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산신제는 마을 뒤편의 운주산을 향해 올린다.

매년 양력 2월에 날을 잡아 산제를 준비하는데, 축관과 제관은 생기복덕을 가려 일진이 좋은 사람을 선출하며, 이들은 산제를 지내기 2~3주 전부터 외부의 출입을 삼가며, 비린것을 먹지 않는다. 산제를 지낼 무렵 마을 입구에 금줄을 치고 경계하는데, 이 때 손님이 들어오면 산제가 끝나기 전까지 마을을 떠날 수가 없다. 또한 그 기간에 부정한 일이 생길 경우 제일을 연기한다. 산제를 지내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산에 샘이 있어서



〈무수골 마을 전경〉

꼭 이 샘물로 산제때 쓸 술을 담그고 또 떡과 밥을 짓는다.

산제 당일이 되면 제물로 삼색실과·통돼지·포·떡을 준비하고 자정 무렵에 지계에 짐을 지는 사람 2명과 축관, 제관 서너명만 산에 오른다. 제물을 진설하고 술 3잔을 올린 후 축문을 읽고 소지를 올린다. 제가 끝나면 잔을 붓는 사람이 먼저 음복하고 마을로 내려와 주민 모두가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렇게 이어져 오는 산제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마을 이장이나 유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주산의 일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제비를 내어 진행하고 있다.

■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와 초복날 ‘복’잔치

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곡2리는 3년전부터 마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지만 이장님이 바뀌면서 1년에 한번 씩 날을 정해 마을 잔치를 벌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잔치는 정월대보름날의 척사대회로 시작을 알린다. 새뜸, 무숫골, 학당이 3개반의 사람들이 모두 마을회관 앞에 모여 반 대항으로 윷놀이를 하는데 농기구, 자전거, 생활용품 등을 놓고 대결을 한다. 대결 중간중간에는 마을의 노인 회원들이 풍물을 치면서 즐기며, 부녀회에서는 음식 준비를 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한해의 시작을 함께 하는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복을 나누며,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고 있다.

바쁜 농사일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고 숨을 돌릴 때 쯤이면 초복날이 다가온다. 마을에서는 이장님과 부녀회, 그리고 개발위원회가 합심하여 ‘복’ 잔치를 열고 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름철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마을회관에서 삼계탕을 끓여 대접한다. 한여름 뜨거운 햇살이지만 그동안 농사일로 정신없이 보냈던 몇 달 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 점심 식사를 한다.

■ 서낭당

미곡2리의 새뜸 마을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그러나 마을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나면서 현재 느티나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느티나무는 마을에서 서낭당이라고 불렀는데 정월 열나흘날 마을 사람들이 제를 지냈던 곳이다.

제에 필요한 음식 준비는 보통 부녀회에서 마련하는데 삼색실과와 떡 등 기본적인 것만을 올렸다. 보통 날이 어두워질 무렵 마을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는데 일년 농사와 마을의 평안과 마을주민들의 건강을 빌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낭당 아래에는 주점이 자리하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가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 서낭당에는 호랑이와 관련한 다른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어느 날 서낭당제를 지내는 느티나무의 가지가 늘어져 있어서 마을사람이 그것을 베어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져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맸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영험함 서낭당의 느티나무 가지를 베어 호랑이가 업어갔다는 말이 전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전의 근처의 산에서 그 사람을 찾아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후에 죽었다고 한다.



〈서낭당이 있었던 곳(현재는 도로가 나 있음)〉

5. 생활환경

■ 백제부흥운동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고산사(高山寺)

전동면 미곡리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고산사는 오래된 절은 아니지만 남다른 사연을 가진 곳이다. 운주산 남쪽 골짜기의 터를 잡아 백제 부흥군의 원혼을 위령하고자 1997년 10월에 창건된 사찰이다. 절을 창건한 사람은 고고학자인 최병식 원장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연기군과 인연을 맺게 되어 절을 창건하게 되었다. 연기와 최병식 원장의 아버지인 최익주씨는 운주산 주변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평소 조경에 많은 관심이 있어 운주산을 더욱 푸르게 하자는 취지로 미곡리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운주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마을 입구의 고산사 표시석〉



〈고산사 극락전〉

주변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로는 그때 심었던 나무들이 20년 넘게 자라 운주산의 나무가 많아 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운주산과 인연이 되었고 마을 입구에 자리 했었던 암자를 지금의 위치로 옮겨 고산사라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도 수는 300여 명이며, 매년 음력 9월 7일을 전후하여 백제 부흥군을 위령하는 행사인 ‘백제 고산제’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에 17회를 맞이 하였으며, 고산사 광장에 모여 참가한 사람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백제문화에 대해 알리고 있다.

■ 지게 짐 지고 30리

운주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미곡2리는 산성의 영향인지 눈, 발에 돌이 많아 개간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벼 농사만으로는 끼니를 해결하기 힘들어 1930년대 무렵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나없이 나무장사를 해 생활했다. 운주산이 있어 나무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매일 30리 이상 떨어져 있는 조치원장에 걸어가서 팔아야 했다. 어떤 날은 나무를 하는 시간 보다 시장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정도였다. 보통 나무는 그 전날 해다가 새벽에 장으로 출발을 했는데 마을 앞으로 지나는 경부선 철도를 따라가면 조치원에 다다를 수 있었다. 거리가 멀어 여러 명이 짝을 지어 말동무를 하면서 장으로 향했는데 그때 지게에 나무를 싣



〈조치원장으로 나무 팔러 가던 길이 잘 남아 있다.〉

고 솔가지를 손에 들고 장으로 가는 나무꾼들의 행렬이 장관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장에 도착을 해도 사정은 여의치가 않았다. 힘들게 나무를 지고 왔지만 팔리지 않아 헐값에 넘기는 일도 다반사였고 간신히 사정사정해서 돈을 받으면 기다리는 식구들 생각에 보리쌀을 팔아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야했다. 당시에 한집에 식구는 5~6명이 기본이었고, 나무값을 받은 보리쌀로는 어렵도 없어 물을 부어 죽으로 만들어 간신히 입에 풀칠하기에 급급했다고 한다. 이러한 나무 장사는 1970년대 나무를 대신하는 연료가 등장하면서 서서히 줄어들었다.

■ 운주산, 운주산과 함께하는 사람들

운주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미곡2리는 운주산과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특히

운주산 정상 부근 현재 운주산 숲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80년대 후반까지 마을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성터가 복원되어 있는 바깥쪽에는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 마을에서는 이곳을 산 아래 사람들이라 불렀다. 이곳은 운주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흐르는 청청지역으로 개구리가 많아 동네 사람들이 개울에서 개구리를 잡아 끓여먹기도 했다. 이곳 산 아래 사람들은 추수를 하고 그 쌀을 방아를 짚으려면 소 질마에 얹어 10리 거리의 운주산 길을 오르내리기도 했다. 거리상 전의면과 접해 있어 대부분의 생활권은 전의면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중반쯤에는 이곳에서 사람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산 속 깊은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 사람출입을 잘 알 수가 없어 통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의 왕래도 쉽지 않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운주산성 내의 사람이 살던 집터〉



〈운주산성 입구〉



〈생태 숲 공원 전경〉



〈첫 번째 코스 길〉



〈두 번째 코스 길(신현복 이장님)〉



〈유적이 발견된 곳은 철망을 둘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에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백제의 얼 상징탑〉



〈고유문을 새긴 기념비〉



〈운주산에 내려본 전동면 일대 마을 전경〉

잘 알 수 없었다.

특히 1990년대에는 한참 무장공비들이 침투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산중에 있어서 간첩의 은신처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경찰서에서

수차례 와서 조사 한 후 철거하였다고 한다.

그 후 2009년에 연기군에서는 백제 유민들의 숨결이 살아 있는 운주산성을 생태숲 공원으로 조성하고 각종편의시설은 물론 광장과 전통연못, 관

찰로를 갖추고 정비하여 관광객들의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 가파르지 않아 봄에는 벚꽃길이,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 가을에는 붉은 낙엽이 장관을 이루며 겨울 또한 설경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운주산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미곡리 주차장에서 시작되는 등산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고산사를 지나 물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는 지름길과 운주산의 풍광을 감상하며 둘레길을 돌아보는 것이다. 첫 번째 코스는 오르막길로 계곡의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두 번째 코스는 완만한 경사이지만 운주산 둘레를 도는 길로 첫 번째 코스 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산성 입구에서 정상으로 오르는 길에는 백제, 고려, 조선시대의 기와편과 자기편, 그리고 집자리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 문화 공간이 되고 있으며, 주변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연기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정상에는 백제의 얼 상징탑이 있으며, 맑은 날에는 지리적으로 천안과 전의지역에 접해 있어 주변의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특히 운이 좋으면 청주는 물론이고, 멀리 아산만을 내려다 볼 수 있다.

■ 아직도 생생한 간이상수도 건설의 기억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미곡리도 예외는 아니



〈간이상수도의 흔적〉



〈문 우측에는 당시 참여 했던 마을 사람들 중 대표 이름이 적혀 있다.〉



〈1977년 2월 1일 기공이라는 글씨가 문(입구) 좌측에 새겨져 있다.〉

었다. 마을의 지붕 개량과 길 닦기, 다리 놓기, 밭의 경지정리 등 주민들이 동원되어 마을 살리기에 힘썼다. 특히 미곡2리는 운주산성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로 예로부터 밭이며, 논에 돌이 많이 있어 돌밭이라고 불리었는데 그만큼 농사짓기가 힘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운주산성의 돌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당시 미곡2리는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진행된 간이상수도 묻는 작업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우물이 마을마다 있기는 했지만, 또 산중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받아 쓰기도 했지만 그 물로는 식수조차 사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 후 마을 총회를 열어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고 수구동 아래쪽에 자리한 처막골 가는 길에 위치를 잡았다.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꼬박 한달을 넘게 일을 했다. 땅을 파면 팔수록 돌이 나와 일의 진행이 쉽지가 않았다. 삽으로 흙을 파내고 돌을 지게에 지어 날랐다.

한 가정당 한명씩 의무적으로 동원되었지만 불평 불만 있던 사람들 없이 자기일처럼 열심히 했다고 회상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땅을 파고 들어 갔을 때 커다란 바위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 당시만 해도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사람들이 돌을 징으로 바위를 깨고 뚫어 작업을 했다. 현재는 폐쇄되고 각 가정에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고 있다.

■ 마을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요즘 시골 마을들 대부분은 이촌향도 현상으로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나가 60~70대 노인들로 구성되어 인구가 줄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미곡2리는 사정이 다르다. 2~3년 전부터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만 해도 벌써 4가구가 늘었고, 마을인구는 150명 이상으로 주변 마을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한다. 이는 마을 앞으로 조치원과 천안을 잇는 4차선이 지나가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출퇴근 하기에 적당하며, 조치원과도 불과 12km 정도 떨어져 있어 불편함이 없다. 또한 3반 학당이 마을에는 몇 년전부터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미곡2리는 적당한 농토와 맑은 공기, 그리고 완만한 운주산 건강산책로, 넉넉한 인심의 마을 사람들까지 무엇이든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마을이다.



〈전원주택 단지 전경〉

■ 다시 시작된 마을 총회

미곡2리의 총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마을 전언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 마을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곡리 마을 주민이라면 가입되는 대동계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통을 이어오던 대동계는 1990년대에 없어지고 일부 주민들의 계모임 형식으로만 진행됐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일 기회가 흔하지 않고, 얼굴 보기도 힘들어 다시 마을 총회라고 이름짓고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장님의 주관으로 각 가정에 한명씩 의무적으로 미곡리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된다. 신입례나 다른 회칙은 따로 없으며, 12월 말쯤 이장님이 노인회, 부녀회와 상의를 해 날을 정하며, 오전 10~11 사이에 마을회관에 모여 회의를 하는데 일년동안 한해살이의 결산보고와 건의사항, 현안문제 등을 논의한다. 때에 따라서는 이장을 선출하는데 보통은 투표보다는 추대를 한다고 한다. 회의가 끝난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점심식사를 한다.

■ 마을조직

1960~70년도가 마을이 가장 번성했던 시절로 한가정에 대략 5~6명씩 식구들이 있었고 마을인구가 250여명 정도까지 늘어났을 때였다. 현재 3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곡2리는 1반은 새뜸, 2반은 무숫골, 수구동, 3반은 학당리로 60여 세대 가까이 마을을 이루고 있다.

마을 조직은 노인회, 부녀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10여년전까지만 해도 계장과 총무를 중심으로 각 가정에 한명씩 참여해 구성된 위친계가 있어 상을 당했을 때 서로 도와 큰일을 함께 했다. 그러나 장례식장이 생기고, 화장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상여를 쓰지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위친계도 사라졌다. 노인회는 마을의 큰 어른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관리하며, 부녀회는 마을주민들을 위해 향시에



〈아유회(2010년 봄)〉



〈단체사진〉



〈마을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



쓰고 있다. 이장을 중심으로 총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주도하여 일을 처리하며, 미곡2리는

단합이 잘되는 마을로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신 현 복	55	남	농사	010-3137-7861
임 재 현	52	남	농사	011-457-3719
조 병 일	-	남	축산업	010-4106-6818
김 일 학	70	남	농사	863-2002
남 춘 영	54	남	농사	863-3509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145	77	68	59	45	14	143.14	51.57	41.65	49.59	0.33
특산물 :					축산물(두) : 한우, 버농사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인구수	전화번호
1반	새뜸	손 동 화	13	30	868-3382
2반	무수골, 수구동	임 재 현	25	60	011-457-3719
3반	학당	장 만 준	20	50	862-7434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이 장	신 현 복	노 인 회	박 노 성
새 마을 지도 자	이 성 호	노 인 회 총 무	김 일 학
총 무	임 재 현	부 녀 회	송 명 순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	마곡리 144-1	330.579	99.174	1990	이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김 일 학	89.6.1	91.5.31		6	조 병 일	00.2.9	04.3.14	
2	김 일 학	91.6.1	93.6.1		7	조 병 일	04.3.15	06.1.9	
3	김 일 학	93.6.2	95.6.1		8	조 병 일	06.1.9	08.1.15	
4	김 일 학	95.6.2	98.2.1		9	신 현 복	08.1.15	11.1.15	
5	김 일 학	98.2.2	00.2.8		10	신 현 복	11.1.15		

보덕1리

보덕리는 조선 태종때 전의현에 속했다가, 그 후에는 전기현에 속했다가 다시 전의현에 속했던 마을이다. 이 지역에는 넓은 들과 큰 보가 있어 물이 좋았기 때문에 어느 마을보다도 농사가 잘 된다 하여 보와 들이 있는 '보들마을'이라고 불리던 것이 '보평마을'로 불리다가 현재의 보덕(寶德)이라는 지명으로 변하게 되었다.



1. 마을개관

보덕리는 조선 태종때 전의현에 속했다가, 그 후에는 전기현에 속했다가 다시 전의현에 속했던 마을이다. 이 지역에는 넓은 들과 큰 보가 있어 물이 좋았기 때문에 어느 마을보다도 농사가 잘 된다 하여 보와 들이 있는 ‘봣들마을’이라고 불리던 것이 ‘보평마을’로 불리다가 현재의 보덕(寶德)이라는 지명으로 변하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덕소리와 남면의 심천리, 보평리를 병합하여 보평의 ‘보(寶)’자와 덕소의 ‘덕(德)’자를 따서 보덕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도 보덕1리는 보평마을로 불리고 있으며, 마을 입구에서 주거지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넓은 들판을 한참 지나서야 다다를 정도로 마을 입구부터 넓은 들이 형성되어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이다.

현재 보덕1리는 통미, 윗말, 아랫말, 중뜸 4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입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들판과 마주한 정면이 통미, 그 옆으로 마을 회관이 자리한 곳이 아랫말, 아랫말 뒤편으로 중뜸과 윗말이 둥구렇게 마을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마을 앞으로는 송곡천과 조천(鳥川)이 흐르고, 마

을의 서쪽으로는 마을 뒷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마을이다.

2. 지명유래

보덕1리에 전래되는 지명유래는 1974년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총람』 2007년에 조치원 문화원에서 편찬한 『연기군의 지명유래』, 마을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모래굴 : 장마로 인해 모래가 다 덮었다고 하여 모래굴이라고 함.
- 보평(寶坪) : 보덕리에서 가장 큰 마을임. ‘봣들, 봣들’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은 봣들 즉, 보가 있는 들이라는 뜻이 변해서 봣들이라 부름. 앞들이 넓고 보가 있어서 농사가 잘 되어 붙여진 지명인데, 보물같은 들이라 하여 보평이라고 부름. 보덕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앞에 넓은 들과 큰 보가 있음.
- 산소골 : 산신을 위한 소골이라 하여 산소골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에는 바닥에 자갈이 많이 깔려 있음.



〈조천〉



〈마을 앞으로 펼쳐진 넓은 들〉



〈통미마을 전경〉

- 서당골 : 보평 뒤쪽에 있는 마을임. 예전에 서당이 있어서 서생들이 글 읽던 자리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서당골이라고 부름. 성재에서 조금 올라가면 김서방네 서당이 있었다 하여 서당골이라 했음.
- 성재 : 남서쪽의 재를 말하는데 하소골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며 조선시대 토성이 있었음.
- 솔모랭이 : 돌아간다 해서 솔모랭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솔모랭이에 소를 매 놓으면 소가 죽는다고 해서 소를 매지 말라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곳임.
- 솔밭 : 1리 회관 동남쪽을 솔밭이라고 하는데 솔밭 끝에 묘가 많이 있었음. 1980년대 초에 경지정리를 하며 묘를 파내 납골당으로 이장하였다고 함.
- 열녀문 : 서당골 앞에 있는 김진창(金震敞)의 아내 나씨(羅氏)의 효열을 찬양한 정문임.
- 칭벽미레 : 마을로 들어오는 신작로 다리 밑을

- 지칭하는 지명으로, 이곳에 이무기가 살아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었다고 함.
- 통미 : 통미 산 밑에 있는 마을을 지칭함.
- 통미산 : 보평 남쪽에 외따로 있는 낮은 산을 가르켰으나, 2010년 논외로 사용하기 위해 산을 파서 현재는 없음.
- 황새바위 : 띠재산에 있는 바위를 말하는데 뼈죽하게 생겨서 황새바위라고 함.

■ 마을의 명당, 옹기뜰

현재 보덕1리의 2반인 윗말의 ‘옹기뜰’이라는 곳은 마을의 명당자리이다. 이름 그대로 옹기를 구웠던 들이라는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옹기를 구웠던 곳이었다. 자리가 한아름에 폭 안겨 있는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늑해서 집이 들어



〈마을표지석〉



〈1970년대 마을전경〉

얕기가 좋았기 때문에 명당자리였다. 이 옹기들의 꼭대기에는 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샘을 주변으로 이용이 편했기 때문인지 하나 둘씩 집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윗말샘'이라는 마을이 형성되게 되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이 샘은 '바가지샘, 가산샘'이라고 불렸는데 옷이 오르는 사람이 이 물에 씻으면 옷이 닳는 등의 영험한 샘이었다. 덕분에 주민들은 이 샘에서 샘제를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샘을 이용하는 주민은 한 명도 없다.

3. 역사와 변천

■ 하소골 성재(보덕리토성)

보덕리 하소골 마을에는 하소골 성재라고 전해오는 나즈막한 구렁이 있는데, 이곳에 있던 토성이 보덕리토성이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곳에는 원래 구렁의 정상부에서 산자락에 걸쳐 토성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밭으로 경작하는 과정에서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 실제로 현재는 성벽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서벽쪽 일부에만 토성벽처럼 남아 있는 구렁이 있는데, 발독인지 성벽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관련유물도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실제로 성벽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다.



〈보덕리토성이 있다는 곳〉



〈마을입구〉

■ 마을의 입향조, 여흥민씨

보평마을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성씨는 여흥민씨라고 전해지고 있다. 여흥민씨는 마을 뒷산이 전부 종산이었을 정도로 마을의 터줏대감이었다. 여흥민씨 다음으로 강릉김씨가 마을로 들어오게 되었고, 강릉김씨도 마을 뒷산을 종산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강릉김씨의 흔적은 현재 마을 중앙에 위치한 효부 김진창 처 나누나씨 정려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음으로 많은 성씨를 이루었던 것은 청주한씨였다. 청주한씨는 여흥민씨나 강릉김씨의 세력에 비할 정도로 강건하지는 못했으나, 현재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살고 있다. 현재 마을에 강릉김씨는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고, 여흥민씨는 1세대 거주하고 있다. 반면 청주한씨는 무려 7세대나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보덕리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성씨이다. 주민의 이야기에 의하면 청주한씨는 보덕리보다는 심종리에 먼저 터를 잡고 살고 있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옆 동네인 보덕리로 이주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 효부 김진창 처 나누나씨 정려

보평마을의 중앙에 효부 나누나씨의 정려가 있다. 이 정려는 2001년 5월 31일 연기군 향토유적 32호로 지정되었다. 효부 나누나씨는 1600년경



〈나주나씨 정려〉

중반경(현종조)의 인물로 나응수(羅應壽)의 딸이다. 그녀는 나이가 차자 강릉김씨 김진창(金震敞)에게 시집와 시부모와 남편을 잘 섬겼다. 남편 김진창이 죽자 홀로 집안 살림을 떠맡아 생계를 이어나갔다. 시부모가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3년 시묘를 정성껏 마치고 그 뒤를 따라 죽었다. 1676년(숙종 2) 이런 행적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게 되었다. 그 뒤 30년이 지난 1706년(숙종 32)에 1차 중수를 하였으며 그 후의 중수 연혁은 상세하지 않다. 현재의 정려는 1976년 중수를 한 것이다.

정려의 구조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형식을 하고 있으며 양측면의 박공 밑에는 방풍판이 설치되어 있다. 화강석재를 가공한 8각고주 초석 위에 원주를 올리고 4면은 홍살을 돌려 놓았으며 처마는 흘처마로 처리하였다. 정려의 내부에는 나주나씨의 명정 현판(181cm×21cm)이 걸려 있다.

김진창은 강릉김씨로 현재 보덕1리의 마을 뒷산이 한때는 전부 강릉김씨의 소유였기 때문에 마을 뒷산에는 강릉김씨의 묘소가 여러기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는 강릉김씨가 마을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려를 관리하는 일은 모두 군과 마을 주민들의 몫이다.

■ 서당과 학교가 있었던 교육마을

예로부터 먹고 살기 좋았던 마을은 어김없이 글



〈아랫말 전경〉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았다. 보덕1리도 넓은 들로 경제생활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인지 교육마을이었다. 현재 기억하고 있는 주민이 없어 고증이 어렵지만, 중뚝 부근에 ‘서당골’이라고 불리던 곳이 있었다. 이곳에서 서생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이 서당을 ‘김서방네 서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마을에 서당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구한말에 마을에 학교가 있었다고 한다. 서당과는 다른 개념인 학교가 있었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를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현재는 서당도, 학교가 있었던 자리도 전부 확인이 되지 않아 아쉽지만, 주민들의 전언대로 보덕1리는 서당도, 학교도 있었던 교육마을이었다.



〈마을회관〉

■ 징용도 끌려가고, 피난도 가고.

일제강점기, 지금 생각만 해도 마을을 떠나 일본으로 징용을 갔던 기억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보덕1리 주민들 중 20여 명이 당시 일본으로 징용에 끌려 갔다. 광복이 되어서 20명 전원이 모두 마을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당시 징용으로 갔다가 마을로 돌아와 현재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9명이다. 그 9명의 사연은 모두 기막혔다. 당시 이장이나 반장을 맡고 있어도 절대로 징용에 끌려갈 일이 없었다. 반면 힘없고 가난한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장이나 반장을 맡고 있었던 주민들을 대신하여 힘없는 주민이 대신 끌려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다는 주민들은 그 당시 끔찍했던 기억들을 담담하게 털어 놓았다. 한 주민은 16세에 보국대로 징용을 갔는데 광복이 되어서 몇날 몇일을 걸어서 결국 마을로 들어왔으나, 당시 일한 품삯은 지급할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하고, 징용에 끌려 가는 것이 죽기보다 무서워서 안간다고 버티다가 결국 형무소에 끌려가 감옥생활을 하다가 광복이 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고, 탱크탄알을 만드는 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힘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해서 조금 편해지나 했더니, 곧 한국전쟁이 터졌다. 마을 앞의 들이 너무 넓어서 그런지 들에 폭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또 북한군들은 매일 마을로 들어와서 밥을 해달라고 했고 하루씩 돌아가면서 잠을 자기도 했다. 이렇게 마을로 들어온 북한군은 밤만 되면 마을 앞 도랑에 모여 “집합”이라는 소리와 함께 모여서 봉산리로 넘어가던 모습은 여러 마을주민들의 기억 속에 있다. 또한 전세가 불리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피난길

이 너무 고생스러워 죽어도 마을에서 죽자는 생각으로 마을로 다시 들어오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4. 전통민속

■ 기우제 지냈던 동구나무

아랫말에서 지프내로 넘어가는 길목에 몇백년의 수령을 갖고 있던 동구나무가 한그루 있었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느티나무였던 동구나무는 마을 주민들에게는 영험함의 대상으로서 비가 오지 않아 기물던 해에는 동구나무 밑에서 음식을 차려 놓고 두손 모아 비가 오길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또한 동구나무는 주민들에게는 휴식처를 제공하기도 했다. 가지와 가지를 연결하여 그네를 매달아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사시사철 동구나무 밑은 주민들에게는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해 주었다. 수년전 수명이 다했던지 썩기 시작하더니 결국 죽어 버려 현재는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주민들의 기억 속에만 살아 있을 뿐이다.

5. 생활환경

■ 조천 때문에 직선거리를 돌아 가야해서 불편해.

보덕1리의 북쪽은 심중리와 맞닿아 있는데, 심중리와 보덕리의 경계에는 조천(鳥川)이 흐르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조천은 큰 S자 모양으로 휘둘러 흐르고 있다. 이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조천에 들어가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심중리 주민들과 보덕1리의 경계에 있었던 조천은 두 마을의 오묘한 경쟁심리를 작용하게 했다고 주민들은 회

상한다. 넓은 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번기때마다 양수기를 서로 몰래 숨겨 놓기도 하고 뺏기도 하면서 조천을 차지하기 위한 몸싸움이 치열했다. 지금 생각하면 미소지어지는 추억거리지만, 당시에는 넓은 들을 관리하기 위한 삶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조천이라는 정식명칭보다는 마을 주민들은 이 하천을 지프내라고 부르고 있는데, 깊은 냇물이라는 뜻의 “깊은내”가 발음하기 쉽게 변하면서 ‘지프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된 것 같다. 이 지프내 중 보덕리와 맞닿아 있는 곳을 윗지프내라고 부르고, 심중리와 맞닿아 있는 곳을 아래지프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렇게 휘돌아 흐르는 지프내 때문에 전동면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빙 둘러서 심중면을 돌아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주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래지프내와 윗지프내를 직선으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아래지프내에 놓여진다면 빙 둘러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직선으로 연결이 된다. 마을 주민들은 이동하기에 불편한 이곳이 조금 더 빠르게 다니기 위해서는 다리연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 벼농사도 좋고, 과수농사도 좋고.

마을 앞으로 넓게 펼쳐진 들에서 주민들은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들 곳곳을 비롯하여 마을 곳곳

에는 과수원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불과 20여년 전인 1990년대까지는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벼농사로 삶을 영위했었지만,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주민들이 하나둘씩 과수원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연기군이 워낙 복숭아로 유명했기 때문에 복숭아를 먼저 시작했고, 뒤이어 배를 시작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현재 벼농사를 비롯하여 복숭아와 배재배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

복숭아는 그런대로 수입이 괜찮은 편이지만, 배농사는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과수를 재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하나같이 보덕1리만은 전동면에서 가장 넓은 보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없이 잘 살 수 있었다고 자랑한다.

■ 마을의 가장 큰 행사, 칠석날

1990년경까지 현재 마을회관이 위치한 곳에는 방앗간이 있었다. 이 방앗간은 개인소유가 아니라 마을 주민 공동소유였다. 1990년에 마을 주민들이 협의하여 방앗간을 판 돈으로 마을 공동재산이 형성되었다. 이 재산이 기틀이 되어 현재도 마을을 운영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재산으로 마을의 가장 큰 행사인 칠석날 행사도 진행할 수 있다. 보덕1리의 가장 큰 마을 행사는 마을 주민들이 다같이 마을회관에 모여 담



〈도움주신 분들〉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

소를 나누며 식사를 함께 하는 칠석날행사이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풍물을 치면서 흥겹게 하루를 풍성하게 보냈지만, 현재는 가볍게 식사를 하며 단합을 다지는 것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시기부터 보덕1리는 유난히 단결이 잘되는 마을로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다. 여름철 한창 모내기로 바쁠 때 보덕1리 주민들은 모두 다 같이 모여서 마을 전체의 논을 15~20일에 끝내기 위해 공동작업을 진행했다. 자기 논을 자기가 모

내기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루는 마을 주민들이 다같이 아무개의 논의 모내기를 끝내고, 다음 날은 옆집 아무개의 논의 모내기를 하는 식으로 모내기를 공동작업으로 진행한 것이다. 당시에는 공동작업이 일처리가 빠르다는 생각으로 진행되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공동작업이 결국 마을 주민들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 현재도 마을 주민들간의 화합과 결속은 어느 마을 부럽지 않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오 영 진	75	남	농업	867-1538
정 옥 철	81	남	농업	867-1545
남 상 덕	82	남		867-0830
김 화 중	42	남	농업	867-1552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150	72	78	50	35	15	85.62	44.63	14.21	19.83	6.94
특산물 : 배, 복숭아					축산물(두) : 소(200여두)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	통미	김 명 환	14	867-1639
2	윗말	박 성 완	8	867-1563
3	아랫말	윤 태 경	12	867-1156
4	중뜸	신 기 호	20	867-2201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부 녀 회	최 금 순	노 인 회	오 영 진
청 년 회	오 병 철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경로당)	136-2	305m ²	98.6m ²	1996	이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정 박 일	75.1.1	87.6.10		6	강 태 봉	95.1.25	00.1.27	
2	최 흥 섭	87.6.10	89.1.21		7	한 진 석	00.1.28	03.1.12	
3	강 태 봉	89.1.21	91.1.23		8	문 기 태	03.1.13	08.1.1	
4	강 태 봉	91.1.24	93.1.24		9	김 화 중	08.1.1	11.1.1	
5	강 태 봉	93.1.25	95.1.24		10	김 화 중	11.1.1		

보덕2리

보덕2리의 원래 지명은 '윗지프내', '상심천'이다. 말의 뜻 그대로 위쪽에 있는 깊은, 즉 깊은 내라는 의미의 지명이다. 마을 앞을 흐르고 있는 조천이 마을을 휘감아서 둥구렇게 돌아 나가고 있고, 워낙 깊은 천이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지명이 붙여진 듯 하다.



1. 마을개관

보덕2리의 원래 지명은 '윗지프네', '상심천'이다. 말의 뜻 그대로 위쪽에 있는 깊은, 즉 깊은 내라는 의미의 지명이다. 마을 앞을 흐르고 있는 조천이 마을을 휘감아서 둥구렇게 돌아 나가고 있고, 위낙 깊은 천이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지명이 붙여진 듯 하다. 이후 '윗지프네'라는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깊을 심(深)과 내천(川)의 한자를 사용하여 '심천'이라는 지명으로 불리웠다. 그러던 것이 보덕리와 심천이 하나의 리로 묶여 1리와 2리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심천은 현재의 보덕2리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보덕2리는 현재 2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입구에 5가구가 살고 있는 덕소마을이 1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4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윗깊은내 마을이 2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을 휘감아 돌고 있는 조천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은 송학산의 산밑으로 옆으로 길게 펼쳐진 모양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마을입구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마을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까지 보덕2리는 피난골로 유명했다. 보덕2리는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농토가 적은 편이다. 지리적인 영향 때문에 가옥과 가옥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두고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합과 단결이 잘 된다는 이점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마을이다.

2. 지명유래

보덕2리에 전래되는 지명유래는 1974년에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총람』과 2007년에 조치원문화원에서 편찬한 『연기군의 지명유래』 및 마을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국사봉 : 2리 마을회관 서쪽에 보이는 높은 산을 말하는데 일제때 측량기점이 있는 산이라고 함. 그곳에 성과 봉황대가 있었음.
- 금점굴 : 일제강점기 때 금을 캐던 굴로 참샘굴이라고 불렀음. 마을 뒤로 자리한 뒷산과 송학산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며, 여러개의 굴이 있음. 1932년~1940년까지 금을 캐던 곳이며, 이 굴에 있던 샘에서 찬물이 사시사철 나왔다고 함. 몸에 땀띠가 난 사람이 이 물로 씻은 이후 씻은 듯이 나왔기 때문에 유명했음.
- 동막골고개 : 저수지 위쪽, 마을 서쪽에 있는 고개로 이 고개를 넘어가면 청람리가 나오기 때문에 청람리와 연결되는 유일한 고개임.
- 노적산 :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전쟁을 할 당시 벼를 쌓아서 노적처럼 보이게 하려고 돌렸다고 하여 노적산이라 함. 지금은 둥구렇다 하여 둥구락산이라고도 부름.
- 대추나무골 : 동막골고개 바로 옆에 위치한 골짜기로, 대추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나 현재는 대추나무는 없음.
- 덕소 : 지프네 위쪽에 있는 마을을 지칭하는데, 덤소라고도 부름. 예전에는 냇물이 흘러와서 고여 큰 소가 있다고 하여 덕소라 불렀다고 하는데, 선녀들이 노는 신선지(神仙池)였으나 지금은 모래가 쌓여서 없어졌음. 당시 이 소가 누워있는 소를 닮았다고 하여 와우형 덤소라고 불리웠음. 현재는 3가구가 거주하고 있음.
- 모래굴 : 장마로 인해 모래가 다 덮였다고 하여 모래굴이라고 함.
- 부엉이굴 : 동막골고개 바로 옆에 위치하는 굴로, 굴이 상당히 커서 한국전쟁때 피난처 구실을 하였음.
- 북적골 : 이곳에 절을 크게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붙은 지명인데, 지리적으로 아래에서 쳐다보면 시신을 염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치성을 많이 드리거나 정성을 많이 드린 사람만이 살 수 있다고 했던 골짜기임.



〈입구에서 본 마을풍경〉



〈윗지프내마을〉

- 산소골 : 산신을 위한 골짜기라고 하여 산소골이라고 하는데, 바닥에 돌이 많이 깔려 있음. 이 골짜기를 지나야만 솔모랭이를 지나 증골로 통합.
- 성재 : 주민들은 빗새울고개라고도 불렀는데, 남서쪽의 재를 말하는데 하소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칭함. 조선시대 토성이 있었음.
- 솔모랭이 : 산소골 바로 옆을 지칭하는데, 돌아간다고 하여 솔모랭이라고 함. 솔모랭이에 소를 매면 소가 죽는다고 해서 소를 매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음.
- 심천(深川) : 보평리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을 지칭하는 지명임. 마을 앞에 깊은 냇가 있다 해서 심천이라고도 부름. 또한 지프내라고도 부르는데, 처음은 '깊은 내' 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지프내라 부르게 되었음. 심천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은 조천으로서 소가 있었다 함. 여기는 깨끗



〈마을앞을 흐르는 조천〉

- 한 물이 고여서 선녀들이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 놀고 가는 곳이라 전해 내려왔는데, 지금은 소자리에 깊은 못은 없어졌으며 그냥 통칭적으로 심천으로 부르고 있음.
- 쌍복골 : 애장터였는데 죽은 아이들은 입던 옷을 입히고, 7번 묶어서 1m정도 파서 여우가 훼손하지 못하도록 깊에 묻었던 곳임. 무덤의 형태는 시신을 묻고 평평하게 흙을 덮은 후, 그 위에 돌맹이를 올려 무덤의 형태를 만들었다고 함.
- 안터 : 마을 입구에서 마을회관 오는 길에 있는 마을을 지칭함.
- 윗지프내 : 상심천이라고 부르며, 지프내 위쪽에 있는 마을을 지칭함.
- 작은 절굴, 큰 절굴 : 시커먼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절을 지어야 하는 터라 하여 크기에 따라 큰 절굴, 작은 절굴로 나뉘어서 지칭함.
- 장군바위 : 보평 북쪽 냇가 산기슭에 있는 바위를 장군바위라고 부름. 또한 장군암, 석정이라고도 부르는데 큰 바위가 넓은 바위 위에 얹혀 있고 그 밑에 큰 냇가 흐르는데 명종 때 학자 박곤(朴坤)이 토정 이지함(李之函)을 맞아 바위 위에서 이학을 담론하였던 바위라고 전해짐.
- 장내미골 : 쌍복골 바로 옆에 위치한 골짜기를 지칭하는데, 이곳도 한국전쟁 당시 피난처로 이용되었음.
- 절터골 : 연수봉 남동쪽에 300m정도의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을 지칭함. 예전에 연수봉 기슭에 연수사란 절이 있었음.

- 증골 : 증촌이라고도 했는데 그곳에서 옹기를 굽던 증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임. 지금도 옹기가 출토됨.
- 지린내미 : 청람리로 넘어가는 조그만 산길을 지칭하는데, 증골과 대추나무골 사이를 지칭함.
- 칭벽미테 : 마을 들어오는 신작로 다리 밑을 지칭하는데, 예전부터 이곳에 이무기가 살아서 사람을 잡아 먹는다고 전해졌음. 무척 깊은 연못이기도 했다가 가물 때는 물이 하나도 없이 평평한 모래밭이 되기도 하는 신기한 곳으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었음. 현재는 낚시터로 사용되고 있음.
- 큰말내미 : 숲을 굽던 가마 같은 것이 나왔다 하여 큰말내미라고 함. 주민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곳의 땅이 검은색을 띠고 있고, 땅을 파면 숲을 굽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함.
- 한응골 : 하늘만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인데,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피난하는 피난처로 사용되었음.
- 황새바위 : 띠재산에 있는 바위를 지칭하는데, 빼죽하게 생겼다고 하여 붙은 지명임.

3. 역사와 변천

■ 석산정터

석산정터는 깊은내마을, 조천 너머 철로 오른편 구릉의 절벽에 위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석산정은 기묘사화때 명현이었던 박광우(朴光佑)의 종손 박곤(朴坤)이 건립한 것이다. 박곤은 효성과 우애가 두텁기로 널리 알려졌던 인물인데, 나라에서 감역의 벼슬로 불렸으나 나가지 않고 보덕2리에 은거하였다. 그리고 깊은내 마을을 흐르는 시냇물의 양쪽 언덕 위에 돌을 쌓아 좌우에 정자를 짓고, 토정 이지함과 더불어 돌 위에서 의리를 논하였다고 한다. 훗날에 사람들이 그 정자를 ‘석정(石亭)’이라고 하였다 한다. 현재 석산정터에는 수풀만이 우거져 있다.

■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

일제강점기에 대한 별다른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마을주민들에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다. 보덕2리는 일제강점기 당시 윗지프내마을로 불리웠다. 즉 깊은내의 윗동네라는 뜻으로, 아래 지프내에 해당하던 곳은 조천을 경계로 자리잡고



〈마을앞으로 펼쳐진 논〉



〈마을입구〉

있던 심중리였다. 당시의 행정구역은 두 마을의 사이를 흐르고 있던 조천을 경계로 충남과 충북으로 나뉘었다. 즉, 조천의 윗부분에 해당했던 보덕2리는 충청남도에 속했고, 조천의 아랫부분에 해당했던 심중리는 충청북도에 속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엄격하게 개인이 술을 만드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일년에 몇차례 주기적으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시골마을에서는 단속을 피해 개인이 암암리에 술을 만들어 팔기도 했고, 개별적으로도 마시기 위한 용도로 주조활동을 했다. 그러나 그 무섭다는 일본 경찰들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보덕2리와 심중리에는 있었다. 당시의 단속 여건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즉, 충남지역을 단속하는 날은 다른 지역을 단속하지 않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 점을 이용하여 윗지프내인 보덕2리에 단속반이 나타나면 보덕2리 주민들은 조천을 건너 심중리에 술을 숨겨두었다. 물론 아래지프내인 심중리에 단속반이 나타나면 심중2리 주민들은 조천을 건너 보덕2리에 술을 숨겨 두는 것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 피난처로 유명했던 마을

보덕2리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송학산의 아래



〈회관 앞 도로〉

부분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특히나 보덕리를 관통하는 조천이 둥구렇게 마을을 휘감아 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을이 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때문인지 마을 입구에서 사람이 사는 동네까지 들어오는 길은 매우 구불구불하다. 즉, 마을입구에서 마을을 보면 가옥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송학산에 굴이 있어서 마음먹고 숨어버리면 절대로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보덕2리가 인근 주민들에게 요긴한 장소로 사용되었다. 바로 보덕2리가 보덕리를 비롯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인근의 동네 사람들은 보덕2리를 피난골이라고 불렀다.

■ 마을 앞길을 따라 이동하던 북한군

군도1호에서 갈라져 보덕2리 마을 입구부터 청람리까지 통하는 마을 길은 일제강점기부터 군사도로로 사용되었던 도로이다. 이 도로를 따라 가면 연기에서 금산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 마을 주민들은 이 길을 따라 이동하는 북한군과 미군들을 자주 목격했다고 한다. 이 군사도로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한국전쟁 시기에 마을에

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차례 마을 앞길을 따라 이동하던 북한군들이 이동하던 중간에 마을 민가에 들어와 밥을 해달라고 했다. 어느날은 마을 주민의 집에 20명이 넘는 북한군들이 들어와 밥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 많은 북한군들의 밥을 짓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주민이 있다. 당시 북한군들은 민가에 들어와 밥을 달라고 하면서 어김없이 불을 꺼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상대방에게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했던 행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군의 밥을 해먹이느라 고생했다는 주민들에게 북한군이 귀찮은 존재로 기억되어 있을 것 같지만, 보덕2리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북한군은 선량하다. 북한군들은 밥을 공짜로 얻어 먹기 미안했던 탓인지 밥이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집안의 잡일을 스스로 도왔다. 명석을 깔아준다든지, 마당에 널려 있는 짚신을 꼬아 준다는 등의 일을 도왔던 것이다. 또한 보덕2리 주민 중 남자들의 대부분은 한국전쟁 기간 내내 청람리의 개미고개로 매일 끌려 나갔다. 북한군들이 마을로 들어와 남자들에게 지계를 짚어지고 나오라고 해서, 밤마다 지계를 지고 개미고개로 가서 포탄같은 무기들을 지계에 지고 날랐던 기억도 아직까지 생생하다.

이외에도 한국전쟁기에 마을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도 일어났다. 권씨 성을 갖고 있던 주민이 살던 집에 하루는 퇴각하던 미군이 숨어 들어갔다.



〈계룡사〉

권씨는 미군을 안방으로 숨겼고, 미군이 권씨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오던 북한군은 권씨네 집으로 들어가 권씨에게 미군이 어디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권씨는 미군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이 과정에서 안방을 수색하던 북한군의 눈에 건너방으로 건너가던 미군의 군화발이 목격된 것이다. 결국 북한군의 손에 잡힌 미군과 미군을 숨겨준 권씨는 전동철길 밑에서 총살을 당했다.

4. 생활환경

■ 이장 홍종화공적비

마을회관 옆에는 회관건립기념비와 함께 이장 홍종화공적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주민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홍종화씨는 보덕2리를 살기 좋게 만든 장본인이다. 홍종화씨의 업적은 홍종화공적비의 뒷면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홍종화씨는 보덕2리의 새마을운동시기에 마을에 많은 공을 세웠다. 30년이라는 기간동안 마을의 이장직을 도맡아 하면서, 해마다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돌보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굵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나 1972년 군도1호에서부터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흙길을 현재의 도로로 만드는 큰 일을 해냈다. 도로를 새로 만드는 공사는 홍종화씨를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6개월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곡괭이를 직접 들고 땅을 파고 시멘트를 발라 만든 도로이다. 이뿐 아니라 이듬해인 1973년에는 마을 앞을 흐르는 내의 다리를 만드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이때 준공된 다리는 3번이나 쓰러졌고, 주민들은 힘을 합쳐 다시 놓기를 반복해서 결국 1986년도에 3번째로 만든 다리가 현재까지도 주민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또한 1974년에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 부지에 흙벽돌로 마을회관



〈이장 홍종화공적비〉



〈회관건립기념비〉



〈경향신문에 실린 보덕리 새마을표창기사〉

을 건립하는 등 수많은 일을 통해 마을발전에 기여했다.

이러한 몇 년간의 노력이 인정되어, 1973년에 새마을사업을 실시한 전국 마을 중에 보덕2리가 전국 8개의 마을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았다. 당시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특히나 마을발전사업에 홍종화씨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점은 소득증대였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너무 안쪽으로 들어선 산자락에 마을이 형성되어 워낙 먹고 살기 힘들었던 마을을 홍종화씨가 갖은 노력을 통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별 지장없이 만든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후 부녀회장 최재희씨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우수 성공사례를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기 위해 여러 차례 강의를 하는

강사생활을 하기도 했다. 마을을 위해 수 십 년을 봉사하고 희생한 홍종화씨의 업적을 기리겠다는 의미로 마을주민들은 공적비를 마을회관 옆에 세웠다.

■ **전동면의 특수작물은 우리 마을이 제일 먼저.**

현재 보덕2리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은 벼농사가 50% 이상이고, 그 외에도 특수작물과 과수를 재배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보덕2리 주민들은 주로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내다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마을 뒷산인 송학산의 금점굴이라는 곳에서 사금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 당시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이 궁핍했지만, 공교롭게도 이 당시가 보덕2리에 400명이 넘는 주민이 살았던 전성기였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거의 대부분 보덕2리 주민들은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 들어서서 오이, 고추, 상추 등의 특수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0년대가 지나서 배나 복숭아 등의 과수도 재배했으나,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벼농사가 주요 소득원이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보덕2리의 특수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1970년대에 들어서야 농촌마을에서 특수작물을 재배하여 상품화하게 되는데, 보덕2리는 1960년대에 특



〈마을 안쪽의 들과 비닐하우스〉



〈배농사〉

수작물을 재배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동면에서도 보덕2리가 가장 빨랐다고 한다. 보덕2리 주민이었던 박종희씨가 전의면에서 특수작물 재배 기술을 배워서 보덕2리 주민들과 함께 오이, 고추, 상추 등을 재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재배한 특수작물은 청주와 조치원장날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장에 내다 팔았다. 주민들의 이러한 활발한 상업 활동 덕분에 다들 어렵게 생활한 70년대 전동면에서는 드물게 자식들을 모두 대학교육까지 시킨 ‘대단한 보덕리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다. 이뿐 아니라 보덕2리는 전동면에서는 무엇이든 항상 앞서갔다고 한다. 특수작물 재배에서 선두 주자였을 뿐 아니라 전동면에서 제일 처음으로 전

기와 전화가 들어 온 마을이기도 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앞서서 진행되면서 새마을운동 당시에도 모범 마을로 대통령상을 수여받았던 것이다.

■ 마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궁리

다른 여느 농촌마을에 비하여 폐쇄적인 지리적인 환경 탓인지 보덕2리는 늘 살림이 궁핍한 마을이었다고 한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늘 풍족하게 하루 하루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고 산 적이 없을 정도로 살림은 늘 곤궁했다. 오죽하면 보덕2리에서 30년동안 이장을 맡아 새마을운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홍종화이장의 중점사업이 잘사는 마을 만들기였다. 이렇듯 곤궁한 살림에 마을기금은 늘 매해 필요할 때마다 걷어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마을기금을 조성하자는 움직임이 2009년부터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에 의하여 일어났다. 2009년에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을까지 들어오는 길가에 꽃을 심어서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마을 주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마을 길을 따라 꽃을 심어 꽃길마을을 만들었다. 그리고 2010



〈마을 뒤편에 자리한 저수지〉

년에는 하천을 가꾸어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든지, 보덕2리에 있는 저수지에 뗏목을 띄워 관광객들에게 뗏목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의견들이 건의 중에 있다.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관광객유치를 통해 마을을 홍보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여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보덕2리의 자연환경이 마을 뒤편으로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 산이 있고 마을 앞으로는 깊은 냇가 흐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주민들은 생각한다. 현재도 깊은내마을에는 전원주택이 몇 가구 조성되어 있다. 외지인들이 마을의 경치를 보고 조용하고 아늑하다고 하여 전원주택을 짓고 마을에서 거주중인 것이다.

■ 노인건강운동 경연대회 우승마을

보덕2리 마을회관 한쪽 벽면에는 모범경로당 증서와 119화재예방우수마을 증서, 노인건강운동 경연대회 수료식 및 발표회 사진, 노인건강운동 경연대회 우승기념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주민들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모범경로당 증서는 2008년 10월에 경로당 운영 평가 결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던 것이 인정받아 수여받은 것이다. 또한 119화재예방우수마을 증서 역시 2006년에 전 가구가 소화기를 비치하고 전 주민이 화재예방과 심



〈마을이 수여받은 상장과 기념사진〉

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여 주택 및 산불화재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자율방화와 응급처치 능력이 함양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여받은 상장이다.

이뿐 아니라 2007년에는 노인건강운동 경연대회에 수료식과 발표회를 가졌고, 같은 해에 노인건강운동 경연대회에서는 요가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07년에 신청한 요가교육이 받아들여져 2007년과 2008년에 보덕2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강사를 초청하여 마을회관에서 요가를 시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7년에 개최된 경연대회에서 요가부문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범죄없는 마을로도 선정되었다. 자랑거리는 이뿐이 아니다. 보덕2리는 전동면에서 드물게 청정마을중의 하나이다. 전동면에서 가장 먼저 오수와 폐수를 처리한 마을이다. 이러한 마을환경으로 살기좋은 환경속에서 주민들은 많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산세가 좋아 유명인사가 많아.

산세가 좋아서인지 보덕2리가 배출한 유명인사가 많다. 현재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박무희씨는 효부상을 받았고, 윤성중씨도 100세가 넘는 어머니를 봉양한 효자로 효자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보덕2리에 있었던 태양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근무를 하던 홍성민씨는 유망 중소기업 대통령상을 수여받은 인물이며, 대통령에게 공무원 청렴결



〈1984년 모내기〉



〈옛 마을회관 (1984년)〉



〈마을회관 준공식 (1995년)〉



〈범죄없는 마을 선정 (1995년)〉



〈도움주신 분들〉



〈마을회관〉

백상을 수여받은 임재홍씨도 보덕2리 출신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김종해씨는 철탐산업훈장의 바다수확상을 받았다.

주민들은 이렇듯 작은 인구가 살고 있는 보덕2리에서 훌륭한 인물이 배출된 것은 좋은 산세덕분이라고 이야기한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박 상 오	54	남	농업	011-454-1272 / 867-1272
박 무 희	76	남	농업	867-3411
이 준 배	89	여	농업	867-1388
박 용 흠	84	남	농업	867-1284
홍 성 용	59	남	농업	010-7574-1256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155	75	80	48	40	8	91.57	23.8	11.9	49.59	6.28
특산물 : 오이, 상추					축산물(두) : 닭(60만마리)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	덕소	이 대 호	25	867-1412
2	윗지프내	김 옥 경	25	867-1451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부 녀 회	유 송 자	노 인 회	박 무 희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경로당)	269-6	278㎡	86.4㎡	1995	이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박 호 순	75.1.1	75.12.31		10	정 용 화	94.1.21	96.1.20	
2	김 문 경	76.1.1	78.2.8		11	정 용 화	96.1.22	98.1.21	
3	김 문 경	78.2.8	81.5.4		12	정 용 화	98.1.21	00.1.27	
4	신 영 성	81.5.12	85.6.28		13	홍 성 용	00.1.28	04.2.25	
5	홍 성 용	85.7.11	88.1.14		14	홍 성 용	04.2.26	06.1.26	
6	신 영 성	88.1.16	89.5.9		15	홍 성 용	06.1.26	09.1.26	
7	곽 노 규	89.5.10	91.1.23		16	홍 성 용	09.1.26	10.3.4	
8	김 지 영	91.1.24	92.2.25		17	박 상 오	10.3.11		
9	박 창 순	92.4.6	94.1.13						

봉대리

봉대리는 전동면의 북쪽 끝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전의면, 동북쪽으로는 천안시 성남면과 접하고 있다. 전동면에서도 가장 지대가 높은 산간마을로 운주산, 고소재, 망경대 등의 높은 산이 동네를 둘러싸고 있다.



1. 마을개관

봉대리는 전동면의 북쪽 끝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전의면, 동북쪽으로는 천안시 성남면과 접하고 있다. 전동면에서도 가장 지대가 높은 산간마을로 운주산, 고소재, 망경대 등의 높은 산이 동네를 둘러싸고 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 과거에는 골짜기마다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현대에 들어 인구가 줄어들면서 동네가 아예 없어지는 일이 생겨 지금은 서봉동, 고소재, 평말 등을 제외하고는 골짜기라 하더라도 집 한 채 없는 곳이 있다.

봉대리는 한개의 행정리로 구획되어 있고,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전동면에서 가장 면적이 넓다고 할 수 있으나 산골마을이어서 농경지는 좁은 편이다. 전동면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노장천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까지 전의현 동면에 속해있었다. 조선 후기의 지리지인 『여지도서』 방리조에 동면에는 4개의 리가 기록되어었는데 그중 서방동리(西方洞里)가 봉대리 일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인구는 72호 267명으로 4개 마을 중에는 규모가 가장 작았다. 1913년까지 전의군 동면으로 편제되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인 1914년 대대적인 지방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고소티리(古所峙里), 서방동, 대동(垆洞)을 병합하여 서봉(서방동)과 망경대의 이름을 따서 봉대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2. 지명유래

- 감투봉 : 평말 앞의 감투모양 봉우리.
- 건넌지기 : 산 아래.
- 고깃재(고솟재) : 봉대리에서 가장 큰 마을. 고깃재 고개 밑이 됨.
- 고깃재고개(고소재고개) : 전동면에서 천원군 수신면으로 넘어가는 큰 고개. 운주산과 망경대

중간에 허리가 잘록하게 되어있음.

- 대동(垆洞) : 텃골.
- 돈바위 : 바위가 많아서 붙인 이름.
- 두명배미 : 물을 채워놓는 두명이 있던 논.
- 망경대 : 천안시 수신면과 접해있는 산.
- 먹뱅이골 : 먹방동의 골짜기.
- 먹뱅이안골짜기 : 옷굴. 집 지은 흔적이 있어 주민들은 절터로 추측함.
- 명석바위 : 밤실고개 너머에 있는 바위.
- 못배미 : 못이 있던 논. 물이 귀할때의 상담.
- 무중굴 : 미곡리로 넘어가는 곳.
- 밤실 : 봉대저수지 위쪽.
- 밤실티골 : 밤실 일대의 골짜기.
- 밤실고개 : 천안시 성남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 뱀바티 : 저수지 아래의 밭.
- 봉대소류지 : 서봉동 골짜기 안쪽의 소류지.
- 사자바위 : 마을 안의 논배미 가운데에 있었던 사자모양의 바위. 동네지킴이로 위했는데 2000년경 누군가 가져갔다 동네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자 동네 시끄럽다며 다시 돌려놨음.
- 사청바위 : 도로가 참나무 옆에 있는 넓은 바위.
- 산제장골 : 천마봉에 있는 골짜기.
- 삼형제바위 : 망경대 아래에 바위 3개가 띄엄띄엄 서 있음.
- 새태골 : 산사태가 많이 난다는 의미의 지명.
- 색시목골 : 절터 옆의 골짜기로 골이 깊었다 오랜 옛날 피난을 왔던 색시가 이곳에서 죽었다하여 색시목이라 부르기 시작함.
- 서방골(西方골) : 쇠방골, 서봉동. 고깃재 서북쪽에 있는 마을.
- 서봉동(棲鳳洞) : 서방골.
- 쇠방골 : 서방골.
- 수염골 : 고소재로 넘어가기 전 수영동의 골짜기로 자기 요지가 있음.
- 아들바위 : 저수지 아래에 있으며 돌을 던져 바위에 올리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였음.
- 안산 : 평말 앞산.



〈평말 전경〉



〈평말 입구 느티나무〉

- 여바골 : 저수지 옆의 여우바위가 있는 골짜기.
- 장수바위 : 수염골에 있는 집채만한 바위.
- 점밭 : 감투봉 앞 운주산 아래의 텃밭에 있는데 질그릇 편이 많이 나왔음.
- 천마봉 : 서방골 뒷산.
- 텃밭 : 대동. 고깃재 서쪽에 있는 마을.
- 평말 : 평평한 동네라 평말이라 함.

■ 봉황의 집

봉대리(鳳臺里)는 봉황의 집이 있는 곳이란 지명유래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곳의 행정연혁을 살펴보면 봉대리라는 지명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처음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일제는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옛 지명을 무시한 채 여러 마을 이름을 조합해 전혀 새로운 지명을 만들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마을 전통은 왜곡되고 지역공동체가 인위적으로 조정되기도 하였다.

‘봉대리’라는 지명은 원래 이 지역의 전통 동리명이었던 고소티리, 서방동, 대동 이란데에서 비롯되었다. 서방동은 동네에서 서봉동이라고도 불렀는데 여기에서 ‘봉’자와 대동의 ‘대’자를 따 봉대리라 하였던 것이다. 1974년 한글학회에서 조사한 지명유래 관련 자료에서는 망경대산의 ‘대’라는 글자를 쓴 것이라 되어있지만 어느 것이 정답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의 ‘대동’이란 마을 이름은 현재 찾아볼 수 없고 대동

을 ‘텃밭’이라 부르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으므로 봉대리의 ‘대’가 망경대산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말도 가능성이 있다. 그 후 주민들은 고향의 안녕을 위하는 마음으로 ‘봉황의 집’이란 의미로 지명 유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마을을 감싸고 있는 나지막한 산줄기가 봉황의 품처럼 아늑한 느낌을 불러 일으키는 듯도 하다.

3. 역사와 변천

■ 서봉동?

봉대리의 서북쪽 고랑이 서봉동이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지리지에 ‘서방동리(西方洞里)’라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현재의 봉대리를 대표하는 지명으로 보일 만큼 전통 있는 동네이다. 그러나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서방동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 지금은 민가가 거의 없으며 버섯재배 공장의 시설이 남아있을 뿐이다. 주민들은 50여 년 전만해도 아이들이 북적이던 큰 마을로 기억한다.

서방동은 지명의 뜻을 풀이하자면 서쪽에 있는 동네라는 뜻이다. 서방동이 ‘서봉동’으로도 불리우면서 ‘방(方)’이 ‘봉(鳳)’으로 바뀌었지만, 현재 봉대리에서 가장 큰 마을인 고소재의 서쪽에 있으니 서쪽방향이란 지명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서봉동 골짜기〉

마을의 터줏대감인 여산송씨가에서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봉대리의 토박이는 원래 서씨였다고 한다. 온통 서씨가의 땅이었는데 불행히도 아들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하였고 사위들에게 토지를 나눠 상속하여 송씨가 터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산골짜기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층이 많은데 이것이 모두 서씨 묘라고 전한다. ‘서방동’이 서씨 동네로 풀이될 수도 있을 듯하다.

■ 여산송씨

고소재 마을은 여산송씨 집성촌이다. 시조로부터 18세 송인남(宋仁南)이 입향조로 알려져 있다. 벼슬을 버리고 한양에서 봉대리까지 걸어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그의 자손이 13대째 거주하고 있다. 송인남이 망경대산에 올라 임금이 계신 북쪽을 바라보고 늘 무사안녕을 빌었다 한다. 망경대라



〈망경대〉



〈서봉동 마을〉

는 산 이름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봉대리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종친회 모임이 운영된다. 종중의 땅이 있고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시제를 모신다.

종가는 고소재 마을에 있었다. 고소재가 여산송씨의 집성촌이고 그 외에는 각성만이 마을이다.

■ 일제강점기

일제의 식민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사람들의 삶은 더욱 참혹해져갔다. 끈질기고 폭압적인 공출 때문에 식량과 생활용품까지 강제로 빼앗겼고 남녀 구분없이 징용·징병·보국대 등의 명목으로 억지로 끌려가 전쟁터로 가거나 강제 노동을 당하기도 했다. 주민들 중에는 보국대에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다. 집성촌이라 서로 숨겨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 했음에도 일제의 지속적인 탄압 속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봉대리는 전동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산촌 오지 마을이었지만 천안 병천(아우내)으로 넘어가는 고개입구였으므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민들은 성남면 병천까지 10리길을 걸어 공부를 하러다니기도 했을 정도였다. 1919년 시작된 삼일운동이 전국에 들불처럼 번졌고 4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역사상 유명한 아우내삼일운동이 벌어졌다. 이때에 봉대리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했다. 주도세력으



〈남성희 송덕비와 이장 윤병희 기념비〉

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것은 아니지만 당시 천안의 수신면과 성남면 사람들이 모두 아우내 장터에 모여 만세를 불렀고, 아우내장을 이용하던 봉대리 사람들 중에도 함께 삼일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있던 것이다. 순사가 출동해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사격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천안에서 순사가 동네까지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 잡혀간 사람은 없었다.

한편, 먹고살기 힘들던 1900년대 초에 심한 가뭄으로 충청도 일대의 사람들이 큰 고생을 한 일이 있었다. 이때 봉대리와 노장리 일대에 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남성희씨가 자신의 창고를 열고 곡식을 풀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비용을 모아 송덕비를 세웠는데 봉대리와 노장2리에 각각 1기씩 남아있다. 봉대리로 들어가는 693번 지방도의 도로변 길목에서 지붕돌을 얹은 비석을 확인할 수 있다.

■ 금점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한반도의 지하 광물을 캐내는데 혈안이 되었다 충남일대의 금맥도 마구잡이로 파헤쳐 지금도 어디를 가나 일제강점기의 금광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다.

봉대리에도 ‘금점’이라 불렀던 금광 관련 시설이 있었다. 일본인들은 논바닥에서 금을 정제하였는데 당시 동네 안쪽에 다듬이돌 만한 엄청난 크기

의 금덩어리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아이들은 금점의 작업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종종 놀러가곤 했지만 일꾼들이 쫓아버리곤 했다. 시설이 허술하고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서 위험했기 때문이다. 금점이 있던 자리는 훗날 메워서 논으로 만들었다.

■ 한국전쟁

마을을 관통하여 고소재를 넘는 693번도로는 전동면과 천안 수신면 아우내(병천)을 잇는 큰 길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때에는 군대의 이동로가 되기도 하였다. 위험한 시기였지만 피난을 떠나지 않고 낮에 산골짜기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 북한군 부대가 마을에 들어와 잠시 머물다 간 일이 있었다. 주민들은 북한군의 복장이 매우 화려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들의 요구대로 밥을 해주었더니 별 다른 피해는 없었는데 그렇게 밥을 먹고 수신면 쪽으로 넘어간 북한군들이 전투가 벌어져 북한군이 거의 몰살하다시피 절단났다는 소문을 듣기도 하였다. 적군 아군을 떠나 어리고 젊은 청년들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은 컸다.

미군의 폭격도 심했다. 그 와중에도 먹고 살아야 하니 연자방아 돌려 보리를 찼어먹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가까운 청송리에서는 폭격으로 철길이 끊어지기도 했는데 미군은 철길의 중간에 있던 굴에 무기를 감추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조명탄을 터뜨린 후 총질을 하였다고 한다. 마을 앞길을 따라 북한군만 지난 것이 아니라 미군도 이동하였다.

소문에 의하면 전동면일대에서 잡힌 보도연맹 가입자를 잡아 먹뱅이 골에서 학살하였다고도 한다. 그 후 비 오는 날에 먹뱅이골을 지나면 곡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그곳의 멍개나무가 잘 자랐다는 얘기도 있다.

다행스럽게 전쟁의 처참함을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의용군에 갔다가 못 돌아온 이도 있었고 들려오는 소문만으로도 가슴 철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 봉대소류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봄이 일어나면서 봉대리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길을 넓히고 지붕을 개량하는 등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함께 봉대소류지를 건설하게 되었다. 운주산 바로 아래의 밤실과 서봉동 골짜기는 물이 없어서 봉대리에서는 넓은 들임에도 불구하고 콩이나 메밀을 심는 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직접 지게로 흙을 퍼 나르며 밤실터골 안쪽에 작은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때에 일하는 모습을 보고 봉대리 사람들이 지게질을 제일 잘한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다. 소류지 건설로 봉대리에서는 가장 넓은 들인 서봉동, 평말 앞의 들에서 농사 짓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그렇다고 가뭄 피해를 아예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후에 관정공사로 지하수를



〈평말〉

폼어 쓰게 되면서부터 골짜기 구석구석까지 농사가 가능해졌다.

4. 전통민속

■ 봉대리 대동계

봉대리는 여산송씨 집성촌이므로 대동계가 마치 종친회 같은 분위기로 오랫동안 운영되어왔다. 계원은 봉대리의 모든 주민이 되며 전입해 오는 사람은 약간의 가입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이 대동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아쉽게도 회의장부가 분실되어 그 연혁을 알만한 기록이 없다. 다만 1945년 광복 이후에는 반별로 계모임을 가지다가 마을회관을 짓기 전인 1980년 무렵부터 대동계로 함께 하게 된 것이다. 이때에 봉대리의 전 주민이 자기 형편에 맞게 기금을 냈고 외지에 나간 출향민들도 도와 고소재 마을 안에 회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대동계장은 이장과 별개로 선출하고 총무를 둔다. 매년 동짓날에 큰 회를 열어 동네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며 결산한다. 동네의 공공사업만큼 중요한 것이 계원들의 애경사로 특히 상을 당하게 되면 모든 계원이 함께 조의금을 각출하고 힘든 일을 돕는다.



〈고소재에서 본 운주산〉



〈고소재 골짜기 안동네〉



〈1970년대의 봉대리〉

■ 용기(龍旗) 들었던 두레

사람들이 북적이던 때에는 절기마다 그에 맞는 동네 행사가 있었다. 가장 풍성할때가 정월과 추석이었다. 정월보름에는 풍물치고 지신밧기놀이, 옷놀이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쥐불놀이를 벌였다. 풍물패와 함께 걸립을 다녀 이것을 동네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먹을 것은 없어도 보리술막걸리를 밀주로 만들어 몰래 마시기도 했다. 칠석날에도 옷놀이를 하였고 백중은 남의집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 크게 노는 날이었다.

일년중 가장 바쁜 농번기에는 두레를 만들어 함께 농사일을 도왔다. 용기를 들고 풍물치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한국전쟁때 잠시 중단되었고, 전후에 부활하였지만 농약과 농기계가 보급되자 어느틈에 사라졌다. 용기도 언젠가 썩어 없어지고 말았다.

■ 정성드리기

산재장골에 산신당을 두고 산신제를 올렸다. 동네가 함께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치성을 드리는 곳이었다. 산신제를 지내면 소리없이 호랑이가 나타나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전설이 있다. 산신제를 지낼때에는 누구나 부정 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산말랭이의 샘에서 목욕을 한 다음에 정성을 들었다.

한때는 동네사람 대부분이 참여했지만, 미신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점점 발길이 끊어져 지금은 산신당의 흔적도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한편, 서방동의 고목 옆에는 장승이 있었다. 여기에도 개인이 치성을 드렸고, 함부로 건드리면 동티난다며 금기시하였는데 운병희씨가 이장일때에 새마을 창고를 짓느라 없애버린 듯하다.

5. 생활환경

■ 부영이 소리 정겨운 산촌마을

60여 년 전만해도 늑대가 돌아다니는건 예삿일이었고, 들리는 건 부영이 소리뿐이라 할만큼 골 깊은 산촌이다. 경사진 땅을 일구어 경지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직접 가래로 논을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1970년대까지도 굽기를 밥먹듯 하였다.

1970년대에 관정공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농사 짓기가 수월해졌다. 산촌이라 하지만 골짜기마다 개간한 농경지가 다 합하여 총 750마지기 가량 된다. 자연환경적으로 논농사가 적절하지는 않아서 과수원을 많이 만들었다. 1985년경 주민 한기복씨와 송완용씨가 거봉 포도 농사를 처음 시작했다. 일년 내내 실틈이 없어 겨울에는 동상에 걸릴만큼 힘든 일이었는데 소득이 좋은 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농사로 전환하였다. 지금은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과수농가이다. 한우 축산농가가 3가구 있다.

■ 물지게 안지는 사람 없다.

고소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693번 지방도를 가운데 두고 서쪽이 서봉동과 평말, 동쪽이 고소재이다. 서쪽은 운주산 산줄기에 둘러싸여있고 동쪽은 망경대 산을 뒤에 두고 있다. 전동면의 고지대로 예로부터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동쪽과 서쪽마을은 각각 사정이 달랐다. 서봉동은 물이 좋은 동네여서 식수 사정이 좋았고 옷샘에서는 옷이 오른 사람이 목욕하면 병이 낫는다고 할 만큼 좋은 물이 솟았다. 어찌나 물이 좋았던지 다른 동네 사람들은 못쓰게 할 정도였다. 그러나 서쪽의 고소재마을은 형편이 좋지 않았다. 물이 부족해 우물 하나를 두고 온동네 사람이 길어먹었으며 삼밭골 냇갈에서 목욕하고 빨래를 했다. 오죽하면 ‘고소재에서는 물지게 안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평말 사람들은 텃굴 물을 떠 먹었다. 평말 사람들도 매일 물지게를 지고 물을 떠 나르는 것이 큰 일이었다. 지하수를 파는 관정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이고, 물을 쓰기 편리해지면서 과수원이 많이 생겼다.

고지대 산간 마을이지만 1980년경의 여름 장마 때에 수해를 입기도 하였다. 큰 비에 운주산 기슭으로 흩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작은 암자 하나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야말로 싹 밀고 가버렸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재해였다.

■ 주민 모임

매월 15일에 고소재 상수로 청소를 위해 주민이 모인다. 한번에 30여 명이 참석하는데 모두 이 상수로를 이용해 식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물 먹는 사람들끼리 먹고 청소하는 것이다. 이 물길이 옷골의 관정에서 끌어올려 10리 길을 흐른다고 한다.



〈마을회관〉



〈도움주신 분들〉

석곡리

석곡리는 조선말엽에는 전의군 동면의 지역이었다.
석곡리라는 지명 이전에 돌꽃이라는 지명으로 불리웠고, 이 지명이 변하여 되꼬지라고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지명을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돌이 많다는 의미의 석곡리로 불리게 되었다.



1. 마을개관

석곡리는 조선 말엽에는 전의군 동면의 지역이었다. 석곡리라는 지명 이전에 돌곶이라는 지명으로 불리웠고, 이 지명이 변하여 되꼬지라고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지명을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돌이 많다는 의미의 석곡리로 불리게 되었다. 석곡리의 처음 지명인 돌곶이라는 지명은 옛날 마을회관(현재는 마을입구 ‘데꼬지휴게소’ 자리)이 위치한 곳에 원래 큰 돌이 서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즉, 큰 돌이 곶혀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돌곶이라고 불리웠으나, 병인년 장마로 폭우가 내리던 날 돌이 넘어져서 땅속으로 묻혀졌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동원되어 그 돌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찾지 못해 현재는 그 선돌을 확인할 수 없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선돌이 없어지기 전까지 석곡리는 전동면에서도 어느 동네 못지 않게 풍족한 부자동네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인지 선돌이 땅에 묻혀 사라지게 된 이후로 마을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을의 상징과도 같았던 선돌이 마을을 지켜주던 수호신이었던다는 주민들의 믿음이 반영된 것 같다.

석곡리는 군도1호변에 드넓게 펼쳐져 있는 마을로, 마을 뒤편으로는 국사봉이 마을을 감싸안고 마을 앞으로는 조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마을이다. 현재 석곡리는 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도1호에서 마을을 바라봤을 때, 제일 왼쪽이 3반 하석곡, 가운데가 1반 상석곡,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2반 중석곡이다.

2. 지명유래

석곡리에 전래되는 지명유래는 1972년에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총람』과 2007년에 조치원문화원에서 편찬한 『연기군의 지명유래』와 마을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구리개울 : 중석곡과 상석곡 사이의 논을 지칭함. 농지정리 하기 전에 논이 구불구불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구리라고 불렀는데, 이런 구불구불한 논 사이 사이로 개울이 있어 구리개울이라고 함.
- 국사봉 : 돌곶이 남서서쪽에 있는 산을 지칭함. 산의 전체 높이가 267m인데, 산에 돌단이 있고 산제당이 있음. 고려때부터 산봉에서 국사에 큰 도움을 주었던 곳이며 봉화대가 있었음. 또한 주민들이 산신제를 지내는 제단이 있는 곳이기도 함.
- 능안 : 사기장골 좌측에 있는 곳을 지칭함. 능처럼 큰 묘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나 현재는 없음.
- 동구나무 : 안말 입구(상석곡)에 있는 300년 된 느티나무로 보호수로 지정되었음.
- 사기장골 : 안말 안쪽의 골짜기를 지칭하는데, 사기를 구웠던 곳이라 하여 사기장골이라고 불림. 사기 굽던 흔적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푸른색 빛깔을 띠는 작은 자기조각들이 수습되고 있으나, 정확한 편년을 가늠할 수는 없음.
- 상석곡 : 석곡리 제일 위쪽에 있는 마을로 안말, 상석리라고도 함.
- 석곡리 : 돌이 많다고 하여 석곡리라는 지명이 붙여졌고, 돌곶이, 되꼬지, 데꼬지라고도 함. 현재 상석곡, 중석곡, 하석곡으로 나뉘어져 있음.
- 선돌배기 : 선돌이 서 있었다 하여 선돌, 돌곶이,



〈상석곡〉



〈'대교지' 지명이 사용되고 있는 간판〉



〈중석곡〉

석곡이라 부름. 예전에 한 장수가 한 길이 넘는 돌을 지팡이로 짚고 다니다가, 지금의 284-1번지에 꽂아 놓았는데 그 돌을 선돌이라 부름. 선돌이 병오년 장마에 넘어져 지금은 그 자취가 없어졌는데 선돌이 있던 마을은 선돌배기의 하석곡이며, 이 선돌을 주축으로 위쪽에 있는 마을은 옷말, 가운데는 중석곡이라 부름. 중석곡은 온고비골이라고도 부름.

- 송학산 : 국사봉 동쪽에 있는 산을 지칭함. 황새가 소나무에 많이 앉아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임.
- 연자방아돌 : 중석곡에 있던 연자방아돌을 현재는 마을 입구 버스정류장부근에 옮겨 놓았음. 연자방앗간은 1970년대에 소실되었음.
- 온고바골 :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샘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으로, 이 샘이 있던 골짜기를 지칭함.
- 옷샘 : 물이 아주 차가워 옷이 오르면 이곳에서 씻으면 나왔다고 하여 옷샘이라고 하였음. 상석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도 주민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샘임.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치성을 드렸던 곳임.
- 유씨 열녀문 : 유씨(기계유씨)는 거창신씨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살면서 동네사람들과 잘 지냈으며 성품이 어질고 충명하여 이웃과 가족에게 덕을 많이 베풀었음. 그러나 남편과 사별하게 되자 10명의 자손들을 모아 놓고 모두 자신이 부



〈하석곡〉

족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남편의 뒤를 따르겠다고 했음. 그후 7일간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남편 뒤를 따라 목숨을 잃었고, 1727년에 정문이 세워졌음.

- 중석곡 : 돌꽃이 중앙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지명임. 초기에는 가운데 돌꽃이라고도 불리웠는데, 온고비골이라고도 불리웠음.
- 하석곡 : 아래쪽에 있어 하석곡이며 아랫말, 선돌배기라고도 함.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돌음말이라고도 부름.

3. 역사와 변천

■ 마을의 성씨

석곡리에서 가장 먼저 들어와 터를 잡은 성씨는

거창신씨였다.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거창신씨가 어떻게 석곡리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는지를 어른들에게 들어 기억하고 있다. 조선시대 연산군의 부인이었던 거창신씨의 12대조가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자, 몸을 숨기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 산세 좋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석곡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거창신씨가 석곡리에 자리를 잡고 거주하게 되면서, 석곡리와 이웃한 전동면의 청송리와 전의면의 관정리까지 거창신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했다.

이후 거창신씨의 9대조는 기계유씨와 혼인관계를 통해 세력을 확장했다. 또한 거창신씨와 기계유씨 외에도 전주이씨가 석곡리에 많이 거주했는데, 전주이씨는 거창신씨의 사위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원래 서울에 살고 있던 전주이씨들이 당시 서울에 돌림병이 돌면서 처갓집이었던 석곡리에 피신을 왔다가 자리를 잡고 살게 되면서 석곡리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도 석곡리에 거창신씨는 40% 가까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 상석곡 백자요지

상석곡 백자요지는 상석곡마을의 뒤편으로 국사봉에서 북쪽으로 내려온 능선의 동남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현재 요지로 전하는 곳은 묵고 있는 논으로, 주민들은 이곳을 사기장터, 사기장골이라고 부르고 있다. 요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논으로 개간되어 경작되었던 관계로 경작지 주변에 소토편과 백자편이 산포되어 있다. 현재 요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잡풀이 우거져 있으며, 요는 대부분 개간 당시 파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표면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주로 요벽 파괴과정에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소결토와 백자편이다. 수습되는 백자편은 접시와 발이 주요 기종을 이루는데, 모두 모래받침을 하여 포개구이를 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유약은 맑은 청색조를 보이고 있다. 요지의 북동쪽

전방으로는 작은 냇물이 흐르고 있다.

■ 열부 신이초 처 기계유씨 정려

상석곡마을의 북서쪽에 열녀 기계유씨의 정려가 서있다. 이 정려는 2001년 5월 31일 연기군 향토유적 33호로 지정되었다.

열부 기계유씨(?~1719)는 시남 유계의 중손녀로, 남편 신이초(愼爾草)가 죽자 정성껏 예를 다해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기계유씨는 당시 자손 10명을 불러 모아 남편의 죽음은 본인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사죄하며 그 죄값으로 식음을 전폐한 후 7일만에 죽은 열부이다. 이러한 열행이 알려져 1729년(영조 5)에 명정을 받았다. 창건 이후 세월이 오래 지나 건물이 퇴락하자 1896년에 중수를 하였고, 다시 퇴락하자 1971년 문중의 협의와 군비보조로 재차 중수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에 맞배지붕을 하고 있으며, 처마는 겹처마로 되어 있다. 정려의 내부에는 기계유씨 현판과 1896년과 1971년의 중수기가 걸려 있다.



〈기계유씨 정려〉

■ 상석곡 느티나무

중석곡 마을에서 상석곡 마을로 넘어 가는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나무의 수종은 느티나무이며, 1996년 11월에 군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나무의 고유번호는 8-5-385이다. 수령은 약 300



〈상석곡 느티나무〉

여 년이고 나무의 규모는 높이 20m에 둘레는 약 5m 정도로 계측된다. 현재 나무에 대한 특별한 민속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여름철이면 마을 주민들의 쉼터나 마을에 중요한 논의사항이 있을 때 주민들이 나무 밑에 모여 서로 상의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던 곳이라고 전하고 있다. 정행선 씨의 관리 아래 양호한 양육상태를 보이고 있다.

■ 국사봉이 보호한 마을(근대)

석곡리의 일제강점기는 국사봉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국사봉의 꼭대기에는 말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바위가 있다. 예전에 군대 행렬이 국사봉을 넘으며 진행되었는데, 바위에 발을 올리고 쉬고 있던 말의 발자국이 박힌 것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국사봉에는 봉화대가 있어 고려시대부터 국가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를 올렸던 영험한 산이다. 주민들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유일하게 소풍을 갔던 곳은 국사봉이었다고 한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석곡리에 들어와 마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일이 있었다. 그러나 청나라 군인이 타고 온 말이 중석곡에 있었던 밤나무에 다다르는 순간 바닥에 붙은 말발굽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곳을 지나야만 했으나, 말발굽이 꿈쩍을 하지 않아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결국 청나



〈석곡교〉

라 군대가 포기하고 마을 밖으로 나가려고 뒤를 돌기 위해 말을 돌리자 신기하게도 말발굽이 땅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청나라 군인들은 누군가 지켜주는 동네라며 마을을 서둘러 빠져나갔고, 이 일이 있은 후로 마을 주민들은 석곡리는 국사봉의 산신이 지켜주는 마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국사봉에서 햇불을 올리는 독립만세운동도 전개되었다. 기록상으로는 국사봉에서의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지만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국사봉에서 햇불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석곡리의 국사봉은 미국리의 운주산과 송성리의 까치산과 삼각형모양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한다. 특히나 국사봉에는 봉화대가 있기 때문에, 국사봉을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다른 지점들에게 햇불로 독립만세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 국사봉이 보호한 마을(현대)

석곡리의 현대사도 국사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당시 석곡리에는 폭탄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움푹 움푹 패인 자리를 피해다니느라 주민들이 고생을 했을 정도로 폭탄이 많이 떨어졌다. 폭탄이 떨어지자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갔고, 결국 주민들은 마을 뒷산 골짜기 깊숙하게 들어가 숨기도 여러 차례 했다. 또한 석곡

리 주민들은 북한군들때문에도 많은 고생을 했다. 북한군들이 마을로 들어와 밤마다 군수물자를 운반하라고 주민들을 괴롭혔고, 매일밤 모든 주민들이 동원되어 군수물자와 같은 북한군들의 짐을 날라주는 일을 했다. 이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밥을 해달라고 해서 여러 차례 밥을 해주기도 했고, 북한군들에게 밥을 먹이다가 마을에 폭탄이 떨어져 북한군들이 밥을 먹던 중간에 도망가는 일도 있었다.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빨갱이는 그냥 도깨비인 줄 알았는데, 집나르고 이야기하고 밥먹다 보니 개네들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어”라는 이야기를 한다.

또한 석곡리 주민 중 이만호씨는 당시 초등학교이었던 그 시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초등학교 정도의 마을 어린이들을 모아 놓고 북한군들이 정신교육을 시켰던 일이 있었다. 북한군들은 북한노래를 가르치기도 했고, 북한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켰던 것이다. 또한 하루에도 몇차례씩 비행기로 전단을 뿌려졌는데,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전단의 내용은 “이승만을 죽여라”, “이승만의 목을 잘라라”는 내용이었다. 전단에 그려져 있던 그림도 이승만의 목을 칼로 찌르는 등의 그림이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전쟁기에 전동국민학교는 불을 지필 수도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북한군들의 피난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미군들이 어느날 마을



〈마을 앞으로 넓게 펼쳐진 논〉

로 들어와 전동국민학교를 때려부수는 바람에 마을 어린이들은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들기름을 벽에 발라 칠판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집집마다 짚단을 가져다가 날라서 학교 옆 사택의 지붕을 엮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석곡리 주민 중 한국전쟁시기에 목숨을 잃은 주민은 한명도 없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 이것은 국사봉의 산신이 보호해주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4. 전통민속

■ 2007년까지 지낸 산신제

석곡리 주민들이 아직도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 것은 국사봉의 산신이다. 국사봉은 주민들에게 영험한 산일 뿐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석곡리 마을과 마을 주민들을 지켜봐주고 돌봐준 고마운 산이다. 이러한 국사봉이기에 주민들은 산신당을 만들어 산신제를 지내왔다. 정확하게 언제 시작되었는지 기억하는 주민은 없지만, 마을이 생긴지 300여년이 되었다면 아마 산신제도 300여년 정도 지냈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산신제는 석곡리의 역사와 함께 했다.

그러나 최근에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신자이기도 하고, 산신제를 지내는 절차가 복잡하면서 산신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생겨났다. 특히나 가장 큰 문제는 산신제의 주관자에 대한 규칙이 까다로워 점점 산신제를 주관할 수 있는 주민들이 적어진다는 것이었다. 산신제를 주관하는 주관자의 조건은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다복하고 마을에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룬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관자를 선정하는 것은 산신제의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이뿐 아니라 산신제를 지내는 절차가 복잡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산신제를 준비하는 주민들은 바쁜 농사일정 속에서



〈국사봉〉

힘들어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쌓이면 석곡리 주민들은 다같이 모여 산신제를 계속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하였다. 그리고 결국 산신제의 원래 목적대로 정성을 들일 수 없다면 제의 목적을 해치지 말고 폐지하지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고, 결정에 따라 2007년을 끝으로 더 이상 산신제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신앙이었던 국사봉의 산신에게 드렸던 산신제를 폐지한 것은 주민들이 더이상 산신을 믿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허례허식이 될 수 있는 의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마음속으로 산신을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주민들 간에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마을의 기금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산신제의 비용을 기금으로 충당하지 않았다. 주민들의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석곡리 주민들이 모두 십시일반으로 각출하여 비용을 충당했을 정도로 석곡리 주민들에게 산신제는 영험한 의식이었다. 이런 의식이었던 산신제를 지냈던 추억과 국사봉의 제단에서 기우제를 지냈던 추억 모두 이제는 주민들의 기억 속으로 묻혔다.

5. 생활환경

■ 연기군에서 제일 먼저 특수작물재배

연기군에서 제일 먼저 하우스를 이용하여 특수작물재배를 시작한 곳은 석곡리였다. 재배를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후반이었는데, 당시 석곡리 뒷산에 많이 있던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서 가늘게 쪼개 비닐하우스 뼈대를 만들어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당시 재배한 특수작물은 파리고추를 비롯해 오이 등이었는데, 특히나 파리고추는 연기군에서 제일 먼저 재배가 되어서 당시 파리고추하면 석곡리가 선두주자였다. 당



〈연기군 농산물 쇼핑몰, 와이팜〉

시 특수작물 작목반이 연기군에서 유일하게 구성이 되었고, 이 작목반을 중심으로 재배된 특수작물은 서울에까지 출하할 정도로 유명했다.

이러한 환경때문인지 석곡리에 가장 많은 인구였던 400여 명이 거주했던 시기는 특수작물재배가 시작된 시점과 일치한다. 이 당시의 부유한 경제력은 결국 그 당시 연기군을 통털어 사무관이 가장 많이 배출된 마을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다.

■ 24명의 목숨과 바꾼 석곡과선교

석곡리 마을 앞으로는 기차길이 지나간다. 이 기차길 옆으로는 원형 모양의 ‘석곡과선교’가 놓여져 있는데, 이 다리가 놓여진 이유와 관련하여 사연이 깊다.

과선교가 놓이기 전, 석곡리 마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철도 옆 도로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이 도로가 철도보다 1m 50cm정도 낮았고, 이러한 높이 차이는 사고로 연결되었다. 일단 이 도로가 너무 급경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 도로를 올라오는 길에 시동이 꺼져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언덕을 올라와서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지나가는 기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또한 도로로 이용하던 주민들도 기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목숨을 잃은 주민이 24명이었다. 24명 모두 석곡리 주민들이었다. 더 이상



〈과선교〉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당시 석곡리의 이장 신동범씨가 다리를 만들 것을 건의했다. 진정서와 청원서를 국회에까지 제출하여 예산을 받아서 1993년도에 ‘과선교’를 준공하였다. 당시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장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은 다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려면 아예 석곡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식의 강력한 요구를 했었고, 이러한 요구가 드디어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사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과선교의 준공식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리하여 과선교의 준공식이 있던 1993년 11월 30일, 철도 옆 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24명의 혼을 달래주는 위령제로 대신했다. 이러한 사연을 갖고 있는 과선교 덕분에 그 이후로는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살기 좋은 마을

석곡리의 마을회관은 2009년에 건립되었다. 마을 입구와 가까운 곳에 1층짜리 건물로 넓게 잘 지어 놓아서 마을 주민들은 집보다 마을회관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할 정도다. 마을회관 옆으로는 석곡리 마을 유래 및 회관건립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주민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직접 제작한 이 비문을 보면 마을 주민들의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늠할 수 있다.



〈도움주신 분들〉



〈마을유래 및 회관건립 기념비〉

“우리 마을 석곡리는 국사봉 아래 작은 고을이지만 운주산과 송학산이 감싸고 시내가 감돌아 흐르는 복된 마을이다. 이곳에 지금부터 440여년 전에 거창신씨 선대께서 터전을 정하신 이래 300여년 전에는 전주이씨 선대께서 아랫마을에 터전을 정하고 200여년 전에는 강릉김씨 선대께서 가운데 마을에 터전을 정하고 정착하시어 세 성씨 후손들이 우의를 돈독히 하면서 살아온 평온한 마을이다. 이후 1950년대 지역개발사업 당시 이장과 마을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마을 안길을 넓히고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전기를 가설하는 등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어 1970년대 수십년만의 큰 수해로 황무지가 된 농토에 1km나 되는 하천 제방공사를 당국의 지원과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수축하여 2만여 평의 우량농지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다. 이에 시냇물을 징검다리로 건너 다닐 때 석곡교를 완공하여 주민들의 편익에 큰

도움을 주었으나 철도건설목적의 인명피해가 잦아 이를 막기 위하여 당시 이장과 주민들의 열화같은 호소를 당국에서 받아들여 석곡과선교를 1993년 11월 30일 준공하였다. 기존 마을회관이 오랜 풍파로 허물어져 주민들의 공동체 모임 등 불편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에 이장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훌륭한 회관 부지를 마련하였으며 군 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2009년 12월 30일 준공하였기에 이날을 기념하고 협찬하신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새기기 위하여 건립비를 세워 기념하노라. 2010년 5월 15일”

마을회관을 짓기 위한 공동운영기금은 197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이장을 비롯하여 주민 전체가 한마음으로 9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이 기금으로 부지를 구입하고 그 위에 현재의 마을회관을 건립하였다. 이후에도 마을에 대소사가 생기면 주민들이 마을기금으로 협찬금을 내놓으면서 조성된 기금은 모든 마을 행사를 소화할 정도로 풍족한 편이다. 석곡리 주민들은 매년 연례행사로 초복때 더위를 같이 이겨내자는 취지에서 마을회관에 모여 점심식사를 나누고, 경로잔치를 벌여 식사한끼를 대접받는다. 또한 매년 1월 15일경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등 우의를 다진다. 석곡리의 제일 큰 자랑은 건립한지 얼마되지 않은 마을회관과 마을의 돈독한 우의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마을회관〉



〈경로당〉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신 용 혁	58	남	농업	010-6565-2193 / 863-2193
신 동 범	78	남	농업	863-2304
이 만 호	70	여	농업	863-2452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158	67	91	67	59	8	112.4	34.71	29.75	49.59	9.92
특산물 :					축산물(두) : 한우, 닭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	상석곡	김 춘 자	19	863-6491
2	중석곡	김 남 복	23	863-1311
3	하석곡	이 만 호	27	863-2452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할 머 니 회	김 소 자	부 녀 회	박 영 속
할 아 버 지 회	신 용 범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구)	284-5	660㎡	71.33㎡	1996	이장
마을창고	36-1	360㎡	165㎡	1995	이장
마을회관(경로당)	284-3	920㎡	181.06㎡	2009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신 원 범	73.2.1	77.2.8		8	신 용 면	94.1.21	96.1.20	
2	이 종 환	77.2.8	84.1.31		9	김 남 복	96.1.23	97.1.8	
3	신 동 범	84.2.1	88.1.14		10	신 용 면	97.1.9	03.4.1	
4	이 종 환	88.1.16	90.1.15		11	신 용 혁	03.4.1	05.4.1	
5	이 종 환	90.1.16	91.1.23		12	신 용 혁	05.4.1	07.4.5	
6	신 동 범	91.1.24	93.1.24		13	신 용 혁	07.4.5		
7	신 동 범	93.1.25	94.1.13						

송곡1리

송곡1리는 조치원과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로 전통면사무소에서 약 5.9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본래 백제 때는 구지현의 지역이었으며, 고려 때엔 청주목, 조선 태종 때 전의현에 속하였고, 조선말엽에는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으로서 보평의 안쪽 골짜기에 자리 잡았다고 하여 속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소골, 또는 송곡(松谷)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1. 마을개관

송곡1리는 조치원과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로 전동면사무소에서 약 5.9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본래 백제 때는 구지현의 지역이었으며, 고려 때엔 청주목, 조선 태종 때 전의현에 속하였고, 조선 말엽에는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으로서 보평의 안쪽 골짜기에 자리 잡았다고 하여 속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소골, 또는 송곡(松谷)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송곡리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편입되었다.

마을의 동쪽은 조치원 신안리, 서쪽은 송정리, 남쪽은 조치원 봉산리, 그리고 북쪽은 보덕리가 자리하고 있다. 마을의 뒷산인 장산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으며, 마을 앞에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고, 송정리 구리골 소류지에서 발원한 송곡천이 마을

을 관통하고 있다.

송곡1리 마을은 예로부터 흥풍을 잘 모르는 곳으로 물난리나 재해 등의 피해가 없어 사람 살기 좋은 곳이다. 마을은 2개의 반으로 1반은 모시터, 2반은 하소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여가구 90여명이 살고 있다.

2. 지명유래

송곡1리에 전래되는 지명유래는 1974년에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총람』과 마을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꽃짜골 : 꽃밭머리라고도 하며 꽃이 아름답게 마을과 잘 어울려 피었음.
- 담배밭골 : 모시터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



〈1990년대 초반 꽃짜골 마을 전경〉



〈띠재 전경〉



〈쌍둥이자리 터〉



〈담배밭골〉

에 담배를 많이 재배했다고 전해지며, 마을 전언에 의하면 그곳에 몰래 담배를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함.

- 도깨비 툼병 : 쌍둥이 툼병이라고도 하며, 띠재툼병 위쪽으로 쌍둥이 자리 논 가운데에 위치함.
- 뒥이 고개 : 조치원 봉산동으로 넘어가는 곳으로 조치원 장 보러 가는 길이었음.
- 띠재 : 송곡1리 1번지에 해당하며 조치원 신안동과 접하고 있음.
- 띠재툼병 : 띠재뜰 가운데에 위치하며 예전에는 빨래 했던 곳으로 마을에서 제일 물이 좋았던 곳으로 물이 마르지 않았음.
- 모시터 : 송곡리 하소골에서 뒥이고개로 가는 길목의 동쪽에 위치하는 곳으로 현재 30여세대가 살고 있음.
- 문 앞논 : 마을회관 앞 송곡천 건너편의 논임.

- 문앞논 : 모시터 앞에 위치한 논.
- 밤나무골 구레 : 도로 양쪽에 밤나무가 많아서 이름 지어 졌음.
- 부망골 : 남편이 사망한 후 부인이 묘를 쓴 자리라고 전함.
- 사담 : 마을 회관 앞에 위치하며 모래 '사(沙)'자를 써서 이름 붙여 졌으며 논에 모래가 많아 기름지지 못했던 곳이지만 현재는 경지정리를 해서 개선되었음.
- 서낭당 : 봉산동 넘어가는 뒥이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는데 20여년 전에 도로가 새로 나면서 서낭당이 사라졌다. 그 뒤로 마을 어른들이 계속해서 아프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서낭당이 사라진 것 때문이라 하여 그 자리에 다시 서낭당을 만들었음.
- 석골 고개 : 송곡리에서 조치원 신안리 석골마을로 가는 고개를 이른다. 예전에 이곳에 돌무더



〈사담〉



〈꽃짜골 전경〉



〈석골고개〉



〈모시터〉



〈모시터로 가는 송곡교〉



〈하소골 전경〉

기를 쌓아 놓은 서낭당이 있었으며 조치원 장을 보러 다니던 길이었음.

- 쌍둥이 자리 : 옥자리터라고도 하며 모시터에서 300m 쯤 거리에 있다. 옛날 삼한시대에 농성(農城)인 토성(土城)을 쌓을 때 부역자를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 옥 자리인데, 한 번은 임신을 한 여인을 가두어 두었더니 쌍둥이를 분만하여 그 때부터 옥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지금은 일명 '쌍둥이 자리'라 불리고 있으며, 집을 짓지 않고 전답(田畓)으로 사용하고, 송곡리 38번지에 위치함.
- 여우밭골 : 부망골 옆의 골짜기를 지칭하며, 그곳에는 여우가 많이 살았으며, 애장터가 있었던 곳임.
- 웅달샘 : 송곡1리에서 물이 가장 좋았던 곳으로 물이 바위에서 나왔음.
- 윗샘 : 모시터 사람들이 먹던 샘으로 위에 있다 하여 윗샘 이라 했는데, 샘은 작지만 물이 깨끗하고 맑았음.
- 쪽다리 : 좁은 다리를 말하는데 보건소 옆 모시터 들어가는 다리를 말하며, 송곡교라고도 함.
- 토광 : 일제 강점기에 논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파 놓은 것으로 모시터 마을 앞 전답에 있었음.
- 하소골 : 하송곡(下松谷), 아래소골이라고도 하며, 소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

3. 역사와 변천

■ 동그락산 이야기

송곡1리 하소골 마을과 보덕리의 경계지역에는 '동그락산'이라는 곳이 있다. 이 산은 소골탕이 사람들의 주산인 연수봉에서 하소골로 이어져 내려온 산줄기로 모습이 용을 닮았다고 하며, 하소골은 용의 허리에 해당한다고 한다.

송곡리 하소골 마을과 보덕리 마을은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길이 없어서 서로의 마을을 가려면 멀리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에 동그락산을 끊어 하소골에서 보덕리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 그러나 산을 끊은 후 이 길을 이용하던 사람이 사망했고, 마을 사람들은 용의 형국의 신성한 산을 끊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다시 복구를 해 현재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지 사



〈동그락산 전경(현재 행정구역은 보덕1리에 해당함)〉

람에게 그 땅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곳에 집을 짓기 위해 형질변경을 하고 흙을 파 갔는데 당시 하소골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때의 악몽이 다시 재연 될까 싶어 모두 반대하고 말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등기가 나 버린 상태에서 어쩔수가 없었다. 마을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2008년 여름, 동그락산에 무당을 불러 무당굿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때 당시에는 송곡리 마을 사람들 전체가 모여 마을의 안녕을 빌었고, 보덕리 사람들도 참여해 동그락산의 용의 기운을 달렸다고 한다. 2010 현재까지는 마을에 아무런 사고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마을 입구에 위치했었던 동그락산 없어져 마을 사람들은 아쉬워 하고 있다.

■ 한국전쟁시기

한국전쟁시기에 송곡1리는 조용한 편이었다. 마을 뒤에 있는 굴바위산과 연수봉에서 전투가 일어났으며, 송곡리 마을이 북한군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었다고 하지만 마을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현재 마을회관 앞 사담에는 독방의 건너편에 미군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 한 적이 있다. 마을의 전언에 의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미군을 북한군이 지나가던 길목이었던 사담 앞에 버리고 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현재 조치원으로 넘어가는 석골고개에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지나다니던 통로였다고 전



〈석골고개 전경〉

해지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송정리, 서면 등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피난을 갔다.

■ 꽃짜골의 글방 ‘공회당’

일제강점기 시대가 끝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꽃짜골 마을에는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곳인 공회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은 송곡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부녀자, 할머니 등 한글을 배우고 싶지만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낱을 정해 글을 배울 수 있었던 곳이었다. 선생님은 마을 사람 중에 글을 배운 사람이 봉사하며 가르쳤으며, 사람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는 대단했다. 하루종일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글을 배울 수 있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공회당에 모여 시끌벅적 했다고 회상한다.

4. 전통민속

■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송곡1리 사람들은 정월보름 저녁에 마을사람들이 함께 논에 모여 달집태우기를 했다. 논 한가운데에 나무를 해다 놓고, 나무 주위를 짚으로 둘러 달집을 마련하였다.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달이 떠오르는 시간에 맞추어 종이에 소원을 적어 달집에 꽂기도 하였으며, 마음 속으로 소원을 빌기도 하였다. 2009년까지는 진행이 되었지만 점점 마을사람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전통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다.

■ 땡이고개에서 빌던 소원

봉산리에서 모시터로 넘어오는 땡이고개는 송



〈똥이고개〉



〈모시터 입구에 세워진 호랑이상〉



〈장산 전경〉

곡리, 송정리 사람들이 조치원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곳에는 서낭당이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건강과 안녕을 비는 곳으로 돌맹이 하나씩을 던지고 가던 길이었다. 바닥은 바위판이고 돌무더기가 쌓아 있는 형태였으며, 옛날 나무장사 하던 시절 밤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간간히 그곳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똥이고개에 도로가 나기전까지만 해도 모시터 마을 사람들은 정월 열나흘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100여 년을 이어온 서낭당제를 올렸다. 그러나 도로가 나면서 서낭당을 무시하고 없애버려 제사를 지내지 않아 마을에는 큰 일이 일어났다.

■ 스님이 알려준 비책

똥이고개에서 송곡리 마을로 내려오는 길목에는 모시터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모시터 마을에서는 몇해전 도로가 나면서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시터에 살고 있던 젊은 남자들이 원인 모르게 하나둘씩 사망하기 시작했다. 더욱 이상한 일은 똥이고개에서 가까운 집부터 일직선상으로 남자들만 죽는 것이었다.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멸쩍했던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마을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에서 시주를 하면서 지나가던 스님이 꽃짜골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혹시 모시터와 꽃짜골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에 서낭당이 있



〈좌측의 호랑이상〉



〈우측의 호랑이상〉

었는지를 물었다. 마을 주민은 그곳에 예전부터 서낭당이 있었던 곳이고, 제사를 지냈던 곳인데 도로가 나면서 제사도 함께 중단되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주민에게 모시터 마을을 감싸고 있는 장산의 산세가 홀어머니의 모습으로 과부가 많이 생기는 형국이라고 했다.

그래서 도로가 새로 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죽어 나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어 스님은 비책으로 서낭제를 다시 지내라고 했으며, 모시터 마을 입구인 현재 송곡교 다리가 있는 곳에 호랑이상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다. 나쁜 기운을 막으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주민은 서로 상의해 호랑이상을 만들어 마을입구에 세워 놓았는데 신기하게 그 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한다.

■ 다시 시작되는 서낭제

호랑이상을 만들면서 마을에서는 중단되었던 서낭제를 다시 지내기 시작했다.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서 모시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 둘씩 다시 서낭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매년 정월 열나흘날 뒀이갠에서 서낭제를 다시 지내고 있다. 저녁 6시쯤 시작되는 제사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 해 마을의 무사안녕과 건강을 빈다.

서낭제가 다시 시작되면서 예전에 비해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사항은 지키려 노력



〈뒀이갠 우측에 있는 서낭제단과 돌탑〉

하고 있다. 예전에는 모시터 마을 각 가정 입구마다 황토를 뿌려놓았고, 제관은 피를 보지 못하게 했으며 부정을 금하고 출입을 삼가 했고, 이장이 주관을 해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에는 초상집에 가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것만이 지켜지고 있으며, 요즘에는 나이가 제일 많은 마을의 어른신이 주관을 한다.

제물의 준비는 매년 5명씩 조를 짜 돌아가면서 마련하는데 삼색실과, 돼지머리, 북어포, 막걸리를 준비하여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질 무렵 모두 서낭당으로 올라간다.

돌탑 앞에서 마을의 제일 큰 어른이 먼저 절을 한 후 마을 사람들 한꺼번에 절을 하고, 소지를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서낭에서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제물을 음복 한 후 제를 마친다. 제가 끝난 후 사람들은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모시터에 있는 할머니 노인정으로 내려와 음식

을 나누어 먹는데 이날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날로 회관에서 한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덕담을 전하며, 노는 날이기도 하다.

■ 오래오래 살았다고 맺던 빈상여 ‘젯덜이’

예전에는 마을에서 상을 당했을 때에는 마을사람들이 모두 상가집에 가서 함께 도와주곤 했다. 특히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살았던 시절에는 80세만 넘어도 호상이라 하였는데 아프지 않고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을 때 송곡1리 마을에서는 행해지던 놀이가 있었다.

마을에서는 ‘젯덜이’라고 하였는데 장지로 가기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이 빈상여를 매고 장례식 흥내를 내면서 노는 놀이였다. 상여를 매는 사람들이 빈상여를 매고 곡 소리를 하면서 상가집의 마당에서 놀면 상가에서는 술과 음식으로 대접을 하였다



〈남자들이 빈상여 매는 모습〉



〈부녀자들의 상여 매는 모습〉

고 한다. 특히 송곡1리 마을에서는 남자와 여자들이 상여를 번갈아 매고 마을을 돌았다. 부녀자들이 상여 매었는데 이는 보통 남자들이 매는 것과 이례적인 것으로 나이 많은 노인이 돌아가시면 행해지던 것이었고 실제 상여를 매고 운구를 하는 것과 거의 같았다고 한다.

이는 떠나는 사람 편안히 가시라고 흥을 돋우고 슬픔에 젖어 있는 상주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의미였다.

5. 생활환경

■ 나무장사로 먹고 살던 시절,
그거라도 안하면 굶어 죽어

1950년대·1960년대, 송곡1리 마을은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다른 집에 밥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나무장사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다행히도 주변에 산이 많았고, 조치원장이 가까웠기 때문에 쉽게 나무를 장에 내다 팔 수 있었다. 장에 나무를 내다 팔기 위해서는 그 전날부터 나무를 해야만 했다. 땀감부터, 낙엽, 솔가루 나뭇가지 가리지 않고 굶어모아 자루에 담고 지게에 올렸다. 해가 넘어갈 무렵이면 한 짐 가득한 나무를 지고 조치원으로 넘어가는 도장고개에 가서 쉬었다가 날이 밝으면 장으로 향했다. 나무 한 지게에 보리쌀 한 대 값을 받았던 시기였다. 나무를 팔고 나면 그 전날부터 나무를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긴장이 풀렸다. 특히 빈속에 아침도 못 먹고 겨우겨우 물로 배를 채웠기에 힘든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럴때면 피곤함을 잊기 위해 막걸리 한사발로 목을 축이고 허기를 달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그리고는 집에서 기다릴 가족들 생각에 동태 한 마리 사면 주머니에는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 빈 지계에 동태를 걸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동태를 보고 행복해 할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고 한다.

■ 보리를 갈아서 물에 타 먹던 그때 그 기억

예나 지금이나 농촌에서는 농사철이 되면 바쁜 것은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어느정도 먹고 살만은 하지만 흔히 보릿고개라고 했던 그 때에는 너무나도 먹을 것이 간절했다. 보리쌀도 귀했다. 그 쌀을 아껴먹기 위해 여러번 나눠서 끼니때마다 물에 타 먹어야만 했는데 쌀은 찾아 볼 수도 없고 물 배만 찼다. 농사철이 되면 인근의 부잣집에서는 일꾼을 부려 농사를 짓기도 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부잣집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일 잘하는 사람, 힘이 썩 사람이나 골라 썼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도 없었다. 그 일을 하면 아무리 일이 힘들고 고되더라도 점심시간에는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전동면에서 제일 부자 동네

1960~1970년대 송곡리는 마을 뒤편에 균유림과 국유림이 많아 개간을 하여 담배와 누에치기 등으로 소득을 올렸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자녀들의 학업과 생업을 유지하였다. 1970년대 초, 전동면의 누에 농사는 처음 국가 장려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송곡리에는 대부분의 집에서 누에를 쳤는데 다른 마을은 한두개의 공동 잠실이 있었던 것에 비해 송곡리 마을은 집집마다 누에를 키우는 잠실이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누에를 생산했고 수입이 좋아 전동에서 제일 부자 동네가 되었다. 1년에 2번, 봄에 치는 것은 춘잠, 가을로 치는 것은 추잠으로 일은 힘들었지만 한철 고생을 하면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송곡리 사람들은 누에 키워 자식 대학 보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한 집 두집 시작하게 된 것이 수입이 좋아 너도나도



〈누에 키우는 모습(1980년대 초반)〉

동참 하여 마을전체의 수입원으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마을 주민의 90% 이상이 잠업을 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전동면 뿐만 아니라 연기군 내에서도 누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되었다. 때문에 당시 마을에는 논을 제외한 모든 곳에는 누에의 먹이인 뽕나무를 심어 사방이 뽕나무밭이었다.

그 시절에는 마을에 누에 작목반 조직이 따로 있었는데 면사무소에서 누에 알을 받아다가 각각 가정에 나누어 주면 따뜻한 방에다가 채반 위에 신문지 깔아 놓고 며칠을 놔두면 한 마리 두 마리씩 서서히 알을 까고 누에가 나왔다. 그러면 뽕나무를 잘게 썰어서 먹이를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배가 되어 누에를 다른 채반에 반으로 나누어 놓고, 며칠이 지나면 또 두배 3배가 되어 수가 점점 많아져 계속 채반의 수를 많이 해 한주먹씩 집어 나눠 놓았다.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는 고치를 만들기 시작하면 실을 뽑아내는 공장으로 보내졌다. 그 공장은 조치원읍(서창동)에 있었는데 당시 등급에 따라 1kg에 6,000원~7,000원 정도 됐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화학섬유의 옷 등이 생겨나고 수출이 점점 막히면서 벼농사가 활성화 되어 농약을 사용하면서 약에 약한 누에 생산도 줄어들게 되었다.

■ 면사무소보다 전기가 더 먼저 들어온 이유

연기군 내에서도 누에 농사로 소문이 자자했던

송곡1리는 “전국 수출농가”라고 불릴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 많은 수출 소득을 기대해 면사무소가 있는 노장리 보다 누에를 많이 생산하는 송곡리에 전기를 빨리 설치해 주었다. 전기는 촛불을 켜고 살던 마을을 밤새 환하게 비춰 주었고, 낮과 밤 없이 일 할 수 있어 소득을 더욱 증대 시켰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 면사무소에는 잠업계가 따로 있을 정도로 관심과 지원이 대단했다. 지도원들은 틈틈이 누에치는 집을 방문해 상세히 누에의 상태를 체크 했고,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을 알려주었으며 매달 날을 잡아 누에농사 교육도 실시했다.

■ 돈이 되는데 그게 징그러워?
귀엽기만 하더만

양잠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처음 해 보는 것이라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큰 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들 열성이 대단했다. 꿈틀거리는 애벌레를 2~3일에 한번씩 맨 손으로 채반에 옮겨 담는 것도 여간 징그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장갑을 여러겹 끼고 징그러워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 하고 느낌으로만 잡아 옮겨 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소득이 되었고, 매일 보아서 그런지 자식 같이 예쁘고 귀엽기까지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득원이 된 누에들이 그렇게 예뻐보일 수가 없었다. 이제는 맨손으로 잡아 다른 채반에 옮기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시골에서 마땅한 장난감이 없던 시절, 누에를 방바닥에 몇 마리씩 풀어 놓으면 따뜻한 곳을 찾아 기어 다니는데 아이들은 누에를 따라 다니며 놀았다. 어른 역시 누에의 촉감이 부드러워 입에 누에를 넣었다가 뺏다가 하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누에의 보송보송한 털의 느낌이 참 좋았다고 회상한다.

■ 담배농사로 자식들 학교 보내던 시절

시골 농사일이 안 힘든게 어디 있겠나만은 1년 내내 한시도 손을 땔 수 없는 담배농사는 그중 최고 힘들고 고달팠다고 기억한다. 80년대쯤 누에고치 농사가 시들해지면서 담배 농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뽕나무를 심었던 자리에 담배 농사를 짓기 시작 했다. 전동면에서 많은 양의 담배 보급 씨를 나눠주었는데 벼농사와 함께 병행 할 수 있었고, 때문에 누에농사를 짓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농사를 했다. 벼농사가 시작 하는 시기에 맞춰 담배 농사도 시작된다. 벼농사는 모를 심고 추수를 할 때까지 시간이 있지만 담배는 담배순도 잘라 줘야 하고, 담배 잎도 따야 하고 말려야 하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담배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특히나 담배는 유독 한여름에 있을 수확했는데 7~8월 한여름 띄약벌에 아래에 숨이 턱까지 차는 날씨의 일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확한 담배를 건조해야 하는데 여름에 다른 사우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땀을 쏟아야했다. 처음에는 각자 집마다가 건조실을 만들었는데 그 후 90년대 초반쯤 마을에 담배 집하장을 만들어 공동으로 관리를 했다. 수확한 담배는 전의에 있는 공판장으로 보내졌으며 벼농사보다는 수입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1년 고생을 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받은 돈으로 자식들 학교 보내는 살림꾼이자 효자



〈국가보조사업으로 마련된 마을 공동 담배건조장으로 쓰이던 곳〉

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시로 빠져 나가면서 점점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1~2가구만이 이어가고 있다.

■ 마을회관 옆에 세워진 공덕비

송곡1리 마을회관 옆에는 공덕비 3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먼저 우측에는 ‘한범석(韓範錫)의 공덕비’로, 한범석씨는 마을에서 살다가 70세(古稀)를 바라보는 나이에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사를 갔다. 그 시기에는 마을 회관 건립에 기금이 모자라 회관을 지을지 말지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120만원 상당한 40여평의 넓은 땅을 자진 희사 했다. 이로써 회관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고 활기를 띠어 마을회관을 건립하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회관 건립 후 그 덕행을 높이 사기 위해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가운데에 있는 비석은 ‘한순석(韓順錫) 공덕비’로 지역과 마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을 세운 한순석씨를 기념한다. 특히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2년여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마을과 지역 주민들을 찬동하였으며, 여러 협조를 얻어 당시 돈으로 약 2천여 만원의 큰 자금을 조달하여 현대적으로 크게 회관을 준공하도록 하였다. 마을에서는 그간의 공적을 높이 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석을 세워주었다.

좌측에 있는 비는 ‘임범수(林範洙) 공덕비’로 본



〈공덕비〉

래는 동그락산에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이 옮겨 온 것이다. 마을회관 앞에 흐르는 송곡천의 물길을 바로 잡은 공으로 세워 준 것이다. 현재는 천이 정비되어 반듯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들쭉날쭉 하여 엉망이어서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았고, 물길도 자주 바뀌어 논으로 밭으로 물이 넘어 사람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비 후에는 하천의 독이 높아지고 보기도 좋고 별다른 피해도 없었다. 비석의 전면에는 도로완성 등 새마을 사업에 관련된 공적이 각자되어 있다.

■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공동 마을회관

송덕노인회관에는 하소골 주변 마을인 보덕리·송정리·송곡리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장소이다. 각각의 마을에 회관이 있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변 마을에서 함께 해 온 몇 십년동안의 정으로 하루라도 안보면 서운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도 송곡리와 송정리의 ‘송’자와 보덕리의 ‘덕’자를 따서 송덕노인회관이다.

농사에 대한 이야기, 자식들의 자랑 등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이곳은 소골 골뱅이 마을의 남자들 공간으로 여자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여자들은 각각 하소골과 모시터에 마을회관이 있어 그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이곳에는 농번기에도 최소 5~6명의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으며, 점심시간에는 15명, 많게는 20명 가까이 모이기도 한다.

현재 송덕 노인회관에는 노인회원들의 명단과 물품명부, 서류철 등이 잘 관리 보관되어 있다.

2층에는 송덕노인주민교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은 소골뱅이 사람들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연기군과 보건소에서 수시로 나와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에 2006년에는 마을의 부녀자들이 요가 대회

에 나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내서 수상을 하였고, 2007년에는 관절염자조교실, 비즈공예를 열어 마을 사람들의 취미생활과 건강을 책임지기도 했다. 매년 겨울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물 연습에 분주하다. 대부분 마을 사람들의 연령이 높아 운동 위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동아리를 만들어 함께 운동을 하며 건강을 찾고 있다.

■ 송곡1리에서 시작되는 오봉산 등산길

모시터 마을에서 뒤편고개로 넘어 가는 길목 오른쪽에는 오봉산으로 가는 등산길이 있다. 등산로라는 이름으로 소꿉꿍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송곡1리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산길이었다. 이곳은 오봉산 등산로로 가는



〈송덕노인회관〉



〈노인회관에 모여 식사를 하는 회원들〉



〈2010년 송덕 노인회 효도관광(공주 성곡사)〉



〈송덕노인회의 명단과 문서철〉



〈2006년 요가대회 수상〉



〈2007년 관절염 자조 교실〉



〈주민건강교실에서 풍물 연습하는 주민들〉



〈2010년 결성된 걷기 동아리〉



〈노인회관에 모인 소골탱이 주민들 1〉



〈노인회관에 모인 소골탱이 주민들 2〉

길목으로 이어진 곳으로 송곡1리 마을 사람들이 몇몇씩 짝을 지어서 아침운동을 다니는 길이다. 처음 소로 길로, 없던 길을 나무를 베고, 낫을 들고 다니면서 깎았으며 예초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비하여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새벽 5시반~6시 사이에 7~8명 정도 짝을 지어 운동 하는 곳이다. 오봉산 정상까지는 1시간 거리로 힘들지 않은 완만한 코스이다. 점점 사람들이 다니다보니 길이 넓어졌고,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송판, 고철을 가지고 산의 중간 부분에 올라 운동기구를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고물상에 찾아가서 페달이 잘 돌아 가는 자전거를 골라 올려놓고, 나무를 가지고 갖가지 운동기구를 만들어 설치해 놓았다. 산에 오르내리면서 산나물을 뜯어다가 반찬을 해먹고 파라솔 의자도 마련되어 있어 끓는 물을 보온병에 담아 가져가면 컵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었다. 아침운동 가는 것이 기다려지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매일 하나씩

늘어나는 운동기구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운동으로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그 후 사람들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면사무소와 연기군청에 등산로 설치를 건의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시작되는 등산로에 계단을 만들어 주었고, 운동기구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설치된 운동기구는 모두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이 연령대가 높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운동을 다니던 사람들이 땀으로 만들어 놓았던 운동기구가 보기 좋지 않았는지 모두 수거하여 주변에 숨겨 두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손수 만들어 정들었던 운동기구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운동기구를 가져다 놓아 아쉬움이 컸다. 산을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이 만들었던 운동기구를 발견했고, 다시 찾아 다다 그 자리에 올려 놓았다.



〈오봉산 등산길 표지판〉



〈등산길〉

이곳 송곡리 등산로는 소골 골짜기 사람들이 모두 이용하는 곳으로 점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 위친계

송곡1리에는 1960년대 마을에서 조직한 위친계 모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둘씩 모여 만들어졌다는 위친계 모임은 처음 창립당시 ‘전동면 송곡리 위친 친목계’라 칭하였으며, 23명의 계원으로 시작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0년 현재는 8명이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상을 당했을 때에 모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12월 25일에 날을 정해 1년 연말 결산을 하고 있다. 현재 위친계의 회장은 김종경, 총무는 김종환씨가 맡고 있다.

위친계에는 1960년대의 창립 당시의 문서가 전해지고 있다. 계의 목적과 계원, 매년 연말 결산 보고의 순서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 특히 기록 중에는 재정에 관한 재미있는 항목이 있는데 계의 창립 당시 23명으로 각각 계원당 한명씩 백미 1두씩을 거출하여 본 계의 기본금으로 정했고, 그 돈으로 계원의 애상사시에 보조를 해 주기도 하였으며, 그것을 마을 주민에게 귀 주어 이자를 받아 돈을 불리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문서의 뒷편에는 보관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위친계에서 돈을 빌려간 주민의 이름과

빌려간 날짜, 보증인이 기록되어 있고 이름 옆에는 지장을 찍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약속한 날짜에 무조건 빌려간 돈을 다시 환급해야 함을 원칙을 했으며, 돈을 갚으면 장부에 ‘×’를 쳐서 지워 주었다.

현재에도 회비는 따로 걷는 것은 없이 이제까지 모아온 돈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친계 문서를 살펴보면 처음창립 계원은 15명이었는데, 1965년에 4명, 1966년에 4명을 가입시켜 23명으로 이어왔다고 되어 있다. 계의 목적은 계원의 친목 도모와 상호 협력 협조하여 위친 애상사(哀喪事)에 보호하며, 계원이 애상사를 당했을 때에는 가사를 막론하고 전원 참석하여 호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즘에는 상이 났을 때에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운구 차량을 활용하지만 송곡리는 위친계가 있어 마을 입구에서 계원들이 상여를 매고 장지까지 이동하고 있으며, 장부를 마련하여 기록한다. 주민 대소사에는 모처럼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모이고 있다.

■ 소골 한우영농조합

20여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소골 한우영농조합이 송곡리에 있다. 송곡1리 사람이 주축이 되고 있는 한우 조합은 현재 회장과 총무를 중심으로 한우를 키우는 17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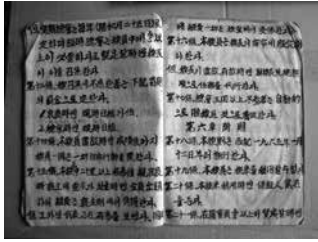
〈창립당시 위친계 문서〉



〈현재 사용하는 장부〉



〈위친계 총칙 1〉



〈위친계 총칙 2〉



〈위친계 회의 기록 내용〉



〈재정의 보관증〉



〈소골한우영농조합 정관 1〉 〈소골한우영농조합 정관 2〉

있다. 1989년도에 조직된 한우 영농조합은 한우 소비가 늘어났고 수입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 이전에는 규모가 작아 많이 소를 키워야 2~3마리가 전부 였는데 한우의 소비가 늘어나고 수입이 좋아지면서 하나둘씩 많은 두수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 했다고 한다. 특히 개인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여러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정부 지원 사업 등 지원이 개인보다는 단체가 유리해 조직하게 되었다. 처음 송

곡1리 사람들만 12명으로 시작하였는데 보덕리 송정리 사람들이 하나둘씩 참여 하게 되어 규모가 커지면서 송곡1리 한우 작목반에서 소골 작목반으로 이름도 바뀌게 되었다.

매월 26일 월례회를 열어 친목을 도모하는데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있다. 특히 연기군 한우협회에서 전달되는 사항을 다시 회원들에게 전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소골 한우 영농조합은 법인단체로 농협이나 축협으로 개통출하를 하는데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거래 되고 있는 품질 좋은 한우이다. 2010년 현재 1,500여 마리의 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기군에서도 두 번째로 큰 작목반에 해당한다. 연기군에서는 1순위의 작목반으로 인정받고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으며, 품질 또한 최고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또한 2006년부터 정관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작목반 회원들의 참여율도 좋다.



〈송곡리 마을 입구 표지석〉



〈도움주신분들〉



〈모시터 마을회관〉



〈하소골 마을회관〉



〈마을 단합대회 모습(통영여행)〉



〈2009년 3월 26일 마을 단합대회(통영여행)〉



〈마을 사람들의 여행〉



〈모시터 할머니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양기천	74	남	농업	010-9566-1657
신종호	76	남	농업	867-1641
신전호	71	남	농업	867-1694
곽상용	56	남	농업	867-1880
김종환	56	남	농업	867-1201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200	97	103	69	59	10	83.3	34.71	20.83	24.79	2.98
특산물 : 복숭아, 배					축산물(두) : 한우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반	모시터	한관수	30	867-1625
2반	하소골	신원호	30	867-1564

• 마을조직

구분	대표성명	구분	대표성명
총회	임광석	부녀회	이영예
개발위원회	임광석	청년회	오성세
노인회	최성교	송덕노인회	양기천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하소골마을회관	147-4	272.06㎡	121.08㎡	2009	이장
송덕노인회관	138-4	341㎡	192.6㎡	2001	양기천
모시터노인회관	75-1	536㎡	66㎡	1993	곽영재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김원규	75.7.1	83.3.1		8	임광석	96.1.23	98.3.20	
2	이경찬	83.3.1	84.1.31		9	임광석	98.3.20	00.1.27	
3	김원기	84.2.1	88.1.4		10	김원규	00.1.28	03.2.17	
4	임광석	88.1.4	90.1.4		11	김종환	03.2.18	05.1.18	
5	임광석	90.1.15	92.1.15		12	김종환	05.2.18	07.1.8	
6	임광석	92.1.16	94.1.17		13	임광석	07.1.8	10.1.8	
7	김원규	94.1.23	96.1.22		14	임광석	10.1.8		

송곡2리

송곡2리는 조치원과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로 전동면사무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7km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동쪽은 송곡1리, 서쪽은 송정1리, 남쪽은 오봉산을 경계로 서면과 맞닿아 있으며, 북쪽은 보덕2리가 자리하고 있다.



1. 마을개관

송곡2리는 조치원과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로 전동면사무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7km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동쪽은 송곡1리, 서쪽은 송정1리, 남쪽은 오봉산을 경계로 서면과 맞닿아 있으며, 북쪽은 보덕2리가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으로서 보평의 안쪽 골짜기에 자리 잡았다고 하여 속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소골, 또는 송곡(松谷)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하며, 소골 중앙에 있는 마을을 중소골 이라고 부른다. 또한 송곡2리 마을은 능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 사손(孫)인 예조판서 김남중(金南重)의 묘(墓)를 여기에 쓰게 되자 소곡(小谷)을 능곡(陵谷)이라 부르게 되었고, 능(陵)이 있는 곳이라 능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영의정, 병조판서 등 많은 고관들의 무덤을 써서 능골 마을이라 한다.

송곡2리는 아늑한 산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농촌 마을로 사람들 대다수가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마을 앞에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고, 송정리 구리골 소류지에서 발원한 송곡천이 마을을 관통해 조천으로 합류 한다. 마을 특산물로 복숭아와 배가 있으며, 산속 깊은 곳에 자리 한 마을로 한국전쟁이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 피해가 없는 마을이며, 1반과 2반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점점 줄어 들고 있어 1반으로 합쳐서 관리 하고 있다.

2. 지명유래

송곡2리에 전래되는 지명유래는 1974년에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총람』과 마을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가재골 : 송곡리(松谷里)에 있는 마을로, 가재가 골짜기에 많다 해서 가재골이라 부르며, 모시터 동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임.
- 개작골 : 가재울의 다른 이름으로 가재가 많이 났다하여 개작골이라 하였으며, 예전에 100여 호가 살았을 정도로 부자동네였다고 함.
- 내건너논 : 버스정류장 맞은편, 송곡천 건너에 있는 논
- 능골 : 2리의 자연마을로 조선시대 부마의 묘가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
- 당골 : 송정리와 경계 지역으로, 원터밭골 옆에 자리함
- 뒷골 : 송곡2리에서 보덕리로 넘어 가던 길이 었음
- 배남이고개 : 봉산리를 개작골에서는 배남징이라 했는데, 개작골에서 봉산리 넘어가는 고개를 배남징이 넘어간다 하여 배남징이고개라 함.



〈가재울 마을 전경〉



〈뒷골〉



〈송곡저수지 전경〉



〈중소골뫓뜰골 전경〉



〈오사막골 전경〉



〈앞산 전경〉



〈원터밭골〉

- 빽새울고개 : 송덕분교에서 심중1리 아래지푸 내로 넘어 가는 고개
- 새터골 : 송곡2리의 북쪽에 위치하며, 맞은 편에 있는 논도 새태논이라고 함.
- 소골 : 보평 안쪽 골짜기에 있으므로 속골, 즉, 산 속에 있는 마을로 속골이라 불렀는데, 변하여 소골이라 부른다. 송곡(松谷)이라고도 함.

- 송곡 저수지 : 가재울 마을 사람들의 농업 용수로 송곡천과 합류해 조천으로 흘러들어감.
- 앞산 : 능골 전면에 보이는 산
- 오사막골 : 옷말의 북쪽으로 경주김씨의 묘소로 가는 골짜기를 지칭하는데 현재 인삼밭이 있음
- 옷말 : 경주김씨 종손이 살고 있는 집 주변으로 마을의 제일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음.
- 원터밭골 : 현재는 산이 개간되어 있음
- 장나들이 : 새터골 가는 쪽으로 현재는 소막이 있는 작은 길이다. 이 길을 지나면 모시울과 석굴로 가는 갈림길이 나옴.
- 중소골 : 소골 중앙에 있는 마을을 중소골 이라고 부른다. 또한 능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의 손(孫)인 예조판서 김남중(金南重)의 묘(墓)를 여기에 쓰게 되자 소곡(小谷)을 능곡(陵谷)이라 부르게 되었다. 능(陵, 묘)이 있는 곳이라 능골이라 부른다. 그 후 영의정, 병

조판서 등 많은 고관들의 능(陵)을 썼음.

- 중소골 뒷뜰골 : 충익사 바로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로 계단식 논이 길게 펼쳐져 있음
- 텃논 : 마을 앞에 펼쳐진 논을 말함

3. 역사와 변천

■ 왕과 바꾼 밭자리

송곡2리 마을에는 400년 이상 터 잡은 경주김씨가 살고 있다. 현재 1가구밖에 살지 않지만 15대 이상을 마을에서 살아온 터주대감이다. 경주김씨 계림군파로 현재 종손은 16대이며, 종손이 살고 있는 송곡2리 웃말이 집터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전해지는 족보나 기록은 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후손들의 전하는 말에 의하면 처음 연기와의 인연은 조선시대로 올라간다. 본래 송곡리 능골은 조선 초기 조정에서 풍수를 따져 임금의 산소자리로 정해져 있던 곳이라고 하며, 당시 세도가였던 경주김씨 역시 풍수지리를 보고 경기도 벽제를 묘자리로 점찍어두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경기도 벽제의 묘자리가 여러면에서 왕릉으로 선택된 송곡리 보다 더 좋다고 하여 서로 바꾸자고 하였다 한다. 경주김씨의 주요 생활권은 한양 도성 근처였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왕의 명이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경주김씨 묘소가 있는 능골 전경〉

왕과의 묘 자리를 바꾼 후 조정에서는 그 공으로 주변의 더 많은 땅을 하사 하였다. 주변 마을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현재 조치원 신안리에 위치한 조형아파트 뒷산인 병마산 꼭대기에서 소골탕이 쪽을 바라보고 손으로 그려지는 땅은 모두 경주김씨라고 했을 정도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음력 10월 10일은 시제를 지내는 날로 서울 등 각지에서 20여명 정도가 모여 아침 10시 정도 시작이 되는데 특이한 점은 시제를 지내기 전에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시제에 참석한 문중 사람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른이나 종손이 지낸다. 산신제의 제물은 소 족을 삶아 편육을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 이는 경주김씨 계룡공파 종가집에서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한다. 이조참판을 지냈던 남중과 의금부 도사를 역임한 홍진의 묘를 송곡리 능골에 마련한 후 그 이후의 후손들 모는 전동면 주변에 마련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묘의 관리가 힘들어 2000년도에 전국에 있던 경주김씨의 계림군파 후손들의 묘를 하나로 모아 화장 해 납골당에 모셔 관리 하고 있다.

■ 충익사(忠翼祠)

김명원(金命元, 1534~1602)의 부조묘이다. 김명원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응순(應順), 호는 주은(酒隱)이다. 아버지는 대사헌 만균(萬鈞)이며, 어머니는 순흥안씨로 현감 준의(尊義)의 딸이다.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58년(명종 13)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561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가 되고 이어 저작(著作)·박사(博士)에 승진하였으나, 이량(李樛)에게 미움을 사 형 경원(慶元)과 함께 파직되었다. 이량이 쫓겨나자 다시 부수찬이 되었으며 헌납·지평·교리·수찬 등을 역임하고, 1568년 함경도의 군무를 순안할 때 산천의 형편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고 요해지(要害地)의 방비 등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다음해 중성부사가 되고, 그 뒤



〈충익사 전경〉

동래부사·판결사·형조참의·나주목사·정주목사를 지냈다. 1579년 의주목사가 되고 이어 평안병사·호조참판·전라감사·한성부좌윤·경기감사·병조참판을 지내고, 1584년 함경감사·형조판서·도총관을 지냈다. 1587년 우참찬에 승진하였고, 이때 왜구가 녹도(鹿島)를 함락하자 도순찰사(都巡察使)가 되어 이를 퇴치하였다. 이어 형조판서·경기감사를 거쳐 좌참찬으로 지의금부사를 겸했다. 1589년 정여립(鄭汝立)의 난을 수습하는 데 공을 세워 평난공신(平難功臣) 3등에 책록되고 경림군(慶林君)에 봉해졌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순검사가 되고, 이어 팔도도원수로 한강 및 임진강 방어에 임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적을 막지 못하고 적의 침공을 지연시키는 데 그쳤다. 평양이 함락된 뒤 순안에 주둔, 행재소(行在所) 경비에 힘썼다. 이듬해 명나라 원병이 오자 명나라 장수들의 자문에 응했고, 그 뒤 호조·예조·공조의 판서를 지냈다. 정유재란 때는 병조판서로 유도대장(留都大將)을 겸임하였고, 좌찬성·이조판서·우의정을 거쳐 1601년 부원군에 진봉되고 좌의정에 이르렀다. 유학에 조예가 깊었고, 병서와 궁마(弓馬)에도 능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자손대에 연기와 인연을 맺어 묘소는 벽제에 두고 지금 위치에 사당을 지어 기렸다고 한다. 송곡2리 능골의 경주김씨들은 설날과 추석 명절 때 차례를 집에서 지내지 않고 종손가 뒤편에 위치한 충익사에서 지낸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참조]

■ 김남중(金南重)·김홍진(金弘振) 묘소

송곡리 2구 능골마을 입구에서 안쪽에 있는 충익사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 김남중 묘소는 충익사 북쪽에 있는 산의 남향사면 중단부인 표고 1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김남중(1596~1663)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 호는 야당(野塘)이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예조참의로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하고, 이듬해 대사간이 되어 강화도가 함락당 한데 대한 주장(守將)의 책임을 물어 처형할 것과 척화신(斥和臣)을 문책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경기도관찰사, 대사간, 이조참판, 형조판서 등을 지냈다. 저서로 『역대인감(歷代人鑑)』이 있다. 시호는 정효(貞孝)이다.

묘소에는 망주 2기와 문인석 2기, 상석이 있다. 묘 오른쪽에 세워진 묘비는 1687년(숙종 13)에 김수항(金壽恒)이 찬(撰)하였고, 크기는 162cm×63cm×27cm이다. 묘의 중앙에는 옛 묘비를 세웠던 대좌만이 놓여 있는데, 대좌에는 연화무늬가 새겨져 있다.

김홍진(金弘振, 1627~?) 묘소는 충익사 북쪽에 있는 산림지역의 남향사면 중단부에 있는 김남중 묘소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김홍진은 경주인으로 의금부도사, 호조좌랑·정랑, 직산현감, 신계현령을 지냈다. 묘소에는 망주 2기와 묘비 2기, 처음 묘비를 세울 때 같이 세운듯



〈김남중 묘소〉



〈김홍진 묘소〉

한 향로대와 초근에 세운 상석이 있다. 묘비 65cm × 28cm × 145cm의 크기로 옛 대좌 위에 새로운 묘비를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뒷면에는 비문이 없어 건립연대는 알 수 없다. 묘의 왼쪽으로 1707년(숙종 33) 남구만(南九萬)이 찬(撰)한 묘갈명이 있는데, 묘갈명의 크기는 65cm × 28cm × 157cm이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참조]

4. 전통민속

■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학교가 끝나자마자 큰 강통을 하나씩 만들어 저녁이면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씩 마을 회관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쥐불싸움은 보통 송정1리와 많이 했는데 날이 어스름 해 질 무렵, 15명 정도 마을에 모여 불을 넣은 강통을 돌리면서 서로의 마을로 출발했다. 당시 송덕분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같은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치열하게 벌어져 다치거나 몸싸움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서로가 질 수 없는 자존심 싸움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정월대보름 전후 5일에서 길게는 10일 정도까지 저녁때마다 쥐불놀이가 이루어졌다. 쥐불싸움해서 진 마을은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다음날 기습 공격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엮차락뒤



〈600평 땅 전경〉

치락 몇날며칠 동네가 시끄러웠다. 보통 쥐불싸움은 송정1리가 송곡2리에 비해서 고학년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송정1리가 많이 이겼는데 칠혹같은 어둠 속에서 도망치다보면 물에 빠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다. 싸움에서 밀리면 재빨리 집으로 도망을 와서 각자 집으로 숨었다.

■ 7월 칠석 동네 제사

송곡2리 마을에서는 20여년 전부터 매년 칠석날에 모여 동네 제사를 지내고 있다. 외지에서 살다가 마을로 이사를 와서 살던 '이석경'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딸만 7명을 두었는데 죽기 전 유언으로 마을에 땅 600여평을 기증하였고, 그 대신 자신의 제사를 대신 지내달라고 하였다.

제사의 주관은 이장님이 맡고, 음식은 부녀회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딸 7명중에서 많이 올 때는 5명까지 제사에 참석한다. 현재 그 땅은 마을 사람에게 위탁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한 쌀 가운데 3가마를 임대료 대신 받는데 그것을 제사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날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에 참여 하며, 제가 끝나면 다 같이 회관에서 밥을 먹는다.

■ 쌀 계의 추억

송곡2리 마을 사람들은 쌀 계를 했다. 보통 마음

이 맞는 동네 사람들 대여섯이 모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송곡2리 사람들은 마을 전체에서 계를 운영하였다. 어렵게 살던 시절에 목돈을 쓰기에 동네 계가 가장 좋았다. 일정한 양의 쌀을 똑같이 내면 순서대로 한명씩 돌아가면서 쌀을 받는데 이것을 돈으로 바꾸어 땅을 사서 늘리기도 했으며, 자녀들의 학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마을에는 몇해 전까지만 해도 누가 얼마를 냈는지 언제 자기 차례가 돌아와 쌀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등의 기록이 남아 있는 문서가 남아 있었지만 현재는 분실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 상여계 모임

송덕분교가 자리하고 있던 곳 바로 옆에는 송곡1리와 2리가 함께 쓰는 상여집이 있었다. 15명 내외로 구성된 상여계는 계장, 유사의 임원이 중심이 되었는데 계장은 상이 났을 때 전체적인 일을 지휘하고 유사는 연락을 담당하는 일을 했다. 상여계원은 상이 났을 때에 상여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었지만 가입이 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은 쌀 3말을 상여계에 주고 사용 해야 했다. 송곡리의 상여는 광목으로 된 것으로 젊은 장정이 대여섯명이 힘을 합해 들어도 무거워 쉽게 들지 못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장례를 대신해 주는 업체가 생겨나고 대체로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상여를 쓰지 않게 되었고, 점점 관심 밖이 되어 부서져 없어졌다고 한다.

■ 송곡2리 사람이라면 모두 가입되는 대동계

송곡2리는 매년 12월 28일에는 대동계가 열린다. 송곡2리 마을 주민이라면 각 가정에 누구나 한명씩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장님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동계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 해 일년동안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결산을 하고 내년에 할 일들을 점검하며 한해

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다. 약 15년전까지만 해도 송곡2리 마을에는 대동계와 소동계 두 개로 나누어질 만큼 마을의 대표적인 모임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점점 마을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동계로 통합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대동계에 가입을 하려면 신입례로 쌀 2되를 내고 가입을 했는데 현재에는 이사 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사 온다고 해도 마을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점점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역사만큼 오래된 대동계라고 말하지만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아쉬움을 더한다.

5. 생활환경

■ 가재가 많아 가재울

송곡2리 동남쪽, 송덕분교가 자리하고 있는 맞은편 마을이 가재울이다. 가재울은 말 그대로 가재가 많이 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가재울 마을에는 송곡저수지가 있는데 이 주변은 마을사람들이 여름철 천렵하던 장소로 수풀이 우거져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시원해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았다. 특히 송곡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조그만한 도랑의 물줄기에는 가재가 많이 살았는데 숲이 우거지고 골짜기가 깊으며, 얇은 물에 돌이 많아 가재가



(송곡저수지 전경)

살기에는 최적지였다.

날이 따뜻해지면 봄날이면 가재가 돌 밖으로 슬금슬금 기어 나와 쉽게 잡을 수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서너명씩 짝을 지어 가재울로 가기도 했고 동네 아이들, 일꾼들까지 가재를 잡으러 갔다. 특히 사월초파일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재울로 횃불을 들고 가서 가재를 잡으러 갔는데 양철통 두 개 가득하게 잡을 만큼 많았다고 한다. 잡은 가재로 찌개를 끓여 술잔잔 걸치는 맛은 다른 어떤것과 비교 할 수 없이 달콤했다고 회상한다.

■ 송덕초등학교

1944년 4월 20일 마을 행사가 열렸다. 송덕초등학교가 마을에 생겼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마다 들로 산으로 걷고, 조천을 건너서 다시 걸어서 노장리에 있는 전동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여간 힘



〈송덕분교 전경〉



〈송덕분교 소풍모습〉

든 일이 아니었다. 송덕초등학교는 전동초등학교의 분교로 지리적으로 전동초등학교에서 멀리 위치하는 보덕리, 송정리, 송곡리 마을의 학생들이 다녔다. 각 학년마다 1개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직원은 담임교사 한명씩 총 6명과 교장, 교감선생님, 그리고 학교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해 주는 소사(小使) 한명이 있었다. 시골학교였고 3개마을의 아이들이 다니는 조그만한 학교로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6학년때까지 같은 반 그대로 졸업했다. 매년 교실만 바뀌었을 뿐 그 친구들은 그대로였다. 학교가 개교했을 때는 일제 강점기로 멀리 걸어 다니지는 않았지만 배를 굶으며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당시 소사로 있던 사람이 점심시간이 맞춰 학생들에게 강냉이 죽을 쑤어 끼니를 해결한 적도 있었다. 저학년은 오전에 수업이 끝났지만 고학년들은 오후까지 수업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끼니를 해결해야했다. 집에 밥이 없어 도시락을 준비할 형편이 못되어 점심시간에 맞춰 집으로 가서 끼니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였다. 부모는 아이들의 점심시간에 맞춰 점심밥을 차려 놓고 농사일을 나갔다.

학급의 인원수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고 학교 학생들도 모두 동네 친구이고, 매일 보는 형·동생·누나·오빠·언니 등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주변 마을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봄가을에 학교의 운동회가 열리면 학생들 뿐만아니



〈송덕분교 유년대소〉

라 마을주민들도 함께하는 마을의 축제가 되었다. 함께 운동회에 참여하고, 다 같이 모여 점심을 하며, 오랜만에 만나 안부를 물으며 하루종일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1996년 3월 1일자로 송곡초등학교는 다시 전동초등학교와 통폐합되었고 그 이후 송곡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은 통학버스 1대를 배정 받아 등교를 하고 있다.

■ 일년에 마을행사만 서너번

송곡2리는 마을 행사가 잦은 마을로 단합이 잘 된다.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가 있고 매년 3~4월에는 정기적으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바닷가로 놀러가 친목을 다지고 있다. 5월에는 어버이날 잔치가 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매년 어버이날을 기념해 마을회관에 모여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또한 칠석날에는 동네 제사를 지내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에는 대동계 회의가 끝난 후 부녀회가 주관하여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한다.

이렇게 일년내내 마을의 바쁜 행사로 눈코 뜰새 없지만 누구 하나 불평없이 다 함께 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하여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며 살고 있다. 18년째 마을에서 이장을 맡고 있는 이재성씨는 마을 사람들의 단합이 잘 된다고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마을조직

마을이 가장 번성 했을 때는 송곡초등학교가 있던 시절이지만 현재는 이촌향도 현상으로 마을 인구가 60여명, 총 37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마을은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각각의 반 편성의 의미가 사라졌고 행정상에서는 2개의 반이지만 사실상 1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조직은 노인회, 부녀회, 개발위원회의 조직이 있으며 각각의 회장들이 주도 하여 일을 처리하며, 특히 부녀회장은 마을 일을 20여년 넘게 보아 각 집의 대소사까지 마을일에는 모르는 것이 없다.

인구가 줄고 주민들의 노령화로 예전과 같은 흥겨운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지만 단합이 잘 되어 어려움은 없으며, 겨울철에는 군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함께 점심을 해결하기도 한다.

■ 누에농사 했던 시절

1970년 국책 장려 사업으로 진행된 누에농사에 송곡2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는 송곡1리와 2리의 구분이 없었는데 송곡리 전체 마을 사람의 80~90% 이상이 누에농사에 종사했으며, 전동면 전체는 물론이고 연기군에서도 누에농사를 제일 많이 한 마을이다.

누에는 ‘장’ 단위로 세는데 당시 1년이면 10장, 많이 치는 사람은 20장까지 했으며 1년 두 번 농사로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 면사무소에는 잠업계가 따로 있었는데 틈틈이 지도원이 교육을 해주었다. 때문에 마을은 논을 제외한 밭은 모두 뽕나무를 심어 잎을 따다가 누에를 주웠다. 잠도 못자고 일 해야 하는 것이 누에농사라고 말한다. 시간 되면 땡벌에 뽕잎을 따다가 밥을 쥐야 하고, 점점 자라는 누에들 수천 수백마리를 채반에 나눠 옮겨야 하고, 배설물을 치우려면 또 옮겨야 하고, 뽕잎의 줄기가 쌓이면 누에만 골라서 옮겨야 하는 등 일은 끝이 없었다. 그때는 너무 힘이 들어 누가 사람이 주인인지 누에가 주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고된 일 이었다. 누에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때에 처리해 주지 않으면 바로 죽었다.

당시 돈으로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보통 30~4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어 벼농사로 얻는 수입보다 훨씬 좋았다.

이렇게 마을 전체가 누에를 키우다보니 누에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전하기도 하는데 일설에는 누에를 먹으면 머리가 푹푹해 진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먹이기도 했고, 뽕잎을 먹고 마지막 잠을 잔 뽕뽕한 누에를 입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누에가 목속으로 기어들어 갔는데 몸속에 들어가면 약이 된다고 하여 많이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잔 손이 많이 가는 누에 농사는 일손이 부족하고 농약 사용이 잦아지면서 198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 생활모습

마을에는 총 3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그중 가장 물이 좋았던 샘은 마을회관 옆에 있던 샘으로 두레박으로 물을 길던 곳이었다. 현재는 1가구만



〈마을 입구에 자리한 표지석〉



〈마을회관 옆에 공동샘〉

이 사용하고 있다. 또 하나의 샘은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길 오른 편에 은행나무가 서 있는데 그 은행나무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이 샘은 바가지로 물을 떠 올릴 수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논으로 메워버렸다. 전기는 1971년도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는 누에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소득 증대를 위해서였다.

구리골 저수지에서 발원한 물은 송곡2리를 지나 송곡천과 송곡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이 합쳐져 조천천으로 합류 한다. 각 가정에서 관정을 파기 전, 송곡천과 우물은 낮에는 빨래터였고, 밤에는 여자들이 하나둘씩 짝을 지어 목욕을 했던 곳이다. 조치원장을 주로 봤는데 시장을 가려면 동이고개를 넘어 왕복 하루가 꼬박 걸리기도 했다. 현재 매일 2시간마다 운행하는 버스가 5번 이상 지나가고 있다.

■ 숙원사업

마을 회관은 20여년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 되었지만 개인 땅이기 때문에 다시 지을 수도 없다. 주민들은 동네에서 땅을 사서 주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나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송곡리 마을 회관〉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이 재 성	52	남	농업	867-1004
이 기 영	84	남	농업	867-1420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128	61	67	47	41	6	76.36	32.72	19.83	19.83	3.97
특산물 : 복숭아, 배					축산물(두) : 한우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반	능골	박 종 근	17~18세대	
2반	가재울	박 봉 기	20여세대	016-9678-0925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개 발 위 원 회	이 재 성	부 녀 회	한 순 이
노 인 회	신 용 균		

• 공동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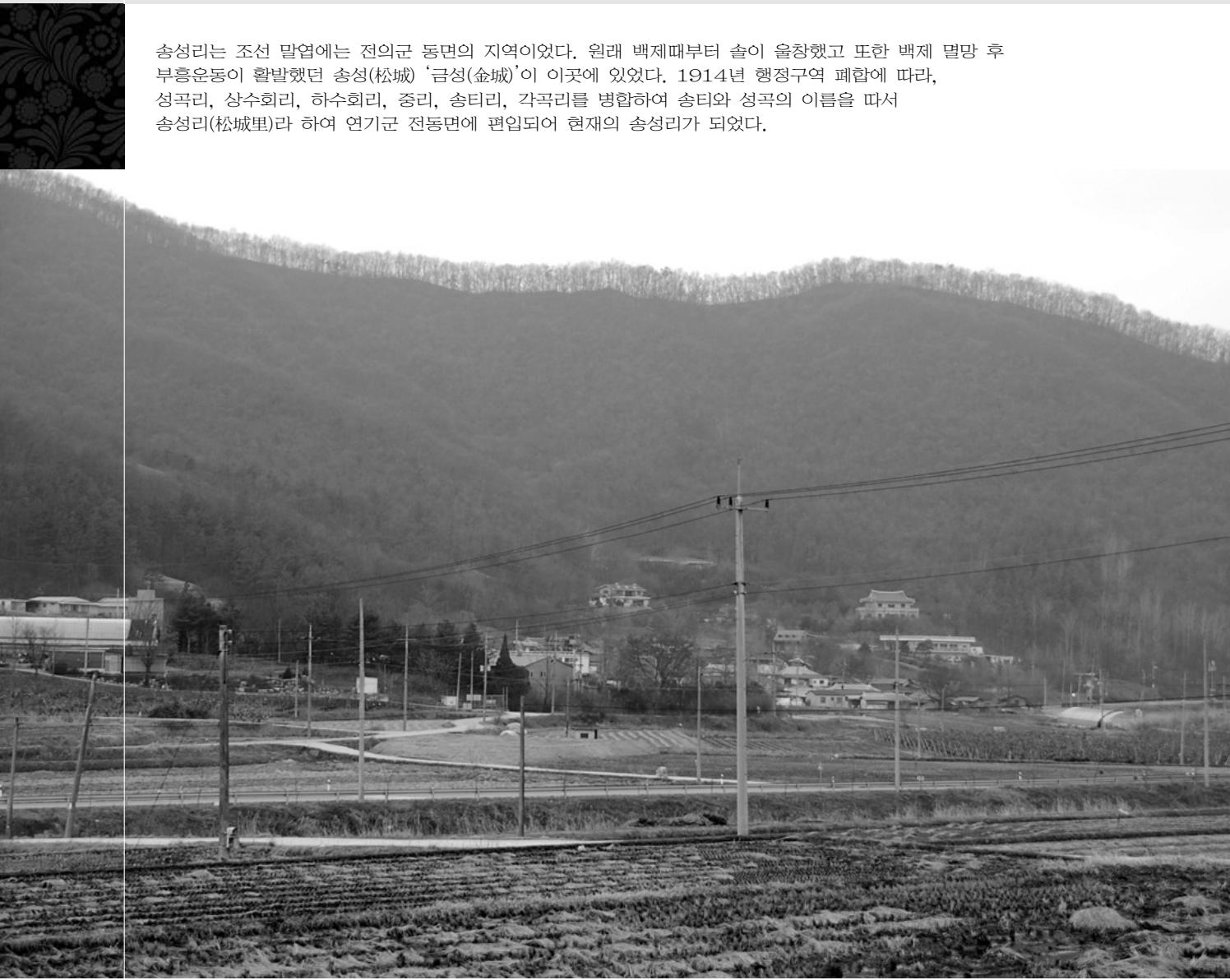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	209	50여평	18	1997.2.18	노인회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이 재 성	87.5.1	89.5.1		7	오 정 교	01.1.15	03.1.2	
2	이 재 성	89.5.2	91.5.1		8	이 재 성	03.1.9	05.1.10	
3	이 재 성	91.5.2	93.2.6		9	이 재 성	05.1.10	07.1.10	
4	오 정 교	93.2.8	95.2.7		10	이 재 성	07.1.10	10.1.8	
5	오 정 교	95.2.8	97.1.14		11	이 재 성	10.1.8		
6	이 대 영	97.1.15	01.1.15						

송성1리

송성리는 조선 말엽에는 전의군 동면의 지역이었다. 원래 백제때부터 솔이 울창했고 또한 백제 멸망 후 부흥운동이 활발했던 송성(松城) '금성(金城)'이 이곳에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성곡리, 상수회리, 하수회리, 중리, 송티리, 각곡리를 병합하여 송티와 성곡의 이름을 따서 송성리(松城里)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어 현재의 송성리가 되었다.



1. 마을개관

송성리는 조선 말엽에는 전의군 동면의 지역이었다. 원래 백제때부터 솔이 울창했고 또한 백제 멸망 후 부흥운동이 활발했던 송성(松城) ‘금성(金城)’이 이곳에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성곡리, 상수회리, 하수회리, 중리, 송티리, 각곡리를 병합하여 송티와 성곡의 이름을 따서 송성리(松城里)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어 현재의 송성리가 되었다. 주민들에게는 송성1리보다는 무드리(수회)라는 지명이 더욱 친숙한데, 마을 앞으로 흐르는 물이 뱅글뱅글 돌아 때로는 강바닥까지 보였다 하여 물도래, 무도리라 부르다가 무드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지명이 결국 한자로 변하게 되면서 물이 돈다는 의미의 수전(水田), 수전리(水田里), 수회(水回), 수회리(水回里)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송성1리는 금이산과 까치산이 1반을 감싸고 있고, 도로를 건너 1반의 맞은편에 위치한 2반을 작성산이 뒤편에서 감싸고 2반 앞으로 물이 휘돌아 가는 듯이 냇가가 흐르는 아늑한 경치의 마을이다. 현재 송성리는 3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이 폐합되면서 1리와 2리로 구성되어 있던 송성리가 3개의 리로 분리되게 되었다. 현재 송성3리까지를 포함하여 송성1리였으나, 인구가 늘어나고 지리적으로 분리하게 되면서 송성1리의 일부를 3리로 분리하게 된 것이다. 송성1리의 1반은 물이 돈다는

의미의 수회마을이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으며, 2반은 요골과 각골마을 2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요골은 수회마을 입구 맞은편에 위치한 곳인데 각골과는 군사도로로 구분되어 자리하고 있다. 요골과 각골을 경계하는 군사도로는 새마을운동시기에 경지정리를 위해 생긴 도로라고 한다.

2. 지명유래

송성1리에 전래되는 지명유래는 1974년에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총람』과 2007년에 조치원문화원에서 편찬한 『연기군의 지명유래』와 마을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각골(각곡, 角谷) : 무드리 남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뿔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지명임.
- 금이산(성제) : 송성1리와 3리를 감싸고 있는 산을 지칭하며, 금이성이 있어 금이산이라고 하며 성재라고도 함.
- 까치산 : 마을회관 뒤편에 위치한 산을 지칭하는 지명임. 까치산 맨 윗봉우리는 산제를 지냈던 신성한 장소이기도 했으며, 명당자리로 소문이 났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음.
- 무드리 : 잿말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서, 물이 흐르면 뱅글뱅글 돌아 때로는 강바닥까지 보였다고 하여 물도래, 무도리라 부르다가 무드리라 부르



〈각골마을 전경〉



〈까치산〉



〈수회(水回, 무드리)〉

게 되었음. 물이 뱅글뱅글 돈다해서 수전(水田), 수전리(水田里), 수회(水回), 수회리(水回里)라고도 부름.

- 요골 : 예전에 이 마을에 한 가구가 살 때 어느 해에 산사태가 나서 집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자 그 곳에 요란스럽게 흐르는 물을 보고, 지나던 한 선비가 말하기를 요곡(물대는 골짜기라는 의미)이라 말한 것이 전해 내려오다가 요골로 변하여 부르게 되었음. 지금은 예안 이씨들이 집을 짓고 많이 살고 있음.
- 용허리산 : 용요산이라고 부르며, 무드리 앞에 있는 산을 지칭함. 모양이 용의 허리와 같다고 하여 붙여짐.
- 이성(李城) : 전동면 송성리 이성산(李城山) 위에 있는 성을 이성이라 부름. 성안에 여단이 있고, 여조태사(麗朝太師) 이도(李棹)가 기거하였던 곳으로 남북으로 단을 일정식(一亭式) 쌓았으며, 겨울에는 남정(南亭)에 거주하고 여름에는 동정(冬亭)에 거주하였음.
- 이성산(李城山) : 전동면 송성리, 신방리에 걸쳐 있는 산임. 돌로 쌓았는데 고려때 이도가 살았다 하여 이도의 유허비가 있음.
- 작성산(鵲城山) : 이성산(李城山) 위에 있는 산을 지칭함. 예전 난리가 일어났을 때 이 근처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난하였는데, 오랑캐들이 이곳을 바라다 볼 때 마침 까치들이 무리지어 있는



〈작성산 원경〉

것을 보고 이 산에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곳에 피난했던 사람들이 모두 무사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임. 또한 까치가 많은 산성이라 하여 작성산 또는 까치산이라 부름.

- 절터골 : 수회 위에 있는 골짜기로 절터가 있음.

3. 역사와 변천

■ 강릉최씨가 터잡은 마을

송성1리에 제일 먼저 터를 잡은 성씨는 강릉최씨였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어떠한 연유로 마을에 터를 잡게 되었는지 기록도 없고 주민들의 기억도 정확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강릉최씨가 먼저 마을에 터를 잡기 시작하면서 뒤이어 정씨들도 마을



〈마을 표지석〉



〈마을입구〉

에 입향하였다고 한다. 현재 강릉최씨는 6세대가 마을에 거주하고 있고, 정씨는 5세대가 마을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

■ 금이산에 위치한 금이성(金伊城)

송성1리와 3리에 걸쳐 있는 금성산은 표고 405m의 산이다. 금이성은 이 금성산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 석성으로, 금성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어 금성산성이라고도 부른다. 이 성은 1989년 12월 29일에 충청남도 지정 기념물 78호로 지정되었다. 금이성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의현 산천조에 “금성산 재현남팔리 유고석성(金城山 在縣南八里有古石城)”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적조에는 “금이성재운주산 석축 주일천오백이십팔척 내유일정 금폐(金伊城在雲住山 石築 周一千五百二十八尺 內有一井 今廢)”라고 기록되어

금이성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동국지지』에는 “운주산남성동남팔리 일천오백이십팔척 정일속칭 금성산성(雲住山南城東南八里 一千五百二十八尺 井一 俗稱 金城山城)”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금이산성을 운주산 남성으로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금이산성은 전체적인 평면형태가 말각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전체 둘레는 660m에 이른다. 성벽의 대부분은 이미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만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이 흔적들을 통해 보면 성벽은 벽돌처럼 납작하게 잘 다듬은 성돌을 이용하여 한단한단 수평을 맞추면서 쌓아 올리고 있다. 성벽은 전체적으로 협축식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이 완전히 붕괴되어 정확한 성벽의 높이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3m 이상은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내고는 현재 최고 약 2m 정도가 남아 있다. 성문의 흔적은 동벽, 서벽, 북벽에서 확인되었으며, 남벽에도 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성벽이 붕괴되어 현재는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 또한 서문지의 경우 동문지나 북문지와 달리 현문식의 형태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성내에는 곳곳에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어 건물이 있던 곳임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평탄면 주변에서는 와편과 토기편을 쉽게 수습할 수 있었는데, 와편의 경우 등쪽에 어골문이 시문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이산 전경〉

■ 작성산성(鵲城山城)

전동면 송성리와 전의면 양곡리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 표고 332m의 작성산이 솟아 있다. 작성산성은 이 작성산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소규모 석성이다. 산성이라고는 하지만 규모가 100m에도 이르지 못해 실제로는 산성이라고 부르기 어려운데, 종래에 작성산성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주민들을 비롯한 조사자들은 모두 작성산성이라고 부르고 기록했다. 산성은 작성산 정상부를 평탄하게 조성한 다음 돌로 성내 전체를 부석(敷石)한 형태로 남아 있다. 대체로 70cm 정도 크기의 판석형 할석을 전면 부석하여 만들었는데, 높이는 약 5단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도 이 유구는 산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도읍지』의 전의현 산천조에는 이성산과 금성산 사이에 운점산(雲靄山)이 있음을 설명하고 뒤이어 “일명작성 재현남팔리 읍치대안 상유기우제단(一名鵲城 在縣南八里 邑治對岸 上有祈雨祭壇)”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대로라면 현재의 유구는 산성이라기 보다는 기우제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물도리사지

수회마을의 북쪽 300m 거리에 할렐루야 수양관이 있는데, 사지는 이 할렐루야 수양관 뒤쪽의 계곡을 따라 작성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7부 능선상에 330㎡(약 100평) 크기의 평평한 목은 밭에 위치하고 있다. 사지로 전하는 지역은 십수년 전까지 경작지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묵고 있는 상태인데, 밭으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1차적인 지형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지 주변에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어서 사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축대 등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 사지 내에 석불좌상 3~4구가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장에서 석불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소재 또한 알 수 없다. 수습

되는 유물은 회청색 무문 기와편과 격자문이 새겨진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있다. 구체적인 사지의 조성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말기에 조성되었던 작은 암자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각골 느티나무와 수회 느티나무

송성1리에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각골마을 입구에 위치한 느티나무는 1996년 11월 29일에 군나무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수령은 330년 정도이며 규모는 높이 10m, 둘레 4.5m로 계측된다. 현재 주변에는 정자를 비롯하여 주변이 정돈되어 있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주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제를 올리기도 하는 등 마을 신앙으로 신성시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별다른



〈각골 느티나무〉



〈수회 느티나무〉



〈요골 전경〉

신앙대상물이 아니라고 한다.

송성1리의 두 번째 수회 느티나무는 수회마을 입구에 서있다. 별도로 지정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령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주민들에 의하면 2~300년은 되었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 버티고 서있어 수회마을을 비롯하여 송성1리를 지키는 수호신, 혹은 마을의 대문에 해당된다고 하여 주민들의 수회 느티나무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 처절했던 한국전쟁

송성1리의 일제강점기는 별다른 기억없이 지나 갔지만, 한국전쟁은 주민들에게 무서운 기억으로 자리잡고 있다. 피난의 연속이었던 송성1리 주민들은 주로 서면으로 피난을 갔다가 2~3일 후에는 집이 걱정되서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당시 몇일씩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 보면, 북한군들이 밥을 해먹은 흔적으로 솔단지가 부엌에 놓여 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한다.

또한 한국전쟁시기에 마을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주민도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피난을 갔으나, 힘이 없던 노인들은 죽더라도 내 집에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피난을 가지 않았다. 그날도 마을 주민 중 노인 한분이 보리라도 감추었다가 피난간 자식들이 돌아오면 주겠다는 생각으로 동네에 있던 방앗간을 가기 위해 산을 넘다가 폭탄에

맞아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다. 이 모든 기억들로 송성1리 주민들에게 한국전쟁은 피난을 여러 차례 가야했고, 마을 주민이 이유없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처절했던 시기로 자리잡고 있다.

■ 1970, 1980년대 송성1리 주민들의 삶

송성1리의 새마을운동 시기는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마을은 비약적인 발전을 한 셈이다. 마을 주민들은 적성산 밑에 있던 공동묘지에서 나무를 베서 마을 안길에 다리를 놓기도 하고, 마을을 둘러 싸고 있던 산에서 나무를 직접 해서 나무다리를 비롯하여 마을 안길 포장을 직접했다. 새마을운동 사업에 비록 피곤했을지 몰라도 그 시기에 송성1리가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다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하나와 같은 이야기이다. 현재 흥진레미콘 입구의 교량도 1·3리 주민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가설한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송성1리에는 큰 홍수가 일어났다. 마을 앞 논에 있던 독방이 엄청난 폭우로 터지면서 논이 다 잠겨버렸을 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홍수 때문에 그 해에는 논이 잠겨서 벼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그 해에는 쌀 한톨을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러한 피해로 정부에서는 복구작업을 시작하여 무사하게 넘길 수 있었다.



〈마을회관과 노인정〉

4. 전통민속

■ 산제도 지내고, 둥구제도 지냈었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행사는 없지만, 주민들에 의하면 예전에는 산제를 비롯한 둥구제가 마을의 가장 큰 행사였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

산제는 적성산(일면 까치산) 꼭대기에 올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거나 비가 많이 내려 마을 농사가 잘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형식이었으나 2000년경 중단되었다. 또한 2반 각골마을 입구에 위치한 군지정 느티나무에서는 1970년대까지는 둥구제를 지냈다. 주로 10월 그믐날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 마을의 평안과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형식으로 지냈으나, 미신이라는 이유로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5. 생활환경

■ 담배농사가 배와 복숭아 농사로

송성1리는 전체 인구가 80여명 남짓한 아기자기하고 조용한 마을이다. 하지만 1960년대는 아이들 울음소리로 시끄러워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사람이 북적이는 번성기였다. 196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베이비붐’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송성1리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를 회상하는 주민들은 집집마다 아이들을 누가 더 많이 낳는지 경쟁할 정도로 앞다투어 아이들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 마을에서 가장 아이가 적은 집이 7명이었으며, 가장 많은 집은 10명의 아이가 있었던 집이었다고 하니 정말로 송성1리의 가장 큰 번성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나 아직도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재미있는 추억은 수희마을의 윗집과 아랫집 두 집에서 아들만 10명을 낳았던 일이었다고 한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윗집과 아랫집이라는 관계때문인지 주민들은 경쟁심리가 발동하여 아이를 누가 더 많이 낳느냐라는 승부욕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냐며 당시를 회상한다.

1960년대 마을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담배농사를 지었다. 담배농사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담배귀신이 붙어서 이제야 떨어졌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주민들은 담배농사에 젊은 청춘을 다 바쳤을 정도였다. 그러나 1970년대를 지나고 담배의 수요가 줄면서 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다. 70년대부터 시작된 고민은 시행착오 끝에 벼농사를 비롯하여 배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것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주민들의 70%가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30%는 배와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다. 송성리 3개 행정리의 주민들은 먼의 특산품인 배와 복숭아를 우수하게 재배하기 위하여 작목반을 구성하여 힘쓰고 있다.



〈배 과수원〉



〈복숭아농사〉

■ 마을주민 전체가 모이는 대동계

농사로 바쁘지 않은 때를 제외하면 마을 주민들이 별다른 약속없이 마을회관과 노인정에 모인다. 그러나 마을 주민 전체가 다 모이는 일은 1년에 딱 한번, 대동계가 열리는 날이다. 대동회는 일반적으로 연말인 12월 28일을 전후하여 마을회관에서 열린다. 다른 마을과 비슷하게 이 날은 주민들이 모두 모여 한해동안 지출한 마을 경비를 정산하고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한해를 마무리한다. 또한 모든 주민이 다같이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하며 내년에 대한 계획을 함께 구상하는 가장 큰 행사날이다. 일반적으로 마을 전주민이 대동계에 가입되어 있으나, 현재는 유동인구가 생기면서 신입회원을 받는 일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대동계에 가입할 수 있다.



〈회관에 모인 주민들〉

대동회를 제외하고 주민들간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날은 어버이날 행사가 있다. 다른 마을처럼 큰 행사는 하지 못하지만, 노인잔치 형식으로 주민들이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며 예의를 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한다. 또한 구정에는 다같이 마을회관에 모여 윷놀이를 벌이기도 하는 등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박 정 래	62	남	농업	863-3092
김 문 호	71	남	농업	863-3665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110	60	50	40	38	2	99.5	43.64	25.12	29.75	0.99
특산물 : 배, 복숭아					축산물(두) : 한우(100여두), 젓소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비고
1	수회마을	염 원 진	29	50	863-3692
2	요골, 각골	박 종 석	15	30	863-2883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부 녀 회	강 희 열	노 인 회	최 원 규
대 동 계	정 원 영	복 송 아 작 목 반	박 정 래
상 조 계 (청년회)	유 인 수	배 작 목 반	이 원 직
개 발 위 원 회	정 원 영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	318-7	184.9㎡	99㎡	1996	이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최 원 규	74.2.1	77.1.20		10	박 정 래	96.2.1	98.2.11	
2	이 수 열	77.1.20	79.1.31		11	이 장 호	98.2.12	00.1.27	
3	이 용 선	79.2.1	87.3.18		12	박 정 래	00.1.28	04.1.13	
4	신 용 원	87.3.18	87.5.1		13	전 병 조	04.1.13	06.1.12	
5	정 해 천	87.5.1	88.7.25		14	임 현 주	06.1.12	09.1.12	
6	임 현 주	88.7.25	90.1.20		15	임 현 주	09.1.12	10.1.19	
7	박 정 래	90.1.20	92.1.20		16	박 정 래	10.1.19	10.7.12	
8	최 원 규	92.1.21	94.1.14		17	이 용 선	10.7.19		
9	이 창 선	94.1.20	96.1.19						

송성2리

송성2리는 마을입구에서 마을을 바라봤을 때, 왼편에 위치한 '새말'과 오른편에 위치한 '잣말' 2개의 반으로 구성된 마을이다. 송성2리는 누가 보더라도 경치가 수려한 마을이다. 마을 앞으로는 '조천'이 흐르고 있고, 마을 뒤편은 이성산이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마을로 전체적으로 평온하고 안정감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1. 마을개관

송성2리는 마을입구에서 마을을 바라봤을 때, 왼편에 위치한 ‘새말’과 오른편에 위치한 ‘젓말’ 2개의 반으로 구성된 마을이다. 새말과 젓말은 모두 마을 앞을 가로 지르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젓말은 이성산 바로 밑의 ‘통매’라고 불리는 언덕 밑이어서 새말보다는 마을 뒷산인 이성산쪽으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자리하고 있다.

송성2리는 누가 보더라도 경치가 수려한 마을이다. 마을 앞으로는 ‘조천’이 흐르고 있고, 마을 뒤편은 이성산이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마을로 전체적으로 평온하고 안정감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송성2리의 앞을 흐르는 천은 조천의 상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듯 전형적인 배산임수형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송성2리 주민들은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는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밭농사를 짓지 않고 논농사를 짓는데 큰 이점으로 작용하여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고 사는 동네라고 말한다.

2. 지명유래

송성2리에 전래되는 지명유래는 1974년에 한글

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총람』과 2007년에 조지원문화원에서 편찬한 『연기군의 지명유래』와 마을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개미고개 : 산이 개미허리처럼 생겼다 해서 개미고개라고 부르는데, 마을 입구에 위치한 고개를 지칭함.
- 거미덕골 : 이성산 밑의 골짜기를 지칭함.
- 별말(새말) : 별말 혹은 새말이라고 불리는 마을은 현재 송성2리 2반에 해당하는 마을로서 송성2리 입구에서 왼편에 위치함. 원래는 개미고개 별에 마을이 있었는데 옛날에 홍수가 나서 마을이 별말 쪽으로 떠밀려 와서 형성된 것 같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함.
- 불당골 : 뒷편 산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임.
- 수박고개 : 육계리 사람들이 수박고개로 많이 넘어갔으며 현재 육계리는 전의면에 속함.
- 안산 : 재일말과 별말 사이에 있는 산으로 앞쪽에 있다는 뜻으로 안산이며, 김씨 종산이기도 함.
- 젓말 : 성재를 사용해서 재일말이라고 하고, 이성이라는 성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마을 주민들은 현재는 젓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지대가 높아 물이 부족해 농사가 잘 안되어서 부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작성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서 마을 입구에서 오른편에 위치한 마



〈새말〉



〈젓말〉



〈통매〉

을을 지칭함. 산아래 마을이 있다 해서 처음은 재말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잣말이라 부르게 되었고, 성곡(城谷), 성곡리(城谷里)라고도 부르고 있음. 파주염씨들이 많이 살고 있음.

- 참샘골 : 재피골 옆의 고랑을 말하며 차가운 샘이 이곳에 있었다 해서 참샘골이라고 부름.
- 통매 : 재일말 안쪽으로 둥구스런 언덕이 있는데 둥구스름하다고 하여 통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곳에 묘가 있었음. 이 묘는 새마을사업으로 꽃밭을 만들려고 공동묘지로 이장했는데 꽃밭을 만들고 마을에 사고가 생겨 통매 옆 둥구나 무에다가 제를 두 번 올렸었음. 제는 고사 지내는 형식으로 지냈으나 현재까지 이어져 둥구나 무제를 지내고 있음.

3. 역사와 변천

■ 이성(李城)

송성2리 뒷편에는 해발 240m의 이성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성산성은 바로 이 이성산에 자리하고 있는 삼태기식의 석축산성이다. 이성은 1898년 12월 29일에 충청남도 지정 기념물 77호로 지정되었다. 이 산성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의현 고적조에 “이성 재운주산북봉 석축 세전이 도고거 기중관창 주일천일백팔십사척 내유일정 금

폐(李城 在雲住山北峰 石築 世傳李棹故居 其中寬敞 周一千一百八十四尺 內有一井 今廢)”라 하여 조선 초기에 이미 폐성된 상태였다는 기록을 통해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에 축조된 고대산성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성벽의 둘레는 약 510m인데, 대부분의 성벽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남아 있는 성벽을 통해서 볼 때 편축식으로 축성된 듯 하며, 일부에서는 협축의 흔적도 발견된다. 다만 면석이 남아 있는 것이 없어 더 이상 자세한 축성법은 확인할 수 없다. 산성과 관련된 부대시설로는 문지와 건물지가 남아 있다. 문지는 동문지와 남문지가 남아 있으며, 서벽쪽에도 문지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건물지는 성내 곳곳에 남아 있는데, 평탄대지는 모두가 건물지로 판단된다. 특히 전체적으로 성내의 지형이 북고남저형을 이루고 있는 만큼 남벽 안쪽에는 넓은 평탄면이 남아 있는데, 위치로 보아 원래는 저수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표조사만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성내에 우물이 1개소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매몰된 것으로 생각된다. 성내에서는 토기편과 와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이미 폐성된 만큼 고려시대 이전에 축성되었고, 선조문이 시문된 와편들이 많이 남아 있어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성산〉

■ 잣말과 새말을 합쳐 성곡마을

마을 주민들에게는 송성2리라는 지명보다는 아직도 성곡마을이라는 표현이 더욱 익숙하다. 어떠한 연유로 성곡마을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는 주민들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성곡마을에 제일 먼저 터를 잡은 성씨는 경주김씨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집성촌까지는 아니었지만, 마을에 경주김씨가 터를 잡았기 때문에 현재도 경주김씨가 많이 세거하고 있었다. 현재 총 38세대 중 7세대의 경주김씨가 마을에서 세거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현재의 송성2리의 2반에 해당하는 벌말, 새말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게 되는데는 기막힌 사연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150여년 전쯤에 비가 유난히도 많이 내렸던 해가 있었다. 지금은 논으



〈마을표지석〉



〈마을앞을 흐르는 조천〉

로 바뀌었지만, 당시만해도 마을 입구에 있는 개미고개에 몇 집이 모여서 살았었다. 그런데 고개 위에 있던 집들이 그해 홍수로 다 떠내려가는 일이 있었고, 덕분에 원래 집이 있었던 자리는 논이 되어버리고, 논이 있었던 자리는 농작물이 모두 떠내려가서 현재의 새말인 자리에 집을 짓고 살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새말의 앞 부분을 '구내자리'라고 부르는데, 이 지명이 아마도 옛날 내가 흐르던 자리라는 의미로 붙여진 지명이라는 것이다.

■ 수박고개를 넘어, 다방리로 피난

한국전쟁은 송성2리 주민들에게 피난다녔던 기억이 전부였던 힘들었던 시간으로 기억되어 있다. 정확하게 한국전쟁으로 마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주민은 없어 자세한 정황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송성2리 주민들은 대부분 수박고개를 넘어 '다방리'라고 부르던 곳으로 피난을 가서 숨어있었던 기억은 생생하다고 한다. 다방리는 현재 전의면에 속하는 곳이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전동면에 속했던 지역이었다. 특히 다방리에 있던 '수랑골'이라고 불리웠던 곳은 워낙 산속 오지마을이라 북한군이 그곳까지는 들어올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전동면 주민들은 대부분 수랑골 피난을 갔다. 다방리와 가까이 위치하던 송성2리의 주민들도 이곳으로 피난을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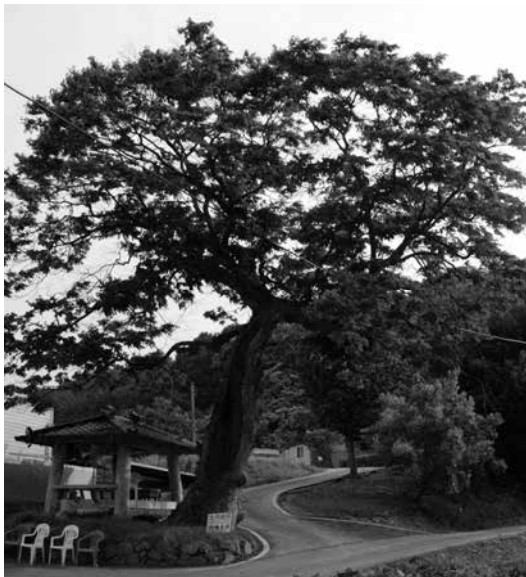
또한 아직도 마을 주민들의 기억속에 생생한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은 개미고개에 널려있던 시체들이다. 청람리에 위치한 개미고개에는 당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미군들의 시체 200여 구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고 한다. 시체들이 고개를 가득 메웠던 그 영상이 주민들의 기억속에는 각인되어 남아있다. 현재 이 개미고개에는 위령탑이 조성되어 있다.

4. 전통민속

■ 자자손손 이어나갈 마을의 전통 민속, 동구나무제

송성2리의 매년 가장 큰 마을행사는 동구나무제이다. 매년 음력 정월에 마을 주민 전원이 참여하는 동구나무제는 송성2리의 가장 소중한 전통 민속이다. 제를 올리는 동구나무는 잣말 안쪽에 동구스름하다고 하여 붙여진 '통매'라는 동구스름한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이 통매에 묘가 하나 있었는데,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쪽에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묘를 공동묘지로 이장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묘를 이장한 이후에 마을에 몇 차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 마을주민들은 혹여나 묘를 이장했기 때문에 마을에 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통매 옆에 있던 동구나무에 제를 올렸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그해부터 매년 동구나무에 제를 지내기 시작하면서, 매년 송성2리만의 민속행사로 굳어지게 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동구나무제는 노인회장과 이장이 주축이 되어



〈통매 옆 동구나무〉

진행되고, 부녀회원들의 음식준비로 매년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다. 동구나무제는 여느 다른 제사와 같은 형식으로 지내지만, 현재 주민들의 편의에 맞추어 낮 10시부터 정오까지 약 2시간 가량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제와 마찬가지로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제를 마무리한다. 제가 끝나면 마을 주민들은 다같이 마을회관에 모여 점심을 나누어 먹고 일년에 한번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언젠가 한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구나무제를 거르고 넘어갔던 해가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 해에 마을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이를 계기로 주민들은 마을을 위해서 매년 동구나무제를 성실하게 지낼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전통민속이 미신이라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명맥을 유지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송성2리 주민들은 마을을 위해서 동구나무제는 거르지 말자는 점에서는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 다음 세대가 전통을 이어나갈지 의문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을 위해서 동구나무제를 소중한 전통민속으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동구나무제말고도 유난히 민속신앙이 많이 남아있다. 잣말 뒤에 자리한 뒷산에 서낭당이 한곳 있고, 수박고개 중간에도 서낭당이 하나 남아 있어 전부 2개가 현재까지도 모습을 갖추고 있다. 또한 상여집에는 현재 사용하지는 않지만 상여가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5. 생활환경

■ 어버이날 행사도 매년 할 수 없는 일

송성2리 주민들의 공동재산은 마을회관뿐이다. 마을 공동 전답이나 동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매년 공금을 각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송성2리 주민들은 매년 정월 초하루에



〈마을회관〉



〈마을입구 다리1〉

세대마다 5만원씩을 각출하여 공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공금은 매년 마을의 가장 큰 행사인 동구나무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외에 공동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있다.

턱턱하지 못한 자금사정으로 송성2리 주민들은 어버이날행사도 매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마을이었다면 빠듯한 살림살이에 귀찮고 효험 없는 동구나무제를 지내는 대신 그 비용으로 어버이날 다같이 모여 주민들끼리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가까운 곳에 놀러가는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송성2리 주민들은 빠듯한 살림이지만 전통을 지켜나가야만 송성2리만의 독특한 모습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어버이날 행사를 포기하고 동구나무제를 지내고 있다.

■ 마을로 들어서는 두개의 다리

송성2리로 들어오는 마을입구는 두개다. 어디를 통하여 들어오더라도 마을입구를 지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관문은 송성교인데, 송성교가 2개인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잣말에 위치한 다리를 건너 마을로 들어오지만, (주)홍진이 위치한 새말에 위치한 다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새말에 위치한 다리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다리로, 새말에 ‘홍진건설’이 입주하면서 공사차량을 비롯한 각종 차량들의 이동로로 건설회사에



〈마을입구 다리2〉

서 건립한 다리이다. 공사소음은 들쭉치고라도 빈번하게 이동하는 차량들 때문에 각종 공해와 소음에 주민들은 한동안 애를 먹었다. 여러차례 건의를 해서 타협을 해 오면서 지금껏 지내왔으나, 허가완료기간이 가까워오면서 마을 주민들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송성2리가 시골마을답게 한적하고 평온하길 바란다는 마음뿐이다.

■ 오로지 논농사

송성2리는 송성1리나 3리와는 다르게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벼농사이다. 현재는 총 38세대가 삶을 영위하고 있으나, 1970년대에는 50세대가 거주할 정도로 인구가 많았다. 당시에는 주민들이 새끼를 꼬거나 고추농사와 벼농사를 했으



〈마을 앞으로 넓게 펼쳐진 논〉



〈고추농사〉



〈인삼밭〉

나, 인구가 점점 줄면서 손이 많이 가는 고추농사를 그만두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현재는 전체 가구의 95%가 벼농사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이 오로지 논농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또다른 사연이 있다. 송성1리나 3리의 농토가 밭인데 반해, 송성2리는 밭은 없고 오로지 논 밖에 없다. 따라서 1리나 3리처럼 과수재배도 어려운 환경이라 오로지 논농사만 지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워낙 토질이 좋아 예전부터 송성2리의 쌀은 알아주었다. 과수나 밭작물을 하지 않아서 일손이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있는 삶을 영위했고 현재도 큰 욕심없이 살게 된 것 같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또한 수십 년동안 논농사에만 의존해서 살아왔지만, 빚 없이 자식들을 끝까지 교육시킬 수 있었던 것도 송성2리가 준 큰 혜택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도움주신 분들〉

■ 연기군의 자랑, 베어트리파크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 옆으로 위치한 베어트리파크는 10만여 평 대지에 1000여 종, 40만여 점에 이르는 꽃과 나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동물이 있는 수목원'이다. 베어트리파크 설립자 이재연씨가 재계에 몸담았던 젊



〈베어트리파크 내부〉



〈베어트리파크 내부2〉



〈베어트리파크 전망대〉



〈베어트리파크 내 캐릭터 매장〉

은 시절부터 주말이면 달려가 보살피고 가꾸 온 수목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골 마을의 담벼락에서 옮겨 온 향나무는 늠름한 아름다리가 되었고, 반달곰과 사슴 한 쌍은 대를 이어 수백마리의 군락을 이루었다. 숲도 커지고 돌보아야 할 동물 가족이 늘어나면서 베어트리 파크는 세월과 자연의 힘, 사람의 애정이 더해져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거듭났다. 현재 레스토랑, 카페 등 다양한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동식물, 남다른 볼거리를 갖추어 사계절 문화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베어트리파크 설립자 이재연씨는 연세대학교 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린필드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또한 한국은행 외국부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그후 금성전선 총무과장, 럭키비서실장, 럭키금성상사 전무이사, 한국광업제련 부사장, 희성산업 사장, 럭키 콘티넨탈카본 대표이

사 사장 등을 거쳐 현재는 아시안스타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가 직접 저술한 『자연의 정원에서 나는 영원한 일꾼이다』를 보면 그가 베어트리파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는 경기도 의왕시에 선대에게 물려받은 2만평의 땅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으로 수목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목원의 나무들은 점점 늘어가는 데, 국도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매연으로 나무들이 상할까 늘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연기군에 5만평의 땅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입을 하였다. 1978년에 매입하여 2009년에 수목원을 오픈하기 까지 30년이라는 시간동안 이재연씨는 경기도에 있던 수목원의 모든 나무들과 동물들을 옮겨오고 오랫동안 준비했다. 그리고 드디어 2009년 5월 11일에 ‘베어트리파크’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하였다. 현재는 꾸준히 넓혀 나가 11만평의 규모의 테마파크가 조성되었다. 이곳 ‘베어트리

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송성2리는 늘 관광객들로 붐비는 전동면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 마을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

마을의 행사 주관을 위해 필요한 마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동산이나 동답이 없던 마을 주민들은 매년 주민들에게 5만원씩을 기금을 받아 매해 행사를 진행하고 남은 돈은 알뜰하게 저축을 했다. 최근에는 5만원이 부담스럽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현재는 3만원씩의 기금을 각출하고 있다.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하여 저축해 놓은 돈이 천만원가량이다. 오랜 기간동안 주민들은 마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차례 의논했다. 그리고 마을 입구 앞 제방부터 베어트리파크



〈매실나무〉

입구까지의 길을 따라 매실나무를 심어 이익을 얻자는 의견으로 합의를 마쳤다.

2009년에 매실나무를 심었고, 올해는 매실을 수확하여 베어트리파크 관광객들을 상대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마을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마을과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가슴뛰는 사업이 되고 있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황 종 서	63	남	농업	863-2813
이 종 국	56	남	농업	011-424-2819
황 영 수	60	남	농업	863-3134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122	62	60	46	43	3	59.50	26.78	12.89	19.83	-
특산물 : 벼, 고추					축산물(두) : 사슴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	젯말	우 한 기	20	863-3110
2	벌말(새말)	김 태 일	18	863-2832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부 녀 회	이 복 임	노 인 회	김 창 영
대 동 회	김 태 일	개 발 위 원 회	황 종 서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	133-1	330m ²	84.6m ²	1997	이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김 복 경	75.7.1	83.2.1		6	이 종 국	95.2.25	04.1.12	
2	황 종 서	83.2.1	88.3.15		7	황 종 서	04.1.13	06.1.12	
3	이 종 국	88.3.15	91.2.24		8	황 종 서	06.1.12	09.1.12	
4	이 상 복	91.2.25	93.2.24		9	황 종 서	09.1.12		
5	이 상 복	93.2.25	95.2.24						

송성3리

송성3리는 송성리의 3개 리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송성3리는 3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앞을 지나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1반과 2반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 3반이 자리하고 있다.



1. 마을개관

송성3리는 송성리의 3개의 행정리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송성3리는 3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앞을 지나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1반과 2반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 3반이 자리하고 있다.

송성3리는 전형적으로 배산임수형의 마을이다. 마을을 전체적으로 금이산이 감싸 안고 있으며, 1, 2반과 3반을 가로 지르는 도로 옆으로 송성천이 흐르고 있는 경치 좋고, 살기 좋은 마을이다. 예전부터 송성3리는 수려한 경치 때문에 주변 마을로부터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마을 앞으로 흐르는 송성천은 물이 너무 맑아 주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목이 마르면 송성천의 물을 손으로 바로 떠서 먹을 정도였다. 이러한 수려한 경치때문인지 마을 주민들의 인심도 좋기로 주변에 정평이 나있었다.

송성3리는 원래는 소나무가 많은 고개라는 의미의 한자지명인 ‘솔치’라고 불리웠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쉬운 발음인 솔티마을로 불려져 왔다. 그러나 현재 송성3리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살기 좋은 예전 그 명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이야기한다. 1980년대에 송성3리로 들어온 공장을 시작으로 30년동안 송성3리에만 공장이 7개가 자리잡고 있다. 이 공장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와 각종 소음과 공해로 주민들은 매일 매일 전쟁을 겪고 있고, 마을 입구에는 이러한 주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다. 이제는 마을 주민들에게 유일한 소원은 공장이 들어오기 전인 19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 다시 살기 좋고 인심좋은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다.

■ 솔티고개에 있었던 지경바위

소나무가 많은 고개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의미

에서 솔치, 솔티마을로 불리웠던 송성3리에는 솔티고개가 있었다. 이 솔티고개는 전의현과 연기현의 경계지점에 위치했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때문인지 이 솔티고개에 있었던 큰 바위를 ‘지경(地境) 바위’ 즉, 전의군과 연기군의 경계에 해당하는 바위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한양에서 손님이 오면 전의현 관리가 손님을 모시고 지경바위까지 가서 마중나온 연기군 관리에게 바통터치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고 한다.

지경바위는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현재 마을 회관 옆에 위치한 정자보다도 훨씬 크고 네모난 모양의 넓적하고 평평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 중에는 어렸을 때 지경바위에 올라가서 놓고 놀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에 도로가 새로 놓이면서 지경바위는 이화재단인 송현원 수용시설 방주의 집 앞에 보존되어 있다.



〈마을 표지석〉

2. 지명유래

송성3리에 전래되는 지명유래는 1974년에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총람』과 마을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금이성〉

- 구리골 : 송현원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이곳에 금을 캐던 골이 있었다고 함. 1980년경에 길이 생기면서 사라졌음.(주민들의 기억에 의하면 1983년쯤까지도 금을 캐었다고 함.)
- 금이성 : 1반과 2반의 뒤편에서 마을을 감싸 안고 있는 산을 지칭함.
- 대추나무골 : 이곳에 1958년도쯤 주막이 있어서 주막뜸이라고도 부름. 마을 주민 한명이 살고 있던 집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을 상대로 술을 팔았다고 하는데, 이 대추나무골이 행길이라고 하여 공주와 연결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많이 들르던 곳이었다고 함. 현재 솔티마을 앞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지점에 해당함.
- 도둑골 : 큰산막실 좌측의 골짜기를 가리키며 옛날 이곳에 도둑이라는 벼슬을 한 사람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임.
- 뒤편산 : 성제 올라가는 산길로 큰말 뒤에 있는

산길임. 뒤편에 있다고 하여 뒤편산이라고 함.

- 바위봉 : 마을입구의 골로 바위가 많아서 바위봉이라고 불렀음. 불당골 좌측으로 차례대로 바위봉, 진골, 재피골, 참새골이라고 부름.
- 비뜰배기 : 죽말 옥천전씨유허비가 위치한 곳을 지칭하는 지명으로, 유허비가 세워지기 전에는 권택수군수비가 세워져 있었으나 유허비가 세워지면서 군수비는 송성1리로 옮겨졌음.
- 산막실 : 도둑골로 가는 편돈 옆 부분을 지칭함.
- 소고리미 : 대추나무골 뒤에 있는 산으로 옛날에 장사꾼이 소에 소금을 싣고 대추나무골 뒷산으로 올라갔음. 잠시 쉬어가려고 물가에서 쉬면서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물가에 갔는데 소금이 물에 떨어지는 바람에 소에게 물을 먹였더니, 소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여 소고리미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함.
- 솔티 : 죽말 남서쪽에 있는 고개를 솔티라 하고 그 아래 마을도 솔티고개 아래에 있다고 하여 솔티, 솔티동이라 부름. 솔티고개는 고개가 길고 험하여서 도둑이 많기로 유명하였음. 솔티마을은 조선시대 때 사기소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도 밭을 갈다가 옹기조각들이 나오고 있음. 이곳에는 연안김씨들이 많이 살고 있음.
- 송성저수지 : 금이성 위쪽에 위치한 저수지로, 현재 송성1리와 3리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음.
- 엄줄 : 대추나무골 안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지



〈주막이 있었던 자리〉



〈솔티마을 전경〉



〈중말 전경〉

칭함. 옛날 이곳에 칩녕쿨이 많이 자라서 마을까지 칩녕쿨이 내려왔으며, 현재도 칩이 많음.

- 연동마루 : 양지원(송현원)가는 길에 있는 논과 밭을 지칭하는 지명임. 이곳에서 감자를 나누어 먹자는 의미로 같이 먹고 영광을 쌓자고 하여 연동마루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짐.
- 옷나무배기 : 송성저수지 밑을 지칭하는 지명으로, 옷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지명임.
- 작은 뒷골 : 붓당골 좌측에 있는 골로 뒤에 있는 골이라고 하여 뒷골이라 부름.
- 작은 산막실 : 큰 뒷골 옆으로 나있는 골을 지칭하는데, 해송나무가 산막처럼 둘러싸여 있다하여 산막실이라고 부름.
- 중말 : 무드리와 솔티 중간에 있는 마을임. 일명 백의도사(白衣道師)로 알려진 학관 이정식(李定植)의 차남 이완규(李完珪)선생의 민족혼을 심은 마을로 널리 알려진 마을임. 무드리와 솔티 중간에 마을이 있다 해서 중말이라고 부름.
- 진바골 : 각골 들어오는 곳의 우측 고랑으로 뒤박처럼 생겼다 하여 뒤박골이라고 부름.
- 치시미 : 연동마루 위에 있는 논과 밭을 지칭하는데, 옛날에 동네 주민들이 뜯어가도 남을 만큼 취나물이 많이 자랐음.
- 큰 뒷골 : 작은 뒷골 옆에 있는 골을 지칭함.
- 큰 산막실 : 작은 산막실 옆에 있는 고랑을 지칭함.
- 토옥골 : 통미산 아래의 골을 지칭함.

- 통미산 : 큰말 뒤에 우측으로 조그맣게 나 있는 산으로 모퉁이에 산이 있다 하여 통미산이라고 함. 또 통미산 밑으로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은 산 윗부분에서 양갈래로 나뉘어 흐르던 물이 밑에서 모이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산이 둥글게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음.
- 통소리고개 : 통소리에 있는 고개로 육계리로 넘어가는 고개임. 이 고개로 가면 금이산에 올라갈 수 있음.
- 편돈 : 고사리 양달밭 근처에 있는 논으로 위쪽으로 평평한 곳이 있는데 평평한 곳 밑에 있어 편돈이라고 함. 평평한 곳을 풍적새라고 하며 연자방앗간이 있었는데 1950년경에 사라졌음.

3. 역사와 변천

■ 충정사(忠貞祠)

중말마을의 서쪽에 있는 산림지역의 동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충정사는 2001년 5월 31일 연기군 향토유적 38호로 지정되었다. 충정사는 예인이씨 동고파의 파조인 이명(李堃, 1496~1572)을 배향한 사우이다. 이명의 호는 동고(東阜)이며, 중종, 명종조의 문신으로 당시 권신 이기(李芑)를 탄핵한 것과 을사사화때 피화자의 신원을 주장한



〈충정사〉

인물이다. 70세의 나이로 사직을 청하여 궤장을 하사받았고, 1551년(명종 6)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며,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충정사는 후손들의 주도로 1902년에 건립하여 동고파 시조 이명을 배향하게 되었고, 1985년에 한차례 증건을 마쳤다.

■ 중말 분청사기요지

중말의 남쪽에는 송성저수지가 있는데, 요지는 송성저수지의 아래 낮은 구릉의 남동향 사면에 위치한다. 요지로 전하는 지역은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수로가 개설되어 있다. 지형상으로는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구릉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경작지로의 개간 등으로 인하여 1차적인 지형훼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한다. 요지 주변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밭 주변과 산사면에 걸쳐 분청사기편, 도집, 내화토비집받침이 다량으로 산포되어 있는데, 주로 민묘를 경계로 남쪽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유물이 산포하는 범위로 보아 요가 2~3기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된 분청사기편은 매우 정제된 인화분청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단독 국화문과 집단연권문이 주요 문양으로 시문되어 있다. 주로 수습되는 기종은 저면이 넓은 접시류와 대접류이다. 특히 흑상감된 분청사기편이 발견되고 있어 주목되는데, 이 흑상감은 상감청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 지역이 요지를 만드는 활동을 했던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파악된다. 이와 유사한 문양구성을 보이는 요지가 동쪽의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와 중흥리 일대의 분청사기요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현재도 밭을 가는 과정에서 여러 편의 그릇 조각들이 수습된다고 한다.

■ 이영길 묘소

중말의 남쪽에 동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나지막한 구릉이 있는데, 이영길의 묘소는 이 구릉의 동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이영길(李榮吉, 1599~1673)은 송성리 예안이씨의 입향조로, 원래 거주지는 한양 소용동이었으나 병자호란으로 나라가 어려워지자 이곳 송성리로 입향했다고 전해진다. 묘역은 새 비석과 호석으로 단장되어 있고, 양 옆의 무인석만 조선 말기의 것으로 보인다. 묘비는 1957년에 세워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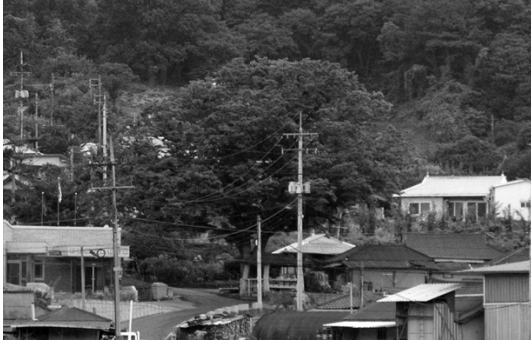


(이영길 묘소)

■ 솔티 느티나무

3개 반으로 구성된 송성3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은 2반인 솔티마을이다. 그래서인지 솔티마을은 큰말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러한 연유때문인지 마을회관도 솔티마을에 자리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옆의 주민들의 심터인 정자 옆에 솔티 느티나무가 우람하게 서있다. 나무의 수종은 느티나무이며, 수령이 약 250여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의 규모는 높이 17m, 나무둘레는 4.5m로, 2000년 12월 29일에 면나무로 지정되었다. 주변에 별도의 보호시설은 없으나,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터를 닦아 놓았다.

마을사람들이 별도로 나무에 제를 올리거나 위하지는 않으나, 나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솔티 느티나무〉

현재 나무의 관리는 마을 이장이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마을에 예전부터 별다른 우환이나 걱정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마을 전체 구성원이 거리제나 느티나무제를 지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한다.

■ 성씨이야기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송성3리에 제일 먼저 터를 잡은 성씨는 연안김씨이고, 다음으로 예안이씨와 거창신씨, 강릉김씨가 차례로 들어와 터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연안김씨의 입향에 대하여 알고 있는 주민 김영수(金英洙)씨를 통해 송성3리에 제일 먼저 입향한 연안김씨는 19대조 김개신(金愷臣)이며, 연안김씨 부원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안김씨가 조선시대 광해군때 사화를 피해 낙향하면서 시종 한명을 데리고 송성3리의 작은 산막실에 집을 짓고 살면서 송성3리에 터를 잡게 된 것이라고 한다. 전통면에서 연안김씨가 터를 잡고 산 곳은 송성3리가 유일한데, 현재도 연안김씨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작은 산막실에서는 밭을 갈다가 기와장이 나오는 일도 있다고 한다. 현재 마을에는 연안김씨 3세대가 살고 있다. 연안김씨는 매봉재에 선조의 묘를 썼는데 현재도 통훈대부, 가선대부를 지냈던 윗대 산소 6기가 보존되어 있다. 다만, 매봉재는 매의 형국을 띄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매

가 날라가 묘를 쓰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라 전해져 현재는 이곳에 묘를 쓰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연안김씨의 시향은 매년 10월 보름에 매봉재에서 지내고 있다. 연안김씨 집안 10여명이 모여 증손인 김양수(金良洙)씨의 주관으로 매년 지내고 있다.

연안김씨 다음으로 마을에 들어온 예안이씨와 관련하여서는 입향조인 이영길의 묘소가 마을에 위치하고 있고, 마을의 유명인사로 알려지고 있는 백의도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민들에 의하여 전해지고 있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예안이씨 중에서 송성3리에 터를 잡은 인물은 1599년에 출생한 이영길(李榮吉)이다. 한양에서 살던 이영길은 병자호란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송성리로 입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떠한 연유로 송성리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는다.

또한 중말을 알리는데 큰 공을 세운 백의도사(白衣道師)는 학관 이정식(李定植)의 차남 이완규(李完珪)선생의 민족혼을 심은 인물로 유명하다. 이완규 선생은 한산이씨이다. 이완규의 호칭이었던 백의도사는 늘 흰색의 옷만 입었기 때문에 붙여진 호칭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백의도사는 활을 직접 깎고 만들어 늘 산에 올라가 무술을 연마했다고 한다. 이러한 무술연마의 목적은 유일하게 일본놈을 모두 처단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에 반일의식이 투철하여 늘 입버릇처럼 일본사람 모두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라고 한다. 현재 이영길의 묘소가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끝으로 마을에 제일 먼저 늦게 터를 잡은 것으로 전해지는 강릉김씨는 1900년대 초에 마을로 들어왔다. 현재 강릉김씨는 3대째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연기군 서면에 살고 있던 친척의 영향으로 송성3리에 터를 잡게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마을에 강릉김씨가 7세대가 살고 있으나, 1960년대에는 10가구 이상이 살았을 정도로 많았다. 전

동면과 이웃하고 있는 서면의 쌍류와 청라마일은 강릉김씨가 150가구가 살 정도로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시향은 매년 10월 8~11일 사이 3일동안 서면에서 대대적으로 지내고 있다.

■ 조용했던 근현대사

신기할 정도로 송성3리의 근대와 현대는 조용하고 한적했다. 주민들은 격변의 시기를 무난히 지낼 수 있었던 원인은 마을의 지형 자체가 넓게 트여 환했기 때문에 마을에 큰 우환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송성3리의 일제강점기는 마을 앞을 지나는 길을 따라 일본군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던 기억과 마을 주민이었던 이충규(李忠奎)씨에 대한 기억이 전부이다. 이충규씨는 백의도사로 알려진 이완규의 형으로, 일제강점기에 반일활동을 하여 공주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출옥한 이후에도 송성3리 마을로 들어와 거주하면서, 일본 경찰에 대항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다. 또한 늘상 일본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했다고 전해진다. 말년에는 침술을 배워 송성3리 주민들에게 침을 놔주고 병을 고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던 인물이다.

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이었던 한국전쟁시기도

다른 전동면의 어떤 마을보다 조용하게 지나갔다. 현재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응구(76)씨의 집안에 당시 경찰이 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했지만, 다른 주민들보다 훨씬 빨리 피난을 갔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서면으로 피난을 갔는데, 어느날은 도둑골에 폭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곧 송성3리에도 폭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모든 주민이 피난을 떠났던 것이라고 한다. 마을 주민 중 한명은 금산까지 피난을 가는 바람에 가는 길목에서 북한군들에게 붙들려 애를 먹기도 했지만, 마을 주민 어느 누구도 목숨을 잃는 일 없이 현대사는 무사히 지나갔다.

■ 새마을운동때 놓은 다리

새마을운동 당시 송성3리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서 했던 가장 큰 일은 주민들이 직접 산에서 나무를 베고, 돌을 지게로 짊어 지면서 손수 다리를 놓은 일이다. 현재 송성3리 1반과 2반, 3반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송성천은 송성1리 조천으로 합류하는 물줄기이다. 이 다리가 놓여지기 전까지 송성천 중간 중간에 큰 돌을 놓아 내를 건너던 주민들은 새마을운동때 모두 함께 멋진 다리를 놓자고 의견을 내놓았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열일을 제쳐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주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 다리를 놓



〈마을 앞길(지방도 627번)〉



〈새마을운동시기에 놓은 다리가 있었던 곳〉



〈마을회관〉

았고, 지금도 보기만 해도 뿌듯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이 다리는 송성리 주민들을 비롯해 근처의 청람리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유용한 다리이다.

이 다리를 시작으로 새마을운동시기에 송성3리는 비약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마을 주민들끼리 유별났던 단결력과 결속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주민들 중 몇몇이 마을을 위해 희사한 기금 덕분에 큰 어려움없이 마을이 발전할 수 있었다. 현재 새마을운동시기에 놓여진 다리는 1992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 마을의 효부, 옥천전씨

송성3리에서 효부로 소문난 옥천전씨를 기리는 유희비가 3반 산중턱에 세워져 있다. 이 비문에 의하면 옥천전씨는 고대신희동고정간공(古大臣號東臯貞簡公)의 9대 손인 철수(喆洙)의 제2대 아들인 상은(相殷)의 부인이었다. 옥천전씨는 본래 심성이 효성스럽기 지극하고 청렴하였던 인물이었다고 한다. 옥천전씨의 남편은 장남이 아닌 차남이었기 때문에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으나, 시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지극정성하기가 한결 같았다. 곤궁한 생활을 이기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 팔아서 시부모의 옷을 마련해 드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대접하는 일도 있었다. 하

루는 시아버지가 이질에 걸려 몹시 고통을 겪고 의원마저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옥천전씨는 환자의 대변을 맛보아 병을 살피고, 산에서 나는 온갖 약초들을 다스리며, 술을 첨작하고 하늘에 기도 하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하여 마침내 시아버지의 병을 낫게 했다.

계해년에는 집안의 만며느리가 아이를 낳은지 3일만에 죽는 일이 일어났다. 그 아기는 가문의 대를 이어갈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몹시 괴로워하였다. 이 모습을 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본인이 직접 데려다 키울 것을 어른들에게 요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결국 집과 시택을 왕복하며 조카에게 직접 본인의 젖을 먹이며 양육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여 결국 허락을 얻었다. 부인의 사는 집과 조카가 살고 있는 곳이 떨어져 있어 풍성재를 넘어 하루도 어김없이 왕래하였다. 부인은 비가 오고 추운 바람이 몰아치거나,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칠혹같은 밤이거나 때를 가리지 않고 왕래를 하였다.

어느날은 풍성재에 이르렀는데, 짐승이 길에 있어 놀라 소리를 지르니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서야 부인은 호랑이라는 생각이 들어 몹시 두려웠으나, 어미를 잃은 조카에게 젖을 먹이러 가는 길이니 해치려면 해치고 아니면 피해달라고 호랑이에게 이



〈효열부 옥천전씨 유희비〉

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는 꼬리를 끌며 옆으로 피해 주어 무사히 조카에게 젖을 먹일 수 있었다. 그 다음날 밤에도 호랑이를 만날 것을 두려워하였으나, 부인이 가지 않으면 젖을 굶주릴 조카 생각에 안타까워 결국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역시나 그곳에 이르자 호랑이가 나타나 뒤를 따르다가 사라졌다. 부인은 그 당시 신령한 호랑이가 본인을 호위해주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고 어려움없이 왕래를 지속하여 조카를 잘 키울 수 있었다. 조카가 어느 정도 자라 젖을 끊게 되고 옥천전씨가 사망한 날 이튿날부터는 그 맑던 밤하늘에 자욱한 눈이 내렸다고 하니, 하늘도 옥천전씨를 돌보았다고 마을 주민들은 이야기했다고 한다.

4. 전통민속

■ 현재는 없어진 마을민속

마을을 감싸고 있는 금이산의 산세가 좋고, 마을에 수령이 300년 가까이 되는 느티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성3리에는 마을 공동 신앙이나 동제가 없다. 비가 너무 안와서 가물던 해에는 작성산 밑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마을 아낙들이 쌀을 고르던 키에 물을 넣어 쌀을 고르는 것처럼 위 아래로 흔들면 꼭 다음날에는 비가 온다는 믿음이 있어 민속행위를 했으나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전체 차원의 동제는 없었다.

그러나 송성3리 주민들만이 하던 세시풍속으로 ‘터다지기’라고 불리던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1970년대까지는 행해졌던 이 풍속놀이는 매해 정월보름과 칠석을 맞이하면 동네 주민들이 모여 풍장을 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음식을 얻어먹으며 터를 다진다는 명목으로 진행했던 놀이였다.

5. 생활환경

■ 청년회가 만들어 놓은 마을기금

송성3리의 마을 전체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마을 주민들이 다같이 회관에 모여 점심을 먹는 행사와 초복을 비롯하여 매년 여름에 다같이 모여 음식을 나눠먹거나, 2년에 한번 꼴로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여행을 가는 일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마을기금이다. 그러나 송성3리 주민들은 앞으로 몇 십년동안은 마을기금 걱정 없다고 한다.

1970년대에 당시 마을의 청년회에 소속된 젊은 이들은 마을기금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아 마을의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리하여 해결책으로 마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청년회가 대표로 마을공판장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정부에서 술장사를 개인이 할 수 없게 만들면서 마을 젊은이들이 돌아가면서 마을공판장을 운영하면서 남는 이익금을 착실하게 모았고, 벼를 타작하는데 필요한 탈곡기를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지출하는 사용료를 모두 모아 동네기금으로 조성한 것이다. 연기군에서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송성3리의 ‘솔티청년회’는 마을기금 조성을 위해 197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활동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마을기금은 당시 5천만



〈마을회관 옆 정자〉

원 가량이었고, 지금까지도 마을행사비용으로 사용하고도 앞으로도 몇 십년은 문제없다고 한다.

■ 송성리 중 가장 어른마을

송성리 전체 3개의 마을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많다. 송성리가 3개의 리로 분구되기 전에는 솔티, 수회, 성곡이라는 이름의 3개의 부락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 당시에 송성리를 대표하는 송성리의 이장을 선출하면 늘상 솔티마을, 즉 송성3리에서 이장이 매번 선출되었다. 당시 수회나 성곡의 주민을 다 합쳐도 솔티마을의 주민 수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장선출에서는 늘상 솔티마을 출신의 이장이 당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송성리의 가장 큰 어른은 단연 솔티마을이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송성리에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다른 부락에서 솔티마을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송성3리가 가장 번성했던 1960년대에는 마을 전체 호수가 60호가 넘을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

현재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은 벼농사이다. 3반에는 과수원이 넓게 펼쳐져 있어 배를 재배하기도 하지만, 벼농사가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과거에는 벼나 보리, 콩 등 밭농사와 벼농사를 함께 경작했지만, 1990년대에 과수를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왔다. 당시에는 수박·참외·복숭아 등 다양한 과수를 재배했으나, 몇



〈배농사〉



〈벼농사〉

년 전부터는 가계에 보탬이 되는 배농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마을 앞 속도카메라가 생긴 사연

아직도 시골마을에서는 도로 한복판에서 벼를 말리거나 농작물을 말리는 일이 많다. 지난 2000년 10월, 송성3리 주민 한명이 도로에서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망자의 부군의 증언에 의하면 오전에 도로에 널어 놓았던 벼를 저녁에 걷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먹구름이 밀려 오는 것을 보고 비가 올까 걱정되서 급하게 노부부가 도로로 나가 벼를 걷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할머니를 치고 달아난 것이다. 할머니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하던 할아버지가 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공교롭게도 사건



〈노인건강운동교실 수로식 기념사진(2007년)〉



〈도움주신 분들〉



〈사연을 간직한 과속단속 카메라〉

이 일어났던 날이 장날이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체가 되면서 결국 할머니는 숨을 거두었다.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서 동네 주민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사건뿐 아니라 송성리에 위치한 몇몇 공장의 공사차량인 덤프트럭들도 한적한 시골길이라는 이 점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일이 많아 주민들은 공포에 떨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발의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뺑소니사건이 일어난 이듬해인 2001년에 사고가 났던 그 자리, 송성3리 주막동 입구에 속도카메라가 생겼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과속하는 차량들로 1반에서 3반을 건너가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이야기한다.

속도카메라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함은 조금 해소되는가 싶었으나, 최근에는 한쪽 차선에만 있는 속도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

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을 하는 차량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하루에만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이 700여 대가 넘을 뿐 아니라, 과속하는 차량으로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면에 건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유일한 소원은 다시 살기 좋은 마을로 돌아가는 것

주민들에게 송성3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경치 좋고, 인심이 좋아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갖가지 소음과 공해, 악취들로 한평생을 몸바쳐온 고향땅을 버리고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고 있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몇시간 마을에 앉아 있었는데도 악취와 소음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송성3리에 이러한 좋지 못한 환경을 제공한 가장 큰 원인은 마을에 들어온 몇몇 공장이다. 1980년 초에 처음으로 녹생토를 제조하는 공장이 들어올 당시만 해도 주민들은 그 공장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공장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개인사업자에게 인수가 된 이후 마을에는 우후죽순격으로 공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들어온 공장과 회사가 벌써 마을에 7개나 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들어서 있는 공장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소음과 악취를 배출한다는 점이다. 종이펄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오물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으며,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공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땅의 떨림으로 집의 방문과 창문이 떨리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은 면과 군에 건의를 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해결된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반에 위치한 각종 공장〉

주민들은 이제는 이렇게 사느니, 현재 살고 있는 땅을 전부 반납하고 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평생을 몸바쳐 일군 고향 땅을 버리겠다는 생각도 잠시잠깐이다. 주민들은 현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대책을 의논하고 강구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짓고 더 이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현수막〉

상은 마을에 공장을 유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을을 지키겠다고 한다. 오랜 기간 마을 입구에 걸려 있는 ‘또! 폐기물처리장이 송성리에 웬말이냐! 송성리를 전국의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들 작정이냐!’라고 쓰여진 현수막이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이 준 연	59	남	농업	010-4453-3652 / 863-3652
이 응 구	76	남	농업	863-2207
이 호 선	81	남	농업	863-2115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517	328	189	70	65	5	83.3	26.78	15.54	39.67	1.32
특산물 : 배					축산물(두) : 한우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	중말	이 용 찬	14	866-3435
2	큰말(솔티)	정 인 성	25	863-3384
3	주막동	강 선 영	13	863-3270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노 인 회	이 응 구	복 송 아 작 목 반	이 원 직
할 머 니 회	유 순 상	대 동 회	김 영 수
배 작 목 반	이 원 직	부 녀 회	지 재 희
벼 작 목 반	김 장 유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	584-1	555m ²	198m ²	2009	이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신 용 원	87.5.1	88.1.4		7	정 남 훈	98.2.19	98.12.16	
2	이 준 연	88.1.4	90.1.4		8	김 구 래	98.12.16	04.12.16	
3	이 준 연	90.1.15	92.1.15		9	김 구 래	04.12.16	06.12.18	
4	이 명 직	92.1.16	94.1.17		10	김 구 래	06.12.18	07.1.8	
5	이 명 직	94.1.18	96.1.17		11	이 준 연	07.1.8	10.1.8	
6	정 남 훈	96.1.18	98.2.18		12	이 준 연	10.1.8		

송정1리

송정1리는 전동면의 면소재지인 노장리에서 남서쪽으로 6.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서면과 경계지역인 마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송동과 사정, 그리고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송정리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1. 마을개관

송정1리는 전동면의 면소재지인 노장리에서 남서쪽으로 6.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서면과 경계지역인 마을이다.

송정1리는 조선 말엽에는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으로서 조선 숙종(肅宗)때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조사석이 만년에 그 선영(先塋)을 따라 이곳에 은거하면서 솔밭부근에 정자(亭子)를 짓고 은거하였다고 하여 송정(松亭)이라 불렀다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송동과 사정, 그리고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송정리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지리적으로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산줄기줄기 마다 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에는 피난고지로 유명했던 곳이기도 하다. 마을의 북쪽으로는 연수봉에서 뻗어 나온 산줄기가, 남쪽으로는 오서산에서 뻗은 줄기가 마을을 아늑하게 감싸 안고 있으며, 마을 앞쪽으로는 구리골 저수지에서 발원한 송곡천이 흘러 송곡리를 지나 조천천과 합류한다.

송정리는 보덕1리, 송곡1, 2리, 송정1, 2리를 통 털어서 소골 골탕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위에 있다고 해서 위 '상(上)' 자를 써서 상소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을의 동쪽은 송곡리, 서쪽은 송성리, 남쪽은 서면 고복리, 그리고 북쪽은 청람리와 접하고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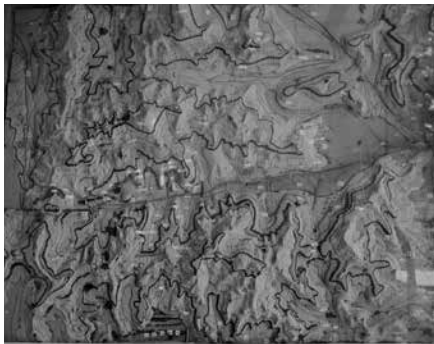
며, 마을 앞쪽으로는 솔재들, 쟁미들, 지심이골 들 등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현재 송정리는 1리와 2리의 2개 행정리로 구분되었는데 그 전에는 하나의 마을이었으나 1990년대 초반에 분구되었다고 한다. 송곡천 안쪽을 경계로 1, 2리로 나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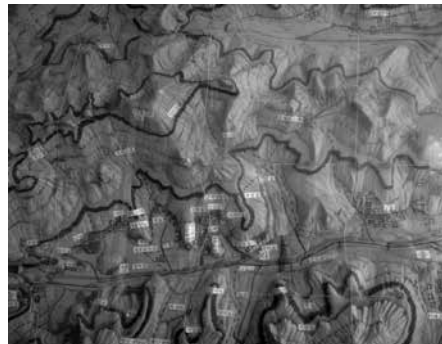
2. 지명유래

송정1리에 전래되는 지명유래는 1974년에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총람』과 마을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송곡1리에는 마을에 살던 '정봉규'라는 사람이 공군 본부에 있던 시절 마을형태의 모형을 만들어 지명을 기록하여 마을회관 입구에 걸어 놓고 있다.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마을의 지명들을 골짜기, 논 이름, 사람이 사는 마을에는 집의 표시 등 자세히 표시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 쉽고, 마을의 아이들도 우리 마을의 지명을 쉽게 보고 배울 수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가운데 샘 : 상소골에 있던 샘으로 마을 가운데에 있었음
- 골통 : 떡골의 서쪽으로 골을 돌아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김산 : 김씨들이 묘를 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액자에 보관하고 있는 마을 지명도〉



〈송정1리 부분 확대 모습〉



〈너털골 전경〉



〈들가운데 전경〉



〈딴통미 전경〉



〈박산 전경〉



〈마을 뒷산에서 바라본 부성이마〉



〈상소골 전경〉

- 으로 너털골 입구에 위치함.
- 너털골 : 털골 안쪽의 깊은 곳임.
 - 다락골 : 지심이골 동쪽에 위치하며, 전염병이 걸린 사람을 묻었다고 전하는 곳임.
 - 덕대골 : 아이들을 묻는 애장터가 있다하여 덕대골이라 함.
 - 독송정(獨松亭) : 상소골 앞 냇가에 있던 독송정

- 의 터로, 지금은 예전의 독송정이 없어졌음. 숙종(肅宗)때 좌의정(左議政) 조사석(趙師錫)이 만년(晩年)에 그 선영(先塋)을 따라 이곳에 은거하면서 정자를 짓고 소요하였다 하는데 그 정자(亭子)가 독송정(獨松亭)이라고 함.
- 동막골고개 : 행골에서 청남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음.



〈아네박골 전경〉



〈연수봉 전경〉



〈주가래봉 전경〉



〈지심이골〉

- 판통미 : 숲진거리 밑에 동그랗게 떨어졌다 해서 판통리라고 함.
- 독안구레 : 지심이골 넘어 서면으로 가는 길로, 독이 있었는데 이 독의 안쪽에 농사를 지었음
- 떡골 : 고개밀이라고도 하며, 서면 용암리로 넘어 가는길임.
- 박산 : 박팽년의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산을 지칭함.
- 부성이마 : 송정1리 마을에서 정면에 보이는 산을 말하는데, 마을 입구에서 보면 사람.이마처럼 튀어 나와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짐.
- 사장골 툼병 : 지심이 앞쪽 소로길 옆에 위치하였음.
- 사타골 : 사장골에서 서면으로 넘어가는 곳으로 이곳에는 서낭당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가다가 던져 놓았던 돌무더기가 있었음.
- 상소골 : 송정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송곡리 소

- 골 위쪽에 있으며, 소골골탕이 꼭대기라 하여 상소골이라 한다. 상송동(上松洞), 상송곡(上松谷)이라고도 부름.
- 상소골 샘 : 상소골 마을에 있던 샘으로 두레박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어 먹었으며, 식수로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
- 서담내 : 솔재 앞뜰 앞에 있는 내를 서담내라고 함.
- 서뜸샘 : 상소골 상단부에 있던 샘으로 마을회관 부근에 위치했음.
- 소골 : 골탕이 보덕1리, 송곡1, 2리, 송정1, 2리를 통틀어 소골 골탕이라고 함.
- 소탁골 : 마을회관 뒷쪽을 소탁골이라 함.
- 솔재 : 마을회관 서쪽으로 송정리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가 있는 고개마을이라 해서 솔재라 부름.
- 솔재고개 : 상소골에서 솔재 넘어가는 고개를

솔재고개라 하는데(솔재너머) 숲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습징거리, 습징이라고도 부름.

- 솔재샘 : 솔재 마을에 있던 샘으로 두레박을 이용해 물을 길어 먹었으며, 식수로 사용했음.
- 수령배미 : 솔재 마을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지정리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물이 많았던 곳으로 밭이 푹푹 빠지던 곳이었음.
- 아네박골 : 상소골 마을 동쪽을 말함.
- 아래뜸샘 : 함장모리 북쪽에 있던 샘으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던 샘.
- 연사골 : 연삭굴 이라고도 하는데 박팽년의 할아버지 묘가 있는 곳을 말함. 현재는 축사 한 채가 있고, 상소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임.
- 연사골 : 절텃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연사골이라 부름. 송정리 동남쪽 계곡(溪谷) 절텃골에서 지금의 송곡천(松谷川)까지의 400여m의 골짜기를 말하는데 절텃골에 있던 연수봉(延壽峯)의

이름을 따서 연수골이라 부름.

- 연삭굴고개 : 연삭굴 넘어가는 고개를 말함.
- 연수봉(延壽峯) : 상소골 뒤에 있는 제일 큰 산을 지칭하며, 큰봉이라고도 함.
- 장내미고개 : 연삭굴 골짜기에서 심천리로 가는 고개를 말하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음.
- 절텃골 : 연삭골 기슭에 있으며, 연수봉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예전에 연수암(延壽岩)이라는 절이 있었다 하여 절텃골이라고도 부름.
- 정산 : 마을 뒷산으로 나주정씨들이 묘를 많이 써서 이름 붙여짐.
- 주가래봉 : 상소골 마을 동쪽을 감싸고 있는 산.
- 주막거리 : 주막이 있었다고 하며, 들가운데라고도 하는데 쟁미들 가운데에 집을 짓고 살았을 가운데에 집을 지었다 하여 들가운데 라고도 한다. 1950년경에 집이 들어왔음.
- 중봉 : 마을의 뒷산이며, 연수봉 앞에 위치함.



〈소택골〉



〈솔재마을 전경〉



〈솔재고개〉



〈수령배미 논 전경〉



〈함장모리〉



〈헌터골 전경〉



〈행골 전경〉

- 지름챗날 : 지름길로 넘어가는 길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정산이라고도 부르며, 들가운데 뒷산임.
- 지심이골 : 주변이 온통 풀로 가득한 곳이라서 이름지어졌음.
- 함장모리 : 상소골로 나가는 모퉁이를 말함.
- 행골 : 술재고개 옆쪽으로 상소골 서북쪽의 골을 말하며, 현재 4가구가 살고 있음.
- 행골 샘 : 마을에서 물이 제일 좋았던 샘으로 현재는 논으로 사용하고 있음.
- 행골고개 : 상소골에서 행골로 넘어가는 고개
- 행골툼병 : 행골 마을의 소로 길 옆에 있었으며, 마을에서 제일 큰 툼병이었으며, 마을 주민들이 물놀이하던 곳이었음.
- 헌터골 : 송정1리 마을 입구로, 박만기 공덕비 옆쪽에 위치함.

3. 역사와 변천

■ 한국전쟁의 피난고지

전쟁시기에 송정1리는 조용한 편이었다. 산 깊은 곳에 자리했기 때문에 타지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송정1리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었다고 한다. 마을 역시 가장 번성 했을 때는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이 마을로 모여 들었을 때였다. 마을에서는 일부 징용을 갔던 사람도 있었지만 광복 후 모두 돌아왔다고 한다.

■ 정선박씨

송정1리는 현재 정선박씨 수종공파가 13대째 거주 하고 있으며, 인근에서는 일명 ‘사장굴 박사’라고 불릴 정도로 오랫동안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다. 본래 집안은 진천 내수에 많이 살았다고 전해지나 400여년전쯤 보덕리로 이거 하면서 연기에 처음 자리잡기 시작 했다. 처음 연기에 입향한 인물은 민헌(敏獻)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연기에 입향하였는지 자세한 연유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후 5대손 제봉(濟鳳)대에 인근 마을인 송정리로 처음 이거 하여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다. 송정리로의 이거 역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나

지막한 산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온한 마을로 넓은 영토가 있어 농사짓기에 알맞은 환경 때문에 이거한 것이 아닌가 후손들은 추측한다.

그 후 후손들이 점점 퍼져 나가며 송정리 일대에 터전을 마련하였다.

현재 보덕리에 있던 입향조와 4대의 묘소를 송정2리 사장골로 이장해 남골당을 마련해 모시고 있으며, 매년 10월 초 열나흘날에 시제를 지내고 있다. 현재 송정1리에는 정선박씨가 5가구 내외가 살고 있으며, 선조의 11대에서 파가 다시 한번 분파되어 송정1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집에 해당한다고 한다.

■ 송정리 독송정지(獨松亭址)

송정리 상소골 마을회관 우측에는 숙종 때 좌의정을 지낸 조사석(趙師錫, 1632~1693)이 만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선산이 있는 상송동에서 거처하면서 정자를 짓고 지내던 곳이 전해진다. 독송정의 모습은 조선중기의 고지도에서 확인이 되는데 대략적인 위치는 오봉산 북쪽의 기슭에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소골 마을 야산에는 조사석의 아버지인 조계원(趙啓遠, 1592~1670)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전



〈해동지도에 그려져 있는 독송정〉

반에 편찬된 『충청남도읍지』에는

“在縣南二十里上松洞溪上故趙師錫晚年退去先壠因構一亭以爲逍遙之○上有一松故名令有遺址”

현의 남쪽 20리 상송동 냇가의 위쪽에 있었다. 옛 조사석이 만년에 퇴거하여 그 선영을 따라 언덕에 하나의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소요(逍遙)하였다. 위에 한그루의 소나무가 있어 이름(獨송정)을 지었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 양주조씨

송정리 상소골 마을에는 400여년 가까이 마을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양주조씨가 있다.

현재 마을에는 3가구가 살고 있으며, 가장 번성했을 때가 5~6가구 내외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대를 이루어 살고 있다. 마을 뒷산 야산에는 조선중기에 세워진 충정공 조계원의 신도비와 충정공 조계원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어 양주조씨의 오랜 역사를 대변해 주고 있다.

양주조씨와 송정리의 인연은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 조계원은 1616년(광해군 8) 진사시에 합격하고,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심양에서



〈광여도에 그려져 있는 독송정지 모습〉



〈조계원과 아들 조진석의 묘소〉

소현세자를 시종하였고 충청도관찰사·예조참의·동부승지·강화유수·도승지·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공주로 파천하는 인조를 호위하여 공주에 머물기도 하였다.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조계원이 1647년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지금의 송정리와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당시 송정리의 자리가 좋아서 그곳을 눈여겨 보았고, 첫째 아들인 조진석이 일찍 졸(卒)함에 따라 미리 봐 두었던 상소골에 진석의 묘를 썼다고 한다. 이후 조계원이 1670년 졸(卒)하면서 아들 위에 묘를 썼고, 후대 자손들이 터를 잡고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다.

계원은 양주조씨 충정공파의 중시조로 7형제를 두었는데 숙종·정조 시대에 걸쳐 그 세력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4째 아들 사석은 선영을 따라 송정리에 내려와서 정자를 짓고 살기도 하였다. 7형제 중 둘째 구석(龜錫), 셋째 희석(禧錫),

넷째 사석(師錫), 다섯째 가석(嘉錫) 등 4형제의 후손이 번창하였다. 숙종 때에는 같은 집안이면서도 노·소론(老少論) 양파로 갈라져 당쟁의 극렬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희석의 후대는 노론(老論)으로, 사석과 가석의 후대는 소론(少論)으로 갈라져 집안끼리 당쟁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시제는 음력 10월 초하루부터 시작된다. 각각 음식을 준비해서 산소에 옮겨가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종손 조태식씨의 13대(계원), 12대, 11대 까지는 오전에 제사를 지냈고, 그 아랫대의 조상들은 점심 식사 후에 제사를 지내 하루가 꼬박 걸렸다. 그러나 정성스럽게 지내다 보면 시간이 촉박 하여 어두워지기도 하였고, 시간에 쫓겨 서둘러 지내는 일도 있었다. 음식 준비도 보통일이 아니었다. 제를 지낼 때마다 새롭게 상을 차려야 했고, 때문에 시제가 있는 며칠 전부터 분주했다. 직접 조청을 굽고 하나하나 손으로 정성스럽게 장만 했다. 그렇게 준비한 음식을 차려 묘소로 들고 갔는데 상차림의 고임새가 흐트러져 여간 애를 먹은게 아니다. 양주조씨의 제삿날은 마을 잔치나 다름이 없었다. 워낙 제사가 많다보니 동네사람들 모두 불러 다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이에 명절 날이면 어김없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벌초를 도와주기도 했다고 한다.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 집안은 시제를 지낼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수를 차려도 함께 제사를 지내지 못했다. 따라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중립



〈상소골에 자리잡은 양주조씨 공원묘지〉



〈묘소에서 바라본 전경〉

을 지키려고 노력해 가운데에 병풍을 치고 제를 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시제는 2005년부터 종손집 벽면 한쪽에 위패를 모셔놓고 올리고 있다. 날짜는 음력 10월 초하루에 지내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간소화 됐지만 조상을 모시는 정성만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함이 없다. 또한 종손은 조계원의 묘소 서쪽으로는 계원의 후대 묘소들을 1994년에 한곳으로 모아 공원묘지를 만들어 관리 하고 있다.

처음 양주조씨가 송정리에 자리 잡은 집터는 현재 종손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러번의 개·보수로 인해 원형은 사라졌지만 1956~1957년도 즈음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개량을 할 때에 대들보 상량문에는 300여년이 된 집이라고 써져 있었다고 종손(조태식)은 기억한다.

또한 일설에서는 조계원의 묘소가 자리한 곳은 유허의 정석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명당터로 용진혈적, 즉 참된 용맥에 적중된 곳으로 용혈사수(龍穴砂水)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전해진다. 이는 유허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곳으로 맨 뒤 조계원의 묘가 혈이 된다고 한다. 이는 부귀(富貴)를 이어갈 명당이라고 한다.

■ 조계원(趙啓遠)의 묘소와 신도비(神道碑)

송정리 상소골 마을 북쪽의 야산 중하단부에는 약천(藥泉) 조계원의 묘소가 위치한다.

조계원의 묘소에는 중앙에 묘비(贈議政府左贊成行刑曹判書諡忠靖趙公啓遠之墓 贈貞敬夫人平山申氏附左)가 세워져 있다. 이 묘비의 음기(陰記)는 현암(玄岩) 박세채(朴世采)가 짓고 넷째아들 조사석이 쓴 것으로 건립연대는 불명이다. 조계원의 관직이 ‘증 좌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영의정으로 증직되었던 1676년(숙종 2)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충정이란 시호가 기록된 것으로 보면 더 늦을 수도 있다. 묘의 전면 좌우에는 2개의 문인상과 4개의 석등이 세워져 있다. 조



〈조계원 묘〉



〈신도비〉

계원의 묘소 아래에는 첫째아들 조진석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묘소의 아래쪽, 현재 밭으로 개간되어 있는 곳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건립연대는 조계원이 ‘충정(忠情)’이라는 시호를 받고 영의정에 추증되는 1680년대 어간으로 추정된다. 조계원 신도비는 복련이 조식된 화강석재의 방형대좌 위에 비신(107cm×208cm×42cm)을 세우고 옥개형의 이수(雨頭)를 올렸다. 비문은 송시열이 찬(撰)하고 조사석이 서(書), 조태기(趙泰期) 전(篆)이다. 신도비문에는 조계원의 행적과 그에 관한 일화가 적혀 있으며, 특히 말미에 송시열이 그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재주를 다 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였고, 그의 검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인물됨을 칭송하였다. 2010년에는 신도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비각을 세워 관리 하고 있다.

■ 박안생(박팽년 조부) 묘

송곡2리 중소골과 송정1리 상소골의 경계 북쪽에 있는 산의 남향사면 중단부에는 박안생의 묘가 자리잡고 있다. 박안생(1400년대 인물)은 전의면 관정리 순천박씨 입향조로, 사육신 중의 한 명인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의 조부이다. 전의면 관정리에는 박동(朴洞 : 현재의 전의면 관정리 박동마을)이라는 지명이 있을 정도로 순천박씨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현재에도 10대 이상 대대로 살아 가고 있다.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림(朴仲林)의 묘는 박동(朴洞 : 현재의 관정리 박동마을)에 있으나 그 위치는 알 수 없고, 박팽년 조부모 묘역은 위에 조모를 모시고 아래에 조부를 모신 위아래 묘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성지(全城誌)』에 기록되어 있다.

박팽년의 증조부는 박원상으로 공주 유성에 자리잡고 살았던 듯 그의 묘소가 유성 종쪽 별대리 둔이동에 있다고 정조 9년(1785)에 간행한 『순천박씨족보』에 기록해 놓고 있다. 그 후 박안생은 전의의 명족인 선안동김씨(先安東金氏) 한성좌운 학당(學堂) 김휴(金休)의 둘째 딸에게 장가들어 처가 근처로 이사하였고 아들 박중림은 외가가 있는 학당리에서 탄생하여 박동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박중림은 전의면 관정리 부근을 그 말형 박팽림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전의 남쪽 싯골(金谷 : 전동면 송성리 중송동)으로 이사하여 그 부근에 부모

산소를 마련하였던 듯 하다.

실록이나 『유고』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세종실록』(1446년 12월 18일)의 기록에는 “수집현전 교리 박팽년이 아버지 박중림의 무죄를 상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중략)……신의 아버지는 갑자년에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여 전의현(全義縣) 남촌(南村)에서 여묘(廬墓)를 살았는데……(후략)……

여기서 분명 박중림이 그 부친 박안생의 시묘살이를 전의 남촌에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미 『세종실록』(1439년 9월 27일)의 기사에는 “집현전 부수찬 박팽년이 사직을 청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집현전(集賢殿) 부수찬(副修撰) 박팽년(朴彭年)이 상언(上言)하기를,
“신이 학술이 거칠고 소루하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어, 한가한 데에 있어 글을 읽을 뜻이 있으나, 말씀을 하려다가 못한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지금 아비(박중림)가 상(喪)을 당하여 전의현(全義縣)에 여막을 짓고 있고, 신의 어미도 따라가 있는데 또 병이 있사오니, 멀리 떠나서 벼슬하는 것이 어찌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까……(중략)……하니,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도 박중림이 친상을 당하여 전의로 내려가 시묘를 산다 하였으니 부친상을 당하여 그 산소를



〈박안생 묘〉



〈박안생 묘소에서 바라본 앞 산의 풍수〉

전의에 모시고 시묘를 살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때 박팽년이 비록 면직을 윤택 받고 전의로 내려가지는 못 했다 하나 잠시 휴가를 얻어 수십일동안 전의에 머물면서 부모와 형제를 만나고 오기는 하였던 것 같다. 『박선생유고』의 「아우에게 주는 시의 머리글」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전의현 읍치 남쪽 금곡(金谷)에서 시묘를 사시니 아우 3인이 쫓아 가서 수업을 받았다.

이는 현재 상송동과 중송동(中松洞 : 현재의 송정리 상소골 부락)마을의 경계 지점으로 이곳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묘비는 옥개형의 이수를 올린 것으로 방형의 화강석대좌 위에 비신을 올렸는데 비신은 너비 62cm, 높이 151cm, 두께 27cm의 크기이다.

일설에서는 이 묘로 인하여 박팽년에게 사육신의 참화가 왔다는 풍수적 소견이 있기도 하다.

4. 전통민속

■ 상소골에서 지냈던 산신제

마을사람들은 산지터 산신제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 산신제는 한국전쟁 직후까지 지냈다고 한다.



〈산제당 터〉

산신제를 지냈던 곳은 상소골 동북쪽에 위치하는 곳으로 마을의 뒷산에서 내려오는 중봉 고랑의 물이 상소골에 다다르면서 낙차가 커지는 곳이 있었는데 그 아래쪽에는 물이 오목하게 고여 있어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정월에 날을 잡아 제를 올렸는데 저녁 식사 후에 마을 어르신 3~4명이 산지터로 가서 삼색실과를 제물로 올리고 마을 사람들의 평안을 빌었다고 한다. 현재는 이곳에 집을 지어 중봉에서 내려오는 물의 흐름이 막혔지만 아직도 제를 지냈던 옛 터를 확인 할 수 있다.

■ 단옷날의 기억

송정1리는 단오날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 마을회관 옆에는 아주 오래된 고목 2그루가 서 있는데 한그루는 소나무, 다른 한그루는 느티나무로 마을에서는 이 두 나무를 둥구나무라고 부른다.

단옷날이 되기 며칠 전부터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동네 청년들이 하나둘씩 회관 앞 공터로 모여들었다. 7~8명의 청년들은 짚으로 동아줄을 꼬기 시작하는데 굵게 짚을 엮어서 그네줄을 만들어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 느티나무의 수령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튼튼했으며, 굵은 가지가 뻗어 나와 그곳에서 그네를 뛰면 온 동네가 다 보일 정도였다. 짚을 가운데에 놓고 그 위에 송판을 올려놓으면 널뛰기판이 완성되었다.



〈느티나무〉

동네 아이들, 부녀자들 청년들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해 그네를 뛰고 널뛰기를 하며 단오를 보냈다.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단옷날에는 마을에 잔치가 열리는 것처럼 시끌벅적 했지만 동네에 젊은 사람이 없어 중단되었다.

■ 풍장소리만 들리면 마을사람들이 다들 모여

정월대보름날, 칠석날에는 마을에 잔치 아닌 잔치가 열렸다. 특히나 인근에서 유명했던 풍물패가 있었는데 ‘임창세’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타지에 살다가 마을로 이사와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풍물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하나 풍물을 가르쳤는데 농번기를 피해 틈틈이 회관에 모여 풍물을 배웠다. 임창세씨는 12발 상모까지 돌리는 기술자였으며 이 풍물패들로 마을은 더욱 활기가 가득 했다. 특히 정월대보름날이면 풍물패들이 모여 각 가정을 돌면서 걸립을 하러 다녔다. 풍물패를 앞세워 각 가정의 집에 들어가 한판 신명나게 흥을 돋우고 풍물로 요란한 소리를 내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한해 건강하고 하는 일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빌어줬다. 그러면 집안의 주인은 그에 감사의 뜻으로 쌀이나 약간의 돈으로 답례 했다. 그렇게 동네를 한바퀴 돈 후 마을 사람들의 식수인 샘으로 향했다. 맛깔나는 소리는 상쇄쩍이가 담당한다. 마을 사람들은 풍물소리에 맞추어 하나둘씩 집에서 나와 풍물대를 따랐다. 모두가 샘으로 가면 풍물을 크게 한번 울린 후 상쇠쩍이가 또 입담을 넣어주는데 우물에 대고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만 뚫어라”라고 외치고 나면 또 한번 신명나는 한바탕 풍물놀이가 이어진다. 가장 중요한 식수에 한해동안 마을 주민들이 아무 탈없이, 그리고 물 걱정을 덜어 한해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바램이었다.

또한 칠석날은 마을 사람들이 느티나무 앞에 하루종일 모여서 놀았던 날이다. 벼 농사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하고 풍년을 기원하며 풍물을 치고 술

과 음식을 넉넉히 마련하여 먹고 즐기며 하루를 보냈다. 20~30여년 전까지는 매년 행해지던 연례 행사였으나 지금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 그 해의 상황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정월 대보름에는 소정의 상품을 놓고 벌이는 척사대회를 열고 있으며, 칠석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한 여름 더위 잘 이겨내라고 보양 음식인 삼계탕을 끓여 먹는다.

■ 엄격했던 규율, 마을 최고의 회의 대동계

송정리는 매년 12월 30일 마을 사람들이 모여 1년 동안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 보고와 이장 선출 등 마을 발전 회의가 진행된다.

송정1리 사람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동계이므로 이사 오는 사람은 신입례 형식으로 쌀을 냈는데 예전에는 쌀 3되였지만 현재는 쌀 6말 가격을 돈으로 받는다. 예나 지금이나 권위적이며, 엄격한 규범 집단으로 마을 대표 한다. 대동계는 그 규율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잘 못하거나 풍기가 문란한 사람을 잡아다가 혼을 냈는데 그러한 소문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 촌장의 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동네 한가운데로 잡아다 놓고 공개 망신을 주어 몇 날 며칠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큰 죄를 졌을 때에는 명석말이도 행해졌다고 하며, 회초리로 종아리 맞는 일도 다반사였을 정도로 엄격했다.

배고팠던 시절,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오다가 참외밭에서 참외를 서리 하다가 들켜 종아리를 맞은 기억도 있다. 현재는 이러한 규율이나 규칙은 없어졌지만 1년에 한번씩 모여 마을 사람들의 화목을 도모하며, 마을의 질서를 바로 잡고 있다. 회의가 끝나면 대동계에서 부담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5. 생활환경

■ 콩 한쪽도 나눠먹던 시절, 그때가 좋았지

마을에 무슨일이 생기면 니일 내일 상관하지 않고, 모두 모여 돕던 그 때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서로가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만날 기회도 예전 같지 않고, 각자 개인 사업, 다른 특수작물 등으로 마을 보다는 자신의 일이 우선일 때가 많다. 또한 마을에는 대부분이 노인들로 청년들이 없어 공동 일을 주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참여도 예전만 못하다. 1970~1980년도 당시 마을을 이끌던 사람들은 이미 돌아가시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 마을일에 참여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을의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40~50대로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다.

예전에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일만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했고, 다함께 모를 심고, 수시로 사람들이 모여 밤 새워가면서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따라서 마을 내에서의 조직만 기본적으로 대여섯개는 됐었고, 개별 사조직도 3~4개 이상은 되어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논, 밭에서 일을 하고 새참을 먹을 때 사람이 지나가면 와서 같이 먹고 가라고 부르면 겸사겸사 함께 나누며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아직 도시에 비하면 시골인심이 어디갔겠냐 만은 그때 당시는 세 끼 식사를 제대로 채우지 못해 배를 곯던 시절이었지만 있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던 그때 그 시절이 사람들은 그립다.

■ 지긋지긋한 물 걱정

산으로 둘러 싸여 있는 마을인 송정1리는 물 걱정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지금은 마을 앞으로 송곡천이 흐르고 있으며 각 집 마다 지하수를 설치, 상수도를 통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천수답에

만 의존 할 수 밖에 없었다. 농사를 지으려면 산골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간신히 눈에 물을 댔는데 그 마저도 일부 사람들은 논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로 자기 눈에 물을 끌어오려고 안간힘을 썼다. 때문에 물싸움이 일어나는 일도 다반사였다. 물 부족으로 모내기철이 훨씬 지난 7월 장마에 벼를 심기도 하였다. 먹는 것이 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늦게라도 벼를 심어 끼니걱정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논 한마지기엔 기껏 농사지어야 벼 한가마니도 나오지 않았다. 산에서 나물을 뜯어다 먹고, 시레기를 삶아서 죽을 씹먹고 살았다. 물걱정은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그 후 통일벼가 나와서 그나마 한가마니 나오던 테에서 4~5가마니 정도 나오니 살만 해 졌다.

■ 홍역이 제일 무서웠어

송정1리 마을에는 다락골이라고 전해지는 곳이 있다. 지시미골 옆에 위치하는 골짜기로 지금은 경지정리로 없어진 곳이지만 1960년대쯤엔 홍역으로 인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으레 그곳에 묻었다. 하루가 다르게 퍼지는 홍역으로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한두명씩은 죽어나갔고, 별다른 처방이나 약을 쓸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은 더했다. 특히나 면역력이 없었던 어린 아이들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으며, 죽는 것은 대부분 아이들이었고, 두려움은 더해갔다. 또한 식구 중에서 하나가 걸리면 집안 식구 모두가 걸려 그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송정1리 마을에서는 민간처방으로 홍역을 걸린 사람에게 하는 요법이 있었다. 우선 시레기 죽을 끓여 바가지에 담고 그 후 바가지에 홍역환자에게 먼저 침을 3번 뱉으라고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듬성듬성 3번 잘라 바가지에 넣는다. 그 다음 내용물을 함께 섞어 마을 앞 삼거리에 뿌린 후 내용물을 담았던 바가지를 삼거리에 얹어 놓고 그 위에 칼을 꽂아 놓아 귀신 잡귀가 마을로 들

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별다른 치료수단이 없던 시기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에서 했던 민간요법이다.

■ 힘들어도 목돈 만지기 쉬우니까

19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송정리 사람들은 담배 농사를 많이 지었다. 벼농사와 함께 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부수입으로 꽤 쓸쓸한 이득을 얻었다. 주요 소득원인 벼농사에 비해 수입이 좋아 힘들었던 시절 담배는 마을 사람들에게 효자나 다름이 없었다. 흔히 1년 농사라고 하는 담배 농사는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한시도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고된 일이었다. 특히 피양별이 내려찍는 한여름, 7~8월에 잎을 수확해 건조를 해야 했는데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날씨로 숨이 턱턱 막혔다.

송정1리 마을에서 처음 담배 농사를 지은 사람은 타지에서 살다가 마을로 이사 들어온 사람으로 한명식씨인데 적산을 일궈서 송정리에서 담배농사를 처음 시작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담배 모종을 사서 하나둘씩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고된 일로 포기하고 싶었지만 한번에 목돈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 돈으로 자식들 공부도 가르치고, 자식 손자들 용돈을 주기도 하였다. 담배농사는 봄부터 12월까지 1년 농사를 지어서 매수를 해야 했다. 특히 담배 잎이 노랗게 변하게 되면 담배 잎을 따서 건조 시켜야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담배 건조장을 만들었는데 송정리 마을에도 6~7개 정도의 흙벽돌집 건조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당시에는 별다른 재료가 없어 흙으로만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서 건조장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담배를 찌서 말리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1년동안 노력의 결과는 12월, 서리가 올 무렵에 나타나는데 수확한 담배를 하나로 모아 전매청으로 납품을 해 돈을 손에 짚 수 있다. 그러나 수입 담배

의 증가와 손이 많이 가는 담배 농사는 고령화와 마을 일손 부족으로 서서히 중단되었다.

■ 새벽종이 울렸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마을 사람들은 각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한사람씩 나와 공동작업에 참여 했다. 초가지붕을 다 뜯어서 바꾸고 마을 안길을 넓히는 일을 했다. 당시 군에서 지원해주는 시멘트를 받아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모두 발 벗고 나섰다.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지휘하는 동네 어르신들에 의해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 점심먹기 전까지 일을 하고, 점심먹은 후부터 해가지기 전까지 합심해 마을 일을 했다. 마을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었던 송정1리 마을은 주민 참여도가 높고 새마을사업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어 자립마을로 선정되어 다른 마을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고, 또한 원활한 진행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 당시 이장을 보던 박만기(朴萬起)씨는 그 공적을 인정받아 공적비가 세워졌다. 현재 함장모퉁이 부근에는 1983년에 자립마을로 선정된 기념비와 박만기 이장의 공적비, 그리고 4H 활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함장모퉁이 부근에 서 있는 새마을운동 기념비〉

■ 화합 잘 되는 마을

송정1리 사람들은 49가구 120~130여명이 살

고 있는 마을로 인근 지역에 비해 비교적 큰 마을에 속한다. 그러나 대부분 60이 넘는 노인들로 젊은이와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때문에 집에서 혼자 밥을 해 먹기도 힘들고, 끼니가 걱정인 노인들을 위해 마을에서는 당번을 정해 매일 마을회관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다. 한 달에 100만원씩 노인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나오는 돈과 마을 기금으로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부녀회 회원들

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는데 넉넉하지는 않지만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 보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먹는 것이 맛이 좋고, 매일 끼니 해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서 좋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굳이 날을 정하고 모이지 않아도 매일 보면서 침묵을 도모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두 알 수 있다고 한다.



〈술재 입구의 표지석〉



〈마을 입구의 표지석〉



〈마을회관〉



〈마을회관 옆에 있는 쉼터〉



〈도움주신 분들〉



〈함께 모인 주민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박 병 환	63	남	농업	010-4144-3576
조 태 식		남	사업	011-888-3087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168	85	83	50	44	5	97.19	31.74	30.41	34.71	3.64
특산물 : 복숭아, 배					축산물(두) : 한우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반	솔재	박 운 규	25	867-2478
2반	상소골	한 광 석	12	867-1150
3반	헌터골	이 정 규	12	867-0821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대 동 계	박 상 진	노 인 회	정 옥 균
개 발 위 원 회	박 상 진	부 녀 회	이 남 숙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	135	426m ²	95.7m ²	2005	이장
놀이터	135-1	1,161m ²		1982	이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김 재 경	75.7.1	83.1.27		8	김 성 중	96.1.23	98.1.22	
2	김 성 중	83.1.27	88.1.27		9	김 성 중	98.1.22	01.1.30	
3	김 성 중	88.1.28	89.5.31		10	박 병 균	01.1.30	05.1.31	
4	김 성 중	89.6.1	91.1.23		11	박 병 균	05.1.31	07.1.31	
5	박 병 환	91.1.24	93.1.24		12	박 병 균	07.1.31	09.1.2	
6	박 병 환	93.1.25	95.1.24		13	박 병 환	09.1.2		
7	박 병 환	95.1.25	96.1.22						

송정2리

송정2리 마을은 전통면과 서면의 경계에 위치하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펼쳐진 마을이다. 전통면의 면소재지인 노장리에서 남서쪽으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동쪽으로는 송정1리, 서쪽으로는 송성3리, 남쪽으로는 서면 고북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은 청남리가 위치한다.



1. 마을개관

송정2리 마을은 전동면과 서면의 경계에 위치하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펼쳐진 마을이다. 전동면의 면소재지인 노장리에서 남서쪽으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동쪽으로는 송정1리, 서쪽으로는 송성3리, 남쪽으로는 서면 고북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은 청남리가 위치한다.

본래 전의군 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곡리, 사정리, 신대리, 상송동, 대중송동을 병합하여 송동과 사정의 이름을 따서 송정리라 하여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송정리는 1990년대 초반에 1리와 2리로 나누어 졌는데 한 개의 행정리로는 다른 마을과 비교해 면적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었다.

현재 송정2리는 2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반은 구리골과 사장골이, 2반은 안터와 새터가 속한다. 2010년 현재 총 인구 68명의 작은 시골 마을로 대부분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북송이와 한우가 있다. 북쪽으로는 매봉재가, 남쪽으로는 오봉산에서 서쪽으로 뺀 줄기가 마을을 양쪽으로 감싸고 있으며 집너머들, 양지들, 능앞들 등의 지명이 대신하듯 넓은 들이 펼쳐진 마을로 구리골 저수지에서 발원한 물이 마을을 관통하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마을이다.

1989년대 초반에 농촌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

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소득원도호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마을의 앞 뒤가 모두 첩첩산중으로 막혀 있는 산골 마을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조치원에서 출발하는 버스의 종점에 해당하여 하루에 6회 정도 버스가 오가고 있어 교통의 불편함은 없다.

2. 지명유래

송정2리에 전래되는 지명유래는 1974년에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총람』과 마을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강좌골 : 안터와 구리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웃골이라고도 부름.
- 고엽나무골 : 무터골 동쪽에 위치함.
- 구리골 : 증고개 근처, 구리골 저수지 앞쪽 마을을 지칭하는데 동곡(銅谷)이라고도 하며, 예전에 구리가 많이 나왔다고 함.
- 능앞들 : 무터골과 고엽나무골 앞으로 위치한 들을 말함.
- 매봉재 : 청남리와의 경계지역으로 해발 234m 임. 송정2리 북쪽에 위치하며 청남리로 넘어 가는 길이었는데 작은 소로길이었으며, 마을에서 가장 큰 봉우리임.
- 무터골 : 능앞들 뒤쪽에 위치하는 골짜기로 집



〈강좌골에서 바라본 전경〉



〈불당골 주변〉



〈통미산 전경〉



〈안터 전경〉



〈사장골 마을 전경〉



〈늬앞들〉



〈양달골 전경〉



〈선반다리골 전경〉

1채가 있음.

- 불당골 : 옷샘 상부에 있는 골짜기임.
- 사답내 : 송정리 앞을 가로지르는 송곡천을 송정리 사람들이 부르는 말.
- 사장골 : 구리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고려 때 사기점이 있었던 곳. 사장동(沙場洞)·사정리(沙亭里)라고도 부름. 사장골 안쪽에 있는 마을을 안사장골이라 부르고 바깥 편에 있는 마을을 또

한 바깥사장골이라고도 함.

- 새터굴고개 : 상소골에서 새터 넘어가는 고개로 서면 고복저수지가 나옴.
- 선반다리골 : 무터골과 양달골 사이에 위치함.
- 소골골탕이 : 골탕이 보덕1리, 송곡1, 2리, 송정1, 2리를 통틀어 소골골탕이라고 함.
- 신대(新垆) : 상소골 남서쪽에 새로 된 마을이다. 마을이 새로이 생겼다 하여 새터, 신대(新



〈안터 들 전경〉



〈무터골 전경〉



〈고엽나무골 전경〉



〈구리골 전경〉

垆)라고 함.

- 안터 : 연수봉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을 안터라고 부른다. 새터 안쪽에 위치하는데 내기(內基)라고도 부름.
- 안터 들 : 안터 마을 앞에 자리한 논.
- 양달골 : 선반다리골 서쪽으로 해가 뜨면 질때까지 빛이 비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옷샘 : 옷골과 북단골 사이에 있는 샘을 말함. 물이 차고 작은 바위틈에서 물이 나왔는데 옷이든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낫는다 하여 옷 샘이라고 함.
- 중고개 : 저수지 옆의 고개로 송성3리와 송정2리의 경계임.
- 집너머 : 사장골의 서쪽으로 사장골 마을의 집너머에 있다고 하여 이름 지어짐.
- 큰고개 : 안터 고랑에 있는 고개로 청남리로 넘어가는 길임.

- 터골 : 사장동 넘어 송정1리와 경계 지역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음.
- 통미산 : 안터와 새터 전면에 위치한 산으로 모양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
- 툼병 : 쟁미들 안에 있던 것으로 두레박으로 물을 품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점점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양수기, 모터기로 물을 품었음. 그러나 저수지가 생기면서 없어졌음.

3. 역사와 변천

■ 옛 사람들의 흔적

송정리 마을은 매봉재에서 내려온 산이 마을이 감싸 안고 있어 옛 사람들이 살기 좋았을 환경으로 아직도 그 흔적들이 잘 남아 있다.



〈서광사지가 옮겨왔던 곳〉

고려시대에 도자기를 굽던 터가 발굴되었고, 사장골에는 옹기를 굽던 요지로 추정되는 곳이 있다. 또한 조치원 서창리에 있다가 고려대학교가 이진되면서 백제유민들의 망국의 한이 담겨 있는 계유명삼존천불비상(癸酉銘三尊千佛碑像)이 발견된 서광사지가 새뜸으로 옮겨와 많은 불자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유물들과 유적들이 발견되었고 특히 가까운 곳에 자리한 마을에서도 여러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 되고 있어 옛사람들의 흔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 안터 전설

송정리 2반 안터 마을에는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다. 아주 오랜 옛날 이곳에는 안씨라는 성을 가진 부잣집이 있었다.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매일 같이 손님이 찾아와 며느리는 부엌에서 손에 물이 마를 때가 없이 일을 했다. 하루는 지나가던 스님이 공양을 해 달라고 부잣집에 찾아왔다. 며느리는 이제까지의 고생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어 자신의 고충을 그 스님에게 말했다. 그러자 스님은 지팡이로 그곳을 가리키며, “지금 가리키는 곳의 산을 끊으면 손에 물이 닿지 않을것 이다.”라고 말하며 사라 졌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사람들을 시켜 산을 끊었는데 서서히 가세가 기울어 결국 집안은 망했고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전한다. 때문에 안씨성을 가진



〈안터의 산이 끊어진 모습〉

부잣집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해서 안터라고 부르고 있으며, 현재에도 산이 끊어져 앞쪽에 있는 산을 통미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 고려시대 옹기 굽던 터

송정리 증고개 요지는 구리골 마을의 북서쪽으로 송성3리로 넘어가는 곳에 ‘증고개’가 있는데, 증고개의 상단부 도로 오른쪽 절개된 사면에 위치한다.

요지가 있는 지역은 전동면 송정리 산 28의 일대를 관통하는 지방 산업도로 공사 중에 유구의 일부가 노출됨에 따라 공주대학교 박물관과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가 연합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한다. 조사는 1990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실시되었으며, 일부 마을 사람들은 궁금하여 직접 가서 보기도 하였으며, 한창



〈증고개 전경〉

마을의 화제거리였다.

주변지역은 가파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해발 약 150m 지점에 해당한다. 현재는 산업도로 공사로 인하여 2차선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남쪽의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송정리 마을으로 통하는 소로가 유일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된 요지의 주변으로는 산림지역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요업에 필요한 번목을 구하는 것과 관련한 입지조건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습된 유물은 인화분청사기가 주를 이룬다. 주로 사용된 문양은 단독국화문과 집단연권문 그리고 여의두문인데, 흑상감된편들도 일부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유물 가운데 내저 바닥에 ‘사선명(司膳銘)’이 흑상감된 편이 있는데, 이는 15세기 초반에 왕실의 음식을 담당하던 ‘사선서’에 공납하던 물건으로 그 제품의 질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조사 전에 이 지역에서 수습되었다고 전하는 명문접시가 있는데, 접시 뒷면 굽 주위에 ‘관원해원주사영영(官員海員珠司永永)’이라 음각되어 있는 것도 수집되었다. 요업관련 도구로 도침이 주로 산전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태토비집는 받침을 하여 포개구이 한 흔적이 남아있다.

■ 조선시대에 옹기 굽던 곳

송정리 사장골 마을 남쪽의 능선들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에는 조선시대 옹기를 구웠던 곳인 요지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옹기요지로 확인되는 곳의 주변은 밭으로 개간되거나 복숭아나무가 심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삭평되어 있는 상태이며, 유물이 집중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은 골짜기가 끝나는 곳에 위치한 밭으로 옹기편과 소토편이 산전되고 있다. 마을 전언에 의하면 밭으로 개간 당시 여러 파편들이 산재해 있었



〈사장골에 있는 복숭아 밭 전경〉

다고 하는데 그 주변이 요의 중심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지와 관련된 유물은 약 100여 평에 걸쳐서 산포되어 있는데, 요는 1기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사장골 박씨들

송정1리는 현재 정선박씨 수종공파가 13대째 거주 하고 있으며, 인근에서는 일명 ‘사장골 박사’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살고 있다. 본래 집안은 진천 내수에 많이 살았다고 전해 지나 400여년전쯤 보덕리로 이거 하면서 연기에 처음 자리잡기 시작했다. 처음 연기에 입향한 인물은 민헌(敏獻)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연기에 입향 하였는지 자세한 연유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후 5대손 제봉(濟鳳)대에 인근 마을인 송정리로 처음 이거 하여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다. 송정리로의 이거 역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온한 마을로 넓은 영토가 있어 농사짓기에 알맞은 환경 때문에 이거한 것이 아닌가 후손들은 추측한다.

그 후 후손들이 점점 분파하며 송정리 일대에 터전을 마련하였다.

현재 보덕리에 처음 입향했던 묘소와 보덕리에 묻혀 있던 4대의 묘소를 송정2리 사장골로 이장해 납골당을 마련해 모시고 있으며, 매년 10월 초 열나흘날에 시제를 지내고 있다. 현재 입향조의 묘소



〈정선박씨 입향조 묘소〉

는 고엽나무골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후손들의 묘소가 각지에 흩어져 있어 2011년에는 묘소들을 한 곳으로 모아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송정2리에 사는 박씨들은 분파된 큰집에 해당한다.

■ 피난 간 사람보다 피난 온 사람이 더 많던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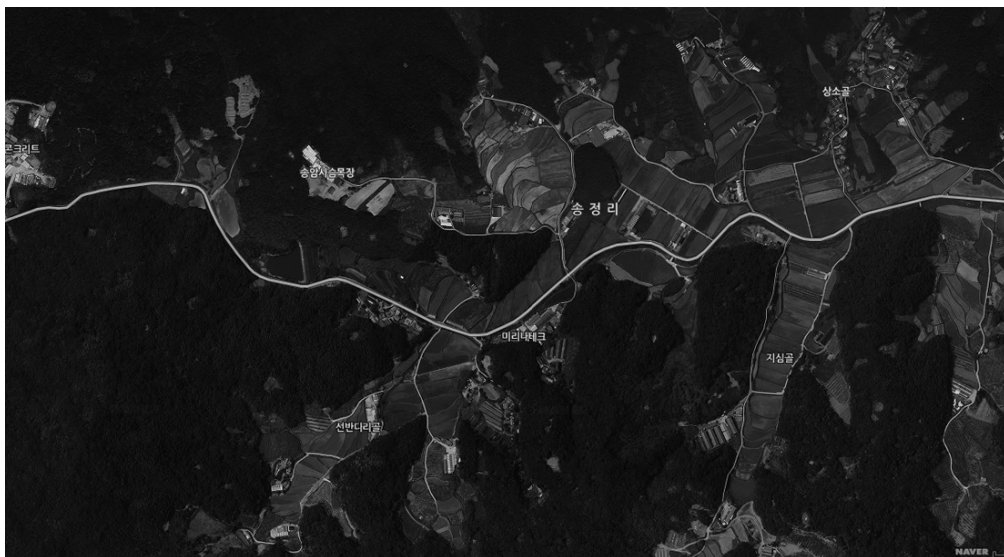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다른 마을은 피난가기 바빴지만 송정2리 마을은 달랐다. 특별히 피난을 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서 이곳 송정리 골짜기로 피난을 왔다. 그때 당시 피

난민이 마을에 들어 왔을 때에 마을이 가장 번성했을 때라고 말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피난고지라고 하는데 그도 그럴것이 마을의 지형을 보면 지금이야 도로가 생겨서 송성리로 넘어 갈 수 있었지만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마을 주민들만 알고 있는 고갯길만 있을뿐 마을을 드나들 수 있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인 줄도 몰랐다.

밖에서는 폭격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어서 나갔다고 하지만 송정리 마을은 다른 나라 얘기인 것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특히 마을은 정선박씨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생각으로 몰들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 금광이 있었던 곳

송정2리 구리골 증고개에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한국전쟁 전후했던 시기까지 금광이 있었다. 주변에서 금이 최고 좋다고 소문이 날 정도 였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도 일부 참여 하여 수입을 내기도 했다. 어떠한 종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산으로 둘러져 있는 송정리 위성사진〉



〈매봉재 전경〉

없다고 하며, 점점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금광은 폐광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마을의 가장 큰 봉우리인 매봉재에서도 금을 캐다고 전하며 특히 황이 많이 났던 곳으로 당시에는 마을에는 코 끝을 자극 하는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지기도 했다. 수집된 금과 황은 모두 모아서 일본인들이 공출을 해 갔으며 현재에도 그 당시 파 놓았던 굴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 일제강점기의 가마니 짜기

마을 사람들은 일제강점기가 제일 힘든 시기였다고 말한다. 한해동안 농사를 지은 것은 모두 공출 당해 먹고 살기 힘들고, 배급도 썩은 콩깨묵을 주었는데 그것도 부족해 간신히 죽 썰먹고, 입에 풀칠만 할 정도였다.

가을철 추수가 끝나면 농사지은 짚으로 가마니를 짜서 생계를 유지했다. 마을 사람들은 흔히 ‘가마니 치기’라고 하는데 혼자서는 세상없어도 못한다는 가마니치기는 2명씩 짝을 지어 한쪽은 새끼줄을 꼬아서 바늘대질 하고, 한쪽은 바디질을 하는 작업이었다. 많이 만들수록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을·겨울철이면 아침저녁 상관없이 눈코 뜰새없이 바빴다.

호롱불 기름조차도 배급을 타서 불을 밝힐 시절, 그마저도 떨어지면 집에 있는 들기름으로 심지를 말아서 간신히 불을 비추어 밤새 가마니를 짰

는데 들기름은 그을음이 심해 아침에는 콧잔등 주변이 새카맣게 되기도 했다. 그렇게 짠 가마니는 돈으로 바꾸어 식량을 사고, 세금도 냈으며, 가난했던 시절 정말 죽지 않으려고 억지로 했던 것이라고 회상한다. 1등급은 최상위 제품, 2등급, 3등급 순으로 나뉘었는데 3등급은 제일 하질로 등급에 포함되지도 못 해 기껏 만들어도 헛수고였다. 만든 가마니는 현재 조치원보건소가 있는 자리로 가져가 돈으로 바꿨는데 그곳에는 큰 농업 창고가 있어서 모든 농산물, 농산품이 모두 모였다.

4. 전통민속

■ 물이 귀했던 마을, 기우제

가뭄이 심해 농사짓기가 힘들면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총회를 열어 기우제를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매봉재에 올라 제를 지내는데 삼색식과, 돼지머리 등의 제물을 차리는데 때에 따라 달라졌다. 그러나 다른 제물이 기본이지만 이것 하나 만큼은 꼭 준비하는 것이 있었다. 소주 대도병에 물을 한가득 담아서, 솔가지로 입구를 막아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물이 푹푹 떨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 나무에 매달아 놓고 제를 지냈다. 상이 차려지면 마을 사람들은 다 같이 “비 좀 내려 주세요”라고 외치며 한꺼번에 절을 올렸다. 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각각 집 대문에 대도병에 물을 담고 솔가지로 입구를 막아 걸고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매달아 놓았다. 이는 새마을 사업으로 물 부족이 해결된 이후 중단되었다.

■ 마을사람들이 다 모이는 날 대동계

매년 12월 20일은 송정2리 대동계가 열리는 날이다. 동계의 계장과 총무로 구성된 대동계는

1990년대 송정1리와 2리로 분구된 후 바로 시작되었다. 분구전에 함께 대동계를 할 때에는 규모도 크고 잔치하는 날 같았다. 지금은 예전만 못한 채 명맥을 잇고 있다. 그때에 비해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한해를 정리 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은 변함없다. 회의가 끝나면 다같이 부녀회에서 마련한 점심을 먹는다. 회의의 내용은 보통 다른 마을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장 선출과 한해 살림살이 결산보고를 한다. 송정2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각 가정에 한명씩은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동계는 분구전에는 신입례 형식으로 쌀을 받았지만 분구 후 부터는 3만원을 기본으로 그 이상을 내도록 했으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현재는 최소 10만원이 기준이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낸다.

5. 생활환경

■ 온동네 유명 했던 옷샘

구리골 저수지와 큰 고개길 사이에는 작은 샘이 있다. 이곳은 ‘옷샘’이라고 불리는데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로 맑고 시원하며 물이 끓기지가 않아 주변 마을에서 물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특히 이곳 옷샘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옛날 옷이 옹아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곳 샘에서 씻고 나면 깨끗하게 몸이 나았다고 하여 더욱 유명하였다. 이러한 일은 조치원 전체까지 소문이 파다해져 매일매일 찾아오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다.

현재는 주변에 있는 가정에서 옷샘에 호스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물이 깨끗하고 시원해 식수로 쓰고 있다. 또한 이 물이 골짜기를 타고 흘러 강좌골 골짜기에 있는 논이 농업용수로 사용된다.



〈2010년 5월 베어트리파크 답사〉



〈옷샘의 맑은 물〉



〈마을 표지석〉



〈옷샘 전경〉

■ 호미로 땅 파서 벼 심던 그 때 그 시절

1990년도 구리골 저수지가 생기기전에 송정2리 사람들은 가뭄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늘만 바라보고 비가 오길 바랬던 시절이었다. 오직 천수답에만 의지해 한해 농사를 결정지었다. 특히 송정2리는 산의 중턱에 위치해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다른 저수지나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오기 힘들었고, 당시에는 지하수가 시설이 전혀 없었어서 사정은 더욱 심했다.

농사지를 물이 모자라 벼가 한참 자랄 즈음인 7월 칠석에 벼 심는 일도 다반사였으며, 그마저도 포기하고 논을 묵히는 일도 많았다. 먹을 것이 오직 쌀 밖에 없던 시절, 논을 묵혀 한해 농사를 망쳐 버린 그 해에는 일년 내내 배를 곯아야 했다.

논에 비가 오지 않아서 호미로 땅을 파서 벼를 심고 조루로 물을 길어다 논을 다지기도 했었다. 간신히 모자란 물로 모를 심은 후에도 가뭄에 의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말라 죽는 경우도 있었고, 결국 가을의 많은 수확량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 천수답에서 옥답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짓던 송정2리 마을 사람들은 구리골 저수지가 생기면서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말 그대로 논이 천수답에서 문전옥답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송정2리 사람들만 사용하는



(구리골 저수지)

농업용수로 사시사철 쓸만한 충분한 양의 물이 항상 있어 언제든지 필요 할 때 물을 사용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수확량도 그 이전의 몇배가 늘었다고 한다.

항상 물이 끊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사용 할 수 있고, 지대가 높은 고개에 위치한 저수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농사짓기도 훨씬 수월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욕심내지 않고 정확하게 필요한 양 만큼만 사용하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물이 사용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도 물을 많이 아끼는 편이다.

■ 부지런한 사람은 하루에 두번이나 지게나 저다 날렸어

소골 골맹이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송정2리는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1960~1970년대 나무장사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나무는 조치원장에 내다 팔았는데 거리상 가까워 부지런한 사람은 하루 2번이나 나무를 해 시장으로 향했다. 당시의 나무장사는 주요 생계 수단이었다. 조치원 시장의 나무전은 장날에 상관없이 매일 열렸기 때문에 부지런한 만큼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주요 연료가 나무였으므로 땀나무, 푸정이, 솔방울까지 모두 손에 잡히는 대로 건어 포대에 넣어 지게에 지고 장을 오갔다. 송정2리에서 조치원장에 가려면 현재 농업도로가 나 있는 길을 따라 송곡1리에서 뒥이고개를 넘어 갔다.

■ 복숭아 작목반

송정2리의 특수작물은 1970년대 담배농사, 1980년대 수박농사, 그리고 1990년대부터 2010년 현재까지 복숭아 농사로 이어지고 있다. 송정2리의 복숭아 농사는 마을 사람 중 한사람이 먼저 시작하였고, 서서히 두명, 세명씩 참여하게 되었고 많은 주민이 참여 하여 현재는 마을 주민의 80%가



〈복숭아 발〉

복숭아 농사를 짓는 마을이 되었다. 송정1리와 2리 마을 사람들 중 복숭아 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 복숭아 작목반을 구성하게 되었다. 복숭아 작목반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복숭아 농사를 지었고, 필요에 따라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2000년대 초반에 자연스럽게 조직되었다고 한다.

■ 아이구 징그러워, 담배농사

2월부터 씨를 뿌리면서 시작되는 담배농사는 일년내내 숨 거를 시간도 없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절정을 이루었다. 마을사람들 대부분은 벼농사와 겸해 담배 농사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주업인 벼농사보다도 많은 수입이 되었다. 그때 시세로 담보당 80~1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돈으로 대학등록금이 20만원 정도 였기 때문에 자녀들 학교 보내기에도 충분했다. 수매금을 받으면 그동안의 힘든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각자의 땅에 담배를 심어서 수확 해 걸리는 시간은 꼬박 1년이다.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고된 일이었다. 특히 담배 수확은 7~8월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한 여름 제일 더울 때에 담배 잎을 따다가 건조시켜야 했기 때문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담배농사를 짓는 사람들 개인별로 흙벽돌로 지은 집을 마련하였는데 담배 잎을 따다가 건조장에서 석탄을 떼서 일주일 가량 담배를 말렸다. 그렇



〈복숭아 출하작업 중〉

게 말린 담배는 한쪽으로 쟁여 놓고, 담배잎은 밑에서부터 수확을 해서 따 올라 가는데 제일 밑에 있는 담배 잎부터 따서 말리고 그리고 그 위에 잎을 따고, 마지막 잎을 딸 때까지 건조장에서 불 지피는 일은 계속 된다. 수매는 조치원에 있던 엽연초 조합에서 했다.

그 이후 다른 고소득 작물이 많이 나왔다. 송정2리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수박농사를 지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된 농사일이었던 담배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수박농사보다 담배농사가 더욱 힘들었다고 한다.

■ 마을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송정2리의 초등학생들은 조치원에 있는 대동초등학교를 다녔다. 30리를 꼭 채운 거리로 새벽밥을 해 먹고 일본식 나무신발인 '게타'를 신고 땥고개를 넘어 소로 길로 등교를 했다. 조금만 가도 발바닥이 저리고, 끈으로 묶어 만든 신발이기 때문에 쉽게 끊어져 맨발로 걸어 다니기도 했다. 광복 후에는 전동초등학교를 다녔다. 대동초등학교에 비해서는 가까웠지만 학교를 가거나 마을 사람들이 면사무소에 볼 일이 있으면 물[川]을 건너야 했다. 평소에는 징검다리를 놓고 건너 다녔지만 장마철이나 홍수가 나면 떠내려 갔기 때문에 옷을 벗고 물을 건널수 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건너다닌 모시울 내는 물살이 세지 않



〈구리골을 지나는 버스〉



〈구리골에 마련된 놀이터와 정자〉

고 바닥이 비교적 평평해서 쉽게 건널 수 있었다. 학생들이 등교 할 때에는 5~6학년 학생들이 1~2 학년을 업어서 등교시키기도 했고, 동네 장정들은 노인들을 업어 일을 보게 했다. 그 후 송곡리에 송 덕분교가 생겨 학교 가는 일이 편해졌지만 1980년 대 후반에는 마을 인구가 줄어들어 다시 전동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1950~1960년대의 이동수단은 작은 봉고차 모양인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비포장도로에 3개리, 보덕리·송정리·송곡리 사람들이 모두 이용하여 콩나물 시루처럼 뻥뻥하게 끼어 타고 다녔다. 새마을운동 후에 길을 넓히고 포장을 해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 했다. 그 당시에는 송정2리 2리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1리가 버스 종점이었으며, 2리 사람들은 1리에서 내려 걸어 들어와야 했다. 그 후 1980년대 농업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2리까지 버스가 들어오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는 조치원에서 오는 버스의 종점에 해당 된다.

■ **숙원사업**

송정2리의 사장굴에는 마을회관이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지어진 회관은 2층 건물이지만 회관 내에는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회관이 자리한 곳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건물



〈마을회관〉

을 넓히거나 바꿀 수도 없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다른 마을처럼 큰 느티나무가 있어서 쉼터가 되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는 마을회관 자체도 더워서 햇빛을 피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다. 특히 마을 회관 내에는 주방이 따로 없어 더욱 그러하다. 마을 총회나 행사가 있을 때 보통 마을회관 내에 있는 주방에서 준비를 하기 마련인데 주방이 따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여름땀벌에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겨울철에도 노인들이 많아 마을회관에서 같이 모여 식사를 하려고 해도 밖에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마을에서는 사시사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희망하고 있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한 석 수	52	남	농업	011-491-3029
박 병 익	52	남	농업	
박 일 남	80	남	농업	010-4321-1057
박 병 기	73	남	농업	011-7254-1833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113	60	53	34	27	7	88.26	29.75	26.45	31.74	0.33
특산물 : 복숭아, 고추					축산물(두) : 한우(350)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반	구리골, 사장골	박 영 재	17	867-1157
2반	안터, 새터	윤 종 석	14	867-1149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복숭아작목반	박 병 대	부 녀 회	김 미 숙
노 인 회	고 필 준	청 년 회	양 용 복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	240	67.5m ²	67.5m ²	1994	이장
놀이터	421	375m ²		1995	이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박 병 대	89.6.1	91.5.31		5	박 병 대	05.6.1	07.6.1	
2	박 병 대	91.6.1	93.6.1		6	박 병 대	07.6.1	10.1.13	
3	박 병 대	93.6.2	95.6.1		7	한 석 수	10.1.13		
4	박 병 대	95.6.2	05.6.1						

심중1리

심중리(深中里)는 전통면의 동쪽 끝으로,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과의 경계 지역이며 1리와 2리의 사이에는 동림산에서 뻗어내린 긴 산줄기가 남주하고 있어 두 마을 간의 접근성은 좋지 않다. 심중리는 소죽골(1반), 붉은덕(2반), 아랫지프네(3반, '아래깊은내'라고도 함) 등 3개의 큰 자연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1. 마을개관

심중리(深中里)는 전동면의 동쪽 끝으로,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과의 경계 지역이며 1리, 2리 2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1리와 2리의 사이에는 동림산에서 뻗어내린 긴 산줄기가 남주하고 있어 두 마을 간의 접근성은 좋지 않다. 심중리는 소죽골(1반), 붉은덕(2반), 아랫지프네(3반, '아래 깊은내'라고도 함) 등 3개의 큰 자연마을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랫지프네와의 사이에 군도1호와 철도가 지나 마을이 동떨어진 듯 느껴진다. 1,2반에서 3반 동네로 가려면 철도를 건너 공장지대를 지나 군도1호의 굴다리를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심중리의 행정연혁은 도계(道界)를 넘나들었다. 전통시대에 청주에 속해 있었고 한말에 청주군 서강외일하면 심천리(深川里) 지역으로 편제되었다. 마을은 다시 분화되어 1913년 의 면리 관련 기록에 등장하는 상심동(上深洞), 하심동(下深洞), 심남리(深南里), 심서리(深西里), 갈거리(葛巨里), 조광동(早光洞), 태고동(太古洞) 등 7개리 동리가 현재의 심중리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상심동과 하심동의 각 일부를 상봉리(上鳳里)로 넘겨주고 미원동(彌院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심중리라 하여 강외면에 편입하였다. 이때에 오늘날의 심중리 영역이 확정되었다. 그 후 1995년 3월 1일에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으로 편입되었다.

2. 지명유래

- 강청골 : 2반에 있는 골짜기로 이 마을에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현재 강씨는 살고 있지 않음.
- 구레논 : 1반 마을 입구의 논으로, 밀의 논을 하구레라고 함.
- 깊은내 : 깊은 냇가가 있어 깊은내라고 함. 한자

표기로 심천이라 함. 냇가는 상심천, 하심천으로 부르며 깊은내가 상심천, 아래깊은내가 하심천이 됨.

- 너털봉 : 깊은내에서 앞에 있는 산을 너털봉이라고 함. 너털봉 아래로 흐르는 내가 넓은 바다와 같은데 지관이 보기에는 이 봉이 넓은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형국이라 하여 너른 바다 가운데의 봉이라 하여 너털봉이라고 부른다고 함. 너털봉의 제일 꼭대기는 학봉이라고 함. 이와 같은 지명유래는 2007년에 편찬된 지명유래 자료집에 소개된 것인데 2010년의 현지 조사에서는 주민들 중에 아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음.
- 대구배미 : 대구 모양의 길쭉한 논 이름.
- 대추나무골 : 밤나무골 옆으로, 대추나무가 많아서 그리 부름. 밭을 따라 대추나무가 줄지어 있었지만 지금은 남은게 없음.
- 몽애배미 : 소의 멍에를 닮은 논 이름.
- 밤나무골 : 1반 들어가는 길 좌측에 있는 산으로 밤나무가 많아서 그리 부름.
- 뱀새울 : 3반 옆산으로 너털봉 옆의 좌측에 있는 골로 이곳에서 곱돌이 많이 나와서 이곳 돌을 부셔 벼루를 만들어 썼다고 함. 주민들은 곱돌이 많았던 것은 알고 있지만 '뱀새울'이란 지명은 기억하지 못함.
- 북목골 : 1반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애장터가 있었는데 비가 오면 아이 우는 소리가 나서 무서운 골짜기라 사람 왕래가 드물다고 함. 심중 2리와 경계로 예로부터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임.
- 북절골 : 너털봉 옆 우측으로 나 있는 골로, 이 골 밭 가운데에서 물이 나는데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 부자가 되는데 이곳에 도깨비가 많고 운이 맞지 않아 사람들이 살지 못한다고 함. 그 이유는 북절골에서 보면 너털봉이 염해놓은 송장 같다 하여 기가 센 땅이라, 이곳에 절을 지어 나쁜 기운을 눌러야 하므로 북쪽의 절골이라 하여 북절골이라 했음.

- 붉은덕 : 땅이 황토 흙이라 하여 붉은덕 이라고 함. 지금은 숲이 우거져 있지만 예전에는 나무가 없을때에 산이 빨갱게 보일 정도였다고 함.
- 비석산 : 깊은내로 들어오는 길 옆의 산임. 이곳에 비석이 많다고 하여 비석산이라 함. 이곳에 있던 청주한씨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3구의 미라가 나왔는데, 당시 묘곽을 열었을때에 습기가 많았다고 하며 소나무관의 굽기가 한 뼘 정도 되었다고 함. 이 산이 동림산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철도를 놓으면서 끊어짐.
- 서당골 : 1반 마을뒤 우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서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흔적은 없음.
- 소죽골 : 1반 동네로 북서쪽 골짜기 안쪽에 해당 함. 붉은덕부터 소죽골 마을까지의 길쪽한 농경지도 '소죽골'이다. 예전에는 '서지동', '서지골'이라 불렀는데 점차 변하여 '소죽골'이 되었다 함.
- 술고개 : 술배 돌아가는 골목길의 고개.
- 술배(술비재) : 현재 마을 과수원이 있는 곳으로 이곳에는 부자만 살았는데 부자가 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도둑이 하도 많아 부자가 떠났다고 함. 이곳의 밭에서 깨진 기와장이 많이 나오고 샘이 있음.

- 아래깊은내 : '아랫지프내'라고도 하며, 3반 마을을 일컫음.

■ 깊은내 심천(深川)

마을 경관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것은 아랫지프내를 끼고 도는 조천천의 물길이다. 마치 안동 하회마을처럼 말발굽 모양으로 큰 곡선을 이루며 마을을 깊게 안고 휘돌아 흐른다.

조천천이 이곳에 와서는 '심천'이라 불리웠고 우리말로는 '깊은내'가 된다. 이 물길의 동서방향을 나누어 상심천 하심천이라 하였는데 상심천을 깊은내, 하심천을 아랫깊은내라 불렀다. 깊은내는 예로부터 연기군 보덕리 땅이었고, 아랫깊은내는 청주 땅이었는데 1995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깊은내의 앞에 있는 산을 너털봉이라 하였다는 지명유래에 의하면 이 봉우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즉 '행주형(行舟形)'의 명당 형국이라 너른 바다 위의 봉우리란 뜻으로 너털봉이라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명당전설은 마찬가지로의 전설이 있는 안동 하회마을과도 비교가 된다. 보통 물길이 휘돌아치는 땅의 주변에는 퇴적지형이 형성되어



〈심천〉

유기물이 풍부한 농경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깊은 내 일대는 워낙 규모가 작아 농경지가 넓지 않다. 하지만 이 물길이 흘러 다시 한번 몸을 꺾는 보덕1리의 앞들은 전동면에서 가장 넓은 들판이다.

3. 역사와 변천

■ 소죽골 정서방네

소죽골은 심중1리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초천천 물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물이 흐치 않아 농사짓기 어려운 곳이지만 전통시대에는 홍수 피해가 없고 마을의 양쪽으로 산줄기가 둘러싸고 있어 자연재해를 덜 받는 지형이어서 동네가 형성되기에 적당한 환경이었다. ‘술배’라는 골짜기에 예전에 부자가 살았다는 전설이 전하고 그 자리에서 기와편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지금은 민가가 없는 산골짜기이지만 과거에는 다른 환경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소죽골이란 지명은 ‘서지동(西之洞)’이란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이에대한 사료상의 기록은 없다. 한편으로는 명당전설과 연관시켜 지명유래를 찾기도 한다. 가까운 보덕리 텃소들은 와우형의 명당으로 전해지는데 깊은내의 뒷동산으로 산의 형태가 누워있는 소와 같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텃소’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와우형 명당에



〈소죽골의 전방〉

항상 따라 붙는 ‘소 먹이 자리’를 ‘소죽골’이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다.

소죽골에는 보성오씨가 많이 살지만, 예전에는 정서방네 동네라 불리웠다고 한다. 현재 정씨와 관련된 흔적은 전혀 없고 후손도 없으며 단지 전설로만 전해질 뿐이다.

■ 보성오씨

심중1리는 각성 반이 동네이지만 그중 보성오씨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소죽골은 한때 집성촌이라 할 만큼 보성오씨가 다수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 주민의 반도 안되는 형편이다. 1700년대 후반에 입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8대째 거주하고 있다. 입향조의 묘는 송곡리에 있었는데 수년전에 소죽골로 이장하였다. 종가는 대대로 소죽골에 있었다. 그 후손들은 심중리의 바로 옆 마을인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 모시울에 많이 살고 있다.

■ 비석산의 청주한씨 묘

비석산은 깊은내(지프네)에 있는 작은 동산이다. 이 산은 예로부터 비석이 많아 비석산이라 하였다 하는데 비석이란 것이 묘비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청주한씨가 선산이기도 하다. 2003년 3월에 이 곳의 묘를 이장하게 되었는데 조선 선조때



〈소죽골 안골〉



〈아랫지프네〉

영릉 참봉을 지낸 한진민의 묘를 개봉한 순간 3구의 미이리가 발견되었다. 묘의 내부는 물기가 가득했고 매우 두꺼운 향나무관의 뚜껑을 열자 방금 매장한 듯 신체의 모습이 생생한 미이리가 있었던 것이다. 한군데는 남녀 합장된 형태였고, 그 하단부의 묘에는 여인의 미이라 한구가 있었다. 당시 발굴에 참여한 단국대 박성실 교수(전통의상학과)는 “부부 합장의 형태로 완벽하게 보존된 것은 매우 드물다”며 “합장묘 연구의 좋은 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하기도 하였다. 시신을 감싸고 있던 의류는 조선초기의 의상 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으며 단국대에 보존되어 있다.

■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심중리 서당골 위에는 금점이 운영되었는데 일본인 광산업자들이 금맥을 따라 땅을 파고 금을 캐내는 시설이었다. 암석에 박혀있는 금을 찾아 뿔아 물에 일어 금가루를 모으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일제 말기에 한국인들이 이 사업을 이어받았지만 큰 성과 없이 폐점되었고 지금도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다.

일본인들은 더 많은 광물과 농산물을 착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었다. 그중에서도 황당한 일은 조천천의 물길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조천천이 심중리 갈거리를 지나면서 방향을 틀어 말밭급 모양

으로 아랫깊으내를 휘감아 도는데, 이 물길을 일직선으로 통과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물이 흐르던 자리를 농경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공사 비용에 비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적다는 이유로 이 계획은 취소되었다.

■ 공출과 징집

일제강점기에 심중리 사람들 역시 일제의 극악한 공출에 시달렸다. 곡식을 추수하기 무섭게 빼앗기고, 사람들은 보급대로 징용되거나 징병되어 억지로 끌려갔다. 주민들 중에는 당시 징용되었다가 소식이 끊긴 사람도 있다. 동네 앞으로 신작로를 놓고 철도 공사가 진행될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흠을 파서 지계에 지고 공사장에서 노동하였는데 주민들 보다는 외지에서 온 일꾼이 많았다.

동네 아이들은 가까운 전동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강외면이었던 시절이므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20리 거리에 있는 오송리로 입학해야했다. 전동초등학교 8회졸업생인 오송교씨는 일본인 선생에게 일본어로 교육을 받았다. 7회 졸업생들만 해도 1학년때에는 한글을 배웠지만, 오송교씨는 입학하자마자 일본어를 국어처럼 배워야했다. 교사 중에 많았던 일본인들은 스승이 아닌 ‘독하고 무자비한 사람들’로 기억된다.

주민 중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다. 천안 아우내에서 벌어진 3·1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고향을 떠나 청주에 살았던 사람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는 소문은 있었다. 그러나 행적이 불명확하여 광복 후에는 완전히 잊혀졌다가 그의 며느리가 우연히 얻게 된 현책에서 시아버지의 기록을 보게 되어 심중리로 찾아와 옛 일을 물었던 적이 있었다.

■ 폭격에 무너진 가옥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벌어졌다. 심중리 사람들도 전쟁 소식을 듣고 짐을 꾸려 피난길을 떠났다. 그러나 그다지 멀리 가지는 못하였는데 이동중에 북한군을 만나 급히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 대부분은 심중2리의 산골짜기로 몸을 숨겼다고 한다. 한참 후에 동네로 돌아와보니 폭격을 맞은 집들은 구석구석이 망가져 있었고 기르던 가축은 모두 사라졌다. 산속에는 북한군 패잔병들이 숨어있기도 하였는데 해를 끼치지 않았다.

주민 오승교씨는 1951년에 군에 입대하여 제주도에 가서 훈련을 받았다. 청주 석교천으로 모이러는 영장을 받고 8시까지 도착하기 위해 새벽 길을 나섰던 기억이 생생하다. 2년간 전장에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였고 무사히 제대하였다. 오승교씨의 증조부는 집안의 사랑방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전쟁중에 증조부가 아끼던 고전적



〈주민 오승교씨〉



〈각종 표창패와 감사패〉

이 모두 불타거나 없어졌다고 한다. 그 무렵 의용군에 갔던 사람들도 전쟁이 끝나자 모두 돌아왔다. 인근 마을은 좌우익 갈등으로 주민끼리 상처를 주기도 하였지만 심중1리는 대체로 큰 일 없이 조용히 보냈다.

■ 물 끌어오기

오랜 세월 심중리 사람들의 염원이 있었다면 물 걱정 없이 농사짓고 사는 것이었다. 식수도 부족한 판에 농업용수가 풍부할리 없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이 진행될때에도 이에 대한 기대가 컸다. 집집마다 우물을 파 식수 문제를 해결하였고, 수로 공사를 벌였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이때 하수도 시설을 마련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 조천천 물을 끌어오게 되었다. 지하에 관을 묻고 조천천의 물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 시설 덕분에 심중리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는 많이 해결되었다. 관정을 판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했는데 너무 낡아서 최근 보수를 하기도 하였다.

■ 청원군에서 연기군으로

근현대시기 심중리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들자면 청원군 강외면에서 연기군 전동면으로 행정편제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군·면 단위의 이동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충청남도로 변화되는 것이어서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백년간의 역사

적 전통을 순식간에 바꾸어버린 사건이었다. 행정 구역 조정이 된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래전부터 심중리 사람들의 생활권은 조치원이었다. 또한 강외면의 중심지인 오송리는 심중리에서 7km거리에 있어 오송리까지 가려면 조치원읍내를 지나 청주방향으로 한참을 가야했으므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강외면 상봉리에 상봉초등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가까운 전동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변경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이해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1993년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고 주민간에 찬반투표를 벌이자 연기군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아 결국 연기군 전동면으로 편입되었다.

1994년 12월 1일 ‘시도간 관할 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이 의결됨에 따라 시도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졌고 이듬해 3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심중리가 전동면이 됨과 동시에 연기군 동면 갈산리 일원은 충북 부용면으로 편입되었다.

4. 전통민속

■ 부락총회

마을 운영의 중심조직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매년 연말에 부락총회를 열어 이장이 결산보고를 하고 동네 일을 의논하는 것이 일종의 대동계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3개 마을 주민이 모두 모인다. 동네 공공 재산은 이장이 관리한다. 부동산은 없고 주민들이 가끔 걷는 회비 약간과 1990년대에 동네에 입주한 공장단지의 공장주가 내는 찬조금이 동네 재산의 전부이다. 과거에는 ‘이장조’라 하여 이장에게 일년에 두 번씩 곡식을 걷어 주었는데 각 가구마다 봄에는 보리 한말, 가을에는 벼 한말 씩이었다. 소죽골에서 이장이 살때에 어려운 사람들이 소죽골에 와서 일을 해주고 갔던 일도 있

었다.

마을회관을 붉은덕에 두었는데 이곳이 인구가 가장 많고 동네의 가운데가 되기 때문이다. 전동면으로 편제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당시 동네에서 토지를 마련하고 군의 협조를 받아 1층 벽돌건물로 건축하였다.

각 마을의 반상회는 비정기적으로 사정에 따라 반별로 모인다.

■ 옛 사람들의 삶의 흔적

십 수 년 전까지는 지금보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매 절기마다 풍장치고 그 때에 맞는 음식을 해 먹으며 이웃끼리 즐겁게 지냈다. 세동네가 멀리 떨어져 있던지라 이런 날에 함께 모이는 기회는 더욱 소중했다. 정월에는 옷판을 벌이고, 여름이면 보덕리 가는 길의 냇가에 놀이터를 만들어 물놀이를 즐겼다. 추석은 일년중 가장 풍성하고 여유가 있었다. 농번기에는 함께 일하는 두레가 조직되었는데 아랫집으로부터 소죽골까지 계단식 논을 이동하며 함께 일을 하였다.

동네에는 소가 끄는 연자방아가 소죽골과 붉은덕 두군데에 있었다. 큰 돌방아는 지금 흔적도 없다. 붉은덕에서 깊은내 가는 길에 상여집을 두고 세 동네가 함께 사용하였는데 현대적인 장례문화에 맞지 않아 상여집도 없어진지 오래다.

한편, 지금은 ‘미신’이란 이유로 사라진 다양한



〈붉은덕〉



〈붉은덕 앞들〉

민간 신앙도 존재하였다. 심중2리와 연결되는 고갯마루에는 돌무더기와 나무 한그루가 서 있던 서낭당이 있어서 정월보름에 이곳에서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덕룡골에서 상봉초등학교를 갈 때에 이 곳을 지나야해서 사람들 통행이 잦은 곳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신작로가 개설되면서 산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 지금은 수풀이 우거진 상태이다.

5. 생활환경

■ 두개의 공동섬

심중1리의 세마을 중 붉은덕과 소죽골은 조천천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산에서 흐르는 계곡물이 없어 늘 농업용수와 식수가 부족했다. 소죽골 골짜기에 계단식 논을 일구었지만 모두 천수답이어서 하늘만 쳐다봐야하는 형편이었다. 비가 내리면 기껏 도랑으로 물이 흐르는 정도였다. 가물때에는 그 물이라도 품어 올려 썼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모내기를 못하고 메밀을 심어먹는 해가 많았다. 농사가 잘되는 곳이 아니어서 동네에 잘사는 사람이 없었고 벼 백석을 수확하는 집이 제일 큰 부자로 손꼽힐 정도였다.

식수로 쓸 물은 우물을 파 썼는데 아랫말 윗말에 각각 샘 하나씩을 두어 온 동네 사람이 길어다 먹었다. 지하수 개발 공사가 수월해진 이후에야 집집

마다 샘을 팔 수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동네 샘을 위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샘을 위했지만 동네 제사로 치러지지는 않았다. 동네 여인들은 매일 샘 주변에 모여 빨래를 했다. 물을 아끼려고 비가 내릴 때에는 작은 도랑으로 흐르는 물가에 앉아 빨래를 하기도 했다.

물 부족으로 힘들었던 날들이라 비 피해는 없었다. 1980년경 한차례 전동면 일대가 홍수에 휩쓸린 적이 있는데 이때 철독 아래까지 물이 들어와 붉은덕 사람들이 긴급히 대피하기도 하였다. 이때 뒷산에 산사태로 흩터미기 밀려 내려오면서 농토가 줄어들었다.

■ 농가소득 올리는 복숭아

1990년대까지만해도 대부분의 가구가 농업에 종사했다. 주로 논농사에 축사를 운영하는 집이 2~3가구 정도 되었다. 그러나 흉년이면 대책없이 1년 농사를 포기하는 일도 있었고, 젊은이들이 주변의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농가는 많이 줄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조치원에서부터 들어온 복숭아 과수농가가 증가했다. 벼농사에 비해 소득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수원을 만들었지만 워낙 고된 일이어서 노령화 가구에서는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 생활권은 조치원읍

심중리에서 전동면소재지까지 3.5km, 조치원읍까지 4km 정도의 거리이다. 조치원과 전동면의 중간쯤에 위치해있어서 장을 보거나 중고등학교 통학은 조치원읍으로 다니는 것이 편리하였다. 도로로 이동할때에도 전동역까지 가서 완행열차를 타느니 조치원으로 걸어가는 것이 빨랐다.

붉은덕은 대로변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지만 소죽골과 아랫지프내는 군도1호까지 걸어나와서

버스를 타야한다. 그나마 버스가 들어온 것도 1980년대였다. 최근 소형 마을버스가 골짜기 안쪽까지 들어오지만 횡수가 많지 않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 공단과 철도

전동역 주변으로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청송리, 노장리 등지에 대규모 공단이 있고 심중리 붉은덕 뒤편 골짜기에도 중소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군도1호와 철도가 지나 교통이 편리하고 천안, 대전, 청주 등 대도시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



〈철도건널목과 공단〉

였지만 심중리에서는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었다. 다만 대형트럭이 오가고 철길 건널목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은 있다. 실제로 철도 건널목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진 일도 있었다.

■ 이현옥·황은옥 부부 효행비

대전에 사는 이현옥·황은옥 부부는 선산이 있는 심중리에 ‘효림원’을 조성하고 모친상때에 3년 봉상을 시행한 인물이다.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데다 고향의 마을어른들에 대한 남다른 경로 정신으로 노인들을 부모님 모시듯 하여왔다. 마을에 수시로 경로잔치를 베풀고, 연말이면 40여가마의 쌀떡을 마련해 대전 보훈병원에 보내는 등 주위 사람들이 늘 감탄할 정도였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며 조치원 복숭아를 도시에 직거래 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지역 농산물 판매와 홍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들 부부의 효행과 선행을 유림협회 성균관에 알렸고 2004년 5월에 성균관장으로부터 포양문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각자 성금을 내어 8백여만원을 모아 2005년에 부부의 효행비를 건립하였다. 이같은 사실이 일간지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2005년 4월 22일)



〈마을입구 표지석〉



〈마을회관〉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오 승 교	80세	남	농업	863-1120
오 흥 교(이장)	53세	남	농업	863-0551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214	119	95	70	65	5	81.32	33.05	12.56	29.75	5.95
특산물 : 복숭아, 배					축산물(두) : 한우, 돼지, 오리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	소죽골	유 기 식	43	863-1121
2	붉은덕	하 구 응	98	862-4727
3	아래지프네	김 용 복	38	011-486-7558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이 장	오 흥 교	부 녀 회	원 영 속
새 마을 지도 자	이 한 응	청 년 회	이 한 응
노 인 회	황 진 석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	343-8	481㎡	73.08㎡	1993	이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오 흥 교	95.3.2	98.1.19		4	오 흥 교	07.3.6	10.3.11	
2	오 흥 교	98.1.20	05.3.2		5	오 흥 교	10.3.11		
3	오 흥 교	05.3.2	07.3.6						

심중2리

심중리(深中里)는 전동면의 동쪽 끝으로,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과의 경계 지역이며 두 마을 사이에 동림산 산줄기가 남북으로 종단하는데 동쪽이 2리, 서쪽은 1리이다. 심중2리는 동림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여러갈래의 산줄기 사이에 길고 좁은 골짜기에 위치한다.



1. 마을개관

심중리(深中里)는 전동면의 동쪽 끝으로,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과의 경계 지역이며 1, 2리 2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마을 사이에 동립산 산줄기가 남북으로 종단하는데 동쪽이 2리, 서쪽은 1리이다. 심중2리는 동립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여러갈래의 산줄기 사이에 길고 좁은 골짜기에 위치한다. 이 골짜기는 북쪽의 민태절골에서 남쪽 갈거리까지 4km가 넘는다. 예로부터 이곳을 10리길이라 불렀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동립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갈거리까지 길게 흐르는데 1:5,000 지형도에는 '사천(斜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민들은 이런 지명을 전혀 알지 못하고 '덕용천'이라 부른다.

10리길 골짜기에 자연마을은 세군데에 형성되어 있다. 가장 북쪽에는 '사기소', 중간쯤에 가장 큰 마을인 '덕용동', 남쪽의 덕용천 하류에 '갈거리'이다. 과거에는 사기소보다 더 북쪽에 민태절 마을이 있었고, 지금 6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다. 덕용동에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덕용천의 중단부이며 그나마 농경지가 넓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현재 산과 산 사이를 통과하는 고속철도가 지나고 있다. 군도1호에 접해있는 갈거리마을은 상업지대이다. 식당과 운전학원 등이 자리잡고 있다. 갈거리는 이웃한 노장리의 '노장(蘆長)'이란 지명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즉 갈대가 무성한 지역이란 의미의 노장 갈거리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심중리의 행정연혁은 도계(道界)를 넘나들었다. 전통시대에 청주에 속해 있었고 한말에 청주군 서강외일하면 심천리(深川里) 지역으로 편제되었다. 마을은 다시 분화되어 1913년의 면리 관련 기록에 등장하는 상심동(上深洞), 하심동(下深洞), 심남리(深南里), 심서리(深西里), 갈거리(葛巨里), 조광동(早光洞), 태고동(太古洞) 등 7개리 동리가 현재의 심중리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상심동과 하심동의 각 일부를 상봉리(上鳳里)로 넘겨주고 미원동(彌院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심중리라 하여 강외면에 편입하였다. 이때에 오늘날의 심중리 영역이 확정되었다. 그 후 1995년 3월 1일에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으로 편입되었다.

2. 지명유래

- 가마골 : 민태절 입구에서 북쪽으로 500m거리에 있는 골짜기. 그릇편이 많이 발견되어 도자기를 구웠던 곳이라고도 하고, 근대에 들어 솥을 굽던 곳도 많았다고 함.
- 골말고개 : 옛날의 절터인데 덕암리로 가는 고개. 부자가 살았다고 전해지며 기와편과 사그릇편이 다량으로 산재해 있음. 지금은 사람도 살지 않는 산골임.
- 공동샘 : 덕용동에 2개가 있었고, 지금은 쓰지 않지만 샘터는 그대로 있음.
- 굽바골 : 처막골과 진골사이의 골짜기로 덕룡동에서 저수지가기 전의 골짜기를 말함.
- 너른골 : 절터가 있는 곳.
- 농바위골 : 동립산 정상에 동립산성이 있는데 남쪽 봉우리 가는 길에 커다란 바위가 있고 이를 농바위라 부름.
- 덕용동 : 심중2리 중간에 있는 마을로 앞산은 용의 형세이고 뒷산은 크고 웅장하다 하여 큰 '덕(德)'자에 용'용(龍)'자를 써서 덕룡동(德龍洞)이라 함. 느티나무 보호수와 마을회관이 있는 곳.
- 덕용천 : 동립산에서 발원해 갈거리까지 흐르는 하천으로 갈거리 앞에서 초천천에 합류함. 지도상에 '사천'으로 표기되어 있음.
- 돌반 : 저수지 바로 아래 행상바위쪽이 전부 넓은 돌판이라 '돌반'이라 부름. 지금은 모두 땅속에 묻혀버렸음.

- 동림고개 : 민태절에서 옥산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칭. 이곳을 넘어가면 충청북도 옥산면 상동림 마을이 나옴.
- 동림산 : 덕룡동에 있는 산으로 전의 동쪽에 있으며 나무가 수풀처럼 우거졌다고 해서 동림산이라 부름. 산 정상에 동림산성이 있음.
- 동림산성 : 동림산성은 민태절 뒷산 동림산 정상에 위치함. 성안에는 헬기장과 편입기념비가 설치되어 있고 민묘가 서 너기 있음. 산성의 모양은 세 군데의 정상을 휘어 감아 돌로 쌓은 퇴피식 석축 산성이었으나, 성벽은 모두 무너진 상태임. 남서쪽의 높은 봉우리에는 누각을 지었을 건물지가 보이고 기념비, 헬기장 등에 건물지가 보이나 이미 파괴됨. 석축의 방법은 축대를 쌓는 형식이었고 남쪽 봉우리 가기 전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음.
- 동산절고개 : 꽃말로 넘어가는 고개로 절 뒤쪽으로 있음.
- 동산절골(도산작골) : 동산사 라는 절이 있었던 골이라 하여 ‘동산절골’이라 하던 것을 ‘도산작골’이라 부르게 됨. 이 골에 기와편이 다량으로 흩어져 있음.
- 미타절 : 제일 위쪽의 마을로 동림산 밑에 있는 마을. 이곳에 고려시대에 미타사라는 절이 있어서 미타절이라 불렀음.
- 민태절 : 연기군 전동면과 청원군 동림리와와의 경계지역. 청원군 강외면 심중2리였다가 1995년 3월 1일 연기군 전동면으로 편입되었으며 민태산이란 이름은 마을 뒷산 동림산 중턱에 ‘미타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의 이름이 민태절이라 부른데서 연유했고, 절이 폐사 되면서 절 이름이 마을 이름으로 된 듯함. 민태절 절터는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다. 돌축대를 쌓는 곳과 그곳에서 산 정상 쪽에 계단식 건물지가 보이고 동쪽으로 험준한 벽을 오르면 기와편이 무더기로 산재한 건물지가 있었음. 이 곳의 건물지는 모두 경사를 극복하려고 돌축대를 쌓았고 그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지은 듯 함. 중심지 옆에 커다란 바위에는 고인돌에 나타나는 구멍(성혈)이 서 너개 뚫려 있었음.
- 범바위 : 마을에서 서남쪽 높은 봉우리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근처에서 호랑이가 자주 출몰해 이 바위를 범바위라 부름.
- 사기소(사구소) : 저수지 위에 있는 마을.
- 사냥골 : 진골의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높아 매 사냥을 할 때 이곳에서 매를 관찰하였다 하여 사냥골이라 함. 저수지의 우측으로 늑대와 산돼지 등 짐승이 많았던 곳.
- 산제바위 : 용궁바위 위에 있으며 산제를 지내는 바위.
- 상하밭골 : 범바위가 있던 곳.
- 성불원 : 민태절 아래에 있는 곳당으로 천신불당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없음.
- 세모배미, 마당배미, 다랭이배미, 수렁배미, 삿갓달배미 : 논 이름. 논배미 이름이 스무개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억되는 지명은 거의 없음.
- 안산 : 덕룡동 안쪽 산으로 용의 형태임.
- 약물내기 : 범바위 아래에 있으며 바위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다 고쳐졌다고 함. 가뭄에도 물이 줄지 않았는데 양쪽 옆에 묘를 쓰는 바람에 물이 끊김.
- 약물내기고개 : 약물내기 있던 곳의 고개.
- 양달 : 굽바골과 진골 사이에 있는 골로 양지바르다고 해서 양달이라고 함. 저수지에서 덕룡골 방향으로 가는 길의 좌측에 해당.
- 양터골 : 조광골과 덕룡동 사이의 논과 밭이며, 양지터라 하여 양터골이라고 불리움.
- 오재미골다랭이 : 다섯단의 다랭이 논.
- 용궁바위 : 자연적으로 가운데 구멍이 난 바위로 용왕제를 지내는 바위.
- 점터(점터) : 절터 아래에 그릇을 구웠던 곳을 지칭.
- 조광골 : 해가 제일먼저 뜨는 마을이란 뜻이며 덕룡동과 갈거리 사이에 있음.

- 진골 : 저수지 안쪽의 골짜기. 골이 깊어서 진골이라 함.
- 치마바위 : 치마처럼 생겼던 바위로 저수지 안에 있었음. 덕룡동에서 사기소 가는 길목임.
- 칼골 : 심중2리 첫 동네로 신라시대 임경업 장군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이곳에서 쉬려고 칼을 놓았다고 해서 칼골이라고 함. '칼골'이 '갈거리'로 변하여 갈거리가 즉 칼골임.
- 칼바위 : 칼날처럼 날카롭게 생긴 바위로 저수지 안에 있었음. 상여바위 근처에 있었음.
- 행상바위 : 저수지 뚝에 있는 상여처럼 생긴 바위로 아들 낳기를 기원하던 사람들은 이 바위에 돌을 던졌다고 함. 아들이 있어야 상여를 매 준다는 것이 이유임. 바위가 넓고 커서 동네 사람들이 드러누워 놀던 곳임.

■ 용 형국의 민태절

동림산 기슭의 '민태절'은 미타사라는 절이 있는 곳이란데서 유래된 지명이다. 한때에 사람복적이던 동네였지만, 현대에 들어 인적이 드문 오지 마을이 되었고 최근 연기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민태절은 동림산 산줄기가 용 처럼 뻗은 용날에 자리잡았다 하는데 이 산은 청주한씨 집안의 산이었다고 한다. 오랜 옛날 어떤 이가 명당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한씨의 묘를 봤는데 순간 땅속에서 학이

한 마리 나타나 서면 방향으로 날아가버렸다. 이것을 보고 명당의 기운이 빠져나갔다고 여겨 학이 날아가 앉은 곳에 묘를 써 가문이 번성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민태절 일대가 한씨의 터가 아닌가 추측된다.

3. 역사와 변천

■ 분청사기 굽던 사기소

심중2리의 북쪽 마을인 '사기소'는 그 지명에서도 드러나듯 요지와 관련이 있다. 사기소 94번지는 1996년 연기군 일대의 문화재지표조사가 이루어졌을때에 분청사기 요지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기소 마을입구의 경작지로 개간된 지역에 북서향 지역인데 지금은 이 자리에 가옥이 자리잡고 주변은 온통 밭으로 개간되어 요의 원형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주변에서 수습되는 자기편 역시 심하게 파손된 잔편뿐이다. 다만, 주민의 전언에는 이곳을 개간할때에 수많은 그릇조각과 불탄 흙(소토)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주로 분청사기편이 나타나고 있으며 초별구이편, 태토비짐는 받침편 등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그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 민간에서 쓰이던 그릇을 굽던 곳으로 추측된다. 조각의 표면에 그려진 문양은 연꽃그림, 국화그림, 육각형 형태 등이



〈민태절 입구〉



〈사기소〉

다. 유물이 분포하고 있는 범위를 볼때에 요는 2~3기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민태절의 분청사기요지

덕용천의 발원지에서 멀지 않은 곳이 민태절이다. 그만큼 골짜기 깊숙한 곳인데 이곳에 ‘미타사’라는 절이 있었다 하여 민태절이란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민태절 부근에 연기군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 옛 지형은 찾을 수 없고 옛 동네도 사라졌다. 민태절에는 절터만 있던 것이 아니라 ‘가마골’ 계곡의 남동향 사면에 요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산1-1). ‘가마골’이란 지명 자체가 요지가 있던 곳이란 뜻이기도 하다.



〈덕용천〉

요지가 있던 곳은 급경사의 지형이고 전망에 넋물이 흐르고 있어 가마를 조성하기 좋은 환경이다. 요가 폐지된 후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황폐화 되어 원래의 형태를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주변에서는 분청사기편과 소토편 등이 흩어져 있어 분청사기요지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그릇편은 국화무늬를 도장 찍듯 만든 인화분청이다. 포개구운 흔적이 선명하지만 태토가 양호하고 유약의 상태로 보아 양질의 자기를 생산하던 곳으로 추측된다. 가까운 사기소 마을의 요와 비슷한 시기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민태절 일대에서 발견된 흔적

연기군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이곳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조선시대 토기요지, 수혈유구 등이 발견되었다. 토기요지는 12기가 드러났는데 이중 6개의 요는 남아 있는 상태가 좋아 전체적인 형태가 확인되었다. 그 밖에 수혈유구는 깊은 구덩이의 형태로 모두 9기가 있었는데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이었다. 모두 요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가마와 관련된 부속 시설이 아닌가 추측되었다. 이때에 유물과 유적은 모두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검토하였으며 발굴조사를 마친 후 시설 공사가 이루어졌다.

■ 동림산성(東林山城)

심중리와 충북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사이를 가르는 높은 산이 동림산이다. 산의 높이는 458m로 전동면의 북부 산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산이 험준하여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이다. 이 산의 정상부에는 오래된 산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산성은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는 두개의 봉우리를 에워싸면서 축조되었는데, 둘로 쌓은 성벽은 완전히 붕괴되어 흔적만 남아있으며 특히 계곡을 지나는 구간은 아예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성벽이 파괴되고 돌무더기 형태로 남아있으므로 이 성을 어떤 방식으로 쌓은 것인지, 어느 시대에 어떤 목적으로



〈광덕암〉



〈광덕암 주지스님 김윤경〉

축성했는지에 대해 알기 어렵다. 성 내부의 면적은 좁은 편이고 남벽 근처에 있는 무덤 주변과 서벽 근처의 무덤자리가 건물 터로 추측되고 있다. 그밖에 주변에서 유물은 찾을 수 없으며 성문의 흔적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이 일대의 다른 산성과 연계된 관방시설로 추측된다.

■ 경주김씨

덕용동 일대는 1900년대 초반까지 경주김씨 계림군파(鷄林君派) 자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다. 경주김씨는 전동면 일대에 번성했던 성씨로, 몇 개의 파가 별개로 입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 심중리 경주김씨는 전의 운주산 아래의 학당(현재의 미곡리 학당마을)에 묘가 있는 김춘무(金春茂, 1595~1676)의 후손이다. 김춘무의 선대는 경



〈갈거리〉

기도 고양 일대에서 세거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전의에 묘를 두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일화가 없다. 다만 김춘무의 처는 안동권씨 권태원(權泰元)의 딸로, 당시 노장리에 세거했던 안동권씨가 인물인 아닌가 추측된다.

김춘무의 외아들 김석근(金錫瑾, 1624~1691)이 심중리와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처가 바로 파평윤씨였다. 파평윤씨는 심중2리에 전설로만 전해지는 성씨이다. 덕용동이 원래는 파평윤씨 집성촌이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윤씨집안에서 터를 내놓고 떠났다는 것이다. 김석근의 아들들의 묘는 전부 덕용동에 있고 그후 대대로 덕용동에 거주하여 오늘날 집성촌을 이루었다. 현대에 들어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성 받아 마을이 되었으나 여전히 경주김씨의 비율이 높다.

한편, 갈거리에는 청주한씨가 많이 살고 있다. 갈거리 청주한씨는 보덕리 한씨와 같은 계통이다. 민태절의 한씨 묘에 관한 전설과 연관시켜보면 오랜 옛날에는 민태절에도 한씨가 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여년전까지 민태절에는 청풍김씨가 많았다 하는데 지금은 1~2가구 정도 남아 있다.

■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일제로부터 수탈당하던 이야기를 하자면 동네 노인들은 고개를 돌릴만큼 괴로운 기억이다. 그 시절에는 피할 방법이 없어 늘 고스란히 빼앗기고 굶주리는게 다반사였다. 공출이 안된다면 순사들이 찾아와 이집 저집 돌며 마구잡이로 뒤지고, 숨긴 것이 있나 싶어 여기저기 찢러가며 벼와 쌀을 거둬갔다. 면소재지였던 오송리가 먼 거리에 있어 좀 덜했는지 몰라도 술조사니 나무조사니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에 오송리로 가려면 심중1리를 통하였고 민태절과 사기소에서는 장고개를 넘어 질러갔다. 조치원이 20리 길이라 차라리 가까웠다. 여름에 아이들이 일본식 계다를 신고 이웃 동네 모시울의 상봉초등학교로 통학하

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 전쟁과 재건

주민 스스로 마을에 대해 이야기 하기를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한다. 그런 덕분에 한국전쟁의 와중에도 모두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믿는다. 전쟁통에 피난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좌우의 갈등으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참담한 일도 없었다. 물론 참전했던 청년들 중에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 외에 거의 슬픈 일 없이 힘든 시기를 견뎠다.

자유당시절에 사기소 아래에 저수지공사를 벌였다. 덕용천이 심중2리를 종단하여 흐르지만 수량이 적고, 주변 농경지는 평지라기보다는 야산의 중턱까지 이어져 있어 물을 끌어쓰기 힘들어 늘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때까지는 몇몇사람들이 힘을 모아 보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것으로는 어려웠다. 저수지 건설을 위해 동네사람들이 공사 비용을 각출하고 청원군의 지원도 받았다. 저수지가 완공되면서 덕용동 갈거리 조광동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다.

■ 행정구역 변경

심중리는 현재 연기군 전동면에 속해있지만, 불과 16년전까지도 충북 강외면 지역이었다. 군이나 리 단위의 이동도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충청남도로 변화되는 것이어서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큰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주민 편의 때문이었다. 오래전부터 심중리 사람들의 생활권은 조치원이었고, 정작 강외면의 면소재지인 오송리는 심중리에서 7km거리에 있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강외면 상봉리에 상봉초등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가까운 전동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변경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이해에 따라 행정구

역을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1993년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고 주민간에 찬반투표를 벌이자 심중2리 주민의 70% 이상이 연기군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았다. 1994년 12월 1일 ‘시도간 관할 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이 의결됨에 따라 시도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졌고 이듬해 3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심중리가 전동면이 됨과 동시에 연기군 동면 갈산리 일원은 충북 부용면으로 편입되었다.

4. 전통민속

■ 덕용동 수왕제(樹王祭)

덕용동의 마을회관 앞에는 수령이 300년이라 표기된 느티나무 고목이 있다(심중리 산 89번지). 주민들은 3백년이 아니라 천년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남자어른 11명이 양 팔을 뻗어야만 줄기를 감싸안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인데 지금은 일부 가지가 쪼개지고 고사하여 예전같지 않다.

이 나무는 오래전부터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져 누구도 나무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고 매년 정월 대보름마다 전 주민이 나무 아래에 모여 나무를 위하는 제를 올렸다. 현재 노인회장 김광남씨(73세)의 기억에는 어릴때부터 그 광경을 목격했고 전쟁때에도 거른 적이 없을 만큼 공을 들였다 한다.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덕용동 뒷골짜기에 광덕암이란 작은 사찰이 창건되었는데 이 절의 스님이 제의를 주관하였고, 지금도 그 뒤를 이어 광덕암 주지가 된 스님(속명 김윤경)이 제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제물을 마련하는 비용은 주민들이 각출하였지만, 최근에는 동네 기금을 이용한다.

정월 열나흘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되고 대보름날 저녁 5시경에 제물을 차린 후 제가 시작된다. 제물은 돼지머리와 삼색실과, 북어포, 떡, 막걸리 등을 진설한다. 동네에 부정할 일이 있더라도



〈심중2리의 수호신 느티나무 고목〉

제의에 방해가 안되도록 몇일전부터 광덕암 스님이 별도의 기도를 올리고 모든 절차는 불교식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는 각 가구별 소지를 올린 후 음복하고 마을회관에 모여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 이때 동네 풍물패가 풍장을 치며 흥을 돋운다. 이와 같은 나무제사는 현재의 전통면에서는 흔치 않은 것이다.

한편, 10여년전인 1990년대 말 나무가 고사할 듯 잎이 모두 누렇게 변하며 떨어져버린 일이 있었다. 고민하던 동네사람들이 막걸리를 몇통을 사다 나무 뿌리에 부어주었는데 신기하게도 다음해에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싹을 틔웠다. 나무의 주변을 다듬어 휴식공간을 만들었는데 최근 시멘트로 흙을 덮은 것이 나무의 생육에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시멘트를 걷어내고 재정비할 계획이다.

■ 팔려간 미루나무

느티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느티나무 고목처럼 오래된 미루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의 줄기도 몇 아람이 될 만큼 크고 풍성한 잎을 자랑했는데, 일제강점기에 심중리 인근에 살던 이가 이 나무를 베어 웅기 가마에 땀감으로 팔아버리고 말았다. 실로 경악할만한 사건이었으나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나무가 죽었던 그 무렵 느티나무 고목이 웅웅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은 나무가 운다고 믿었다. 느티나무와 미루나무를 내외지간

이라 불렀기 때문이었다. 더욱 해괴한 일은 이 나무를 베었던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죽고, 미루나무 땀감을 썼던 웅기점은 망해버린 것이었다. 주민들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불미스런 사건의 원인이 영험한 나무를 함부로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5. 생활환경

■ 연기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기소의 북쪽 4-1번지 일원에 ‘연기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있다.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현대식 시설과 부속 건물인 주민스포츠센터가 나란히 자리잡고 있어 ‘먼지 날리는 쓰레기 공장’과 같은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이다.

폐기물처리 방식이 현대화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혐오시설이란 의식이 있어 각 시군마다 이와 같은 시설을 두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중리 사람들 역시 처음에는 우려를 갖는 사람이 많았다. 당시 연기군에서는 폐기물처리장 입주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고, 소각장이나 매립시설이 아닌 첨단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공표하였다. 심중리에서는 오랜 고민끝에 반대하는 주민 모두를 설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서로 이해



〈연기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민심이 분열되거나 앓을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지역 발전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이웃간에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연기군은 391억 5천여 만원을 들여 생활 폐기물 종합처리장과 함께 스포츠센터를 건설하였다. 스포츠센터는 지상 3층, 지하 1층 총 2,662㎡ 규모로 내부에 실내 수영장(25m, 4레인)을 비롯한 남여 목욕탕, 헬스장과 휴게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소각열을 재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2010년 8월 2일 개장하자마자 주목을 받으며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수영장에는 대기자까지 있을 정도다. 연기군은 이 시설을 폐기물의 자원화 교육의 장과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환경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

■ 쌀단지

덕용동과 사기소 사이에 저수지를 건설한 후 물 걱정이 사라졌다. 저수지가 생기기전에는 물이 적어 고생이 많았고 큰 부자가 나기 어렵다 할 정도였다. 그러나 저수지에 건설 후 농업용수가 충분하여 동네를 ‘쌀단지’라 할 만큼 농사가 잘 되는 편이다. 최근에는 벼농사보다는 연기군의 특산물인 복숭아 과수원을 하는 농가가 늘었다. 심중2리에서는 복숭아농사가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수익



〈덕용동 공동샘〉

은 훨씬 좋지만 그만큼 고된 일이어서 노인 가구에서는 과수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마을 기금 조성

마을 공동체의 운영을 위하여 각 마을마다 기금을 조성하여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가구당 얼마씩 부담하며 각출하였고 심중2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고 비용 부담이 커지며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심중2리는 연기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연기군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받고, 고속철도가 관통하는 대신 공단의 협조를 받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일부 반대의 의견도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때에 마련한 공동재산으로 마을 공공사업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을 지나는 고속철도〉



〈마을회관〉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한상억(이 장)	57	남	농업	863-1012
김광남(노인회 장)	72	남	농업	863-1428
김윤경(광덕암주지)	82	남	승려	863-1066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204	105	99	69	62	7	114.71	33.06	21.49	59.50	0.66
특산물 : 복숭아					축산물(두) : 한우, 닭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	갈거리·조광골	안 덕 영	27	863-1030
2	덕용동	김 병 식	30	863-1147
3	사기소	김 학 도	25	863-1733
4	민태절	박 용 성	11	863-0963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이 장	한 상 억	노 인 회	김 광 남
새 마을 지도 자	박 용 성	부 녀 회	김 영 금

• 공동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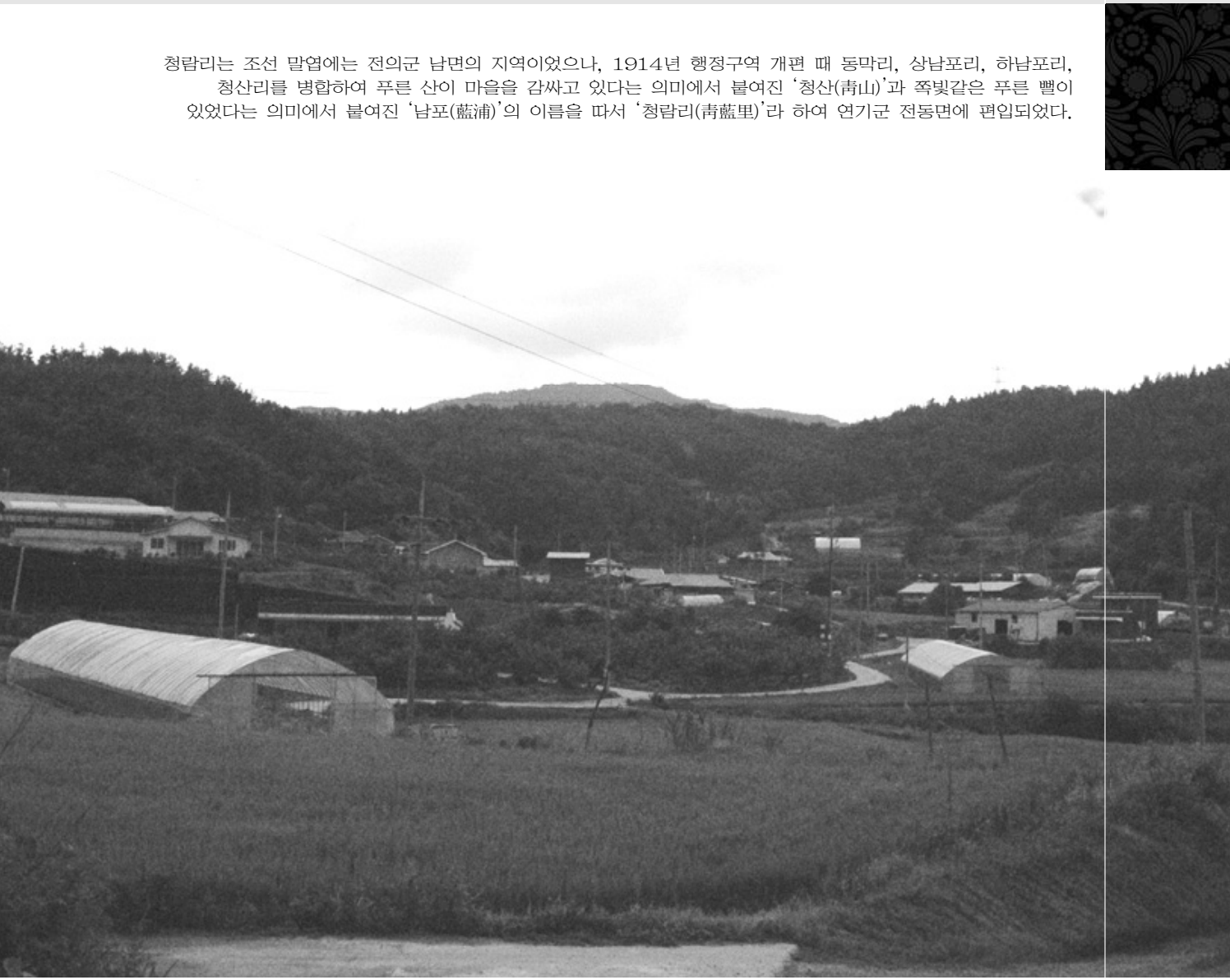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	172	594㎡	68.4㎡	1994	이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한 상 억	95.3.2	98.1.19		4	한 상 억	07.3.28	10.3.11	
2	한 상 억	98.1.20	05.3.22		5	한 상 억	10.3.11		
3	한 상 억	05.3.22	07.3.28						

청람리

청람리는 조선 말엽에는 전의군 남면의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동막리, 상남포리, 하남포리, 청산리를 병합하여 푸른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청산(靑山)'과 쪽빛같은 푸른 뺨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남포(藍浦)'의 이름을 따서 '청람리(靑藍里)'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1. 마을개관

청람리는 조선 말엽에는 전의군 남면의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동막리, 상납포리, 하납포리, 청산리를 병합하여 푸른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청산(靑山)’과 쪽빛같은 푸른 뺨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납포(藍浦)’의 이름을 따서 ‘청람리(靑藍里)’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청람리는 여섯 개의 작은 마을들이 옹기 좃기 모여 청람리를 구성하고 있다. 마을 가운데에 위치한 청람교와 도로를 기점으로 서쪽에는 1반인 청미마을이 자리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5개 반이 둥그런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다. 청람교 바로 옆에 위치한 마을이 위쪽으로는 버드남말과 아래쪽으로는 큰말이고, 큰말 바로 옆에는 도람말이, 도람말 윗쪽으로는 양지말이, 그리고 양지말과 도람말 옆으로는 동막골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현재 마을에서는 외지인들에게 마을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 입구의 청람교에 6개 마을을 표시한 위성사진을 걸어 두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의 이름처럼 청람리는 마을 전체가 산으로 빙 둘러져 있어 산이 마을을 안고 보호하는 듯한

형세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천이 흘러 농업용수로 부족함이 없고, 1번 국도와 철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한 살기 좋은 마을이다. 현재 동막골에는 경주김씨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청미마을에는 순흥안씨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청미마을에 살고 있는 안○○씨에 의하면 4대째 청미마을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청미마을에 순흥안씨는 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2. 지명유래

청람리에 전래되는 지명유래는 1974년에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총람』과 2007년에 조치원문화원에서 편찬한 『연기군의 지명유래』와 마을주민들의 구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개미굴 : 개미고개 남쪽에 있는 경부선 철로의 굴을 지칭함. 길이가 2km가 되며 작은 굴이 잇대어 마주하고 있으며 개미고개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임.
- 개미고개 : 청산에서 전의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칭하는데, ‘개미기 고개’라고도 부름. 고개



〈마을에서 만든 마을안내도〉



〈도람말 전경〉



〈동막골 전경〉

- 가 잘록하여 개미허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의현(蟻峴)이라고도 함. 원래 개미고개로 이어지는 길이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넘어가야 하는 길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신작로를 내면서 현재는 사라지고 없음.
- 국사봉 : 남포에 있는 산으로 예전에 이곳에 봉화대가 있었음. 석곡리와 청람리의 경계에 해당 하는 산임.
 - 날근터 : 국사봉 밑에 있는 곳으로 집터자리가 있고, 기왓장이 나옴.
 - 남포 : 쪽개라고도 불리우며 큰말, 도라말, 양지말, 버드나무말이 이에 속하며 이곳이 옛날에 빨이었다하여 남포라고 함.
 - 도깨비편돈 : 서낭당이 있는 곳을 지칭함. 마을에서 개미고개로 연결되는 길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 뒤에서 산적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깨비가 사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전해짐.
 - 도리말 : 큰말 옆 산을 돌아가서 자리한 마을을 지칭하는데, 도람말이라고도 부름. 산을 돌아서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함.
 - 동막(東幕)골 : 버드나무말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지칭함. 어려운 사람들이 처음 여기에 마을이 형성될 때 움막을 짓고 살던 것이 점점 큰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여 동막, 또는 동막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음. 청람리 중 제일 윗동네에

- 해당하며, 경주김씨가 동막을 짓고 오랫동안 살았던 마을임.
- 등글봉 : 연수봉이라고도 불리는데 동막골 뒷산을 지칭함. 일제강점기에 니켈을 캐던 큰 광산 1개와 작은 광산 1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광복 이후에 없어졌음. 청람리 주민들도 광산에 다녔다고 함.
 - 말뜰 : 마른들이라는 의미로 물이 귀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임. 청람리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논을 지칭함.
 - 모이골 : 평절미 있는 곳의 밭을 지칭하는데, 연수봉 가는 쪽에 있음.
 - 방축골 : 현재 돼지막 있는 곳을 지칭하며, 도람말 뒤편에 위치함.
 - 버드나무말 : 쪽개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지칭함. 냇가에 버드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하남포(下藍浦)라고도 부름, 남포 아랫편



〈버드나무말 전경〉

- 에 있는 골이라는 의미에서 아랫고개, 아랫조개라고도 부름.
- 사정동 : 모래사(沙), 정자정(亭)자를 사용하는 지명으로, 모래사장에 정자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짐. 새터 남쪽에 위치함.
 - 서당골 : 국사봉 밑의 골로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고 전해짐.
 - 서낭당골 : 동막골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서낭당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임. 서낭당이 라고도 부름.
 - 솔재 : 마을회관 서쪽을 지칭함.
 - 솔재고개(솔재너머) : 숲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습징거리, 습징이, 솔티고개라고도 부름. 동막골에서 송성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칭함.
 - 시루바위 : 시루봉 꼭대기에 있는 마을을 지칭함. 큰 바위가 봉우리를 이루었는데 그 모양이 시루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중암이라고도 부름.
 - 시루봉[증미, 증봉(甑峯)] : 청람리 북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142m가 되는데, 시루바위가 봉우리를 이루었음.
 - 아랫고개 : 아랫조개, 하남포라고도 부름. 쪽개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냇가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음.
 - 양지말 : 버드나무말 산등성이 양지쪽에 있는 마을을 지칭함.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양지말 전경〉

- 에 양지를 받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지명임.
- 용못단 : ‘용이 춤추는 단’이라는 의미의 ‘용무단(龍舞壇)’이 변하여 생긴 지명으로, 용이 살던 곳이라고 전해지던 곳이었으나, 신작로가 생기면서 메꿔져 현재는 없어짐.
 - 윗조개[상남포(上藍浦)] : 쪽개 윗쪽에 있는 마을을 지칭함.
 - 절터골 : 꼬장산 밑의 골로 절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임. 기와가 나오며, 예전에 빈대가 많아 이 절이 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음. 동막골에 자리하고 있음.
 - 정고개 : 저수지 옆의 고개로 송성3리와 송정2리의 경계에 해당함.
 - 조개고개 : 행굴에서 청람리(조개)로 가는 고개를 지칭함.
 - 진골 : 남포 동쪽에 있는 골을 지칭하는데, 골이 길다고 하여 진골이라고 부름.
 - 쪽개 : 청미 남쪽의 내 건너에 있는 마을을 지칭함. 앞 냇가에 쪽이 많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으로, 조개, 남포라고도 부름.
 - 청산(靑山) : 증미 밑에 있는 마을을 지칭함. 증미라고 부르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여 청미 또는 청산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 큰말 : 조개의 큰 마을을 지칭함.
 - 평절미 : 동막골에서 저수지 가는 쪽의 밭을 지칭함.
 - 행골 : 솔재고개 옆, 서북쪽의 골을 지칭함. 현



〈청미전경〉



〈큰말 전경〉

재 4가구가 살고 있음.

- 헌터골 : 박만기 이장님 공덕비 옆쪽에 위치한 곳을 지칭함.
- 흙도러 : 지금은 저수지에 잠긴 곳으로 동그랗게 돌아가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지명임.

3. 역사와 변천

■ 청람리의 명당, 대장군자리

청미마을에 ‘용못단’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곳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용못단이라는 곳은 용이 춤추는 단이라는 한자지명인 ‘용무단(龍舞壇)’이 변하여 생긴 지명이다. 이곳은 용이 살던 곳이라고 전해지던 곳이었으나, 신작로가 생기면서 메꿔져 현재는 없어진 곳이다. 이 용호단 뒤편에 대장군자리라는 청람리의 명당자리가 있다. 조선시대 땅의 기운과 형세를 가늠하는 지관들이 가지고 다녔다는 ‘만산도’라는 책에도 이 대장군자리는 명당자리로 소개가 되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라고 주민은 이야기한다. 이 명당자리가 소문으로 전해지면서, 청미마을뿐 아니라 청람리 주민들은 나서서 그 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으나, 확실한 위치를 찾지는 못했다고 한다. 청람리의 명당자리 ‘대장군자리’는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명당자리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 두 개의 사지, 남포 사지와 버드나무사지

청람리에는 절터가 두군데에서 확인된다.

먼저 남포사지는 남포마을의 남동쪽에 있는 하랏골이라는 골짜기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 사지로 추정되는 곳은 수년전까지 계단식의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다가 최근에 이르러 묵고 있는데, 사역의 범위는 약 100여 평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 답사를 통해서 사역 내에서는 사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로는 잡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원형의 우물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역의 구체적인 구조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설물과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표면에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유물수습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수습된 유물은 격자문이 시문된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무문의 회색 토기편이 일부 있을 뿐이다. 다만 기존의 조사된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말기의 백자편과 와편 그리고 옹기편 등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이 사지는 조선시대 말기에 조성된 작은 암자터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버드나무 사지는 버드나무마을의 서쪽에 있는 야산의 남동향 사면 중하단부에 절터골이라고 불리는 지점에 위치한다. 버드나무 마을 서쪽에 있는 야산의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해발 100m 지점에 약 150평 정도 크기의 평지가 있는데 이곳이 사지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구체적인 사역의 범위나 구조는 알 수 없지만, 기존에 조사된 기록을 보면 60m 정도의 길이로 자연적으로 된 석축대가 무너진 상태로 있었다고 한다. 지표답사를 통하여 사지 주변지역에서 집선문이 시문된 회청색경질의 조선시대 말기 와편 및 점과 토기편, 분청사기편이 수습되었다.

■ 변응정(邊應井) 사당

큰말의 윗부분에 자리한 변응정 사당은 2001년 5월 31일 연기군 향토유적 34호로 지정되었다.

변응정(1557~1592)의 본관은 원주, 1585년(선조 18) 무과에 급제하고 1592년 해남현감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관내의 소요를 진정시키고 격문을 돌려 의병을 규합한 인물이다. 금산전에 조현과 합류하기 위하여 행군하였으나 차질이 생겨 조현이 전사한 뒤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제 군수 정담(鄭澐)과 함께 싸워 큰 전과를 올리다 적군의 야습을 맞아 육탄으로 맞서 싸우다 끝내 웅령(熊嶺)에서 전사하였다. 성휘의 상소로 병조판서로 증직되었다.

‘충장(忠壯)’이라는 시호를 받고 금산 종용사에 조현, 고경명 등과 함께 제향되어 있는데, 이 사당은 변응정의 충절을 기리고자 1930년대에 원주번씨 후손들이 주도하여 종가집 뒤편 야산에 건립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전, 후, 양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그 아래에 방풍편이 설치되어 있다. 세월의 풍파에 많이 낡았던 사당을 후손들이 최근 새롭게



〈변응정 추모비〉



〈변응정 사당〉

게 지어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다. 현재 사당관리는 종중에서 하고 있다. 1988년에 전의향교의 유림들이 세운 변응정의 추모비가 개미고개(청람리 산 18-1)에 있다.

■ 김승로 묘소

김승로 묘소는 큰말의 안쪽 야산의 서향사면 중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김승로(金承露, 1359~1438)는 본관이 강릉, 호는 송오(松塢)이다. 태학에서 목은 이색과 정몽주에게 수학하였고 고려가 멸망하자 조복을 찢어 동문 밖에 걸고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후 태종조에 여러번 관직을 내려 조정으로 불렀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고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다 죽어 두문동 72현의 한사람으로 불린다. 나라에서는 1439년(세종 21) 우의정의 증직과 ‘충의(忠義)’라는 시호를 내렸다. 김승로의 묘소는 장대한 석재를 이용하여 봉토의 하단부에 방형의 호석을 두른 전형적인 예장묘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묘 앞에는 1439년(세종 21)에 세워진 구묘갈(舊墓碣)과 1986년 후손들에 의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신묘갈이 나란히 서있다. 그리고 묘갈 바로 앞 중앙에는 오래된 석등이 하나 세워져 있으며, 조금 더 앞으로는 2개의 문인석과 새로이 만들어진 2개의 석등이 세워져 있다. 또한 이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1961년 후손들에 의하여 세워진 신도비가 있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곳이 강릉김씨의 선산이기 때문에 이곳에 묘를 쓰게 된 것이라고 한다. 후손들은 석곡리에 세거하였다.

■ 청람리의 현대사를 이야기하는 개미고개

청람리의 개미고개가 대변해 주고 있듯이 현대사는 격렬했으나, 일제강점기에는 큰 사건없이 지나갔다. 현재 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와 철도가 일제강점기에 완공된 것으로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



〈청람리 노인정〉



〈1972년에 건립된 마을회관〉

들은 일제에 의해 돈을 받고 도로를 놓고 철로를 놓았다고 한다. 또한 마을을 감싸고 있는 국사봉에서 3:1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기억은 있으나, 청람리 주민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편 청람리의 현대사는 개미고개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현재도 이 개미고개에는 ‘자유평화의 빛’ 탑과 위령비, 가선대부충청도병마절도사 함양창공원보신도비(嘉善大夫忠淸道兵馬節度使 咸陽公元補神道碑)가 조성되어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시작하면서 미국은 전쟁개입을 선언하게 되었다. 미국은 제24사단 제21연대 제4대대를 선발대로 지정하였고, 대대장 스미스 중령 지휘 하에 7월 1일 부산으로 공수하였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지체없이 전선으로 향해 오산 죽마령에 배치되었고,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7월 5일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을 받은 스

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전투에 임했으나 대부대 공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격전중에 분산되어 철수하는 비운을 겪게 되었다. 이에 미 제24사단은 제21연대장 스티븐스대령에게 잔여부대를 지휘하게 하였고, 군도1호에 걸친 지연작전을 수행하게 하였다. 7월 7일 미 제21연대는 사단장 던소장으로로부터 조치원 부근에 진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다음날에 미곡리의 개미고개 좌우측 능선에 지연진지를 구축하였다. 7월 11일 새벽 북한군 제4사단에 이어 제3사단이 교대하여 개미고개를 공격해왔다. 제21연대는 전의-조치원간 전투에서 절대 우세한 적과 맞서 무려 5일간 적의 남진을 지연시킴으로써 북한군의 남침전략에 타격을 입혔다. 이에 장병들의 공적을 기리고 전사한 장병들의 명복을 기원한다는 뜻에서 개미고개에 위령비를 세우는 등 기념하게 된 것이다.

■ 주민들의 기억속에 있는 개미고개전투

청람리 주민들에게는 개미고개와 관련한 일화가 많다.

마을 주민 중에 개미고개전투에 군인으로 참여하여 목숨을 잃은 마을 주민이 2명이 있고, 전투가 끝난 이후에 포병부대가 땅에 놓은 폭탄을 무심코 만져 목숨을 잃은 주민이 2명, 그 폭탄의 파편으로 손을 크게 다친 주민이 2명이 있다. 그 당시의 폭탄이 시계나 불펜 모양 등 여러 모양이었기 때문에



〈개미고개〉



〈'자유평화의 빛' 위령비〉



〈개미고개 조형물〉

주민들은 호기심에 가지고 놀다가 이런 불상사를 겪었던 것이다. 당시에 미군들이 개미고개에 진을 치면서 주민들을 모두 대피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은 없었다. 때문에 주민들에게 개미고개전투는 미군들의 시신이 가득했던, 미군들이 폐죽음을 당했던 곳이라는 기억만이 남아 있다.

개미고개전투가 끝나면서 북으로 이동하던 북한군들은 마을 주민들의 집에 들어와 밥을 해달라고 괴롭힌 것이 두달 가까이 지속되었다. 또한 낮에는 집안에 들어와 숨어 있었고, 밤에는 포를 보급하는 등의 일로 주민들이 강제로 북한군들에 의하여 동원되어 밤새 지계에 포를 짊어지고 나르는 일을 하기도 했다. 이미 남한과 북한의 싸움이 끝났다는 소문은 돌았지만, 북한군이 피난을 가는 광경을 목격하고 또다시 전쟁이 날 것을 두려워한 서울과 경기도의 주민들이 아래로 아래로 피난을 가

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피난민들은 밤이 되면 개미고개 근처에 있던 청람리 주민들의 집에 무작정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잠을 자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먼저 온 사람이 안방을 차지하고, 그후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헛간까지 들어가 잠을 잘 정도였다. 1·4후퇴가 진행되던 시기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새벽에는 추위를 이기지 못한 피난민들이 방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람이 자는 위에서 누워 잠을 청하기도 했다.

4. 전통민속

■ 큰말 산신제

큰말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초순이면 마을의 동쪽에 있는 국사봉에 산제를 올렸다. 원래는 청람리 전체 주민들이 국사봉에 함께 했던 전통이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 남포와 청미가 각각 따로 제를 올리게 되었다. 국사봉이 석곡리와 청람리의 경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사봉에 올리는 산제를 석곡리와 청람리가 따로 따로 지냈다. 산제는 산신의 길일을 따져서 음력 10월 초순에 지냈다. 제단은 표고 266m의 국사봉 상단부에 마련하였다가, 1990년대에는 산의 중상단부에 위치한 산제당에서 지냈다고 한다. 9월 그믐에는 마을사람들 중에서 생기복덕을 가려서 일진이 좋은 사람으로 제관, 축관, 별공양주(돼지나 소를 잡는 사람), 메공양주(밥을 짓는 사람)를 각각 1명씩 뽑는다. 그리고 이 4명은 제를 지내기 3일 전부터 담배와 술을 피하고, 집 앞에도 황토 흙을 떠다 놓고, 금줄을 쳐서 부정함을 경계하는 등 엄격한 규칙에 입각하여 신성하게 준비하였다.

제는 제관과 축관, 별공양주 그리고 메공양주 4명만이 산제당에 올라가서 자정에 지내는데,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실과 시루떡, 포를 준비했다. 제는 제물을 진설하고 축을 읽는 순서로 지내는데,



〈마을을 관통하는 철길〉



〈청미산신제를 지냈던 청미마을 뒷산〉

제를 올릴 때 산제당에서 햇불을 올리면 집집마다 정성껏 준비한 것을 차리고 개별 기원을 하기도 했다. 소지는 제관, 축관, 벌공양주, 메공양주가 먼저 올린 후에, 나머지 동네 사람들은 한꺼번에 소지를 올렸다. 제를 지낸 후에 제관 일행이 마을로 내려오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음복을 하고 마을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제사 비용은 동네 어른이 먼저 성심껏 돈을 내어 준비한 후에, 마을 잔치를 하면서 고기를 집집마다 돌리면서 조금씩 추렴하여 충당하였다고 한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큰말 산신제는 1990년대 후반에 그만두면서 현재는 행해지고 않고 있다.

■ 청미 산신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청미 산신제도 청람리의 중요한 민속행사 중 하나였다. 청미 산신제는 청미마을을 감싸고 있는 운주산의 남쪽 끝자락인 동편산 골짜기에 해당하는 운주산에 대한 산신제였다.

매년 음력 10월 초사흘경에 마을 뒷산 봉우리인 시루봉에 있는 바위에서 산신제를 진행했다. 날짜를 먼저 정하고 축관과 제관은 식구 중에 부정 한 사람이 없으면서 생기복덕을 가려 일진이 좋은 사람을 선출하는데, 산제를 올리기 3일 전부터 금기사항을 지키며 주의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에 문간에는 황토 흙을 떠다 놓고 손님이 들어오

면 제가 끝나는 날까지 나갈 수 없으며, 주민 모두 비린 것을 먹지 않는다. 특히 제관과 축관은 술, 담배를 금하면서 외부 출입을 삼가며, 공양주 역시 생기복덕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장을 보게 되는데 절대로 값을 깎지 않고 샀다. 제물은 마을의 공금으로 준비하는데, 통돼지, 밤, 감, 대추, 북어포를 마련하되 꼭 교미를 한 적이 없는 수돼지 한 마리를 잡고 떡은 올리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다. 산제 당일이 되면 자정 무렵 축관과 제관이 산에 오르기 전에 벌공양주가 산제를 올릴 자리와 샘을 청소하고, 메공양주는 산제터에서 밥을 짓고 제물을 진설했다.

이 날은 제를 진행하는 네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산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산제를 시작할 때 산에서 햇불을 흔들어서 시작을 알리면 마을 주민들은 각자 자기집 마당 가운데 짚을 ‘十’자로 깔고, 가운데 물을 떠놓고 시루떡을 올리고 치성을 드렸다. 소지는 제관 → 축관 → 공양주 순으로 올리고 다른 주민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소지에 써서 태웠다. 마지막으로 산제가 끝나면 주민 모두 음식을 나누어 음복하며 마무리했다.

이런 청미마을의 소중한 민속행사는 청미마을 뒤편으로 4차선 도로가 생기는 과정에서 산줄기가 끊어지게 되면서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도로가 생기면 산줄기가 끊어지고, 산줄기가 끊어지게 되면 더 이상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격렬하게 반대

를 했다. 특히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길가에 앉아 반대하는 데모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결국 4차선 도로는 완공되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산신제가 중단된 이후로 청미마을에는 좋지 않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났다. 마을에 젊은이 4명이 사고와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마을의 우환은 산신의 노여움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5. 생활환경

■ 전군수 김영석의 공적

개미고개에는 전군수 김영석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공덕비의 뒤편에 적힌 비문에 의하면 김영석씨는 대전에 있을 때 이미 알뜰하기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한다. 김영석씨가 연기군에 부임하여서는 교통시설과 산업개발의 터전을 굳건히 닦았고, 새로운 생활문화의 창조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나 틈틈이 마을 곳곳을 찾아 주민들에게 삶의 의욕과 용기를 북돋아 여러 사람이 그의 벗이 되었다. 이러한 그의 노력덕분에 연기군은 부지런하고 정직한 생활을 기약할 수 있는 고을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특히나 많은 연기군민들이 김영석씨

를 칭찬하는 이유는 걸치레를 한다거나 자신의 업적을 치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김영석씨의 공적비는 연기군민들이 그의 이름을 오래오래 새기기 위하여 1975년 8월에 연기군민들이 직접 세운 비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 비문은 전남남대학교 수 지현영씨가 쓰고, 시인인 한성기가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 새마을지도자 김항식

큰말 앞에는 새마을지도자 김항식씨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공적비의 뒤편에 새겨진 글귀와 마을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새마을지도자 김항식씨의 공적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김항식씨는 1975년부터 청람리의 새마을지도자를 맡게 되면서, 어려운 사람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 뿐 아니라 새마을사업에 충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1970년대 후반에 청람리가 새마을사업 우수마을로 선정되게 되었고, 주민들이 공적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김항식씨는 마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마을 곳곳을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청소를 했고, 주민들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왔다. 새마을사업 이후에도 김항식씨는 마을의 문화복지시설확충과 소득증대에 노력을 기울여 청람리가 부자마을로 발돋움하게 하는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다. 주민 누구나 김항식씨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청람리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



〈전군수 김영석공덕비〉



〈새마을지도자 김항식공적비〉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이다.

■ 마을 행사는 청미마을만 따로

청람리는 여섯 개의 마을이 철로를 경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청미마을과 나머지 다섯 개의 마을이 따로 따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미마을은 정월대보름의 윷놀이를 시작으로 5월 어버이날 행사에는 함께 식사하고, 평소에도 마을회관에 자주 모여 식사를 하고 윷놀이를 하는 등 소소한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큰말, 도람말, 양지

말, 버드나무말, 동막골은 다함께 모여 정월대보름의 윷놀이, 어버이날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지리적으로 마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따로 진행했던 것이 이제는 굳어져 버렸다.

청람리의 여섯 개 마을이 모두 모이는 행사는 일년에 딱 두 번이다. ‘장자계’라고 하여 집안의 큰아들이 모여 12월 첫째주에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매년 12월 25일쯤에 청람회 총회를 실시한다.



〈축사〉



〈마을 앞에 넓게 펼쳐진 논〉



〈청람교〉



〈도움주신 분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이 영 석	68	남	농업	010-9415-1041 / 863-1041
이 남 선	79	남	농업	863-1052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248	124	124	94	70	24	145.12	59.50	38.68	39.67	7.27
특산물 : 복숭아, 표고버섯					축산물(두) : 한우, 돼지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	청미	안 호 민	18	010-5560-1549
2	큰말	이 정 노	20	010-5796-0209
3	도람말	이 상 관	11	018-404-1443
4	양지말, 버드나무말	박 종 배	8	011-451-5792
5	동막골	김 백 경	27	010-3418-1611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노 인 회	신 용 봉	부 녀 회	김 지 월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	393	420㎡	198㎡	1998	이장
청미마을회관	499-4	351㎡	92㎡	1998	이장
경로당	245-7	129㎡	57.6㎡	1983	이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방 오 근	75.1.1	80.3.1		7	김 정 진	97.1.20	01.1.30	
2	권 혁 문	80.3.1	88.3.1		8	김 학 도	01.1.30	05.1.31	
3	권 혁 문	88.3.1	91.1.15		9	김 학 도	05.1.31	07.1.8	
4	최 영 권	91.1.15	93.1.15		10	안 호 상	07.1.8	10.1.8	
5	이 영 석	93.1.16	95.1.16		11	안 호 상	10.1.8		
6	이 영 석	95.1.17	97.1.15						

청송1리

청송리의 2개 행정리 중 하나이다. 운주산에서 동남향한 산줄기의 남향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방에 조천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입수의 마을이다.
도청, 삼송정, 아랫배일, 안배일의 네 개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1. 마을개관

청송1리는 청송리의 2개 행정리 중 하나이다. 운주산에서 동남향한 산줄기의 남향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방에 조천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마을이다. 도청, 삼송정, 아랫배일, 안배일의 네 개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골짜기의 가장 안쪽인 안배일에서는 원삼국시대의 유물산포지가 발견되고 도청의 뒷산에도 백제시대 유물이 산포하고 있어 역사가 깊은 마을임을 알 수 있다. 남쪽의 아랫배일과 삼송정, 도청에는 조선시대에 입향한 안동권씨, 거창신씨, 전의이씨 등의 흔적이 전하며 그 후손들이 대대로 거주해 온 집성촌이었다.

수 천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에 좋은 전통마을이지만 현대에는 전동면의 그 어느 지역보다 큰 변화가 진행되는 곳이다.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철도가 조천천을 따라 마을 전방을 지나고 있고 아랫배일의 남쪽 들판에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대규모 공장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가 운주산의 터널을 통과하기위해 안배일과 아랫배일의 사이를 가로지르며 마을의 경관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안배일의 동편 골짜기에는 최근 '뒤옹박고을'이라는 '전통장류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2. 지명유래

조선 말엽엔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이었다. 2007년에 조사된 지명유래 자료에 의하면 이 곳에 예전부터 세 그루의 노송(老松)이 있어 이곳 사람들의 신앙(信仰) 대상(對像)으로 모셔졌으므로 '청송(靑松)'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나, 2010년의 현지조사에서는 나무를 위하는 전통에 대해서는 채록할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대치리(大峙里), 외배일리(外排一

里), 내배일리(內排一里), 도청리(都靑里), 삼송정리(三松亭里) 등을 병합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編入)되었는데 이때에 '도청'과 '삼송정'의 글자를 따 청송리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강당터 : 아랫배일 청룡 쪽에 있는 강당 터를 지칭함.
- 도둑골 : 골이 깊어서 이곳에 도둑들이 많이 살았다 하여 도둑골이라고 함.
- 도청(都靑) : 삼송정 남동쪽에 있는 큰 마을이다. 전의이씨(全義李氏)와 거창신씨(居昌愼氏)가 살면서 서로 의중계 모이는 도회청을 두었으므로 도청(都廳)이라 하였는데 일제 때 쉬운 글자를 취하여 도청(都靑)으로 변함.
- 뒤옹박골 : 지형이 뒤옹박처럼 둥그렇게 생긴.
- 망날골 : 회관 뒤쪽에 있는 고랑으로 옛날에 낭군과 이별을 하고서 여자가 이곳에서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다렸다 하여 망날골이라고 함.
- 멧뚝삼 : 논가운데 버드나무와 툼벙이 있었는데 툼벙까지 가는 길에 뚝이 있어서 멧뚝삼이라 불렀음. 지금은 없어짐.
- 모종 : 서당처럼 글을 배우는 곳으로 도청에 있었다 하며 1950년대에 없어짐.
- 박쥐굴 : 안배일 안쪽에 있는 동굴로 깊어 이곳에 명주실을 드리우면 한꾸러미가 모두 풀릴 만큼 그 깊이가 깊으며 불을 피우면 미곡리쪽으로 연기가 나온다고 함. 내부에 10미터 정도 사람이 들어갈만한데 굴 앞에 돌무더기가 길게 쌓여 있어 동네에서 공사를 할때면 이 돌을 가져다 쓰기도 하였음.
- 배일 : 운주산 남쪽 아래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학자 권주(權柱)가 임진왜란 때 의병 300명으로 금산(錦山) 싸움에 이르렀다가 순국하였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일본을 배척하는 의미에서 배일(排日)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지었다 한다. 뒷산이 높고 골이 아늑하므로 배일을 이곡(梨谷)이라 하였는데 정조때 학자 권복(權復)이

살면서 호를 이일(梨逸)이라 고침. 이곡(梨谷) 즉, 배나무가 많은 골이라 하여 그렇게 부름. 권복은 일본을 배이(梨)로 비유하여 일본을 멀리한다는 뜻으로 이일(梨逸)이라 하였음.

- 벼루모퉁이 : 도청이 동쪽에 있는 모퉁이로서 산이 벼랑으로 되어 있음.
- 벼루갯들 : 도청이 앞에 있는 들로서 벼루모퉁이가 있음.
- 벼룻재 : 전동면소재지에서 청송리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고개가 뽀족했는데 1970년대에 이것을 깎아내고 군도1호를 개설함.
- 부처지골 : 부처가 있었던 곳으로 절이 있었던 곳이라 하며 이곳에 옛 절터가 있음.
- 삼송정(三松亭) : 배일 남쪽에 있는 마을. 여기엔 세 그루의 소나무 정자가 있었다고 함.
- 순넘어 : 숨가쁘게 넘어간다는 고개.
- 숯골 : 도청이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서 숯가마가 있었음.
- 아랫배일(외이일 外梨逸) : 배일 아래, 곧 바깥쪽에 있는 마을.
- 안배일(내이일 內梨逸) : 배일 안쪽에 있는 마을.
- 이일동천비(梨逸洞天碑) : 아랫배일 입구에 있는 비(碑). 정조 때 학자 권복(權復)의 호를 이일(梨逸)이라 하고 마을 앞에 비를 세움.
- 화털구덩이 : 은골, 승지골 순으로 골이 있음. 이곳에서 횃돌이 나와서 '횃돌구덩이'라 하던 것



〈안배일과 운주산〉

이 '화털구덩이'가 됨.

■ 마을 경관의 변화

1970년대 새마을운동사업으로 동네 경관은 현대적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전까지 배일에는 권씨 10대 종가인 기와집과 초가집이 웅기종기 모여있는 형태였다. 초가집은 늘 화재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옛 사람들은 아랫배일에 연못을 만들었다. 이것은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 물을 모아둔 장소였다. 대부분 메워졌지만 지금도 일부 남아있다. 논 가운데에는 튼병과 버드나무 몇그루가 있었다. 나무줄기가 몇아름이 될 만큼 고목이었고 가지에 줄을 달아 그네를 뛰기도 하였는데 논 가운데에 있는 바람에 나뭇잎이 너무 많이 쌓인다는 불편함에 나무를 베어버리게 되었다. 나무를 베어낼때에도 일부는 고사된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경지정리 과정에서 그 흔적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3. 역사와 변천

■ 원삼국시대 사람들의 흔적

도청 마을의 뒷산 남향사면 중단부에서 원삼국시대의 유물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형 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진 터라 이곳에 무덤이 있었는지 주거지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주로 적갈색의 토기 조각만이 확인된다. 그 형태로 보아 원삼국시대부터 백제시대까지 제작된 토기로 추정된다.

도청에서 동북쪽에 위치한 경부고속철도 운주터널 부근에서는 원삼국~백제기로 편년되는 토기편과 조선시대 분청사기편 등이 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미 민묘와 양어장 등이 들어서 있어 지형이 완전히 변형된 것으로 보이며 유물 자체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유적의 성격을 추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안배일에도 같은 시대의 유물이 보인다. 운주산에서 뺏어내린 산줄기의 남향사면으로 유물이 수습되는 자리는 광범위하다. 지금은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어 어떤 유적이 존재했는지는 역시 확인하기 어렵지만 주변에 흩어져있는 토기편이 모두 원삼국~백제시대로 편년되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짚과 풀 등이 섞여있는 불 탄 흙덩어리가 함께 보이고 있어 아랫배일과는 다른 생활유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 세 성씨가 살아온 전통마을

배일과 삼송정에 안동권씨, 도청에 거창신씨와 전의이씨가 오랜 세월 마을을 지키며 살아왔다. 삼송정이란 지명은 소나무 세그루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세 성씨를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도청 마을은 '도회청'이란 말이 도청으로 변한 것이라 하는데 도회청은 거창신씨와 전의이씨에게서 함께 모여 회의를 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곳은 신재궁씨의 사랑채였고 1950년대 이전까지도 그 전통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한때 각 마을은 집성촌으로 일가친척이 이웃이 되어 살아왔지만 현대에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고 새로운 성씨가 이주하면서 각성반이 마을이 되었다. 아랫배일에 안동권씨가 여덟가구가 살고 있는 정도이다.



〈도청〉

■ 배일마을의 안동권씨 재간공파

안동권씨는 전동면의 대표적인 전통성씨 중 하나이다. 1400년대에 노장리에 터를 잡은 이후 그 후손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중 권주(權柱)의 다섯 아들 중 넷째 아들 권기가 청송리 배일에 입향하면서 청송리에 안동권씨 집성촌이 형성되게 되었다. '배일'이란 지명유래를 보면 권주(權柱)가 임진왜란 때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후 동네 사람들이 일본을 배척한다는 의미로 '배일(排日)'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정조대의 인물인 권부가 이곳에 살면서 호(號)를 '이일(梨逸)'이라 고쳤고, 뒷산 골짜기가 아늑하여 배일을 '이곡(梨谷)'이라 하였다는 이야기로 보면 '일본을 배척한다는 의미'는 훗날에 가공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아랫배일에는 '이일동천비(梨逸洞天碑)'가 있다.



〈이일동천비〉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로는 500여년전에 안동권씨 가문에 아들이 귀하여 가계를 잇기가 어렵게 되자 집안의 터전을 떠나 아예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면 자손이 번성할 것이란 얘기가 있어서 지금의 전동면 상노장으로 입향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 삼송정 유래 및 이야기

삼송정은 조선시대 중반 안동권씨 시은공 권기(사헌부지평 제수를 받았으나 부임하지 않았음)가 당쟁을 피해 낙향한 곳이며 그 후 자손들이 세거하면서 집성촌이 되었다. 당시 마을 입구에는 소나무 세 그루가 있어서 권기는 이곳에 정자를 짓고 자주 머물며 서울로 과거를 보러가는 영호남 선비들이 머물때에 시문을 문답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세 그루 소나무가 있는 정자 라는 뜻의 삼송정이란 마을 이름이 생겨났다.

현재 노송은 모두 고사하였고 그 옆에 다시 어린 소나무가 자라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주민들은 이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이라 여기며 삼송신이라 칭하고 목신으로 경배를 올린다. (글 권도형 제공)



〈삼송정 전경〉



〈삼송정 마을 안〉

■ 안동권씨

전동면의 안동권씨 입향조는 권주(權柱)로 알려져 있다. 전의현의 사찬읍지인 『전성지(全城誌)』(1854년 편찬)의 절의 인물조에는 권주의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권주는 양촌 권근의 9세 손이며 안동권씨 24세손으로 참봉 벼슬을 지내며 효로서 아버이를 섬기고 검소하게 집안을 다스렸다. 그리고 항상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바칠 뜻을 품었는데 임진왜란때에 판서 이성중(李誠中)이 왜적의 세력이 강하여 군량을 수송할 길이 없다고 하자 8백곡(斛; 곡식 10말의 용량을 뜻함)의 곡식을 내 놓고 직접 수송하였다. 그의 서손(庶孫)인 권전(權全)·권건(權健) 형제는 병자호란 때에 창의군으로 적과 싸워 전사하니 훌륭한 조부에 훌륭한 손자라 극찬하였다.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대대로 살았던 권주가 어떤 인연으로 전동면지역에 자리잡았는지는 상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전설에는 노장리에 입향할때에 갈대가 우거진 곳에서 우거하였다고 하나 완전히 낮은 땅에 정착하였을 리가 없으므로 그의 가족관계를 추적하여 입향사적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처는 상산박씨 박옹(朴顛)의 딸이었고 아들인 권영(權英)은 전의이씨와 혼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동면 일대에서 상산박씨의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전의이씨는 다르다. 전의이씨는 전의현의 토성이며 조선 전시기를 걸쳐 전의현 일대에서 세거한 성씨로 전의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던 대성이었다. 따라서 권주의 가족관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권주의 며느리인 전의이씨라 할 수 있다. 즉, 전의이씨가와의 혼인을 인연으로 전동면 지역에 입향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권영의 아들 권일(權僉)의 묘가 노장리에 있으며 권일의 아들 권탁(權擢)대에 청송리와의 관련성이 처음 보인다. 권탁의 묘 역시 노장리에 있지만 그의 처 한양조씨(趙洽의 딸)의 묘는 청송리에 조성된 것이다. 그후 대대로 주로 노장리에 세거하였

으나 권휴(權休)의 묘를 청송리에 쓴 후에 그 자손들이 청송리에서 세거한 것이 확인된다. 권국정은 전성지 인물조에 “가정이 어려웠지만 학문을 좋아하고 지극한 효성으로 봉친하였다. 그래서 세상사람들이 칭찬하여 말하기를 학문은 넓고 높으며 지조는 맑고 아름답다 하였다. 자, 손, 증손, 현손의 5대가 한집에 같이 살아서 세상에서 ‘적선지가(積善之家)’라 칭송하였다.” 라 기록되어 있다. 권국정의 아들 권부(1782~?)는 1832년 대흥년으로 사람들이 굶주리자 곡식을 풀어 구제하였고 그때 이를 감사히 여긴인들이 동네 입구에 비석을 세워 주었다 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면 권부때에 집안이 큰 부를 축적한듯 하며 청송리에 세워진 비석이 이때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 권참봉댁

전동면의 면소재지의 이동과정을 살펴보면 1920년 이전에 면사무소가 처음 건립되었던 곳은 미곡리였다. 그런데 미곡리에 면사무소가 들어서기 전, 면의 여러 가지 행정 사무를 보던 곳은 청송리라는 기록이 보인다. 전동면 주민들은 청송리의 권참봉댁이 바로 그 자리였다고 지목하는데 권참봉댁은 바로 청송리 아랫배일에 있는 고택이다. 조선후기의 면 행정이란 것은 각 면의 면임(面任)이 맡아 보았는데 면임은 임명되어 부임하는 직책이 아니었고 조선후기에는 대체로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



〈권참봉 고택〉

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면임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면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아랫배일의 권씨가 종손이었던 권영기(權榮基, 1878~1943)가 참봉벼슬을 지냈는데 한일조약이 체결되면서 일제의 식민지가 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아랫배일에서 말년을 보냈다. 족보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수천석 부자였지만 늘 검소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의 생전에는 고택 앞이 늘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집안은 큰 타격을 받았는데 대토지의 대부분을 모두 분할당하였고 그와 함께 가세가 크게 기울고 말았던 것이다. 위풍당당한 모습을 뽐내던 수십칸의 기와집도 권영기의 아들인 권처상(權處祥, 1900~?)대 이후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결국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집채가 허물어지고 말았다.

■ 2백평 소류지

청송리 앞들의 넓은 농경지를 소유했던 권씨집 안에서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1900년대 초에 마을 안 고랑에 작은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하여 논 3마지를 팔아 저수지 부지의 땅 2백평 가량을 사들인 후 소류지를 조성하였는데 이 물이 청송리 앞들을 적셔주어 벼농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최근 지하수가 개발되면서 이 소류지는 소용이 없게 되어 문중에서는 체험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구상 중에 있다.

■ 일제강점기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은 한반도 백성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었다. 집요한 공출로 먹고살기가 여간 힘들게 아니었다. 일제의 관리들은 없는 사람에게서 호독하였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은근한 협박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는 악랄한 존재들이었



〈도청과 삼송정〉

다. 당시 마을의 구장을 맡았던 사람들은 일본인 관리인 면장보다 힘이 더 세다고 할 만큼 주민들에게 군림하여 구장에게 밭보였다가 고초를 겪는 일이 다반사였다. 권처은씨의 부친 권혁봉씨는 대쪽 같은 성품으로 유명했던 인물로 동네에서 못된 짓을 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불러 호통을 칠 정도였다. 어느날 마을에서 설치대는 구장에게 쓴 소리를 하였다가 징용자 명단에 오르게 되어 보급대로 일본에 끌려가게 되었다. 일본의 탄광에서 죽을 고생을 하던 끝에 8·15 광복 후 귀국하였는데 히로시마 원폭의 피해를 입어 귀국후에도 평생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생을 하다 임종하였다. 권처은씨 가족은 부친의 무사귀국만으로도 감사하며 수십년간 병수발을 하였다.

■ 6.25 한국전쟁

1950년 7월 초 어느날 부영이가 몇일 밤 계속 마을 입구의 소나무에 올라가 울어댄 일이 있었다. 사람들은 마을 가운데 큰 마당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아랫마을에 사는 구장 신제청씨가 뛰어와 삼팔선이 터졌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우왕좌왕하는데 마을 어른이 문득 저 부영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부~이 부~이'라고 들리니 부

이는 즉 아닐 부(不)와 옮길 이(移)라는 것으로 피난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사람들은 과연 부영이가 우는 소리가 그리 들린다면서 영물인 부영이가 무엇을 암시하는게 아니겠는가 싶어 멀리 피난할 계획을 그만두었다. 뒷산에 숨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동네로 돌아와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겼다. 미군 공군기가 벼룻재 모퉁이에 폭격을 퍼부어 주민들이 크게 놀라 대피한 일이 있었지만 피해입은 사람은 없었다.

부영이가 울던 소나무는 수명을 다하여 고사하였고 그 자리에서 50m 정도 거리에 소나무 굴참나무 잡목이 우거졌던 서낭당터에는 공교롭게도 소나무 세그루만 남아 삼송정의 명성을 지켜주고 있다. (글 권도형 제공)

■ 전쟁 중의 일화

주민들 중에는 피난을 떠난 사람도 있었다. 어느 가족은 북한군의 남침을 피해 열심히 남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미 북한군이 도착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것도 하필 피난처가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였던 바람에 피난민들은 산 속으로 숨어들었다. 밤새 총격전이 벌어지는 틈에서 이산 저산으로 도망다니다 결국 다시 동네로 돌아오게 되었

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보는 이들이 놀랐지만 그것은 다행히도 산속에서 나뭇가지에 다친 상처였다.

어떤 이들은 가까운 노장리로 몸을 숨겼다. 위태로운 목숨을 당장은 숨길 수 있었지만 산속에서의 굶주림은 더욱 무서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집에 있는 닭과 돼지라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을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길목에서 군인들의 저지로 다시 되돌아 가야했다. 동네가 안정을 되찾은 후 집에 와보니 이미 가족은 모두 사라진 뒤였다. 군인들이 식량삼아 잡아먹은 것이었다.

전쟁 무렵 인공시절에는 수확량을 산정해 세금을 받아가겠다고 관리가 마을에 들어와 조 이삭을 하나씩 세었다가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일도 있었다. 주민중에는 전쟁 중에 흘러들어온 총기를 가지고 있다가 오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다.

4. 전통민속

■ 서낭당과 옛길

청송리에서 봉대리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서낭당이 있었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과 주민들은 이곳에서 치성을 드리곤 하였는데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면서 서낭당은 없어지고 말았다.

한편, 생활권은 조치원 읍내였다. 조치원장까지 20리 거리를 걸어다녔고 학교도 조치원의 중·고등학교로 통학한다.

■ 최고의 협동심

현재 마을이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의지 덕분이다. 만약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1970년대의 새마을 사업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이 모두 함께 전동면 사무소로부터 철근과 시멘트를 얻어 직접 이고지고 돌아와 다리를 만들고 길을 넓히며 지붕을 개량하였다. 이 무렵이 인구도 가장 많을 때였다. 지금 청송1리의 총 가구수가 71호에 불과하지만 이때에는 아랫배일에만 37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 삼송정 산신제

1980년대 초까지 삼송정 뒷산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당집은 없었고 지표상에 단을 만들어 제단을 조성하였다. 이 산신제는 삼송정 사람들만 참여하는데 동계와 상관없이 별도로 추렴하여 비용을 마련한다. 미리 선출된 제관과 축관은 3일간 부정을 금하며 산제당샘에서 목욕하고 산제를 준비하며 주민들도 부정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1950년 한국전쟁 무렵에 군청직원이었던 권모씨가 산신제를 미신이라 하며 그릇을 깨뜨렸는데 그해에 불미스러운 사고사를 당하고 말았다. 이 일이 혹시 산신을 거스른 탓이 아니겠냐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그렇게 주민들이 정성을 들였던 산신제는 1980년대 초부터 중단되었다. 인구가 줄어들고 산신제의 효험을 믿지 않게 되면서 부터였다.

한편, 각 마을에서는 공동 샘에서 유왕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정월대보름날 풍물을 치며 함께 치성을 드리고 음복하였다. 현대에 들어 지하수 관정 공사를 하고 공동샘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제의는 막을 내렸다.

■ 동계운영과 행정구역의 구분

청송리가 1,2리로 나뉘게 된 것은 1987년경이었다. 하나의 행정리였을때에도 동계는 따로 운영하였다. 동계를 따로 하니 상여와 혼구도 각각의 동계에서 관리하였고, 사시사철 절기별로 벌어지

는 행사 또한 각 동계에서 관여하였다. 다만 이장은 한사람이 맡았고 개발위원과 지도자 등이 공동으로 일을 맡아보았다.

5. 생활환경

■ 효심경영 뒤옹박식품

안배일 마을의 동편에는 ‘뒤옹박고을’이란 식품 회사가 자리잡고 있다. 보통의 식품공장이나 회사와 달리 각종 체험 시설이 꾸며져 있어 전동면의 관광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생산품은 전통 장류로 된장, 집장, 간장이 주요 품목이다.

뒤옹박고을이 청송리에 자리잡게 된데에는 주민 권처은씨와 뒤옹박식품의 창업자 손동욱씨의 인연때문이었다. 손동욱씨는 원래 공주 출신으로 경기도 시화공단에서 사업을 하던 인물이다. 그런



〈아랫배일〉

데 우연한 기회에 권처은씨와 교류하게 되면서 청송리 부지를 소개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오늘날의 식품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손동욱씨의 경영방침은 남다르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그리움을 담아 어머니가 손수 만들던 된장과 간장의 맛을 되살리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뒤옹박고을의 대문을 들어서면 이러한 창업자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진다. 곳곳에 다듬은 바윗돌을 세우고 효심을 노래하는 시를 새겨



〈뒤옹박 식품〉

두었으며, 모정(母情)을 상징하는 석재 조형물을 배치하였다. 어른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차를 타고 가는 길이라도 지나는 동네 어른을 보면 반드시 하차하고 인사를 드리며 안부를 묻곤 하여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안배일에 뒤옹박식품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손동옥씨는 주민들을 위하여 마을회관의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청송리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모두 비싼값에 사들이고 있다.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매수되기 때문에 가계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회사에서 일손이 필요할때마다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어 소득수준도 높아졌다. 여전히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가구에서 적극적으로 콩 재배에 참여하고 있다. 뒤옹박식품에서 소모하는 콩은 연간 100가마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다.

■ 연기군의 첫 번째 ‘장수마을’

연기군에서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을 유도해 건전한 장수문화를 정립하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기농업기술센터의 주관으로 2005년부터 장수마을을 선정하고 있다. 이 사업의 첫 번째 대상마을이 바로 청송1리이다.[동면 예양1리(2006년), 금남면 영곡1리(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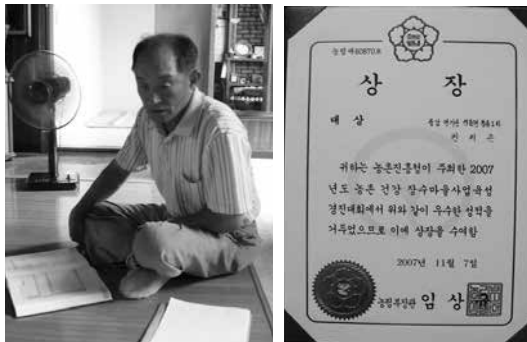
장수마을사업은 ‘농촌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

을 활용하여 농촌현장에서 활동하는 건강한 노인의 브랜드 창조를 통해 당당하고 보람 있는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하며 은퇴한 도시민과 더불어 새로운 장수문화를 정립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연기군에서는 3년간 사업비를 지원해 농촌의 노인에게 공동일감을 제공하고 무형 자원을 소득자원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송1리가 장수마을로 선정되는데에는 당시 이장을 맡았던 권구용씨와 뒤옹박식품의 손동옥사장의 역할이 컸다.

장수마을이 되면서 연기군의 지원금을 받게 되자 지금까지 마을기금이 거의 없던 청송1리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주민이 힘을 모아 운주산 등산로를 개설하고 초겨울에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동네 입구에 원두막 쉼터를 직접 만들었다. 도로변에는 무궁화와 코스모스를 심어 꽃길을 만들고 징, 팽과리, 북, 장구 등을 구입해 함께 풍물을 배우고 등산장비를 마련하여 주민이 함께 등산을 다닌다. 이러한 활동은 연기군에서 기대한 바를 뛰어넘는 성과였다. 2007년에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사업육성 경진대회’에서 주민 권처은씨가 사례를 발표하여 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 녹색농촌체험마을 ‘청솔마을’

장수마을의 선정과 운영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주민들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선정에도 참여하였다. 충청남도의 엄정한 심사평가를 받았고 2008년



〈권처은씨와 농촌진흥청에서 발급한 대상 상장〉



〈마을입구〉

1월에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농촌체험과 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의 관광과는 차별화된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체험마을로 선정되면 체험농장, 캠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마을 경관을 정비하며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체험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청송1리는 이런 점에서 매우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전통마을로서 마을의 뒷산으로 역사가 깊은 운주산성이 있으며, 청송리 사람들에게 전해져오는 민속적 전통도 살아있다. 이중에 특화한 것이 ‘고산제’, ‘덩덕쿵풍물패’, ‘청송리 지신밧기’이다. 덩덕쿵 풍물패는 청송1리 어르신들이 모여 결성한 풍물패로 2007년에 도내경연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기도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에 현대식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한 것도 놀라운 일이다. 전통장류테마공원인 뒤옹박고을을 비롯해 농경체험이 가능한 가와농장이 있고 장수마을로 선정되면서 그 기금으로 조성한 운주산성 등산로는 자연생태 탐방로와 산림욕 산책로로 더할나위 없이 좋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청송약수터와 초정리약수터 또한 연기군에서 손꼽히는 약수로 유명하다.

이와같은 유무형의 자원을 기반으로 청송리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되었고 ‘청솔마을’이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 고속철도가 통과하다.

1992년 고속철도의 노선이 확정되고 청송1리의 넓은 골짜기 사이에 고속철도가 지나게 되었다. 이른바 ‘운주산터널’은 천안~대전 구간중 가장 긴 터널이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1994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철도〉

년 7월에 김영삼대통령이 운주산터널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찰하기도 하였다. 2년 4개월간의 공사 끝에 1995년 3월 15일에 관통되어 관통식이 열렸다. 공사비가 430억원이 소요된 대역사였다.

아랫배일과 안배일 사이를 가로지르는 고속철도는 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소음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농토 소유자들에게는 큰 손해를 안겼지만 국책사업인지라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없이 땅을 팔 수 밖에 없었다. 두 마을을 연결시키는 것은 작은 굴다리 뿐이다. 버스가 통행할 만큼의 규모가 되기는 하지만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루에 수차례 지나는 고속철도의 소음도 대단하다.

마을 남쪽으로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고 마을의 중앙은 고속철도가 관통하니 이래저래 기차 지나 는 굉음에 괴로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마을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지는 않았다. 운주산에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운주산 아래로 물이 흐르기 시작하였는데, 암반수여서 그런지 수질검사 결과 1급수 판정을 받았다. 이 물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업용수 부족 문제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때 터널을 뚫으면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자갈이 주변에 쌓였는데 이것을 치우며 동시에 마을 앞 들의 경지정리까지 진행하였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권 처 은	70	남	농업	863-1370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255	146	109	90	77	13	137.52	36.36	21.49	79.34	0.33
특산물 : 복숭아, 산양삼, 콩					축산물(두) : 한우, 양봉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	도청	신 용 명	37	863-1595
2	삼송정	이 용 분	40	863-1379
3	배일	김 춘 옥	34	863-1019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이 장	권 구 호	노 인 회	오 청 치
동 계	권 처 은	부 녀 회	박 영 순
새 마을 지도 자	이 용 태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	63-1	273㎡	165.1㎡(2층)	1994	이장
청솔관(체험관)	11-3	395	141.12㎡	2009	유승규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이 현	75.7.1	81.1.14		9	권 처 은	96.1.29	98.1.30	
2	권 처 상	81.1.15	84.1.31		10	권 구 호	98.1.30	00.1.27	
3	신 양 재	84.2.1	86.2.6		11	권 용 복	00.1.28	04.1.25	
4	구 분 웅	86.2.6	87.5.1		12	권 구 용	04.1.26	06.1.26	
5	권 처 은	87.5.1	89.5.1		13	권 처 은	06.1.26	08.2.1	
6	권 처 은	89.5.1	91.1.23		14	권 구 호	08.2.1	11.2.1	
7	장 우 순	91.1.24	93.1.25		15	권 구 호	11.2.1		
8	장 우 순	93.1.25	96.1.27						

청송2리

청송2리는 운주산에서 남향하는 산줄기가 마을의 좌우를 감싸고
전방에 조천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마을이다. 산이 높고 '계곡이 10리길'이라 할 만큼 골이 깊어
오랜 세월 계단식 논을 일군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1. 마을개관

청송2리는 운주산에서 남향하는 산줄기가 마을의 좌우를 감싸고 전방에 조천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마을이다. 산이 높고 ‘계곡이 10리길’이라 할 만큼 골이 깊어 오랜 세월 계단식 논을 일군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골짜기 마다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들판을 가운데 두고 시계방향으로 대재, 안말, 섭장골의 큰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청송2리의 주변은 배일, 남포, 석곡, 봉대리 마을과 연결된다.

운주산은 충청남도에서 손꼽히는 높은 산지로 높이가 460m에 이른다. 마을이 높고 험한 산 아래에 있는데다 좌우의 산줄기가 끝나는 부분은 바로 조천천에 이어져 농경지는 마을 안의 들판 뿐이며 개간할 만한 공간이 없다. 이런 자연환경 때문인지 유력한 성씨가 대를 이어 세거한 집성촌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불과 100년전까지도 산짐승의 피해가 심한 동네였고, 이를 이겨내기 위한 산짐승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

현대에 들어서는 개발사업의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조천천을 따라 철길이 놓였고, 마을 입구에 수자원공사가 들어서게 되어 공사 소유의 토지가 늘어남에 따라 농사를 그만두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늘었다. 마을 뒷산의 지하로 고속철도 터널이 조성되었는데, 이 공사 후에 청송2리로 흐르던 물길이 뚝 끊겼다.

2. 지명유래

조선 말엽엔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이었다. 2007년에 조사된 지명유래 자료에 의하면 ‘청송리’라는 지명은 청송1리의 자연마을 이름인 삼송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되어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의 조사에는 청송리를 구성하는 마을이 대치리(大峙里), 외배일리(外排

一里), 내배일리(內排一里), 도청리(都靑里), 삼송정리(三松亭里) 등 5개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청송2리에 해당하는 마을은 대치리 하나뿐임을 알 수 있다. 대치리에 대한 기록은 1700년대에 편찬된 지리지인 여지도서에 동면의 4개리 중 하나로 나타난다. 당시 편호가 89호, 인구는 382명에 이른 것으로 되어있어 현재의 대재가 즉 조선시대의 ‘대치리’라기 보다는 청송2리의 여러 마을 중 대치리가 이 골짜기를 대표하는 지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고장골 : 운주산에서 제일 깊은 골이며 ‘꼬장골’이라고도 함. 골이 매우 길다는 의미임.
- 공산 : 박산 옆의 산을 공산이라 하는데 공동산이라 하여 공산이라고 부름. 지금은 모두 개인에게 불하되었는데 산주는 서울 사람임.
- 남문턱 : 공산 위의 운주산성의 남문.
- 너덕골 : 보도막과 안말 사이의 골로 예전에는 ‘덕대골’이었는데 발음상 너덕골로 변하여 불림. 어린아이가 죽으면 그 시신을 풍장하던 골짜기였음.
- 대내미고개 : ‘십리고개’, ‘되넘이고개’라고도 하며 안말에서 운주산 너머 목천(수신면)으로 이어짐. 동네에서 고개까지 10리라 함.
- 대재 : 아랫배일 서북쪽에 있는 마을. 서쪽에 큰 고개가 있다 해서 큰 재라는 뜻에서 대재, 대터라고 부르며 또한 대자라고도 부름.
- 둥구나무 : 서당골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1980년도쯤 고사했음.
- 망난골 : 회관 뒤쪽에 있는 고랑으로 옛날에 낭군과 이별을 하고서 여자가 이곳에서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다렸다 하여 망난골이라고 함.
- 박산 : 너덕골 옆에 있는 산으로 박씨네 산이라 하여 ‘박산’이나 ‘박씨네 산’이라고 함. 밀양박씨가는 모두 충북지역으로 이주하여 지금은 박씨가 살지 않음.
- 벼락바위 : 너덕골로 올라가면 바위가 있는데

벼락을 맞아서 반이 갈라져 있다하여 벼락바위라고 함. 박씨산 입구에 해당함.

- 병막바위 : 운주산에 있는 바위로 바위 3개가 있어 삼형제 바위라고도 부르며 옛날에 군인이 이곳에 막을 짓고 보초 서던 바위라 함.
- 보도막 : 서당골과 안말 사이에 있음. 운주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속개울에 보를 막았는데 이 옆의 토지를 보도막이라 함. 수자원공사토지로 매입되어 지금은 없어짐.
- 산제당 : 박산 옆에 있는 산으로 산제를 지내는 산이며 마을의 경계임.
- 새뜸 : 새가 떨어져 있다하여 새뜸이라 부름.
- 서당골뫼산 : 개미고개가 있는 골짜기.
- 섭장골 : 자연부락중의 하나.
- 섭장골안골 : 섭장골의 뒷 고랑.
- 속개울 : 마을 앞에 흐르는 개울로 가운데로 내려갔다 하여 속개울이라고 불림.
- 송정이고개 : 섭장골에서 자루맥으로 넘어가는 고개.
- 안골 : 서당골 뒤쪽의 골.
- 안말앞들 : 안말의 남쪽 전방의 들.
- 자루맥 : 길의 이름.
- 점골 : 깊은골 좌측에 있는 고랑. 그릇을 구었던 곳이라 하며 이곳에서 토기가 나옴.
- 주막골 : 마을 입구의 서쪽 산 아래. 주막이 있었는데 10여년전 쯤 없어짐.
- 청당(靑堂)골 : 안말 서쪽에 있는 마을.
- 황새바위 : 이 바위에 황새가 많이 앉아있다 하여 황새바위라 부른다고 하며, 송정이라는 고개에 있음. 섭장골 입구에 해당함.

■ 심리 골짜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청송2리를 종단하여 흐르는 속개울은 운주산 깊은 골짜기에서 발원해 흘러 내린다. 골짜기가 어찌나 깊은지 10리나 된다는 말이 있었다. 이곳에서 흐르는 물은 수질이 좋아 청송2리 사람들의 식수



〈속개울〉

원이며 농업용수였다. 동네 곳곳에 우물과 샘도 많아 가물이 들어도 물 마르는 날이 없어서 물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없다.

■ 대재

대재마을은 ‘대치’라고도 하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청송2리 지역의 대표지명을 갖고 있는 마을이다. 말 그대로 ‘큰 고개’란 뜻이다. 마을에서는 대치를 ‘대좌’라 부르다 ‘대자’에서 ‘대재’로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 고개가 청람리 개미고개와 연결되는 곳이며 한국전쟁 때 미군 700여 명이 죽었다는 비운의 장소이기도 하다. 마을 입구의 서편에 위치한 동향 마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도 하다. 뒷 골짜기는 서당골이라 하였는데 서당이 있었던 자리로 보인다. 사람이 많이 사는 자리에 교육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당연



〈대재마을 입구의 장승〉



〈대재마을〉



〈대재마을의 옛 마을회관〉

한 일이었을 것이다. 대재로 들어오는 길목이 주막 골인 것도 이곳을 왕래하는 이들이 많았음을 보여 준다. 지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들어와 마을의 경관은 완전히 바뀌었고, 동네를 전망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한편, 대재 입구에는 개성있는 모습의 장승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이 장승은 최근 마을 조경을 위하여 조성한 것이다.

■ 마을 입구에 늘어서 있던 나무숲

청송2리로 들어가는 골짜기의 입구는 폭이 100m가 조금 넘는다. 속개울과 조천천이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일대는 잡목이 우거져 있어 작은 숲이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고, 큰 길에서 마을이 훤히 보이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런데 1970

년대에 하천정비 사업을 벌이면서 모두 없애버렸다. 이때 속개울 주변에 독을 정비해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속개울 일대의 아름다운 경관은 예전같지 않다. 특히 마을입구의 동쪽 산등성이를 깎아내 석재를 채취하고 있어 산줄기가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3. 역사와 변천

■ 운주산성(雲住山城)

운주산성은 운주산에 넓게 걸쳐있는 통일신라 시대 관방유적이다. 전의면 노곡리와 청송리 사이에 해당하지만 그 주소지는 청송리 산1-1번지로 되어있으며 청송2리에 속한다.

운주산은 조선 초기의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의현 산천조에는 전의현 관아로부터 남쪽으로 7리 떨어진 곳으로 되어있고, 고적조에는 금이성이 운주산에 있다 하여 운주산에 있는 산성이 금이성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지리지 『대동지지』에는 운주산이 ‘고산(高山)’이라 불리우기도 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고산산성’이 별도로 등장하므로 오늘날의 운주산성은 즉 고산산성으로도 불리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백제부흥운동이 벌어진 주류성이란 설이 있지만 백제 주류성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도 학계에서 논란이 있으므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운주산성에서 조사된 유물을 통해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랜 시기에 걸쳐있어 장기간 기능했던 산성임을 알 수 있다. 1989년 12월 29일에 충청남도 기념물 79호로 지정되었다.

■ 성씨

현재 거주자들의 성씨는 안동권씨(7호, 16명), 능성구씨(4호, 11명), 경주김씨(4호, 10명), 경주이씨(6호, 14명), 청주한씨(3호, 7명), 부안임씨(2호, 6명) 등이다. 전통적으로 안동권씨와 능성구씨가 많이 살았다. 안동권씨는 이웃한 아랫배일의 집성촌에서 분가해 입향하였다.

■ 늑대와 호랑이가 흔했던 시절

마을 뒷산인 운주산은 골이 깊고 높으며 험한 산이다. 불과 50~70여년 전까지만해도 산짐승이 들끓어서 동네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 100여년 전에는 호랑이도 흔했고, 늑대와 여우는 동네 개처럼 많았다. 산짐승이 가축을 물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도 물려 죽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 중에는 늑대나 여우 무리가 내려와 소를 죽이는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과거에는 호환(虎患)이 무서운 재해였으므로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던 전통이 이어져 왔다.

일제강점기부터 맹수를 없앤다고 고기덩어리에 독을 넣어 미끼로 쓰고 마구잡이로 사냥을 벌이면서 우리 땅에서 더 이상 여우, 늑대, 호랑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 햇불을 들고 독립을 외치다

1919년 서울에서 시작된 3·1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독립만세운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되었는데 충청 지방에서는 밤에 산에 올라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햇불시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양상이었다. 청송리에서도 햇불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 한영수씨는 동림산에 사람들이 몰려가 햇불을 지피고 만세운동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다.

■ 일본인들의 흔적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체제 속에서 전동면 사람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말할 수가 없었다. 당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마을 앞으로 군도1호가 지나고 철도가 놓이면서 사람들이 이곳에 동원되어 노역을 해야만 했다. 공출도 심하여 굶주리는 날이 더 많을 정도였다. 보통사람들은 징용을 피하려고 마을의 반장이라도 맡으려고 애를 썼다. 그래야 징용대상자에서 본인과 가족 이름을 지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은 한반도에서 금맥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었다. 충청남도 일대의 암반에는 금줄기가 지나고 있었으므로 곳곳에서 금광산이 만들어져 산을 파헤쳤던 흔적이 남아있다. 운주산 일대에도 금맥에 대한 소문이 있기는 했지만, 전동면 지역에 금광은 없었다. 다만 사금을 캐던 소규모 금공장이 많아서 겨울철 농한기에는 동네사람들이 사금을 구하는데에 동원되어 일하고 품삯을 받곤 하였다.

한편, 일본인들이 토지를 사들여 농산물을 거둬가기도 하였는데, 청송2리에 한 일본인이 논가운데에 토광을 만들어 물을 가뭇둔 적이 있었다. 이 물로 주변의 논을 적셨던 기억이 있다.

광복 무렵이었던 병인년의 장마는 전동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엄청난 자연재해였다. 당

시 조천천의 둑이 터지면서 마을 안쪽까지 물이 넘치며 가옥이 침수되는 일이 있었다. 그 때 이후로 심한 홍수는 없었다.

■ 힘든 등교길

일제강점기에 초등교육을 배웠던 주민 한영수씨는 노장리에 있던 학교를 다녔다. 식민지시대였지만 다행히 교사들 대부분이 한국인이었고 교장은 일본인이었다. 졸업 후에는 대전으로 통학하였다. 전동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 됐지만, 제시간에 등교하려면 새벽 4시에는 집을 나서야 했다. 그러던 중 학교를 1년도 채 못다녔을때에 한국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철도는 파손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기차가 다니지 못하여 중학교는 조치원으로 다니게 되었다. 30리를 걸어 조치원읍내까지 가야했는데 오가는 길은 늘 허기진 길이었고 길가에서 이런저런 열매를 따 먹던 기억이 생생하다.

■ 한국전쟁

전쟁 중에도 마을은 조용한 편이었다. 안동권씨와 능성구씨가 많이 살았고 서로 친인척 관계였던 데다 워낙 인심좋은 동네라서 이웃간에 원한을 살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군도1호를 따라 이동하던 군인들이 동네를 들락거리는 바람에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을 뿐이다. 북한군이 주둔했다 떠난 일도 있었고 미군의 폭격으로 논이 패어버리기도 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 새마을운동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 모습은 현대화되었다. 마을 안길이 개통되어 이동이 편리해졌고, 차가 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속개울도 정비되었다.

4. 전통민속

■ 대동계

서당골, 섭장골, 안말 세동네 사람들이 대동계를 운영했다. 청송리가 1,2리로 분구되기 전에도 동계는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다보니 상여가 없던 청송2리에서 1리의 상여를 쓸때에는 빌려쓰는 형식이었다. 동계는 다른데 하나의 행정리로 운영되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결국 청송리는 두개의 행정리로 분리되었다.

청송2리 대동계는 한국전쟁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새롭게 정비된 대동계를 뜻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동계는 있었다. 주민들이 기억하기로는 광복 전에는 '연반계'라 불렀다고 한다.

현대적인 청송2리 대동계는 계장과 총무,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지금까지 한영수씨가 20여년간 동계장을 맡아 일을 보았고, 2010년 현재 김정국씨가 동계장이다. 매년 12월에 쌀 한두말씩을 걷어 동계비용으로 쓰는데 그것이 많지 않아 지금까지 적절한 공동기금의 액수는 적은 편이다. 이 기금으로 마을 상수도 공사 등 공공 사업에 보탠다. 세 마을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동계 회원이 되고 계칙을 위반하거나 이사를 갈때에는 탈퇴하게 된다. 계칙위반이라는 것은 동네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동계에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하였거나 하는 등의 일을 뜻한다.

매년 양력 1월과 10월 두차례 대동회를 개최한다. 특히 상반기인 1월 5일의 동계는 결산보고가 있는 날이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동회에서는 마을 대소사를 의논하고 뒷풀이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율놀이를 하거나 풍장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대동회 외에 주민이 모두 모이는 날은 많지 않다. 부녀회에서 1년에 2~3회 정도 식사대접을 하면 동네 어른들이 모이는 정도이다.

■ 산신제

오랜 세월 산짐승들의 피해에 시달렸던 주민들은 산신제를 지냈다. 삼형제바위 아래 옷나무가 자라던 곳에 단을 만들고 매년 음력 10월에 제를 올렸다. 젃날은 추수가 다 끝난 후 먹을 거리가 풍요로운 시기였다. 세 동네에서 추렴을 하여 비용을 준비하고, 마을에 덕망있는 어른 중에 집안에 번고가 없고 생기복덕이 닿는 사람을 제관으로 선출했다. 유사는 두명을 뽑아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주민들 중에 부정탄 사람은 얼씬도 못하게 하며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만약 제사를 올리기 전에 동네에 초상이 나면 날짜를 연기하였으며 만약 중복해서 두세번의 부정탄 일이 생기면 아예 산신제를 취소하였다. 특히 산신제 3일전에는 더욱 조심하며 부정탄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다.

제물은 통돼지 한마리와 포, 술, 삼색실과, 피등을 진설하였는데 당일 유사가 직접 제단 앞에서 밥을 짓는다. 밤 10시쯤 제관과 유사가 함께 산에 올라 제의를 치루며 축문을 읽고 주민들의 소지를 올려준다. 이 시간에 동네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모두 묵념을 하면서 함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제관과 유사가 산에서 내려온 후에는 제물을 나눠 먹고 음복하였다.

청송2리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오던 산신제의 전통은 1996년에 ‘미신타파’라는 이유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때에도 지켜졌



〈산신제 터〉

던 전통이 이때에 중단된 것은 미신이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인구가 줄어들고 생활이 현대화되면서 그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 풍물치고 빈대떡 부쳐먹고

1970년대 이전까지 농기계가 보급되지 않았을 때에는 모내기와 김매기 등 고된 노동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 힘들었다. 마을 두레가 있어서 이때마다 깃발 들고 풍물을 쳐가며 다같이 이 논 저 논을 돌았는데 이 무렵만 해도 절기마다 동네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해 먹고 민속놀이판을 벌이는 것이 큰 즐거움 중 하나였다. 대부분의 전통이 사라졌지만, 정월달 율놀이와 사물놀이는 지금도 종종 행해진다. 특히 편를 나누어 승부를 벌이면 더욱 흥미진진하여 주민 모두가 참여한다. 한여름 칠석날에는 회관에 모여 빈대떡을 부쳐먹고 풍물을 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5. 생활환경

■ 산을 뜯어먹고 산다.

마을 입구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는 안말까지는 700m 정도의 거리인데 이곳은 경사지대이고 경지정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계단식 논이 그대로 남아있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주 생산물은 쌀이다. 일부 주민이 밤 등의 과수원을 하기도 했지만,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일이 고된 과수원이나 축산업은 줄어드는 형편이다.

예로부터 농의 소득은 별채였다. 운주산과 펠레야 펠 수 없는 관계의 청송2리 사람들은 스스로 ‘산 뜯어먹고 산다’고 할 만큼 산과 함께 살아왔다. 산에서 나무를 해 조치원에 내다 팔았는데 만약 나무 10몽치를 했다면 3몽치를 팔고 나머지는 산주



〈섬장골과 계단식 논〉

에게 주는 식이었다. 별채가 한창일때에 산 주인은 동네사람이었다. 별채가 중지되면서는 농한기에 노동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농경지가 좁고 힘든 별채를 하며 살았어도 1960년대에는 63호가 사는 큰 마을이었다. 조선시대 89호가 살았던 기록에 비하면 이때에도 인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에 비하면 동네가 북적이던 시절이었다.

■ 줄어든 농경지

대재마을 입구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자리잡고 있다. 공사에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주변의 농지 대부분이 공사 소유가 되었다. 큰 건물물이 자리잡고 있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다.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 아니었지만, 국가 기관이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처음 공사가 토지를 매입할때에도 주민들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저 당시의 지가(地價)보다 더 높게 쳐준다 하여 대재마을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팔았다고 한다. 그 후 수자원공사가 들어섰고, 농경지가 없어진 사람들은 남의 땅을 경작하거나 도시에 직장을 얻어 고향을 떠나는 경우도 생겼다. 마을 전체의 농토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서 경지정리도 안되는 상태이다. 보통 3만평 이상의 넓이가 되어야 경지정리사업 대상이 되는데 이 정도의 넓이도 안되기 때문이다.

■ 오암교회

안말 마을회관의 건너편에는 오암교회가 있다. 1996년경 목사 홍성후씨가 교회를 짓기 위해 이곳의 대지를 사들였는데 처음에는 산 아래의 땅이 교회 부지가 되었다. 그러나 상수원이 자리한 곳이라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자 현재의 자리로 옮겨 교회를 짓고 오암복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오암복지원〉

■ 고속철도 공사의 후유증

마을의 뒤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운주산의 몸통으로 고속철도가 지난다. 청송2리에서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땅 속 터널이지만 이웃한 청송1리에서는 철길이 보인다. 철도 공사는 두 마을의 생활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철길공사가 시작되면서 청송2리에서는 갑자기 물길이 끊어졌다. 계곡물도 사라지고 지하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반대로 청송1리에는 터널 옆으로 맑은 물이 쏟아져 흐르기 시작했다. 수질테스트에서 최상급의 판정을 받을만큼 좋은 물이었기에 청송1리에서는 철도 소음이 심해도 물이 나오게 된 것 만은 환영할 일이라 할 정도였다. 청송2리에서는 이 상태가 3년여간 계속되자 주민들의 고통은 대단하였다. 수차례 연기군에 항의한 끝에 관정공사가 이뤄지고 상수도 시설도 되어 지금은 물걱정을 잊고 산다. 그러나 맑은 물 흐르던 과거를 생각하면 여전히 안



〈마을회관〉



〈부녀회〉



〈도움주신분(한영수)〉



〈이창환, 황용균 공덕비〉

타깝기만 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고속철도가 지나는 터널은 지하 70m, 폭 40m정도 되는 굴인데 물이 얇은 곳으로 흐르다보니 운주산 암반 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모두 이곳으로 쓸리게 된 것이었다. 물길이 흐르는 길은 터널이 뚫린 청송 1리로 향하였고 지금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 역대 이장

청송리가 1,2리로 분리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지만 그 전에도 잠시 분리되었다 통합된 적이 있

다. 이에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기한을 알 수 없다. 하나의 마을이었을때에는 전체 주민이 모여 이장을 함께 선출하였다. 동계장이 별도로 존재한 것은 지금과 다르지 않다. 전동면사무소에 보존되어있는 역대 이장 명단은 1990년의 이창환씨 부터 현재의 권용석 이장까지 9대 이장에 관한 기록이다. 이전 시기의 이장은 주민들의 기억에 의존하자면 일제강점기에 권혁세(약 9년), 구번희(약 7년), 권순봉(약 6년), 신국범씨(약 4년) 등이 일을 맡아 보았고 그 후 이현, 권처상, 구분웅, 박원명씨 등이 차례로 이장으로 선출되었다.

• 제보자(2010년 현재)

제보자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연락처(전화)
한 영 수	73	남	농업	863-1669

• 마을의 생활문화 환경

인구(명)			가구(호수)			면적(ha)				
총	남	여	총	농가	비농가	총	논	밭	임야	기타
163	73	90	70	49	21	73.06	16.2	16.86	39.67	0.33
특산물 : 복숭아, 배					축산물(두) : 한우					

• 반별현황

반별	자연마을명	반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1	안말	최 양 례	48	863-1078
2	대재	김 옥 희	31	863-5088

• 마을조직

구 분	대표성명	구 분	대표성명
이 장	권 용 석	노 인 회	구 번 성
위 친 계	이 영 구	부 녀 회	박 금 옥
새 마을 지도 자	이 영 구	청 년 회	구 훈 모
개 발 위 원	김 정 국		

• 공동시설물

시설명	주소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도	관리자
마을회관(구)	375-7	353m ²	66.05m ²	1993	이장
마을회관	364-1	683m ²	117.64m ²	2002	이장

• 역대 이장명단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대수	성명	임명일	사임일	비고
1	구 분 응	87.5.1	88.1.26		7	박 원 명	97.1.20	99.1.18	
2	이 창 환	88.2.1	90.1.20		8	이 창 환	99.1.18	01.3.10	
3	이 창 환	90.1.20	92.1.20		9	권 용 석	01.3.10	05.3.10	
4	이 창 환	92.1.21	94.1.22		10	권 용 석	05.3.10	07.3.12	
5	이 창 환	94.1.23	96.1.22		11	권 용 석	07.3.12	10.3.11	
6	이 창 환	96.1.23	97.1.19		12	권 용 석	10.3.11		

전동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위원장 : 김웅기(조치원농협 조합장)
부위원장 : 최병식(운주산 고산사)
감사 : 한상익(이장)
총무 : 정용화(주민자치위원장)
위원 : 변영호
황순덕
오광교
이효선
권용천
이승재
이혁재
노기섭
송원송
오영진
권처은
한영수
이종문
홍성용
양기천
정옥균
이기영
문명국
박병익
안호상
박상호
임재현
임현주
이종국
김영수
오승교

감수위원

정용화 : 지리편
정규호 : 역사편, 문화유적편
전병훈 : 전통문화편, 마을지 일부(전동면 남부지역 일부)
황순덕 : 정치·행정편, 기관·단체편
한문수 : 산업·경제편, 마을지 일부(전동면 남부지역 일부)
박영진 : 마을지중 전동면 북부지역 전체

집필진

제1장 지리 : 최원희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제2장 역사 : 박재용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선사시대~통일신라시대
홍제연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고려시대~조선시대
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일제강점기~현대
제3장 전통문화 : 박종익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제4장 행정과 정치 : 정현애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제5장 산업과 경제 : 임형빈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6장 문화유적 : 강경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위촉연구원)
제7장 기관·단체 : 신유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보조원)

全東面誌

발행일 2011년 12월 28일

발행처 전동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충청남도 연기군 진동면 운주산로 386

편집·교정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백제충청학연구팀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103

제 작 주류성출판사

ISBN 978-89-6246-071-1 93090